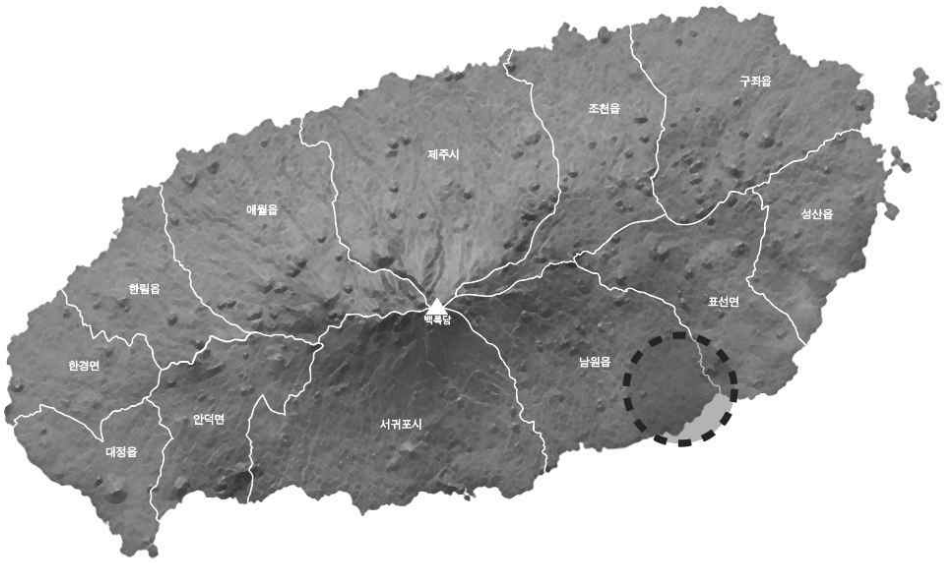
발간 등록 번호
79-6500000-000560-01

2019년도 제주어구술자료집 25

-남원읍 태흥리

구술: 오윤생
채록·전사: 김미진
표준어 대역: 권미소, 김미진



제주특별자치도
JRI 제주학연구센터

2019년도 제주어구술자료집(21-28)은 제주특별자치도의 공기관 대행 사업을 수탁한 제주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에서 작성하였습니다.

2019년도 제주어구술자료집 25

목 차

Ⅰ. 사업 개요

1. 사업 목적 ····· 5
2. 사업 기간 ····· 5
3. 사업 참여자 ····· 5
4. 조사 지점과 제보자·조사자 ····· 6
5. 사업 추진 과정 ····· 6
6. 표준어 대역 ····· 8
7. 주석 ····· 8

Ⅱ. 구술 자료

1. 조사 마을 ····· 9
2. 제보자 일생 ····· 20
3. 밭일 ····· 56
4. 들일 ····· 162
5. 바다일 ····· 202
6. 의생활 ····· 251
7. 식생활 ····· 303
8. 주생활 ····· 408

Ⅰ. 사업 개요

1. 사업 목적

‘2019 제주어 채록 사업 자료 표준어 대역 발간 및 보급 사업’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개년에 걸쳐 진행된 ‘제주어 구술 채록 사업’ 종료에 따라 구술 자료를 대중에게 널리 보급하고 활용할 수 있게 제주어 자료를 표준어로 대역하는 데 목적이 있다.

3개년에 걸쳐 이루어진 채록 사업의 성과물인 ≪제주어구술채록보고서≫(1~36)는 현장에서 조사된 내용을 그대로 전사하였기 때문에 지역적 특성은 물론 어휘적 특색으로 말미암아 누구나 쉽게 접근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 이 보고서는 제주어를 어느 정도 알아야만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어서 보고서 활용에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이용의 제한을 극복하고 누구에게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려면 제주어 구술 자료를 표준어로 대역하고 주석을 다는 작업이 불가결한 일이다.

나아가 표준어로 대역하고 주석을 달아 만든 ≪제주어구술자료집≫은 <제주어 보전 및 육성 조례> 제12조에도 부합한 일로, 소멸 위기의 제주어의 보전과 그 가치를 널리 알리는 데에도 기여할 것이다.

2. 사업 기간

2019년 3월 25일~2019년 12월 31일

3. 사업 참여자

‘2019 제주어 채록 사업 자료 표준어 대역 발간 및 보급 사업’에 참여하는 대부분의 연구진은 2014년부터 시작한 ‘제주어 구술 채록 사업’의 인력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현지 조사와 표준어 대역 담당자를 동일하게 함으로써 이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되리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렇게 현지 조사와 표준어 대역을 동일인으로 담당하게 한 것은 조사할 때의 발화 상황은 물론 조사 분위기를 파악할 수 있어서 표준어 대역 작업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어서다.

또 현지 조사자와 표준어 대역 연구자를 동일인으로 한 것은 조사할 때 미흡했던 내용이나 잘못된 내용을 수정, 보강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더불어 추가 조사의 편이성도 고려하였다.

‘표준어 대역’ 사업의 연구진 현황은 <표 1>과 같다.

〈표 1〉 연구자 현황

이름	소속	분야	구분
김순자	제주학연구센터	국어학(제주도방언)	연구 책임・총괄 성산읍 온평리
김미진	제주학연구센터	국어학(제주도방언)	공동 연구 남원읍 태흥리
강영봉	(사)제주어연구소	국어학(제주도방언)	교열 및 감수
안민희	민요패 소리왓	한국학(제주민요)	조천읍 신촌리
김승연	(사)제주학연구소	한국학(제주무속)	제주시 우도면
허영선	제주대학교	한국학(제주역사)	성산읍 온평리
최연미	돋을양지책드르	국문학	표선면 세화리
권미소	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국어학(제주도방언)	남원읍 태흥리
김보향	제주대학교	국어학(제주도방언)	한경면 신창리
신우봉	제주대학교	국어학(제주도방언)	한림읍 옹포리
김성룡	귀일중학교	국어학(제주도방언)	애월읍 구엄리
현혜림	제주학연구센터		연구 보조
서수빈	제주학연구센터		연구 보조

4. 조사 지점과 제보자·조사자

‘2019 제주어 채록 사업 자료 표준어 대역 발간 및 보급 사업’의 조사 지점, 제보자, 조사자를 보이면 <표 2>와 같다.

〈표 2〉 조사 지점과 제보자·조사자

번호	조사 지점	제보자	조사자
21	조천읍 신촌리	김옥녀, 이명언	안민희
22	제주시 우도면	한두영, 고옥녀, 홍한옥	김승연
23	성산읍 온평리	송옥금, 강문홍, 강백년	김순자·허영선
24	표선면 세화리	강필문, 고옥화, 송인생, 장술생, 강기수, 김정자, 현봉화, 김양선	최연미
25	남원읍 태흥리	오윤생	김미진·권미소
26	한경면 신창리	진인중, 이순녀	김보향
27	한림읍 옹포리	장경욱, 양순자, 장정자, 김화원	신우봉
28	애월읍 구엄리	김여환, 홍창자	김성룡

5. 사업 추진 과정

‘2019 제주어 채록 사업 자료 표준어 대역 발간 및 보급 사업’은 총 9개월여가 소요

되었다. 현지 조사에서 미진한 부분이나 잘못된 내용을 조사하기 위하여 추가 채록을 실시하고, 조사된 내용을 전사하도록 하였다.

전사의 통일성과 표준어 대역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연구진 회의를 개최하였다. 연구진 회의는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 열렸는데, 이때 도출된 문제점을 해결하여 제주어 표기와 표준어 대역을 통일하려고 애썼다. 연구진 모임을 매달 가진 것은 오류를 가급적 줄이고 통일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다음은 회의를 거치며 통일시킨 내용이다.

-제주어 표기는 <한글 맞춤법>에 따라 제주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체언과 조사, 어간과 어미를 구분하여 표기하도록 한다.

-개인 정보는 숨김표로 표시하고, 청취가 안 되는 부분은 음절수만큼 꽃표(**)를 사용한다.

-필요하지 않은 잡담은 삭제한다.

-띄어쓰기는 <한글 맞춤법>에 따라 제주어와 표준어를 동일하게 한다.

-문장부호 가운데 마침표와 쉼표는 휴지(休止)와 문맥에 따라 표시한다.

-'하다'의 경우 'ᄒᆞ다'가 아닌 경우는 '허다'로 표기한다. '허는구나, 헷구나'처럼 'ㅓ'로 통일한다. 분명하게 '하다'로 발음한 경우에는 '하다'도 허용한다.

-표준 발음과 달리 제보자의 발음이 된소리로 나는 경우는 원형을 밝히어 적되, 발음 기호인 대괄호([ ]) 안에 표기한다.

-보고서의 번호는 2018년에 이어 제주시를 기준으로 동쪽부터 표기한다. 제주시의 표준어 대역 자료가 없기 때문에 '조천읍 신촌리' 구술 자료가 『2019년도 제주어구술자료집 21』이 되는 것이다. 구술 자료의 @는 조사자, #은 제보자라는 표시이다. 제보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1, #2, #3 …처럼 표시하였다.

-활자 크기는 11포인트로 하고, 첫 줄은 '들여쓰기'를 하였다.

-장 구분은 두 줄을 띄었다.

한편 월별에 따른 주요 추진 내용은 <표 3>과 같다.

〈표 3〉 월별에 따른 추진 내용

구분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현지 추가 채록	■	■								
추가 전사			■	■						
표준어 대역			■	■	■	■	■	■		
자료집 편집·교열, 감수					■	■	■	■	■	
자료집 발간										■

6. 표준어 대역

표준어 대역의 근거는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 두었으며, 몇 가지 원칙을 정하여 통일을 기하려고 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조사된 자료 가운데 10시간 분량의 구술 자료를 표준어로 대역한다. 이는 조사자에 따른 구술 분량이 다르기 때문에 일의 형평성을 고려한 것이다.
- 조사된 내용 순서에 따라 표준어 대역을 한다. 곧 조사자와 제보자가 묻고 답하는 형식으로 조사했기 때문에 표준어 대역 또한 이에 따른다.
- 표준어 대역은 소괄호(()) 안에 넣는다.
- 표준어 대역은 직역을 원칙으로 한다. 의역할 경우는 문맥에 맞게 주석에서 그 내용을 밝힌다.
- 대응 표준어가 없는 경우에는 제주어를 그대로 옮겨 작은따옴표(‘ ’)로 표시하고, 주석에서 그 내용을 밝힌다.(예: ‘바령팟’을)
- ‘에, 으’ 따위의 담화 표지도 가급적 그대로 둔다.
- 외래어는 번역하거나 부득이한 경우는 외래어를 그대로 둔다.

7. 주석

주석은 원칙적으로 표준어로 바꿀 수 없는 경우, 문맥에 따라 그 의미가 달리 쓰인 경우, 지명 등 부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로 한정하였다. 모아진 의견은 다음과 같다.

- 주석은 각주로 하되, 주석한 제주어에 주 번호를 부여한다.
- 주석은 주어-서술어의 호응 관계를 고려하여 작성한다.
- 주석의 대상은 대응 표준어가 없을 경우, 본래의 뜻과 달리 쓰인 경우, 이해를 돕기 위한 경우 등으로 한다.
- 지명인 경우는 이해를 돕기 위하여 간단하게 주석을 한다.
- 조사 과정의 분위기를 전달하기 위한 경우에도 주석으로 처리한다.
- 동일한 내용을 주석으로 처리할 때는 면수(3~4면 간격)를 고려하여 작성한다.

Ⅱ. 구술 자료

(@ 김미진, # 오윤생)

1. 조사 마을

101001 @ 이 마을은 언제쯤에 만들어젼마씨?(이 마을은 언제쯤에 만들어졌어요?)
101001 # 이 마을?(이 마을?)
101001 @ 응.(응.)
101001 # 우리 ᄋᆞᆨ안[1]보난 이디 마을이 잇어부난 어느 때쯤 만든 건 몰른디 이 마을이 사름이 이디 멧 가위 엇어낫어.(우리 '욱아'서 보니까 여기 마을이 있어서 어느 때쯤 만든 건 모르는데 이 마을이 사람이 여기 몇 가구 없었었어.)
101001 @ 응.(응.)
101001 # 혼 우리 어릴 때에 기자 여남은 가위 잇어신가? 요 아래 멧 가위 이섯고 요 신작로엔 우리 이모네 사는디 집 혼 가오, 두 가오, 세 가오. 신작로 우쪽에 집이 세 가오 잇어나고 일로 알르렌 멧 가오 잇어난지 몰르크라.(한 우리 어릴 때에 그냥 여남은 가구 있었나? 요 아래 몇 가구 있었고 요 신작로엔 우리 이모네 사는데 집 한 가구, 두 가구, 세 가구. 신작로 위쪽에 집이 세 가구 있었었고 이리로 아래론 몇 가구 있었는지 모르겠어.)
101001 @ 아.(아.)
101001 # 태흥 삼리 여기. 엿날엔 이 동네이 집도 멧 가우 엇어나서이. 이 일대 문 헤먹어난 밧이고 요 동녘집 요거 ᄒᆞ나 잇고 요짝에 요 집 하나, 요 우녁펜이 집하나 멧 집 엇어나서. 지금 요디 법당 집, 옛날 집 그 동서 집 또 저펜더레 가는 집. 이 삼 리헷 짜 혼 스무 가호 잇어시카? 저 우이 올라가민 장밧이라고 헌 디 그디 가민 이제 이 태흥리 안네서는 이 남원읍에서는 김 참서 집이엔 허민 모르는 디가 엇어. 그디는 저 우에 그디 가민 혼 가족만이라, 그딘 하르방이 애기가 혼 일곱오누인가 아들만 다섯인가 난 손지들이영 막 벌어지난 그자 그디 혼 가족만 살앗주, 일로 이렌 이디 사람 멧 개 엇어난. 이제사 육지서도 들어오고 외지서도 들어오곡 헤가난 영 가호가 이섯주. 이디도 요 집 ᄒᆞ나 잇고 요거 집 ᄒᆞ나 잇고 또 저쪽에 가민 집 두 가위 저레 가민 혼 일로 이레 혼 스무 가위가 서신가 경헨 살아낫어, 이디 옛날에.(태흥 삼리 여기. 옛날엔 이 동네 집도 몇 가구 없었어. 이 일대 모두 해먹었던 밭이고 요 동녘집 요거 하나 있고 요쪽에 요 집 하나, 요 오른쪽 편에 집 하나 몇 집 없었어. 지금 요기 법당 집, 옛날 집 그 동서 집 또 저편으로 가는 집. 이 삼리 해도 한 스무 가구 있었을까? 저 위에 올라가면 '장밧'이라고 한 데 거기 가면 이제 태흥리 안에서는 이 남원읍에서는 김 참서 집

1) '욱다'는 말귀를 알아듣고 혼자 판단할 만큼 성장하다는 뜻의 제주어다.

이라고 하면 모르는 데가 없어. 거기는 저 위에 거기 가면 한 가족만이야, 거긴 할아버지가 아기 한 일곱 오누인가 아들만 다섯인가 낳아서 손자들이랑 막 벌어지니까 그저 거기 한 가족만 살았지. 이리로 이린 여기 사람 몇 명 없었어. 이제야 육지서도 들어오고 외지서도 들어오고 해가니까 이렇게 가구가 있었지. 여기도 요 집 하나 있고 요거 집 하나 있고 또 저쪽에 가면 집 두 가구 저리 가면 한 이리로 이리 한 스무 가구가 있었나, 그렇게 해서 살았었어, 여기 옛날에.)

101001 @ 그믄 더 막 옛날에는 태흥리 어떵헤근에 생겨신고, 들어난 말 이수가?(그러면 더 아주 옛날에는 태흥리 어떻게 해서 생겼는가, 들었던 말 있습니까?)

101001 # 들어난 말 엇어.(들어난 말 없어.)

101001 @ 언제부터 영 사름 많이 살앗수과?(언제부터 이렇게 사람 많이 살았습니까?)

101001 # 이 시국[2]으로 후에.(이 시국으로 후에)

101001 @ 아.(아.)

101001 # 이 시국으로 후에 이디 성담 다완에 살아가는 것이 ᄎᄎᄎᄎ 이디서 난 이디서 큰 사름이 이디만 집 짓으멍 살앗주, 어디 웨지에 사름은 엇어낫어. 경헌디 이젠 웨지에서 육지서 하영 오고, 이디.(이 시국으로 후에 여기 성담 쌓아서 살아가는 것이 차차차차 여기서 나서 여기서 큰 사람이 여기만 집 지으면서 살았지, 어디 외지의 사람은 없었었어. 그런데 이젠 외지에서 육지에서 많이 오고 여기.)

101001 @ 기지예.(그렇지요.)

101001 # 육지 사름덜이 하영 왕 살아. 경허난 집이 불어난 거지. 그자 이디서 낭 이디서 큰 사름 그자 이디 집 짓으멍 살곡, 집 짓으멍 살곡 허난 핫주.(육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살아. 그러니까 집이 늘어난 거지. 그냥 여기서 낳아서 여기서 큰 사람 그냥 여기 집 지으면서 살고, 집 지으면서 살고 하니까 많지.)

101002 @ 이 마을엔 주로 무신 성씨가 하?(이 마을엔 주로 무슨 성씨가 많아?)

101002 # 이 마을에.(이 마을에.)

101002 @ 김씨, 이씨 영허는.(김씨, 이씨 이렇게 하는.)

101002 # 이 마을에는 김씨가 ᄒᆞ쏠 할 거라. 그다음 오씨가 하고.(이 마을에는 김씨가 조금 많을 거야. 그다음 오씨가 많고.)

101002 @ 오씨가 하고.(오씨가 많고.)

101002 # 김씨, 오씨가 하주. 강가도 멧 안 뒈고.(김씨, 오씨가 많지. 강가도 몇 안 되고.)

101002 @ 응.(응.)

101002 # 최씨엔 헌 건 엇고.(최씨라고 한 건 없고.)

101002 @ 응.(응.)

101002 # 육지서 온 사름 건.(육지서 온 사람 그건.)

---

2) '시국'은 현재 당면한 국내 및 국제 정세나 대세 등을 말하는 것이나 여기서는 1948년부터 시작된 '제주4·3'사건을 말하는 것 같다.

101002 @ 육지서 온 사름은 말고게.(육지서 온 사람은 말고.)

101002 # 흔 사름 건 육지서 온 사름, 최씨가 엇고 이딘. 강가허고 김씨가 하주.(한 사람 그건 육지서 온 사람, 최씨가 없고 여긴. 강가하고 김씨가 많지.)

101002 @ 김씨허고 오씨.(김씨하고 오씨.)

101002 # 오씨.(오씨.)

101003 @ 이 동네 사름들은 주로 무신 일허멍 살아낫수과?(이 동네 사람들은 주로 무슨 일하면서 살았었습니까?)

101003 # 옛날에 이디 사름덜은이 어둑아근에 그자.(옛날에 여기 사람들은 어두워서 그냥.)

101003 @ 밧 허고.(밭 하고.)

101003 # 밧농사허는 거. 그자 저.(밭농사하는 거. 그저 저.)

101003 @ 바당에.(바다에.)

101003 # 바당에 강 고기 잡는 거 그거. 나 원 이디 사름덜 무시거 허는 걸 못봣어. 경헌디 욜로 우트레, 저 우트레 또 올라가민 건 김칩이라고 딱 흔 집 가족만. 흔 가족만 건 김 참서, 김 참서허영 어디 가도 이제 우리 저디 하르방 정도는 태흥 삼리 장밧[3]듸 김칩허민 장밧 김칩이엔 허민 그 집 막 벌어졋어. 아덜이 다섯 성제, 으답 오누이 딱 그 가족만 살앗어. 주손덜이 막 벌어지난. 그디 살단 이 시국엔 남원이도 강 살아불곡. 어디 태흥리 저 이리도 강 살아불곡. 그 퍼기가 엇어. 이디 요디 김○○이엔 헌 사름 흑나만 이디 잇주. 그디 흔 가족만 잇주, 남원이로 저 태흥 이리로 다 가부난 원 그딘 딱 흔 가족만 저 우이 살아낫어, 우에.(바다에 가서 고기 잡는 거 그거. 나 원 여기 사람들 무엇 하는 걸 못 봤어. 그런데 요리로 위로, 저 위로 또 올라가면 그건 김씨 집이라고 딱 한 집 가족만. 한 가족만 그건 김 참서, 김 참서해서 어디 가도 이제 우리 저기 할아버지 정도는 태흥 삼리 '장밧'에 김씨 집하면 '장밧' 김씨 집이라고 하면 그 집 아주 벌어졌어. 아들이 다섯 형제, 여덟 오누이 딱 그 가족만 살았어. 자손들이 아주 벌어지니까. 거기 살다가 이 시국엔 남원에도 가서 살아버리고. 어디 태흥리 저 이리도 가서 살아버리고. 그 일가친족이 없어. 여기 요기 김○○이라고 한 사람 하나만 여기 있지. 거기 한 가족만 있지, 남원으로 저 태흥 이리로 다 가버리니까 원 거긴 딱 한 갖고만 저 위에 살았었어, 위에.)

101003 @ 주로 옛날엔 밧일, 보리, 조.(주로 옛날엔 밭일, 보리, 조.)

101003 # 원 그거. 이디선 밧농스 어디 논이 시카, 그자. 그자 조, 보리 여름농손 모를, 콩 그자 그거 주로. 산뒤. 원 그거주.(원 그거. 여기선 밭농사 어디 논이 있을까, 그저. 그저 조, 보리 여름농산 메밀, 콩 그저 그거 주로. 밭벼. 원 그거지.)

101003 @ 경허단. 이제 미깡 나난 미깡예.(그러다가 이젠 귤 나니까 귤요.)

101003 # 미깡 나난 이젠 미깡덜 나부난에 뭐 막 스못 하우스 미깡이여 무스거여 허난 막 부제가 뒛주. 그전인 경 부제로 사는 사름도 엇엇고. 요 장밧퍼기[4] 떨어불민 원

3) '장밧'은 남원읍 태흥리의 한 지역 이름이다.

4) '장밧퍼기'는 남원읍 태흥리 지명인 '장밧'에 일가친족 뜻하는 '퍼기'를 결합한 말이다.

부제로 사는 사름도 엇고. ᄇᆞ뜻 이녁 밥 먹어.(귤 나니까 이젠 귤들 나버리니까 뭐 막 사뭇 하우스 귤이야, 무엇이야 하니까 막 부자 됐지. 그전엔 그렇게 부잘 사는 사람도 없었고. 요 '장밧퍼기' 빼 버리면 원 부자로 사는 사람도 없고. 바듯 자기 밥 먹어.)

101003 @ 이딘 바당 가까우난 바당일도 하영 허고예.(여긴 바다 가까우니까 바닷일도 많이 하고요.)

101003 # 바당에 해녀덜 물질 잘허는 사름은 해녀덜 바당에 살고.(바다에 해녀들 물질 잘하는 사람은 해녀들 바다에 살고.)

101003 @ 궤기 나끄레도 다니고.(고기 낚으러도 다니고.)

101003 # 궤기 나끄레 배도, 배가 멧 개 엇어. 배 두 척. 배 두 척 헹 그자. 사름이 하지 안허난. 그거 헨 뎅기단 이제 이 개ᄆᆞ디 배도 엇고, 이제. 배 부리는 사름도 엇고.(고기 낚으러 배도, 배가 몇 개 없어. 배 두 척. 배 두 척 해서 그냥.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그거 해서 다니다가 이제 이 갯머리에 배도 없고, 이제. 배 부리는 사람도 없고.)

101003 @ 개맛은 갯ᄀᆞ이 개맛?('개맛'은 갯가가 '개맛'?)

101003 # 개맛이엔 헌 건 이 배 메는 게 개맛.('개맛'이라고 한 건 이 배 매는 게 '개맛'.)

101003 @ 축항?(포구?)

101003 # 응, 축항 안네가 개맛. 옛날엔 개맛. 요즘은 축항, 축항헤도 엿날엔 개맛. 이 배 메는 것이 개맛이라낫어. 게난 개맛, 개맛 허는 게 옛날 말. 이젠 축항.(응, 포구 안이 갯머리. 옛날에는 '개맛'. 요즘은 포구, 포구 해도 옛날엔 '개맛'. 이 배 매는 것이 갯머리였었어. 그러니까 '개맛', '개맛' 하는 게 옛날 말. 이젠 축항.)

101003 @ 예.(예.)

101003 # 축항 영 허주마는 옛날은 축항 말이 엇어. 개맛. 배 메는 디가 개맛.(축항 이렇게 하지마는 옛날은 축항 말이 없어. '개맛'. 배 매는 데가 '개맛'.)

101004 @ 이 마을 주변에 산이나 바다, 내, 내창도 이수과?(이 마을 주변에 산이나 바다, 내, 내창도 있습니까?)

101004 # 아, 내창은 잇어.(아, 내창은 있어.)

101004 @ 이름 무신거꽈?(이름 무엇입니까?)

101004 # 도네기통[5].('도내기통'.)

101004 @ 도네기통?('도내기통'?)

101004 # 응. 도네기통, 도네기통. 욜로 신흥리광 이 삼리 사이에 잇어. 그디가 도네기통, 도네기통 허멍 그디 물통이 잇어낫어, 아래.(응. '도네기통, 도네기통'. 요리로 신흥리와 이 삼리 사이에 있어. 거기가 '도네기통', '도네기통' 하면 거기 물통이 있었었어, 아래.)

101004 @ 아, 물통?(아, 물통.)

101004 # 하시[6] 아래 물 잇어근에 그 물 우리가 질어 먹어낫어. 요것도 조곰엔 물

---

5) '도네기통'은 남원읍 태흥리의 하천 이름이다.

6) '하시'는 일본어 'はし'에서 온 말로 다리라는 뜻이다.

이 덤부랑허게 ᄀᆞᆯ라 잇고 물끼엔 물 짝 싸불민 물이 ᄇᆞ따비어.(다리 아래 물 있어서 그 물 우리가 길어 먹었었어. 요것도 조금엔 물이 많이 고여 있고 물때에 물 쫙 써버리면 물이 밭아버려.)

101004 @ 아.(아.)

101004 # 들고 나고 허는 물이라. 물 싹 ᄇᆞ따비엉 엇엇당 물이 어느 정도 들민 물이 나와 이 물이. 갯ᄀᆞᆺ 이 바당물이나 똑ᄀᆞ따. 게민 요 물 나민, 그 도네기통, 도네기통 허멍 그 하시 아래 물이 이선 먹어낫어. 질멍덜.(들고 나고 하는 물이야. 물 싹 밭아버려서 없었다가 물이 어느 정도 밀면 물이 나와, 이 물이. 갯가 이 바닷물이나 똑같아. 그러면 요 물 나면, 그 '도네기통', '도네기통' 하면서 그 다리 아래 물이 있어서 먹었었어. 길면서들.)

101004 @ 아.(아.)

101004 # 게신디 이젠 문 각처 수도 묻어부난 그거주. 경 안허민 그디가 이 신작로 아래 사름은 이디 갯물을 먹고, 신작로 우에 사는 사름은 그디 간 물 질어당 먹고 헤낫어. 저 '도네기통'이엔 헌 디.(그렇게 했는데 이젠 모두 각처 수도 묻어버리니까 그거지. 그렇게 안 하면 거기가 이 신작로 아래 사람은 여기 갯물을 먹고, 신작로 위에 사는 사람은 거기 가서 물 길어다가 먹고 했었어. 저 '도네기통'이라고 한 데.)

101004 @ 이디 갯물은 이름 엇수과?(여기 갯물은 이름 없습니까?)

101004 # 갯물 이름 엇어. 개맛물, 개맛물 허단 저거 축항 만들멍 막 파부난.(갯물 이름 없어. '개맛물', '개맛물'하다가 저거 포구 만들면서 막 파버리니까.)

101004 @ 개맛물?('개맛물'?)

101004 # 응, 개맛물. 배 메는 개맛딘디 물이 잇어서이. 그 물 이제 놔둬시민 완전 이디 발전뒈실 거여.(응, '개맛물'. 배 매는 갯머리인데 물이 있었어. 그 물 이제 놔뒀으면 완전 여기 발전되었을 거야.)

101004 @ 주로 물 질레 가는 건 도네기통허고 개맛물.(주로 물 길러 가는 건 '도네기통'하고 '개맛물'.)

101004 # 겐디 시국 난 후젠 이 도네기통물 안 먹어봣어. 이디 물만 먹엇주. 경허단 이제 수도 나부난 수돗물 먹고 경 헤난.(그런데 시국 난 후엔 이 '도네기통'물 안 먹어봤어. 여기 물만 먹었지. 그렇게 하다가 이제 수도 나버리니까 수돗물 먹고 그렇게 했었어.)

101004 @ 이 앞이 바당 이름은 무시거엔 헙니까?(이 앞에 바다 이름은 뭐라고 합니까?)

101004 # 이 앞이 바당 일름 엇어.(이 앞에 바다 이름 없어.)

101004 @ 그믄 이 동네 일름은? 옛날 일름.(그러면 이 동네 이름은? 옛날 이름.)

101004 # 옛날 일름은 이디ᄀᆞ라 저 덕둑케[7].(옛날 이름은 여기보고 저 '덕둑케'.)

101004 @ 덕둑케.('덕둑케'.)

101004 # 산것[8]이엔도 ᄀᆞᆫ고 덕둑케엔도 ᄀᆞᆫ고.('산것'이라고도 말하고 '덕둑케'라곤

7) '덕둑케'는 남원읍 태흥리의 지명이다.

말하고.)

101004 @ 산것이엔도 곧고.('산것'이라고도 말하고.)

101004 # 응, 산것.(응, '산것'.)

101004 @ 이 앞이 바당도 일름이 잇지 안허여? 이디 이쪽엔 무신 바당 무신 바당 이런 거 엇어?(이 앞에 바다도 이름이 있지 않아? 여기 이쪽엔 무슨 바다 무슨바다 이런 거 없어?)

101004 # 아, 이디는 바당 일름 요디 여가 ᄒᆞ나 시난 앙당수[9].(아, 여기는 바다 이름 요기 여가 하나 있으니까 '앙당수'.)

101004 @ 앙당수?('앙당수'?)

101004 # 응. 또 저 동녁펜인 산것.(응. 또 저 동쪽편엔 '산것'.)

101004 @ 동녁펜인 산것.(동쪽편엔 '산것'.)

101004 # 아, 동녁펜인 산것.(아, 동쪽편엔 '산것'.)

101004 @ 바당 이름이?(바다 이름이?)

101004 # 응, 바당 이름이.(응, 바다 이름이.)

101004 @ 동네 일름도 산것인디.(동네 이름도 '산것'인데.)

101004 # 응, 엿날은 산것, 산것 그 바당 놘 글로 산것이엔 험 시작허난 그 바당 일름 놘에 산것, 산것 헤낫어. 산것이엔 헌 딘 저 웃동네라. 저 우에.(응, 옛날은 '산것', '산것' 그 바다 놓아서 그리로 '산것'이라고 하기 시작하니까 그 바다 이름 놓아서 '산것', '산것' 했었어. '산것'이라고 한 덴 저 윗동네야. 저 위에.)

101004 @ 응.(응.)

101004 # 그디ᄀᆞ라. 점 지는 할망이 ᄒᆞ나 살아나난 산것 할망, 산것 할망 헷주. 그 할망을 춧젠 허난 산것 할망. 또 요 우트렌 올라가민 장밧퍼기라고. ᄒᆞᆫ 퍼기만 사난, 장밧퍼기.(거기보고. 점 보는 할머니가 하나 살어서 '산것' 할머니, '산것' 할머니 했지. 그 할머니를 찾으려고 하니까 '산것' 할머니. 또 요 위로는 올라가면 '장밧퍼기'라고. 한 일가친족만 사니까 '장밧퍼기'.)

101004 @ 장밧퍼기?('장밧퍼기'?)

101004 # 응. 그딘 이녁 가족만 사난.(응. 거긴 자기 가족만 사니까.)

101004 @ 아까 김씨, 김 참판?(아까 김씨, 김 참판?)

101004 # 김칩이 ᄒᆞᆫ 퍼기만 사난에 장밧퍼기, 장밧퍼기 허멍 옛날에. 그 막 울르렁 그딘이 막 부제칩이난 제 지내는 집도 ᄯᅳ로, 조그만허게 요 방보다 ᄒᆞ쏠 크게 혜영 기와 올령. 지에, 제층집[10]이라고.(김씨 집이 한 일가만 사니까 '장밧퍼기, 장밧퍼기'하면서 옛날에. 그 막 올려서 거긴 막 부잣집이니까 제 지내는 집도 따로, 조그마하게 요 방보다 조금 크게 해서 기와 올려서. 기와, '제층집'이라고.)

101004 @ 지금도 이수과?(지금도 있습니까?)

101004 # 이젠 튿엇지. 요 어느 땐가 튿어 작년인가 어느 땐 튿엇어, 그 집. 가르각

8) '산것'은 남원읍 태흥리의 지명이며, 바다 이름으로도 사용된다.
9) '앙당수'는 남원읍 태흥리의 바다 이름이다.
10) '제층집'은 기와집을 말하는 것이다.

산 가부난 그디 오란 제를 안 지내난 지네 밧 헤먹젠 허난 튿어빗지게. 완전 그땐 김 참서엔 허민 제주도 안네선 몰른 사름이 엇어. 하르방이 김 참서 이제 어디 우리보단 ᄒᆞ쏠 우이 사름은 아무디 김 참서 그 하르방 ᄌᆞ손덜 허민 ᄌᆞ손덜은 몰라도 김 참서엔 허민 몰른 디가 엇어이. 이 산 앞인 다 알아.(이젠 뜯었지. 요 어 느 땐가 뜯어, 작년인가 어느 땐 뜯었어, 그 집, 제각각 가버리니까 거기 와서 제를 안 지내니까 자기네 밭 해먹으려고 하니까 뜯어버렸지. 완전 그땐 김 참서라고 하면 우리 제주도 안에선 모른 사람이 없어. 할아버지가 김 참서 이제 어디 우리보다 조금 위 사람은 아무 데 김 참서 그 할아버지 자손들 하면 자손들은 몰라도 김 참서라고 하면 모른 데가 없어. 이 산 앞엔 다 알아.)

101004 @ 응. 이 마을에 유명한 기관이나 이런 건 뭐 잇어낫수과?(응. 이 마을에 유명한 기관이나 이런 건 뭐 있었습니까?)

101004 # 엇어, 엇어. 그 집벳긔 유명난 디가 원 그디서 문 옛날은 이제 ᄀᆞ뜨민 서귀 해견[11]이민, 해견이민 그때 뭔 복으로 해견산듸 몰라. 해견이여, 서귀여, 뭐 그거벳긔 난 몰르크라.(없어, 없어. 그 집밖에 유명한 데가 원 거기서 모두 옛날은 이제 같으면 서귀, '해견'이면 '해견'이면 그때 뭔 복으로 '해견'인지 몰라. '해견'이다, 서귀다, 뭐 그거밖에 난 모르겠어.)

101004 @ 거 무신 말? 해견.(그거 무슨 말? '해견'.)

101004 # 해견이엔 헌 것도이, 이제 ᄀᆞ뜨민 읍사무소여 큰, 높은 직원이라이. 해견.('해견'이라고 한 것도, 이제 같으면 읍사무소다 큰, 높은 직원이야. '해견'.)

101004 @ 그런 사름이 살아낫다고?(그런 사람이 살았었다고?)

101004 # 응.(응.)

101005 @ 남원읍사무소는 남원에 잇고 태흥리에 이신 건 뭐라, 태흥리사무소벳긔 엇인 철이꽈?(남원읍사무소는 남원에 있고 태흥리에 있는 건 뭐야, 태흥리사무소밖에 없는 차례입니까?)

101005 # 태흥린 리사무소베낀 엇어. 이디 이사무소 싯듯 태흥리도 리사무소벳긔 엇고.(태흥리는 리사무소밖에 없어. 여기 리사무소 있듯 태흥리도 리사무소밖에 없고.)

101005 @ 태흥 일리, 이리, 삼리 노인훼관 잇고. 다 따로 잇고예?(태흥 일리, 이리, 삼리 노인회관 있고. 다 따로 있고요?)

101005 # 응, 따로따로 다.(응, 따로따로 다.)

101005 @ 사무손 ᄒᆞ나 아니?(사무소는 하나 아니?)

101005 # 우리 태흥 삼리도 사무실 잇고.(우리 태흥 삼리도 사무실 있고.)

101005 @ 아, 따로따로 사무실도.(아, 따로따로 사무실도.)

101005 # 저 이리도 잇고, 저 태흥 일리도 잇고. 따로따로.(저 이리도 있고, 저 일리도 있고, 따로따로.)

101005 @ 학교는 이리에 ᄒᆞ나 잇고예?(학교는 이리에 하나 있고요?)

101005 # 이리에 ᄒᆞ나 잇고. 태흥ᄆᆞ을에 ᄒᆞ나. 그건 ᄒᆞ나 잇고.(이리에 하나 있고.

11) '해견'은 읍사무소 높은 직원이라고 제보자는 설명하고 있다.

태흥 마을에 하나. 그건 하나 있고.)

101005 @ 응.(응.)

101005 # 부락마다 틀려. 이 리사무소는. 부락마다 다 틀려. 이녁 부락마다.(부락마다 달라. 이 이사무소는. 부락마다 다 달라. 자기 부락마다.)

101005 @ 이리가 젤 크지예?(이리가 제일 크지요?)

101005 # 응. 이리[12]가 커. 일리[13]보단도 이리가 커. 경헌디 이 사름 살아가는 건 저 태흥 일리 사름보단 이리 사름덜이 ᄒᆞ꼼 ᄆᆞᆯ려.(응. 이리가 커. 일리보다도 이리가 커. 그런데 이 사람 살아가는 건 저 태흥 일리 사람보단 이리 사람들이 조금 말려.)

101005 @ 무사?(왜?)

101005 # 어떵헌, 살아가는 게 ᄆᆞᆯ리는 셍이야. 우린 몰르는디 영 앚앙 ᄀᆞᆫ는 거 보민. 아니 태흥 일리 사름덜이.(어떻게 한, 살아가는 게 말리는 모양이야. 우린 모르는데 이렇게 앉아서 말하는 거보면. 아니 태흥 일리 사람들이.)

101005 @ 잘살아?(잘살아?)

101005 # 잘살고. 좀 이리 사름덜은 ᄒᆞ쏠 ᄆᆞᆯ려. ᄆᆞᆯ린다는 것은 물려, 물르다 허는 거주.(잘살고. 좀 이리 사람들은 조금 말려. 말린다는 것은 물러, 무르다 하는 거지.)

101005 @ ᄒᆞ꼼 물러?(조금 물러?)

101005 # 응, 물르다 허는 거.(응, 무르다 하는 거.)

101005 @ 요망진 게 일리 사름덜이 ᄋᆞ망져?(야무진 게 일리 사름들이 야무져?)

101005 # 응, 일리 사름덜이 더 ᄋᆞ망지다허는 거주.(응, 일리 사람들이 더 야무지다 하는 거지.)

101006 @ 이디 태흥 일리에는 접 같은 거 잇어낫수과?(여기 태흥 일리에는 접 같은 거 있었습니까?)

101006 # 접은 기자 아무 것도 엇이난 ᄊᆞᆯ접도 헤나고 돈접도 헤나고 그거.(계는 그냥 아무 것도 없으니까 쌀계도 했었고 돈계도 했었고 그거.)

101006 @ 그냥 친헌 사름끼리? 마을 전체 허지 안허고.(그냥 친한 사람끼리? 마을 전체 하지 않고.)

101006 # 아니, 마을 전체 안 허고, 우리 멧 사름이 ᄊᆞᆯ접허자 허민 ᄊᆞᆯ접. ᄊᆞᆯ접이엔 헌 건 이제 곤ᄊᆞᆯ이 나룩ᄊᆞᆯ접이 아니고 엿날 산뒤ᄊᆞᆯ이라도 어디 우리 접 안네 누게 큰일이 낫다 허민 ᄉᆞᆯ 흔 뒈썩 다 모다다 놔, 이레. 경헹 모돠근에 이제 멧 말 헤근에 아져가는 거라. 게난 그것이 ᄊᆞᆯ접.(아니, 마을 전체 안 하고, 우리 몇 사람이 쌀계하자 하면 쌀계. 쌀계라고 한 건 이제 흰쌀이 볍쌀 계가 아니고 옛날 밭벼쌀이라도 어디 우리 계 안에 누가 큰일이 났다 하면 쌀 한 되씩 다 모아 놔, 이리. 그렇게 모아놔서 이제 몇 말 해서 가져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이 쌀계.)

101006 @ 한 달에 얼마씩 내는 게 아니고?(한 달에 얼마씩 내는 게 아니고?)

101006 # 아니. 그 집이 누게 잔치가 허나, 누게 죽엉 대소상을 허나 허민 ᄉᆞᆯ을 헤

12) '이리'는 태흥 2리를 줄여서 말하는 것이다.
13) '일리'는 태흥 1리를 줄여서 말하는 것이다.

여 가는 거. 접으로.(아니. 그 집에 누구 잔치를 하나, 누구 죽어서 대소상을 하거나 하면 쌀을 해 가는 거. 계로.)

101006 @ 응. 접으로.(응. 계로.)

101006 # 쏠 받앙 헤여 가는 거, 곤쏠을.(쌀 받아서 해가는 거, 흰쌀을.)

101006 @ 접은 그믄 한 달에 얼마씩 내는 게 아니고 일 잇을 때?(계는 그러면 한 달에 얼마씩 내는 게 아니고 일 있을 때?)

101006 # 아니, 아니. 돈은 키우는 접 잇어. 겨민 흔 둘에 얼마썩 내는 거. 겨민 그것에 곳사도 골앗주만은 이자가 경 하노난 그땐 돈 키움덜이 막 쉬와. 돈 커 가는 게 원원 지금 물애기 낭 키우는 거나 마찬가지로 돈이 커. 딱 겨난 애기덜 돈 얼마썩 헤영 돈 키우자 허민 애기덜 돈 헤영 멧 사름이 접헤영 키우민 그 돈을 누게가 접돈 빗져간다.(아니, 아니. 돈은 키우는 계 있어. 그러면 한 달에 얼마씩 내는 거. 그러면 그것도 아까도 말했지만 이자가 그렇게 많으니까 그땐 돈 키우기가 막 쉬워. 돈 커 가는 게 원원 지금 젖먹이 낳아서 키우는 거나 마찬가지로 돈이 커. 딱 그러니까 아기들 돈 얼마씩 해서 돈 키우자 하면 아기들 돈 해서 몇 사람이 계해서 키우면 그 돈을 누가 곗돈 빌려간다.)

101006 @ 응.(응.)

101006 # 빗져가민 ᄉᆞ 푼이민 얼마라. 만 원이민 ᄉᆞ 푼이민 ᄉᆞ천 원 나오는 거 아니? 겨난 그것이 따시 빌련에 ᄯᅳ시 또 헤영 페지 걸어놓민 이 년만 뒈민 딱 오그라져 부는 거. 만 원이민 이만 원, 십만 원이민 이십만 원 뒈부는 거. 그때 돈 빗진 사름덜은 이 이자 출리지 못헹 물지 못헹 망헌 사름덜이 하. 경헌 접이주, 이젠 접 엇어. 아무 접도 엇어. 이제 친목 그 중간에 친목, 친목허단 친목도 이젠 엇어지고.(빌려가면 사 푼이면 얼마야. 만 원이면 사 푼이면 사천 원 나오는 거 아니? 그러니까 그것이 다시 빌려서 다시 또 해서 표지 걸어놓으면 이 년만 되면 딱 오그라져 버리는 거. 만 원이면 이만 원, 십만 원이면 이십만 원 돼버리는 거. 그때 돈 빚진 사람들은 이자 차리지 못해서 물지 못해서 망한 사람들이 많아. 그런 계지, 이젠 계 없어. 아무 계도 없어. 이제 친목 그 중간에 친목, 친목하다가 친목도 이젠 없어지고.)

101007 @ 이 마을에는 어떤 풍습 같은 거 이수과?(이 마을에는 어떤 풍습 같은 거 있습니까?)

101007 # 그런 풍습 엇어. 나 ᄋᆞᆨ은 후젠 풍습 몰라.(그런 풍습 없어. 나 큰 후엔 풍습 몰라.)

101008 @ 이 마을에서 하영 나는 거?(이 마을에서 많이 나는 거?)

101008 # 하영 나는 거 엇어. 엿날엔 바당에 거나 그자 톨, 메역, 우미 경허단 이젠 그런 톨도 엇고 하영 나는 거엔 헤사 그거나벳긔 바당에서 나는 거나베낀 곶듸서 나는 거 하영 나는 거 엇어. 이젠 미깡 나난 이거 미깡이 ᄉᆞ못 이 집이도 하다, 저 집이도 하다 헷주. 그전인 이 마을에서 나오는 게 엇어. 아무것도.(많이 나는 거 없어. 옛날엔 바다의 거나 그저 톳, 미역, 우뭇가사리 그렇게 하다가 이젠 그런 톳도 없고 많이 나는 거라고 해야 그거나밖에 바다에서 나는 거나밖에 숲에서 나는 거 많이 나는 거 없어. 이

젠 귤 나니까 이거 귤이 사뭇 이 집에도 많다, 저 집에도 많다 했지. 그전엔 이 마을에서 나오는 게 없어. 아무것도.)

101008 @ 어떤 디는 뭐 메밀 하영 허고 어떤 디는 뭐예.(어떤 데는 뭐 메밀 많이 하고 어떤 데는 뭐요.)

101008 # 그건게 부제칩덜게. 부제칩.(그건 부잣집들, 부잣집.)

101008 @ 이 동네 주로 하는 거는. 요즘엔 미깡이고 옛날엔.(이 동네 주로 하는 거는. 요즘엔 귤이고 옛날엔.)

101008 # 엿날은 나 지금 곧는 게 그거라. 참서네 집이라고 그디가 원체 부제칩, 부제고 딱 그 집이서만 그딘 온갖 용서 다 헤낫어. 콩, 모믈, 산뒤, 뭐 조, 경헤영 허민 그 하르방 참서 하르방 산 땐 엿날 아무것도 엇인 때도 하르방 나신 딱 강 보민 밥헹 엿날 놋사발, 놋사발에 밥 거령 가지께 톡 더꺼근에 밥상 출려 가낫젠 허주게.(옛날은 나 지금 말하는 게 그거야. 참서 집이라고 거기가 원체 부잣집, 부자고 딱 그 집에서만 거긴 온갖 농사 다 했었어. 콩, 메밀, 밭벼, 뭐 조, 그렇게 해서 하면 그 할아버지 참서 할아버지 산 땐 옛날 아무것도 없을 때도 할아버지 몫은 딱 가서 보면 밥해서 옛날 놋그릇, 놋그릇에 밥 떠서 뚜껑 톡 덮어서 밥상 차려 갔었다고 하지.)

101008 @ 응.(응.)

101008 # 김 참서, 김 참서 허멍 막 울러난 하르방이라. 거기 하르방이. 이 ᄌᆞ손덜이 다 망헤 가난 거주.(김 참서, 김 참서 하면서 막 을렀던 할아버지야. 거기 할아버지가. 이 자손들이 다 망해 가니까 그거지.)

101009 @ 태흥 삼리의 자랑은 무신건고? 자랑거리.(태흥 삼리 자랑은 무엇인고? 자랑거리.)

101009 # 자랑거리 엇다, 이디.(자랑거리 없다, 여기.)

101009 @ 무사?(왜?)

101009 # 나 생각으론 원 자랑거리 엇어, 이디. 뭐 헹 자랑허는 게 엇어.(내 생각으론 원 자랑거리 없어, 여기. 뭐 해서 자랑하는 거 없어.)

101009 @ 자랑헐 만헌 거 엇어?(자랑할 만한 거 없어?)

101009 # 엇어. 이 세대덜 낭 ᄃᆞ시 낭 커가민 뭐 자랑헐 것이 시카? 지금은 어디 튀어나게 자랑헐 게 엇어.(없어. 이 세대들 낳아서 다시 낳아서 커가면 뭐 자랑할 것이 있을까? 지금은 어디 뛰어나게 자랑할 게 없어.)

101010 @ 태흥리는 일리, 이리, 삼리 다 바당에 부떵 이수과? 다 바당 이수과?(태흥리는 일리, 이리, 삼리 다 바다에 붙어서 있습니까? 다 바다 있습니까?)

101010 # 응, 다 바다. 일리도 바당, 이리도 바당, 경허민 이제 일리, 이리 바당도 이제 갈라져. 다 일린 일리만 허고 이린 이리, 삼린 삼리만.(응, 다 바다. 일리도 바다, 이리도 바다, 그러면 이제 일리, 이리 바다도 이제 갈라져. 다 일린 일리만 하고 이린 이리, 삼린 삼리만.)

101010 @ 어촌겐 어디가 셉니까?(어촌겐 어디가 셉니까?)

101010 # 어촌계 세고 안 세는 건 어촌계장에 매는 거. 계장이 세. 이디 어촌계 계

장이 센덴 허여. 어떵헨 바당 따문에 ᄃᆞ톤에 어디 서귀포 군청에 갓덴 헤신가, 도청에 갓덴, 간 말허는디 이디 어촌계장만이 말허는 사름이 엇어라 허는 거라.(어촌계 세고 안 세는 건 어촌계장에 따르는 거. 계장이 세. 여기 어촌계 계장이 세다고 해. 어떤 바다 때문에 다투어서 어디 서귀포 군청에 갔다고 했나, 도청에 갔다고, 가서 말하는데 여기 어촌계장만큼 말하는 사람이 없더라 하는 거야.)

101010 @ 이디 삼리. 삼리 어촌계장이 ᄋᆞ망지구나.(여기 삼리, 삼리 어촌계장이 야무지구나.)

101010 # 배운 건 엇어도 잘도 여망져. 어디 가도 말을 꽉 ᄀᆞᆯ을 말은 딱딱 ᄀᆞᆯ아. 목에 칼이 들어가도 나 ᄀᆞᆯ을 말은 ᄀᆞᆯ아야 뒌다. 배운 건 엇어, 중학교벳긔 못 나완. 게도 어촌계장헨, 어떵헨 삼리, 이리 싸움이 낫어. 이 어촌계장끼리 바당 놘 싸움이 나난 서구포로 군청으로 강 허난 딱딱 말 ᄀᆞᆯ아가난 누게 대답을 못헤라 허는 거라.(배운 건 없어도 잘도 야무져. 배운 건 없어, 중학교밖에 못 나왔어. 그래도 어촌계장해서, 어떻게 해서 삼리, 이리 사움이 났어. 이 어촌계장끼리 바다 놓고 싸움이 나니까 서귀포 군청으로 가서 하니까 딱딱 말해 가니까 누구 대답을 못하더라 하는 거야.)

101010 @ 응.(응.)

101010 # 또 맞임도 허고 ᄒᆞ나토 틀린 게 엇이 험도 허고게 경헨 헤부난. 이제 그 어촌계 게난 십 년을 헤여 먹엇어. 오래도 헷어, 어촌계장. 삼 년인가 ᄉᆞ 년인가벳긔 못 헌덴 허는디 십 년 헤시난 오래 뒈엇주.(또 맞기도 하고 하나도 틀린 게 없이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해버리니까. 이제 그 어촌계 그러니까 십 년을 해 먹었어. 오래도 했어, 어촌계장. 삼 년인가 사 년인가밖에 못한다고 하는데 십 년을 했으니까 오래 됐지.)

101010 @ 태흥리 마을 운동회헙니까? 체육대회 이런 거. 태흥리 전체 일리, 이리, 삼리 합쳥?(태흥리 마을 운동회합니까? 체육대회 이런 거. 태흥리 전체 일리, 이리, 삼리 합쳐서?)

101010 # 응, 잇당 ᄒᆞᆫ 번썩 허여. 멧 년에 ᄒᆞᆫ 삼 년에 ᄒᆞᆫ 번. 체육대회 헌덴 헤도 이젠 우리 늙어부난 가지 안허난 어떵사 허는지 몰라. 가민 이디서도 잇다근에 막 이것저것 겡기헐 게 한덴. 뭐 게이트볼도 잇지, 뭐 활 쏩는 것도 잇지, 달리기도 잇지, 또 윤유는 거 잇지, 또 뭐니 영 드리치는 거?(응, 이따가 한 번씩 해. 몇 년에 한 삼 년에 한 번. 체육대회 한다고 해도 이젠 우리 늙어버리니까 가지 않으니까 어떻게야 하는지 몰라. 가면 여기서도 이따가 막 이것저것 경기할 게 많다고. 뭐 게이트볼도 있지. 뭐 활 쏘는 것도 있지, 달리기도 있지, 또 윷 노는 거 있지, 또 뭐니 이렇게 집어넣는 거?)

101010 @ 투호.(투호)

101010 # 그런 것도 허지.(그런 것도 하지.)

101010 @ 할머닌 뭐 헤납디가?(할머닌 뭐 했었습니까?)

101010 # 아이고, 난 아파부난 그런 디 못 가봔. 이거 경 나오곤 디 멧 년 안뒈연. ᄆᆞ을 체육대훼 ᄒᆞ곤 디가 멧 년 안 뒈연. 막 게이트볼덜 허는 거라. 어떵 헨 그땐 허리도 오그라지지 안허고 꼬짝 걸을 땐디 게이트볼 허레 오렌 허곤 가난에 영 ᄒᆞ쏠 구부룽 허영 영 헤나민 일어사젠 허민 허리가 ᄂᆞ시 페우질 못허여. 아이고, 허리 페왕 헙서게,

그거 허리 굽엉 못헙니다. 허리 페웁서, 페웁서. 허릴 페와져사 페우주. 겨난 아이고 나 허리 아팡 못허켄 헨 겐 설러분 거. 헴시민 막 헤졈직 헌디.(아이고, 난 아파서 그런 데 못 가봤어. 이거 그렇게 나온 지 몇 년 안 됐어. 마을 체육대회 한 지가 몇 년 안 됐어. 막 게이트볼들 하는 거야. 어떻게 해서 그땐 허리도 오그라지지 않고 꼿꼿이 걸을 땐데 게이트볼 하러 오라고 하길래 가니까 이렇게 조금 구부정하게 이렇게 하고나면 일어서려고 하면 허리를 도저히 펴지 못해. 아이고, 허리 펴서 하세요, 그거 허리 굽어서 못합니다. 허리 펴세요, 펴세요. 허릴 펼 수 있어야 펴지. 그러니까 아이고 나 허리 아파서 못하겠다고 해서 그래서 그만둬버린 거. 하고 있으면 막 할 수 있을 듯한데.)

101010 @ 예.(예.)

101010 # 원 어디 아프진 안허나 해도 걸을 때도 여상 허고 헤도 영 굽어나민 일어사젠 허민 허리가 경 페우질 못허는 거라. 그추룩 허난 게이트볼 허레 가난 삼춘 허리 페왕 헙서게, 페왕 헙서. 야, 허리 페우질 못허는 걸 어떵 페우렌 헴디게?경허멍 헤낫어. 겨난 난 겡기 허는디 게난 그자 흔 번인가 두 번인가 구경도 가난. 그루후젠 원 아이고, 나 아이 가켜. 경헹 구경도 안 가오고. 겨고 이 ᄆᆞ을 겡기 ᄒᆞ곤 디 멧 년 안 뒈고. 흔 삼 년, ᄉᆞ 년. 이 년에 흔 번썩이냐?(원 어디 아프진 않고 해도 걸을 때도 예사로이 하고 해도 이렇게 굽고 나면 일어서려고 하면 허리가 그렇게 펴지 못하는 거야. 그렇게 하니까 게이트볼 하러 가니까 삼촌 허리 펴서 하세요, 펴서 하세요. 야, 허리 펴지 못하는 걸 어떻게 펴라고 하느냐? 그러면서 했었어. 그러니까 난 경기 하는데 그러니까 그냥 한 번인가 두 번인가 구경도 가니까. 그 후엔 원 아이고, 나 안 가겠어. 그렇게 해서 구경도 안 갔다 오고. 그리고 이 마을 경기 한 지 몇 년 안 되고. 한 삼 년, 사 년. 이 년에 한 번씩이냐?)

2. 제보자 일생

102001 @ 처음부터 할머니 태어나근에 자라, 어렷을 때 자랏던 얘기부터 게민.(처음부터 할머니 태어나서 자라, 어렸을 때 자랐던 얘기부터 그러면.)

102001 # 어릴 때 살앗던 얘기 요자기 어젠가 그지겐가 헷거든. 우리가 그 먹을 거 엇어근에 땅 판 묻은 거 그런 거 다 허고.(어릴 때 살았던 얘기 요사이 어젠가 그젠가 했거든. 우리가 그 먹을 거 없어서 땅 파서 묻은 거 그런 거 다 하고.)

102001 @ 다시 ᄀᆞᆯ아봐, 다시.(다시 말해봐, 다시.)

102001 # 그 땅 파근에게 먹을 것이 엇이민 이디 일본 시대난 오랑 밧듸 강 딱 농ᄉᆞ허면은 걸 밧딜로 강 조사허는 거라. 아, 요만허민 멧 가마니, 보리민 멧 가마니, 조민 멧 가마니다, 영 헤영 이제 적어 가고 감저 논 거 허민 요것이 멧 펭 놧다허민 그거 파민 요샌 비료나 잇지, 비료 엇이 멘 밧듸 강 고구마 놔 봐야 막 홁엇젠 헤도 최고 홁은 거 요만이벳긔 아니.(그 땅 파서 먹을 것이 없으면 여기 일본 시대니까 와서 밭에 가서 딱 농사하면은 그걸 밭으로 가서 조사하는 거야. 아, 요만큼하면 몇 가마니, 보리면 몇

가마니, 조면 몇 가마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적어 가고 고구마 놓은 거 하면 요것이 몇 평 놓았다 하면 그거 파면 요샌 비료나 있지, 비료 없이 맨 밭에 가서 고구마 놔 봐야 아주 굵었다고 해도 최고 굵은 거 요만큼밖에 아니.)

102001 @ 예.(예.)

102001 # 줄거리만 줄거리만. 그거 허영 이제 믄 썰렌 허는 거라. 썰렌 허민 이제 뺏떼기 멧 가멩이 바찌라 허당 보민 우린 먹을 거 ᄒᆞ나도 엇어. 경허단 보민 똑 이제 이북식이라. 경헹 바쪄불민 앙팡 다 오랑 뒤어봥 아무것도 엇이민 그땐 이제 오렌 헤영 가민 무시거 좁쏠이고 보리쏠이고 흔 방울 주민 그걸 오랑 밥헤 먹을 저르 엇어. 그자 무신 히여뜩헌 저런 ᄂᆞ물 ᄀᆞ뜬 거 푸십새[14] 놓멍 그자 죽 썽은에 죽지 아니헐 정도.(줄기만 줄기만. 그거 해서 이제 모두 썰라고 하는 거야. 썰라고 하면 이제 절간고구마 몇 가마니 바쳐라 하다가 보면 우린 먹을 거 하나도 없어. 그러다 보면 꼭 이제 이북식이야. 그렇게 해서 바쳐버리면 고방 다 와서 뒤져봐서 아무것도 없으면 그땐 이제 오라고 해서 가면 무엇 좁쌀이고 보리쌀이고 한 방울 주면 그걸 와서 밥해 먹을 겨를 없어. 그저 무슨 어지러운 저런 나물 같은 거 푸성귀 놓으면서 죽 쒀서 죽지 않을 정도.)

102001 @ 응.(응.)

102001 # 겨민 우리 아바지 산 때 보민 뭇 줏어다근에 영 항아리 솟 걸듯 영 솟, 지금 솟 걸듯 걸어근에 알로 남불 때어. 남불 때민 요놈의 뭇이 ᄒᆞ루ᄌᆞ물앙 불 땡 익는 거민 허주만은 오늘 아침이 때민 오늘 저물앙 불 솜곡 낼 저물앙 오늘 밤이 낼 모리 아침사 요것이 뭇이 먹어져. 막 물 넹경 또 놓곡, 또 놓곡 허멍 막 물 넹겨불고 넹겨불고 허멍 이 뭇을 솖아놓민 막 독헤여. 경허민 물을 멧 번 냉경 솜곡 솜곡 허당 보민 오늘 아침인 낼허곡 모리 이 시간 뒈어야 그걸 먹어. 게민 그거 헤낭 요새추룩 보리가 기계 방에서 ᄀᆞ는 거민 싹 ᄀᆞᆯ아불민 보미라도 깨끗허주마는이 옛날엔 그 ᄆᆞᆯ방에 허난 거칠거칠헤여. 경허민 그 보릿ᄀᆞ루 정ᄀᆞ레서 영 벌러난 거 꺼끌, 이제 ᄀᆞ뜨민 도새기나 주주.(겨민 우리 아버지 살았을 때 보면 무릇 주워다가 이렇게 항아리 솥 걸듯 이렇게 솥, 지금 솥 걸듯 걸어서 아래로 나무 불 때. 나무 불 때면 요놈의 무릇이 하루종일 불 때서 익는 거면 하지마는 오늘 아침에 때면 오늘 저물도록 불 때고 내일 저물도록 오늘 밤에 내일 모레 아침에야 요것이 무릇이 먹을 수 있어. 막 물 넘겨서 또 놓고, 또 놓고 하면서 막 물 넘겨버리고, 넘겨버리고 하면서 이 무릇을 삶아 놓으면 아주 독해. 그러면 물을 몇 번 넘겨서 삶고 삶고 하다보면 오늘 아침엔 내일하고 모레 이 시간 되어야 그걸 먹어. 그러면 그거 해놔서 요새처럼 보리가 공장에서 가는 거면 싹 갈아버리면 등겨라도 깨끗하지마는 옛날엔 그 연자매 하니까 거칠거칠해. 그러면 그 보릿가루 맷돌에서 이렇게 쪼갠 거 꺼끌, 이제 같으면 돼지나 주지.)

102001 @ 먹지도 안헐 거라.(먹지도 않을 거야.)

102001 # 도저히 사름 못 먹을 거여, 그런 거. 게노민 그거 버무려근에 그 뭇에 버무령 그걸 먹은 거라. 죽지 말젠.(도저히 사람 못 먹을 거야, 그런 거. 그래 놓으면 그거 버무려서 그 무릇에 버무려서 그걸 먹은 거야. 죽지 않으려고.)

---

14) '푸십새'는 '숭키'와 비슷한 말로 푸성귀와 같은 야채를 말한다.

102001 @ 응.(응.)

102001 # 그거 먹고 경허엿당 봐도 아이고야 아무 집인 솟 싯언 어펏저. 건 아무것도 엇이난 뭇도 못 먹고 아무것도 먹을 거 엇이난 이젠 솟을 싯언 어펏다 허는 거라. 솟 싯언 어펀. 경헨에 아이고야, 아무 집인 솟 싯언 어펏젠 헴저. 어떵헐 거니? 이젠 그 집인 식구 다 죽엇저, 죽엇저. 엿날 경 헤낫어. 경허당 보민 멩 질민 ᄒᆞ나 살곡 붓엉 죽엇저, 굶엉 죽엇저 헌 디가 천지라. 이 굶어가민 몸이 붓어.(그거 먹고 그렇게 했다가 봐도 아이고야 아무 집엔 솥 씻어서 엎었어. 건 아무것도 없으니까 무릇도 못 먹고 아무것도 먹을 거 없으니까 이젠 솥을 씻어서 엎었다 하는 거야. 솥 씻어서 엎었어. 그렇게 해서 아이고야, 아무 집은 솥 씻어서 엎었다고 한다. 어떻게 할 거니? 이젠 그 집은 식구 다 죽었어, 죽었어. 옛날 그렇게 했었어. 그러다가 보면 명 길면 하나 살고 부어서 죽었어, 굶어서 죽었어 한 데가 천지야. 이 굶어 가면 몸이 부어.)

102001 @ 아.(아.)

102001 # 붓어이. 게민 아무 집인 야, 막 붓엇젠 헤라. 아무 집이 굶엇젠 헤라 죽엇젠 헤라, 붓언 죽엇젠 헤라, 굶언 죽엇젠 헤라, 이 소문이 막 나낫어.(부어. 그러면 아무 집은 야, 막 부었다고 하더라. 아무 집은 굶었다고 하더라, 죽었다고 하더라, 부어서 죽었다고 하더라, 굶어서 죽었다고 하더라, 이 소문이 막 났었어.)

102001 @ 게난 할머닌 멧 번째 뚤?(그러니까 할머닌 몇 번째 딸?)

102001 # 나가 젤 큰뚤.(내가 젤 큰딸.)

102001 @ 우에 오라방 잇고?(위에 오빠 있고?)

102001 # 오빠 둘.(오빠 둘.)

102001 @ 오빠 둘허고.(오빠 둘하고.)

102001 # 언니덜 두 개 죽어불고 매 우이 언니덜 두 갠 죽어불고 글로 후에 오빠덜 둘, 그 위에 그 아래 난 것이 뚤이 세 성제 난 거라. 세 성제 나고 또 그 밑에도 이섯주만은 우리 아바지가 오십 전에 돌아가셔 비서.(언니들 두 명 죽어버리고 맨 위에 언니들 두 명은 죽어버리고 그 후에 오빠들 둘, 그 위에 그 아래 낳은 것이 딸이 삼 형제 낳은 거야. 삼 형제 낳고 또 그 밑에도 있었지만 우리 아버지가 오십 전에 돌아가셔 버렸어.)

102001 @ 아.(아.)

102001 # 게난 나가 열흔 살에 돌아가셔 비서. 열흔 살에 그 제국시대에 막 한창 제국시대 일본놈 시대라. 경허난, 엿날엔 어려운 시절에도이.(그러니까 내가 열한 살에 돌아가셔 버렸어. 열한 살에 그 제국시대에 막 한창 제국시대 일본놈 시대야. 그러니까, 옛날엔 어려운 시절에도.)

102001 @ 예.(예.)

102001 # 시국에 어떵어떵 헤가난 잘 안 뒈난 아바지도 어린 때 돌아가셔 불고 우린 아무것도 엇이 엿날에 촘말로 감저도 그려나서이, 제국 때라부난. 또 큰오빠는 아바지도 어릴 때 우리 아바지가 흔 오십 안 난 돌아가셧어이. 게난 어머니 혼자 다섯 오누이를 키운 거라. 근디 큰오빠가 그때 흔 스물흔 술이던가 딱 북해도더레 보내부는 거라, 아무도 엇이난. 겨난 나 우이 오빠가 둘 이신디 우리 작은오빠는 또 우리가 아무것도 엇덴

또 못사는 사름이엔 또 저 모실포 마르공선[15]이렌 헤서이, 엿날에이.(시국에 어떻게 어떻게 해가니까 잘 안되니까 아버지도 어릴 때 돌아가셔 버리고 우린 아무것도 없이 옛날에 참말로 고구마도 그리웠었어, 제국 때라버리니까. 또 큰오빠는 아버지도 어릴 때 우리 아버지가 한 오십 안 나서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어머니 혼자 다섯 오누이를 키운 거야. 그러니까 큰오빠가 그때 한 스물한 살이던가 딱 북해도로 보내버리는 거야, 아무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나 위에 오빠가 둘 있는데 우리 작은오빠는 또 우리가 아무것도 없다고 또 못사는 사람이라고 또 저 모슬포 '마르공선'이라고 했어, 옛날에.)

102001 @ 뭐 허는 디?(뭐 하는 데?)

102001 # 마르공선이 이거 제국시대 헤난 거라, 일본시대에. 게난 그디 비행장 만들젠 일꾼으로 그레 보내부는 거라.('마르공선'이 이거 제국시대 했던 거야, 일본시대에. 그러니까 거기 비행장 만들려고 일꾼으로 그리 보내버리는 거야.)

102001 @ 비행장 만드는 디?(비행장 만드는 데?)

102001 # 응, 그딜 보내분 거라, 보내부난 우리 어머니가 오남매 둘앙 살멍 첨 동녕허다시피 헨 살앗지.(응, 거기 보내버릴 거야, 보내버리니까 우리 어머니가 오남매 데리고 살면서 참 동냥하다시피 해서 살았지.)

102001 @ 예.(예.)

102001 # 삭망, 보름, 삭망, 츠ᄒᆞ루, 삭망허곡 땟밥[16] 거려놓고 경헷어. 겨난 우리도 우리 아버지 돌아가셔 불고 우리 큰오빠 일본드레, 북해도드레 보내불곡 허난 갈 디 올 디 엇어이. 갈 디 올 디 엇이난 퉤빗막[17]이엔 헌 거 엿날, 엿날 어른덜 퉤빗막이엔 허민 알아이. 퉤빗막이엔 헌 거 욜로 요만은 헤근에 그것에 ᄆᆞᆯ똥 줏어다 놓곡, 풀검질 비어다 놓곡, 듬북 헤다 놓곡 재어 놓멍 퉤비 모두는 거라.(삭망, 보름, 삭망, 초하루, 삭망하고 '땟밥' 떠놓고 그렇게 했었어.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아버지 돌아가셔 버리고 우리 큰오빠 일본으로, 북해도로 보내버리고 하니까 갈 데 올 데 없어. 갈 데 올 데 없으니까 '퉤빗막'이라고 한 거 옛날, 옛날 어른들 '퉤빗막'이라고 하면 알아. '퉤빗막'이라고 한 거 요리로 요만큼 해서 그것에 말똥 주워다 놓고, 풀 베어다 놓고, 듬북 해다 놓고 재어 놓으면서 퇴비 모으는 거야.)

102001 @ 응. 퉤빗막.(응, '퉤빗막'.)

102001 # 퉤비 걸름. 왜 그딜 살아시넨 허민 우리 아바지가 돌아가셔 부난 엿날에 우리 오라바니네도 공부를 못헌 거라. 엿날엔 그땐 더 어루운 때주. 겨난 공부를 못허난 이제 바다에 강 배 사근엥에 어부질을 허젠 배 사젠 헌 거라이. 겨난 아바지 돌아가셔 불고 이젠 돈 엇이난 ᄂᆞᆷ이 집이 간 그때에 ᄉᆞ백 원.(퇴비 거름. 왜 거길 살았냐고 하면 우리 아버지 돌아가셔 버리니까 옛날에 우리 오라버니들도 공부를 못한 거야. 옛날엔 그땐 더 어려운 때지. 그러니까 공부를 못하니까 이제 바다에 가서 배 사서 어부질을 하려고 배 사려고 한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 돌아가셔 버리고 이젠 돈 없으니까 남의

15) '마르공선'은 정확한 의미를 알 수 없지만 일제강점기 비행장을 만드는 곳에 일꾼으로 보내는 것이라고 제보자가 설명했다.

16) '땟밥'은 돌아가신 분께 상식으로 때를 맞춰서 상에 올리는 밥을 말한다.

17) '퉤빗막'은 거름을 모아 두는 곳을 말한다.

집에 가서 그때 사백 원.)

102001 @ 배 값이?(배 값이?)

102001 # 응. 엿날에 ᄉᆞ백 원이라, ᄉᆞ천 원도 아니고 ᄉᆞ백 원. ᄉᆞ백 원 아니 ᄉᆞ천 원, 아니 ᄉᆞ천 원 아니라.(응. 옛날에 사백 원이야, 사천 원도 아니고 사백 원. 사백 원 아니 사천 원, 아니 사천 원 아니야.)

102001 @ 응.(응.)

102001 # ᄉᆞ백 원이라신가, 원 ᄉᆞ천 원이라신가 하이튼 빗져단에 배 사레 성산폴 걸엉 갈 거난 ᄉᆞ월 제 먹어근에게 가젠 딱 동서[18] 짜놘에 돗은 때난 요런 대방, 저 문대방 베연 둘리가 요짝에 눅고 요짝에 눈 거라. 누원에 이제 엿날에 제가 딱 열두 시 뒈민 지냇어.(사백 원이었나, 원 사천 원이었나 하여튼 빚져다가 배 사러 성산폴 걸어서 갈 거니까 사월 제 먹어서 가려고 딱 '동서' 짜놔서 따뜻한 때니까 요런 지방, 저 문지방 베어서 둘이 요쪽에 눕고 요쪽에 누운 거야. 누워서 이제 옛날에 제가 딱 열두 시 되면 지냈어.)

102001 @ 예. 예.(예, 예.)

102001 # 경허난 제 파제, 제 헤먹엉 제 파제 끗엔 걸엉 성산폴 가젠 헤여신디 딱 수중에 돈은 수중에 세연 놘 ᄀᆞ찌 영 머력을 헨 누워신디 제 파제허연 밥 먹언에 가젠 나사난 영 보난 돈이 엇인 거라.(그러니까 제 파제, 제 해먹어서 제 파제 끝에 걸어서 성산폴 가려고 했는데 딱 수중에 돈은 수중에 세어서 놔서 같이 이렇게 머리를 하고 누웠는데 제 파제해서 밥 먹어서 가려고 나서니까 이렇게 보니까 돈이 없는 거야.)

102001 @ 아이고.(아이고.)

102001 # 우리도 막 큰 집 허연 영 안팟거리허고 밧도 잇곡 헤낫어. 견디.(우리도 아주 큰 집 해서 이렇게 안팎채하고 밭도 있고 했었어. 그런데)

102001 @ 응.(응.)

102001 # 이젠 돈이 엇인 거라. 아이고, 것도 이상허다. 초저냑이 요디 보게띠에 딱 수정 세연 이 보게띠에 딱 놘에 이디 누워신디 이것이 이상헌 일. 게난 어디 화장실에나, 화장실에도 안 뎅겻수다. 것도 이상허다. 흔디 눈 사름이 빳아빈 걸 빳고렌 아니 헤부난 우린 그것이 돈을 여변 막 법에 고소헌다, 무시거 헌다 허난, 요샌, 영창 살앗저. 그땐 무사 경 두드려?(이젠 돈이 없는 거야. 아이고, 그것도 이상하다. 초저녁에 요기 주머니에 딱 숫자 세서 이 주머니에 딱 놔서 여기 누웠는데 이것이 이상한 일. 그러니까 어디 화장실에나, 화장실에도 안 다녔습니다. 그것도 이상하다. 함께 누운 사람이 빼앗아버린 걸 빼앗았다고 안 해버리니까 우린 그것이 돈을 잃어버려서 막 법에 고소한다, 무엇 한다 하니까, 요샌, 감옥 살았어. 그땐 왜 그렇게 두드려?)

102001 @ 응.(응.)

102001 # 게나 저나 매로. 여분 사름도 아져간 사름도. 아져가고렌 헤비시민 맬 덜 맞이고 헐 건디 아져가고렌 아니 허고. 거난 누게 서나시넨, 사름은 딱 이 사름 흔 사름 베낀 엇엇고 어디 나가 오지도 아니헌디 돈을 엇수덴 허난. 게 흔디 신 사름만 아져간

18) '동서'는 동선, 계획을 말하는 듯하다.

걸로 생각, 우리도 아져간 걸로 생각헷주게. 경허난 그 돈 여먹어부난 아져간 놈은 안 아져가고렌 허지, 우린 돈은 엇지 허난. 이젠 돈 임제는 이제 돈을 경 정 허단 보난 일 년이 다 뒈는 거야. 징역 살아, 매 맞악 허멍 걸어놘, 법에 걸어놘 헌 게 엿날은 어떵 흔 일 년 넘어가난, 이젠 돈 춪일 집이선 돈만 내놓렌 바싹헤가난 이젠, 집을 다 풀아비서.(그러나 저러나 매로. 잃어버린 사람도 가져간 사람도. 가져갔다고 해버렸으면 맬 덜 맞고 할 건데 가져갔다고 안 하고. 그러니까 누가 있었냐고, 사람은 딱 이 사람 한 사람 밖엔 없었고 어디 나갔다 오지도 않았는데 돈이 없다고 하니까. 그러게 함께 있는 사람만 가져간 걸로 생각, 우리도 가져간 걸로 생각했지. 그러니까 그 돈 잃어버리니까 가져간 놈은 안 가져갔다고 하지, 우린 돈은 없지 하니까. 이젠 돈 임자는 이제 돈을 그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 일 년이 다 되는 거야. 징역 살아, 매 맞으면서 걸어놔서, 법에 걸어놔서 한 게 옛날은 어떻게 한 일 년 넘어가니까, 이젠 돈 찾을 집에선 돈만 내놓으라고 바싹해가니까 이젠, 집을 다 팔아버렸어.)

102001 @ 아.(아.)

102001 # 집 풀아부난에 갈 디가 엇인 거라, 이젠이.(집 팔아버리니까 갈 데가 없는 거야, 이젠.)

102001 @ 아까 돈 가져간 사름은 누게?(아까 돈 가져간 사람은 누구?)

102001 # 그 사름네 이제 다 죽언 원 씨아덜[19]이 엇어. 원 씨 멜족허영 원.(그 사람들 이제 다 죽어서 원 '씨아들'이 없어. 원 씨 멸족해서 원.)

102001 @ 주렌 허지.(주라고 하지.)

102001 # 주렌 허지. 몰르니까. 아져간 중을 몰르니까 싸움이 나는 거라.(주라고 하지. 모르니까. 가져간 줄을 모르니까 싸움이 나는 거야.)

102001 @ 계속 안 가져갓덴.(계속 안 가져갔다고.)

102001 # 아져가지, 안 가져가고렌 오리발 딱 내미난 경 맬 맞아도 절대 아니 보고렌만 허는 거라.(가져가지, 안 가져갔다고 오리발 딱 내미니까 그렇게 맬 맞아도 절대 안 보았다고만 하는 거야.)

102001 @ 아.(아.)

102001 # 경허민 우린, 우리 오라바니허고 우리 어무니 나가불민 우린 어린 거난 영 앚아근에 마루에 요추룩 앚앙 문 더껑 앚앙 밥 먹노렌 허민 그 돈 아져간 집이서는 지넬 돈 안 아져간 걸 아져갓젠 허멍 이놈으 새끼 죽여 불켄 허멍 돌멩이 아졍 오랑 막 문을 마치는 거라.(그러면 우린, 우리 오라버니하고 우리 어머니 나가버리면 우린 어린 거니까 이렇게 앉아서 마루 요렇게 앉아서 문 닫아서 앉아서 밥 먹노라고 하면 그 돈 가져간 집에서는 자기네를 돈 안 가져간 걸 가져갔다고 하면서 이놈의 새끼 죽여 버리겠다고 하면서 돌멩이 가져 와서 막 문을 맞히는 거야.)

102001 @ 아이고, 아이고.(아이고, 아이고.)

102001 # 막 마치멍 이놈으 새끼 돌멩이로 뭇앙 믄 죽여불켄 허멍, 우린 뒤에 강 곱아근에 발발발발 떨고.(막 맞히면서 이놈의 새끼 돌맹이로 마서 모두 죽어버리겠다고 하

19) '씨아덜'은 자손을 말하는 것으로 '씨'와 '아들'의 합쳐서 만들어진 말이다.

면서, 우린 뒤에 가서 숨어서 벌벌벌벌 떨고.)

102001 @ 오라방 멧 술 때?(오빠 몇 살 때?)

102001 # 그때가 스물혼 술 때라. 게난 어린 때지게.(그때가 스물한 살 때야. 그러니까 어린 때지.)

102001 @ 할머닌 멧 살이라?(할머닌 몇 살이야?)

102001 # 그때가 스물혼 술 때난에 나가 혼, 우리 큰오빠난에.(그때가 스물한 살 때니까 내가 한, 우리 큰오빠니까.)

102001 @ 멧 술 차이?(몇 살 차이?)

102001 # 그 중간에, 중간에 잇어나곡 허난 여러 나 차이라.(그 중간에, 중간에 있었고 하니까 여러 살 차이야.)

102001 @ 게난 할머닌 막 어릴 때구나예.(그러니까 할머닌 아주 어릴 때군요.)

102001 # 응. 나가 혼 열, 열혼 술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응. 내가 한 열, 열한 살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102001 @ 열두, 열세 살?(열두, 열세 살?)

102001 # 열두 술, 열세 술쯤에 경허난 막 죽여불켄 허멍 그추룩 허민 우린 곱앙 돌아뎅기곡 허는 게 막 망헌 거라. 그때 우리가. 막 망헨 집 내놔불고 집광 집터 내놔불곡 허난 갈 디 엇이난 우리가 이젠 어디 집도 안 빌려주곡 그땐. 겨난 우리가 이제 동넷사름이라도 아니 헌 도둑질을 헤여 갓젠 지네 먹어뒌 거짓말헷젠 우리신드레 허는 거라이. 겐 내중에, 내중에, 살고, 살고, 오래 살아가난 나이 들어간에, 우리 오라바니가 그때에 경헤연 그 매 맞이멍 헤연 이젠 살지 못헨 집도 엇고 우린 갈 디 올 디 엇이 뎅겨가곡 허난 이제 제국시대난 북해도레 보내분 거라, 우리 큰오라바닐.(열두 살, 열세 살쯤에 그러니까 막 죽여버리겠다고 하면서 그렇게 하면 우린 숨어서 돌아다니고 하는 게 아주 망한 거야. 그때 우리가. 아주 망해서 집 내놔버리고 집과 집터 내놔버리고 하니까 갈 데 없으니까 우리가 이젠 어디 집도 안 빌려주고 그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동네 사람이라도 안 한 도둑질을 해 갔다고 자기네 먹어두고 거짓말했다고 우리에게 하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나중에, 살고, 살고, 오래 살아가니까 나이 들어서, 우리 오라버니가 그때 그렇게 해서 그 매 맞으면서 해서 이젠 살지 못해서 집도 없고 우린 갈 데 올 데 없이 다녀가고 하니까 이제 제국시대니까 북해도로 보내버린 거야, 우리 큰오라버닐.)

102001 @ 아.(아.)

102001 # 북해도레 보내불고, 우리 족은오라바닌 마르공선이렌 허멍 저 모실포 그때 일헐 때 그 놈의 대표로 그레 보내불고. 겨난 뚤만 세 개 둘안 우리 어머니가 살앗어.(북해도로 보내버리고, 우리 작은오라버닌 '마르공선'이라고 하면서 저 모슬포 그때 일할 때 그 남의 대표로 그리 보내버리고. 그러니까 딸만 세 명 데리고 우리 어머니가 살았어.)

102001 @ 아이고, 막 고생헤시큰게예.(아이고, 아주 고생했겠네요.)

102001 # 요만은 헌 막살이 헨 사노렌 허난에 이젠 우리 이모님이 요 이디 살앗어이. 이모님이 살아시난 혼번은 막 기자 어디 간 놈의 퉤빗막 첨 빌언 경헨 사노렌 허난

에 우리 이모님이 밤인 오란에 엿날엔 영 멩텡이가 이섯어. 멩텡이가 시난에 원 아무 말도 안허고 멩텡이레 엿날엔 머력솟[20], 머력솟 허멍 머력에 앚진 큰 솟을 젤 우선권이라이. 사름 ᄀᆞ뜨민 큰아들 모냥으로.(요만큼은 한 오막살이 해서 사노라고 하니까 이젠 우리 이모님이 요 여기 살았어. 이모님이 살았으니까 한번은 막 그저 어디 가서 남의 '퉤빗막' 참 빌려서 그렇게 해서 사노라고 하니까 우리 이모님이 밤엔 와서 옛날엔 이렇게 멱둥구미가 있었어. 멱둥구미가 있으니까 원 아무 말도 않고 멱둥구미에 옛날엔 '머력솟', '머력솟' 하면서 머리에 안친 큰 솥을 젤 우선권이야. 사람 같으면 큰아들 모양으로.)

102001 @ 응.(응.)

102001 # 게난 머력에 앚진 솟을 톡허게, 원 오렌 말도 가렌 말도 안허고 톡허게 멩텡이레 놘 지언에 오멍, 나오멍 허는 소리가 나 조름에 오구적 허곤 오고 실프건 말라, 우리 이모님이.(그러니까 머리에 안친 솥을 톡하게, 원 오라고 말도 가라고 말도 않고 톡하게 멱둥구미에 놔서 져서 오면서, 나오면서 하는 소리가 나 뒤에 오고 싶으면 오고 싫으면 말라, 우리 이모님이.)

102001 @ 응.(응.)

102001 # 게난 우리 어머님이 잇단 오라 가게, 이모님 조름에 가게 허연 경헨 이디 오란 살아가는 게 어떵, 어떵 헤가는 게 오빠네가 ᄒᆞ꼼 성공을 헌 거라이. 성공헨 살아가고 또 해방도 뒈어가고 허난. 이디 완 살안에 멧 년 안 사난 우리 큰오라바니 일름이 윤섹이라.(그러니까 우리 어머님이 있다가 오라 가자, 이모님 뒤에 가자 해서 그렇게 해서 여기 와서 살아가는 게 어떻게, 어떻게 해가는 게 오빠네가 조금 성공을 한 거야. 성공해서 살아가고 또 해방도 되어가고 하니까. 여기 와서 살아서 몇 년 안 사니까 우리 큰오라버니 이름이 ○○이야.)

102001 @ 응.(응.)

102001 # 아이고, ○○, 사름덜이 아이고, ○○아, 요 나 조케야. 나 이제사 알암저. 느네 고생헌 거 이제사 알암저. 사름덜이 경허여. 건 무신 말이꽈, 무신 말이꽈 허난, 아이고, 야야, 느 이제사 고생헌 거, 느네 고생헌 거 나 알아지키여, 알아지키여. 그것이 도둑놈이 그때 나타나는 거.(아이고, ○○, 사람들이 아이고, ○○아, 요 나 조카야. 나 이제야 알게 됐어. 너희 고생한 거 이제야 알게 됐어. 사람들이 그렇게 해. 그건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하니까, 아이고, 야야, 너 이제야 고생한 거, 너희 고생한 거 나 알 수 있겠어, 알 수 있겠어. 그것이 도둑놈이 그때 나타나는 거.)

102001 @ 아.(아.)

102001 # 혼 십 년 후에라 가난. 그것이 곱게 살아시민. 이 집이도 강 도둑질헥, 저 집이도 강 도둑질헥 헌 거라, 그게.(한 십 년 후에 가니까. 그것이 곱게 살았으면. 이 집에도 가서 도둑질하고, 저 집에도 가서 도둑질하고 한 거야, 그게.)

102001 @ 아이고.(아이고.)

102001 # 경헤가난 사름덜토 우리ᄀᆞ라만 앰한 사름.(그렇게 해가니까 사름들도 우리

20) '머력솟'은 아궁이 제일 바깥쪽에 안치는 큰 솥을 말하는데 머리라는 뜻의 '머력'과 '솟(솥)'이 결합한 형태다.

보고만 앰한 사람.)

102001 @ 응, 잡앗덴예.(응, 잡았다고요.)

102001 # 잡앗다고 너네도 인간이넨 허멍 우릴 경 따돌림헹 저런 것덜 다 죽어비산다, 씨 멜족시겨사 헌다 허단에 혼 십 년이 넘고 우리 이디 오란 살아불고 허난 그것이 놈의 걸 자파리 아니 헤시민.(잡았다고 너희도 인간이냐고 하면서 우릴 그렇게 따돌려서 저런 것들 다 죽어버려야한다, 씨 멸족시켜야 한다 하다가 한 십 년이 넘고 우리 여기 와사 살아버리고 하니까 그것이 남의 걸 장난 안 했으면.)

102001 @ 몰라실 건디.(몰랐을 텐데.)

102001 # 우리가 몰라실 건디. 이 집이도 강 뭐. 엿날엔 미녕, 쏠이 경 귀헤낫어. 쏠도 헤단 놔두난 퍼가비엇저. 미녕도 놔두난 아져단 풀아먹어 빗저. 멩지도 짠 놔두난 도둑질헤 가빗저. 이젠 그것이 경 헤가는 게 나타난 거라이. 나타나난 그땐 이디 잇다근에 가민 아이고, 요 나 조케덜아. 그자 동네 사름이라도 봐지민 아이고, 요 나 조케덜아. 나 이젠 느네 심정 알암저. 아이고, 쉐 엇이이, 쉐 엇이이. 경헹 우리가 인정을 받은 거.(우리가 몰랐을 건데. 이 집에도 가서 뭐. 옛날엔 무명, 쌀이 그렇게 귀했었어. 쌀도 해다가 놔두니까 퍼가 버렸어. 무명도 놔두니까 가져다가 팔아먹어 버렸어. 명주도 짜서 놔두니까 도둑질해 가버렸어. 이젠 그것이 그렇게 해가는 게 나타난 거야. 나타나니까 그땐 여기 있다가 가면 아이고, 요 내 조카들아. 그저 동네 사람이라도 보이면 아이고, 요 내 조카들아. 나 이젠 너희 심정 알고 있어. 아이고, 죄 없어, 죄 없어.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인정을 받은 거.)

102001 @ 하하하.(하하하.)

102001 # 게난 오래만 살암시민 인정받는 거라이. 이제도 막 옛날 어른덜 잇당 혼 멧 개 살앗어. 살민, 가민, 아이고, 는 누겐디?, 나 아무 사름 누이우다 허민 아이고, 요 나 조케야, 아이고 요 나 조케야, 아이고, 게메이 느네덜 고운 ᄆᆞ음 먹언 놔두난 이젠 느네덜 펜안허영이, 펜안허영이 경 글아, 이제도. 아이고, 우리 경허멍 잘도 고생헨 살안. 삶이 삶 아니로 살안.(그러니까 오래만 살고 있으면 인정받는 거야. 이제도 막 옛날 어른들 있다가 한 몇 명 살았어. 살면, 가면, 아이고, 넌 누구니?, 나 아무 사람 누이입니다 하면 아이고, 요 나 조카야, 아이고 요 나 조카야, 아이고, 글쎄 너희들 고운 마음 먹어서 놔두니까 이젠 너희들 편안해서, 편안해서 그렇게 말해, 이제도. 아이고, 우리 그렇게 하면서 아주 고생해서 살았어. 삶이 삶 아니로 살았어.)

102002 @ 응. 어무니 아부진 주로 농사지어난?(응. 어머니 아버진 주로 농사지었었어?)

102002 # 응, 농ᄉᆞ. 우리 엿날에사 농사만 지엇주. 우리 아바지 오십 안 난 마흔 아홉에 돌아가셔도 이제 ᄀᆞ따근에 공부나 헤시민 막 큰 사름은 안 뒈어도 그자 보통으로 이제 멘에 가민 어디 웃자리에 앚는 사름 그 정도는 뒈여. 이 동네에 어디 강 우리 아바지 산 때, 어린 때라도 보민 누게 강 싸우나 또 어디 강 무신 일을 잘못 뒈나 허민, 우리 큰오라바니 일름이 ○○이라.(응, 농사. 우리 옛날에야 농사만 지었지. 우리 아버지 오십 안 나서 마흔아홉에 돌아가셔도 이제 같아서 공부나 했으면 아주 큰 사람은 안 돼

도 그저 보통으로 이제 면에 가면 어디 윗자리에 앉는 사람 그 정도는 돼. 이 동네에 어디 가서 우리 아버지 살았을 때, 어릴 때라도 보면 누가 가서 싸우거나 또 어디 가서 무슨 일이 잘못되거나 하면, 우리 큰오라버니 이름이 ○○이야.)

102002 @ 응.(응.)

102002 # 야, ○○이 아바지 이레 오라보게 헹 가민 야, 원, 아무거 아멩, 아멩 헴저. 아이고, 그걸 해결 못 허쿠가 허여, 가민 우리 아바지가.(야, ○○이 아버지 이리 와보게 해서 가면 야, 원, 아무것 어떻게, 어떻게 하고 있어. 아이고, 그걸 해결 못 하겠습니까 해, 가면 우리 아버지가.)

102002 @ 딱딱 해결해줘.(딱딱 해결해줘.)

102002 # 말로만 요건 영허고 영허민 뒈지 안허쿠과? 영영 헤사 뒈쿠다. 거 무시거 경 놩 서로 쌉곡 튿곡 헐 거 이수과? 아무거 아멩허곡 아무거 아멩헤영 서로 좋게시리 헙서, 경헤영 싸운 화해 다 부찌곡 또 몰른 것 강 무식헤도 입말로라도 다 이해시기멍 경헨 헤낫어. 경허민 아이고, 우리 아버지ᄀᆞ라 아이고, ○○이 아바지 산 땐, ○○이 아바지 산 때 그 사름만이 헌 사름도 엇엉, 엇엉. 경헤낫어.(말로만 요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거 뭐 그렇게 놔서 서로 싸우고 뜯고 할 거 있습니까? 아무것 어떻게 하고 아무것 어떻게 해서 서로 좋게끔 하세요, 그렇게 해서 싸운 화해 다 붙이고 또 모른 것 가서 무식해도 입말로라도 다 이해시키면서 그렇게 해서 했었어. 그러면 아이고, 우리 아버지보고 아이고, ○○이 아버지 살았을 땐, ○○이 아버지 살았을 때 그 사람만큼 한 사람도 없어서, 없어서. 그렇게 했었어.)

102002 @ 응.(응.)

102002 # 견디 우리 큰오라바님도 무식헤여이. 아무것도 몰라. 우리도 어린 때 학교 못 허난. 헤도 이디 왕 살아도 우리 조케 일름이 큰조케 일름이 ○○이라.(그런데 우리 큰오라버님도 무식해. 아무것도 몰라. 우리도 어린 때 학교 못 하니까. 해도 여기 와서 살아도 우리 조카 이름이 큰조카 이름이 ○○이야.)

102002 @ 응.(응.)

102002 # 어디 싸왕 누게가 무시거 헤도, 야, ○○이 어른 이레 와봐, 영 허민.(어디 싸워서 누가 무엇 해도, 야, ○○이 어른 이리 와봐, 이렇게 하면.)

102002 @ 아부지 닮앗구나예.(아버지 닮았군요.)

102002 # 응, 겨민 우이 어른덜도, 야, ○○이 어른 이레 오라보라, 영허민 간 무시거엔 ᄀᆞᆯ으쿠과? 야, 원, 아무 디 아멍아멍헨에 아멍헴저 영허민, 아이고, 삼춘네 그거 못 허쿠과? 영영허영 화해 부쪄붑서. 거 좋게시리 허주 싸우민 뭡니까? 경헤영 가민 아이고 가게, 가게 허영 싸운 사름끼린 안 가젠 허주.(응, 그러면 웃어른들도, 야, ○○이 어른 이리 와봐라, 이렇게 하면 가서 무어라고 말하겠습니까? 야, 원, 아무 데 어떻게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 아이고, 삼촌네 그거 못 하겠습니까? 이렇게 이렇게 해서 화해 붙여버리세요. 그거 좋게끔 하지 싸우면 됩니까? 그렇게 해서 가면 아이고 가자, 가자 해서 싸운 사람끼린 안 가려고 하지.)

102002 @ 예.(예.)

102002 # 에이, 가게게. 나 말 들엉 가게, 가게, 가민 야, 술 혼 잔 이레 받앙 오라 허민 술 혼 잔 먹으멍 영허고 정허곡 허민 영허민 뭔다게 느네덜 거 무시거 헐 거. 동네서 서로 아침, 저녁 나가고 들어와도 붸리곡 헐디, 거 눈 흘긋흘긋헐 거 시냐? 이디서 손 잡으라, 손 잡으라, 경허영 화애 시켜불곡 경헤낫어.(에이, 가자. 내 말 들어서 가자, 가자, 가면 야, 술 한 잔 이리 받아서 와라 하면 술 한 잔 먹으면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하면 이렇게 하면 된다 너희들 그거 무엇 할 거. 동네서 서로 아침, 저녁 나가고 들어와도 보고 할건데, 그거 눈 힐끔힐끔할 거 있니? 여기서 손 잡아라, 손 잡아라, 그렇게 화해 시켜버리고 그렇게 했었어.)

102002 @ 응. 큰오라버닌 돌아가션? 경헨.(응. 큰오라버닌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해서.)

102002 # 성제가 다 돌아가시고 엇어. 우리 뚤만 세 개 살앗어, 이제. 뚤만 세 개.(형제가 다 돌아가시고 없어. 우리 딸만 세 명 살았어, 이제. 딸만 세 명.)

102002 @ 아.(아.)

102002 # 겨난 난 우리 어머니 목시, 아바지 목시, 오빠덜 목시, 경헨 나가 오래 사는 거라, 이거.(그러니까 난 우리 어머니 몫, 아버지 몫, 오빠들 몫, 그렇게 해서 내가 오래 사는 거야, 이거.)

102002 @ 무신 아직 오래 산 것도 아니지, 구십도 안 뒈신디.(무슨 아직 오래 산 것도 아니지, 구십도 안 됐는데.)

102002 # 구십은 안 뒛주만은이 우리 어무니도 예순일곱에 막 어릴, 예순일곱에 돌아가셧어. 겨고 우리 큰오라바니도 제우 칠십을 둥겻어. 우리 족은오라바닌 또 칠십 못 둥견 어머니 돌아가신 나, 육십일곱에.(구십은 안 됐지마는 우리 어머니도 예순일곱에 아주 어릴, 예순일곱에 돌아가셨어. 그리고 우리 큰오라버니도 겨우 칠십을 당겼어. 우리 작은오라버닌 또 칠십 못 당겨서 우리 어머니 돌아가신 나이, 예순일곱에.)

102002 @ 아, 좀 빨리 돌아가시는구나.(아, 좀 빨리 돌아가시는구나.)

102002 # 경허난 나가, 아이고, 이 뚤덜은 어멍 목시, 아바지 목시 영 오래 살암구나, 이거주. 멩이 줄라, 우리 아바지 때부떠도.(그러니까 내가, 아이고, 이 딸들은 어머니 몫, 아버지 몫 이렇게 오래 살고 있구나, 이거지. 명이 짧아, 우리 아버지 때부터도.)

102002 @ 집안 유전 뒈는 게 잇더라고마씨.(집안 유전 되는 게 있더라고요.)

102002 # 응, 경사 헨 것산디. 우리 경허단 보난 방상에도 어디가 어딘 중 이젠 방상도 몰라. 원래 우리 할으버지네 고향은 원래 본 고향은 한남리[21]라이.(응, 그렇게야 해서 그것인지. 우리 그러다 보니 친척에도 어디가 어딘 줄 이젠 친척도 몰라. 원래 우리 할아버지네 고향은 원래 본 고향은 한남리야.)

102002 @ 응.(응.)

102002 # 한남리서 어떵 헹 ᄂᆞ려와시닌 허민 우리 두린 때 ᄀᆞᆫ는 거 보민 우리 할으바지네가 애기를 못 키우난 타류궤성[22]을 허렌 허는 거라. 엿날은이 타류궤성, 타류궤

21) '한남리'는 서귀포시 남원읍 한남리를 말한다.

성 허멍 한남리서 이 신흥릴 ᄂᆞ려온 거라.(한남리에서 어떻게 해서 내려왔냐고 하면 우리 어린 때 말하는 거 보면 우리 할아버지네가 아기를 못 키우니까 '타류궤성'을 하라고 하는 거야. 옛날은 '타류궤성', '타류궤성' 하면서 한남리서 이 신흥릴 내려온 거야.)

102002 @ 아.(아.)

102002 # 신흥리 ᄂᆞ려오란에 아길 서 오누일 키왓다 허는 거라. 아덜 ᄒᆞ나 뚤 성제.(신흥리 내려와서 아길 세 오누일 키웠다 하는 거야. 아들 하나 딸 형제.)

102002 @ 한남리선 ᄒᆞ나도 안 나신디?(한남리에서 하나도 안 낳았는데?)

102002 # 응. 아니 나긴 나신디 키우질 못허난.(응. 아니 낳긴 낳았는데 키우지 못하니까.)

102002 @ 아, 죽어불어, 아파근에.(아, 죽어버려, 아파서.)

102002 # 응, 아프멍 죽어부난. 게난 타류궤성. 요샌 약 좋은 때난 무사 못 사느니? 옛날엔 허주만은 요새사 약 좋아부난.(응, 아프면서 죽어버리니까. 그러니까 '타류궤성'. 요샌 약 좋은 때니까 왜 못 살겠니? 옛날엔 하지마는 요새야 약 좋아버리니까.)

102002 @ 타류궤성은 거난 ᄂᆞᆷ의 동네 강 살렌 헌 말이라?('타류궤성'은 그러니까 남의 동네 가서 살라고 한 말이야?)

102002 # 응. 내 넘어강, ᄂᆞᆷ의 동네, 모른 동네 강 살라 이거여. 게난 한남리서 신흥리 ᄂᆞ려오젠 허민 멀엇주게, 엿날엔 걸엉 뎅기고 헐 때난. 게난 그디서 이디 ᄂᆞ려오란 살앙 뚤 성제 아덜 ᄒᆞ나 서 오누이 키운 거. 우리도 할마니 할으버지 얼굴 몰라. 어무니 ᄀᆞᆮ는 것만 들엇주.(응. 내 넘어가서, 남의 동네, 모르는 동네 가서 살라 이거야. 그러니까 한남리서 신흥리 내려오려고 하면 멀었지, 옛날은 걸어서 다니고 할 때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여기 내려와서 살아서 딸 형제 아들 하나 세 오누이 키운 거. 우리도 할머니 할아버지 얼굴 몰라. 어머니 말하는 것만 들었지.)

102003 @ 어무니 고향은 어디꽈?(어머니 고향은 어딥니까?)

102003 # 신흥 이리 저 여우내[23]. 절로 이디 오당 보민 알아지주.(신흥 이리 저 '여우내'. 저리로 여기 오다 보면 알 수 있지.)

102003 @ 여우내?(여우내?)

102003 # 응, 그디. 견디 우리 이모님은 또 백다섯 난 돌아가셧어.(응, 거기. 그런데 우리 이모님은 또 백다섯 나서 돌아가셨어.)

102003 @ 아, 어머니 쪽이 그래도 좀예.(아, 어머니 쪽이 그래도 좀요.)

102003 # 응, 우리 이모님도 또 우리 웨삼춘.(응, 우리 이모님도 또 우리 외삼촌.)

102003 @ 어머니보다 우에 밑에?(어머니보다 위에 밑에?)

102003 # 응, 우에.(응, 위에.)

102003 @ 아, 어머니보다 우에.(아, 어머니보다 위에.)

102003 # 또 우리 웨삼춘이 어릴 때 돌아가셔 불고. 우리 웨할으바지도 젊을 때 돌아가셔 불고 허난 우리 이모님이 난 아바지 목시, 동생 목시 살암저. 서 오누이 난 서

22) '타류궤성'은 다른 동네에 가서 살라는 뜻이라고 제보자가 설명했다.

23) '여우내'는 남원읍 신흥2리의 옛 지명이다.

오누이 다 죽어비신디. 어무니도 죽어불곡 아바지도 돌아, 젊을 때 돌아가셔불곡 서 오누인디 다 죽어비엉 나 하나 남아신디 이거 백 다섯이난 나 그 목시 살암젠 허멍 느랑 골아낫어. 돌아가시건 디 흔 이십 년, 경벳긔 안뒈.(또 우리 외삼촌이 어릴 때 돌아가셔 버리고. 우리 외할아버지도 젊을 때 돌아가셔 버리고 하니까 우리 이모님이 난 아버지 몫, 동생 몫 살고 있어. 세 오누이 낳아서 세 오누이 다 죽어버렸는데. 어머니도 죽어버리고 아버지도 돌아, 젊을 때 똘아가셔 버리고 세 오누인데 다 죽어버려서 나 하나 남았는데 이거 백 다섯이니까 나 그 몫 살고 있다고 하면서 늘 말했었어. 돌아가신 지 한 이십 년, 그렇게밖에 안 됐어.)

102004 @ 할머니 어렷을 때는 무신거 허멍 놀아난마씨? 놀기도 헷지예, 일도 헷주마는.(할머니 어렸을 때는 무엇 하면서 놀았었어요? 놀기도 했지요, 일도 했지마는.)

102004 # 놀기는 우리 짇을거 허레 가면 벗들이영 가면 베틀락, 베틀락허곡 돌생기 봉가당 이놈으 공기. 엿날엔 짇을거 허레이 솔잎 걷으레 웃드르[24] 올라가주. 이 헤벤엇이민 저 웃드르드레 소남밧듸 솔입 걷으레 벗들이영 가민 솔입 걷엉 문딱 질머 놔두고 헤뒁은에 돌생기 줏어당 공기헤낫어이, 공기.(놀기는 우리 땔감 하러 가면 벗들이랑 줄넘기, 줄넘기하고 돌멩이 주워다가 이놈의 공기. 옛날엔 땔감 하러 솔잎 걷으러 '웃드르' 올라가지. 이 해변 없으면 저 '웃드르'로 소나무밭에 솔잎 걷으러 벗들이랑 가면 솔잎 걷어서 모두 져다 놔두고 해둬서 돌멩이 주워다가 공기했었어, 공기.)

102004 @ 응.(응.)

102004 # 경헹 오민 오래 살아불민 어멍안티 욕듣고.(그렇게 오면 오래 살아버리면 어머니께 욕먹고.)

102004 @ 무사 영 오래 걸려시넨.(왜 이렇게 오래 걸렸냐고.)

102004 # 오래 걸려시넨 허멍 욕듣곡 또 옛날에 풀ᄂᆞ물 케레, 풀ᄂᆞ물 케당 솖앙 먹고. 또 봄 나가민 풀마농이, 풀마농도 케레 가고, 겨민 그 놈으 풀마농 케레 갓당 뺑이 잇잖아, 새왓듸. 뺑이 뽑아근에 서로 앚앙 뺑이치기 허당 보민 세월 가는 중 몰라. 게민 오랑 어멍안티 욕듣고.(오래 걸렸냐고 하면서 욕먹고 또 옛날에 들나물 캐러, 들나물 캐다가 삶아서 먹고. 또 봄 나면 달래, 달래도 캐러 가고, 그러면 그 놈의 달래 캐러 갔다가 삘기 있잖아, 띠밭에. 삘기 뽑아서 서로 앉아서 삘기치기 하다 보면 세월 가는 줄 몰라. 그러면 와서 어머니께 욕먹고.)

102004 @ 응.(응.)

102004 # 아졍 기어나라, 떠나라 허멍 얻어, 욕듣고 경허멍 살안. 아이고, 두린 때. 학교가 무시거니 아이고. 학교허영 살아시민 나가 이 정체 안 뒈엇주.(가져서 나가라, 떠나라 하면서 얻어, 욕먹고 그러면서 살았어. 아이고, 어린 때. 학교가 뭐니 아이고. 학교해서 살았으면 내가 이 모양 안 됐지.)

102004 @ 무신 옛날사 다 경헹 살앗주 무신 학교 뎅긴 사름이 얼마 엇지 안헤여?(무슨 옛날이야 다 그렇게 해서 살았지 무슨 학교 다닌 사람이 얼마 없지 않아?)

102004 # 엇어.(없어.)

---

24) '웃드르'는 '우(위)'와 '드르(들)'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말로 해발 100~300미터 고지대인 중산간을 말한다.

102004 @ 아까도 골안게예.(아까도 말했잖아요.)

102004 # 엇이난. 나가 이거 부끄러운 말이라도 아기덜 난에 학교엘 뎅기는 거라. 학교에 뎅기단 우리 큰뚤이 허는 소리가, 화곽살 놘에 영영 숫자를 놘 빼기 허고 더하기 허고 허단에 엄마 허곤 무사? 엄마 이거 알아져, 이거 뭣궨 허난 나 몰르키여, 영허난 어무니 무신 학교 나완? 허곤디 엄마이 옛날에 부엌대 나왓저.(없으니까. 내가 이거 부끄러운 말이라도 아기들 낳아서 학교에 다니는 거야. 학교에 다니다가 우리 큰딸이 하는 소리가, 성냥개비 놔서 이렇게 이렇게 숫자를 놔서 빼기 하고 더하기 하고 하다가 엄마 하길래 왜? 엄마 이거 알아, 이거 뭐냐고 하니까 나 모르겠어, 이렇게 하니까 어머니 무슨 학교 나왔어? 하길래 엄마 옛날에 부엌대 나왔지.)

102004 @ 부엌대?(부엌대?)

102004 # 응. 엿날에이 부엌대 나왓저 영허난 엄마, 게난 대학꼬장 나와도 이거 몰라?(응. 옛날에 부엌대 나왔지 이렇게 하니까 엄마, 그러니까 대학까지 나와도 이거 몰라?)

102004 @ 하하하.(하하하.)

102004 # 대학꼬장 나와도 이걸 몰란 경허여. 기여게 난이 어멍은 풍언 아니냐게. 대학꼬장 나와도 이거 몰른다, 나 경. 경허영 잇다근에 영 일이삼스라도 영 베리는 것이 가네들 허는 거 영 보멍 요거 멧 개, 요거 멧 개 쓰는 거 봣다근엥에 허민 영 보민 아, 저거 오늘은 메틀이로구나, 아, 저거 메틀이구나 알앗주, 그전인 판판 몰란. 막 완전 무식허여, 우리. 원, 우리가.(대학까지 나와도 이걸 몰라서 그렇게 해. 그래 난 어머니는 거짓말 아니냐. 대학까지 나와도 이거 모른다, 나 그렇게. 그렇게 해서 있다가 이렇게 일이삼사라도 이렇게 보는 것이 걔네들 하는 거 이렇게 보면서 요거 몇 개, 요거 몇 개 쓰는 거 봤다가 하면 이렇게 보면 아, 저거 오늘은 며칠이로구나, 아, 저거 며칠이구나 알앗지, 그전엔 펀펀 몰랐어. 아주 완전 무식해, 우리. 원, 우리가.)

102004 @ 경헤도 사는 건 지혜롭게 살암수게.(그래도 사는 건 지혜롭게 살고 있잖습니까.)

102004 # 사는 거엔 헌 건 기자 밥헤여 먹고 기자 노동일 허는 거뿐.(사는 거라고 한 건 그저 밥해서 먹고 그저 노동일 하는 거뿐.)

102004 @ 그게 중요헌 거지.(그게 중요한 거지.)

102004 # 원, 그거뿐이주.(원, 그거뿐이지.)

102004 @ 대학 나오민 뭐헙니까?(대학 나오면 뭐합니까?)

102004 # 어디 가근에 무신 요, 어디 가근에 놈 그추룩 강, 요 부녀훼 강 훼장을 혼 번 뎅겨봐시카, 뭐 어디 강 글 쓰는 디 강 허다못헤 반장질을 혼 번, 요 뎅겨봐시카 아무것도 안헷어. 그자 고망서 홈파먹는 거뿐.(어디 가서 무슨 요, 어디 가서 남 그렇게 가서, 요 부녀회 가서 회장을 한 번 다녀봤을까, 뭐 어디 가서 글 쓰는 데 가서 하다못해 반장질을 한 번, 요 다녀봤을까 아무것도 안했어. 그저 구멍서 홈파먹는 거뿐.)

102004 @ 경헤도 잘 살암수게, 아이덜도 잘 키우고.(그래도 잘 살잖아요, 아이들도 잘 키우고.)

102004 # 겨난 어뜬 땐 고만이 앚앙 생각허민 어떵 헨 이거 흔 세상을 살아져신고? 가갸 자 ᄒᆞ나 몰르게 어떵헨 살아져신고. 이 육지레 테레비레 보면 육지 할망덜 칠십 넘은 후제사덜 막 공부들 헷잖아이.(그러니까 어떤 땐 가만히 앉아서 생각하면 어떻게 해서 이거 한 세상을 살았는가? 가갸 자 하나 모르게 어떻게 해서 살았는가. 이 육지에 텔레비전에 보면 육지 할머니들 칠십 넘은 후에야들 막 공부들 했잖아.)

102004 @ 예.(예.)

102004 # 우리 이딘 무사 그런 것도 엇어신고 허는 거라. 아이 그 우리 칠십대에만 그런 걸 헤여시민은 나도 칠십대에 헤시민 좀 베왓지, 그런 거라도. 놈이 웃던 말던. 나 일본 간 오란 보난에 족은년 시집이 가보난 낼 저 시험 볼 거라부난 나 시에 감저 헤여. 게곤 우리 족은뚤, 야 저 사름 무시거엔, 시험 볼 거엔 헴니? 허난 어머니 나이든 사름덜 이제사양 공부 못헌 사름 공부허렌 허난 낼 시험보는 날이난 감수게. 오십 넘은 사람이 이제도 학교 못헌 사름이 잇어나시냐? 허난, 예게 이시난에 저 사름 학굘 못허난 나이 한 사름덜 학교 허렌 허난 낼 시험 보레 가는 게 그거우덴.(우리 여긴 왜 그런 것도 없나 하는 거야. 아니 그 우리 칠십대에만 그런 걸 했으면 나도 칠십대에 했으면 좀 배웠지, 그런 거라도. 남이 웃든 말든. 나 일본 가서 와서 보니까 막내딸 시집 가보니까 내일 저 시험 볼 거라서 나 제주시에 간다 해. 그러길래 우리 막내딸에게, 야 저 사람 무엇이라고, 시험 볼 거라고 하니? 하니까 어머니 나이든 사람들 이제야 공부 못한 사람 공부하라고 하니까 내일 시험 보는 날이니까 가고 있습니다. 오십 넘은 사람이 이제도 학교 못한 사름이 있었니? 하니까, 예, 있으니까 저 사람 학교를 못하니까 나이 많은 사람들 학교 하라고 하니까 내일 시험 보러 가는 거 그거라고.)

102004 @ 시에는 이신디, 제주시에는.(시에는 있는데, 제주시에는.)

102004 # 응, 잇어나신디 이디만 엇인 거라.(응, 있었는데 여기만 없는 거야.)

102004 @ 지금도 이신디. 지금도예 우리 글 ᄀᆞ리치레 가주마씨, 할머니들. 그민예 나이 드신 할머니들 앚앙예 영 글 쓰고 막 영헤.(지금도 있는데. 지금도요 우리 글 가르치러 가요, 할머니들. 그러면요 나이 드신 할머니들 앉아서요 이렇게 글 쓰고 막 이렇게 해.)

102004 # ᄋᆞ게. 이젠 경허난 경헤시민 허주마는 이제사 이젠 낼, 낼인가 모린가 이젠 저세상 갈 날이 ᄇᆞ뎌부난.(응. 이젠 그러니까 그렇게 했으면 하지마는 이제야 이젠 내일, 내일인가 모렌가 이젠 저세상 갈 날이 가까워 버리니까.)

102004 @ 모르주, 백 술까지 살지.(모르지, 백 살까지 살지.)

102004 # 아이고, 백 술ᄁᆞ장 살아도 백 술ᄁᆞ장 살아가민 치매 걸리고 잊어불곡 안뒈여. 백 술ᄁᆞ장 홈치. 백 술ᄁᆞ장은 뭐 백 술 살아봐야 뭐, 이제 흔 십 년, 십 년 ᄒᆞ쏠 넘어 살민 백 술이라. 경허난.(아이고, 백 살까지 살아도 백 살까지 살아가면 치매 걸리고 잊어버리고 안 돼. 백 살까지 한꺼번에. 백 살까지는 뭐 백 살 살아봐야 뭐, 이제 한 십 년, 십 년 조금 넘게 살면 백 살이라. 그렇게 하니까.)

102005 @ 아까도 ᄀᆞᆯ아신디예 일본 시대에 공출헤난 말 그거 흔 번 더 ᄀᆞᆯ아줍서.(아까도 말했는데요 일본 시대에 공출했던 말 그거 한 번 더 말해주세요.)

102005 # 그거를. 그거게 잇다근에 감저, 고구마 논 거이 이젠, 엿날은 감저엔 헷주만은 요즘은 고구마, 고구마허잖아이. 겨난.(그거를. 그거 있다가 고구마, 고구마 놓은 거 이젠, 옛날은 '감저'라고 했지만 요즘은 고구마, 고구마 하잖아. 그러니까.)

102005 @ 옛날 말로 감저 그냥.(옛날 말로 '감저' 그냥.)

102005 # 감저. 엿날 말로 감저난 그걸 놓면 그건 요거 펭수만 알앗주, 요 밧듸서 멧 가마니 날 건 몰르지.(고구마. 옛날 말로 '감저'니까 그걸 놓으면 그건 요거 평수만 알았지, 요 밭에서 몇 가마니 날 건 모르지.)

102005 @ 예.(예.)

102005 # 경허민 그거 허영 파다근에 이제 엿날엔 비료도 엇곡 아무 걸름도 엇이 감절 놔놓민 곳사 골앗주마는 요만이 헌 게 큰 거라이. 요멘썩 씨 걸름 닮은 걸 헤다근에 허민 그걸 믄 썰어근에 멧 가메니 바찌라 헐 거 아니?(그러면 그거 해서 파다가 이제 옛날엔 비료도 없고 아무 거름도 없이 고구마를 놔놓으면 아까 말했지마는 요만큼 한 게 큰 거야. 요만큼씩 씨 거름 같은 걸 해다가 하면 그걸 모두 썰어서 몇 가마니 바치라 할 거 아니?)

102005 @ 뻿떼기예.(절간고구마요.)

102005 # 응, 뻿떼기로 바찌고. 어느 거 뻿떼기허고 씨허고 헐 거 남을 거니? 우린, 우리 먹곡 겨민 ᄀᆞ슬 때나 우리 실피 쳥 먹겐 허멍 막 쳥 먹주게. 게고 저고 우리 이걸로 때 살앙 때와근에 이제 뻿떼기 헤영 내놔불민 그걸로 끗이난 신 땐 먹어야 뒐 거 아니? 우리가. 신 땐 푸수 쳐놔근에 우리가 밥헹 먹젠 말앙 감저로 때 살겐 허멍 경허멍 그걸로 감저로 때 살앗어이. 때 살멍 그거 뻿떼기 허민 멧 가멩니 바찌라 허민 바쪄불민 아무것도 엇어. 조도 허민 멧 가멩이 바찌라, 보리도 허민 멧 가멩이 바찌라, 바찌당 보민 아무것도 엇어. 겨민 어제도 골앗주만은 앙팡을 오랑 막 뒤여.(응, 절간고구마로 바치고. 어느 거 절간고구마하고 씨하고 할 거 남을 거냐? 우린, 우리 먹고 그러면 가을 때나 우리 실컷 쪄서 먹자고 하면서 막 쪄서 먹지. 그러나 저러나 우리 이걸로 때 살아서 때워서 이제 절간고구마 해서 내놔버리면 그걸로 끝이니까 있을 땐 먹어야 될 거 아니? 우리가. 있을 땐 많이 쪄놔서 우리가 밥해서 먹으려고 말고 고구마로 때 살자고 하면서 그러면서 그걸로 고구마로 때 살았어. 때 살면서 그거 절간고구마 하면 몇 가마니 바쳐라 하면 바쳐버리면 아무것도 없어. 조도 하면 몇 가마니 바쳐라, 보리도 하면 몇 가마니 바쳐라, 바치다가 보면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어제도 말했지만 고방을 와서 막 뒤져.)

102005 @ 예.(예.)

102005 # 황덜을. 어디 지네 먹을 걸 넴겨둬 족영 무껌시카부덴 만딱 오랑 뒤어봐근에 엇이민 그땐 박시기 아졍 오렌 허는 거라. 그것 가민 얼마 주민 그거 오라근에 그거 죽건 죽으라 허는 거라, 그 사람덜은. 굶엉 죽건 죽으라 허는 거라. 겨민 수정 엇인 사름은 게도 그거 오랑 풀테죽 쑤고 겨난 우리 아버지네가 그 쏠을 곱졋다근에 그것에 보텡 밥은 안 헤여. 죽만 쑤어. 그자 이 ᄂᆞ물 헤다 놩 ᄂᆞ물 그자 무지려 놓고 온갖 푸십새 놓멍 그자 헤영 죽 쑤어이. 또 우리 아바지 젊은 때라도 저 농삿일만 허난 드르에 가민

그저 거시기 마뿔리.(항아리들을. 어디 자기네 먹을 걸 남겨두고 적게 묶고 있을까봐 모두 와서 뒤져봐서 없으면 그땐 바가지 가져오라고 하는 거야. 그것 가면 얼마 주면 그거 와서 그거 죽으면 죽으라 하는 거야, 그 사람들은. 굶어서 죽으면 죽어라 하는 거야. 그러면 숫자 없는 사람은 그래도 그거 와서 죽 쑤고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그 쌀을 숨겼다가 그것에 보태서 밥은 안 해. 죽만 쒀. 그저 이 나물 해다 놔서 나물 그저 무질러 놓고 온갖 푸성귀 놓으면서 그저 해서 죽 쒀. 또 우리 아버지 젊은 때라도 저 농사일만 하니까 들에 가면 그저 거시기 마뿌리.)

102005 @ 아, 마뿔리.(아, 마뿌리.)

102005 # 응, 마뿔리. 그런 거 파다근에 그걸 막 골아. 골앙 요거 청 앚지민 완전 물 올라불고 허민 이제 저 감저 고구마 청 앚지듯이 전분 모냥으로 막 맛잇어, 그거. 깨끗허고. 겨민 그런 거 쑥 케다근엥에 쑥범벅, 뭇 헤당 뭇 그거 솖앙 그거. 톨 이젠 이 바당에 톨이 엇어. 바당에 톨 헤다근에 톨은 이거 쏠에 놩 밥허민 맛잇어, 북삭헌 게. 이제도 육지서 보난.(응, 마뿌리. 그런 거 파다가 그걸 막 말해. 말해서 요거 쪄서 안치면 완전 물 올라버리고 하면 이제 저 고구마 쪄서 안치듯이 전분 모양으로 아주 맛있어, 그거. 깨끗하고. 그러면 그런 거 쑥 캐다가 쑥범벅, 무릇 해다가 무릇 그거 삶아서 그거. 톳 이젠 이 바다에 톳이 없어. 바다에 톳 해다가 톳은 이거 쌀에 놔서 밥하면 맛있어, 푹신한 게. 이제도 육지서 보니까.)

102005 @ 예, 톨밥.(예, 톳밥.)

102005 # 톨밥헨게. 그추룩 헨 이제는 엿날에는 그거 막 솖아근에 솟듸서 오래 놔두민 북삭 틈자민 질기지 안헹 푹삭푹삭헤여. 게민 그것에 쏠이 얼마나 들어가? 흔 방울 놩 그자 그것에 그자 ᄒᆞ쏠 쏠 비춤만 헷주. 경허당 보민이 이 초식만 먹어가민 막 붓어, 사름덜이.(톳밥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는 옛날에는 그거 막 삶아서 솥에서 오래 놔두면 푹신 뜸들이면 질기지 않고 푹신푹신해. 그러면 그것에 쌀이 얼마나 들어가? 한 방울 놔서 그저 그것에 그저 조금 쌀 비추기만 했지. 그러다 보면 이 초식만 먹어가면 막 부어, 사람들이.)

102005 @ 아.(아.)

102005 # 이 쏠기가 엇어가민이 쏠방울이 들어가야 붓지 안허주. 경 붓어가민 풀보리, 풀보리 비어다근에 솖아근에 그 물 먹어. 붓지 못허게.(이 쌀 기운이 없어가면 쌀방울이 들어가야 붓지 않지. 그렇게 부어가면 풋보리, 풋보리 베어다가 삶아서 그 물 먹어. 붓지 못하게.)

102005 @ 풀보린 어떤 거마씨?(풋보리는 어떤 거예요?)

102005 # 보리 갈앙 놔두민 영 풀 나잖아, 보리가 나잖아. 겨민 영 우트레 보리가 영 커사 필 거 아니게? 겨난 그거 피기 전에. 그거 헤당 솖아근에 그 물은 먹으민.(보리 갈아서 놔두면 이렇게 풀 나잖아, 보리가 나잖아. 그러면 이렇게 위로 보리가 이렇게 커야 필 거 아니? 그러니까 그거 피기 전에. 그거 해다가 삶아서 그 물은 먹으면.)

102005 @ 아, 피기 전이.(아, 피기 전에.)

102005 # 응. 그건 허민 붓지 안허여. 그 물은 먹으민 것도이 곡석이라. 곡석이라 붓

지 안허여, 엿날에. 겨민 어디 집은 붓엄저, 엇어부난 솟 싯언 어펏저, 경헌 말이 막 하낫어, 옛날에.(응. 그건 하면 붓지 않아. 그 물은 먹으면 그것도 곡식이야. 곡식이라 붓지 않아, 옛날에. 그러면 어디 집은 붓는다, 없어버리니까 솥 씻어서 엎었다, 그런 말이 아주 많았어, 옛날에.)

102005 @ 공출은 주로 감저뻿떼기하고.(공출은 주로 절간고구마하고.)

102005 # 감저뻿떼기나, 보리나, 조나 그자 사시사철 농ᄉᆞ헌 건 다 바쪄야 뒈.(절간고구마나, 보리나, 조나 그저 사시사철 농사한 건 다 바쳐야 돼.)

102005 @ 아.(아.)

102005 # 바쪄야 뒈. 아니 바쩡 살아지고? 겨멍 허단에 이젠 딱 해방이 뒈라 허난 이제 이녁 자유라이. 이녁 버슨 건 이녁만 먹는 거주. 이녁 버슨 건 이녁만 먹어신디 그 공십이 끝낭 ᄒᆞᆫ 이 년쯤 잇어가난 그자 어떵헨 뒤에서 수군수군 영 앚이민 남ᄌᆞ덜이 영 앚이민 수군수군허당 사름 오라가민 훅허게 일어사불고.(바쳐야 돼. 안 바쳐서 살 수 있고? 그러면서 하다가 이젠 딱 해방이 됐다 하니까 이제 자기 자유야. 자기 번 건 자기만 먹는 거지. 자기 번 건 자기만 먹었는데 그 공습이 끝나서 한 이 년쯤 있어가니까 그저 어떻게 해서 뒤에서 수군수군 이렇게 앉으면 남자들이 이렇게 앉으면 수군수군하다가 사람 와가면 훅하게 일어서버리고.)

102005 @ 응.(응.)

102006 # 영 허당 또 수군수군허당 지네 말 들엄직헌 사름은 손 영 꼬딱헤영. 가민 무사 불럼수겐 허민 이제 산에 갈 사름이라, 영 보난이. 산에 올르렌 허는 거라, 이제사 보난. 수군수군허는 게. 산에 올라근엥에 우리가 공산당 쪽을 물어야 펜안헌다, 이제 그거라, 이제사 눈치가 보난.(이렇게 하다가 또 수군수군하다가 자기네 말 들음직한 사람은 손 이렇게 까딱해서. 가면 왜 부르냐고 하면 이제 산에 갈 사람이야, 이렇게 보니까. 산에 오르라고 하는 거야, 이제야 보니까. 수군수군하는 게. 산에 올라서 우리가 공산당 쪽을 물어야 편안하다, 이제 그거야, 이제야 눈치가 보니까.)

102006 @ 응.(응.)

102006 # 경혜영 이제 응원대, 응원대 허멍 군인덜이 이디 민짝 오라낫어. 말쩬 보난 그것이 응원대가 아니고 우리 쪽이 아니고 그것이 공산당 쪽이라이. 영 보난 내중엔 보난. 그 군인덜이 이디 완 민짝 뎅기단에 내중엔 보난. 그 군인덜이 이디 완 민짝 뎅기단에 내중엔 ᄆᆞᆫ짝 산에 올라분 거라. 이 ᄯᅳ랑섬[25]에 산에 올르민 얼마나 오래 살아? 아이고, 산에 올라분 거라. 산에 올르곡 뎅기다근에 우리도 사름덜이 어디 저디 봐지민 심어다놩 지네 쪽 안 들민 뚜드려불곡 밤인 ᄂᆞ려오랑 먹을 거 내어 노렌. 이 우리 헤벤이난 헷주, 웃드른이 죄 엇은 사름 많이 죽엇어. 반 이상이라, 죄 엇은 사름.(그렇게 해서 이제 응원대, 응원대 하면서 군인들이 여기 모두 왔었어. 말쨘 보니까 그것이 응원대가 아니고 우리 쪽이 아니고 그것이 공산당 쪽이야. 이렇게 보니까 나중엔 보니까. 그 군인들이 여기 와서 모두 다니다가 나중엔 보니까. 그 군인들이 여기 와서 모두 다니다가 나중엔 모두 산에 올라가버린 거야. 이 'ᄯᅳ랑섬'에 산에 오르면 얼마나 오래 살아? 아이

25) 'ᄯᅳ랑섬'은 외딴 섬이라는 뜻으로 쓴 말이다.

고, 산에 올라버린 거야. 산에 오르고 다니다가 우리도 사람들이 어디 저기 보이면 잡아다놔서 자기 쪽 안 들면 두드려버리고 밤엔 내려와서 먹을 거 내놓으라고. 이 우리 해변이니까 했지, '웃드르'는 죄 없는 사람 많이 죽었어. 반 이상이야, 죄 없는 사람.)

102006 @ 맞아.(맞아.)

102006 # 왜냐허믄 밤이 오랑 산에서 ᄂᆞ려오랑 먹을 거 내어노라. 먹을 거 안 내놓민 죽여불지 또 이젠 이추룩 허카부덴 안헹 이녁집이엔 그디 앚앙 살당 보민 또 이쪽에서 가민 산 쪽 물엄젠 이제 답달허멍 심어다 놩 말 잘못허민 그땐 무주건 죽여 불 때라, 게난.(왜냐하면 밤에 와서 산에서 내려와서 먹을 거 내놓아라. 먹을 거 안 내놓으면 죽어버리지 또 이젠 이렇게 할까봐 안 해서 자기 집이라고 거기 앉아서 살다보면 또 이쪽에서 가면 산 쪽 문다고 이제 닦달하면서 잡아다 놔서 말 잘못하면 그땐 무조건 죽여버릴 때야, 그러니까.)

102006 @ 아이고, 첨.(아이고, 참.)

102006 # 무주건 죽여불 때난 이펜이 안 오람젠 산에 올람젱 심어당 답달허당 보민 죽어불곡, 또 산에선 오랑 먹을 거 안 내놈젠 답달허여근에 먹을 거 안 내놓민 찔렁 죽여불고. 우리 사돈 이제 우리 족은올케 어멍 아방네도 죄 엇이 다 죽엇어. 산에서 죽여불언.(무조건 죽어버릴 때니까 이편에 안 온다고 산에 오른다고 잡아다가 닦달하다가 보면 죽어버리고, 또 산에서 와서 먹을 거 안 내놓는다고 닦달해서 먹을 거 안 내놓으면 찔러서 죽여버리고. 우리 사돈 이제 우리 작은올케 어머니 아버지도 죄 없이 다 죽었어. 산에서 죽여 버렸어.)

102006 @ 아이고.(아이고.)

102006 # 산에서 오랑 죽이젠 허난 아이고 날랑, 어멍이 날랑 죽이나대나 우리 아덜은 살려 ᄃᆞ라, 우리 아덜랑. 경허단 보난 할망 문저 팍 죽여 뒌에 그 조름에 아덜을 죽여 분 거라.(산에서 와서 죽이려고 하니까 아이고 나랑, 어머니가 나랑 죽이더라도 우리 아들은 살려 달라, 우리 아들이랑. 그러다 보니까 할머니 먼저 팍 죽여 두고 그 뒤에 아들을 죽여 버린 거야.)

102006 @ 아까 할머니 곱으레 뎅겨난 말도 ᄒᆞᆫ 번 더 ᄀᆞᆯ아줍서.(아까 할머니 숨으러 다녔던 말도 한 번 더 말해주세요.)

102006 # 우리 곱으레 뎅겨난 거. 어둑어가민 해가 저레 강 어슬어슬 헤 가민이 신작로, 그땐 우에 살 때난 해 끗턱이 져가민 허벅 정 오는 거라. 물 질레 오는 추룩 헹. 허벅 져근에 물구덕 소곱더레 이 검은 포 톡허게 개엉놔근에 물 질레 ᄂᆞ려오는 추룩헹 ᄂᆞ려오랑 이디 오랑 앚앗다근에 막 어둑아가민 성창더레 ᄂᆞ려가는 거라. 갯것 바위더레. 솔솔 ᄂᆞ려가민 이 검은 포따리 썽 왁왁 어둑으민 영 물가에덜 강 앚아. 이 검은 바위, 물바위에 가민 돌이 거멍허여이. 거멍허민 그 트멍에 강 앚아불민 몰라.(우리 숨으러 다녔던 거. 어두워지면 해가 저리 가서 어스름해지면 신작로, 그땐 위에 살 때니까 해 끄트머리가 져가면 허벅 져서 오는 거야. 물 길러 오는 거처럼 해서. 허벅 져서 '물구덕' 속에 이 검은 포 톡하게 개어놔서 물 길러 내려오는 것처럼 해서 내려와서 여기 와서 앉았다가 아주 어두워지면 포구로 내려가는 거야. 갯가 바위에. 살살 내려가면 이 검은

보따리 써서 어두컴컴하면 이렇게 물가에들 가서 앉아. 이 검은 바위, 물 바위에 가면 돌이 검어. 검으면 그 틈에 가서 앉아버리면 몰라.)

102006 @ 거멍헌 포 쓰고 영 허민예?(검은 포 쓰고 이렇게 하면요?)

102006 # 검은 포 썽 영 앚아불민 몰르주게.(검은 포 써서 이렇게 앉아버리면 모르지.)

102006 @ 밤인 그디 강 곱으는 거라?(밤엔 거기 가서 숨는 거야?)

102006 # 응, 경 곱앗당 붉아가민 또 올라오는 거라. 붉아가민 올라오민 낮인 그것덜 올라가 부난.(응, 그렇게 숨었다가 밝으면 또 올라오는 거야. 밝으면 올라오면 낮에는 그것들 올라가 버리니까.)

102006 @ 응.(응.)

102006 # 올라가 부난 낮인 집이서 일허고 밥헹 먹고. 경허민 밥을 인칙 헹 먹어. 이제 산에서 ᄂᆞ려오기 전이. 곱으레 가불젠.(올라가 버리니까 낮엔 집에서 일하고 밥해서 먹고. 그러면 밥을 일찍 해서 먹어. 이제 산에서 내려오기 전에. 숨으러 가버리려고.)

102006 @ 응.(응.)

102006 # 경헹 그거 헹 먹어근에 가불민 오랑 봉 엇이민 가불고. 또 우리 곱으레 가기 전에는 이거 중간으로 ᄀᆞᆯ아졋저. 쳇 번은 그추룩 허난 감절, 고구말 파서이. 밧듸 고구말 판 오젠 허난에 산에서 내려오란 이젠 아싯날 오난 산엣 사름덜이 오난 요디 하시[26]가 잇어. 우리 요 신흥리[27]광 태흥리 골메 하시가 잇어. 게난 그것이 일본 시대에 논 하시난 남ᄃᆞ릴 논 거라이.(그렇게 해서 그거 해서 먹어서 가버리면 와서 봐서 없으면 가버리고. 또 우리 숨으러 가기 전에는 이거 중간으로 말했다. 첫 번은 그렇게 하니까 고구마를, 고구마를 팠어. 밭에 고구마를 파서 오려고 하니까 산에서 내려와서 이젠 전날 오니까 산에 사람들이 오니까 요기 다리가 있어. 우리 요 신흥리와 태흥리 사이에 다리가 있어. 그러니까 그것이 일본 시대에 놓은 다리니까 나무다릴 놓은 거야.)

102006 @ 응.(응.)

102006 # 남ᄃᆞ리 이추룩 놔놩 이디 자갈을 ᄭᅳᆫ 거난 요놈으 것덜, 산에 것덜이 밤인 오랑 그거 자갈 박박박박 긁어비뒁 차 못 뎅기게 그디 불을 탁 부쪄부는 거라. 겡헤뒁 가불민 우린 이디 살당 그것덜 오랑 산에서 오랑 그 하시 믄 그거 자갈 긁어 ᄂᆞ려뒁 가불민 또 우린 강 그걸 믄 자갈 메와. 경 메우노렌 허민 지서에서 오랑 검사허여. 지서드레 연락이 가멍 아이고 영헹 ᄃᆞ리 믄 파비엇수다. 영헹 이디서 연락헤 가멍 그디 강 또 자갈 지어다 놩, 혼번은 감저 파노렌 허난 완에 그 사름덜 이제 믄 죽어비엇어. 우리 사는 사름덜은 죽으렌 헴덴. 건 뭔 말이넨 허난 산에서 와근엥에 그 다리 판 거를 왜 고쪄 놓느냐?(나무다리 이렇게 놔서 여기 자갈을 깐 거니까 요놈의 것들, 산에 것들이 밤에는 와서 그거 자갈 박박박박 긁어버리고 차 못 다니게 거기 불을 탁 붙여버리는 거야. 그렇게 해두고 가버리면 우린 여기 살다가 그것들 와서 산에서 와서 그 다리 모두 그거 자갈 긁어 내려두고 가버리면 또 우린 가서 그걸 모두 자갈 메워. 그렇게 메우노

---

26) '하시'는 일본어 'はし'에서 온 말로 다리라는 뜻이다.

27) '신흥리'는 서귀포시 남원읍 신흥리로 제보자가 살고 있는 남원읍 태흥리 옆 마을이다.

라고 하면 지서에서 와서 검사해. 지서로 연락이 가면서 아이고 이렇게 다리 모두 파버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서 연락해 가면서 거기 가서 또 자갈 져다 놔서, 한번은 고구마 파노라고 하니까 와서 그 사람들 이제 모두 죽어버렸어. 우리 사는 사람들은 죽으라고 한다고. 그건 무슨 말이냐고 하니까 산에서 와서 그 다리 판 것을 왜 고쳐 놓느냐?)

102006 @ 응.(응.)

102006 # 어, 우리가 파신디 당신네가 고쪄 놓느냐? 아, 게민 어떵허렌 허는디 우린 죽을 거 아니넨. 게민 당신넨 살고 우린 죽느냐 이젠 경헌 거라. 경헹 간게마는 경 골아 뒌 갓단에 또 혼 시간 후엔 또 온 거라. 오란 영영 손 영영 우리가 고쪗젠 허지 맙서. 우리 믄 고쪄놧수다. 다리 고쪄놔시메 산에서 와갓젠 곧지 맙서. 이제 경헨 막아분 거라이. 경헨 우리가 경허멍 살앗어.(어, 우리가 팠는데 당신네가 고쳐 놓느냐? 아,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하는데 우린 죽을 거 아니냐고. 그러면 당신네는 살고 우린 죽느냐 이젠 그렇게 한 거야. 그렇게 해서 가더니마는 그렇게 말해두고 갔다가 또 한 시간 후엔 또 온 거야. 와서 이렇게 이렇게 손 이렇게 이렇게 우리가 고쳤다고 하지 마세요. 우린 모두 고쳐놨습니다. 다리 고쳐놨으니까 산에서 왔다갔다고 말하지 마세요. 이제 그렇게 해서 막아버린 거야.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면서 살았어.)

102006 @ 하시가 뭐?('하시'가 뭐?)

102006 # 다리, 다리.(다리, 다리.)

102006 @ 다리가 하시?(다리가 '하시'?)

102006 # 어, 연날에 연날에 일본말로 하시라, 이거 다리가 아니고. 한국말론 다린디 일본말론 하시 이거.(어, 옛날에 옛날에 일본말로 '하시'야, 이거 다리가 아니고. 한국말론 다린데 일본말론 '하시' 이거.)

102006 @ 응.(응.)

102006 # 엿날에 이거 일본 사름덜이 이건 이 다릴 논 거라, 이거. 우리 어릴 때 이거 제국시대에 이 다리 논 거. 이 다리가 엇엉 허민 저디 올라가젠 허민 이쪽, 저쪽 이만은 똑 이추룩 헌 디라. 영 허여져불민 겨울엔 차 오민, 눈 오민 올라가지 못헤근에 차가 올라가질 못 헤낫어. 경 눈 녹아가민 이제 사름덜 막 빌엉 가근에 찰 밀렁 올라가곡 이펜드레도 그거 저펜드레도 그거 이 내 고랑창이 영 양펜으로 영 뒌 디라. 경헌 디라. 저거 다리 논 게. 요 신흥리 다리 논 게. 이제 다리 놓난 그거주. 겨난 일본 시대에 저것이 논 거난 일본시대 말론 하시라. 일본말로 하시, 우리 여기 말론 다리지.(옛날에 이거 일본 사람들이 이건 이 다릴 놓은 거야, 이거. 우리 어릴 때 이거 제국시대에 이 다리 놓은 거. 이 다리가 없어서 하면 저기 올라가려고 하면 이쪽, 저쪽 이만큼 꼭 이렇게 한 데야. 이렇게 해버리면 겨울엔 차 오면, 눈 오면 올라가지 못해서 차가 올라가질 못했었어. 그렇게 눈 녹아가면 이제 사람들 막 빌어 가근에 차를 밀어서 올라가고 이편 쪽으로도 그거 저편 쪽으로도 그거 이 내 고랑창 이렇게 양편으로 이렇게 된 데야. 그런 데야. 저거 다리 놓은 게. 요 신흥리 다리 놓은 게. 이제 다리 놓으니까 그거지. 그러니까 일본 시대에 저것이 놓은 거니까 일본 시대 말론 '하시'야. 일본말로 '하시', 우리

여기 말론 다리지.)

102006 @ 난 젓가락이 하신가 헨.(난 젓가락이 '하시'인가 했어.)

102006 # 아니, 아니. 일본말로 하시 저거. 겨난 우리 잇당 그 일본말 부쩡 하시다리, 하시다리 허는 거주. 겨난 일본말론 저거 하시. 저거 일본시대에 저거 논 거주게. 그 추룩 허영 파불민 우린 ᄉᆞ뭇. 경헹 파비뒁 가곡 밤인 그거 오랑 파곡 사름 게나저나 우리 부락, 게나저나 올라글렌 막 밤인 오랑 ᄃᆞᆼ기곡 허민 그 전이 곱으레 안 뎅겻어이. 안 뎅견 집이만 ᄀᆞ만이 눠시민 오랑 일름 다 알아.(아니, 아니. 일본말로 '하시' 저거. 그러니까 우리 있다가 그 일본말 붙여서 '하시'다리, '하시'다리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일본말로는 저거 '하시'. 저거 일본 시대에 저거 놓은 거지. 그렇게 해서 파버리면 우린 사뭇. 그렇게 해서 파버리고 가고 밤엔 그거 와서 파고 사람 그러나저러나 우리 부락, 그러나저러나 올라가자고 막 밤엔 와서 당기고 하면 그 전에 숨으러 안 다녔었어. 안 다녀서 집에만 가만히 누었으면 와서 이름 다 알아.)

102006 @ 예.(예.)

102006 # ○○인. 우리 큰오라바니 일름이 ○○이고 ○○주. ○○인 어디 가수과? ○○는 어디 가수과? 똘은 어디 가수과? 경허민 가네들 뭐 고기 나끄레 갓주. 그자 경헨 설러부는 거라. 밤인 고기 나끄레 간 엇어. 쎄어도 고기 나끄레 갓수과? 영허민.(○○인. 우리 큰오라버니 이름이 ○○이고 ○○지. ○○인 어디 갔습니까? ○○는 어디 갔습니까? 딸은 어디 갔습니까? 그러면 걔네들 뭐 고기 낚으러 갔지. 그저 그렇게 해서 그만둬 버리는 거야. 밤엔 고기 낚으러 가서 없어. 세어도 고기 낚으러 갔습니까? 이렇게 하면.)

102006 @ ᄇᆞ름 쎄어도?(바람 세어도?)

102006 @ 응, 게. ᄇᆞ름 쎄어도 가주게 어떵헤여. 살젠 허민 고길 나까 오라사 우린 그거 밥, 우린 그것이 밥벌이난 헐 수가 엇어. 경헤영 태풍이나 안 불민 가야주. 겨민 우린 또 우리 어머니넨 영 방에 눕고 우린 검은 포 탁 써근에 정헌 앙팡에 강 곱아비어, 밤이. 겨민 똘은 어디 갓수과? 경허멍 다 들어. 경허민 몰라 가네도 어디 가신디 놀레 가신가 몰라. 경허민 놀레 가민 밤 오랜디 안 옵니까 허당 딱 흔 시로 두 시 뒈가민 싹 올라가 비어. 겨민 우린 영 신작로 도로변 바위에 살주, 허민 산에서 ᄂᆞ려오민 어떵 허느냐민 요것이 엿사도 아니허여이, 왓샤라 요거 소리덜이 막 기십좋게 뭐 이거라 왓샤, 왓샤, 왓샤.(응, 그렇지. 바람 세어도 가지 어떻게 해. 살려고 하면 고길 낚아 와야 우린 그거 밥, 우린 그것이 밥벌이니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태풍이나 안 불면 가야지. 그러면 우린 또 우리 어머니넨 이렇게 방에 눕고 우린 검은 포 딱 써서 저런 고방에 가서 숨어버려, 밤에. 그러면 딸은 어디 갔습니까? 그러면서 다 물어. 그러면 몰라 걔네도 어디 갔는지 놀러 갔는가 몰라. 그러면 놀러 가면 밤 오랜데 안 옵니까 하다가 딱 한 시로 두 시 되어가면 싹 올라가 버려. 그러면 우린 이렇게 신작로 도로변 가장자리에 살지, 하면 산에서 내려오면 어떻게 하느냐면 요것이 '엿사'도 아니해, '왓샤'야 요거 소리들이 막 '기십'좋게 뭐 이거야 '왓샤, 왓샤, 왓샤'.)

102006 @ 하하하.(하하하.)

102006 # 막 신작로로 동드레 갓다 서르레 갓다 문 난리라 이거 엿사도 아니고 왓샤, 왓샤, 왓샤.(막 신작로로 동으로 갔다 서로 갔다 모두 난리야. 이거 '엿사'도 아니고 '왓샤, 왓샤, 왓샤'.)

102006 @ 하하하하.(하하하.)

102006 # ᄀᆞ만이 곱앙 베리민 막 경허멍 막 동드레 둘악, 서르레 둘악 허당 혼 시만 뒈가민 싹 올라가 비어. 아이고 사는 게 삶 아니. 겁나.(가만히 숨어서 보면 막 그렇게 하면서 막 동으로 달려, 서로 달려 하다가 한 시만 되어가면 싹 올라가 버려. 아이고, 사는 게 삶 아니. 겁나.)

102006 @ 아까 오라방 곱아난 것도.(아까 오빠 숨었던 것도.)

102006 # 오라바니 곱아난 건 모믈팟 아래, 낮인 가민 아침 붉아가민 그 사름덜 올라가는 대로 올라강 조름에 강 모믈팟 아래 강 솔솔 기어들엉 한가운디 강 곱앗당 또 어둑어가민 그 사름덜 ᄂᆞ려옴 전이 또 ᄂᆞ려오랑 배 탕 바당에 나가비어. 배 탕 바당에 나가불고 센 날은 가지 못허민 또 우리광 ᄀᆞ치 바닷가에 영 옆에 검은 덕에 강 곱아. 경헤영 살고. 우리 조케 하나 아싯날 저냑이 낳고 뒷날 그 피 잘잘허는, 피 찰찰허는 거 안아아졍 곱으레 뎅겻어.(오라버니 숨었던 건 메밀밭 아래, 낮엔 가면 아침 밝아가면 그 사람들 올라가는 대로 올라가서 뒤에 가서 메밀밭 아래 가서 솔솔 기어들어서 한가운데 가서 숨었다가 또 어두워지면 그 사람들 내려오기 전에 또 내려와서 배 타서 바다에 나가버려. 배 타서 바다에 나가버리고 센 날은 가지 못하면 우리랑 같이 바닷가에 이렇게 옆에 검은 바위에 가서 숨어. 그렇게 해서 살고. 우리 조카 하나 전날 저녁에 낳고 뒷날 그 피 철철하는, 피 철철하는 거 안아서 숨으러 다녔어.)

102006 @ 아, 애기 나근에?(아, 아기 낳아서?)

102006 # 응, 우리 친정 올케가 뚤을 나신디 오늘 저냑 나고 낼 저냑은 그걸 안아아졍 그 핏덩어리 걸 안아아졍 강 경헤도 요놈으 애기가 깩소릴 안헌 거라. 깩소릴 안허여.(응, 우리 친정 올케가 딸을 낳았는데 오늘 저녁 낳고 낼 저녁은 그걸 안아서 그 핏덩어리 것을 안아서 가서 그래도 요놈의 아기가 꽥 소릴 안한 거야. 꽥 소릴 안 해.)

102006 @ 울어시민 걸려실 건디.(울었으면 걸렸을 건데.)

102006 # 울어시민 걸림이라도 허주마는 깩 소릴 안 헤영 게도 쿰에 쿰엉 그 피 잘잘 나는 걸 쿰에 쿰언 그 성창 간 곱아낫어. 아이고, 원원 어이가 엇어. 경허멍 허단에 이디서가 이 태흥리 사름 운 떼엇젠 허여. 청년덜이 싹 혼번은 모이라 허는 거라. 청년덜이 남은 이 태흥 전체가 혼밧듸레 모이렌 헨 모연 어떵헐 거냐고 우리가 산드렐 올를 거냐, 아니믄 우리가 이쪽을 둥길 거냐 허민 ᄒᆞ나 사름이 잇당 생각헤 보렌, 산에 가면 멧 년이나 곱앙 살아지넨, 이거 ᄒᆞ루이틀이민 끗날 일도 아니고 멧 년사 끌디 몰른디 누가 양석은 헤다주민 먹고 누게가 먹을 걸 당헤주민 산엔 강 오래 사느냐. 경헤도 우리 이쪽은 가면은 낮인 게도 나상 뎅기멍 농술 헤먹을 수 잇지 안허냐. 산엔 가민 낮이 활동 못 헐 건디 어떵헤근에 누게 먹을 걸 당헤줭 사느냐. 영허난, 게건 우리라근에 이쪽으로 우리 가자. 경헨 이젠 남원지서드레 이 태흥 전체 청년덜 왈칵 담아든 거라.(울었으면 걸리기라도 하지마는 꽥 소릴 안 해서 그래도 품에 품어서 그 피 철철 나는 걸

품에 품어서 그 포구 가서 숨었었어. 아이고, 원원 어이가 없어. 그러면서 하다가 여기서가 이 태흥리 사람 운 트였다고 해. 청년들이 싹 한번은 모여라 하는 거야. 청년들이 남은 이 태흥 전체가 한군데 모이라고 해서 모여서 어떻게 할 거냐고 우리가 산으로 오를 거냐, 아니면 우리가 이쪽을 당길 거냐 하면 한 사람이 있다가 생각해 보라고, 산에 가면 몇 년이나 숨어서 살 수 있냐고, 이거 하루이틀이면 끝날 일도 아니고 몇 년이야 끌지 모르는데 누가 양식은 해다주면 먹고 누가 먹을 걸 당해주면 산엔 가서 오래 사느냐. 그래도 우리 이쪽은 가면 낮엔 그래도 나서서 다니면서 농사를 해먹을 수 있지 않냐. 산엔 가면 낮에 활동 못 할 건데 어떻게 해서 누가 먹을 걸 당해줘서 사느냐.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쪽으로 가자. 그렇게 해서 이젠 남원지서로 이 태흥 전체 청년들이 와락 담아든 거야.)

102006 @ 오.(오.)

102006 # 잡으켄, 우린 이쪽도 저쪽도 안 부뜨주만은 우리 아무 드로도 흔쪽을 부떠사 살 거난 우리 이쪽드레 둥기켄 허난 그때는 이젠 철창이엔 헌 거 잇어이. 철창은 그루후제 철창이 나고 그때는 왕대 요만은 진 거 허여근에 고쟁이 꼬짝 바수앗어[28]. 그거 ᄒᆞ나 쥐엉 영헌 질레 목 사렌 허민 그것덜안티 얻어 지주, 살아져? 그것덜은 철창헹 이만썩 진 칼.(잡겠다고, 우린 이쪽도 저쪽도 안 붙지만 우리 아무 데로도 한쪽을 붙어야 살 거니까 우린 이쪽으로 당기겠다고 하니까 그때는 이젠 철창이라고 한 거 있어. 철창은 그 후에 철창이 나고 그때는 왕대 요만큼 긴 거 해서 꼬챙이 곧추 '바수앗어. 그거 하나 쥐어서 이런 길에 길목 사라고 하면 그것들에게 바로 지지, 살 수 있어. 그것들은 철창해서 이만큼씩 긴 칼.)

102006 @ 아.(아.)

102006 # 칼 이만썩 진 거 양펜 놀 든진 거 진진헌 것덜 아졍 뎅기고 이디선 대막대기 ᄒᆞ나 그거 꼬쟁이 바순 걸로 무신걸 허여. 게난 이디서 둘리 죽어실 거라. 그거 맞안. ᄒᆞ나 사름은 습격뒈난, 원체 쎈 사름이라, 그 사름. 어느 운동 때 씨름판에 가도 정오라보질 안헌 사름인디 세 번ᄁᆞ장은 이겨내고 네 번채라가난 힘이 ᄆᆞᆯ리난 얻어 죽은 거라이. 죽엇어. 죽고 ᄒᆞ나 사름은 그 철창 앚인 요 질레에 보초 삼으로 사시난 그것덜 오란 박아부난 죽고. 둘리 경헨 죽언. 그루후젠 이제 이 성 다움을 시작을 허는 거라. (칼 이만큼씩 긴 거 양편에 날 달린 거 긴긴한 것들 가져 다니고 여기선 대막대기 하나 그거 꼬챙이 '바순' 걸로 무엇을 해. 그러니까 여기서 둘이 죽었을 거야. 그거 맞아서. 한 사람은 습격되니까, 원체 센 사람이야, 그 사람. 어느 운동 때 씨름판에 가도 져서 와보질 않은 사람인데 세 번까지는 이겨내고 네 번째 되어가니까 힘이 말리니까 바로 죽은 거야. 죽었어. 죽고 하나 사람은 그 철창 앉은 요 길에 보초 서기로 섰으니까 그것들 와서 박아버리니까 죽고. 둘이 그렇게 해서 죽었어. 그 후엔 이제 이 성 쌓기를 시작을 하는 거야.)

102006 @ 아.(아.)

102006 # 성담 다우는 거. 성담 다와근에 우리도 이디 살단 이 가름에. 겨민 이만인

28) '바수다'는 칼이나 창 끝을 갈거나 두드려서 날카롭고 뾰족하게 만든다는 뜻이다.

헌 방에 두 살림, 세 살림 다 간 살앗어. 막 문 흔밧듸 성담 요만은 싸 놔근에 그 안에 문 담아들렌 허난 어디 갈 거라? 그 안네 담아들어사 일로 절로 영 보초 사멍 저 군인덜이영 오랑 보초 사근에 총 아진 사름덜 문 보초 살 거 아니? 게난 그 안네 담아들어 노난 이 집이민 흔 댓 살림 살앗어. 어느 절에 이 방 출리곡, 듯은 디 출리곡.(성담 쌓는 거. 성담 쌓아서 우리도 여기 살다가 이 동네에. 그러면 이만큼 한 방에 두 살림, 세 살림 다 가서 살았어. 아주 모두 한군데 성담 요만큼은 쌓아 놔서 그 안에 모두 몰려들라고 하니까 어디 갈 거야? 그 안에 몰려들어야 이리로 저리로 이렇게 보초 서면서 저 군인들이랑 와서 보초 서서 총 가진 사람들 모두 보초 설 거 아니? 그러니까 그 안에 몰려들어 놓으니까 이 집이면 한 댓 살림 살았어. 어느 겨를에 이 방 차리고, 따뜻한 데 차리고.)

102006 @ 겡 낮인 강 일허고? 밧듸 강?(그래서 낮엔 가서 일하고? 밭에 가서?)

102006 # 밧듸 못 가.(밭에 못 가.)

102006 @ 아, 밧듸도 못 가.(아, 밭에도 못 가.)

102006 # 밧듸 못 가. 밧듸 못 강 그디 강 담아졍 살멍 이젠 눈 팡팡 온디 성담을 영 성 둘렁 살젠 허난 눈이 팡팡 오는디 돌을 지는 거라이, 돌. 돌 헤근에 요 저 푸지게[29]라고 새 헤영 영 여펴근에 요만은 무시걸로 영 여평 다와근에 요레 톡허게 놩. 베 ᄒᆞ나 요레 놓곡 허민 돌 흔 벙뎅이 요레 놓민 그거 영헹 손으로 받앙 정 강 그 담 답는 디 강 놓민 성담을 막 높으게 싸낫어. 사름 못 들어오게. 막 높으게 싸민 초솟막을 요만이 ᄒᆞ나 짓고 또 저만이 강 ᄒᆞ나 짓곡 초솟막을 트멍트멍 짓어. 경허민 우리도 보초 사레 뎅겨낫어.(밭에 못 가. 밭에 못 가서 거기 가서 몰려들어서 설면서 이젠 눈 펑펑 왔는데 성담을 이렇게 성 둘러서 살려고 하니까 눈이 펑펑 오는데 돌을 지는 거야, 돌. 돌 해서 요 저 '푸지게'라고 해서 새 해서 이렇게 엮어서 요만큼은 무엇으로 이렇게 엮어서 땋아서 요리 톡하게 놔서. 바 하나 요리 놓고 하면 돌 한 덩어리 요리 놓으면 그거 이렇게 해서 손으로 받아서 져서 가서 그 담을 쌓는 데 가서 놓으면 성담을 아주 높게 쌓았어. 사람 못 들어오게. 아주 높게 쌓으면 초소막을 요만큼 하나 짓고 또 저만큼 가서 하나 짓고 초소막을 듬성듬성 지어. 그러면 우리도 보초 서러 다녔었어.)

102006 @ 아, 여자도?(아, 여자도?)

102006 # 응, 여자도 처녀 때 강 그자 그 초솟막에 강 지켜근에 불 ᄎᆞ는 거, 불침번. 강은에 영 허민 절로 순찰 영 오라가멍 사름이 보초 사시냐, 보촛막에 올라강 보초 사시냐, 순찰을 막 돌주, 순경덜이영 군인덜이영. 경허민 돌아가멍이 우리도 영 막 짓엉 우이 올라가. 올라가민 어들로 인기척 소리 나민 신홀 헤사고 헐 거 아니? 경헹 헐 거난 빙허게 이젠 성 싸 놔근에 초솟막, 막이엔 허영 짓어근에 그디 강 올라 아져근에 망보는 거라. 흔 사름이 글메들멍 흔 시간씩. 오래 앚이민 졸아분덴 흔 시간썩. 흔 시간 앚이민 강 아래, 아래 불 추멍 앚곡 우이 올라강 앚곡. 게민 졸지 못허게시리 그자 흔 시간 넘어 앚아가민 졸아분덴 경허당 보민 십격 든덴. 폭도덜 오랑 십격 든덴. 십격, 십격 헤낫어. 폭도덜 오라근에 담아지는 게 십격이라. 그게.(응, 여자도 처녀 때 가서 그냥

29) '푸지게'는 띠로 엮어서 부피가 큰 것을 지고 다닐 수 있게 만든 지게다.

그 초소막에 가서 지켜서 불 쬐는 거, 불침번. 가서 이렇게 하면 저리로 순찰 이렇게 올라가면서 사람이 보초 섰나, 보초막에 올라가서 보초 섰니, 순찰을 막 돌지, 순경들이랑 군인들이랑. 그러면 돌아가면서 우리도 막 지어서 위에 올라가. 올라가면 어디로 인기척 소리 나면 신호를 해야하고 할 거 아니? 그렇게 해서 할 거니까 빙하게 이젠 성 쌓아 놔서 초소막, 막이라고 해서 지어서 거기 가서 올라가서 망 보는 거야. 한 사람이 번갈아가면서 한 시간씩. 오래 앉으면 졸아버린다고 한 시간씩. 한 시간 앉으면 가서 아래, 아래 불 쬐면서 앉고 위에 올라가서 앉고. 그러면 졸지 못하게끔 그저 한 시간 넘게 앉아가면 졸아버린다고 그러다가 보면 습격 든다고. 폭도들 와서 습격 든다고. 습격, 습격했었어. 폭도들 와서 몰려드는 게 습격이야. 그게.)

102006 @ 아, 건 십격.(아, 그건 습격.)

102006 # 응, 어디 십격 들엇저 허여 가민 이 폭도덜 오라근에 싸움 부뜨는 거 십격이라, 엿날에. 십격 들엇저, 아무 디 십격 들엇저. 견디 이제 경허멍 살아가는 게 옥귀[30]엔 헌 디 저 의귀이.(응, 어디 습격 들었다 해 가면 이 폭도들 와서 싸움 붙는 거 습격이야, 옛날에. 습격 들었다, 아무 데 습격 들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살아가는 게 옥귀라고 한 데 저 의귀.)

102006 @ 예.(예.)

102006 # 그디 학교집 ᄒᆞ나만 내비둰에 싹 내려와 비서. 산에 올라가지 안헌 사름은 다 이제 이쪽더레 문 ᄂᆞ려온 거라. ᄂᆞ려오난 그디 학꾄 오난 군인덜이 육지서 하영 들어왓어이 그디. 저 군인덜 오랑 산 디 그디ᄀᆞ라 뭐엔 ᄀᆞᆯ아낫저마는. 군인덜 사는 디ᄀᆞ라 그때 뭐엔 ᄀᆞᆯ아낫저마는. 오래난 잊어비서. 그디 오랑 군인덜 산덴 허난 산에서 십격이 온 거 아니? 그 군인덜이 마침 육지서 군인 막 온 때난 옥귀ᄆᆞ을 이제 십격 오랑 싸움을 부뜬 거라이. 아이고, 이젠 우린 이제 이디서 다 살앗저. 그자 보민 불이 벌겅허는 거라. 총, 총 ᄂᆞᆯ아뎅기멍 팡팡팡 ᄂᆞᆯ아뎅기멍 이 헤벤이서 붸려도 이추룩 남이 엇인 때난 그때.(거기 학교 집 하나만 내버려두고 싹 내려와 버렸어. 산에 올라가지 않은 사람은 다 이제 이쪽으로 모두 내려온 거야. 내려오니까 거기 학교는 오니까 군인들이 육지서 많이 들어왔어 거기. 저 군인들 와서 사는 데 거기보고 뭐라고 말했었다마는. 군인들 사는 데보고 그때 뭐라고 말했었다마는. 오래니까 잊어버렸어. 거기 와서 군인들 산다고 하니까 산에서 습격이 온 거 아니? 그 군인들이 마침 육지서 군인 막 온 때니까 의귀마을 이제 습격 와서 싸움이 붙은 거야. 아이고, 이젠 우린 이제 여기서 다 살았다. 그저 보면 불이 벌건 거야. 총, 총 날아다니면서 팡팡팡 날아다니면서 이 해변에서 봐도 이렇게 나무가 없는 때니까 그때.)

102006 @ 응.(응.)

102006 # 총소리로 원원 귀가 쟁쟁허고 아이고 이젠 다 살앗저. 저 군인덜 다 살앗저. 다 살앗저. 군인덜 다 죽엄저, 다 죽엄저 허단 보난 ᄒᆞᆫ ᄒᆞᆫ 시쯤에 시작헌 것이 ᄒᆞᆫ 세 시ᄁᆞ장 ᄒᆞᆫ 세 시간을 허엿어. 건디 세 시간 넘어가난 껌껌허연 시난에 그땐 요샌, 전화도 엇주, 그땐이. 연락이 온 거라이. 이제 남원 지서드레 연락 오란 문딱 올라오렌. 남

30) '옥귀'는 서귀포시 남원읍 의귀리의 옛 지명이다.

원읍 사름덜 다 올라오렌 헨 젊은 사름덜 남제덜은 다 간 거라. 간 보난 겡헤도 이디서 군인이 하난 산에서 경 ᄂᆞ려와 봐도이 그디서 온 사름이 하영 죽고 육지서 군인 둘리 죽엇어. 육지서 온 군인 둘리 이디서.(총소리로 원원 귀가 쟁쟁하고 아이고 이젠 다 살았다. 저 군인들 다 살았다, 다 살았다. 군인들 다 죽었다, 다 죽었다 하다 보니 한 한 시쯤에 시작한 것이 한 세 시까지 한 세 시간을 했어. 그런데 세 시간 넘어가니까 깜깜해서 있으니까 그땐 요샌, 전화도 없지, 그땐. 연락이 온 거야. 이제 남원 지서로 연락와서 모두 올라오라고. 남원읍 사람들 다 올라오라고 해서 젊은 사람들 남자들은 다 간 거야. 가서 보니까 그래도 여기서 군인이 많으니까 산에서 그렇게 내려와 봐도 거기서 온 사람이 많이 죽고 육지서 군인 둘이 죽었어. 육지서 온 군인 둘이 여기서.)

102006 @ 예, 예.(예, 예.)

102006 # 경헨 그때 십격 들언에 그때 ᄒᆞᆫ 번 이디서 전쟁 부떠낫어. 옥귀서, 옥귀ᄆᆞ을서.(그래서 그때 습격 들어서 그때 한 번 여기서 전쟁 붙었었어. 의귀서, 의귀마을에서.)

102006 @ 아, 옥귀서.(아, 의귀서.)

102006 # 응. 전쟁 부떤에 경헨 이디서 우리 큰오라바니네도 가고 ᄆᆞᆫ딱 간 보난 그디 사름덜 죽은 사름덜 어떵헤넨, 아이고 사름덜 하영 죽언. 하영 죽언. 보난 먹을 거 엇이난 감저 친 거, 고구마 친 거 멧 개 요런 항고[31]에 항고엔 헌 거 영 저 벤또[32] 닮은 거 친 ᄃᆞᆫ 거 잇어. 그런 거에 허난 조팝 게싹[33]헌 조팝 ᄒᆞᆫ 직 담아진 것도 잇고 고구마 멧 개 저 담아진 것도 잇고 경 안헌 건 기냥 오란 배고파사신디 총질헐 나위도 엇이난 죽어진 거주. 보난 꽝광 가죽만 부떤 원 아무것도 엇인 사름덜토 와십디덴. 막 하영 죽언. 게난 의귀리 가민 어느 내 고랑챙이사 앗당사 담아비신디 기자 ᄒᆞᆫ 구뎅이에 막 담아놔근에 그자 흑 치데경 내빗젠 허주게.(응. 전쟁 붙어서 그래서 여기서 우리 큰오라버니네도 가고 모두 가서 보니까 거기 사람들 죽은 사람들 어떻게 하냐고, 아이고, 사람들 많이 죽었어. 많이 죽었어. 보니까 먹을 거 없으니까 고구마 찐 거, 고구마 찐 거 몇 개 요런 '항고'에 '항고'라고 한 거 이렇게 저 '벤또' 같은 거 끈 단 거 있어. 그런 거에 하니까 조밥 '게삭'한 조밥 한 숟가락 담긴 것도 있고 고구마 몇 개 저 담긴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건 그냥 와서 배고팠는지 총질할 나위도 없으니까 죽은 거지. 보니까 꽝꽝 가죽만 붙어서 원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도 왔더라고. 아주 많이 죽었어. 그러니까 의귀리 가면 어느 내 고랑창에야 가져다야 담아버렸는지 그저 한 구덩이에 마구 담아놔서 그저 흑 끼얹어서 내버렸다고 하지.)

102006 @ 아이고.(아이고.)

102006 # 그때 막 하영 죽어낫어. 어디 사름사 죽어신디 몰라. 그때 이 응원대, 응원대 허멍 육지서덜 하영 들어오란 저 산에 살아나부난 어디 사름사 어떵 죽어신디도 몰르고.(그때 아주 많이 죽었었어. 어디 사람이야 죽었는지 몰라. 그때 이 응원대, 응원대 하면서 육지서들 많이 들어와서 저 산에 살았었기에 어디 사람이야 어떻게 죽었는지도

31) '항고'는 일본어 'はんごう'에서 온 말로 반합 혹은 도시락이라는 뜻이다.
32) '벤또'는 일본어 'べんとう'에서 온 말로 도시락이라는 뜻이다.
33) '게삭'은 차진 기가 없고 메진 모양을 나타낸 말이다.

모르고.)

102006 @ 할머니넨 누게 경헨 죽진 안허연?(할머니네는 누구 그렇게 해서 죽진 않았어?)

102006 # 아, 우리 ᄆᆞ슬은 죽은 사름 엇어, 경헤도.(아, 우리 마을은 죽은 사람 없어, 그래도.)

102006 @ 다행이여예.(다행이네요.)

102006 # 그 옥귀서 전쟁 부떤에 경헌 경 싸운 때도 세 시간을 경 싸움 부떤 헤도 이 우리 제줏사름은 ᄒᆞ나 죽은 사름 엇엇어. 육지서 딱 앞뒷칩이서 군인을 오고렌. 막 그 사름이 경 울언, 군인 ᄒᆞ나가. 무사 울엄덴 허난 앞뒷칩이서 ᄀᆞ찌ᄀᆞ찌 나완 이때ᄁᆞ장 뒈신디 지는 살고 지광 ᄀᆞ찌 온 사름 ᄒᆞ나 앞뒷칩이서 죽으난 어떵 강 이 부모를 만날 거냐? 나는 살앗지만은이 부모를 어떵 강 만낭 말을 헐 거냐 헨 막 그땐 군인 ᄒᆞ나 경 울어낫젠 허메.(그 의귀서 전쟁 붙어서 그런 그렇게 싸운 때도 세 시간을 그렇게 싸움 붙어서 해도 이 우리 제주사람은 하나 죽은 사람 없었어. 육지서 딱 앞뒷집에서 군인을 왔다고. 막 그 사람 그렇게 울었어, 군인 하나가. 왜 우냐고 하니까 앞뒷집에서 같이같이 나와사 이때까지 되었는데 자기는 살고 자기와 같이 온 사람 하나 앞뒷집에서 죽으니까 어떻게 가서 부모를 만날 거냐? 나는 살았지만 부모를 어떻게 가서 만나서 말을 할 거냐 해서 막 그땐 군인 하나 그렇게 울었다고 해.)

102006 @ 이북에서 온 사름?(이북에서 온 사람?)

102006 # 아니, 이북에서 온 사름이 아니고 이 우리 우리 남한 사름덜.(아니, 이북에서 온 사람이 아니고 이 우리 우리 남한 사람들.)

102006 @ 아, 남한 사름덜.(아, 남한 사람들.)

102006 # 응, 이북에서 온 사름사 죽던지 말던지.(응, 이북에서 온 사람이야 죽든지 말든지.)

102006 @ 하하하.(하하하.)

102006 # 겨난 이디도 경 허단 허단 버쳐가난 이디서 딱 돌아가멍 해안 감시 딱 헤노난 산에서 어디 나갈 수가 엇인 거라이. 벨 디로 와지게 허나 해안 감시 딱 헤노난 어디서 배가 들어오나 나가젠 헤도 조사, 들어오라도 조사. 요 궤기 나끄레 ᄒᆞ날 가도 조사헤노난 어디서 들어올 사름이 엇어. 겨난 어디서가 어떵 살단덜사 죽어신디 살아신디 몰라. 겐 말쩨라 가난 ᄒᆞ나 ᄒᆞ나 이제 산에서 오래 못 살암직헹 굶엉 죽어질 사름은 손 들르멍 ᄂᆞ려온 사름덜은 어떵 어떵 살고. 이쪽 부뜨멍 살고 경 안헌 사름은 산에서 죽어. 어디 이북 사름도 어떵사 죽어신디 살아신디.(그러니까 여기도 그렇게 하다가 하다가 부쳐 가니까 여기서 딱 돌아가면서 해안 감시 딱 해놓으니까 산에서 어디 나갈 수가 없는 거야. 별 데로 올 수 있게 하나 해안 감시 딱 해놓으니까 어디서 배가 들어오거나 나가려고 해도 조사, 들어와도 조사. 요 고기 낚으러 하날 가도 조사해놓으니까 어디서 들어올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어디서가 어떻게 살다가들 죽었는지 살았는지 몰라. 그래서 말째로 가니까 하나 하나 이제 산에서 오래 못 살 것 같아서 굶어서 죽을 것 같은 사람은 손 들면서 내려온 사람들은 어떻게 어떻게 살고. 이쪽 붙으면서 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산에서 죽어. 어디 이북 사람도 어떻게야 죽었는지 살았는지.)

102006 @ 게메.(그러게요.)

102006 # 굶언 죽은 사름도 하실 거여, 산에서. 경허난 우리 생각이주이. 산에 강 살, 우리가 이디서 경 첨 산에 강 살면 우리가 누게가 먹을 걸 당헹 사느냐 허는 말이 맞아이. 산에 강 살민 낮에 활동을 못헤노난 밤이 영 보민 이디서 보민 폭도덜 살 때 영 보민 요 산꼭대기로 불이 펠롱허여이. 거 연.(굶어서 죽은 사람도 많을 거야, 산에서. 그러니까 우리 생각이지. 산에 가서 살, 우리가 여기서 그렇게 참 산에 가서 살면 우리가 누가 먹을 걸 당해서 사느냐 하는 말이 맞아. 산에 가서 살면 낮에 활동을 못하니까 밤에 이렇게 보면 여기서 보면 폭도들 살 때 이렇게 보면 요 산꼭대기로 불이 반짝해. 그거 연.)

102006 @ 응, 연락.(응, 연락.)

102006 # 서로 연락 불이라이, 연락 불. 우리가 이디 잇다 허는 연락불이라. 영 보민 이젠 이거 방풍낭이영 뭐영 이디 남이 하부난 거주, 그전인 산에 훤허게 봐져. 영 나사민 요 산에서 불이 펠록허민 또 저착 산에서 불이 펠록, 또 저 산에서 허민 욜로 불 펠록. 그거 연락허는 거 밤이. 경헤낫어. 경허멍 살단, 살단, 살단 버쳐 가난 이젠 다 손 들르멍 ᄂᆞ려오는 거 아니? 경혠 ᄂᆞ려오란 살앗주 경 안헤시민 홈치 어떵헹 살아, 삶을.(서로 연락 불이야, 연락 불. 우리가 여기 있다 하는 연락 불이야. 이렇게 보면 이젠 이거 방풍나무랑 뭐랑 여기 나무가 많아버리니까 그거지, 그전엔 산에 훤하게 보여. 이렇게 나서면 요 산에서 불이 반짝하면 또 저쪽 산에서 불이 반짝, 또 저 산에서 하면 요리로 불 반짝. 그거 연락하는 거 밤에. 그랬었어. 그러다가 살다가, 살다가, 살다가 부쳐가니까 이젠 다 손 들면서 내려오는 거 아니? 그래서 내려와서 살았지 그렇지 않았으면 한꺼번에 어떻게 해서 살아, 삶을.)

102006 @ 게메.(그러게.)

102006 # 낮이 활동을 헤사주. 낮이 활동 못허는 거 살아져? 겨난 우리 태흥리 사름운 떼엇젠 허여. 전부 이 태흥리 사름덜, 젊은 사름덜 싹 모이라고, 모연에 이젠 어떵헐 거넨. 산엘 올른다 저사름[34]덜 말을 들엉 산엘 올른다 허민 우리가 흔쪽을 아무 디라도 밀어야 뭴 거난 우린 이쪽도 못 부뜨고 산쪽도 못 부뜨난 어떵헐 거냐고. 산엔 가면 ᄒᆞ루이틀에 끗나는 것도 아니고 일 년사 뭴디 이년사 뭴디 허민 누게가 먹을 걸 당헤주느냐, 누게가 먹을 걸 당헤줭 우리가 먹고 사느냐, 활동을 못헐 건디 어떵헐 거냐, ᄯᅳ랑섬이고. 경허난에 우리 경 말아근에 우리라근에 이쪽드레 부떠불자. 우리 남쪽을 부떠야 살지, 산에 삶은 메틀이나 강 살 거냐, 경헤노난 우리 태흥리 사름은 ᄒᆞ나도 안 죽엇젠 허여. 고생도 덜허고.(낮에 활동을 해야지. 낮에 활동 못하는 거 살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 태흥리 사람 운 트였다고 해. 전부 이 태흥리 사람들, 젊은 사람들 싹 모이라고, 모여서 이젠 어떻게 할 거냐고. 산엘 오른다 당신들 말을 들어서 산엘 오른다고 하면 우리가 한쪽을 아무 데라도 밀어야 될 거니까 우린 이쪽도 못 붙고 산쪽도 못 붙으니까 어떻게 할 거냐고. 산에 가면 하루이틀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 일 년이야 될지 이 년이

34) '저사람'은 당신을 뜻하는 이인칭 대명사로 쓰인 것이다.

야 될지 하면 누가 먹을 걸 당해주느냐, 누가 먹을 걸 당해줘서 우리가 먹고 사느냐, 활동을 못 할 건데 어떻게 할 거냐, 외딴 섬이고. 그러니까 우리 그렇게 말고 우리랑 이쪽으로 붙어버리자. 우리 남쪽을 붙어야 살지, 산에 삶은 며칠이나 가서 살 거냐, 그래놓으니까 우리 태흥리 사람은 하나도 안 죽었다고 해. 고생도 덜하고.)

102007 @ 할머닌 멧 살에 결혼 헙디가?(할머닌 몇 살에 결혼하셨습니까?)

102007 # 나 스무 설에.(나 스무 살에.)

102007 @ 스무 설에? 사삼이영 다 끗낭?(스물 살에? 사삼이랑 다 끝나서?)

102007 # 사삼, 응, 끗날 무렵에 보초 살 때 우리 이디 영 성 다와근에 보초 사멍 헐 때.(사삼, 응, 끝날 무렵에 보초 설 때 우리 여기 이렇게 성 쌓아서 보초 서면서 할 때.)

102007 @ 아.(아.)

102007 # 게 결혼허난 어릴 때 결혼헤부난에 그자.(그러게 결혼하니까 어릴 때 결혼해버리니까 그저.)

102007 @ 스무 살은 어린 것도 아니주 뭐, 옛날은.(스무 살은 어린 것도 아니지 뭐, 옛날은.)

102007 # 경헤도 요새로 생각허민 어렷주게.(그래도 요새로 생각하면 어렸지.)

102007 @ 요새 생각허민 어렷지.(요새 생각하면 어렸지.)

102007 # 어렷주게. 요샌 배운 사름이라이. 열댓 술만 나가도 엿날 서른 난 사름보단도 읔아, 요샛아이덜. 가멍 말멍 그자 시집가노렌 뿐 헷주 무신 살아보도 못허고.(어렸지. 요샌 배운 사람이야. 열댓 살만 나가도 옛날 서른 난 사람보다도 야무져, 요새 아이들. 가면서 말면서 그저 시집가노라고 뿐 했지 무슨 살아보지도 못하고.)

102007 @ 할머니 게난 할아부지영 중매 결혼헨? 누게가 중신 사줜?(할머니 그러니까 할아버지랑 중매 결혼했어? 누가 중매 서줬어?)

102007 # 중매헷주, 중매. 엿날엔이 서로 연애가 엇엇어, 우리 시집갈 ᄀᆞ리엔. 연애도 엇고 남ᄌᆞ가 좀 구짐도 몰르고 여ᄌᆞ가 좀 구짐을 몰랏어. 경헤신디 나이도 어렷고 또 시집간 보난 또 신랑이엔 헤도 이녁보단 두나 아래랏고.(중매했지, 중매. 옛날엔 서로 연애가 없었어, 우리 시집갈 즈음엔. 연애도 없고 남자가 좋음 궂음도 모르고 여자가 좋음 궂음을 몰랐어. 그랬는데 나이도 어렸고 또 시집가서 보니까 또 신랑이라고 해도 자기보다 두 살 아래였고.)

102007 @ 할머니보다 두 살 밑에?(할머니보다 두 살 밑에?)

102007 # 겨난 새서방 ᄀᆞ슴도 어렷고, 나도 어리곡 허난 그자 어떵 사름 알앙 원 시지부지허게 그자 원 그냥 싸와보지도 안허고 ᄃᆞ툼도 안 헤보고 그자 가민 가는가 오민 오는가 헨 설러분 거 원. 그자 아이 가난 안 가는 건가 헨.(그러니까 새신랑감도 어렸고, 나도 어리고 하니까 그저 어떻게 사람 알아서 원 흐지부지하게 그저 원 그냥 싸워보지도 않고 다툼도 안 해보고 그저 가면 가는가 오면 오는가 해서 그만둬 버린 거 원. 그저 안 가니까 안 가는 건가 해서.)

102007 @ 누게가 중신 산에 이 집이 시집가라 경헷수과?(누가 중매 서서 이 집에

시집가라 그랬습니까?)

102007 # 아, 중매헌 어른덜은 다 죽어부난. 이젠 엿날은 어른덜 늙은 하르방덜 어디 새각시 잇저, 어디 신랑ᄀᆞ슴 좋다, 시집보내라, 구허레 왓저, 경허민 거 중매 상 허민 새서방 얼굴도 안 보고 새서방은 새각시 얼굴도 안보고 그자 가는 거엔 갓주. 경헨 가면 잘 사는 사름도 잇고 대개 못살앙 나오는 사름이 하. 새서방이 어려불고.(아, 중매한 어른들은 다 죽어버리니까. 이젠 옛날은 어른들 늙은 할아버지들 어디 새색시 있다, 어디 신랑감 좋다, 시집보내라, 구하러 왔다, 그러면 그거 중매 서서 하면 새신랑 얼굴도 안 보고 새신랑은 새색시 얼굴도 안 보고 그저 가는 거라고 갔지. 그렇게 해서 가면 잘 사는 사람도 있고 대개 못살아서 나오는 사람이 많아. 새신랑이 어려 버리고.)

102008 @ 결혼헐 때 사주 같은 것도 보지예?(결혼할 때 사주 같은 것도 보지요?)

102008 # 엿날은 사주 봣어. 엿날엔 저 사주 봥은에 좋다 궂다. 막 좋덴 혜영 간 것도 못 살아.(옛날은 사주 봤어. 옛날엔 저 사주 봐서 좋다 궂다. 아주 좋다고 해서 간 것도 못 살아.)

102008 @ 하하하, 사주가 중요헌 게 아니?(하하하, 사주가 중요한 게 아니?)

102008 # 요즘은 사주 그런 걸 안 봣주만은 엿날엔 날 택일이 메틀날이여 뭐 사주가 어떵허다, 난 날 난 시 다 들엇어이. 멧 시에 난 거, 메틀날 난 거. 겡 다 들엉 강 그디 강 믄 대조허여이. 새서방칩이 걸 놓고 그거 영 허민 이 사주허고 이 사주가 좋다, 경헤영 결혼헷주마는 결혼혜 봐도 못 사는 사름이 핫주, 잘 사는 사름 잇엇어?(요즘은 사주 그런 걸 안 봤지만 옛날엔 날 택일을 며칠이다 뭐 사주가 어떻다, 난 날 난 시 다 물었어. 몇 시에 난 거, 며칠날 난 거. 그래서 다 물어서 가서 거기 가서 모두 대조해. 새신랑집에 그걸 놓고 그거 이렇게 하면 이 사주하고 이 사주가 좋다, 그래서 결혼했지마는 결혼해 봐도 못 사는 사람이 많지, 잘 사는 사람이 있었어?)

102008 @ 할머닌 결혼혜도 이디 태흥리 계속 살안?(할머닌 결혼해도 여기 태흥리 계속 살았어?)

102008 # 응. 태흥리 살안.(응. 태흥리 살았어.)

102008 @ 어디 안 가고? 다른 디 강 안 살고? (어디 안 가고? 다른 데 가서 안 살고?)

102008 # 아니 그냥 이디서.(아니 그냥 여기서.)

102009 @ 옛날에 할머니 헐 때 결혼헐 때 무신거 가정가? 시집갈 때 무신거 가져갑디가?(옛날에 할머니 할 때 결혼할 때 무엇 가져가? 시집갈 때 무엇 가져갔습니까?)

102009 # 우리 갈 때 무신거 아정 가는 거 엇엇어. 이불벳긔.(우리 갈 때 무엇 가지고 가는 거 없었어. 이불밖에.)

102009 @ 이불, 이불은 가정 가네예?(이불, 이불은 가져서 가네요?)

102009 # 이불 그자 이녁 더끌 것만 헹 갓주. 시어멍 나시가 무시거고 시아방 나시가 무시거고 아무것도 안 헤여. 경허단 ᄒᆞ꼼 잇어가난에 시아방 나시 이불을 헤여 가는 거라, ᄒᆞ나이. 이녁 더끌 거허곡 잘사는 사름은 시아방 나시 이불을 ᄒᆞ나 헤 감저 허단 또 그루후제 나가난 이불이 아니고 옷으로 헤 가는 거라이. ᄎᆞᄎᆞ 살아가난 옷으로 헤

가단 이젠.(이불 그저 자기 덮을 거하고 잘사는 사람은 시아버지 몫이 무엇이고 아무것도 안 했어. 그러다가 조금 있어가니까 시아버지 몫 이불을 해 가는 거야, 하나. 자기 덮을 거하고 잘사는 사람은 시아버지 몫 이불을 하나 해 간다 하다가 또 그 후에 나가니까 이불이 아니고 옷으로 해 가는 거야. 차차 살아가니까 옷으로 해 가다가 이젠.)

102009 @ 돈으로.(돈으로.)

102009 # 돈으로.(돈으로.)

102009 @ 경헤도 베개는, 베개는 허지예?(그래도 베개는, 베개는 하지요?)

102009 # 베갠 두 개 헤여 가.(베갠 두 개 해 가?)

102009 @ 베갠 두 개 허여?(베갠 두 개 해?)

102009 # 그자 이불 이녁 더끌 거 ᄒᆞ나허고 그자 원체 잘사는 사름은 어떵 허다 가다오다 이녁 더끌 이불을 두 갤 헤영 가이. (그저 이불 자기 덮을 거 하나하고 그저 원체 잘사는 사람은 어떻게 하다 가다오다 자기 덮을 이불을 두 갤 해서 가.)

102009 @ 이불 두 개.(이불 두 개.)

102009 # 경 안헌 사름은 똑 기자 이불 ᄒᆞ나허고 기자 베개 두 개, 기자 그거. 겨난 나 아이고 이거 둘리 더끌 거난에, 둘리 벨 거난 베개는 두 개 허는 거. 엿날에 이거 시집가멍 말멍게.(그렇지 않은 사람은 꼭 그저 이불 하나하고 그저 베개 두 개, 그저 그거. 그러니까 나 아이고 이거 둘이 덮을 거니까, 둘이 벨 거니까 베개는 두 개 하는 거. 옛날에 이거 시집갔는지 말았는지.)

102009 @ 방석 같은 건 안헤?(방석 같은 건 안 해?)

102009 # 방석 엿날에 기자 자부동 ᄒᆞ나 이녁 ᄀᆞᆯ앙 앚는 거뿐이주, 절대 자부동은 엇엇고.(방석 옛날에 그저 방석 하나 자기 깔아서 앉는 거뿐이지, 절대 방석은 없었고.)

102009 @ 요강, 요강. 요강은 가져간덴 ᄀᆞᆯ아라.(요강, 요강. 요강은 가져간다고 말하더라.)

102009 # 요강은 옛날엔 뭬게가 잇어이. 가메, 가메에 허민 먼 디 시집가. 요즘은 차로 확허게 가불주마는 옛날에 이디서 ᄀᆞ뜨민 새각실 막 먼 디 강 헤와. 이디서 저 어디니, 재기 ᄀᆞᆫ젠 허민, 서구포 쪽. 또 이디서 ᄀᆞ뜨민 어디 성산포 쪽, 신산이쪽 경 막 먼 디 강 허민 가메 테왕 오젠 허민 새각시가게 아침밥 먹곡 경정 허다보민 ᄆᆞᆯ 테왕 오당 보민 중간에서 소벤을 보구적허지. 경허민 그거 소벤보젠 그 요강을 헹 간다 이거야.(요강은 옛날엔 독교가 있어. 가마, 가마에 하면 먼 데 시집가. 요즘은 차로 확하게 가버리지마는 옛날에 여기서 같으면 새각실 아주 먼 데 가서 해와. 여기서 저 어디니, 재게 말하려고 하면, 서귀포 쪽. 또 여기서 같으면 어디 성산포 쪽, 신산 이쪽 그렇게 아주 먼 데 가서 하면 가마 태워서 오려고 하면 새색시가 아침밥 먹고 그렁저렁 하다 보면 말 태워서 오다 보면 중간에서 소변을 보고 싶지. 그러면 그거 소변보려고 그 요강을 해서 간다 이거야.)

102009 @ 아, 가메 안네.(아, 가마 안에.)

102009 # 가메 안네 앚앙 ᄂᆞ리지 못허민 가메 안네서 소벤을 보라 이거여. 경헹 그 요강을 헤영 뎅겻젠 허주. 그루후제 이 차 남 시작허난 그런 거 안 헤여. 그런 거 안 헤

여.(가마 안에 앉아서 내리지 못하면 가마 안에서 소변을 보라 이거야. 그렇게 해서 그 요강을 해서 다녔다고 하지. 그 후 이 차 나기 시작하니까 그런 거 안 해. 그런 거 안 해.)

102009 @ 잘사는 집인 궤도 헹 갓젠 ᄀᆞᆯ아라.(잘사는 집은 궤도 해서 갔다고 말하더라.)

102009 # 우리 어릴 때는 궤도 아무것도 엇엇단 ᄎᆞᄎᆞ 욲아 가난 저 잘사는 집이 이녁대로 궬 짜서, 사는 게 아니고. 나무 오려근엥에 엿날 나 어제도 ᄀᆞᆯ앗주마는 영영 밀력ᄃᆞᆼ격 허는 걸로 남 오레영 궤를 짜이, ᄒᆞ나. 옷 놀 궤를 ᄒᆞ나 짱 보내신디. 그루후제라 가난에 이젠 궤가 나오는 거라이. 궤 나오라 가난 이제 궤를 두 개 허민 궤 ᄒᆞᆫ 바리 헹 감저, ᄒᆞᆫ 바리 헹 감저 허는 게 궤 두 개라.(우리 어릴 때는 궤도 아무것도 없었다가 차차 커가니까 저 잘사는 집에 자기대로 궬 짜서, 사는 게 아니고. 나무 오려서 옛날 나 어제도 말했지마는 이렇게 이렇게 밀렸다가 당겼다가 하는 걸로 나무 오려서 궤를 짜, 하나. 옷 놓을 궤를 하나 짜서 보냈는데. 그 후에라 가니까 이젠 궤가 나오는 거야. 궤 나와 가니까 이제 궤를 두 개 하면 궤 한 바리 해서 간다, 한 바리 해서 간다 하는 게 궤 두 개야.)

102009 @ 아, 궤 두 개가 ᄒᆞᆫ 바리.(아, 궤 두 개가 한 바리.)

102009 # 응, 궤 두 갤 허영 가나고 경 헤 가는 게 또 시아방 나시 무신 이불 헤연 감저 허는 말이 또 나낫어이. 경 헤 가민 ᄒᆞᄊᆞᆯ 사는 집인 이녁 더끌 것도 이불 두 개, 시어멍네 나시 더끌 거 ᄒᆞᆫ 채 허민 이불을 세 채 뒈 가는 거라. 경헤도 엇인 사름은 세 채랑말앙 이불 두 채 ᄇᆞ짝 헹 가이. 궤도 ᄒᆞ나. 경헨 가단 ᄎᆞᄎᆞ 헤가단 이놈으 단스가 나옴 시작허난 단스여 찬장이여 헤여가는 거주. 그루후젠 우리 어린 땐이 궤 헤영 가는 집이가 어찌허다가 막 산다 허는 집이 그 널덜 오령 널 오령 게민 ᄆᆞ쿠슬낭, 마주목낭[35], 마주목, 마주목 헤여. ᄆᆞ쿠슬낭. 그런 남 잇당 집이서덜 키운 사름덜 그런 거 베어근에 그거 오령 궤 짱. 궤도 그런 건 크게 짜지도 못헤여. 조그만허게 짜근에 그자.(응, 궤 두 갤 해서 갔었고 그렇게 해서 가는 게 또 시아버지 몫 무슨 이불 해서 간다 하는 말이 또 났었어. 그렇게 해 가면 조금 사는 집은 자기 덮을 것도 이불 두 개, 시어머니네 몫 덮을 거 한 채 하면 이불이 세 채 되어 가는 거야. 그래도 없는 사람은 세 채는커녕 이불 두 채 바듯이 해서 가. 궤도 하나. 그렇게 해서 가다가 차차 해가다가 이놈의 장롱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장롱이다 찬장이다 해가는 거지. 그 후 우리 어린 땐 궤 해서 가는 집이 어쩌다가 아주 산다 하는 집이 그 널들 오려서 널 오려서 그러면 멀구슬나무, '마주목낭', '마주목', '마주목'해. 멀구슬나무. 그런 나무 이따금 집에서들 키운 사람들 그런 거 베어다가 그거 오려서 궤 짜서. 궤도 그런 건 크게 짜지도 못해. 조그마하게 짜서 그저.)

102009 @ 그게 좋은 궤꽈? 그 낭으로 헌 게?(그게 좋은 궤입니까? 그 나무로 한 게?)

102009 # 응, 그거 좋은 궤. 그거 마주목궤, 마주목궤 허멍. 마주목으로 짠 거엔 허

35) '마주목낭'은 멀구슬나무를 말한다.

멍 그 ᄆᆞ쿠슬낭 궤가 경 좋아. 좋넨 엿날 어른덜. 야, 마주목으로이 궤 짠 거 얼마나 좋느니, 좋느니. 그거주. 그거 이녁대로 남덜 싸근에 ᄉᆞ못. 잇당 부제칩이 뚤덜 풀젠 허민 그 남 쌍 궤 짜멍 ᄆᆞᆫ 밥헹 멕이멍 집이서 ᄆᆞᆫ 궤 짱.(응, 그거 좋은 궤. 그거 멀구슬나무 궤, 멀구슬나무궤 하면서. 멀구슬나무로 짠 거라고 하면서 그 멀구슬나무 궤가 그렇게 좋아. 좋다고 옛날 어른들. 야, 멀구슬나무로 궤 짠 거 얼마나 좋니, 좋니. 그거지. 그거 자기대로 나무들 켜서 사뭇. 이따가 부잣집 딸들 팔려고 하면 그 나무 켜서 궤 짜면서 모두 밥해서 먹이면서 집에서 모두 궤 짜서.)

102011 @ 결혼허민 어디 ᄀᆞ치 시어멍이영 ᄀᆞ치 살아? 시어멍, 시아방이영 ᄯᅳ로 살아?(결혼하면 어디 같이 시어머니랑 같이 살아? 시어머니, 시아버지랑. 따로 살아?)

102011 # 부제칩인 가면은 ᄒᆞᆫ 일 년은 ᄀᆞ치 살아. 웨냐허믄 시집가면 강 시집이만, 요새엔 가나 안 가나 시집이 강 살아빗주마는 엿날은 허민이 딱 여름 나가민 친정에만 살아. ᄒᆞᆫ 일 년을. 친정에만, 친정에만 살단.(부잣집은 가면 한 일 년은 같이 살아. 왜냐하면 시집가면 가서 시집에만, 요새엔 가나 안 가나 시집에 가서 살아버리지만 옛날은 하면 딱 여름 나가면 친정에만 살아. 한 일 년을. 친정에만, 친정에만 살다가.)

102011 @ 시집가도?(시집가도?)

102011 # 응, 시집가도. 친정에만 사는 사름 하. 겨민 친정에 살다근에 봄 낭 보리 빌 때 오랑 ᄒᆞᆫ 이틀, 여름 검질멜 때 ᄒᆞᆫ 이틀, 그자 보리왓 검질멜 때 ᄒᆞᆫ 이틀, 겨민 친정에만 살주. 시집이 베랑 아니 와. 아니 와근에 ᄒᆞᆫ 일 년이나 이 년이나 살아가민 시집이서가 이제 집을 짓엉 내어놓나, 집 못 짓으민 ᄂᆞᆷ의 밧거리라도 빌어근에 ᄯᅳ로 살림을 내놔비어, 경헤 가민. 경헹 허민 살주, 경 시어멍네광 오랑 막 게헤영 오래 살지 안헤여. 그자 시어멍네, 시집왓다 뿐이주, 그자 갓다왓다 그자 가민 친정에 하영 살당.(응, 시집가도. 친정에만 사는 사람 많아. 그러면 친정에 살다가 봄 나서 보리 벨 때 와서 한 이틀, 여름 김맬 때 한 이틀, 그저 보리밭 김맬 때 한 이틀, 그러면 친정에만 살지. 시집에 별로 안 와. 안 와서 한 일 년이나 이 년이나 살아가면 시집에서가 이제 집을 지어서 내놓거나, 집 못 지으면 남의 바깥채라도 빌려서 따로 살림은 내놔버려, 그렇게 해 가면. 그렇게 해서 하면 살지, 그렇게 시어머니네랑 와서 막 그렇게 오래 살지 않아. 그저 시어머니네, 시집왔다 뿐이지, 그저 갔다왔다 그저 가면 친정에 많이 살다가.)

102011 @ 시집 갓젠 뿐이구나예?(시집 갔다 뿐이군요?)

102011 # 응, 갓젠 뿐이주, 그자 친정에 하영 살당 시어멍네가, 시아방네라도 집을, 이신 집이, 부제칩인 집 짓엉 ᄯᅳ로 살림 내놓고, 또 경 안헌 집인 ᄂᆞᆷ이 집이 밧거리 빌어근에, 빌어근에 내놔, 살림 내놔불곡 경헷주. 경헌 땐 그자 ᄀᆞ치 살아불고 경 안허민 그자 갓다왓다 기자 ᄒᆞᆫ 둘에 ᄒᆞᆫ 번 시집이 오나마나, 두 둘에 ᄒᆞᆫ 번 오나마나 경헤여. 오라도 그자 아싯날 오랑 뒷날 가불고 시집이엔 헤영 오랑 요 이틀 사흘이나 안 살앙가. 살 수가 엇주게. 오라근에 시동기간덜도 한한허곡 방이라도 여라 개민 요 방 두 개 오라근에 ᄆᆞᆫ 담아놓곡 허민 엿날엔 애기 날 대로 하영 난 또 큰메누리쯤 와근에 수정이 박삭박삭헤노민 그디 왕 접지젠 허여?(응, 갔다 뿐이지, 그저 친정에 많이 살다가 시어머니네가, 시아버지네라도 집을, 있는 집에, 부잣칩은 집 지어서 따로 살림 내놓고, 또

그렇지 않은 집은 남의 집에 바깥채 빌어서, 빌어서 내놔, 살림 내놓고 그랬지. 그런 땐 그저 같이 살아버리고 그렇지 않으면 그저 갔다왔다 그저 한 달에 한 번 시집에 오나마나, 두 달에 한 번 오나마나 그렇게 해. 와도 그저 전날 와서 뒷날 가버리고 시집이라고 해서 와서 요 이틀 사흘이나 안 살아서 가. 살 수가 없지. 와서 시동기간들도 많디많고 방이라도 여러 개면 요 방 두 개 와서 모두 담아놓고 하면 옛날엔 아기 낳을 대로 많이 낳아서 또 큰며느리쯤 와서 숫자가 북적북적해 놓으면 거기 와서 끼려고 해?)

102011 @ 하하하.(하하하.)

102011 # 겨난 가부는 거주.(그러니까 가버리는 거지.)

102013 @ 뭐 잇수게. 시어멍이 시어머니가 시집살이도 막 시키곡 헙니께. 할머니도 경 헤봔?(뭐 있잖아요. 시어머니가 시어머니가 시집살이도 막 시키고 하잖아요. 할머니도 그렇게 해 봤어?)

102013 # 우리 역은[36] 후젠이 경 시집살이 시켜나지 안헷저. 그전에 시집살이주이. 우리 역아가난 시국이 츠츠 달라가난 경 시집살이 시키멍 시어멍안티 경 눈치보곡 무시거 허멍 경 살젠을 안 헷어. 옛날 어른덜이 무신 쏠 얼마 놓라, 밥허젠 허민 무신 물 얼마 놓라 경허멍 막 시집살이 시켯저 헤도 우리 역은 후젠이 경허는 거 못 봣어.(우리 '역은' 후엔 그렇게 시집살이 시키지 않았어. 그전에 시집살이지. 우리 '역아'가니까 시국이 차차 달라가니까 그렇게 시집살이 시키면서 시어머니한테 그렇게 눈치보고 무엇 하면서 그렇게 살려고를 안 했어. 옛날 어른들이 무슨 쌀 얼라 놔라, 밥하려고 하면 무슨 물 얼마 놔라 그러면서 막 시집살이 시켰다 해도 우리 '역은' 후엔 그러는 거 못 봤어.)

102014 @ 아이덜은 다 시집 장게갓주예?(아이들은 다 시집 장가갔지요?)

102014 # 나?(나?)

102014 @ 응.(응.)

102014 # 문딱 손지덜 다 봣주.(모두 손주들 다 봤지.)

102014 @ 손지덜도 시집 장게갓수과? 큰손지 시집간?(손주들도 시집 장가갔습니까? 큰손주 시집갔어?)

102014 # 큰뚤에 손지덜은 두 개 다 시집 장게간 손지덜 보고 뚤은.(큰딸의 손주들은 두 명 다 시집 장가가서 손주들 보고 딸은.)

102014 @ 그믄 증손지, 할머니.(그러면 증손주, 할머니.)

102014 # 응, 나에엔 증손지 뒐 거주. 증손지 뒐 거. 아덜은 안직은 두려.(응, 나에겐 증손주 될 거지. 증손주 될 거. 아들은 아직은 어려.)

102014 @ 응, 아덜 어리고.(응, 아들 어리고.)

102014 # 안직은 어려불고 겨난.(아직은 어려버리고 그러니까.)

102012 @ 큰뚤이 젤 우에?(큰딸이 제일 위?)

102012 # 응, 큰뚤이 젤 우에난 두 개 다 풀안 손지덜 봐불고.(응, 큰딸이 제일 위니까 두 개 다 팔아서 손주들 봐버리고.)

---

36) '역다'는 '욱다'와 같은 말로, 말귀를 알아듣고 혼자 판단할 만큼 성장하다는 뜻이다.

102012 @ 아이고. 벌써?(아이고. 벌써?)

102012 # 아직 다른 것들은 원.(아직 다른 것들은 원.)

102012 @ 큰뚤은 멧 술인디 벌써 손지 본 철이꽈?(큰딸은 몇 살인데 벌써 손주 본 차례입니까?)

102012 # 오십다섯.(오십다섯.)

102012 @ 빨리 헷저 경헤도. 오십다섯에 손지 이시민, 젊은 할머니네.(빨리 했네 그래도. 오십다섯에 손자 있으면, 젊은 할머니네.)

102012 # 젊은 할망이주. 가이가 게 흔, 시집, 가이가 흔 스물셋에 아기 나신가 넷에 나신가 헌 거라. 그것덜도 재기 시집 장게간.(젊은 할머니지. 걔가 그러게 한, 시집, 걔가 한 스물셋에 아기 낳았나, 넷에 낳았나 한 거야. 그것들도 재게 시집 장가갔어.)

102012 @ 게난.(그러니까.)

102012 # 우리 웨손지 ᄒᆞ난 지집아인 키도 막 크고 몸피가 이만은 헤여. 겐디 야이가 걸음이 궂여. 펭발이라. 펭발이라근에 걷젠 허민 이디가 부벼근에 걸음이 좋질 안헤여. 아이고 저거 똑 뚤이 느 사위 못헴직허다, 어디 저거 누게 봉가가키냐? 얼굴 영 앚인 때 얼굴은 보민 완전 미인이라이, 얼굴은. 얼굴은 고와. 키도 막 크고 경허민 야 자이 원 누게 봉가가카이. 얼굴 영 앚인 때 얼굴 봉은 잘도 이쁜디 걸음이 황당헤부난 저거 누게 봉가가카이 허멍 아이 경헤도 제법 찍시 사름 이선.(우리 외손주 하난 계집앤 키도 아주 크고 몸집이 이만은 해. 그런데 이 얘가 걸음이 궂어. 평발이야. 평발이라서 걸으려고 하면 여기가 비벼서 걸음이 좋지 않아. 아이고 저거 꼭 딸이 너 사위 못할 것 같다, 어디 저거 누가 주워가겠니? 얼굴 이렇게 앉은 때 얼굴은 보면 완전 미인이야, 얼굴은. 얼굴은 고와. 키도 아주 크고 그러면 야 쟤 원 누가 주워갈까. 얼굴 이렇게 앉은 때 얼굴 봐서는 아주 예쁜데 걸음이 황당해버리니까 저거 누가 주워갈까 하면서 아니 그래도 제법 깃 사람 있어서.)

102012 @ 하하하.(하하하.)

102012 # 가이가 흔 스물일곱에 시집가신가, 아기 나서.(걔가 한 스물일곱에 시집갔나, 아기 낳았어.)

102012 @ 손녀딸, 웨손지.(손녀딸, 외손주.)

102012 # 응, 웨손지.(응, 외손주.)

102012 @ 가이가 젤 우에꽈?(걔가 젤 위입니까?)

102012 # 가이가 우에. 그다음 아덜 풀안 또 손지고. 견디, 경헌, 경헤도 또 신랑을 잘 만낫어. 어떵사 착헌 아이산디.(걔가 위. 그다음 아들 팔아서 또 손주고. 그런데, 그런, 그래도 또 신랑을 잘 만났어. 어떻게야 착한 아이인지.)

102012 @ 손지 사위?(손주 사위?)

102012 # 경 착헤여, 아이.(그렇게 착해, 아이.)

102012 @ 할머니가 착허게 사난 자손덜이 잘 뒈는 거지.(할머니가 착하게 사니까 자손들이 잘 되는 거지.)

102012 # 거 무슨 우리 ᄌᆞ손이라? 양칩이 ᄌᆞ손이주.(그거 무슨 우리 자손이야? 양씨

집 자손이지.)

102012 @ 경헤도게.(그래도.)

102012 # 웨손진디.(외손준데.)

102012 @ 웨손지도게.(외손주도.)

102012 # 웨손지만씩 헌 거.(외손주만큼씩 한 거.)

102012 @ 경헤도 아덜이영 뚤덜 다 잘 살고예. 할머니 이제.(그래도 아들이랑 딸들 다 잘 살고요. 할머니도 이제.)

102012 # 큰뚤은 막 고생헴저게.(큰딸은 아주 고생하고 있어.)

102012 @ 요번이 왓던 게 족은뚤이꽈?(요번에 왔던 게 작은딸입니까?)

102012 # 건 둘째.(그건 둘째.)

102012 @ 뚤 세 개꽈?(딸 세 명입니까?)

102012 # 세 개.(세 명.)

102012 @ 요번이 와난 게 둘째뚤.(요번에 왔던 게 둘째딸.)

3. 밭일

103001 @ 게민 밧일 허는 거 무신거 잇어마씸? 엿날 무신거 무신거 헹 먹어난?(그러면 밭일 하는 거 무엇 있어요? 옛날 무엇 무엇 해서 먹었었어?)

103001 # 엿날? 우리가 헤 먹는 거 여기서 허는 거 보리, 조, 밀, 겨울에는 보리농수, 밀 농수 요거 두 가지. 여름 농수는 콩, 나룩, 나룩이엔 헤도 논 나룩 아니라. 엿날엔 산뒤 산뒤헤낫어이. 산뒤, 모믈, 콩 그거. 고구마 요거 네 가지라, 여름 농수는이. 그 저 콩허고, 나룩하고 조, 고구마, 메밀 요것만 헤먹엇어이, 엿날에. 모믈 농수나 이 저 요샌 이 나룩, 나룩허주마는 엿날엔 나룩이렌 안 헷이이 우리.(옛날? 우리가 해 먹는 거 여기서 하는 거 보리, 조, 밀, 겨울에는 보리농사, 밀농사 요거 두 가지. 여름 농사는 콩, 벼, 벼라고 해도 논 벼 아니야. 옛날엔 밭벼, 밭벼 했었어. 밭벼, 메밀, 콩 그거. 고구마 요거 네 가지야. 여름 농사는. 그 저 콩하고, 벼하고 조, 고구마, 메밀 요것만 해먹었어, 옛날에. 메밀 농사나 이 저 요샌 이 벼, 벼하지마는 옛날엔 '나룩'이라고 안 했어, 우리.)

103001 @ 옛날 골아난 말로?(옛날 말했던 말로?)

103001 # 산뒤.('산뒤'.)

103001 @ 경 골아줍서.(그렇게 말해주세요.)

103001 # 산뒤. 먹을 것도 못 먹고 입을 것도 못 입고 땅이 엇이난 우리 찍세. 땅 쪼끔헌 거 잇어도 엿날엔 비료도 엇지, 아무것도 엇어노난 그냥 보리씨 앗땅 뿌려도 엿날에 보리씨 흔 닷말쯤 뿌려도 그냥 어디 자갈밧듸 가름팟[37]도 아니고 아무것도 자갈

37) '가름팟'은 집 울타리 안의 텃밭 혹은 마을 안에 있는 밭을 말한다.

밧 영 동산밧듸 뿌렝 나두민 그거 비료헤여사 걸름을 헤여사 보리가 나올 거 아니, 옛날엔이 경 걸름이 엇어서이.(밭벼. 먹을 것도 못 먹고 입을 것도 못 입고 땅이 없으니까 우리 깃. 땅 조그마한 거 있어도 옛날에 비료도 없지, 아무것도 없어놓으니까 그냥 보리씨 가져다가 뿌려도 옛날에 보리씨 한 닷말쯤 뿌려도 그냥 어디 자갈밭에 '가름팟'도 아니고 아무것도 자갈밭 이렇게 동산밭에 뿌려서 놔두면 그거 비료해야 거름을 해야 보리가 나올 거 아니. 옛날엔 그렇게 거름이 없었어.)

보리농사

103002 @ 게민 보리부터 허게예. 저 보리 허젠 허민 무신거 무신거 미리 준비헹 놔둬사 뒈는 거 잇수꽈?(그러면 보리부터 해요. 저 보리 하려고 하면 무엇 무엇 미리 준비해서 놔둬야 되는 거 있습니까?)

103002 # 미릇 준비허는 건 보리 갈 때 보리, 보리씨허고 밀씨허고 요거라 요거 두 개 두 가지베낀 안 갈아.(미리 준비하는 건 보리 갈 때 보리, 보리씨하고 밀씨하고 요거라 요거 두 개 두 가지밖에 안 갈아.)

103002 @ 보리부터예, 그믄 보리영 밀이여 ᄀᆞ치 허는 거?(보리부터요, 그러면 보리랑 밀이랑 같이 하는 거?)

103002 # 응, ᄀᆞ치.(응, 같이.)

103002 @ 아.(아.)

103004 # ᄀᆞ치허는 거.(같이하는 거.)

103004 @ 그 씨는 어떵 준비헤 놔두는 거꽈, 언제 헤근에?(그 씨는 어떻게 준비해 두는 겁니까, 언제 해서?)

103004 # 보리도 이 철에 딸라근에 철이 일르면 음력으로 ᄉᆞ월 그믐에 보리농서가 헤여 들이, 거두와들이고 또 경 아니민 늦으민 음력 오월ᄃᆞᆯ 나사 보리농서를 거두와들이는 거, 밀이나 보리나 ᄀᆞ치ᄀᆞ치 거두와들여. 겨민 보리 거두어난 끗엔 밀이 젤 ᄒᆞ끔 늦으난 밀 농서는 보리 헤난 끗에 그 조름에 ᄀᆞ치 부쩡 헤들이고 경헹 헤동 그거 헤둬사 그다음엔 고구마, 일찍 놔야 뒈여, 고구마는. 일찍 놓민 고구마 놔동 그다음엔 조, 아, 산뒤가 제일 문저로구나. 보리 비어놔둬근에 제일 먼저 산뒤 불령 그다음 이따근에 조 저, 조 불리고 고구만 ᄀᆞ치ᄀᆞ치 헤여. 경허곡 또 메믈은 또 조팟디 검질 초불 멩, 흔 사십일 이따근에 메믈 갈아, 막 늦게 갈아 그건.(보리도 이 철에 따라서 철이 이르면 음력으로 사월 그믐에 보리농사가 해서 들여, 거둬들이고 또 그렇지 않으면 음력 오월 나야 보리농사를 거둬들이는 거, 밀이나 보리나 같이 같이 거둬들여. 그러면 보리 거둬놓은 끝엔 밀이 젤 조금 늦으니까 밀농사는 보리 했던 끝에 그 뒤에 같이 붙여서 해 들이고 그렇게 해서 해두고 그거 해둬야 그다음엔 고구마, 일찍 놔야 돼, 고구마는. 일찍 놓으면 고구마 놔두고 그다음엔 조, 아, 밭벼가 제일 먼저로구나. 보리 베어 놔두고 제일 먼저 밭벼 밟고 그다음 있다가 조 저, 조 밟고 고구만 같이 같이 해. 그리고 또 메밀은 또 조밭에 김 초불 매서, 한 사십일 있다가 메밀 갈아, 아주 늦게 갈아 그건.)

103003 @ 게민 보리에 걸름은 어떻게 마련헤마씸?(그러면 보리에 거름은 어떻게 마련해요?)

103003 # 걸름은.(거름은.)

103003 @ 보리 걸름은?(보리 거름은?)

103003 # 보리 걸름은이 엿날엔이 저 뭐헤서, 이, 영 도새기 *가엔헤서 통시 만들어 둥글허게 담 다왕 통시 만들엉 뒈지를 질롸서이. 겨민 뒈야지 질룰 때에 돗걸름, 돗걸름 헤여, 뒈지걸름이엔 안 헤여.(보리 거름은 옛날엔 저 뭐해서, 이, 이렇게 돼지 가둬서 돼지우리 만들어, 둥글게 담 쌓아서 돼지우리 만들어서 돼지를 길렀어. 그러면 돼지 기를 때 '돗걸름', '돗걸름'해, 뒈지거름이라고 안 해.)

103003 @ 응, 돗걸름.(응, '돗걸름'.)

103003 # 돗걸름이엔 헤근에 보리헹 먹어나민 보리찝 그 통시러레 담아놓고 몰라, 웃드르선 어떤가, 우리 헤변엔 이 바당 쎄민 바당에서 감태, 듬북 그거 헤다나근에 보리찍 흔 직 놓고 그 듬북 흔 직 놓곡 그 섹이는 거라이. 섹여근에 이젠 조ᄀᆞ슬 문딱 헤뒁 걸름밧 헤사허컬 헐 때는 그 걸름을 막 파내어. 파내엉 마당에 걸름 싹 치와둬근에 그거 다 파내엉 또 이젠 소를, 솔 이끄나, 물을 이끄나 헤근에 그 걸름을 막 불리는 거라이, 밧 불리듯이 막 불리민 이 놈이 걸름이 끈닥끈닥헤여. 겨민 그것에 보리씨 확확 뿌령 또 불르곡 보리씨 뿌령 또 불르곡 헤놩 끈닥끈닥헤민 또 뒈싸놩 보리씨 삐영 또 그 쉐 이꺼근에 쉐로 불리곡 또 뒈싸놩 불리곡허민 이것이 똑 저 떡 달룬 거추룩 끈닥끈닥헤여.(돼지거름이라고 해서 보리해서 먹고나면 보리짚 그 통시에 담아놓고 몰라, '웃드르'에선 어떤가, 우리 해변엔 이 바다 세면 바다에서 감태, 듬북 그거 해다놓고 보리짚 한 '직' 놓고 그 듬북 한 '직' 놓고 그 썩이는 거야. 썩여서 이젠 조걷이 모두 해두고 거름밭 해야할텐데 할 때는 그 거름을 막 파내. 파내어서 마당에 거름 싹 치워두고 그거 다 파내어서 또 이젠 소를, 소를 이끌거나 해서 그 거름을 막 밟는 거야. 밭 밟듯이 막 밟으면 이 놈의 거름이 끈적끈적해. 그러면 그것에 보리씨 확확 뿌려서 또 밟고 보리씨 뿌려서 또 밟고 해놔서 끈적끈적하면 또 뒤집어놔서 보리씨 뿌려서 또 그 소 이끌고 소로 밟고 또 뒤집어놔서 밟고 하면 이것이 꼭 저 떡 이긴 거처럼 끈적끈적해.)

103003 @ 예.(예.)

103003 # 게민 이젠 흔 밧더레 모여놔이. 모여근에 일로 모이고 일로 모이고 허민 이추룩 막 무룩허게 막 모여놩 엿날에 멩탱이렌 헌 거 잇어이. 멩탱이, 걸름 멩탱이엔 헹 저 나룩찝으로 짜, 그걸. 바구니 모냥으로 빙 둘러 게민 그것에 담아놩 쉐 잇는 집이는 쉐에 시껑 강 비우고 우리ᄀᆞ찌 쉐 엇인 사름은 그것에 담으멍 지엉, 지엉 강 밧듸 강 문 비어놔이. 비어놔근에 이젠 밧 갈젠 허민 그걸 문저 밧 갈기 전에 손으로 탁탁탁 영 털어. 그 보리씨 서꺼진 걸.(그러면 이젠 한군데 모여 놔. 모여서 이리로 모이고 이리로 모이고 하면 이렇게 아주 수두룩하게 막 모여 놔서 옛날에 멱서리라고 한 거 있어. 멱서리, 거름멱서리라고 해서 저 볏짚으로 짜, 그걸. 바구니 모양으로 빙 둘러 그러면 그것에 담아놔서 소 있는 집에는 소에 실어서 가서 비우고 우리처럼 소 없는 사람은 그것에 담으면서 져서, 져서 가서 밭에 가서 모두 부어놔. 부어놔서 이젠 밭 갈려고 하

면 그걸 먼저 밭 갈기 전에 손을 탁탁탁 이렇게 털어. 그 보리씨 섞어진 걸.)

103003 @ 아.(아.)

103003 # 탁탁탁 뿌령 놔두민 이젠 쉐로 민짝 갈아놔. 갈아놓민 그것이 걸름이라이.(탁탁탁 뿌려서 놔두면 이젠 소로 모두 갈아놔. 갈아놓으면 그것이 거름이야.)

103003 @예.(예.)

103003 # 이젠 또 곰베, 곰베허멍 질게 조룩 듣져근에 이만은 질게 이 망치 모냥으로 만들어근에 그걸로 가근에 그 걸름 벙뎅이 나온 거 흑 둥겨당 두드령 박아.(이젠 또 곰방메, 곰방메하면서 길게 자루 달려서 이만큼 길게 이 망치 모양으로 만들어서 그걸로 가서 그 거름 덩어리 나온 거 흙 당겨다가 두드려서 박아.)

103003 @ 아, 밧 갈아난 다음에?(아, 밭 갈아둔 다음에?)

103003 # 응, 간 다음에 그걸 보리씨를 흑으로 더퍼줘야 보리가 날 거 아니?(응, 간 다음에 그걸 보리씨를 흙으로 덮어줘야 보리가 날 거 아니?)

103003 @ 예.(예.)

103003 # 그거 문딱 헹 더퍼주엉 그 보리 나게시리 만들어주는 거야, 우리가. 경헹 산 거라.(그거 모두 해서 덮어주어서 그 보리 나게끔 만들어 주는 거야, 우리가. 그렇게 해서 산 거야.)

103005 @ 그 보리씨 허는 거 멧 월에 언제쯤 허는 거꽈?(그 보리씨 하는 거 몇 월에 언제쯤 하는 겁니까?)

103005 # 보리 비면은 보리 장만하민 그 씨를 놧다근에.(보리 베면 보리 장만하면 그 씨를 놨다가.)

103005 @ 거난 씨 삐는 건 언제 삐는 거라?(그러니까 씨 뿌리는 건 언제 뿌리는 거야?)

103005 # 그 씨가 게메 그 걸름에 혼디 삐는 거.(그 씨가 글쎄 그 거름에 함께 뿌리는 거.)

103004 @ 그 걸름에? 언제쯤에 밧 갈고 허는 거 언제쯤에 멧 월에?(그 거름에? 언제쯤에 밭 갈고 하는 거 언제쯤에 몇 월에?)

103004 # 그것이 멧 월에 허느냐 하면은 철이 일른 때는 시월 초에.(그것이 몇 월에 하느냐 하면은 철이 이른 때는 시월 초에.)

103004 @ 이제, 이제 막 헐 때꽈?(이제, 이제 막 할 때입니까?)

103004 # 음력 아니야, 음력 시월.(음력 아니냐, 음력 시월.)

103004 @ 음력 시월.(음력 시월.)

103004 # 지금 음력으로 구월 아냐이. 게난 올리 ᄀᆞ튼 헤에는 음력 시월ᄃᆞᆯ 구믈어야 뒈.(지금 음력으로 구월 아니야. 그러니까 올해 같은 해에는 음력 시월 저물어야 돼.)

103004 @ 아.(아.)

103004 # 철이 늦게 게난 음력 시월 초에 헐 때가 잇고 음력 시월 구물면 음력 동짓ᄃᆞᆯ 초 부쩡 헐 때가 잇고. 그 놈으 걸름이 경헤여. 요즘은 보리씨도 그냥 싹싹 갖당 뿌리고 비료 뿌리고 헴주마는.(철이 늦게 그러니까 음력 시월 초에 할 때가 있고 음력 시

월 저물면 음력 동짓달 초 붙여서 할 때가 있고. 그 남의 거름이 그렇게 해. 요즘은 보리씨도 그냥 싹싹 갖다가 뿌리고 비료 뿌리고 하고 있지마는.)

103004 @ 게난.(그러니까.)

103004 # 엿날엔 보리가이 경 헤노면 이 밧이 좋은 밧듸는 가름팟이엔 헌 거는 이 집 앚인 울왓이 가름밧이라이. 경헌디는 쫌 어떵사헌디 좀 보리를 갈민 좋고 경 먼 드르엔 강 갈민 갈앙놔도 생이 돋는 거 다 뷔려져. 게민 보리씨 닷 말을 갈아도 보리 스물 말벳긔 못허는 거라.(옛날엔 보리가 그렇게 해놓으면 이 밭이 좋은 밭에는 '가름팟'이라고 한 거는 이 집 앉은 텃밭이 '가름팟'이야. 그런데 좀 어떻게야 했는지 좀 보리를 갈면 좋고 그렇게 먼 들에 가서 갈면 갈아놔도 새 닫는 거 다 보여. 그러면 보리씨 닷 말을 갈아도 보리 스무 말밖에 못하는 거야.)

103004 @ 아까 무신거 뭐헤 불어 다 생이가 어떵?(아까 무슨 뭐해 버려 다 새가 어떻게?)

103004 # 생이 돋는 걸 다 뷔려, 보리 나면. 보리가 이렇게 커야 못 뷔리는디 보리가 영허민 나들나들[38]허잖아.(새 닫는 걸 다 보여, 보리 나면. 보리가 이렇게 커야 못 보는데 보리가 이렇게 하면 '나들나들'하잖아.)

103004 @ 경허난 생이 돋는 게 다 보여?(그러니까 새 닫는 게 다 보여?)

103004 # 게민 아이고 아무 밧듸 보린이 생이 돋는 거 다 보인다. 보리가 안 뒈니까.(그리고 아이고 아무 밭에 보리는 새 닫는 거 다 보인다. 보리가 안 되니까.)

103004 @ 아, 경 곧는 말이구나예.(아, 그렇게 하는 말이군요.)

103003 # 걸름을 못허난 이 보리밥도 배부른 밥 먹기 시작헐 때는 우리 시국 끗난에 박정희 대통령 나서이 박정희 대통령 난 후제는 어디사 간 비료를 봉강와신디 비룔 봉가당 이젠 걸 이제 돈 줭 우리가 사는 거라. 꽁짜는 못 헤와도 돈 줭 사도 그 보리밥을 비료 앗당 뿌려 놔두민 보리 갈앗당 그 비룔 뿌령 놔두민 보리가 이만썩 높으는 거라이. 겨난 보리 흔 말 나던 디 열 말썩 나가는 거라.(거름 못하니까 이 보리밥도 배부른 밥 먹기 시작할 때는 우리 시국 끝나서 박정희 대통령 나와서 박정희 대통령 나온 후에는 어디야 가서 비료를 주워왔는지 비료를 주워다가 이젠 그걸 이제 돈 줘서 우리가 사는 거야. 공짜는 못 해와도 돈 줘서 사도 그 보리밥을 비료 가져다가 뿌려 놔두면 보리 갈았다가 그 비료를 뿌려서 놔두면 보리가 이만큼씩 높은 거야. 그러니까 보리 한 말 나던 데 열 말씩 나는 거야.)

103003 @ 비료 허난.(비료 하니까.)

103003 # 응, 비료허난이 그 엿날엔 보리 갈앙만 내불민 나민 난 대로 그대로 앚인 냥 허민 보리 고고리 한 해 보리 방울로 세민 열 방울도. 보리 고고리 요멘씩 허민 열 방울 둘아진, 세 방울 둘아지는 거 헷주마는 그 비료 앗단 뿌리난 보리 고고리가 이만썩 홁고 보리 무신 열 말 나던 디 스물 말도 낫저, 서른 말도 낫저 허는 거라. 그 비료험 시작허난. 경허난 우리가 배부른 밥을 먹엇주, 그전인 굶언만, 굶언만 살앗어. 어떵 굶으멍 산 중 알아?(응, 비료하니까 그 옛날엔 보리 갈아서만 내버리면 나면 난 대로 그

38) '나들나들'은 보리가 흔들리는 모양을 표현한 것이다.

대로 앉은 대로 하면 보리 이삭 한 해 보리 방울로 세면 열 방울도. 보리 이삭 요만큼씩 하면 열 방울 달린, 세 방울 달리는 거 했지마는 그 비료 가져다가 뿌리니까 보리 이삭이 이만큼씩 굵고 보리 무슨 열 말 나던 데 스무 말도 났다, 서른 말도 났다 하는 거야. 그 비료 하기 시작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배부른 밥을 먹었지, 그전엔 굶어서만, 굶어서만 살았어. 어떻게 굶어서 산 줄 알아?)

103003 @ 그 보리 할 때 걸름 헹 밧듸 헐 때 가는 건 누게가 갈아?(그 보리 할 때 거름 해서 밭에 할 때 가는 건 누가 갈아?)

103003 # 남저들.(남자들.)

103003 @ 남자들이 밧 갈아줘?(남자들이 밭 갈아줘?)

103003 # 소 메와근에.(소 메워서.)

103003 @ 쉐 메왕?(소 메워서?)

103003 # 응, 남ᄌᆞ들이 갈지, 여ᄌᆞ들은 안 갈아, 못 갈아.(응, 남자들이 갈지, 여자들은 안 갈아, 못 갈아.)

103003 @ 쉐 엇인 집이 어떵헤?(소 없는 집엔 어떻게 해?)

103003 # 쉐 엇인 집인 남이 쉐 강 빌어.(소 없는 집은 남의 소 가서 빌려.)

103003 @ 놈의 쉐 강 빌어근에?(남의 소 가서 빌려서?)

103003 # 빌고 또 밧 갈 사름도 엇이민 쉐지픈다[39]허는 건 쉐영 사름이영 ᄀᆞ치 왕 밧 갈아도라 허는 거라이. 쉐지펑 갈아 줍서.(빌리고 또 밭 갈 사람도 없으면 '쉐 지픈다'하는 건 소랑 사람이랑 같이 와서 밭 갈아 달라 하는 거야. '쉐지펑' 갈아 줍서.)

103003 @ 아, 쉐지펑 갈아줍서?(아, '쉐지펑' 갈아줍서?)

103003 # 어, 쉐지펑 갈아줍서 허는 건 쉐도 잇고 밧 갈 사름도 신 집이라이. 겨민 그 이녁 쉐 가져왕 밧 갈아주민, 쉐지펑 갈아줍서 경허곡 경 안헌 사름은 쉐도 또로 빌고 밧 갈 사름 또로 빌고 헤사 뒈여.(어, '쉐지펑' 갈아 주세요 하는 건 소도 있고 밭 갈 사람도 있는 집이야. 그러면 그 자기 소 가져와서 밭 갈아주면, '쉐지펑' 갈아주세요 그렇게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소도 또 빌리고 밭 갈 사람 또 빌리고 해야 돼.)

103003 @ 그럼 그 돈은 어떵 줘사 뒈여?(그럼 그 돈은 어떻게 줘야 돼?)

103003 # 돈 못 물면 일도 강 헤여주고.(돈 못 물면 일도 가서 해주고.)

103003 @ 아.(아.)

103003 # 일로 대충 못 헤주면은.(일도 대충 못 해주면은)

103003 @ 보리라도?(보리라도?)

103003 # 그냥 돈으로 안네고 대충은 엿날엔 돈으로 받지 안혀, 일.(그냥 돈으로 드리고 대충은 옛날엔 돈으로 받지 않아, 일.)

103003 @ 아, 일로?(아, 일로?)

103003 # 일로 부제집들은 쉐 잇고 사름 잇고 헌 사름들은 또 쉐걸름 헤다 놓고 다 헤놓면은 ᄆᆞ쉬 신 집인 보리가 좋아이. 쉐걸름헤, 쉐 또꼬냥에 그 촐 줘나고 쉐똥 싸놓고 쉐오줌 싸논 게 이게 걸름이라이. 겨민 그것이 어느 때 쉐걸름 푸냐면 여름에 그 쉐

39) '쉐지프다'는 밭을 갈기 위해 사람을 빌릴 때 소도 함께 빌리는 것이라고 제보자는 설명한다.

여라 개 질롸난 딘 그거 또 통시레 퍼다놔.(일로 부잣집들은 소 있고 사람 있고 한 사람들은 또 쇠두엄 해다 놓고 다 해놓으면 마소 있는 집엔 보리가 좋아. 쇠두엄해, 소 엉덩이에 그 꼴 줬었고 소똥 싸놓고 소 오줌 싸 놓은 게 이게 거름이야. 그러면 그것이 어느 때 쇠두엄 푸느냐면 여름에 그 소 여러 개 길렀던 덴 그거 또 돼지우리에 퍼다 놔.)

103003 @ 아.(아.)

103003 # 퍼다 놧당 그 걸름 다 썩으민 또 허곡 또 걸름 또로 치왕가근에 밧듸 강 막 뿌리는 거라. 뿌려놩 그 우에 또 보리, 보리씨에 그 걸름에 서끈 걸 또 헤놓민 보리가 부젯칩이 보린 좋아.(퍼다 놨다가 그 거름 다 썩으면 또 하고 또 거름 또 치워가서 밭에 가서 막 뿌리는 거야. 뿌려놔서 그 위에 또 보리, 보리씨에 그 거름에 섞은 걸 또 해놓으면 보리가 부잣집이 보린 좋아.)

103003 @ 이중으로?(이중으로?)

103003 # 응, 이중으로 좋아. 게민 부제칩 보린 강 보면은, 게난 부자칩허고 엇는 집허고 그거라, 가난뱅이허고. 게난 엇인 사름이 항시 일이 차불 수가 엇엇어. 아무리 부지런헤 봐도 일을 차불 수가 엇어.(응, 이중으로 좋아. 그러면 부잣집 보린 가서 보면, 그러니까 부잣집하고 없는 집하고 그거야, 가난뱅이하고. 그러니까 없는 사람이 항시 일이 차버릴 수가 없었어. 아무리 부지런해 봐도 일을 차버릴 수가 없어.)

103003 @ 게메.(그러게.)

103003 # 경허난.(그러니까.)

103006 @ 보리 종류는 옛날에, 요새 말고 옛날에 보리 종류는 뭐 뭐 잇어낫수과?(보리 종류는 옛날에, 요새 말고 옛날에 보리 종류 뭐 뭐 있었습니까?)

103006 # 옛날에 겉보리라고이, 겉보리 그거이 두 뒈 골아야 쏠 흔 뒈 안 나. 겉보리라고 저 겁덕이가 두껍고 보리 고고리가 영허민 요샌 두줄보리가 영 갈민 양펜으로 욜로 허고 욜로 씨를 부뜨는디 엿날엔 딱 네 개라, 요것이 보리가. 경헌디 보리, 보리 방울이 쫄랑쫄랑쫄랑[40]허여. 경허민 두 뒈 골아도 쏠 흔 뒈 안 나와.(옛날에 겉보리라고, 겉보리 그거 두 되 갈아야 쌀 한 되 안 나. 겉보리라고 저 껍질이 두껍고 보리 이삭이 이렇게 하면 요샌 두줄보리가 이렇게 갈면 양편으로 요리로 하고 요리로 씨를 붙는데 옛날엔 딱 네 개야, 요것이 보리가. 그런데 보리, 보리 방울이 '쫄랑쫄랑쫄랑'해. 그러면 두 되 갈아도 쌀 한 되 안 나와.)

103006 @ 아고고, 어떵혜.(아고고, 어떻게 해.)

103003 # 경헤도 그걸로 산 거라. 경허단에 어떵헨 이 줄보리, 줄보리 허멍 영 두 가달로 허는 보리씨가 나오난 그거 감 시작허난 그건 씨가 져불고 그건 우리 어릴 때, 우리 두린 때 갈아난 보리고 우리 역은 후엔 이 두줄보리가 나온 거라이. 게난 요거는 쏠 흔 뒈나, 두 뒈 골민 흔 뒈나 쏠이.(그래도 그걸로 산 거야. 그러다가 어떻게 해서 이 줄보리, 줄보리 하면서 이렇게 두 갈래로 하는 보리씨가 나오니까 그가 갈기 시작하니까 그건 씨가 져버리고 그건 우리 어릴 때, 우리 어릴 때 갈았던 보리고 우리 '역은' 후엔 이 두줄보리가 나온 거야. 그러니까 요거는 쌀 한 되나, 두 되 갈면 한 되나 쌀

40) '쫄랑쫄랑쫄랑'은 보리 방울이 길쭉한 모양을 표현한 말이다.

이.)

103006 @ 두 뒈 ᄀᆞᆯ앙 한 뒈만 나민 뭐허레 ᄀᆞᆯ암수과?(두 되 갈아서 한 되 나면 뭐 하러 갈고 있습니까?)

103006 # 그것이.(그것이.)

103006 @ ᄒᆞᆫ 말도 아니고?(한 말도 아니고?)

103006 # 두 뒈 ᄀᆞᆯ민 ᄉᆞᆯ ᄒᆞᆫ 뒈 나민 열 말 ᄀᆞᆯ민 ᄉᆞᆯ이 닷 말이라이.(두 되 갈면 쌀 한 되 나면 열 말 갈면 쌀이 닷 말이야.)

103003 @ 응.(응.)

103003 # 경헤도 그거 허난 먹는 거 경허고 그거 갈아도 비료 안 난 때는 수확이 얼마 안 나. 크질 못허난, 먹질 못허난 우리 이제 저 어디 아이덜 굶어근에 ᄆᆞᆯ르듯 그거라이. 먹을 거 엇엉 멕이지 못허난. 백동산이 앗다근에 그 걸름 ᄒᆞᆫ 방울 도새기 걸름 헹 씨만 못허게 ᄃᆞᆯ아나지 못허게 버무려당 앗당 허민 보리가 크질 못허는 거라이. 경헌디 이 비료 남 시작 허난 우리가 배부른 밥을 먹은 거라.(그래도 그거 하니까 먹는 거 그렇게 하고 그거 갈아도 비료 안 난 때는 수확이 얼마 안 나. 크질 못하니까, 먹질 못하니까 우리 이제 저 어디 아이들 굶어서 마르듯 그거야. 먹을 거 없어서 먹이지 못하니까. '백동산' 가져다가 그 거름 한 방울 돼지거름 해서 씨만 못하게 달아나지 못하게 섞어서 가져다가 하면 보리가 크질 못하는 거야. 그런데 이 비료 나기 시작하니까 우리가 배부른 밥을 먹은 거야.)

103006 @ 게난 줄보리허고 겉보리허고 또 무신거?(그러니까 줄보리하고 겉보리하고 또 무엇?)

103006 # 이젠 겉보리 안 허여, ᄉᆞᆯ오리.(이젠 겉보리 안 해, 쌀보리.)

103006 @ 아, ᄉᆞᆯ오리. 아까 줄보리허고 ᄉᆞᆯ오린 틀린 거?(아, 쌀보리. 아까 줄보리하고 쌀보린 다른 거?)

103006 # 틀린 거. ᄉᆞᆯ보리엔 헌 거는이 장만허면 그건 장만허면 ᄉᆞᆯᄀᆞ치 나와이.(다른 거. 쌀보리라고 한 거는 장만하면 그건 장만하면 쌀같이 나와.)

103003 @ 아.(아.)

103003 # ᄉᆞᆯᄀᆞ치 나와근에 ᄀᆞᆯ아도 껍데기가 얼마 엇어, 그 ᄉᆞᆯ보리엔 헌 건.(쌀같이 나와서 갈아도 껍데기가 얼마 없어, 그 쌀보리라고 한 건.)

103006 @ 옛날 ᄀᆞᆯ아난 말론 ᄉᆞᆯ오리 아니?(옛날 말했던 말론 '술오리' 아니?)

103006 # 응, ᄉᆞᆯ오리.(응, '술오리'.)

103006 @ 옛날 ᄀᆞᆯ아난 말은 ᄉᆞᆯ오리?(옛날 말했던 말은 '술오리'?)

103006 # 옛날 ᄀᆞᆯ아난 말은 ᄉᆞᆯ오리렌 허주마는 요즘은 ᄉᆞᆯ보리엔 허주마는 옛날은 ᄉᆞᆯ오리, 그거는 서 말 ᄀᆞᆯ민 ᄉᆞᆯ이 두 말은 나와. 그건 껍데기가 얄루난 얼마 아니난, 경허난 그건 ᄉᆞᆯ오리고 또 줄보리는 두 뒈 ᄀᆞᆯ아야 ᄉᆞᆯ ᄒᆞᆫ 말, 저 ᄒᆞᆫ 뒈벳긔 안 나오고, 또 그 전이 우리 두린 때 헌 건 겉보리엔 헌 거는 두 뒈 ᄀᆞᆯ앙 ᄉᆞᆯ ᄒᆞᆫ 뒈 안 나.(옛날 말했던 말은 '술오리'라고 하지마는 요즘은 쌀보리라고 하지마는 옛날은 '술오리', 그거는 서 말 갈면 쌀이 두 말은 나와. 그건 껍데기가 얇으니까 얼마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건 쌀보리

고 또 줄보리는 두 되 갈아야 쌀 한 말, 저 한 되밖에 안 나오고, 또 그전에 우리 어린 때 한 건 겉보리라고 한 거는 두 되 갈아서 쌀 한 되 안 나.)

103006 @ 게난 두 뒈 가근에 뿌려신디 한 뒈벳긔 안 나와?(그러니까 두 되 가서 뿌렸는데 한 되밖에 안 나와?)

103006 # 밧듸 뿌리는 거는 흔 뒈 뿌리면은 밧이 좋은 밧은 흔 뒈 뿌령 놔두면 보리가 열 말도 나올 적, 닷 말도 나올 적허주마는, 우리는 흔 뒈 뿌령 놔두면은 잘허민 쏠 잘허민 보리 서 뒈쯤 나올 거여.(밭에 뿌리는 거는 한 되 뿌리면은 밭이 좋은 밭은 한 되 뿌려서 놔두면 보리가 열 말도 나올 적, 닷 말도 나올 적 하지마는, 우리는 한 되 뿌려서 놔두면은 잘하면 쌀, 잘하면 보리 석 되쯤 나올 거야.)

103006 @ 게난.(그러니까.)

103006 # 서 말 뿌린 것이 서 말 뿌령 보리가 열 말 나오민 얼마나 나오는 거냐?(서 말 뿌린 것이 서 말 뿌려서 보리가 열 말 나오면 얼마나 나오는 거냐?)

103006 @ 세 배.(세 배.)

103006 # 세 배벳긔 안 뒘저.(세 배밖에 안 되고 있지.)

103006 @ 세 배 ᄒᆞ끔 더.(세 배 조금 더.)

103006 # 겨난 이 보리씨는 이 줌질지 안허기 때문에 씨가 많이 들어.(그러니까 이 보리씨는 이 가늘지 않기 때문에 씨가 많이 들어.)

103006 @ 아.(아.)

103006 # 씨가 많이 들어, 겨난.(씨가 많이 들어, 그러니까.)

103006 @ 게난 두 뒈를 삐어도 흔 뒈벳긔 안 난덴 헌 말이꽈?(그러니까 두 되를 뿌려도 한 되밖에 안 난다고 한 말입니까?)

103006 # 아, 게난 쏠 ᄀᆞᆯ면.(아, 그러니까 쌀 갈면.)

103006 @ 아, 쌀을 갈면은?(아, 쌀을 갈면은?)

103006 # ᄀᆞᆯ면은 껍떡 베껴불면 두 뒈 ᄀᆞᆯ민 흔 뒈벳긔 안 나오는 거고 씨 뿌리는 건 우리가 씨를 닷 말이면 저 대승 멧 뒈 뒈는 거냐? 우린 여깃말론 대승 넉 뒈가 흔 말이거든.(갈면 껍데기 벗겨버리면 두 되 갈면 한 되밖에 안 나오는 거고 씨 뿌리는 건 우리가 씨를 닷 말이면 저 대승 몇 되 되는 거냐? 우린 여기 말론 대승 넉 되가 한 말이거든.)

103006 @ 대승 넉 뒈가 흔 말?(대두 넉 되가 한 말?)

103006 # 흔 말, 여기서는. 육지 사름덜은 대승으로 헤근에 열 개가 흔 말인디 우린 대승 두 뒈헤사 흔 말.(한 말, 여기서는. 육지 사람들은 대두으로 해서 열 개가 한 말인데 우린 대두 두 되해야 한 말.)

103006 @ 넉 뒈가?(넉 되가?)

103006 # 넉 뒈가 흔 말, 응.(넉 되가 한 말, 응.)

103006 @ 게난 넉 뒈 뿌리민?(그러니까 넉 되 뿌리면?)

103006 # 넉 뒈.(넉 되.)

103006 @ 흔 말 뿌리민.(한 말 뿌리면.)

103006 # 넉 뒈허민 혼 말 아니?(넉 되하면 한 말 아니?)

103006 @ 예.(예)

103006 # 겨난 이거 닷 말이민 멧 뒈 뭰 거냐고?(그러니까 이거 닷 말이면 몇 되 된 거냐고?)

103006 @ 닷 말이민 오사 이십.(닷 말이면 오사 이십.)

103006 # 닷 말이민 스무 뒈, 스무 뒈이.(닷 말이면 스무 되, 스무 되.)

103006 @ 응, 스무 뒈.(응, 스무 되.)

103006 # 그거 뿌려근에 닷 말 뿌령 놔둬도 보리가 갈민 스무 말이 안 나온다 이거여, 스무 말이 안 나와. 곶인 밧듸 헌 거.(그거 뿌려서 닷 말 뿌려서 놔둬도 보리가 갈면 스무 말이 안 나온다 이거야, 스무 말이 안 나와. 곶은 밭에 한 거.)

103006 @ 스무 말이 안 나와.(스무 말이 안 나와.)

103006 # 스무 말이 안 나와.(스무 말이 안 나와.)

103006 @ 닷 말 뿌령?(닷 말 뿌려서?)

103006 # 닷 말 뿌령 갈아도 스무 말이 안 나와.(닷 말 뿌려서 갈아도 스무 말이 안 나와.)

103006 @ 스무 말이 안 나온다고.(스무 말이 안 나온다고.)

103006 # 왜냐허믄 단순히 그 뒈야지 질러난 도새기걸름 혼 방울 헹 강 그거 뿌령 씨만 못 돌아나게 밧듸 강 뿌리는 거지. 걸름을 엇이니까 사름도 먹어져야 저 저 술지는 거 아니? 겨난 먹을 것이 엇이난, 기운 낼 것이 엇이난 보리가 나면은 요만썩 헤둠서라 그냥 앚앙만 고장 패는 거지. 나 놓긴 헤도 크질 못허는 거라. 게난 보리가 수확이 얼마 안 나는 거라이. 뭔 말인지 알겟지?(왜냐하면 단순히 그 돼지 길렀던 돼지거름 한 방울 해서 가서 그거 뿌려서 씨만 못 달아나게 밭에 가서 뿌리는 거지. 거름을 없으니까 사람도 먹을 수 있어야지 저 저 살찌는 거 아니? 그러니까 먹을 것이 없으니까, 기운 낼 것이 없으니까 보리가 나면 요만큼씩 해두고 그냥 앉아서만 꽃 피는 거지. 나긴 해도 크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보리가 수확이 얼마 안 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103006 @ 알아지크라, 예 예.(알겠어, 예, 예.)

103006 # 경허단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나가난에 어디서 강 비료를 구헤와신디 비료를 헤당 주난 비료 혼 포만 헹 가민 보리씨 닷 말 간 거 싹 뿌령 놔두민 보리가 이만큼 올라오는 거라이.(그러다가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나오니까 어디서 가서 비료를 구해 왔는지 비료를 해다 주니까 비료 한 포만 해서 가면 보리씨 닷 말 간 거 싹 뿌려서 놔두면 보리가 이만큼 올라오는 거야.)

103006 @ 응, 경헤근에 멧 말이나 나오는 거라?(응, 그렇게 해서 몇 말이나 나오는 거야?)

103006 # 경허민 보리 미신 서른 말이민 두 섬. 혼 보리가 혼 가멩이에 열 말씩 들어근에 그것이 혼 열 가마니 나왓젠 말도 잇고.(그러면 보리 무슨 서른 말이면 두 섬. 한 보리가 한 가마니에 열 말씩 들어서 그것이 한 열 가마니 나왔다고 말도 있고.)

103006 @ 응, 열 말씩.(응, 열 말씩.)

103006 # 닷 말 간 것이 열 가마니.(닷 말 간 것이 열 가마니.)

103006 @ 열 가마니민.(열 가마니면.)

103006 # 열 가마니민 어떵 뒈는 거라. 보리가 그 비료험 시작허난 배 이상, 배가 미시거라이, 나오는 거라이. 단 보리 두 가멩이, 세 가멩이 나던 밧듸 보리 열 가멩이가 나가민 어떵 나오는 거라이.(열 가마니면 어떻게 되는 거야. 보리가 그 비료하기 시작하니까 배 이상, 배가 무엇이야, 나오는 거야. 단 보리 두 가마니, 세 가마니 나던 밭에 보리 열 가마니가 나가면 어떻게 나오는 거야.)

103007 @ 옛날에 할무니 보리밧도 불라나수과? 발로 불라난?(옛날에 할머니도 보리밭도 밟았었습니까? 발로 밟았어?)

103007 # 응.(응.)

103007 @ ᄆᆞ쉬 헤근에?(마소해서?)

103007 # ᄆᆞ쉬 허는 거는 걸름 내어놩.(마소 하는 거는 거름 내어놔서.)

103007 @ 응, 응.(응, 응.)

103007 # 씨감짜근에 헐 거.('씨감'짜서 할 거.)

103007 @ 응, 그때 허는 거고?(응, 그때 하는 거고?)

103007 # 도야지 걸름 내어낭 그것에 씨 뿌령 막 불르민 우리 떡 달루듯이 달롸지는 거라이, 이거.(돼지 거름 내어놔서 그것에 씨 뿌려서 막 바르면 우리 떡 이기듯이 이겨지는 거야, 이거.)

103007 @ 그건 ᄆᆞ쉬허고 그냥 보리밧은?(그건 마소하고 그냥 보리밭은?)

103007 # 보리밧은 안 불라.(보리밭은 안 밟아.)

103007 @ 안 불라?(안 밟아?)

103007 # 안 불라근에 보리 난 후제 흔 정월, 이월 나면은 보리 저 꼬짝꼬짝 대 사기 전에 저 발 둥근다고 밧 지피 불르렌 그거 ᄒᆞ쏠 불라난 거.(안 밟아서 보리 난 후에 한 정월, 이월 나면은 보리 저 곧게 대 서기 전에 저 발 담근다고 밭 깊이 밟으라고 그거 조금 밟았던 거.)

103007 @ 아, 그건 사름이 불르는 거?(아, 그건 사람이 밟는 거?)

103007 # 응, 사름이 불라사.(응, 사람이 밟아야.)

103007 @ 근데 보리 영 싹 난 거 불라불민 안 뒐 거 아니예?(그런데 보리 이렇게 싹 나온 거 밟아버리면 안 될 거 아니에요?)

103007 # 게난 싹을 불라주는 거.(그러니까 싹을 밟아주는 거.)

103007 @ 싹을 발라야 뒈어?(싹을 밟아야 돼?)

103007 # 게난 대 사기 전에.(그러니까 대 서기 전에.)

103007 @ 응.(응.)

103007 # 부럭 사기 전에 그 발 든든히 부뜨라고.(배동 서기 전에 그 발 든든히 붙으라고.)

103007 @ 아.(아.)

103007 # 발이 든든이 부터주라고 저 이 제국시대 넘어가난 밧을이 고랑으로 영 골쳐놔근에 고랑드레 씨 뿌려근에 보릴 간 거라이. 거민 요것이 고랑이라이. 이거 이거 이거추룩 요건 또 파니[41]믄 요 영헌 고랑에 보리가 잇는 거라.(발이 든든히 붙어주라고 저 이 제국시대 넘어가니까 밭을 고랑으로 이렇게 골 쳐놔서 고랑에 씨 뿌려서 보리를 간 거야. 그러면 요것이 고랑이야. 이거 이거 이거처럼 요건 또 이랑이면 요 이렇게 한 고랑에 보리가 있는 거야.)

103007 @ 예.(예.)

.103007 # 사름덜 쭉 ᄀᆞ치 상 일로 일로만 불르는 거라. 보리만 쭈욱. 그 전이 이 저 제국시대 갈아근에 파니 둥그렁헌 건 못 불르고.(사람들 쭉 같이 서서 이리로 이리로만 밟는 거야. 보리만 쭈욱. 그 전에 이 저 제국시대 갈아서 이랑 둥그런 건 못 밟고.)

103007 @ 아.(아.)

103007 # 게민 요걸 왜 불르느냐 허민 뿌리 돈돈히 부뜨렌 경헹 불라주는 거, 이거.(그러면 요걸 왜 밟느냐 하면 뿌리 단단히 붙으라고 그래서 밟아주는 거, 이거.)

103007 @ 아.(아.)

103007 # 경허당 이젠 안 불라.(그러다가 이젠 안 밟아.)

103007 @ 거난, 처음에는 씨, 저 보리씨 뻴 때 걸름헌 거 그냥 영영 삔 다음에 밧을 갈아신디, 나중엔 고랑 팡 거기다.(그러니까, 처음에는 씨, 저 보리씨 뿌릴 때 거름한 거 그냥 이렇게 이렇게 뿌린 다음에 밭을 갈았는데, 나중엔 고랑 파서 거기다.)

103007 # 또 줍아놔, 이젠 내중에는.(또 집어놔, 이젠 나중에는.)

103007 @ 줍아놔? 나중에는?(집어놔? 나중에는?)

103007 # 지금도 역시 지금은.(지금도 역시 지금은.)

103007 @ 지금도 경헤?(지금도 그렇게 해?)

103007 # 지금은 또 지금은이 걸름이 좋아노난 그냥 씨 뿌려근에 갱운기로 닥닥닥닥 두드려.(지금은 또 지금은 거름이 좋아놓으니까 그냥 씨 뿌려서 경운기로 닥닥닥닥 두드려.)

103007 @ 미시걸로 두드려?(무엇으로 두드려?)

103007 # 갱운기로.(경운기로.)

103007 @ 경운기?(경운기?)

103007 # 이딘 보통 안 가난 거주. 저 대정 쪽더레 가민 보리 갈아이. 지금도 잇당 틈틈이 보리 간 밧이 잇어. 보릴 어떵 갈암넨허민 씨 작작 삐어놩 갱운기로 닥닥 두드려.(여긴 보통 안 가니까 그거지. 저 대정 쪽으로 가면 보리 갈아. 지금도 이따가 틈틈이 보리 간 밭이 있어. 보리 어떻게 갈고 있냐고 하면 씨 쫙쫙 뿌려놔서 경운기로 닥닥 두드려.)

103007 @ 응.(응.)

103007 # 두드리민 기냥 보리 나가민 비료 삭삭 뿌려불민 보리가 기냥 뭰다 이거여.(두드리면 그냥 보리 나가면 비료 싹싹 뿌려버리면 보리가 그냥 된다 이거야.)

---

41) '파니'는 이랑이라는 말로 갈아 놓은 밭의 한 두둑과 한 고랑을 아울러 이르는 말이다.

103007 @ 어.(어.)

103007 # 이젠.(이젠.)

103007 @ 이제는.(이제는.)

103007 # 사름이 역아서 우리 옛날에 두린 때야, 두린 때, 어리석을 때.(사람이 '역아서' 우리 옛날에는 '두린' 때야, '두린' 때, 어리석을 때.)

103007 @ 게난예.(그러니까요.)

103007 # 헤보멍 헤보멍 허는 거야. 이거 경허난 이 대정 쪽더렌 가민 씨 작작 뿌리고 걸름 뿌리곡 헤나근에 비료 뿌리곡 씨 뿌리고 갱운기로 닥닥 갈앗당 보리 나민 또 비료도 허고 경헤민 보릴 헤먹는디. 옛날엔 어리석기가 그추룩 어리석게 살앗어.(해보면서 해보면서 하는 거야. 이거 그러니까 이 대정 쪽엔 가면 씨 쫙쫙 뿌리고 거름 뿌리고 하고나면 비료 뿌리고 씨 뿌리고 경운기로 닥닥 갈았다가 보리 나면 또 비료도 하고 그렇게 하면 보릴 해먹는데. 옛날엔 어리석기가 그렇게 어리석게 살았어.)

103007 @ 몰란게, 몰란예. 남 허는 거 봐사 아는디.(몰라서, 몰라서요. 남 하는 거 봐야 아는데.)

103007 # 겨고 씨를 엿날엔 갈앙 뿌려놓면 비료가 엇어놓난 이 보리도 사름이나 곡석이나 먹어야 클 거 아니? 먹을 게, 뿔아 먹을 게 엇이난 크질 못허는 거라. 그냥 앗땅 뿌리민 경허난 엿날 어른들 그 뒈야지 걸름, 뒈야지 걸름 허멍 도새기 질룬 디 보리찜 앗다 놓고 바당에 가근에 저 바당 푸십새[42] 헤당 놓고 이제 그걸 도새기가 막 불르민 걸름이 썩는 거라이.(그리고 씨를 옛날엔 갈아서 뿌려놓으면 비료가 없어놓으니까 이 보리도 사람이나 곡식이나 먹어야 클 거 아니니? 먹을 게, 빨아 먹을 게 없으니까 크질 못하는 거야. 그냥 가져다가 뿌리면 그러니까 옛날 어른들 그 돼지거름, 돼지거름 하면서 돼지 기르는 데 보리짚 가져다 놓고 바다에 가서 저 바다 '푸십새' 해다 놓고 이제 그걸 돼지가 막 밟으면 거름이 썩는 거야.)

103003 @ 아까 바당 무신거?(아까 바다 무엇?)

103003 # 바당 듬북.(바다 듬북.)

103003 @ 그거ᄀᆞ라 뭐렌 ᄀᆞᆯ앗어? 푸신?(그거보고 뭐라고 말했어? '푸신'?)

103003 # 요새 저 우리는 듬북, 듬북헤도 또 요기 말광 제주시 말광 틀려.(요새 저 우리는 듬북, 듬북해도 또 요기 말과 제주시 말과 달라.)

103003 @ 응, 틀려.(응, 달라.)

103007 # 제주시 가민 ᄆᆞᆯ망이엔 허메.(제주시 가면 'ᄆᆞᆯ망'이라고 해.)

103007 @ 응, ᄆᆞᆯ망.(응, ᄆᆞᆯ망.)

103007 # ᄆᆞᆯ망이엔 허고 우리 여기서는 듬북, 듬북.('ᄆᆞᆯ망'이라고 하고 우리 여기서는 듬북, 듬북.)

103003 @ 아니 거난 듬북을 무신거옌 ᄀᆞᆯ안게마는. 푸신게? 바당에 푸신게?(아니 그러니까 듬북을 무엇이라고 말하던데마는. '푸신게'? 바다에 '푸신게'?)

---

42) '푸십새'는 풀의 통칭으로 제보자는 사용하고 있다. 앞에서는 푸성귀를 뜻하는 것으로 사용했는데 여기서는 바다풀인 해초를 가리키고 있다.

103003 # 풀, 바당에 풀.(풀, 바다에 풀.)

103003 @ 아까 뭐예 ᄀᆞᆯ읍디가?(아까 뭐라고 말하셨습니까?)

103003 # 바당에 풀이엔 헌 건 듬북.(바다에 풀이라고 한 건 듬북.)

103003 @ 아. 갖다근에 걸름에?(아. 갖다가 거름에.)

103003 # 우린 푸십새엔도 허고 바당.(우린 '푸십새'라고도 하고 바다.)

103003 @ 푸십새. 아까 게난 푸십샌 무신거라 게난?('푸십새'. 아까 그러니까 '푸십새'는 뭐야 그러니까?)

103003 # 바당풀이엔도 ᄀᆞᆫ고, 푸십새엔도 ᄀᆞᆫ고 여라 가지라, 바당에 것도이.(바다풀이라고도 말하고, '푸십새'라고도 말하고 여러 가지야, 바다의 것도.)

103003 @ 거나 똑ᄀᆞ튼 걸 불르는 거마씨?(그거나 똑같은 걸 부르는 거예요?)

103003 # 응, 바당 푸십새라도 헤당 드리쳐야 걸름이 뒈지, 엿날 어른들은.(응 바다 '푸십새'라도 해다가 들이뜨려야 거름이 되지, 옛날 어른들은.)

103003 @ 아, 푸십새가 듬북 얘기하는 거?(아, '푸십새'가 듬북 얘기하는 거?)

103003 # 듬북 얘기.(듬북 얘기.)

103003 @ 아.(아.)

103003 # 겨난 듬북이렌 말 미처 안 ᄀᆞᆯ을 땐 아이고 거 바당에 푸십새라도 ᄒᆞ나썩 올른 거 봉가당 그리 드리치지.(그러니까 듬북이라고 말 미처 안 말할 땐 아이고 그거 바다에 '푸십새'라도 하나씩 올라온 거 주워다가 그리 들이뜨리지.)

103003 @ 어.(어.)

103003 # 영 ᄀᆞᆫ는 거, 경 ᄀᆞᆫ는 거.(이렇게 말하는 거, 그렇게 말하는 거.)

103003 @ 그거는 듬북 말고 다른 것도 다 포함헤서 ᄀᆞᆫ는 말 아니고 듬북만 ᄀᆞᆫ는 말? 아니지예?(그거는 듬북 말고 다른 것도 다 포함해서 말하는 말 아니고 듬북만 말하는 말? 아니지요?)

103003 # 다 포함헤서.(다 포함해서.)

103003 @ 다 포함헤서 게난 바다풀을 다 포함헤서 ᄀᆞᆫ는 말?(다 포함해서 그러니까 바다풀을 다 포함해서 하는 말?)

103003 # 응, 다 포함헤서 푸십새.(응, 다 포함해서 '푸십새'.)

103003 @ 푸십새.('푸십새'.)

103003 # 푸십새라도 헤다근에 통시에 ᄒᆞ쏠 들이민 그 보리찝 썩을 거 아냐?('푸십새'라도 해다가 돼지우리에 조금 들이면 그 보릿짚 썩을 거 아니냐?)

103003 @ 응.(응.)

103003 # 옛날 어른들은, 완전 옛날 어른들은 보리찝 썩어, 안 썩어 헌 말, 보리찝 썩은 게 똑 걸름이라이. 경허난에 그 듬북 나 ᄀᆞᆫ듯이 듬북 헤당 놓고 보리찝 놓곡헹 문짝 보리찝 썩으민 그거 이제 마당더레 그걸 퍼다 놔.(옛날 어른들은, 완전 옛날 어른들은 보릿짚 썩어, 안 썩어 한 말, 보릿짚 썩은 게 꼭 거름이야. 그러니까 그 듬북 나 말하듯 듬북 해다 놓고 보릿짚 놓고 해서 푹 보릿짚 썩으면 그거 이제 마당에 그걸 퍼다 놔.)

103003 @ 예.(예.)

103003 # 퍼다 놔근에 막 불르민 우리 떡 달루듯이 달롸지는 거주. 영 막 밀어졍 달롸졍 허민 그것이 벙뎅이가 지는 거라이. 경허민 보리씨를 뿌려. 보리씨를 뿌려 놓면은 보리씨를 뿌령 또 불르고, 또 불르고 헤놓민, 경허민 이것이 벙뎅이 져근에 우리 아져 뎅김도 존 거, 게난.(퍼다 놔서 막 밟으면 우리 떡 이기듯 이겨지는 거지. 이렇게 막 밀어져서 이겨져서 하면 그것이 덩어리가 지는 거야. 그러면 보리씨를 뿌려. 보리씨를 뿌려 놓으면 보리씨를 뿌려서 또 밟고, 또 밟고 해놓으면, 그러면 이것이 덩어리 져서 우리 가져 다니기도 좋은 거, 그러니까.)

103008 @ 보리밧듸, 할무니, 검질은 메?(보리밭에, 할머니, 김은 매?)

103008 # 검질은 메여.(김은 매.)

103008 @ 어떵헤, 언제쯤에 메는 거꽈?(어떻게 해, 언제쯤 매는 겁니까?)

103008 # 검질 그거 혼 정월 구믈어가민 메민 이월 초ᄁᆞ장 메어.(김 그거 한 정월 저물어가면 매면 이월 초까지 매.)

103008 @ 아, 막 추울 때?(아, 아주 추울 때?)

103008 # 추워.(추워.)

103008 @ 추울 때?(추울 때?)

103008 # 눈 오랑.(눈 와서.)

103008 @ 손도 막.(손도 아주.)

103008 # 막 손도 실렵고 가민 과짝 정에가 사이.(아주 손도 시리고 가면 곧추 성애가 서.)

103008 @ 응.(응.)

103008 # 우리 언 때 곶에, 사근에 가민 풀어져 가민 물 잘잘 안 허나? 둣날 아침이 바싹 ᄂᆞ릇[43] 쎈 때 밧듸 보민 이레 과제기 뭐 사잖아, 헤영헌 거 그거ᄀᆞ라 정에 산다, 정에 산다 허는 거라, 이디서는. 모관서는 뭐라고 하는지 몰라도 정에가 과짝 삿저 허멍 그거가 검질메젠 허민 장갑이 잇나, 뭐가 잇나. 요샌 방석도 꼴앙 앚고 장갑도 찌고 헷주마는, 장갑도 안 찌고 방석도 안 꼴고 경허민 수건은 뭣에 요샌 저런 모저 잇잖아이. 수건 영헹 써근에 영도 안 써, 영헹 썽 욜로 강 졸라메근에 그 수건 쓰고.(우리 추울 때 숲에, 서서 가면 풀어져 가면 물 좔좔 안 하니? 뒷날 아침 바싹 'ᄂᆞ릇' 센 때 밭에 보면 이리 곧추 뭐 서잖아, 하얀 거 그것보고 성에 선다, 성에 선다 하는 거야, 여기서는. 제주시에서는 뭐라고 하는지 몰라도 성에가 곧추 섰다 하면서 그것이 김매려고 하면 장갑이 있나, 뭐가 있나. 요샌 방석도 깔아서 앉고 장갑도 끼고 했지마는, 장갑도 안 끼고 방석도 안 깔고 그러면 수건은 뭐에 요샌 저런 모자도 있잖아. 수건 이렇게 해서 써서 이렇게도 안 써, 이렇게 해서 써서 요리로 가서 졸라매서 그 수건 쓰고.)

103008 @ 맨손으로예.(맨손으로요.)

103008 # 맨손으로 그 검질을 맷어. 경허멍도 살앗네, 이젠 호강이야.(맨손으로 그 김을 맸어. 그러면서도 살았네, 이젠 호강이야.)

---

43) 'ᄂᆞ릇'은 맑고 바람 없는 밤이나 새벽 때에 대기의 몹시 추운 기운이다.

103009 @ 게난 보리밧 검질메기 힘들지예, 막 춥고 허난 힘들어시켜예?(그러니까 보리밭 김매기 힘들지요, 아주 춥고 하니까 힘들었겠네요?)

103009 # 힘들어. 겨민 어떤 사름은 보리왓 검질 깨끗이 메고 어떤 사름은 ᄒᆞ끔 아니 맷다근에 드릇ᄂᆞ물이란 거 잇어. 그런 거나 느즉 혜 가민 그런 거나 캐고 또 보리왓디 보민 대우리엔 헌 거, 보리 닮은 거 잇어. 그런 거나 강 뽑주. 어떤 사름은 검질 안 멩 내부는 사름도 잇어. 경허민 보리 비엉 보민 ᄂᆞ물도 들고, 대우리도 들고.(힘들어. 그러면 어떤 사람은 보리밭 김 깨끗이 매고 어떤 사람은 조금 안 맸다가 들나물이란 거 있어. 그런 거나 느직이 해 가면 그런 거나 캐고 또 보리밭에 보면 귀리라고 한 거, 보리 같은 거 있어. 그런 거나 가서 뽑지. 어떤 사람은 김 안 매서 내버리는 사람도 있어. 그러면 보리 베어서 보면 나물도 들고, 귀리도 들고.)

103008 @ 응.(응.)

103008 # 깨끗이 메는 사름은 메고 얼곡게 그냥 메지 못허민 기냥 내부는 거.(깨끗이 매는 사람은 매고 춥고 그냥 매지 못하면 그냥 내버리는 거.)

103009 @ 보리밧듸 하영 나는 검질은 대우리? 아까.(보리밭에 많이 나는 김은 귀리? 아까.)

103009 # 대우리.(귀리.)

103009 @ 아.(아.)

103008 # 드릇ᄂᆞ물.(들나물.)

103009 @ 드릇ᄂᆞ물 두 가지가 제일 하영 나?(들나물 두 가지가 제일 많이 나?)

103009 # 두 가지가 제일 하. 경허민, 대우리는 검질멜 때 잘 몰랑 못 메어. 보리나 대우리나 ᄀᆞ따불민. 겨민 보리 비어가민 것도 ᄀᆞ치 비민 뚬 잘잘허멍 집이 강 문 뽑아.(두 가지가 제일 많아. 그러면, 귀리는 김맬 때 잘 몰라서 못 매. 보리나 귀리나 같아버리면. 그러면 보리 베어가면 그것도 같이 베면 땀 뻘뻘하면서 집에 가서 모두 뽑아.)

103009 @무사?(왜?)

103009 # 뽑아 베야지. 그건이 ᄀᆞᆯ아지도 안헤여. 대우리엔 헌 건 쫄랑쫄랑헌 건디 ᄀᆞᆯ아지지도 안헤여. 경헌 때문에 그거 막 더워도 보리 필 때 강 문딱 뽑아, 이젠.(뽑아버려야지. 그건 갈아지지도 않아. 귀리라고 한 건 길쭉길쭉한 건데 갈아지지도 않아. 그렇기 때문에 그거 아주 더워도 보리 팰 때 가서 모두 뽑아, 이젠.)

103008 @ 아.(아.)

103008 # 그거 뽑젠 헤도 힘들어, 엿날엔.(그거 뽑으려고 해도 힘들어, 옛날엔.)

103008 @ 겨민 검질은 보리밧듸 검질은 멧 번이나 메는 거?(그러면 김은 보리밭에 김은 몇 번이나 매는 거?)

103008 # 혼 번.(한 번.)

103008 @ 아까 그 겨울에?(아까 그 겨울에?)

103008 # 혼 번 메민 뒈는 거.(한 번 매면 되는 거.)

103008 @ 아. 아까 대우리 뽑는 건 검질메는 거 아니?(아. 아까 귀리 뽑는 건 김매는 거 아니?)

103008 # 그건 검질맬 때 대우린지 보린지 몰라.(그거 김맬 때 귀린지 보린지 몰라.)

103008 @ 경허난 흔 번 더?(그러니까 한 번 더?)

103008 # 우리는 대우릴 알아근에 요건 대우리다, 요거 보리다, 요거 잘 뷔령 메라 허민 아이들쯤은 가민 보리고 대우리고 몰라.(우리는 귀리를 알아서 요건 귀리다, 요건 보리다, 요거 잘 봐서 매라 하면 아이들쯤은 가면 보리고 귀리고 몰라.)

103008 @ 보리 뽑아 불어. 보리도 잇당 뽑아 불고 겨난 그걸 문딱 못 뽑주게. 그걸 이놈이 보리씨에다가 그 대우리 들어 놓민이 대우리 뽑음이 일이라. 더움은 무사 바락 더움광.(보리 뽑아 버려. 보리도 이따가 뽑아 버리고 그러니까 그걸 모두 못 뽑지. 그걸 이놈의 보리씨에다가 그 귀리 들어 놓으면 귀리 뽑기가 일이야. 덥기는 왜 와락 덥기와.)

103008 @ 대우린 게난 멧 월에 뽑는 거꽈?(귀린 그러니까 몇 월에 뽑는 겁니까?)

103008 # 그거는 보리 핀 후제에 ᄀᆞ치 피는 거난 흔 보리ᄀᆞ슬이 오월들에 허젠 허민 ᄉᆞ월들에 메여.(그거는 보리 핀 후에 같이 피는 거니까 한 보리 수확이 오월에 하려고 하면 사월에 매.)

103008 @ 더울 때구나.(더울 때구나.)

103008 # 대우리도 비어사 알앙 뽑주.(귀리도 베어야 알아서 뽑지.)

103008 @ 어느 게 보린지, 대우린지?(어느 게 보린지, 귀린지?)

103008 # 보린지 대우린지 모르난 피어사 허는 따문에 경허난 보리보다 먼저 피엄시믄 그 말쩨 피어, 이놈으 대우리가.(보린지 귀린지 모르니까 패어야 하는 때문에 그러니까 보리보다 먼저 패면 그 나중에 패, 이놈의 귀리가.)

103008 @ 그믄 대우리 뽑는 것까지 허믄 두 번이네.(그러면 귀리 뽑는 것까지 하면 두 번이네.)

103008 # 두 번.(두 번.)

103008 @ 보리밧듸 검질은 대우리 뽑는 거 허믄 두 번예?(보리밭에 김은 귀리 뽑는 거 하면 두 번요?)

103010 @ 음, 게민 이제 보리가 다 익언예, 게민 이제 어떵헤사 뒈어?(음, 그러면 이제 보리가 다 익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

103010 # 익으민 비고.(익으면 베고.)

103010 @ 미신걸로 강?(무엇으로 가서?)

103010 # 호미로.(낫으로.)

103010 @ 어떵 비어?(어떻게 베?)

103010 # 아, 호미로 굽엉도 비곡 에휴. 보리 빌 때이 굽엉도 비곡, 앚앙도 비곡, 우리ᄀᆞ치 젊은 사름덜은 앚앙 비어가민 젊은 사름이 앚앙만 비엄덴 헨. 우리 허리 아파근에 앚앙만 비주게. 경헤민 보리 비는 게 힘들어 호미로 굽어근에 지금 육지 나룩 비듯이 굽엉만 비네이. 경헌디 우리 허리 아프민 앚앙 비어. 겨민 또고냥이 옷이 문 헐어. 앚앙만 비어 놓난 방석이 시나, 뭐허나, 지금 호미덜 잇잖아. 호미로 그자 영영 비어.(아, 낫으로 굽어서도 베고 에휴. 보리 벨 때 굽어서도 베고, 앉아서도 베고, 우리같이

젊은 사람들은 앉아서 베어가면 젊은 사람이 앉아서 벤다고 했어. 우리 허리 아파서 앉아서만 베었지. 그러면 보리 베는 게 힘들어. 보리로 굽어서 지금 육지 벼 베듯이 굽어서만 베네. 그런데 우리 허리 아프면 앉아서 베. 그러면 엉덩이 옷이 모두 헐어. 앉아서만 베어 놓으니까 방석이 있나, 뭐하나, 지금 낫들 있잖아. 낫으로 그저 이렇게 이렇게 베어.)

103010 @ 비엉 그레 영 놔?(베어서 그리 이렇게 놔?)

103010 # 경 놧당 날 좋면.(그렇게 놨다가 날 좋으면.)

103010 @ 어떵 무꺼?(어떻게 묶어?)

103010 # 모두와 놓멍.(모아 놓으면서.)

103010 @ 날 좋면 햇빗에 물려근에?(날 좋으면 햇볕에 말려서?)

103010 # 햇빗에이. 나 곧건 들어. 햇빗에 보리를 요만 넙게 심어이. 요만은 넙게 심엉 쭉 비어가민 일로 쭉허게 놔 가, 코뚱케. 이녁 빈 것만썩 쭉 놔가민 ᄒᆞ루 벳 나민 그걸 벳 마쳐근에 물리와. 물류민 영 요렇게 모돠 놓는 사름 ᄃᆞ로 잇고 무끄는 사름 ᄃᆞ로 잇어. 이녁냥으로 사름 엇인 사름은 이녁만 강 무끄곡 모두 놓멍 무끄주마는 수정이 여라이 신 딘 보리 강 모두라, 무끄게. 헤영 확확 날 존 때 무꺼분 사름은 허고 경 안헌 사름은 적져 놓민 보리 나불당 보민 먹을 것도 엇어, 나불민, 보리 나불민. 적정 나불민.(햇볕에. 나 말하면 들어. 햇볕에 보리를 요만큼 넓게 잡아. 요만큼은 넓게 잡아서 쭉 베어가면 이리로 쭉하게 놔 가, 가지런히. 자기 벤 것만큼씩 쭉 놔가면 하루 볕 나면 그걸 볕 맞혀서 말려. 말리면 이렇게 요렇게 모아 놓는 사람 따로 있고 묶는 사람 따로 있어. 자기대로 사람 없는 사람은 자기만 가서 묶고 모아 놓으면서 묶지마는 숫자가 여러 명 있는 덴 보리 가서 모아라, 묶게. 해서 확확 날 좋은 때 묶어버린 사람은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적셔 놓으면 보리 나버리다 보면 먹을 것도 없어, 나버리면, 보리 나버리민. 적셔서 나버리면.)

103010 @ 싹 나불민?(싹 나버리면?)

103010 # 싹 나불민 먹을 것 엇어. 겨난 그 마친 때 보리ᄀᆞ슬허기가 힘들어. 밤이 강 비오람직허민 밤이 강 무껑 젖어도 무꺼근에 데며야 뒈어. 나지 못허게. 경헌 따문에 젤 보리ᄀᆞ슬헐 때가 어려와. 조ᄀᆞ슬보담도. 조ᄀᆞ슬헐 때는 날이 좋으난 확확 비엉 조는 비멍 무꺼.(싹 나버리면 먹을 것 없어. 그러니까 그 맞힌 때 보리 수확하기가 힘들어. 밤에 가서 비올 것 같으면 밤에 가서 묶어서 젖어도 묶어서 쟁여야 돼. 나지 못하게. 그런 때문에 제일 보리 수확할 때가 어려와. 조 수확보다도. 조 수확할 때는 날이 좋으니까 확확 베어서 조는 베면서 묶어.)

103010 @ 비멍 바로? 물리지 안헹?(베면서 바로? 말리지 않고?)

103010 # 응, 물류지 안행 비멍 바로 비멍 무꺼불고, 요놈이 보린 물류아사뒈어, 물류아사.(응, 말리지 않고 베면서 바로 베면서 묶어버리고, 요놈의 보린 말려야 돼. 말려야.)

103010 @ 경허당 비 와불민예.(그러다가 비 와버리면요.)

103010 @ 경허당 비 마쳐 놓민 ᄆᆞᆫ 나불고, 이 보리는 나민 먹을 것이 엇어. 골 나비

어근에 바싹. 경헌 따문에 젤 보리ᄀᆞ슬험이 어려와.(그러다가 비 맞혀 놓으면 모두 나버리고, 이 보리는 나면 먹을 것이 없어. 엿기름 나버려서 바싹. 그런 때문에 젤 보리 수확하기가 어려워.)

103010 @ 게민 아까 무신걸로 무꺼? 옛날에 끈도 엇고.(그러면 아까 무엇으로 묶어? 옛날에 끈도 없고.)

103010 # 아, 보리 이거이.(아, 보리 이거.)

103010 @ 보리낭으로?(보릿대로?)

103010 # 보리남으로 영 코뚱케 영 모다다 놓민 이거 혼 줌 팍 심어근에 보리 고고리 영 데왕 탁허게 놩 영 벌이민 영 벌영 보리남뎅이 영헹 영 놓민 그것에 언주민 그거 틀어근에 그자 글로 무꺼.(보릿대로 이렇게 가지런히 이렇게 모아다 놓으면 이거 한 줌 팍 쥐어서 보리 이삭 이렇게 틀어서 탁하게 놔서 이렇게 벌리면 이렇게 벌려서 보릿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놓으면 그것에 그러모으면 그거 틀어서 그저 그리로 묶어.)

103010 @ 보리낭으로 그냥?(보릿대로 그냥?)

103010 # 응, 그냥.(응, 그냥.)

103010 @ 다른 거 뭐 헤다근에 허는 거 아니고? 보리낭으로 그냥?(다른 거 뭐 해다가 하는 거 아니고? 보릿대로 그냥?)

103010 # 아니, 아니. 보리남으로.(아니, 아니. 보릿대로.)

103010 @ 보리남으로.(보릿대로.)

103010 # 보리남으로 그냥, 보리남 영 보리 영 그냥 이추룩 질주. 보리가 이만썩 지난.(보릿대로 그냥, 보릿대 이렇게 보리 이렇게 그냥 이렇게 길지. 보리가 이만큼씩 기니까.)

103010 @ 예, 예.(예, 예.)

103010 # 확 모다다 놓민 그거 혼 줌 심어근에 그걸로 영 고고리 영 두 번도 안헤여, 혼 번 영 오그렁 톡 놔근에 영 벌경 딱 무꺼비어.(확 모아다 놓으면 그거 한 줌 쥐어서 그걸로 이렇게 이삭 이렇게 두 번도 안 해, 한 번 이렇게 오그려서 톡 놔서 이렇게 벌려서 딱 묶어버려.)

103010 @ 아. 게민 그거 ᄆᆞᆯ려놩 다 무끄민 그거 눌어사주예?(아. 그러면 그거 말려놔서 다 묶으면 그거 가려야지요?)

103010 # 응, 눌어야 뒈.(응, 가려야 돼.)

103010 @ 어떵 눌어, 그건?(어떻게 가려, 그건?)

103010 # 눌 때는 뱅허게, 이거이 임시 재기 장만허젠 허는 사름은 기냥 톡톡톡톡 앗다근에 그자 쭉허게 이거 ᄎᆞ례로 이추룩 탁탁 데며이, 조근조근 조근조근.(가릴 때는 뱅하게, 이거 임시 재게 장만하려고 하는 사람은 그냥 톡톡톡톡 가져다가 그저 쭉하게 이거 차례로 이렇게 탁탁 쟁여, 차근차근 차근차근.)

103010 @ 누는 거 아니고?(가리는 게 아니고?)

103010 # 눌지 안헹 데며근에. 비만 못 맞게 데명 우이 ᄂᆞ람지 잇잖아.(가리지 않고 쟁여서. 비만 안 맞게 쟁여서 위에 이엉 있잖아.)

103010 @ 예 예.(예, 예.)

103010 # ᄂᆞ람지 모르지?(이엉 모르지?)

103010 @ 알아, 알아. 새로 짠 거.(알아, 알아. 띠로 짠 거.)

103010 # 알아?(알아?)

103010 @ 응. 그걸 헤당 더퍼?(응. 그걸 해다가 덮어?)

103010 # 응.(응.)

103010 # 경허고 재기 못헤근에 아져오지나 못허민 밧 먼 디 사름은 둥글랑허게 눌어이.(그리고 재게 못해서 가져오지나 못하면 밭 먼 데 사람은 둥그렇게 가려.)

103010 @ 밧듸서?(밭에서?)

103010 # 응, 밧듸서 둥글랑허게 눌어. 위에 ᄂᆞ람지 더펑 비 들게 말앗다근에 ᄂᆞᆷ 다 헹 천천히 바레기도 한글헤가고. 또 기계도 ᄒᆞ쏠 맞춰 메틀날 보리 뚜들겨주켜 허민 그땐 시꺼 오는 거라, 마차로 시꺼다근에. 그땐 두드리는 거라, 기계 빌엉.(응, 밭에서 둥글게 가려. 위에 이엉 덮어서 비 들게 하지 않았다가 남 다 해서 천천히 보기도 한가해지고. 또 기계도 조금 맞춰서 며칠날 보리 두드려 주겠다 하면 그땐 실어 오는 거야, 마차로 실어다가. 그땐 두드리는 거야, 기계 빌어서.)

103010 @ 아.(아.)

103010 # 그전이는이 클 헤놔근에 보릴 영 홀타서이. 홀타근에 홀탕 놔두민 기계로 오랑 두드리단 또 이젠 ᄒᆞ쏠 서가난 이젠 남차 두드리는 기계가 나온 거라이. 아, 그땐 또 수월허는 거라.(그전에는 틀 해놔서 보릴 이렇게 홅아서. 홅아서 홅아서 놔두면 기계로 와서 두드리다가 또 이젠 조금 있어가니까 이젠 나무째 두드리는 기계가 나온 거야. 아, 그땐 또 수월한 거야.)

103011 @ 게난예 클 이거 안 헤도 뒈는 거?(그러니까요 틀 이거 안 해도 되는 거?)

103011 # 안 헤도 그자 보리만 앗당 내불민 낭차 착착 멕이멍 ᄒᆞᆫ 헤민 두드려. 우리 열댓 가멩이 스무남은 가멩이 헌 건 그자, 그자 멧 시간 확 허민 그추룩 나와. 그전에 엿날 요런 것도 안 난 때는이 기계 안 난 때는.(안 해도 그저 보리만 가져다가 내버리면 나무째 착착 먹이면서 한 하면 두드려. 우리 열댓 가마니 스무남은 가마니 한 건 그저, 그저 몇 시간 확 하면 그처럼 나와. 그전에 옛날 요런 것도 안 난 때는 기계 안 난 때는.)

103011 @ 거난 어떵 헤낫수과?(그러니까 어떻게 했었습니까?)

103011 # 클로 영영 홀타이.(틀로 이렇게 이렇게 홅아.)

103011 @ 그 클을 무신거렌 골아?(그 틀을 무엇이라고 말해?)

103011 # 보리클[44], 보리클 허메. 그런 거 요추룩 쉐 돋은 거에 놩 보리 탁탁 홀타, 홀트민 도께로 두드렷네.(‘보리클’, ‘보리클’ 해. 그런 거 요처럼 쇠 돋은 거에 놔서 보리 탁탁 홅아, 홅으면 도리깨로 두드렸네.)

103011 @ 도께로?(도리깨로?)

103011 # 응.(응.)

---

44) ‘보리클’은 보리 이삭을 홅는 데 쓰는 그네를 말한다.

103011 @ 밧듸서? 아님 집이 시껑와?(밭에서? 아님 집에 실어와?)

103011 # 집이 시껑당.(집에 실어다가.)

103011 @ 마당에서?(마당에서?)

103011 # 마당에 헤영 그 마당질허젠 허민 땅 곳게[45], 곳으민 못 허여. 게난 보리찝이고 미시거고 듬뿍 꼴앙 겨울에 땅을 못 곳게 헤여이, 마당질허젠 허민, 보리 마당질허젠 허민.(마당에 해서 그 마당질하려고 하면 땅 '곳게', '곳으민' 못 해. 그러니까 보릿짚이고 무엇이고 듬뿍 깔아서 겨울에 땅을 못 '곳게' 해, 마당질하려고 하면, 보리 마당질하려고 하면.)

103010 @ 예.(예.)

103010 # 땅 곳아근에 부글부글헤불민 보리 두드리민 문 흑이 들어갈 거난 이 마당에서 흑 땅에서 보릴 두드리는 거여, 흑 땅에서.(땅 '곳아서' 부글부글해버리면 보리 두드리면 모두 흙이 들어갈 거니까 이 마당에서 흙 땅에서 보릴 두드리는 거야, 흙 땅에서.)

103011 @ 뭐 안 꼴아근에?(뭐 안 깔아서?)

103011 # 응, 뭐 안 꼴앙 흑 땅에서 보릴 두드리젠 허민 땅 곳아불민 안 된뎅 듬뿍 검질을 꼴아. 꼴앙 눈이 와도 땅이 곳질 안헤여, 그걸로이 뚯앙. 경헤나민 봄 나민 싹 허게 그거 걷어근에 씰어둬근에 흑 땅에 보릴 놩 두드리는 거여, 흑 땅에, 흑 땅에서. 도께 알지? 이제 성읍리 가민 도께 잇어.(응, 뭐 안 깔아서 흙 땅에서 보릴 두드리려고 하면 땅 '곳아' 버리면 안 된다고 듬뿍 검불을 깔아. 깔아서 눈이 와도 땅이 '곳질' 않아, 그걸로 따뜻해서. 그렇게 하고나면 봄 나면 싹 하게 그거 걷어서 쓸어두고 흙 땅에서 보릴 놔서 두드리는 거야, 흙 땅에, 흙 땅에서. 도리깨 알지? 이제 성읍리 가면 도리깨 있어.)

103011 @ 예, 예, 도께 알아. 쳐가멍? 멧 사름이 사근에 합니까?(예, 예, 도리깨 알아. 쳐가면서? 몇 사람이 서서 합니까?)

103011 # 식구 한 사름은 셋도 사고 넷도 사고 식구 엇인 사름은 혼자만도 허고 둘만도 허고, 아이고, 보리.(식구 한 사람은 셋도 서고 넷도 서고 식구 없는 사람은 혼자만도 하고 둘만도 하고, 아이고, 보리.)

103011 @ 여기서 두드리민 저기서 두드리고?(여기서 두드리면 저기서 두드리고?)

103011 # 경헷주마는 마주 영 상 헤신디 수정 엇인 사름은 이녁 혼자만 두드리고, 돌아가멍 뱅뱅.(그랬지마는 마주 이렇게 서서 했는데 식구 숫자 없는 사람은 자기 혼자만 두드리고, 돌아가면서 뱅뱅.)

103011 @ 아.(아.)

103011 # 영 영 돌아가멍 두드리고. 어렵게 살림 사는 거여.(이렇게 이렇게 돌아가면서 두드리고. 어렵게 살림 사는 거야.)

103011 @ 게난 헤낭 뒈싸근에 또 두드리고?(그러니까 해두고 뒤집어서 또 두드리고?)

---

45) '곳다'는 땅이 얼어서 부풀어 오른 모습을 말한다.

103011 # 경헤사 그 ᄀᆞ스락 막 거꺼지도록 ᄀᆞ스락 거꺼지도록 그 도께로 두드리는 거야.(그래야 그 까끄라기 막 꺾어지도록 까끄라기 꺾어지도록 그 도리깨로 두드리는 거야.)

103011 @ 두드려나민 그거 보리낭 영 걷어불어?(두드리고 나면 그거 보릿대 이렇게 걷어버려?)

103011 # 보리낭은 기계로 홀트거든. 이레 클에 놩 보리낭은 미릇 헹 졸랑 데메불고. 요 보리만 두드리는 거.(보릿대는 기계로 홅거든. 이리 틀에 놔서 보릿대는 미리 해서 잘라서 쟁여버리고. 요 보리만 두드리는 거.)

103011 @ 고고리만, 고고리만 두드리는 거?(이삭만, 이삭만 두드리는 거?)

103011 # 알암신게, 고고리 두드리는 거.(알고 있네, 이삭 두드리는 거)

103012 @ 나도 이런 거 계속. 고고리만 두드리민 어떵 뒈? 그 보리쌀만 털어지는 거?(나도 이런 거 계속. 이삭만 두드리면 어떻게 돼? 그 보리쌀만 떨어지는 거?)

103012 # 보리쌀만 털어지는 거.(보리쌀만 떨어지는 거.)

103012 @ 고고리 영 다시 걷어불어?(이삭 이렇게 다시 걷어버려?)

103012 # 게민 이제 강 ᄇᆞ름, ᄇᆞ름 엇인 땐 못 불리고 영 ᄇᆞ름 나는 거 보멍 ᄇᆞ름 나는 디 강 ᄆᆞᆫ 불려, ᄀᆞ스락, ᄀᆞ스락 딱 불려. 불리민 솔박으로 영 잘잘잘 불려, 불려근에 ᄀᆞ스락은, ᄀᆞ스락만 보리쌀은 보리쌀만 헤놩, 야, 어떻게 어렵게 살앗는지, 그거헹 바싹 ᄆᆞᆯ리왕, ᄆᆞᆯ리왕 또 쏠 내 먹젠 허민 그거 또 보리는 물 적셔사 ᄀᆞ네, 겁적 안 벗어.(그러면 이제 가서 바람, 바람 없을 땐 못 까부르고 이렇게 바람 부는 거 보면서 바람 부는 데 가서 모두 까불러, 까끄라기, 까끄라기 딱 까불러. 까부르면 '솔박'으로 이렇게 좔좔좔 까불려, 까불려서 까끄라기는, 까끄라기만 보리쌀은 보리쌀만 해놔서, 야, 어떻게 어렵게 살았는지, 그거해서 바싹 말려서, 말려서 또 쌀 내어 먹으려고 하면 그거 또 보리는 물 적셔야 가네, 껍질 안 벗겨져.)

103012 @ 물 적정 놔둬사 헤여?(물 적셔서 놔둬야 해?)

103012 # 물 적져근에 중간으로 우리 역은 후제에 이 저 기계가 낭 보리 가는 기계가 나왓주. 그전에는 ᄆᆞᆯᄀᆞ레, ᄆᆞᆯᄀᆞ레 이제 성읍리도 가민 ᄆᆞᆯᄀᆞ레 나올 때도 잇어. 그것에 놩 알로 비치락으로 쓸고 한가운데로 영 ᄂᆞ립고 알로 우트레 올리곡 허멍 물 적져놩 그것에 멧 번사 둥글이는지 몰라이.(물 적셔서 중간으로 우리 '역은' 후에 이 저 기계가 나와서 보리 가는 기계가 놔왔지. 그전에는 연자매, 연자매 이제 성읍리도 가면 연자매 나올 때도 있어. 그것에 놔서 아래로 빗자루로 쓸고 한가운데로 이렇게 내리고 아래로 위로 올리고 하면서 물 적셔놔서 그것에 몇 번이야 굴리는지 몰라.)

103012 @ 그 쉐, 아니 돌 이만이 큰 돌예? 눌렁예?(그 소, 아니 돌 이만큼 큰 돌요? 눌려서요?)

103012 # 이펜으로 둘리 밀리곡, 저펜으로 둘리 밀리곡 너이가 양펜으로 밀려사 그게 영 돌멩이가 돌아가멍 거 밀어졍 ᄀᆞᆯ아지는 거.(이편으로 둘이 밀고, 저편으로 둘이 밀고 넷이 양편으로 밀어야 그게 이렇게 돌멩이가 돌아가면서 그거 밀려서 갈아지는 거.)

103012 @ 껍데기 벗겨지는 거?(껍데기 벗겨지는 거?)

103012 # 응, 껍데기 벗겨지는 거, 영 돌아가멍. 일로 영헹 영 밀리고 또 욜로도 영 밀리민 양펜으로 너이가 밀리민 게벼와근에 뱅뱅뱅 돌아가는냥 그걸로 눌러지멍 껍데기가 벗겨지는 거.(응, 껍데기 벗겨지는 거,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리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밀리고 또 요리로도 이렇게 밀면 양편으로 넷이 밀면 가벼워서 뱅뱅뱅 돌아가는 대로 그걸로 눌러지면서 껍데기가 벗겨지는 거.)

103012 @ 아. 게민 그거 저 혼 번만 허민 다 벗겨져?(아. 그러면 그거 저 한 번만 하면 다 벗겨져?)

103012 # 혼 번만 허민 벳겨지는디 다 못 벳겨. 또 두불 ᄆᆞᆯ리와근에 집이 오랑 그거 체 영 불리민 체 영 ᄆᆞᆫ딱 불려나거든. 불려나민 또 바싹 ᄆᆞᆯ령 ᄃᆞ시 강 물 버무령 또 ᄀᆞᆯ아. 두불 ᄀᆞᆯ아,(한 번만 하면 벗겨지는데 다 못 벗겨. 또 두벌 말려서 집에 와서 그거 체 이렇게 까불리면 체 이렇게 모두 날아가거든. 까부르고 나면 또 바싹 말려서 또 가서 물 버무려서 또 갈아. 두벌 갈아.)

103012 @ 두불 ᄀᆞᆯ아.(두벌 갈아.)

103012 # 두불 ᄀᆞᆯ앙 오랑 ᄆᆞᆯ리우민 또 ᄊᆞᆯ을 어떵 벌렁 먹느냐 허민 영영 둘르는 거 잇잖아이.(두벌 갈아서 와서 말리면 또 쌀을 어떻게 쪼개서 먹느냐 하면 이렇게 이렇게 돌리는 거 있잖아.)

103012 @ 거 무신거렌 ᄀᆞᆯ아?(그거 뭐라고 말해?)

103012 # 정ᄀᆞ레.(풀맷돌.)

103012 @ 정ᄀᆞ레에.(풀맷돌에.)

103012 # 정고레에서 영영 허민.(풀맷돌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

103012 @ 또 ᄀᆞᆯ아?(또 갈아?)

103012 # 응, ᄀᆞᆯ아가민 ᄊᆞᆯ이 벌러지멍 나와. 경 벌러지민 나오주, 그냥 통. 요즘은 기계에 강 ᄀᆞ난 벌르지 안헹 그냥 ᄊᆞᆯ이거든.(응, 갈아가면 쌀이 쪼개지면서 나와. 그렇게 쪼개지면 나오지, 그냥 통. 요즘은 기계에 가서 가니까 쪼개지 않고 그냥 쌀이거든.)

103012 @ 예.(예.)

103012 # 엿날엔 경 안헤민 못 먹어, 벌르지 안허민. 껍데기가 잘 못 벳기난 겨민 밥헤근에 보리밥은 불 와랑와랑 숨아가민 엿날엔 가마솟이라이. 그런 가마솟디서 밥헹 부껑 헤 가민 보리체가 바싹허게 부꺼.(옛날엔 그렇게 안하면 못 먹어, 쪼개지 않으면. 껍데기를 잘 못 벗기니까 그러면 밥해서 보리밥은 불 활활 때가면 옛날엔 가마솥이야. 그건 가마솥에서 밥해서 끓어 가면 보릿겨가 바싹하게 끓어.)

103012 @ 아. 체가?(아. 겨가?)

103012 # 응, 체가 나와 또. 경헤도 경 잘 벳기노렌 헤도 경헤도 그걸 배부르게 못 먹네, 그 밥도.(응, 겨가 나와 또. 그래도 그렇게 잘 벗기노라고 해도 그래도 그걸 배부르게 못 먹네, 그 밥도.)

103012 @ 게메예.(그러게요.)

103012 # 아이고, 우리 어린 땐이 나가 혼 일곱여덥 살 뤤 때가 제국시대라이. 제국

시대에 이거 중간으로 골으난 헷주, ᄒᆞ나로 곧젠 허민 막 멀어, 시간 멀어.(아이고, 우리 어린 땐 내가 한 일고여덟 살 된 때가 제국시대야. 제국시대에 이거 중간으로 말하니까 했지, 하나로 말하려고 하면 아주 멀어, 시간 멀어.)

103012 @ 무슨 시간?(무슨 시간?)

103012 # 시간이 오래여, ᄒᆞ나로 곧젠 허면 우리 체암부터 살아온 말을 곧젠 허민.(시간이 오래 걸려, 하나로 말하려고 하면 우리 처음부터 살아온 말을 하려고 하면.)

103012 @ 아니, 보리 헌 얘기만.(아니, 보리 한 얘기만.)

103012 # 보리 헤난 얘긴 지금 헌 거.(보리 했던 얘긴 지금 한 거.)

103012 @ 옛날에 보리 헤난 것도 그거 아니?(옛날에 보리 했던 것도 그거 아니?)

103012 # 옛날에 헤난 거 옛날부터 허는 풍습이 그거.(옛날에 했던 거 옛날부터 하는 풍습이 그거.)

103012 @ 게난예.(그러니까요.)

103012 @ 두린 때부터 헤난 영 홀트는 기곈 어디서 강 봉가와신디 보리 비어오민 이걸 박박, 탁허게 놔근에 영 ᄃᆞᆼ기민 고고리만 이레 고고리만 나오지, 나오지. 남뎅인 따로 허민 그걸 도께로 두드리는 거라. 마주상 이제 성읍리 가민 잇잖아.(어린 때부터 했던 이렇게 홅는 기곈 어디서 가서 주워왔는지 보리 베어오면 이걸 박박, 탁하게 놔서 이렇게 당기면 이삭만 이리 이삭만 나오지, 나오지. 줄기는 따로 하면 그걸 도리깨로 두드리는 거야. 마주서서 이제 성읍리 가면 있잖아.)

103012 @ 예.(예.)

103012 # 그걸로 두드렁 두드려근에 그 ᄀᆞ스락 엇게 다 두드리젠 허민 막 잘도 오래여, 잘도 오래여.(그걸로 두드려서 두드려서 그 까끄라기 없게 다 두드리려고 하면 아주 매우 오래 걸려, 매우 오래 걸려.)

103013 @ 그믄 보리로 또 밥도 헤 먹고, 또 무신거 헤 먹습니까?(그러면 보리로 또 밥도 해 먹고, 또 무엇 해 먹습니까?)

103013 # 밥헤 먹고게 밥이나벳긔 밥만 헤먹주.(밥해 먹고 밥이나밖에 밥만 해먹지.)

103013 @ 개역도 헤 먹지?(미숫가루도 해 먹지?)

103013 # 개역 보끈 거.(미숫가루 볶은 거.)

103013 @ 개역 헤 먹지예? 보리로.(미숫가루 해서 먹지요?)

103013 # 개역도 다 알암신게.(미숫가루도 다 알고 있네.)

103013 @ 다 알주마씸게.(다 알지요.)

103013 # 경허난게.(그러니까.)

103013 @ 나이가. 근디 어떵 옛날에 어떵 헤난지 모르주.(나이가. 그런데 어떻게 옛날에 어떻게 했었는지 모르지.)

103013 # 어떵 헤나멍 말멍 지금 곧는 게 그거라.(어떻게 하면서 말면서 지금 말하는 게 그거야.)

103013 @ 개역은 나야 간식으로 먹엇주마는 할무니넨 그게 밥 아니?(미숫가루는 나야 간식으로 먹었지마는 할머니넨 그게 밥 아니?)

103013 # 밥으로 먹고 것도 부자칩이나 강 보민 개역헤 놩 거 밥으로 먹질 안허고 그건 간식으로 먹어. 누게 여름에 막 더운 일 허다근에, 요샌 냉장고나 잇주, 냉장고 엇어도 시원허게시리 개역 흔 사발 요거 먹어보라 허는 게 그게 인서, 그거지. 때로 먹으민 때로 먹주. 경 요새추룩 간식이 어디 서?(밥으로 먹고 그것도 부잣집이나 가서 보면 미숫가루해 놔서 그거 밥으로 먹질 않고 그건 간식으로 먹어. 누구 여름에 막 더운 일 하다가, 요샌 냉장고나 있지, 냉장고 없어도 시원하게끔 미숫가루 한 사발 요거 먹어봐라 하는 게 그게 인사, 그거지. 때로 먹으면 때로 먹지. 그렇게 요새처럼 간식이 어디 있어?)

103013 @ 게난예.(그러니까요.)

103013 # 땟밥도 제대로 배불게 못 먹엉 다닐 때난.(끼니도 제대로 배부르게 못 먹어서 다닐 때니까.)

103013 @ 게난 보리로는 떡은 안 허여?(그러니까 보리로는 떡은 안 해?)

103013 # 떡헤도이 엿날 보리론 떡 못 헤여.(떡해도 옛날 보리론 떡 못 해.)

103013 @ 떡은 못 헤여?(떡은 못 해?)

103013 # 그 줄보리 난 후제는이, 줄보리 난 후제는 그거 골앙 등개떡[46], 등개떡허멍.(그 늘보리 난 후에는, 늘보리 난 후에는 그거 갈아서 '등개떡', '등개떡' 하면서.)

103013 @ 등개떡? 건 어떤 거꽈?('등개떡'? 그건 어떤 겁니까?)

103013 # 등개떡이엔 허멍 그거 작작 밀어근에 인절미 ᄀᆞ튼 거 삭삭 베엉 솟디서 확 솖앙 보리 개역에 싹 무쳐, 보리 개역 무쳐.('등개떡'이라고 하면서 그거 작작 밀어서 인절미 같은 거 삭삭 베어서 솥에서 확 삶아서 보리 미숫가루에 싹 묻혀, 보리 미숫가루 묻혀.)

103013 @ 거난, 쌀도 보리도 만들고 떡도 만들고.(그러니까, 쌀도 보리도 만들고 떡도 만들고.)

103013 # 보릿ᄀᆞ루 골아.(보릿가루 갈아.)

103013 @ 보리 개역?(보리 미숫가루?)

103013 # 무치는 건 보리 보까근에 근 거, 개역.(묻히는 건 보리 볶아서 간 거, 미숫가루.)

103013 @ 그게 등개떡?(그게 '등개떡'?)

103013 # 응, 등개떡.(응, '등개떡'.)

103013 @ 응. 그게 등개떡.(응. 그게 '등개떡'.)

103013 # 경 등개떡 헤근에 솖아근에 내어놔근에 그자 보리 개역 삭삭하게 미치민 그것이 경 요샌 등개떡헤 먹으렌 허민 먹지도 안헤.(그렇게 '등개떡' 해서 삶아서 내어놔서 그저 보리 미숫가루 삭삭하게 묻히면 그것이 그렇게 요샌 '등개떡'해서 먹으라고 하면 먹지도 않아.)

103013 @ 보지도 안헤낫수다.(보지도 않았었습니다.)

103013 # 보도 안허고 헤놔도 먹지도 안헤, 요즘 그런 거 헤놔도 아이덜 헤놓민 밥

46) '등개떡'은 보릿가루로 반죽해서 삶아내어 보리 미숫가루를 고물로 무친 떡이다.

도 헤놔근에 엿날 보리밥 먹당 보리밥, 조팝 헤먹당 쏠밥이나 쏠밥 먹어가난 세 살 난 애기가 그걸 안 보난 그 우리 엿날 헤 먹어난 걸 안 보난 좁쏠 놓고 보리쏠 놓고 밥을 허난 영 밥 뷔리단 숟구락으로 영영 이거 뭔 밥이냐? 엄마 이거 뭔 밥, 뭔 밥? 혼 번 별미로 또 보리쏠에 좁쏠에 서껀 밥을 허젠 허난 애기는 잇단 밥 먹으렌 숟구락 주난 영 뷔려봥 거멍허지, 숟구락을 영영 케우리멍[47] 엄마 이거 뭔 밥? 이거 뭔 밥? 허멍 숟구락으로 영영 케우려 부는 거라, 아이고.(보지도 않고 해놔도 먹지도 않아, 요즘 그런 거 해놔도 아이들 해놓으면 밥도 해놔서 옛날 보리밥 먹다가 보리밥, 조밥 해먹다가 쌀밥이나 쌀밥 먹어가니까 세 살 난 아기가 그걸 안 보니까 그 우리 옛날 해 먹었던 걸 안 보니까 좁쌀 놓고 보리쌀 놓고 밥을 하니까 이렇게 밥 보다가 숟가락으로 이렇게 이렇게 이거 뭔 밥이냐? 엄마 이거 무슨 밥, 무슨 밥? 한 번 별미로 또 보리쌀에 좁쌀에 섞어서 밥을 하려고 하니까 아기는 있다가 밥 먹으라고 숟가락 주니까 이렇게 보고 거멓지, 숟가락을 이렇게 이렇게 '케우리'면서 엄마 이거 뭔 밥? 이거 뭔 밥? 하면서 숟가락으로 이렇게 이렇게 '케우려' 버리는 거야, 아이고.)

103014 @ 게민 보리는 보리낭도 놔뒁당 쓰고.(그러면 보리는 보릿대도 놔뒀다가 쓰고.)

103014 # 쓰고.(쓰고.)

103014 @ 보리도 놔뒁당 쓰잖아예?(보리도 놔뒀다가 쓰잖아요?)

103014 # 보리 나문 보리낭 헤놧당 통시에 담앙 놧당 걸로 걸름허는 게 나 곧잖아.(보리 줄기는 보릿대 해놨다가 돼지우리에 담아서 놨다가 그걸로 거름하는 게 나 말하잖아.)

103014 @예, 아까 또?(예, 아까 또?)

103014 # 통시에 담앙 갯フ듸 강 듬북 ᄀ튼 거 헤다 놓민 지둘르멍 그걸로 걸름을.(돼지우리에 담아서 갯가에 가서 듬북 같은 거 해다 놓으면 지지르면서 그걸로 거름을.)

103014 @ 걸름헐 때 쓰고 또 아까 또 마당에도 꼴고?(거름할 때 쓰고 또 아까 또 마당에도 깔고?)

103014 # 마당에도 꼴고.(마당에도 깔고.)

103014 @ 또 뭐헐 때 씁니까? 보리낭은?(또 뭐할 때 씁니까? 보릿대는?)

103014 # 보리낭 그거뿐이지, 뭐 뭐 뭐허멍 쓰나? 마당에도 꼴아근에 땅 곳게 말앙 마당에 꼴아주는 거. 또 통시드레 담아놔근에 그거 헤다놩 걸름허는 거, 그거 두 가지야.(보릿대 그거뿐이지, 뭐 뭐 뭐하면서 쓰니? 마당에도 깔아서 땅 얼게 하지 않고 마당에 깔아주는 거. 또 돼지우리에 담아놔서 그거 해다 놔서 거름하는 거, 그거 두 가지야.)

103014 @ 거뿐?(그거뿐?)

103014 # 응.(응.)

103014 @ 불은 안 솜아, 보리낭은?(불은 안 때, 보릿대는?)

103014 # 불도 솜지. 불도 솜지마는 이 걸름 모둡젠 허면은.(불도 때지. 불도 때지마

47) '케우리다'는 원래 '고수레하다'인데 여기서는 밥을 헤집어 흩어지게 한다는 뜻이다

는 이 거름 모으려고 하면은.)

103014 @ 거기에 더 많이 써예?(거기에 더 많이 써요?)

103014 # 그것이 이 다른 푸십새 헤다 놓민이 재기 썩지를 못헤이, 그거는.(그것이 이 다른 '푸십새' 해다 놓으면 재게 썩지를 못해, 그거는.)

103014 @ 아.(아.)

103014 # 이 보리남만이 재기 썩지를 못헤, 삭지를 안허여.(이 보릿대만큼 재게 썩지를 못해, 삭지를 않아.)

103014 @ 경허난.(그러니까.)

103014 # 보리남은 놔근에 저디 강 바당에 가근에 듬북 져다 놓민 재기 삭아이. 삭고 이 드르에 강 풀 비어당 놓민 삭지를 안허여. 고사리 ᄀᆞ튼 건 삭아이. 고사리는 삭주마는 고사리 아닌 풀은 삭지를 안허는 따문, 경허는 거야.(보릿대는 놔서 저기 가서 바다에 가서 듬북 져다 놓으면 재게 삭아. 삭고 이 들에 가서 풀 베어다 놓으면 삭지 않아. 고사리 같은 건 삭아. 고사리는 삭지마는 고사리 아닌 풀은 삭지를 않는 때문, 그러는 거야.)

103014 @ 그믄 보리 홀타난 거예, 불리고 남은 그거 무신거?(그러면 보리 홅았던 거요, 까부르고 남은 그거 무엇?)

103014 # 그건 ᄀᆞ스락.(그건 까끄라기.)

103014 @ ᄀᆞ스락은 무신거 헤?(까끄라기는 무엇 해?)

103014 # ᄀᆞ스락은 엿날에 이런 방 때민 굴묵이엔 헌 거 잇잖아이. 영 어디 그거.(까끄라기는 옛날에 이런 방 때면 '굴묵'이라고 한 거 있잖아. 이렇게 어디 그거.)

103014 @ 굴묵 지드는 거?('굴묵' 때는 거?)

103014 # 굴묵 지드는 거.('굴묵' 때는 거.)

103014 @ 그걸로 ᄀᆞ시락 모아놧당?(그걸로 까끄라기 모아놨다가?)

103014 # ᄀᆞ시락 모아놧당 그거.(까끄라기 모아놨다가 그거.)

103014 @ ᄀᆞ시락은 뭐에 어디 모아 놔둬? 어디 담아?(까끄라기는 뭐에 어디 모아 놔둬? 어디 담아?)

103014 # 아니, 그건 담지 안헤여. 그거는 나무 저 그차당 저 둥글락허게시리 박아이.(아니, 그건 담지 않아. 그거는 나무 저 잘라다가 저 둥글게끔 박아.)

103014 @ 예.(예.)

103014 # 박앙 이젠 새로 영 줄 비는 거라.(박아서 이젠 띠로 이렇게 줄 꼬는 거야.)

103014 @ 응.(응.)

103014 # 줄 비영 이제 얽는 거라, 얽는 거, 얽어.(줄 꼬아서 이제 얽는 거야, 얽는 거, 얽어.)

103014 @ 아.(아.)

103014 # 이추룩 세와낭이 요축 세왕 뱅뱅 얽어, 얽어, 얽어 놓민 그 안터레.(이렇게 세워놔서 요렇게 세워서 뱅뱅 얽어, 얽어, 얽어 놓으면 그 안으로.)

103014 @ ᄀᆞ스락 담아 놔?(까끄라기 담아 놔?)

103014 # ᄀᆞ스락 담앙 영 옆디레 보리 남뎅이 세와근에 놀아나지 못허게 영 세와가멍 그 안터레 ᄀᆞ스락 담아 놔.(까끄라기 담아서 이렇게 옆으로 보리 나무 세워서 날아가지 못하게 이렇게 세워가면서 그 안으로 까끄라기 담아 놔.)

103014 @ 그건 일름이 뭐꽈?(그건 이름이 뭡니까?)

103014 # 그거 이름 무신거, ᄀᆞ스락이민 ᄀᆞ스락.(그거 이름 무엇, 까끄라기면 까끄라기.)

103014 @ ᄀᆞ스락 통 이런 건 엇어?(까끄라기 통 이런 건 없어?)

103014 # 그런 건 엇어.(그런 건 없어.)

103014 @ 무신거에 담으라, ᄀᆞ시락. 영 안허여?(무엇에 담아라, 까끄라기. 이렇게 안 해?)

103014 # 안 허여, 저레 저 거시기 통 멘들앙은에 ᄀᆞ시락 담아 놓라 영허주. 저 통 멘드락 ᄀᆞ스락 담아 놓라.(안 해, 저리 저 거시기 통 만들어서 까끄라기 담아 놔라 이렇게 하지. 저 통 만들어서 까끄라기 담아 놔라.)

103014 @ 통은 어디다 멘들어 놔?(통은 어디다 만들어 놔?)

103014 # 그자 영 남은 아무 구석이나 담구석이라도 ᄒᆞ쏠 영 트멍 난 드레 영헌 거 남 허당 딱딱 세와근에 줄로 영 얽어놔근에 옆드레 또 영 보리찝 세우멍.(그저 이렇게 나무는 아무 구석에나 담구석이라도 조금 이렇게 틈 난 데로 이렇게 한 거 나무 해다가 딱딱 세워서 줄로 이렇게 얽어놔서 옆으로 또 이렇게 보릿대 세우면서.)

103014 @ 예.(예.)

103014 # 세우멍 ᄀᆞ스락 ᄃᆞᆯ아나지 못허게 세우멍 그레 담아놩 ᄂᆞ람지헹 영 우로 더펑.(세우면서 까끄라기 달아나지 못하게 세우면서 그리 담아놔서 이엉해서 이렇게 위로 덮어서.)

103014 @ 위에 더껑?(위에 덮어서?)

103014 @ 더펏당 옆으로 강 빼멍덜 불살롓주.(덮었다가 옆으로 가서 빼면서들 불살랐지.)

103014 @ 그믄 아까 보리 ᄆᆞᆯᄀᆞ레에 강 ᄀᆞᆯ아난 그 껍데기는?(그러면 아까 보리 연자매에 가서 갈았던 그 껍데기는?)

103014 # 그건 도야지 주고.(그건 돼지 주고.)

103014 @ 그건 일름 뭐라?(그건 이름 뭐야?)

103014 # 그건 보리체.(그건 보릿겨.)

103014 @ 보리체.(보릿겨.)

103014 # 응, 도야지 주는 거, 보리체 도야지 주는 거.(응, 돼지 주는 거, 보릿겨 돼지 주는 거.)

103014 @ 버리는 게 하나도 없구나, 다 써.(버리는 게 하나도 없구나, 다 써.)

103014 # 엇어.(없어.)

103014 @ 다 쓸 때가 잇어예.(다 쓸 때가 있어요.)

103014 # 다 써이, 보리 남뎅이는 통시에 담아놧당 쎅영 걸름허고 보리ᄀᆞ스락은 영

헌 어디 구석에 강 영 뱅허게 동글랑허게시리 만들앙 담아놧당 굴묵 살르고 보리쏠 내난 껍데기는 뒈야지 주고.(다 써, 보리 나무는 통시에 담아놨다가 썩혀서 거름하고 보리까끄라기는 이런 어디 구석에 가서 이렇게 뱅하게 동그랗게끔 만들어서 담아놨다가 '굴묵' 사르고 보리쌀 냈던 껍데기는 돼지 주고.)

103014 @ 보리체예, 아까예.(보릿겨요, 아까요.)

103014 # 응, 보리체.(응, 보릿겨.)

103013 @ 어제 얘기할 때 보리체하고 물ᄀᆞ레나 정ᄀᆞ레 골아난 보릿가루 그거 무신 거옌 골안게마는.(어제 얘기할 때 보릿겨하고 연자매나 풀맷돌 갈았던 보릿가루 그거 무엇이라고 말하던데마는.)

103013 # 그건 그냥 보릿ᄀᆞ루엔 골아, 보릿ᄀᆞ루.(그건 그냥 보릿가루라고 말해, 보릿가루.)

103013 @ 보릿ᄀᆞ루엔 골아? 보릿ᄀᆞ루는 그걸로 뭐헹 먹어?(보릿가루라고 말해? 보릿가루는 그걸로 뭐해서 먹어?)

103013 # 그건 그걸로이 엇인 때난 그거 잘, 궂영 못 먹나. 범벅, 고구마 놓고 헤근에 범벅, 범벅.(그건 그걸로 없는 때니까 그거 잘, 궂어서 못 먹어. 범벅, 고구마 놓고 해서 범벅, 범벅.)

103013 @ 아, 그 보리ᄀᆞ루를?(아, 그 보릿가루를?)

103013 # 응, ᄀᆞ루를 막 또 좀진체를 쳐. 좀진체로 쳐낭 껍데기는 뒈지 주고. 내불 거 엇어. 뒈지 주고. ᄀᆞ루는 허민 고구마에 놩 범벅도 헹 먹고, 뭇 솖은 거 잇잖아이, 뭇.(응, 가루를 아주 또 가는체를 쳐. 가는체로 쳐놓고 껍데기는 돼지 주고. 내버릴 거 없어. 돼지 주고. 가루는 하면 고구마에 놔서 범벅도 해서 먹고, 무릇 삶은 거 있잖아, 무릇.)

103013 @ 뭇, 뭇.(무릇, 무릇.)

103013 # 이젠 뭇 엇어, 엿날 드르에 뭇 줏어당 솖앙 그것에서 또 버무령 범벅헹 먹어. 우리 굶을 때난 경헹 먹엉 살앗어. 범벅을 헤 먹엉 그런 거 헤 먹고 내불 거 벨로 엇어.(이젠 무릇 없어, 옛날 들에 무릇 주워다가 삶아서 그것에서 또 버무려서 범벅해서 먹어. 우리 굶을 때니까 그렇게 해서 먹어서 살았어. 범벅을 해 먹어서 그런 거 해 먹고 내버릴 거 별로 없어.)

103014 @ 보린 다 써예.(보린 다 써요.)

103014 # 다 쓸모 잇어, 아무것도 쓸모 잇어, 조도 불려 나민 조칩은 쉐 주고 쏠 내낭 쏠 껍데긴 뒈야지 주고, 쏠은 우리가 먹고.(다 쓸모 있어, 아무것도 쓸모 있어, 조도 까부르고 나면 조짚은 소 주고 쌀 내어놓고 쌀 껍데긴 돼지 주고, 쌀은 우리가 먹고.)

103015 @ 게민 보리, 보리농사 지으면서 기억에 남는 일이나 옛날에 헤난 거 중에 보리 헐 때 힘들어난 거, 이런 거 생각나는 거 엇수과?(그러면 보리, 보리농사 지으면서 기억에 남는 일이나 옛날에 했던 것 중에 보리 할 때 힘들었던 거, 이런 거 생각나는 거 없습니까?)

103015 # 힘드는 거, 보리 갈 때. 우리 어릴 때, 보리 갈 땐 아까 말헷지, 이 걸름

내고.(힘든 거, 보리 갈 때. 우리 어릴 때, 보리 갈 땐 아까 말했지, 이 거름 내고.)

103015 @ 그게 제일 힘들어?(그게 제일 힘들어?)

103015 # 젤 힘들어. 걸름 내엉 이녁신디 소도 물도 엇이민 놈이 쉐 가근에 빌어와사 그 걸름을 막 불려. 이 집 짓엉 흑질허는 거 봐신가?(젤 힘들어. 거름 내어서 자기에게도 소도 말도 없으면 남이 소 가서 빌려와야 그 거름을 막 밟아. 이 집 지어서 흙질하는 거 봤었나?)

103015 @ 예, 예.(예, 예.)

103015 # ᄆᆞ쉬 헤다근에 흑 다리는 거, 똑 그 넉시[48]라, 그 흑 불르는 거 봣지, ᄆᆞ쉬덜 헤당 그 넉시라, 걸름 불르는 것도이.(마소 해다가 흙 다지는 거, 꼭 그 모양이야, 그 흙 밟는 거 봤지. 마소들 해다가 그 모양이야, 거름 밟는 것도.)

103015 @ 걸름허는 것도예?(거름하는 것도요?)

103015 # 응, 걸름 불리는 것도 그와 똑 마찬가지, 틀리지 아녀. 걸름 막 내놩 그걸로 헹 불라가민 씨 뿌령 또 불르고, 씨 뿌령 또 불르고 헤놩 끈짝끈작 불라지민 뒈싸놔, 쉐스랑으로 뒈싸놩.(응, 거름 밟는 것도 그와 꼭 마찬가지, 다르지 않아. 거름 막 내놔서 그걸로 해서 밟아가면 씨 뿌려서 또 밟고, 씨 뿌려서 또 밟고 해놔서 끈적끈적 밟아가면 뒤집어놔, 쇠스랑으로 뒤집어놔.)

103015 @ 그게 너무 힘들엇지예?(그게 너무 힘들었지요?)

103015 # 응, 또 뒈싸놩 또 소로 불랑 허민 우리 떡 달룬 거 모냥으로 끈작끈작허거든. 씨가 안 돌아나게. 끈작끈작허민 그땐 이제 그걸 다 모다놔, 혼밧듸로 수랑허게 모다놧당 그 멩탱이 그 엿날 돗걸름착[49], 돗걸름착허멍 멩탱이가 졸망졸망허게 줄아이. 게민 그거 빌어다근에 바레기[50] 이신 사름은 바레기로 시꺼가고 소 잇는 사름은 소로 시꺼. 우린 소 물도 엇이난 등때기로 지어, 지엉 밧듸 지어다 놓멍 보리 간 거라, 그게 젤 힘들언.(응, 또 뒤집어놔서 또 소로 밟아서 하면 우리 떡 이기는 거 모양으로 끈적끈적하거든. 씨가 안 달아나게. 끈적끈적하면 그땐 이제 그걸 다 모아놔, 한군데로 길쭉하게 모아놨다가 그 멱서리 그 옛날 '돗걸름착', '돗걸름착'하면서 멱서리가 졸망졸망하게 짜. 그러면 그거 빌려다가 달구지로 실어가고 소 있는 사람은 소로 실어. 우린 소 말도 없으니까 등으로 져, 져서 밭에 져다 놓으면서 보리 간 거야, 그게 젤 힘들었어.)

103015 @ 젤 힘들언. 아까 바레긴 무신거?(젤 힘들었어. 아까 '바레기'는 뭐?)

103015 # 물 바레기라고 지금 거 실 건디 텔레비에 나오는디.(말 '바레기'라고 지금 그거 있을 건데 텔레비전에 나오는데.)

103015 @ 구르마?(달구지?)

103015 # 구르마.(달구지.)

103015 @ 아, 바레기가 구르마, 구르마.(아, '바레기'가 달구지, 달구지.)

103015 # 일본말이라 바레긴.(일본말이야 '바레기'는.)

103014 @ 아.(아.)

---

48) '넉시'는 '~하는 모양, 모습, 격' 등의 뜻을 나타낸다.

49) '돗걸름착'은 돼지거름을 담아서 나르는 멱서리를 말한다.

50) '바레기'는 소나 말이 끄는 달구지를 말한다.

103014 # 구르마는 우리 한국말이고 바레기는 일본말이라.(‘구르마’는 우리 한국말이고 ‘바레기’는 일본말이야.)

103014 @ 기구나.(그렇구나.)

103014 # 이거 일본서 바레기, 바레기 헤나난 우리가 바레기. 그 일본시대에 살아나부난, 그 소리가 나온 거주, 구르마.(이거 일본서 ‘바레기, 바레기’ 해서 우리가 ‘바레기’. 그 일본시대 살아 버리니까, 그 소리가 나온 거지, ‘구르마’.)

103015 @ 할무니 그리고 아까 보리, 발로 볼라주젠 허민 정에 산덴 헤수게?(할머니 그리고 아까 보리, 발로 밟아주려고 하면 ‘정에’ 산다고 했잖습니까?)

103015 # 응, 정에 사.(응, 성에 서.)

103015 @ 정에는 얼음처럼 뒈는 거?(성에는 얼음처럼 되는 거?)

103015 # 얼음처럼 땅이 비 오라난 땐 바싹 밤이 추우민 얼음ᄀᆞ치 과짝허게 사메.(얼음처럼 땅이, 비 왔을 땐 바싹 밤에 추우면 얼음처럼 곧추 서.)

103015 @ 성에를 얘기하는 거구나.(성에를 얘기하는 거구나.)

103015 # 과짝허게 사면 그것이 벳 나가믄 그것이 질질질 녹아이. 녹으민 흑이 찐득찐득 띠어졍.(곧추 서면 그것이 볕 나가면 그것이 질질질 녹아. 녹으면 흙이 진득진득 떼어져서.)

103015 @ 그리고 할무니 보리 저 무끈 거 ᄒᆞᆫ 뭇, 두 뭇 헙니께?(그리고 할머니 보리 저 묶은 거 한 뭇, 두 뭇 하잖아요?)

103015 # ᄒᆞᆫ 뭇, 두 뭇.(한 뭇, 두 뭇.)

103015 @ 그거를 쉐에 시꺼근에 허민 ᄒᆞᆫ밧듸 허민 멧 뭇이 ᄒᆞᆫ 바리꽈?(그거를 소에 실어서 하면 한군데 하면 몇 뭇이 한 바리입니까?)

103015 # 보리는 스무 단이 ᄒᆞᆫ 바리라이.(보리는 스무 단이 한 바리야.)

103015 @ 스무 단이 ᄒᆞᆫ 바리?(스무 단이 한 바리.)

103015 # 응, 조는 여섯 단이 ᄒᆞᆫ 바리고.(응, 조는 여섯 단이 한 바리고.)

103015 @ 조는 여섯 단이 ᄒᆞᆫ 바리고.(조는 여섯 단이 한 바리고.)

103015 # 여섯 단이 ᄒᆞᆫ 바리고.(여섯 단이 한 바리고.)

103015 @ 그믄, ᄒᆞᆫ 바리는 쉐가 ᄒᆞᆫ 번 시끄는 게 ᄒᆞᆫ 바리지예? 이쪽에 열 개, 이쪽에 열 개, 그게 ᄒᆞᆫ 바리?(그러면, 한 바리는 소가 한 번 싣는 게 한 바리지요? 이쪽에 열 개, 이쪽에 열 개, 그게 한 바리?)

103015 # 그게 ᄒᆞᆫ 바리. 조는 쉐에 시끄면 요짝에 석 단, 요짝에 석 단, 그게 ᄒᆞᆫ 바리.(그게 한 바리. 조는 소에 실으면 요쪽에 석 단, 요쪽에 석 단, 그게 한 바리.)

103015 @ 그것벳긔 못 시꺼?(그것밖에 못 실어?)

103015 # 응, 그거벳긔 못 시꺼. 그거 ᄒᆞᆫ 바리라, 촐은 서른 단 시끄고.(응, 그거밖에 못 실어. 그거 한 바리야, 꼴은 서른 단 싣고.)

103015 @ 촐은 서른 단? (꼴은 서른 단?)

103015 # 응, 촐은 서른 단 시꺼. 그게 ᄒᆞᆫ 바리라 촐은 무슨 줄지 안허나, 요만썩 그건 서른 단 시꺼.(응, 꼴은 서른 단 실어. 그게 한 바리야, 꼴은 무슨 잘지 않니, 요만큼

씩 그건 서른 단 실어.)

조농사

103016 @ 이번에는 조 헐 거라예. 보리 다 걷어나민 조 헤사주예?(이번에는 조 할 거예요. 보리 다 걷고 나면 조 해야지요?)

103016 # 응.(응.)

103016 @ 조 허젠 허민 조 미리 준비헤야 뒈는 거 뭐꽈?(조 하려고 하면 조 미리 준비해야 되는 거 뭡니까?)

103016 # 좁씨는 얼마 안 들어, 미릿 준비허는 건 씨벳긔 안 들어. 미릇 준비헷당 밧 갈아근에게 요즘은 경 불리지 안헷주. 이 ᄆᆞ쉬덜이 ᄆᆞᆯ 열 개썩, 열다섯 개썩 막 불려. 초불 막 다려놩 그 우터레 또 씨 뿌령 좁씨는 얼마 안 들어, 흔 천 평쯤 허민 흔 뒈쯤 좁씨는 흔 뒈, 막 ᄌᆞᆯ잖아.(좁씨는 얼마 안 들어, 미리 준비하는 건 씨밖에 안 들어. 미리 준비했다가 밭 갈아서 요즘은 그렇게 밟지 않았지. 이 마소들이 말 열 개씩, 열다섯 개씩 막 밟아. 초벌 막 다져놔서 그 위에 또 씨 뿌려서 좁씨는 얼마 안 들어, 한 천 평쯤 하면 한 되쯤 좁씨는 한 되, 아주 잘잖아.)

103016 @ 맞아.(맞아.)

103016 # 흔 뒈쯤 허민 천 평 뿌리당도 남아. 경허민 그거 뿌려근에 허민 그거 뿌령 또 그걸 막 ᄆᆞ쉬로 다려. 이젠 안 다령 영 끗음만 헤도 뒈는 걸 어리석게끔 헷지이.(한 되쯤 하면 천 평 뿌리다가도 남아. 그러면 그거 뿌려서 하면 그거 뿌려서 또 그걸 막 마소로 다져. 이젠 안 다져서 이렇게 끌기만 해도 되는 걸 어리석게끔 했지.)

103018 @ 옛날 땅이 안 좋아나난 경헌 거 아니?(옛날 땅이 안 좋아서 그런 거 아니?)

103018 # 어떵사 헤신디 경허난 그 ᄆᆞ쉴 ᄆᆞᆯ젠 허민 앞이 딱 ᄆᆞ쉬덜이 다 알아, 앞에 사름 ᄒᆞ나 딱 사민 그 사름 영 담 엠에 강 영 돌아오라 가민 ᄆᆞᆯ도 ᄀᆞ치 돌아 사름광. 겨민 또고냥에 둘리가 사, ᄆᆞᆯ 열 개가 허면 또고냥에 들어사 옆에 어러러러 소리가 ᄆᆞᆯ 모는 소리, 어러러러 영 헤 가민 쑥허게 앞에 산 사름 조름에 쭉 가메. 이끄지 안헤도 가메. ᄆᆞᆯ이 욜로 흔 사름 사고 욜로 흔 사름 어러러허민 기자 일로 앞으로 가근에 영 담 엠으로 강 돌아가민 똑 두 사름 조름에 다 돌아, 이거 말 모른 중생이라도 따라.(어떻게야 했는지 그러니까 그 마소 몰려고 하면 앞에 딱 마소들이 다 알아, 앞에 사람 하나 딱 서면 그 사람 이렇게 담 옆에 가서 이렇게 돌아와 가면 말도 같이 돌아 사람과, 그러면 엉덩이에 둘이 서, 말 열 개가 하면 엉덩이에 들어서서 옆에 '어러러러' 소리가 말 모는 소리, '어러러러' 이렇게 하면 쑥하게 앞에 선 사람 뒤에 쭉 가. 이끌지 않아도 가. 말이 이리로 한 사람 서고 요리로 한사람 '어러러'하면 그저 이리로 앞으로 가서 이렇게 담 옆으로 가서 돌아가면 꼭 두 사람 뒤에 다 돌아, 이거 말 모른 짐승이라도 따라.)

103017 @ 조밧듸도 걸름 허여?(조밭에도 거름 해?)

103017 # 조밧듸도 이젠 비료 뿌리메.(조밭에도 이젠 비료 뿌리지.)

103017 @ 그건 이제고 옛날엔?(그건 이제고 옛날엔?)

103017 # 엿날엔 헐 거 엇어, 비료가 잇나 뭐 얼마 엇어.(옛날엔 할 거 없어, 비료가 있나 뭐 얼마 없어.)

103017 @ 게난예. 조밧엔 걸름 안 헤여예.(그러니까요. 조밭엔 거름 안 해요.)

103019 @ 조는 허젠 허민 멧 월달쯤에 허는 거꽈? 씨 뿌리는 게?(조는 하려고 하면 몇 월쯤에 하는 겁니까? 씨 뿌리는 게?)

103019 # 씨 뿌려근에 허는 거는 유월절, 음력 유월도 뒈고, 오월둘도 뒈고 절기 보멍 허는 거. 절기 들어오는 거 보멍. 유월절이 유월에 들엉은 유월, 유월 초에 조를 불리고 또 오월둘에 들엉은 오월에 허고 경허메. 게난 이 유월, 유월절이 유월달 나야 들주, 오월둘에 들진 안허여, 게도 오월 초에, 그믐에 들 때가 잇어.(씨 뿌려서 하는 거는 유월절, 음력 유월도 되고, 오월도 되고 절기 보면서 하는 거. 절기 들어오는 거 보면서. 유월절이 유월에 들면 유월, 유월 초에 조를 밟고 또 오월에 들면 오월에 하고 그렇게 해. 그러니까 이 유월, 유월절이 유월 나야 들지, 오월에 들진 않아, 그래도 오월 초에, 그믐에 들 때가 있어.)

103019 @ 예.(예.)

103019 # 게믄 오월 그믐에 농서가 다 ᄆᆞ칠 때가 잇어. 유월절 냉기지 안헤.(그러면 오월 그믐에 농사가 다 마칠 때가 있어. 유월절 넘기지 않아.)

103019 @ 유월절은 음력으로 며칠?(유월절은 음력으로 며칠?)

103019 # 음력으로 유월에 들 때 잇고, 오월에 들 때 잇고 헤여, 이거 유월절은 들고나고 허는 때문에 몰라.(음력으로 유월에 들 때 있고, 오월에 들 때 있고 해, 이거 유월절은 들고나고 하기 때문에 몰라.)

103019 @ 게민, 유월절 뒈민 준비허는 거?(그러면, 유월절 되면 준비하는 거?)

103019 # 오월둘에.(오월에.)

103019 @ 오월달에 보리헹 유월달 들민 그때 조 뿌리는 거? 좁씨?(오월에 보리해서 유월 들면 그때 조 뿌리는 거? 좁씨?)

103019 # 이 철에 따라서 보리 ᄀᆞ슬도 오월둘에 헐 때 잇고 또 철이 일르면은 이건 양력으로 세지 못헤, 음력으로 벳긔 응, 게난 음력으로 철이 일르면은 ᄉᆞ월 그물어가민 보리가 ᄀᆞ슬이 거저 뒈고 늦으면은 또 오월둘에 보리가 헤여이. 보리 ᄀᆞ슬헤뒁 진작에 허민 영 봉 유월절이 유월둘에 들 때가 잇고 오월둘에 들 때가 잇어. 게민 오월둘 들 때는 ᄉᆞ월둘에 보리 ᄀᆞ슬이 드는 거라이. 겨민, ᄉᆞ월달에 헤뒁 오월둘 나민 농서를 다 헤. 또 유월둘에 유월절이 들게 뒈민 보리 ᄀᆞ슬이 늦어지는 거라. 오월둘 나는 거라이, 게민 오월둘에 보리 ᄀᆞ슬 헤뒁 유월에 농서를 다허는 거.(이 철에 따라서 보리 장만도 오월에 할 때 있고 또 철이 이르면 이건 양력으로 하지 못해, 음력으로밖에 응, 그러니까 음력으로 철이 이르면 사월 저물어 가면 보리가 장만이 거의 되고 늦으면 또 오월에 보리를 해. 보리 장만해두고 진작에 하면 이렇게 봐서 유월절이 유월에 들 때가 있고 오월에 들 때가 있어. 그러면 오월에 들 때는 사월에 보리 장만이 드는 거야. 그러면,

사월에 해두고 오월 나면 농사를 다해. 또 유월에 유월절이 들게 되면 보리 장만이 늦어지는 거야. 오월 되는 거야, 그러면 오월에 보리 장만 해두고 유월에 농사를 다하는 거.)

103019 @ 거난 일단 조 허젠 허민 그때 보리 헤난 다음에 조 허는 거예?(그러니까 일단 조 하려고 하면 그때 보리 하고 난 다음에 조 하는 거요?)

103019 # 응, 조 불리는 거.(응, 조 밟는 거.)

103019 @ 게민 좁씨는 막 좀진 거난 영 아무나 삐민 흔 군데 막 헤불지 안허여?(그러면 좁씨는 아주 자잘한 거니까 이렇게 아무나 뿌리면 한 군데 막 해버리지 않아?)

103019 # 게난 아무나 못 삐어, 좁씨는. 영 삐는 거 보민 영 그자 영 영 뿌리는 거 아니라 영 심엉 영 둘리면은 이 손이 영허질 안헹 영 돌아가메. 영 좁씨 흔 줌 심엉 영 허민 일로 저만씩 막 뿌려. 경헹 어떤 사름은 좁씨 삘 줄 몰랑 영 영 헤불민 가는 디 무드룩.(그러니까 아무나 못 뿌려, 좁씨는. 이렇게 뿌리는 거 보면 이렇게 그저 이렇게 이렇게 뿌리는 거 아니라 이렇게 쥐어서 이렇게 두르면 이 손이 이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돌아가. 이렇게 좁씨 한 줌 쥐어서 이렇게 하면 이리로 저만큼씩 막 뿌려. 그렇게 해서 어떤 사람은 좁씨 뿌릴 줄 몰라서 이렇게 이렇게 해버리면 가는 데 수두룩.)

103019 @ 게난.(그러니까.)

103019 # 안 가는 딘 안 가고 경헌 따문에 좁씨 삐는 사름은 영 골렁 헤여. 잘 삐는 사름은 흔 줌 심어근에 확 영허민 이 손이 영 돌아가. 기운 내엉 확 뿌리멍 영허민 좁씨가 절로 이레끄장 막 불려오라.(안 가는 덴 안 가고 그런 때문에 좁씨 뿌리는 사람은 이렇게 가려서 해. 잘 뿌리는 사람은 한 줌 쥐어서 확 이렇게 하면 이 손이 이렇게 돌아가. 기운 내서 확 뿌리면서 이렇게 하면 좁씨가 저기에서 여기까지 막 날아와.)

103019 @ 게민 좁씨 ᄒᆞ끔 삐어 도라 헹 누구 사름 빌엉 헤?(그러면 좁씨 조금 뿌려 달라 해서 누구 사람 빌어서 해?)

103019 # 응, 남저들 빌어.(응, 남자들 빌려.)

103019 @ 아.(아.)

103019 # 견디, 우리도 좁씨를 뿌려봥 좁씨를 어떵 뿌립니까 허민 좁씨를 영 심으렌 헤여, 심어근에 나 뿌리는 거 보라이 영헤여, 그 어른들이. 나 뿌리는 거 보라이 영헤근에 기운 내영 확 영 둘르민 나 허듯 헤보라 헹 헤보민 헤지긴 헤, 것도.(그런데, 우리도 좁씨를 뿌려봐서 좁씨를 뿌려봐서 좁씨를 어떵게 뿌립니까 하면 좁씨를 이렇게 쥐라고 해, 쥐어서 나 뿌리는 거 봐라 이렇게 해, 그 어른들이. 나 뿌리는 거 봐라 이렇게 해서 기운 내서 확 이렇게 두르면 나 하듯 해봐라 해서 해보면 하긴 할 수 있어, 그것도.)

103019 @ 어.(어.)

103019 # 이젠 못허주. 젊은 때는 힘이 시난 앗앙 확 영 둘러불민 좁씨가 삭허게 나가. 불끈 심어불민 안뒈고.(이젠 못하지. 젊은 때는 힘이 있으니까 가져서 확 이렇게 휘둘러버리면 좁씨가 싹하게 나가. 불끈 쥐어버리면 안 되고.)

103019 @ 게메.(그러게.)

103019 # 흘레기 좁씨 영, 흘레기 심엉 영허민 그자 요 손거림으로 삭 나가.(헐렁하

게 좁씨 이렇게, 헐렁하게 쥐어서 이렇게 하면 그저 요 손샅으로 싹 나가.)

103019 @ 보통 그 씨 잘 삐는 사름덜은 남자 어른덜이꽈?(보통 그 씨 잘 뿌리는 사람들은 남자 어른들입니까?)

103019 # 남저 어른덜.(남자 어른들.)

103019 @ 여자 어른덜 아니고?(여자 어른들 아니고?)

103019 # 아니, 여저도 삐긴 삐주마는 여저 삐는 건이 어떵 헹 잘 못 삐는 사름들이 잇어, 여저덜은.(아니, 여자도 뿌리긴 뿌리지마는 여자 뿌리는 건 어떻게 해서 잘 못 뿌리는 사람들이 있어, 여자들은.)

103019 @ 힘이 잇어야 뒈는구나예?(힘이 있어야 되는군요?)

103019 # 응, 힘이 잇어사.(응, 힘이 있어야.)

103019 @ 멀리까지예.(멀리까지요.)

103019 # 응, 멀리 삐젠 허민 영 좁씨 영 심엉 이걸 볼끈 심지 안헹 ᄒᆞ쏠 흘레기 심으민 이 고망으로 좁씨가 나오거든, 기운 냉 확 뿌리민. 경허민 일로 저만은 뿌려져.(응, 멀리 뿌리려고 하면 이렇게 좁씨 이렇게 쥐어서 이걸 불끈 쥐지 않고 조금 헐렁하게 쥐면 이 구멍으로 좁씨가 나오거든, 기운 내서 확 뿌리면. 그러면 이리로 저만큼은 뿌려져.)

103019 @ 씨 뿌리는 사름ᄀᆞ라 곧는 말 이수과?(씨 뿌리는 사람보고 하는 말 있습니까?)

103019 # 아니, 엇어.(아니, 없어.)

103019 @ 엇어.(없어.)

103019 # 씨 뿌리는 사름ᄀᆞ라(씨 뿌리는 사람보고.)

103019 @ 뭐 씨와치 그런 말 안헤?(뭐 '씨와치' 그런 말 안 해?)

103019 # 아니.(아니.)

103019 @ 안 헤난예?(안 했었어요?)

103019 # 그런 말은 안 허고 기자 씨앗이렌 헌 건 우리 좁씨고, 보리씨고 아졍 뎅이는 거 씨앗이주, 그런 거.(그런 말은 안 하고 그저 씨앗이라고 한 건 우린 좁씨고, 보리씨고 가져다니는 거 씨앗이지, 그런 거.)

103019 @ 아니, 씨와치.(아니, '씨와치'.)

103019 # 아니.(아니.)

103019 @그런 말 안 써예?(그런 말 안 써요?)

103019 # 씨와치렌 헌 말은 엇어.('씨와치'라고 한 말은 없어.)

103021 @그럼 조밧듸 검질은 어떵 멥니까?(그럼 조밭의 김은 어떻게 맵니까?)

103021 # 검질은 초불 메고.(김은 초벌 매고.)

103021 @ 멧 번이나 메어?(몇 번이나 매?)

103021 # 두 번.(두 번.)

103021 @ 초불은 어떵?(초벌은 어떻게?)

103021 # 초불은이 조가 나근에 요만이만 컹, 요만이만 크민 조가 경 씨 뿌려도 흔

바위 두 개, 세 개 막 좁게 갓주. 검질 탁 영 심으민 요디 조남뎅이 ᄒᆞ나 요디 조남뎅이 놩 영 메비어.(초벌은 조가 나서 요만큼만 커서, 요만큼만 크면 조가 그렇게 씨 뿌려도 한 군데 두 개, 세 개 막 좁게 갔지. 김 탁 이렇게 쥐면 요기 조 줄기 하나 요기 조 줄기 놔서 이렇게 매버려.)

103021 @ 나머진 다 메불어?(나머진 다 매버려?)

103021 # 나머진 다 메여. 경허민 영 좀 좁게 영허민 씨가 즞이민 고고리가 줄아이. 겨민 영 심어근에 검질 확 심엉 박 잡아뎅겨 불민 요디 ᄒᆞ나 요디 ᄒᆞ나 잇어. 경헤 불민 ᄒᆞ나 ᄒᆞ나만 셩 두 개, 세 개 포 세우지만 말민 조고고리가 피어가민 홁어. 고고리가.(나머진 다 매. 그러면 이렇게 좀 좁게 이렇게 하면 씨가 빽빽하면 이삭이 잘아. 그러면 이렇게 잡아서 짐 확 잡아서 박 잡아당겨 버리면 요기 하나 요기 하나 있어. 그렇게 해버리면 하나 하나만 있어서 두 개, 세 개 거듭 세우지만 않으면 조이삭이 피어가면 굵어. 이삭이.)

103021 @ 응.(응.)

103021 # 경 안헹 졸바로 안 멩 아까와근에 요만썩 요만썩 멩 내분 사름은 헤 가민 요만썩벳긔 안 허여.(그렇게 안 해서 제대로 안 매서 아까워서 요만큼씩 요만큼씩 매서 내버린 사람은 해 가면 요만큼씩밖에 안 해.)

103021 @ 아.(아.)

103021 # 견디, 고고리 준 게 왜 하영 안 나느냐 허민 졸레가 하. 졸레엔 헌 거 여물 못 든 거.(그런데, 이삭 잔 게 왜 많이 안 나느냐 하면 쭉정이가 많아. '졸레'라고 한 거 여물 안 든 거.)

103021 @ 아. 졸레가 하.(아, 쭉정이가 많아.)

103021 # 여물 못 든 거ᄀᆞ라 졸레, 졸레엔 허주게. 거난, 고고리가 줄민 그게 하고 이 고고리 영헹 둥그스름허민 고고리가 나민 이만큼씩 줄랑줄랑허여. 겨민 그것엔이 경 졸레가.(여물 안 든 것보고 쭉정이, 쭉정이 하지. 그러니까, 이삭이 잘면 그게 많고 이 이삭 이렇게 해서 둥그스름하면 이삭이 나면 이만큼씩 '줄랑줄랑'해. 그러면 그것에는 그렇게 쭉정이가.)

103021 @ 졸레가 엇어.(쭉정이가 없어.)

103021 # 하지 안허여. 경헌 따문에 검질을 메젠 허민 씨 드물게 세우라, 씨 드물게 세우라.(많지 않아. 그런 때문에 김을 매려고 하면 씨 드물게 세워라, 씨 드물게 세워라.)

103021 @ 드물게 세우라?(드물게 세워라?)

103021 # 응, 드물게 세우라. 포 사게 말라.(응, 드물게 세워라. '포' 서게 말라.)

103021 @ 포 사게 말라? 포 사는 건 뭐?('포' 서게 말라? '포' 서는 건 뭐?)

103021# 포 사는 건 씨 영 두 개 부뜬 거 내부는 거.('포' 서는 건 씨 이렇게 두 개 붙은 거 내버리는 거.)

103021 @ 포 사게 말앙.('포' 서게 말고.)

103021 # 포 지게 말라고, 겨난. 경 검질을 매는 거 그거. 경허민 초불 멜 땐 요만썩

똑 요만이헌 때 강 메여이. 지러기 요만이헌 때 강 메영 딱 흔 십오일만 잇어 가민 조가 요만이 높아가. 어이에 커비어. 십오일만, 검질메영 십오일만, 게민 요만이 헤 가민 또 두불 강 메민 탁 올라사 불민 검질 못 메, 따신. 두불도 부지런히 메사 두불 메주. 경 안허민 두불도 못 메여. 여름 뚯아노난 재기 커불어.(겹치게 말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김을 매는 거 그거, 그러면 초벌 맬 땐 요만큼씩 꼭 요만큼한 때 가서 매. 길이 요만큼한 때 가서 매서 딱 한 십오일만 있어 가면 조가 요만큼 높아가. 어느새 커버려. 십오일만, 김매서 십오일만, 그러면 요만큼 해 가면 또 두벌 가서 매면 탁 올라서 버리면 김 못 매, 다신. 두벌도 부지런히 매야 두벌 매주. 그렇게 안하면 두벌도 못 매. 여름 따뜻해버리니까 재게 커버려.)

103021 @ 금방 커불어.(금방 커버려.)

103021 # 금방, 금방. 게민 두 번만 메민 따신 안 메도 뒈.(금방, 금방. 그러면 두 번만 매면 다신 안 매도 돼.)

103021 @ 조 삐어나근에 비 하영 와불민 어떵헤?(조 뿌려서 비 많이 와버리면 어떻게 해?)

103021 # 비 하영 오랑 끗어온 밧듸는 끗엉 엇이민 조가 요만썩 커가민 그거 메당 또 싱경 그 트멍드레 싱그는 사이 비 하영 온 때 끗어부는 밧이 잇어. 좁씨 끗어 불엉. 게민 조 나민 또 메당 그레 싱거.(비 많이 와서 끌어온 밭에는 끌어서 없으면 조가 요만큼씩 커가면 그거 매어다가 또 심어서 그 틈에 심는 사이 비 많이 온 때 끌어버리는 밭이 있어. 좁씨 끌어 버려서. 그러면 조 나면 또 매다가 그리 심어.)

103021 @ 응.(응.)

103021 # 싱그멍 헤 먹엇어. 싱그지 안허민게 비어부난게 작 끗어불민게 겨난 그 트멍드레 헤당 싱거 또 메멍덜.(심으면서 해 먹었어. 심지 않으면 베어버리니까 쫙 끌어버리면 그러니까 그 틈으로 해다가 심어 또 매면서들.)

103028 @ 막 마갇이 헤산다, 마갇이 헤산다 허던데 마갇이는 뭐?(막 '마갇이' 해야 된다, '마갇이' 해야된다 하던데 '마갇이'는 뭐?)

103028 # 마갇이가 아니고 마걷이[51].('마갇이'가 아니고 '마걷이'.)

103028 @ 아, 그건 무신거?(아, 그건 뭐?)

103028 # 마 걷어갈 때 큰비가 흔번 와, 와당탕 와당탕 베락 천둥허민 요즘 그런 비 엇어. 마걷이 비가 엇어. 옛날엔이 마가 치민 오월 장마엔 헤근에 오월들 나가민 마가 짐 시작허민 똑 흔 둘을 치는 거라, 장마. 게난 옛날 어른덜 곧는 거. 들어이, 나 곧는 말. 미신 저 왁웩이[52]렌 헌 건 안개라이.(마 걷어갈 때 큰비가 한번 와, 와당탕 와당탕 벼락 천둥하면 요즘 그런 비 없어. '마걷이' 비가 없어. 옛날엔 마가 지면 오월 장마라고 해서 오월 나가면 마가 지기 시작하면 꼭 한 달을 지는 거야, 장마. 그러니까 옛날 어른들 말하는 거. 들어, 나 하는 말. 무슨 저 '왁웩이'라고 한건 안개야.)

103028 @ 예.(예.)

---

51) '마걷이'는 장마가 걷힌다는 뜻의 제주어다.

52) '왁웩이'는 캄캄하다의 제주어 '왁왁하다'에서 온 말로 안개가 껴서 아무 것도 안 보이는 날씨를 말한다.

103028 # 그거 일레, 산산이[53]엔 헌 건 ᄀᆞ랑비 준준허게 오는 비, 그거 일레.(그거 이레, '산산이'라고 한 건 가랑비 잔잔하게 오는 비, 그거 이레.)

103028 @ 응.(응.)

103028 # 쒱이쉬[54]엔 헌 건 요새 오는 홁은 비, 큰비 오잖아.('쒱이쉬'라고 한 건 요새 오는 굵은 비, 큰 비 오잖아.)

103028 @ 응.(응.)

103028 # 그것이 일레. 울렁쉬[55]엔 헌 건 바당이 울렁울렁허는 거, 그것이 일레라이.(그것이 이레. '울렁쉬'라고 한 건 바다가 울렁울렁하는 거, 그것이 이레야.)

103028 @ 응.(응.)

103028 # 그거 일레 경허민 일뤠, 일뤠 두 일뤠 허당보민 혼 둘이 뒌다 이거여.(그거 이레 그러면 이레, 이레 두 이레 하다보면 한 달이 된다 이거야.)

103028 @ 응, 맞아.(응, 맞아.)

103028 # 게민 혼 덜 뒈민 마가 걷나 이거라. 마 걷젠 허민 베락 천둥허멍 와당탕 와당탕허멍 비가 온다 이거여.(그러면 한 달 되면 마 걷는다 이거야. 마 걷으려고 하면 벼락 천둥하면서 와당탕 와당탕하면서 비가 온다 이거야.)

103028 @ 응.(응.)

103028 # 경헹 천둥헤 가민 마걷이 천둥헴저, 마걷이 천둥헴저.(그래서 천둥해 가면 '마걷이' 천둥하네, '마걷이' 천둥하네.)

103028 @ 마걷이 천둥헴저?('마걷이' 천둥하네?)

103028 # 엿날 할망덜 게난 야, 왁웩인 뭐꽈 허민 우리 두린 때 왁웩이가 뭐꽈 허민 안개비, 준준헌 비, 비도 아니고 안개만 왁왁 지는 거, 그것이.(옛날 할머니들 그러니까 야, '왁웩이'는 뭡니까 하면 우린 어린 때 '왁웩이'가 뭡니까 하면 안개비, 자잘한 비, 비도 아니고 안개만 캄캄하게 끼는 거, 그것이.)

103028 @ 왁웩이?('왁웩이'?)

103028 # 응, 왁웩이. 또 산산이는 뭐꽈 허민?(응, '왁웩이'. 또 '산산이'는 뭡니까 하면?)

103028 @ 산산이.('산산이'.)

103028 # 준준헌 비.(자잘한 비.)

103028 @ 가랑비.(가랑비.)

103028 # 응, 가랑비ᄀᆞ라 산산이.(응, 가랑비보고 '산산이'.)

103028 @ 응.(응.)

103028 # 쒱이쉬엔 헌 건 홁은 비.('쒱이쉬'라고 한 건 굵은 비.)

103028 @ 홁은 비.(굵은 비.)

103028 # 응, 다락다락[56] 오는 거. 그거 쒱이쉬.(응, '다락다락' 오는 거. 그거 '쒱이

53) '산산이'는 가랑비를 말하는데 산산이 부서지는 빗방울을 묘사한 것 같다.

54) '쒱이쉬'는 빗방울이 굵은 큰비가 내리는 날씨를 말한다. 아마도 비가 내리는 모양나 소리가 쥐가 뛰어다니는 모양이나 소리와 비슷해서 붙여진 이름인 것 같다.

55) '울렁쉬'는 장마철에 습한 바람이 불고 바다의 물결이 울렁울렁 흔들리는 날씨라고 제보자는 설명했다.

쉬'.)

103028 @ 울렁쉬는 천둥?('울렁쉬'는 천둥?)

103028 # 울렁쉬는 바당에서 울렁울렁.('울렁쉬'는 바다에서 울렁울렁.)

103028 @ 아, 바당에서 절이 울렁울렁허는 거?(아, 바다에서 물결이 울렁울렁하는 거?)

103028 # 울렁울렁허는 거, 건들마[57].(울렁울렁하는 거, '건들마'.)

103028 @ ᄇᆞ름 불어근에?(바람 불어서?)

103028 # 응, ᄇᆞ름 불멍 절만 울렁울렁허민 그거 울렁쉬. 또.(응, 바람 불면서 파도만 울렁울렁하면 그거 '울렁쉬', 또.)

103028 @ 이게 다 헤야 마가 걷는 거?(이게 다 해야 장마가 걷히는 거?)

103028 # 응, 또 건들마가 잇어이.(응, 또 '건들마'가 있어.)

103028 @ 그건 뭐꽈?(그건 뭡니까?)

103028 # 건들마엔 헌 건 마ᄇᆞ름 불멍 이 구름이 팔팔팔팔 ᄂᆞ는 거.('건들마'라고 한 건 마파람 불면서 이 구름이 '팔팔팔팔' 나는 거.)

103028 @ 마ᄇᆞ름 불멍?(마파람 불면서?)

103028 # 마ᄇᆞ름 불멍 구름이 팔팔팔팔 ᄂᆞ는 거. 경헤사 마가 다 걷나 이거여.(마파람 불면서 구름이 '팔팔팔팔' 나는 거. 그래야 장마가 다 걷힌다 이거야.)

103028 @ 아.(아.)

103028 # 엿날 어른덜 ᄀᆞᆫ는 게 요거 다섯 가지 헤사.(옛날 어른들 말하는 게 요거 다섯 가지 해야.)

103028 @ 다섯 개 건들마까지 헤야 마가 다 걷는다고?(다섯 개 '건들마'까지 해야 장마가 걷힌다고?)

103028 # 응, 경헤사 마걷이가. 이젠 마 다 걷엇저.(응, 그래야 '마걷이'가. 이젠 장마 다 걷혔다.)

103028 @ 다섯 개 순서대로 다예?(다섯 개 순서대로 다요?)

103028 # 응, 우리도 어린 때 막 이걸 들어봐어, 할머니덜안티. 양[58], 왁웩이가 뭐꽈허민 안개비가 왁웩이지. 안개 팍허게 지는 게 왁웩이라. 게민 양, 게민 산산이는 뭐 허민, 산산이 좀진 비 오는 것이 산산이주게, 영허멍 허주게, 영허멍 또 욕허는 사름은 욕허여. 걸 몰람서 허멍.(응, 우리도 어린 때 막 이걸 물어봤어, 할머니들에게. '양', '왁웩이'가 뭡니까 하면 안개비가 '왁웩이'지. 안개 팍하게 끼는 게 '왁웩이'야. 그러면 '양', 그러면 '산산이'는 뭐 하면, '산산이' 자잘한 비 오는 것이 '산산이'지, 이렇게 하면서 하지. 이렇게 하면서 또 욕하는 사람은 욕 해, 그걸 몰라 하면서.)

103028 @ 몰람덴예.(모른다고요.)

103028 # 경허민 쉥이쉬엔 헌 건 뭐라 허민 홁은 비 오는 거. 게민 울렁쉬는 바당에서 절소리가 울렁울렁나잖아, 경허멍 또 욕듣고 경허당 또 건들마 왐저 허민 건들마

56) '다락다락'은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되는데 여기서는 굵은 빗방울이 마구 떨어지는 모양을 흉내낸 말이다.
57) '건들마'는 장마철에 햇볕은 내리지 않고 어두침침한 가운데 습기 많은 바람이 불어대는 날씨를 말한다.
58) '양'은 상대를 부를 때 사용하는 감탄사다.

가 뭐꽈 허민 에고, 이놈으 새끼덜, 옛날 할망덜 아이고, 이놈으 새끼, 고자 것도 몰라? 영허민 몰르난 들엄수게 영허민, ᄇᆞ름, 마ᄇᆞ름 거칠거칠허멍 구름 팍팍 ᄂᆞ는 것이, 그것이 건들마 아니냐? 거ᄁᆞ장 다 헤나사 이젠 마가 걷엇다 요거 다섯 가지. 옛날 어른덜도 잘 지움은 지왓어이.(그러면 '쉥이쉬'라고 한 건 뭐야 하면 굵은 비 오는 거. 그러면 '울렁쉬'는 바다에서 파도 소리가 울렁울렁 나잖아. 그러면서 또 욕듣고 그러다가 또 '건들마' 온다 하면 '건들마'가 뭡니까 하면 에고, 이놈의 새끼들, 옛날 할머니들 아이고, 이놈의 새끼, 아직 그것도 몰라? 이렇게 하면 모르니까 묻잖습니까, 이렇게 하면, 바람, 마파람 '거칠거칠'하면서 구름 팍팍 나는 것이, 그것이 건들마 아니냐? 그거까지 다 하고 나서야 이젠 장마가 걷힌다 요거 다섯 가지. 옛날 어른들도 잘 짓기는 지었어.)

103028 @ 예, 이름 잘 지왓저.(예, 이름 잘 지었네.)

103028 # 잘 지운 거라이. 겨난 나 막 웃어져.(잘 지은 거야. 그러니까 난 막 웃게 돼.)

103028 @ 진짜.(진짜.)

103028 # 옛날 어른덜도.(옛날 어른들도.)

103028 @ 처음 들으멘, 할무니한티.(처음 들어, 할머니안테.)

103028 # 나도 두린 때는 그걸 막 우습게 생각헷당 ᄀᆞ만히 생각헤보민 이것이.(나도 어린 때는 그걸 아주 우습게 생각했다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것이.)

103028 @ 맞아.(맞아.)

103028 # 맞구나, 엿날 어른덜 하여튼 어둡덴 헤도 공부 안 허고 헤도 머리는 잘 썻어. 나 생각으로만 머리는 잘 썻어이, 경 ᄀᆞᆯ아져, 안허지 안헹.(맞구나, 옛날 어른들 하여튼 어둡다고 해도 공부도 안 하고 해도 머리는 잘 썼어. 내 생각으로만 머리는 잘 썼어, 그렇게 말해, 안하지 않고.)

103023 @ 아까 조 검질 다 멧고 이젠 조 다 익언예. 조 비레 간, 어떵헹 비어사뒈어, 이건?(아까 조 김 다 맸고 이젠 조 다 익었어요. 조 베러 갔어, 어떻게 해서 베어야 돼, 이건?)

103023 # 빔도 보리 비듯이 비어. 이건 틀리지 안헤여. 호미 아졍 강 박박박박 비멍 거믄 기자 코뚱코뚱 놔.(베기도 보리 베듯 베. 이건 다르지 않아. 호미 가져 가서 박박박박 베면서 그러면 그저 나란히 나란히 놔.)

103023 @ 경헹 그디서 홈치 무꺼예? 미신걸로 무꺼 이건?(그래서 거기서 한꺼번에 묶어요? 무엇으로 묶어 이건?)

103023 # 조는 것도 그거라, 조도 흔 줌.(조는 그것도 그거야, 조도 한 줌.)

103023 @ 아, 조남으로?(아, 조짚으로?)

103023 # 조남 확 심어근에 조코고리 뱅허게 돌랑 톡 놔근에 영 걷어치민 흔 단이라이. 게민 무끄는 거 께 ᄯᅮ로 안 허여.(조짚 확 잡아서 조이삭 뱅하게 돌려서 톡 놔서 이렇게 걷어치우면 한 단이야. 그러면 묶는 거, 매끼 따로 안 해.)

103023 @ 께 ᄯᅮ로 안허여?(매끼 따로 안 해?)

103023 # 응 조남뎅이로 무꺼. (응, 조짚으로 묶어.)

103023 @ 베엉 무껑 그다음?(베어서 묶어서 그다음?)

103023 # 조가이 아니 뭰 밧듸 이 동산밧듸나 허민 조코고리가 요만씩헌 밧이 잇어이. 경헌 밧딘 조 빌 나위 엇이민 영 뽑아. 게민 뽑아 놓민 조조코고린 엇고 남뎅이만 팍 퍼지는 거라. 경헌 건 무끌 나위 엇이민 새 비어다근에 께.(조가 안 된 밭에 이 동산 밭이나 하면 조이삭이 요만큼씩한 밭이 있어. 그런 밭엔 조 벨 나위 없으면 이렇게 뽑아. 그러면 뽑아 놓으면 조이삭은 없고 줄기만 팍 퍼지는 거야. 그런 건 묶을 나위 없으면 띠 베어다가 매끼.)

103023 @ 아.(아.)

103023 # 새 비어당 께 틀엉 무꺼, 그거는. 게민 여물도 얼마 안 나, 그건. 이 등체기[59]만 핫주, 고고리도 요만씩혜부난 등체기가. 여물이 엇어.(띠 베어다가 매끼 틀어서 묶어, 그거는. 그러면 여물도 얼마 안 나, 그건. 이 줄기만 많지, 이삭도 요만큼씩해 버리니까 줄기가. 여물이 없어.)

103023 @ 여물이 엇어.(여물이 없어.)

103023 # 그런 거야, 조 좋은 밧듸 기자 탁허게 께 틀엉 그걸로 확허게시리 그냥 무꺼.(그런 거야, 조 좋은 밭에 그저 탁하게 매끼 틀어서 그걸로 확하고 그냥 묶어.)

103023 @ 무껑 밧듸 눌엉 놔둡니까? 집이 시껑 옵니까?(묶어서 밭에 가려서 놔둡니까? 집에 실어 옵니까?)

103023 # 아, ᄆᆞ쉬 엇엉 시꺼오지 못헌 사름은 임시라도 눌어, 비오카부덴.(아, 마소 없어서 실어오지 못한 사람은 임시라도 가려, 비올까봐.)

103023 @ 밧듸서?(밭에서?)

103023 # 응, 밧듸서 눌엉. 임시라도 눌어야 경허당. 요즘은 경 안헤도 엿날엔 짐벵이[60], 짐벵이 허멍이 겨울만 나가민 산으로 비가 자꾸 와, 주젯비[61]가.(응, 밭에서 가려서. 임시라도 가려야 그러다가. 요즘은 그렇게 안 해도 옛날은 진눈깨비, 진눈깨비 하면서 겨울만 나가면 산으로 비가 자꾸 와, '주젯비'가.)

103023 @ 짐벵이?(진눈깨비?)

103023 # 짐벵이라고 허여, 눈비 오는 것이.('짐벵이'라고 해, 눈비 오는 것이.)

103023 @ 아, 짐벵이가 눈비 오는 거, 시월달에?(아, '짐벵이'가 눈비 오는 거, 시월에?)

103023 # 응, 시월ᄃᆞᆯ에. 요즘은 낼모레 시월이라도 그런 거 엇어. 엿날 닮지 안허영. 시월ᄃᆞᆯ만 나가민 눈 부청 눈도 반, 비도 반헤여, 그것이 짐벵이라이. 좌르륵 좌르륵 흔 주제[62] 좌르륵 헤불민 그거 넘어갓당 또 맨도롱허게 벳 낫당 또 산더레 붸리민 또 시커멍헌 구름이 올라와 가민 아이고, 또 짐벵이 ᄂᆞ리켜, 또 ᄒᆞ쏠 시민 눈에 부청 좌르륵 허게 ᄂᆞ리곡 경허여. 비눈, 그게 짐벵이라. 경헌디 요즘은 그런 것이 엇어.(응, 시월에. 요즘은 낼모레 시월이라도 그런 거 없어. 옛날 같지 않아. 시월만 되면 눈 붙여서 눈도

59) '등체기'는 나무 밑동이나 식물의 끝부분을 이르는 말이나 여기서는 줄기의 의미로 쓰였다.
60) '짐벵이'는 안개비를 말하기도 하는데 여기서는 눈과 비가 섞여 내리는 진눈깨비를 뜻한다.
61) '주젯비'는 잠깐 동안 내리는 비를 말한다.
62) '주제'는 비나 바람 따위가 한 번 몰아 지나감을 세는 단위이다.

반, 비도 반 해, 그것이 진눈깨비야. 좌르륵 좌르륵 한 '주제' 좌르륵 해버리면 그거 넘어갔다가 또 따뜻하게 볕 났다가 또 산으로 보면 또 시커먼 구름이 올라와 가면 아이고, 또 진눈깨비 내리겠어, 또 조금 있으면 눈에 붙여서 좌르륵하게 내리고 그렇게 해. 비눈, 그게 진눈깨비야. 그건데 요즘은 그런 것이 없어.)

103023 @ 아, 경헹 조를 다 밧듸다 눌러 놔두는 거?(아, 그렇게 조를 다 밭에다 가려서 놔두는 거?)

103023 # 경허다근에 그 비 ᄒᆞᆫ 주제 와불민 젖으카부덴 데메근에 확허게 ᄂᆞ람지로 둘럿당 시꺼오고 ᄆᆞ쉬 신 사름덜은 그때그때 시꺼와 불고.(그러다가 그 비 한 '주제' 와 버리면 젖을까봐 쟁여서 확하게 이엉으로 둘렀다가 실어오고 마소 있는 사람들은 그때 그때 실어와 버리고.)

103023 @ 아, 시꺼와 불고.(아, 실어와 버리고.)

103023 # ᄆᆞ쉬 엇인 사름덜은 이녁냥으로 강 지어와사 뒐 거난 미처 지어오지 못허민 밧이 멀곡 허민 지어오지 못헷지. 요샌 차도 잇고, 차 이시난 차로 확확 차로 뎅겨불엄주. 엿날엔 걸엉 막 멀리 걸어가근에 이디서 ᄀᆞ뜨민 어디, 어디만이 걸어가코?(마소 없는 사람들은 자기대로 가서 지어와야 될 거니까 미처 져오지 못하면 밭이 멀고 하면 져오지 못했지. 요샌 차도 있고, 차 있으니까 차로 확확 차로 다녀버리지. 옛날엔 걸어서 아주 멀리 걸어가서 여기서 같으면 어디, 어디만큼 걸어갈까?)

103023 @ 서귀포.(서귀포?)

103023 # 아니, 아니. 이디만이 ᄀᆞ트민.(아니, 아니. 여기만 같으면.)

103023 @ 물영아리?(물영아리?)

103023 # 아니, 아니. 물영아리[63]ᄁᆞ장은 안 간다. 농서 짓는 건 요 저 의귀리로 이 알르게 이 해벤 사름은 의귀리로 알르레. 알르레 허고 경헹 허주만은 경헤도 멀어, 지엉 뎅기젠 허민 우리 이 삼리 사름은 멀어사 요 여우내[64]로 이 알르레.(아니, 아니. 물영아리까지는 안 간다. 농사 짓는 건 요 저 의귀리로 이 아래 이 해변 사람은 의귀리로 아래. 아래 하고 그렇게 해서 하지만 그래도 멀어, 져서 다니려고 하면 우리 이 삼리 사람은 멀어야 요 '여우내'로 이 아래.)

103023 @ 여우낸 어디?('여우내'는 어디?)

103023 # 신흥 이리 저 위에. 그디가 여우내, 신흥 이리가.(신흥 이리 저 위에. 거기가 '여우내', 신흥 이리가.)

101010 @ 이디 태흥린 엿날 이름 무신거꽈?(여기 태흥린 옛날 이름 뭡니까?)

101010 # 엿날 이름 이디 옛날 우리 두린 때 ᄀᆞᆫ는 말은 이디ᄀᆞ라 덕둑개[65].(옛날 이름 여기 옛날 우리 어린 때 하는 말은 여기보고 '덕둑개'.)

101010 @ 덕둑개?('덕둑개'.)

101010 # 옛날엔 우리 두린 때 보난 덕둑개, 덕둑개 그다음, 그다음 또 ᄒᆞ썰 우리 역안 보난 이디ᄀᆞ라 산것.(옛날엔 우리 어린 때 보니까 '덕둑개', '덕둑개' 그다음, 그다

63) '물영아리'는 서귀포시 남원읍 수망리에 있는 오름이다.
64) '여우내'는 서귀포시 남원읍 신흥리의 옛이름이다.
65) '덕둑개'는 태흥3리의 지명이다.

음 또 조금 우리 커서 보니까 여기보고 ‘산것’.)

101010 @ 산것?(‘산것’.)

101010 # 산것, 산것 헤낫어. 지금도 바당에 산것 바당이엔 잇어, 저디가. 겨난, 그 바당 이름을 놩 산것. 겐디 이젠 태흥 삼리엔 지왓주마는 이젠 태흥 삼리야, 이디가.(‘산것’, ‘산것’ 했었어. 지금도 바당에 ‘산것’ 바다라고 있어, 저기가. 그러니까. 그 바다 이름을 놔서 ‘산것’. 그런데 이젠 태흥 삼리라고 지었지마는 이젠 태흥 삼리야, 여기가.)

101010 @ 예, 이딘 태흥 삼리예?(예, 여긴 태흥 삼리요?)

101010 # 그디는 산것 그 전이는 덕둑개 무신 검은코지 허멍 헤낫주마는.(거기는 ‘산것’ 그 전에는 ‘덕둑개’ 무슨 ‘검은코지’ 하면서 했었지마는.)

103023 @ 조 집이 졍 오거나 시껑 오민 집이서 이제?(조 집에 져서 오거나 실어서 오면 집에서 이제?)

103023 # 집이 와도 눌어.(집에 와도 가려.)

103023 @ 집이 와도 눌어.(집에 와도 가려.)

103023 # 미처 못허민 보리는 기계놩 영영 홀트지마는.(미처 못하면 보리는 기계 놔서 이렇게 이렇게 홅지마는.)

103023 @ 조는 어떵 허여?(조는 어떻게 해?)

103024 # 조는 이제 베끗듸 앚앙 멍석 펴와, 멍석 펴왕 앚앙 줏어. 고고리만, 고고리만 줏엉 호미 이렇게 불랑 앚앙 고고리만 끄차놔. 영영, 영영 줏어. 심엉 흔 줌 반뜩 요레 고고리만 오게 요레 남뎅이만 오게 헹 호미 요디 놩 짝허게 그차근에 남뎅이 저레 놓고 이레 멩텡이레 담아놔. 경 담아놩 비나 왐직허민 안트레 집안트레 막 데멧당 날 좋민 막 두드려 것도 도께로.(조는 이제 밖에 앉아서 멍석 펴, 멍석 펴서 앉아서 주워. 이삭만, 이삭만 주워서 낫 이렇게 뱝고 앉아서 이삭만 잘라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주워. 잡아서 한 줌 반듯이 요리 고고리만 오게 요리 줄기만 오게 해서 낫 요기 놔서 짝하게 잘라서 줄기 저리 놓고 이리 멱둥구미에 담아놔. 그렇게 담아놔서 비나 올 것 같으면 안으로 집안으로 마구 쟁였다가 날 좋으면 마구 두드려 그것도 도리깨로.)

103024 @ 도께로.(도리깨로.)

103024 # 응, 마당에 놩 두드려 것도. 겨난 마당이 흑땅이라도이 이 곡석 놩 두드려 나민 이 흑이 빤직빤직해, 다려져.(응, 마당에 놔서 두드려도 그것도. 그러니까 마당에 흙땅이라도 이 곡식 놔서 두드리고 나면 이 흙이 반질반질해, 다져져.)

103024 @ 세맨헌 것추룩.(시멘트한 것처럼.)

103024 # 경헤영 허난 그디서 조도 두드려근에 흑 안 들엉 좋아, 더덜더덜헴시민 못 허여. 막 이 봄이나 가을이나 들엉 그 도께로 막 도께질허멍 이 땅을 두드려 놓난 땅이 밴질밴질헤여, 막. 경허난 조 놔근에 땅에서 두드렁 헤도 흑 안 들어가고 보리도 흑 안 들어가고 경허는 거여.(그렇게 해서 하니까 거기서 조도 두드려서 흙 안 들어서 좋아, 울퉁불퉁하면 못 해. 막 이 봄이나 가을이나 들어서 이 도리깨로 막 도리깨질하면서 이 땅을 두드려 놓으니까 땅이 반질반질해, 막. 그러니까 조 놔서 땅에서 두드려서 해도 흙 안 들어가고 보리도 흙 안 들어가고 그렇게 하는 거야.)

103024 @ 조도 도께로 두드려. 마께로도 두르립니까? 조는.(조도 도리깨로 두드려. 방망이로도 두드립니까? 조는.)

103024 # 마께론 그거 허당 보민 할망덜 앚이민 도께질 못허는 할망덜 앚앙 마께질헹 또 독독 멍석에 놩 영 두드리는 거. 쪼끔 젊은 사름덜은 그거 경허젠 안헤여, 도께로 마당 확확 씰어뒁 도께로, 도께로 두드리는 게 쉽고게.(방망이론 그거 하다가 보면 할머니들 앉으면 도리깨질 못하는 할머니들 앉아서 방망이질해서 또 독독 멍석에 놔서 이렇게 두드리는 거. 조금 젊은 사람들은 그거 그렇게 하려고 안 해, 도리깨로 마당 확확 쓸어두고 도리깨로, 도리깨로 두드리는 게 쉽고.)

103024 @ 금방 뒈고예.(금방 되고요.)

103024 # 응, 금방 뒈어, 것도. ᄇᆞ름, ᄇᆞ름 헤영 막 불려. 아이고 미시것도 헤 먹젠허민 또 불려사. 붕뎅이여, 붕뎅이여 허멍 것도 체 나민 엉긴 체 도새기 주고 줌진 거 영 줌진 건 헹 도새기 주고 엉긴 건 쉐 주고. 쉐 줘, 조찝도 쉐 주고.(응, 금방 되어, 그것도. 바람, 바람 해서 막 불려. 아이고 무엇도 해 먹으려고 하면 또 불려야. 쭉정이다, 쭉정이다 하면서 그것도 겨 나면 굵은 겨 돼지 주고 자잘한 거 이렇게 자잘한 건 해서 돼지 주고 굵은 건 소 주고. 소 줘, 조짚도 소 주고.)

103025 @ 게민 좁쌀도 ᄆᆞᆯ방에 강 ᄀᆞᆯ아야 뒈여?(그러면 좁쌀도 연자매 가서 갈아야 돼?)

103025 # 응, ᄆᆞᆯ방에 강 ᄀᆞᆯ아야 헤여.(응, 연자매 가서 갈아야 해.)

103025 @ 이건 물에 컷당 안 허고? (이건 물 담갔다가 안 하고?)

103025 # 아니, 아니. 건 ᄆᆞᆯ른 차 가근에 바싹 ᄆᆞᆯ령 강 그디서 초불 ᄀᆞᆯ앙 저 초불이엔 헌 건 ᄀᆞᆯ아근에 문 체 갈라뒁 또 경헹 두 번차 놩 ᄀᆞᆯ아불민 영 불령보민 생조가 ᄒᆞ나토 엇이 쏠만 나와이. 경 두불 ᄀᆞ는 거라, 이거. 초불 ᄀᆞᆯ아근에 ᄒᆞᆫ 번 ᄀᆞᆯ앙.(아니, 아니. 그건 마른 채 가서 바싹 말려서 가서 거기서 초벌 갈아서 저 초벌이라고 한 건 갈아서 모두 겨 갈라두고 또 그렇게 해서 두 번째 놔서 갈아버리면 이렇게 불려서 보면 생조가 하나도 없이 쌀만 나와. 그렇게 두벌 가는 거야, 이거. 초벌 갈아서 한 번 갈아서.)

103025 @ 불령.(불려서.)

103025 # 불령 체에 불려뒁 게뒁 ᄃᆞ시 두 번 놩 ᄀᆞᆯ민 체 문딱 벗어졍 엇어. 경헹 이젠 하름방여 하름방여 허멍 정미소가 나난 ᄀᆞᆯ아 먹주. 그 엿날엔 돌ᄀᆞ레잇잖아, 저 성읍리. 그것에서 ᄀᆞᆯ앙.(불려서 채에 불려두고 그래두고 다시 두 번 놔서 갈면 겨 모두 벗겨져서 없어. 그래서 이젠 '하름방여', '하름방여' 하면서 정미소가 나니까 갈아 먹지. 그 옛날엔 맷돌 있잖아, 저 성읍리. 그것에서 갈아서.)

103025 @ ᄆᆞᆯᄀᆞ레 아니?(연자매 아니?)

103025 # 그거 ᄆᆞᆯᄀᆞ레, ᄆᆞᆯᄀᆞ레 헤여.(그거 연자매, 연자매 해.)

103025 @ ᄆᆞᆯᄀᆞ레는 집집마다 잇는 건 아니잖아예?(연자매는 집집마다 있는 건 아니잖아요?)

103025 # 아니, 아니랑 ᄒᆞᆫ 부락에 ᄒᆞ나 두 개쯤 놓민 나 문저 강 ᄀᆞᆯ젠 허민 아싯날

강 누게 안 놓은 때 가근에 박세기에 조를 거리나 아무거라도 강 톡허게 그레놩 어퍼, 어펑 놔두민 간 ᄎᆞ례로 ᄀᆞᆯ아.(아니, 아니라서 한 부락에 하나 두 개쯤 놓으면 나 먼저 가서 갈려고 하면 전날 가서 누구 안 놓은 때 가서 바가지에 조를 뜨나 아무것이라도 가서 톡하게 그리 놔서 엎어, 엎어서 놔두면 간 차례로 갈아.)

103025 @ 아.(아.)

103025 # 간 ᄎᆞ례로 겨민 누게가 젤 먼저 어퍼시넨 허민 가민 먼저 어픈 사름이 먼저 ᄀᆞᆯ아나민 그 뒤에 간 사름, 그 뒤에 간 사름 경헤여.(간 차례로 그러면 누가 제일 먼저 엎었냐고 하면 가면 먼저 엎은 사람이 먼저 갈고나면 그 뒤에 간 사람, 그 뒤에 간 사람 그렇게 해.)

103025 @ 그믄 ᄆᆞᆯᄀᆞ레에 갈레 갈 때는 뭐뭐 가졍 가? 곡석만 가졍 가민 뒈어?(그러면 연자매에 갈러 갈 때는 뭐뭐 가지고 가? 곡식만 가져 가면 돼?)

103025 # 뭐 안 가졍 가. 곡석허고 푸는체.(뭐 안 가져 가. 곡식하고 키.)

103025 @ 아, 푸는체.(아, 키.)

103025 # 영영 경헹 체 갈를 거.(이렇게 이렇게 그렇게 해서 겨 가를 거.)

103025 @ 거기서 헹 체 갈를 거.(거기서 해서 겨 가를 거.)

103025 # 체 갈라사 두불 ᄀᆞ는 거 아냐.(겨 갈라야 두벌 가는 거 아니냐.)

103025 @ 체 갈르는 게 영영허는 거.(겨 가르는 게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

103025 # 영 보민 테레비 나잖아. 영영 푸는 거이, 영영 허는 거.(이렇게 보면 텔레비전 나오잖아. 이렇게 이렇게 까부르는 거,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

103025 @ 그게 체 갈르는 거?(그게 겨 가르는 거?)

103025 # 응, 그거 체 갈라뒁 초불 ᄀᆞᆯ앙 체 갈라뒁이네 또 두불 ᄀᆞ는 거.(응, 그거 겨 갈라두고 초벌 갈아서 겨 갈라두고 또 두벌 가는 거.)

103025 @ 그거 그디서 홈치 다 허는 거? 집이 왓당 허는 거 아니고?(그거 거기서 한꺼번에 다 하는 거? 집에 왔다가 하는 거 아니고?)

103025 # 아니, 집이 왓당 허는 거 아니고 이건 물 아이 드는 거난 그디서 다 홈치 ᄀᆞᆯ앙 나오는 거.(아니, 집에 왔다가 하는 거 아니고 이건 물 안 드는 거니까 거기서 다 한꺼번에 갈아서 나오는 거.)

103025 @ 혹시 뭐 ᄆᆞᆯᄀᆞ레에서 쓰는 비차락이나 이런 것도 이수과? (혹시 뭐 연자매에서 쓰는 빗자루나 이런 것도 있습니까?)

103025 # 비치락 지금도 이디 쓰는 거.(빗자루 지금도 여기 쓰는 거.)

103025 @ 똑ᄀᆞ뜬 거?(똑같은 거?)

103025 # 똑ᄀᆞ뜬 거.(똑같은 거.)

103025 @ 그걸 혹시 ᄀᆞ렛비차락 이렇게 안 헤?(그걸 혹시 'ᄀᆞ렛비차락' 이렇게 안 해?)

103025 # 안 헤, 안 헤. 이디 우리 삼방 씨는 비치락 그자 그런 거 아졍 강 영영 씰어 올리고. 또 안목에 거 ᄂᆞ립곡 허는 거 그거, 그 비치락은 틀리지 안헌 거.(안 해, 안 해. 여기 우리 마루 쓰는 빗자루 그저 그런 거 가지고 가서 이렇게 이렇게 쓸어 올리고.

또 안목의 것 내리고 하는 거 그거, 그 빗자루는 다르지 않은 거.)

103025 @ 틀리지 안 헌 거예. 그거 사름으로도 밀리주마는 쉐나 물로도 밀려?(다르지 않은 거요. 그거 사람으로 밀지마는 소나 말로도 밀어?)

103025 # 응, 물도 앞으로 영 메와근에 물로 둥겨. 물 이신 사름은 물로 둥기민 사름 여라이 아니 가도 물 ᄒᆞ나만 메우면 ᄒᆞᆫ 둘리는 골고 이 우리추룩 아무것도 엇인 사름은 서로 수눌어이. 너이가 수누는 거라. ᄒᆞᆫ 사름썩 ᄒᆞᆫ 사름썩 너이가 허민 일로 둘리 허민, 일로 둘리, 일로 둘리 헤사 걸 둥기고 밀리곡 허주. 경 안허민 못헤여. 겨난 우리 ᄆᆞ쉬 엇인 사름은 서로서로 수눌어.(응, 말도 앞으로 이렇게 메워서 말로 당겨. 말 있는 사람은 말로 당기면 사람 여럿 안 가도 말 하나만 메우면 한 둘은 갈고 이 우리처럼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서로 품앗이해. 넷이 품앗이하는 거야.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넷이 하면 이리로 둘이 하면, 이리로 둘이, 이리로 둘이 해야 그걸 당기고 밀고 하지. 그렇지 않으면 못해. 그러니까 우린 마소 없는 사람은 서로서로 품앗이해.)

103025 @ 아, 수눌어.(아, 품앗이해.)

103025 # 수눌어근에 허곡 ᄆᆞ쉬 신 사름은 쉐나 물이나 이신 사름은 그 쉐 아졍강 메와도 뒈고 물 아졍강 메와도 뒈고.(품앗이해서 하고 마소 있는 사람은 소나 말이나 있는 사람은 그 소 가져가서 메워도 되고 말 가져가서 메워도 되고.)

103025 @ 게민 조는 그디 강 저 두불헤근에 골앙 오민?(그러면 조는 거기 가서 저 두벌해서 갈아서 오면?)

103025 # 홈치 골앙 와.(한꺼번에 갈아서 와.)

103025 @ 이디서 정ᄀᆞ레로 안 헤도 뒈어?(여기서 풀맷돌로 안 해도 돼?)

103025 # 안 허는 거 거, 아무것도 파싹 물령 강 그디서 헹 오민 끗이고.(안 하는 거 그거, 아무것도 바싹 말려서 가서 거기서 해서 오면 끝이고.)

103025 @ 끗이라예.(끝이요.)

103025 # 보리는 물ᄀᆞ레 강 두 번 골아오고 이디서 또 정ᄀᆞ레서 벌르곡 헤사 세 번을 헤사 먹는 거. 보리ᄀᆞ추룩. 막 공들어, 먹젠 허민.(보리는 연자매 가서 두 번 갈아오고 여기서 또 풀맷돌에서 쪼개고 해야 세 번을 해야 먹는 거. 보리처럼. 아주 공이 들어, 먹으려고 하면.)

103025 @ 게난예. 조가 경헤도 좀 쉽다예.(그러니까요. 조가 그래도 좀 쉽네요.)

103025 # 조가 쉬와.(조가 쉬워.)

103026 @ 게민 조로는 무신거 무신거 헹 먹는 거꽈?(그러면 조로는 무엇 무엇 해서 먹는 겁니까?)

103026 # 조로 기자 밥이나 헹 먹고.(조로 그냥 밥이나 해서 먹고.)

103026 @ 밥도 헹 먹고.(밥도 해서 먹고.)

103026 # 밥헹 먹고, 엿날에 큰일 나민 물 컷다근에 저 물ᄀᆞ레 강 골앙 쏠 물 컷당 ᄀᆞ루 내엉 ᄀᆞ루 내민 친떡 치는 거.(밥해서 먹고, 옛날에 큰일 나면 물 담갔다가 저 연자매 가서 갈아서 쌀 물 담갔다가 가루 만들어서 가루 만들면 시루떡 찌는 거.)

103026 @ 아, 조로 친떡 치는 거?(아, 조로 시루떡 찌는 거?)

103026 # 픗, 새에 놓멍, 친떡 옛날엔 그 친떡도 치젠 허민이 집이서 시리에 헹 쳐. 요즘은 공장에 강 빠 오람주마는 집이서 시리에 막 쳐. 경허민 어떤 집이 부저칩인 쏠 스무 말에치 헷다, 혼 섬에치 혼 섬은 열닷 말ᄀᆞ라 혼 섬이라, 혼 섬에치 헷저, 스무 말에치 헷저 헌다 엿날엔.(팥, 사이에 놓으면서, 시루떡 옛날엔 그 시루떡도 찌려고 하면 집에서 시루에 해서 쪄. 요즘은 공장에 가서 빼 오고 있지만 집에서 시루에 막 쪄. 그러면 어떤 집은 부잣집은 쌀 스무 말어치 했다, 한 섬어치 한 섬은 열닷 말보고 한 섬이야, 한 섬어치 했다, 스무 말어치 했다 한다, 옛날엔.)

103026 @ 조는 친떡 말고 다른 떡은 안 헙니까?(조는 시루떡 말고 다른 떡은 안 합니까?)

103026 # 다른 떡 안 허여.(다른 떡은 안 해.)

103026 @ 보통 조는 친떡?(보통 조는 시루떡?)

103026 # 응, 친떡. 저 춥쏠 잇잖아, 좁쏠도이. 그건은 두 가지 헤여, 오메기도 헤먹고.(응, 시루떡. 저 찹쌀 있잖아, 좁쌀도. 그건 두 가지 해, '오메기'도 해먹고.)

103026 @ 아, 차조.(아, 차조.)

103026 # 응, 차조는.(응, 차조는)

103026 @ 희린조?(차조?)

103026 # 응, 희린조. 그거는 인절미도 헤먹고, 오메기도 영 동글여근에, 엿날에 술도 헤놓고 걸로.(응, 차조. 그거는 인절미도 해먹고, '오메기'도 이렇게 굴려서, 옛날에 술도 해놓고 그걸로.)

103026 @ 아, 걸로 술도 허고?(아, 그걸로 술도 하고?)

103026 # 응, 걸로 막걸리 만들어 놓민 막걸리도 만들아 먹고 저 인절미도 헤먹고, 인절미도 싹 밀어근에 ᄀᆞ루 헤근에 싹허게 쳥 내놔근에 싹싹 밀민 픗쉬 미치민.(응, 그걸로 막걸리도 만들어 놓으면 막걸리도 만들어 먹고 저 인절미도 해먹고, 인절미도 싹 밀어서 가루 해서 싹하게 쪄서 내놔서 싹싹 밀면 팥고물 묻히면.)

103026 @ 픗쉬 미치민?(팥고물 묻히면?)

103026 # 픗쉬 미치민 막 맛잇어, 그거 그걸로 막걸리도 허고. 차조 차조 허멍 그걸로.(팥고물 묻히면 아주 맛있어, 그거 그걸로 막걸리도 하고, 차조, 차조하면서 그걸로.)

103028 @ 조는 무신 종류, 무신 종류 이신 거꽈? 좁쏠은.(조는 무슨 종류, 무슨 종류 있는 겁니까? 좁쌀은.)

103028 # 좁쏠 이름은 잇어, 이름은 잇어도 다 ᄀᆞ뜬 거 뭐 박애시리니 뭐 무시리니 또 저.(좁쌀 이름은 있어, 이름은 있어도 다 같은 거 뭐 '박애시리'니 뭐 '무시리'니 또 저.)

103028 @ 개발시리.('개발시리'.)

103028 # 개발시리.('개발시리'.)

103028 @ 강돌와리? 엇어?('강돌와리'? 없어?)

103028 # 강돌와리엔 헌 말은 못 들엇어. 그거는 우리 못 들언 그자.('강돌와리'라고 한 말은 못 들었어. 그거는 우리 못 들었어 그저.)

103028 @ 개발시리 또?(‘개발시리’ 또?)

103028 # 개발시리허고 무신 무시리 저 것ᄀᆞ라 미신 조엔 오래부난 잊어비엇저. 것도 두 가지라, 두 가진디 박애시리.(‘개발시리’하고 무슨 ‘무시리’ 저 그것보고 무슨 조라고 오래니까 잊어버렸어. 그것도 두 가지야, 두 가진데 ‘박애시리’.)

103028 @ 어떤 건 희린조고 어떤 건 모인조꽈?(어떤 건 차조고 어떤 건 메조입니까?)

103028 # 흐린조는이 요 끗겡이가 가려. 노린조 끗겡이가 가리고 검은조는 끗겡이가 안 가려. 검은 흐린조는 건 우리 그냥 펭균 조나 ᄀᆞ트는디 노랑헌 흐린조는 요 끗겡이가 가릿가릿[66]헤여, 가려. 끗겡이가 좁쏠이. 경허고 털이 복삭허고 조코고리에다가 고고리에 털이 복삭허고 끗겡이가 ᄒᆞ썰 가리와.(차조는 요 끄트머리가 갈려. 노란조 끄트머리가 갈리고 검은조는 끄트머리가 안 갈려. 검은 차조는 그건 우리 그냥 평균 조나 같은데 노란 차조는 요 끄트머리가 ‘가릿가릿’해, 갈려. 끄트머리가 좁쌀이. 그리고 털이 보송하고 조이삭에다가 이삭에 털이 보송하고 끄트머리가 조금 갈려.)

103028 @ 가리는 건 어떵허는 거?(‘가리는’ 건 어떻게 하는 거?)

103028 # 어떵헌 것산디 그 조가 가려, 흐린존디. 이 모인조는 가리는 거 엇고 흐린조 노랑헌 건 끗겡이가 가려, 터럭이 복삭허고(어떻게 것인지 그 조가 갈려, 차조인데. 이 메조는 갈리는 거 없고 차조 노란 건 끄트머리가 갈려, 털이 보송하고.)

103028 @ 터럭이 복삭헤여?(터럭이 보송해?)

103028 # 가리고 터럭이 복삭허고. 검은 흐린조는 그거 엇고 고고리가 꺼멍허고 그건. 알아져.(갈리고 털이 보송하고. 검은 차조는 그거 없고 이삭만 까맣고 그건. 알 수 있어.)

103028 @ 거믄 모인조는?(그러면 메조는?)

103028 # 모인조는 그런 거 엇어, 그런 거 엇어.(메조는 그런 거 없어, 그런 거 없어.)

103028 @ 모인조는 이름이 엇어?(메조는 이름이 없어?)

103028 # 이름이 백시리엔 헌 건 끗겡이 뭉틀락헌 거, 고고리가 뭉클뭉클헌 건 요건 백시리.(이름이 ‘백시리’라고 한 건 끄트머리가 뭉툭한 거, 이삭이 뭉툭뭉툭한 건 요건 ‘백시리’.)

103028 @ 건 모인조?(그건 메조?)

103028 # 모인조. 박애시리엔 헌 건 고고리가 요만썩 쑬랑쑬랑헌 거 대축고고리 모냥으로 쭐랑쭐랑헌 거. 그거 박애시리 그거.(메조. ‘박애시리’라고 한 건 이삭이 요만큼씩 길쭉길쭉한 거 옥수수 이삭 모양으로 길쭉길쭉한 거. 그거 ‘박애시리’ 그거.)

103028 @ 그게 모인조 두 개가?(그게 메조 두 개가?)

103028 # 응, 두 개가 모인조.(응, 두 개가 메조.)

103028 @ 희린조가 좋은 거지예?(차조가 좋은 거지요?)

103028 # 희린조가게 춥쏠이니까.(차조가 찹쌀이니까.)

---

66) ‘가릿가릿’은 잎 따위가 손가락을 벌린 손처럼 여러 갈래로 갈라진 모양이다.

103028 @ 차조난예?(차조니까요?)

103028 # 응, 차조난. 그걸 오메기도 헤 먹고 술도 헤 놓고 막걸리 헤 놓고, 옛날엔 그걸로 막걸리나 술이나 헤 놓민 그렇게 맛잇어. 이제도 차좁쌀로 막걸리 헤 논 거 그렇게 맛잇젠 헌다, 테레비 보민.(응, 차조니까. 그걸 '오메기'도 해 먹고 술도 해 놓고 막걸리 해 놓고, 옛날엔 그걸로 막걸리나 술이나 해 놓으면 그렇게 맛있어. 이제도 차조로 막걸리 해 놓은 거 그렇게 맛있다고 한다, 텔레비전 보면.)

103028 @게민 밧듸 흐린조 잘뒈는 밧이 잇고 안뒈는 밧이?(그러면 밭에 차조 잘되는 밭이 있고 안되는 밭이?)

103028 # 아, 흐린조는이 아무 밧듸나 안뒈여. 건 밧이라야.(아, 차조는 아무 밭이나 안 돼. 건 밭이라야.)

103028 @ 건 밧은 어떵헌 거?(건 밭은 어떤 거?)

103028 # 밧이 좋은 디.(밭이 좋은 데.)

103028 @ 아, 좋은 밧에.(아, 좋은 밭에.)

103028 # 땅도 들고 좋은 밧듸 이젠이 비료 나부난 좋은 밧 궂은 밧 엇어. 비료만허민 뭐 자갈밧이라도 앗당 들이치민 코뚱허여. 엿날엔 자갈밧듸 그런 딘 안 뒈여, 조가. 땅 든 디라사.(땅도 들고 좋은 밭에 이젠 비료 나버리니까 좋은 밭 궂은 밭 없어. 비료 많으면 뭐 자갈밭이라도 가져다가 들이치면 같아. 옛날엔 자갈밭에 그런 덴 안 돼, 조가. 땅 든 데라야.)

103028 @ 땅 든 디라사?(땅 든 데라야?)

103028 # 가름밧[67], 가름밧허멍 이 걸름 하영 아져 뎅기고, 이 ᄆᆞ쉬 지르는 사름덜 쉐걸름 ᄆᆞᆯ컬름 하영 아져 뎅경 우잣듸 쉐도 메고 ᄆᆞᆯ도 메놓민 쉐오줌 ᄆᆞᆯ오줌이 건 거라이. 경헤난 디 우잣듸만 그런 디만 그 흐린조는 ᄇᆞᆯ려. 잘, 밧 나무령[68] 잘 안뒈는 따문에.('가름밧', '가름밧'하면서 이 거름 많이 가져 다니고, 이 마소 기르는 사람들 소두엄, 말 거름 많이 가져 다녀서 텃밭에 소도 매고 말도 매놓으면 소 오줌, 말 오줌이 건 거야. 그렇게 했던 데 텃밭에만 그런 데만 그 차조는 봢아. 잘, 밭 나무라서 잘 안 되는 때문에.)

103028 @ 거난 안 좋은 밧듸 모인조 허는 거구나예?(그러니까 안 좋은 밭에 메조 하는 거군요?)

103028 # 안 좋은 밧듸는 모인조, 좋은 밧듸는 흐린조.(안 좋은 밭에는 메조, 좋은 밭에는 차조.)

103028 @ 오, 아까 조도, 조헐 때 할무니, 보리헐 때추룩 힘든 게 무신거라, 조는?(오, 아까 조도, 조할 때 할머니, 보리할 때처럼 힘든 게 무엇이야, 조는?)

103028 # 조는이 보리헐 때ᄀᆞ치 힘들어 뷔지 안허여. 날이 건더러워니까. 박박 비어근에 그자 건 비 무꺼. ᄆᆞᆯ르지 안헤도 비 무꺼근엥에 그자 앗아오지 못허민 탁탁 데멧다근에 영 ᄂᆞ람지 들러당 트멍에 나는 대로 지어당 집이도 오민 재기허민, 못허민 곡석

67) '가름밧'은 마을 안에 있는 밭으로 '거리왓', '가름팟'이라고도 한다.
68) '나무리다'는 남을 업신여겨 낮추어 보거나 얕잡아 말하다는 뜻으로 '내무리다'로도 쓰인다.

을 그 고고리를 못 튿으민 또 데메, 집이서도. 데명놧당 트멍에 흔 단썩 뽑으멍 트멍 나는 대로 튿아 이제, 그 고고리 튿음라이. 고고리만 요디 호미 요 발로 불르곡 고고리 영영 줏어근에 줏엉 딱 그창 고고리만 뚜로 놓고 남뎅인 남뎅이대로 뚜로 놓고 그거.(조는 보리할 때처럼 힘들어 보이지 않아. 날이 시원해지니까. 박박 베어서 그저 그건 '비' 묶어. 마르지 않아도 '비' 묶어서 그저 가져오지 못하면 탁탁 쌓았다가 이렇게 이엉 들어다가 틈나는 대로 져다가 집에도 오면 재게 하면, 못하면 곡식을 그 이삭을 못 뜯으면 또 쌓아, 집에서도. 쌓아놨다가 틈틈이 한 단씩 뽑으면서 틈나는 대로 뜯어 이제, 그 이삭 뜯기야. 이삭만 요기 낫 요 발로 밟고 이삭 이렇게 이렇게 주워서 주워서 딱 잘라서 이삭만 따로 놓고 나무는 나무대로 따로 놓고 그거.)

103028 @ 그거 밧 불리는 게 ᄒᆞ꼼 힘들어나신가?(그거 밭 밟는 게 조금 힘들었었나?)

103028 # 밧 불리는 게 힘들어.(밭 밟는 게 힘들어.)

103028 @ 조헐 땐예?(조할 땐요?)

103028 # 밧 불리는 거.(밭 밟는 거.)

103028 @ 집이 쉐 엇이민예 또예.(집에 소 없으면요 또요.)

103028 # 놈의 ᄆᆞ쉬 ᄆᆞᆫ딱 빌어야 허고.(남의 마소 모두 빌려야 하고.)

103028 @ 게난예.(그러니까요.)

103028 # 또 밧 불리는 딘 이녁 사름 엇이민 그디 강 도왕 ᄆᆞᆯ 또꼬냥에 상 몰아 주어사 허고.(또 밭 밟는 덴 자기 사람 없으면 거기 가서 도와서 말 엉덩이에 서서 몰아줘야 하고.)

103028 @ 거난 그게 조허는 딘 힘들다예.(그러니까 그게 조하는 덴 힘드네요.)

103028 # 그것이 힘들어. ᄆᆞ쉬 엇인 게 힘들어.(그것이 힘들어. 마소 없는 게 힘들어.)

103028 @ 게난예.(그러니까요.)

103028 # 제일 힘든 게 ᄆᆞ쉬 엇인 거.(제일 힘든 게 마소 없는 거.)

103028 @ ᄆᆞ쉬 엇인 거예.(마소 없는 거요.)

103028 # 제일 힘든 것도 보리갈 때 힘든 거, 걸름 내는 거 힘들어. 남저덜 헤영 남저덜도 잇고 소나 ᄆᆞᆯ이나 이신 사름은 허고, 소도 ᄆᆞᆯ도 엇인 사름은 그거 ᄆᆞᆫ 퍼냉 놈이 쉐나 ᄆᆞᆯ이나 비나헤사 그거 허곡 허젠 허민 그게 힘들어. 그거 ᄆᆞᆫ 골체로 통시에 거 막 퍼내젠 허민 ᄒᆞ루 종일 퍼내. 아침 세벡이부터 헤영. 아이고 그것이 힘들어.(제일 힘든 것도 보리갈 때 힘든 거, 거름 내는 거 힘들어. 남자들 해서 남자들도 있고 소나 말이나 있는 사람은 하고, 소도 말도 없는 사람은 그거 모두 퍼내서 남의 소나 말이나 빌리거나 해야 그거 하고 하려고 하면 그게 힘들어. 그거 모두 삼태기로 돼지우리의 거 막 퍼내려고 하면 하루 종일 퍼내. 아침 새벽부터 해서. 아이고 그것이 힘들어.)

103028 @ 그것이 힘들어예.(그것이 힘들어요.)

103028 # 요즘은 뒈야지도 집이서 안 질뢍 ᄆᆞᆫ 절로 농장으로 강 질롸불고 집이서 도새기 질루는 사름 엇어.(요즘은 돼지도 집에서 안 길러서 모두 저리로 농장으로 가서 길

러버리고 집에서 돼지 기르는 사람 없어.)

103028 @ 냄새 낭.(냄새 나서.)

103028 # 요즘 막 이거 우리 ᄀᆞ만이 앚아근에 밥을 영 출려놓민, 야 우리 이 밥 먹는 게 엿날 임금덜 먹는 밥.(요즘 막 이거 우리 가만히 앉아서 밥을 이렇게 차려놓으면, 야 우리 이 밥 먹는 게 옛날 임금들 먹는 밥.)

103028 @ 임금덜.(임금들.)

103028 # 응, 임금이나 먹주. 우리 쏠 흔 방울 구경헤 보지 못허여.(응, 임금이나 먹지. 우리 쌀 한 방울 구경해 보지 못해.)

103028 @ 게난예.(그러니까.)

103028 # 나룩도 어디 시니? 이디서 그 산뒤, 산뒤, 나룩이엔 안헹 산뒤엔 헤근에 여기서. 이 물에 가는 게 나룩이고 우린 물 엇인 디 돌 울레 강 영헌 디 맨 땅에 강 삐엉 놔두민 그거 허민, 그것도 허민 나룩 닮지 안헹 산뒤 붉은 게 하. 경허민 그거 희게 멘들젠 허민 ᄆᆞᆯᄀᆞ레에 가근에 흔 다섯불은 ᄀᆞᆯ아야 뒈어. 경헤사 헤영케 만들아. 그 복데기 그 뻘경헌 복데길 다 벳기젠 허민 그게 힘들어.(벼도 어디 있니? 여기서 그 밭벼, 밭벼, 벼라고 안하고 밭벼라고 해서 여기서. 이 물에 가는 게 벼고 우린 물 없는데 돌 '울레' 가서 이렇게 한 데 맨 땅에 가서 뿌려 놔두면 그거 하면, 그것도 하면 벼 같지 않아서 밭벼 붉은 게 많아. 그러면 그게 희게 만들려고 하면 연자매에 가서 한 다섯벌은 갈아야 돼. 그래야 하얗게 만들어. 그 껍데기 그 빨간 껍데길 다 벗기려고 하면 그게 힘들어.)

103028 @ 산뒤는 그게 힘들구나예.(밭벼는 그게 힘들군요.)

103028 # 그게 힘들엉이 헤먹을 일 한 사름은 막 성가셔.(그게 힘들어서 해먹을 일 많은 사람은 막 성가셔.)

콩농사

103029 @ 콩은 허젠 허민 미릇 준비헤야 뒈는 거 무신거?(콩은 하려고 하면 미리 준비해야 되는 거 뭐?)

103029 # 콩도 미릇 준비허는 거 엇어, 콩도. 콩이나 조나 미릇 준비허는 거 엇어. 씨만 헹 놔두면 씨가 미릇 준비뒈는 거지. 무신 걸름을 허나 뭐허나 허지 안허여. 요즘은 비료가 잇어부난 그자 콩 나민 비료만 뿌리민 뒈는 거난.(콩도 미리 준비하는 거 없어, 콩도. 콩이나 조나 미리 준비하는 거 없어. 씨만 해서 놔두면 씨가 미리 준비되는 거지. 무슨 거름을 하나 뭐하나 하지 않아. 요즘은 비료가 있어버리니까 그저 콩 나면 비료만 뿌리면 되는 거니까.)

103029 @ 비료 엇일 때.(비료 없을 때.)

103029 # 비료 엇일 때도 그자 싱경만 내부는 거. 엿날에는 싱그지 안헹 막 ᄀᆞᆯ아서 이. 씨 작작 삐어근에 소로 영 갈아. 갈민 가근에 영 뎅기다근에 콩 난 거 시민 발로 꼭꼭허게 찔러. 경헹 갈앙 내빗주마는 요즘은 콩 많이 허는 사름은 엇주마는 싱거근에 심

어, 심어, 꼭꼭허게. 저 대정 쪽드레는 가민 콩을 씨 삐엉 이제도 경운기로 골아. 이디서는 쪼끔쪼끔허는 거난에 콩입 튿아 먹켜, 뭐허켜 허멍 쪼끔 싱그는 거지, 저 대정 쪽더레 강 보민 콩이 흔 오천 평썩 막 골아이, 대정드레. 흔 삼천 평, 오천 평, 우리도 콩 거끄레 그전인 느랑 다녓주. 허리 아파가난 콩 꺼끄레 못 간.(비료 없을 때도 그저 심어서만 내버리는 거. 옛날에는 심지 않고 막 갈았어. 씨 쫙쫙 뿌려서 소로 이렇게 갈아. 갈면 가서 이렇게 다니다가 콩 난 거 있으면 발로 꼭꼭하게 찔러. 그렇게 해서 갈아서 내버렸지마는 요즘은 콩 많이 하는 사람은 없지마는 심어서 심어, 심어, 꼭꼭하게. 저 대정 쪽으로 가면 콩을 씨 뿌려서 이제도 경운기로 갈아. 여기서는 조금조금하는 거니까 콩잎 뜯어 먹겠다, 뭐하겠다 하면서 조금 심는 거지, 저 대정 쪽으로 가서 보면 콩이 한 오천 평씩 막 갈아, 대정 쪽에. 한 삼천 평, 오천 평, 우리도 콩 꺾으러 그전엔 늘 다녔지. 허리 아파가니까 콩 꺾으러 못 갔어.)

103029 @ 이 동넨 경 하영은 안 허여?(이 동넨 그렇게 많이는 안 해?)

103029 # 안 허여, 이딘 안 허여. 이 동넨 콩 가는 디 엇어. 이 동넨 죽으나 사나 미깡만 헤노난.(안 해, 여긴 안 해. 이 동넨 콩 가는 데 없어. 이 동넨 죽으나 사나 귤만 해놓으니까.)

103029 @ 건 이제사 미깡낭 나난이고 미깡낭 나기 전이? (그건 이제야 귤나무 나니까이고 귤나무 나기 전에?)

103029 # 나기 전인 이녁 먹을 거만썩 쪼끔쪼끔 헷주. 경 허지 안허여? 이녁 먹을 거만썩 삐영 쪼끔쪼끔 골아근에 겡운기로 두드렁 내불민 이제 저 대정더레 강보난 그자 흔 오천 평 허는 사름, 삼천 평 허는 사름허민 그 콩을 막 씨로 삐영 겡운기로 탁탁 두드렁 내비어, 경헹 내비어.(나기 전엔 자기 먹을 거만큼씩 조금조금 했지. 그렇게 하지 않아? 자기 먹을 거만큼씩 뿌려서 조금조금 갈아서 경운기로 두드려서 내버리면 이제 저 대정으로 가보니까 그저 한 오천 평 하는 사람, 삼천 평 하는 사람하면 그 콩을 막 씨로 뿌려서 경운기로 탁탁 두드려서 내버려, 그래서 내버려.)

103030 @ 게믄 경운기로 허기 전이 옛날 거 골아줘사 뒐 거예.(그러면 경운기로 하기 전에 옛날 그거 갈아줘야 될 거요.)

103030 # 엿날 거는 기냥 씨 삐어, 이디서도 씨 삐엉 쉐로 영 골아.(옛날 그거는 그냥 씨 뿌려, 여기서도 씨 뿌려서 소로 이렇게 갈아.)

103030 @ 추근추근허게예. 콩은 언제 허는 거꽈? 언제 뿌리는 거꽈?(차근차근해요. 콩은 언제 하는 겁니까? 언제 뿌리는 겁니까?)

103030 # 콩도 조광 ᄀᆞ따이. 조광 ᄀᆞ따. 유월절 전이만이 허민 뒈.(콩도 조와 같아. 조와 같아. 유월절 전에만 하면 돼.)

103030 @ 아, 유월절 전이.(아, 유월절 전에.)

103030 # 유월절 전이.(유월절 전에.)

103030 @ 보리 헤낭.(보리 해놓고.)

103030 # 보리 헤난 끗에 보리 헤난 끗에. 그자 조 불릴 때 조팟 엠더레도 막 뿌리고 조팟 엠에도 뿌렷다근에 헤먹고 조 빌 때 나민 ᄀᆞ치 거꺼 먹고 그자 조 불릴 때, 조

헐 때 ᄒᆞ쏠 문저만 갈민 뒈는 거, 이거 콩은.(보리 했던 끝에 보리 했던 끝에. 그저 조 밟을 때 조밭 옆에도 막 뿌리고 조밭 옆에도 뿌렸다가 해먹고 조 벨 때 되면 같이 꺾어 먹고 그저 조 밟을 때, 조 할 때 조금 먼저만 갈면 되는 거, 이거 콩은.)

103032 @ 게민 콩은 아까 옛날 헤난 식은, 삐엉 ᄀᆞᆯ아?(그러면 콩은 아까 옛날 했던 식은, 뿌려서 갈아?)

103032 # 응, 삐엉 ᄀᆞᆯ아. 좁씨 삐듯 영 삐어.(응, 뿌려서 갈아. 좁씨 뿌리듯 이렇게 뿌려.)

103032 @ 응, 경헹.(응, 그렇게 해서.)

103032 # 삐어근에 쉐로 갈아.(뿌려서 소로 갈아.)

103032 @ 다시 흑 영 안 더꺼줘도 뒈어?(다시 흙 이렇게 안 덮어줘도 돼?)

103032 # 뒈여, 안 더꺼줘도 뒈어.(돼, 안 덮어줘도 돼.)

103032 @ 아, 다 더꺼져.(아, 다 덮어져.)

103032 # 그냥 더꺼졍 뒈어, 경허난 콩은 뭐 간단헤여 그거.(그냥 덮어져서 돼, 그러니까 콩은 뭐 간단해 그거.)

103031 @ 콩밧듸도 걸름 헤사 헤여?(콩밭도 거름 해야 해?)

103031 # 요즘은 비료 나난 비료허지.(요즘은 비료 나니까 비료하지.)

103031 @ 옛날엔?(옛날엔?)

103031 # 엿날엔 비료 엇인 땐 안 헤여.(옛날엔 비료 없을 땐 안 해.)

103031 @ 아무것도 안 헤여.(아무것도 안 해.)

103031 # 안 허민 콩 영 허민 콩낭 ᄒᆞ나에 콩 열 가지, 콩 열 개썩은 ᄃᆞᆯ아져. 콩깍지 열 개썩은 ᄃᆞᆯ아졍 잇어. 콩깍지가 콩이 좃이 삐민 콩낭이 요만썩벳긔 안 허여, 경허난.(안 하면 콩 이렇게 하면 콩나무 하나에 콩 열 가지, 콩 열 개씩은 달려. 콩깍지 열 개씩은 달려 있어. 콩깍지가 콩이 잦게 뿌리면 콩나무가 요만큼씩밖에 안 해, 그러니까.)

103031 @ 보통은 멧 개허민?(보통은 몇 개하면?)

103031 # 겨민 콩 ᄒᆞᆫ 말썩 가는 사름이 잇어. ᄒᆞᆫ 말이민 너 뒈라이. 겨민 이녁 장콩베낀 안뒈. 풀 거 엇어, 이녁 장콩만.(그러면 콩 한 말씩 가는 사람이 있어. 한 말이면 넉 되야. 그러면 자기 장콩밖엔 안 돼. 팔 거 없어, 자기 장콩만.)

103031 @ 뒌장허는 거?(된장하는 거?)

103031 # 응, 뒌장허는 거, 이녁 장콩허는 거. 요즘은 우린이 뒌장을 안허영 사 먹는디 엿날엔 다 이녁 집집만썩 장을 ᄃᆞᆼ강 먹어.(응, 된장하는 거, 자기 장콩하는 거. 요즘은 우린 된장을 안 하고 사 먹는데 옛날엔 다 자기 집집만큼씩 장을 담가서 먹어.)

103032 @ 게난예 콩씨는 어떵 삡니까?(그러니까요. 콩씨는 어떻게 뿌립니까?)

103032 # 콩씨도 이거 이추룩 좁씨 삐듯 영.(콩씨도 이거 이렇게 좁씨 뿌리듯 이렇게.)

103032 @ 콩은 막 홁은디도?(콩은 아주 굵은데도?)

103032 # 홁어도 겨민 열앙, 콩 ᄒᆞᆫ 말 ᄀᆞᆯ아. ᄒᆞᆫ 그것이 ᄒᆞᆫ ᄒᆞᆫ 말 갈젠 허민 ᄒᆞᆫ 보리

씨 두 말지기 경 골아. 이걸 삐어, 콩씨도 하영 들어. 두 말지기 갈젠 허민 콩씨 혼 두 뒈, 석 뒈나 들어. 경 삐영 골아, 겨민 그거 허민 요샌 비료 나노난 좁게 갈민 안 뒈여, 비료가 나부난. 엿날엔 막 좁게 골아, 비료 엇어부난. 건디 요샌 드물게 갈지. 비료만 헤놓민게 이만이 커부난 콩이 줒이 난 디 열매가 안 열아.(굵어도 그러면 열어서, 콩 한 말 갈아. 한 그것이 한 한말 갈려고 하면 한 보리씨 두 마지기 그렇게 갈아. 이걸 삐려, 콩씨도 많이 들어. 두 마지기 갈려고 하면 콩씨 한 두 되, 석 되나 들어. 그렇게 뿌려서 갈아, 그러면 그거 하면 요샌 비료 나니까 좁게 갈면 안 돼, 비료가 나니까. 옛날엔 아주 좁게 갈아, 비료 없어서. 그런데 요샌 드물게 갈지. 비료만 해놓으면 이만큼 커버리니까 콩이 잦게 난 데 열매가 안 열어.)

103032 @ 너무 가까이 하면.(너무 가까이 하면.)

103032 # 응, 콩이 이만큼썩 드물어야 뒈주. 요추룩헤근에 비료나 헤놓민 콩이 이만썩 커불주. 열매가 안 돌아져, 겨난 콩은 드물어야.(응, 콩이 이만큼씩 드물어야 되지. 요렇게 해서 비료나 해 놓으면 콩이 이만큼씩 커버리지. 열매가 안 달려, 그러니까 콩은 드물어야.)

103032 @ 드물어야.(드물어야.)

103032 # 드문드문허게 잇어근에 비료나 헤놓민 콩이. 겨고이 콩깍지는 물 ᄂᆞ리렌 헤서이 콩이 마 짇는 헤, 비 줒은 헤는 콩이 잘 뒈고.(드문드문하게 있어서 비료나 해놓으면 콩이. 그리고 콩깍지는 물 내리라고 해서 콩이 장마가 지는 해, 비가 잦은 해는 콩이 잘되고.)

103032 @ 비가?(비가?)

103032 # 응, 줒인 헤 콩은 잘 뒈여, ᄀᆞ문 헤에 콩은 안 뒈여. 올리 콩 안 뒛어, ᄀᆞ물아부난.(응, 잦은 해 콩은 잘 돼, 가문 해에 콩은 안 돼. 올해 콩 안 됐어, 가물어버리니까.)

103032 @ 아, 여름에 ᄀᆞ물아부난.(아, 여름에 가물어버리니까.)

103032 # 콩이 여물을 못 들엇어.(콩이 여물이 안 들었어.)

103032 @ 아까 마 짇는다고마씨?(아까 장마 '짇는다'고요?)

103032 # 여름비가 많이 와줘야 콩은, 마!(여름비가 많이 와줘야 콩은, 장마!)

103032 @ 마.(장마.)

103032 # 마. 비 ᄌᆞ주 오민 마쳣덴 헤메. 경허난 콩에는 비가 줒이 와주면은 콩이 잘 뒈고 ᄀᆞ물면은 콩이 안 뒈여, 콩이 안 뒈여.(장마. 비 자주 오면 장마 졌다고 해. 그러니까 콩은 비가 잦게 와주면 콩이 잘 되고 가물면은 콩이 안 돼, 콩이 안 돼.)

103033 @ 콩밧듸 검질은 어떵 맵니까?(콩밭의 김은 어떻게 맵니까?)

103033 # 콩밧듸 검질은 혼불 메민 뒈어.(콩밭의 김은 한벌 매면 돼.)

103033 @ 혼불 언제 메는 거라?(한벌 언제 매는 거야?)

103033 # 그건 콩이 뽀쪽뽀쪽 낭 혼 입, 두 입 나올 때 메불민 콩입 탁 더꺼져불민 검질이 안 나, 콩입, 안 나.(그건 콩이 뾰족뾰족 나서 한 잎, 두 잎 나올 때 매버리면 콩잎 탁 덮어져 버리면 김이 안 나, 콩잎, 안 나.)

103033 @ 거믄 콩밧듸 검질은 혼 번만 메는 거구나예.(그러면 콩밭에 김은 한 번만 매는 거군요.)

103033 # 응, 혼 번 메는 거.(응, 한 번 매는 거.)

103033 @ 아까 조팟듸.(아까 조밭에.)

103033 # 건 두불 메여.(그건 두벌 매.)

103034 @ 조팟듸 하영 나는 검질 이름은 뭐꽈?(조밭에 많이 나는 김은 이름이 뭡니까?)

103034 # 제완지.(바랭이.)

103034 @ 제완지? 조팟듸?(바랭이? 조밭에?)

103034 # 응, 제완지 제일 하영 나.(응, 바랭이 제일 많이 나.)

103034 @ 또.(또.)

103034 # 그다음 저 거시기 그것ᄀᆞ라 무신 풀이엔 허느니?(그다음 저 거시기 그것보고 무슨 풀이라고 하니?)

103034 @ ᄀᆞ라조?(가라지?)

103034 # ᄀᆞ라조는 하영 안 나는디. 그 ᄃᆞᆨ풀.(가라조는 많이 안 나는데. 그 여우구슬.)

103034 @ ᄃᆞᆨ풀?(여우구슬?)

103034 # 영 마주헤져 가민 영 빨강헌 풀 잇어. 그건 영 긁음만 허민 뒈, 긁음만 허민.(이렇게 마주해 가면 이렇게 빨간 풀 있어. 이건 이렇게 긁기만 하면 돼, 긁기만 하면.)

103034 @ 제완지는 막 힘들어?(바랭이는 아주 힘들어?)

103034 # 제완지 막 힘들어. 그것도 씨 엇이 메민 허민 허고 그거는 이제 하늬 나가민 막 줄 벋으멍 커불주게 경헌 따문에 그걸 잘 메야 뒈어.(바랭이 아주 힘들어. 그것도 씨 없이 매면 하면 하고 그거는 이제 하늬바람 나가면 막 줄 벋으면서 커버리지. 그런 때문에 그걸 잘 매야 돼.)

103034 @ 콩밧듸 검질은 게민?(콩밭의 김은 그러면?)

103034 # 콩밧듸 검질은 경 자주 안 메도 뒈어. 혼 번만 메민 콩 이파리가 탁 더퍼져.(콩밭의 김은 그렇게 자주 안 매도 돼. 한 번만 매면 콩 이파리가 탁 덮어져.)

103034 @ 콩밧듸 거난 콩밧듸 하영 나는 검질은 어떤 검질이 하영 나, 콩밧듸?(콩밭에 그러니까 콩밭에 많이 나는 김은 어떤 김이 많이 나, 콩밭에?)

103034 # 콩밧듸 하영 나는 검질이나 조팟디 검질이나 꼭ᄀᆞ따.(콩밭에 많이 나는 김이나 조밭에 김이나 똑같아.)

103034 @ 둘 다 여름에 메는 거난?(둘 다 여름에 매는 거니까?)

103034 # 응, 여름에 거난 꼭ᄀᆞ뜬 검질 콩밧듸엔 틀린 검질 안 나.(응, 여름에 거니까 똑같은 김 콩밭엔 다른 김 안 나.)

103034 @ 똑ᄀᆞ뜬 거.(똑같은 거.)

103034 # 똑ᄀᆞ뜬 검질.(똑같은 거.)

103034 @ 아까 제완지도 혹시 밑에 ᄒᆞ끔 벌겅헌 제완지도 잇고 그냥 허영헌 제완지도 이수과?(아까 바랭이도 혹시 밑에 조금 빨간 바랭이도 있고 그냥 하얀 바랭이도 있습니까?)

103034 # 벌겅헌 제완지는 모헤제완지라고이.(빨간 바랭이는 '모헤제완지'라고.)

103034 @ 무신거?(뭐?)

103034 # 모헤제완지.('모헤제완지'.)

103034 @ 모헤제완지.('모헤제완지'.)

103034 # 모헤제완지라고 줄이 질게 안 벋어, 우트레만 꾸짝 올라, 메기 쉬와 이거.('모헤제완지'라고 줄이 길게 안 벋어, 위로만 곧게 올라, 매기 쉬워 이거.)

103034 @ 그건 메기 쉬와?(그건 매기 쉬워?)

103034 # 메기 쉬와.(매기 쉬워.)

103034 @ 모헤제완지.('모헤제완지'.)

103034 # 모헤제완지라고 이름이 틀려.('모헤제완지'라고 이름이 달라.)

103034 @ 이름이 틀리구나예.(이름이 다르군요.)

103034 # 이제 줄 벋는 건 츰제완지라고.(이제 줄 벋는 건 '츰제완지'라고.)

103034 @ 아, 츰제완지!(아, '츰제완지'!)

103034 # 그건 이제 하늬ᄇᆞ름만 나가민 어디 십디가 줄 벋으멍 ᄃᆞᆯ아, 제완지가.(그건 이제 하늬바람만 나가면 어디 있습니까 줄 벋으면서 달려, 바랭이가.)

103034 @ 줄 벋는 거 이건 위로 크는 거.(줄 벋는 거 이건 위로 크는 거.)

103034 # 모헤제완지엔 헌 건이 굽뎅이가 뻘껑뻘겅 꼬짝꼬짝 올라가. 거민 그거 막 메기 쉬와, 그거는 씨 주우기가 쉽는디 이놈의 줄벋는 제완진 ᄒᆞ나라도 떨어지민 조 강알에 보민 이레저레 막 줄 벋으멍 이 하늬 나가민 막 이건 이제사 줄 벋으멍 크는 거, 그거.('모헤제완지'라고 한 건 굽이 불긋불긋 곧게 곧게 올라가. 그러면 그거 아주 매기 쉬워, 그거는 씨 줍기가 쉬운데 이놈의 줄 벋는 바랭인 하나라도 떨어지면 조 아래에 보면 이리저리 막 줄 벋으면서 이 하늬바람 나가면 막 이건 이제야 줄 벋으면서 크는 거, 그거.)

103034 @ 또 다른 쒜비늠 이런 것도 이수게.(또 다른 쇠비름 이런 것도 있잖아요.)

103034 # 쒜비늠은이 생전 안 죽는 거여, 쒜비늠허고 빈네풀허고는 이건 담앙 무신 비닐에나 담앙 탁 어퍼놧당 쎅임벳긔 절대 벳듸 메 놩 죽질 안허는 거여.(쇠비름은 생전 안 죽는 거야, 쇠비름하고 아욱메풀하고는 이건 담아서 무슨 비닐에나 담아서 탁 엎어 놨다가 썩기밖에 절대 볕에 매 놔서 죽질 않는 거야.)

103034 @ 맹 영 놔두민 또 살아불어?(매어서 이렇게 놔두면 또 살아버려?)

103034 # 안 죽어, 안 죽어. 그냥 살아. 암만 영헌 돌 위에 놔둬도이 안 죽엉그대로 살아와. 쒜비늠이엔 헌 건, 이거 야가지 질긴 거. 겨난이 씨 지우지 못허여. 겨난 게나저나 나민 비니루 까풀에 담앙 어퍼놔둬야 뒈여, 어퍼야. 그전이 이 비료 까풀 안 난 때는 베멍 치와, 그걸. 치와 어디 흔펜 구석에 강 놔, 데메여. 경헤야 썩주, 경 안허민 안 뒈여. 고니풀허고 이 쒜비늠은 영 생전 죽지 안허는 거.(안 죽어, 안 죽어. 그냥 살아. 아

무리 이런 돌 위에 놔둬도 안 죽어서 그대로 살아. 쇠비름이라고 한 건, 이건 목이 질긴 거. 그러니까 씨 없애지 못해. 그러니까 그러나 저러나 나면 비닐 꺼풀에 담아서 엎어 놔둬야 돼, 엎어야. 그전에 이 비료 꺼풀 안 난 때는 베면서 치워, 그걸. 치워 어디 한편 구석에 가서 놔, 쌓아. 그래야 썩지, 그렇지 않으면 안 돼. 닭의장풀하고 이 쇠비름은 영 절대 죽지 않는 거.)

103034 @ 고니풀?(닭의장풀?)

103034 # 고니풀이엔 헌 거 잇어, 고니풀도 이거 안 죽는 거라이, 흔 덜을 이 돌 위에 놔둬도 안 죽어, 고니풀허고 쒜비름허고.(닭의장풀이라고 한 거 있어, 닭의장풀도 이거 안 죽는 거야, 한 달을 이 돌 위에 놔둬도 안 죽어, 닭의장풀하고 쇠비름하고.)

103034 @ 고니풀허고 쒜비름허고.(닭의장풀하고 쇠비름하고.)

103034 # 절대 죽지 안허영 건 그자 어디 모다놩 돌로 지둘라도 죽지 안허여, 섹임벳긔.(절대 죽지 않아 그건 그저 어디 모아놔서 돌로 지질러도 죽지 않아, 썩이기밖에.)

103034 @ 그것도 여름 검질이지예?(그것도 여름 김이지요?)

103034 # 여름 검질, 여름 검질이주. 겨울 검질은 그런 거 엇어. 겨울 검질은 난다허는 거 보리왓디 난다 허는 거 저거 고치풀엔 헌 거, 벌겅헌 풀 잇어.(여름 김, 여름 김이지. 겨울 김은 그런 거 없어. 겨울 김은 난다하는 거 보리밭에 난다 하는 거 저거 여뀌라고 한 거, 벌건 풀 있어.)

103034 @ 고치풀?(여뀌?)

103034 # 응, 고치풀 벌겅헌 거, 거 보리 안 뒈민 막 그런 풀만 과제기 나. 벌겅허여, 여름도 열민 벌겅허고 그거 겨울풀은 그거라, 그것가 나고 대우리 보리왓듸. (응, 여뀌 벌건 거, 그거 보리 안 되면 막 그런 풀만 '과제기' 나. 벌개, 열매도 열면 벌겋고 그거 겨울 풀은 그거야, 그것이 나고 귀리 보리밭에.)

103034 @ 보리왓듸 대우리허고예.(보리밭에 귀리하고요.)

103034 # 대우리허고 그거.(귀리하고 그거.)

103034 @ 그거고.(그거고.)

103034 # 드릇ᄂᆞ물 그자 그거.(들나물 그저 그거.)

103035 @ 드릇ᄂᆞ물 아까예, 그거. 게민 이제 콩 다 익언.(들나물 아까요, 그거. 그러면 이제 콩 다 익었어.)

103035 # 콩 다 익어근에.(콩 다 익어서.)

103035 @ 거믄 어떵헐 거, 콩 다 익으민?(그러면 어떻게 할 거, 콩 다 익으면?)

103035 # 콩은, 콩도 강 꺼거 이젠. 이건이 영 호미 대영 호미 대도 영 비진 못헤 영 호미 대민 딱 이게 자치민 이게 꺼거져. 콩은 딱딱 꺼끄민 그것도 무꺼당 집이서 두드려.(콩은, 콩도 가서 꺾어 이젠. 이건 이렇게 낫 대어서 낫 대도 이렇게 베진 못해 이렇게 낫 대면 딱 이게 젖히면 이제 꺾어져. 콩은 딱딱 꺾으면 그것도 묶어다가 집에서 두드려.)

103035 @ 게난 콩은 콩대, 콩 그것만 따는 게 아니고 밋으로 호미로 베는 거, 이거는?(그러니까 콩은 콩대, 콩 그것만 따는 게 아니고 밑으로 호미로 베는 거, 이거는?)

103035 # 아, 비는 거 열매가 이 위에 열고이 아랜 콩대가 요만이 올라오민 이디 대가 잇어.(아, 베는 거 열매가 이 위에 열고 아래는 콩대가 요만큼 올라오면 여기 대가 있어.)

103035 @ 그거 다 베는 거?(그거 다 베는 거?)

103035 # 게난 호미로 비어.(그러니까 낫으로 베.)

103035 @ 다 비엉?(다 베어서?)

103035 # 비엉 무꺼근엥에 집이 시꺼당 엿날엔 하영 안허는 거난 집이 시꺼당 마당에서 두드려 것도.(베어서 묶어서 집에 실어다가 옛날엔 많이 안하는 거니까 집에 실어다가 마당에서 두드려 그것도.)

103035 @ 건 안 ᄆᆞᆯ려?(그건 안 말려?)

103035 # 무사 안 ᄆᆞᆯ려.(왜 안 말려.)

103035 @ 어디서 ᄆᆞᆯ려? 집이 가져왕?(어디서 말려? 집에 가져와서?)

103035 # 아, 집이 가졍오나 밧듸서 비어놩 벳 나민 ᄒᆞᆫ 이틀 벳 마치민 바삭이 ᄆᆞᆯ라이. 겨민 그거 헤당 집이서 비 맞게 말앙 데멧당 조 ᄀᆞ슬 ᄆᆞᆫ딱 헤놓고 ᄆᆞᆫ 헤놩 그걸 또 도께로 두드려, 두드려근에 씨 갈라사 이제 ᄒᆞ쏠씩, ᄒᆞ쏠 시멍 말멍 새ᄃᆞᆯ 나가민 솖아 콩을. 솖아사 미릇 헤, 묵은헤 장 듬을 거 아니?(아, 집에 가져오나 밭에서 베어놔서 볕 나면 한 이틀 볕 맞히면 바싹 말라. 그러면 그거 해다가 집에서 비 맞게 말고 쌓았다가 조 수확 모두 해놓고 모두 해놔서 그걸 또 도리깨로 두드려, 두드려서 씨 갈라야 이제 조금씩, 조금 있으면서 말면서 새달 나가면 삶아, 콩을. 삶아야 미리 해, 묵은해 장 담글 거 아니?)

103035 @ 장 담그는 건 ᄒᆞ끔 잇당허고예, 보리 그거 영 타지 안허고 밑으로 영 다 베엉 밧듸서 무껑 집이 실렁 오는 거라예.(장 담그는 건 조금 이따가 하고요, 보리 그거 이렇게 따지 않고 밑으로 이렇게 다 베어서 밭에서 묶어서 집에 실어 오는 거예요.)

103035 # 집이 실러다근에 엿날엔.(집에 실어다가 옛날엔.)

103035 @ 이것도 홀테로 허여?(이것도 홅이로 해?)

103035 # 홀테로 홀트는 거라.(홅이로 홅는 거야.)

103035 @ 아, 보리. 콩도?(아, 보리. 콩도?)

103035 # 콩은 아니고, 콩은 두드리고.(콩은 아니고, 콩은 두드리고.)

103035 @ 그냥 두드리고.(그냥 두드리고.)

103035 # 낭차 놩 두드려.(나무째 놔서 두드려.)

103035 @ 거믄 탁탁 떨어져예.(그러면 탁탁 떨어져요.)

103035 # 탁탁 떨어져, 게민 두드려 가민 콩, 이 딱딱 깨어지멍 깍지가 딱딱 벌러지멍 ᄆᆞᆫ 털어져, 털어지민 그거 씨 갈라근에 그냥 ᄇᆞ름에 놩 잘잘잘 불려가민 깍지메기는 저레 불려 불고 여물은 이레 잇어.(탁탁 떨어져, 그러면 두드려 가면 콩, 이 딱딱 깨어지면서 깍지가 딱딱 쪼개지면서 모두 떨어져, 떨어지면 그거 씨 갈라서 그냥 바람에 놔서 잘잘 불려 가면 깍지는 저리 불려 버리고 여물은 이리 있어.)

103035 @ 깍지메기는 뭐?(‘깍지메기’는 뭐?)

103035 # 거 콩깍지게.(그거 콩깍지.)

103035 @ 아, 콩깍지, 그게 깍지메기?(아, 콩깍지, 그게 '깍지메기'?)

103035 # 응, 깍지메기.(응, '깍지메기'.)

103035 @ 깍지메기.('깍지메기'.)

103035 # 콩깍지엔도 허고 콩깍지메기엔도 허고 그자.(콩깍지라고도 하고 '콩깍지메기'라고도 하고 그저.)

103035 @ 옛날 골아난 말.(옛날 했던 말.)

103035 # 엿날 골은 말이 그거라.(옛날 했던 말이 그거야.)

103035 @ 콩깍지메기.('콩깍지메기'.)

103035 # 응, 응. 깍지메기덜 불려사 뒐 거 아냐? 영헹 ᄇᆞ름에, ᄇᆞ름에 놩 영 불려사 뒈여. 솔박으로 거령 영 그것이 콩은 ᄇᆞ름 쎄사 잘잘잘 불려 가주.(응, 응. 깍지들 불려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바람에, 바람에 놔서 이렇게 불려야 돼. '솔박'으로 떠서 이렇게 그것이 콩은 바람 세어야 잘잘 날아 가지.)

103035 @ 무거워부난.(무거워버리니까.)

103035 # 응, 무거워부난 경 안 허민 그놈이 그 껍질이 불리질 안허여, ᄇᆞ름 쎄사.(응, 무거워버리니까 그렇게 안 하면 그놈이 그 껍질이 불리지 않아, 바람 세어야.)

103037 @ 그 깍지는 무신거험니까?(그 깍지는 뭐합니까?)

103037 # 그것도 좀진 거는 불 살르고 홁은 거 때여, 불 때여. 솟강알에.(그것도 자잘한 거는 불사르고 굵은 거는 때, 불 때. 아궁이에.)

103037 @ 불 때여, 그냥?(불 때, 그냥?)

103037 # 불 때여.(불 때.)

103037 @ 건 쉐 안 멕여?(그건 소 안 먹여?)

103037 # 쉐 안 멕여, 쉐 안 멕영 그자 좀진 건 헤당 굴묵, 그거 때고 홁은 건 부엌에서 불 솜고.(소 안 먹여, 소 안 먹여서 그저 자잘한 건 해다가 '굴묵', 그거 때고 굵은 건 부엌에서 불 때고.)

103037 @ 불 짓고, 그 콩대?(불 때고, 그 콩대?)

103037 # 콩대가 그거, 불 때는 게.(콩대가 그거, 불 때는 게.)

103037 @ 아, 불 때는 게, 콩대는 불 때고?(아, 불 때는 게, 콩대는 불 때고?)

103037 # 좀진 거 영 깍지메기는 굴묵 살르고.(자잘한 거 이렇게 깍지는 '굴묵' 사르고.)

103037 @ 굴묵 짓고.('굴묵' 때고.)

103035 @ 이거는 콩은 영 무끄젠 허민?(이거는 콩은 이렇게 묶으려고 하면?)

103035 # 그건 깨, 저 새 비어당 깨 틀어야.(그건 매끼, 저 띠 베어다가 매끼 틀어야.)

103035 @ 깨 틀어야 뒈어.(매끼 틀어야 돼.)

103035 # 그건 깨 틀어사 무꺼.(그건 매끼 틀어야 묶어.)

103035 @ 게난예 콩낭으로 무끄지 못허난예.(그러니까요 콩대로 묶지 못하니까요.)

103035 # 건 콩낭으로 절대 못 무끄지.(그건 콩대로 절대 못 묶지.)

103035 @ 게난 이것도 흔 바리민 얼만이라?(그러니까 이것도 한 바리면 얼마만큼이야?)

103035 # 콩도 석 단이 흔 바리.(콩도 석 단이 한 바리.)

103035 @ 아, 석 단이 흔 바리.(아, 석 단이 한 바리.)

103035 # 콩 이렇게 막 크게 무끈다. 석 단이 흔 바리.(콩 이렇게 막 크게 묶는다. 석 단이 한 바리.)

103035 @ 그니까 석 단이 흔 바리.(그러니까 석 단이 한 바리.)

103035 # 흔 짝에 석 단썩 시끄민.(한 쪽에 석 단씩 실으면.)

103035 @ 아, 여섯 단이 흔 바리.(아, 여섯 단이 한 바리.)

103035 # 응.(응.)

103035 @ 흔 짝에 석 단씩.(한 쪽에 석 단씩.)

103035 # 응, 경헹 흔 바리.(응, 그래서 한 바리.)

103038 @ 콩 농사헐 때 재미난 일이나 힘든 일이나 기억나는 거?(콩 농사할 때 재미있는 일이나 힘든 일이나 기억나는 거?)

103038 # 콩 헐 때 힘들고 아니 힘들고 헌 거 엇어. 꺼끌 때 그자 콩 거끌 때 그런 때 ᄒᆞ쏠 힘든 거, 힘든 거 아니엔 말은 못 허여. 콩 비어다 놩 두드릴 때도 힘들고 거끌 때도 힘들고.(콩 할 때 힘들고 안 힘들고 한 거 없어. 꺾을 때 그저 콩 꺾을 때 그런 때 조금 힘든 거, 힘든 거 아니라고 말은 못 해. 콩 베어다 놔서 두드릴 때도 힘들고 꺾을 때도 힘들고.)

103038 @ 콩 꺼끄는 게 밑으로 비는 거.(콩 꺾는 게 밑으로 베는 거?)

103038 # 영 호미헤영 영 심엉.(이렇게 호미해서 이렇게 잡아서.)

103038 @ 그걸 거끈덴 ᄀᆞᆫ는구나예.(그걸 꺾는다고 말하는군요.)

103038 # 콩은 영 거꺼져 비지 못허여. 호미 영 댕 영 눕지민 딱딱 거꺼져.(콩은 이렇게 꺾어져 베지 못해. 호미 이렇게 대어서 이렇게 눕히면 딱딱 꺾어져.)

103038 @ 거난.(그러니까.)

103038 # 콩 거끄는 거, 콩 거끄는 거, 콩 비는 거엔 말은 안허여. 우리 대정을 가보민 아이고 오늘은 콩 거끌 처리우다, 영허주. 콩 빈덴 말 안 ᄀᆞᆯ아. 콩 거끌 처리우다, 이건이 호미 댕 영 자치민 딱 거꺼져, 남뎅이가. 겨난 콩 거꺼.(콩 꺾는 거, 콩 꺾는 거, 콩 베는 거라고 말은 안 해. 우리 대정을 가보면 아이고 오늘은 콩 꺾을 차례입니다, 이렇게 하지. 콩 벤다고 말 안 해. 콩 꺾을 차례입니다, 이건 호미 대어서 이렇게 젖히면 딱 꺾어져, 나무가. 그러니까 콩 꺾어.)

103036 @ 게난 콩 꺼끄는 거예. 그믄 콩은 주로 무신거 무신거 헹 먹는 거꽈? 아까 장 담그고.(그러니까 콩 꺾는 거요. 그러면 콩은 주로 무엇 무엇 해서 먹는 겁니까?)

103036 # 장 담그고 두부헤 먹고.(장 담그고 두부해서 먹고.)

103036 @ 두부도 헤먹고.(두부도 해먹고.)

103036 # 콩ᄂᆞ물 놔 먹고.(콩나물 놔서 먹고.)

103036 @ 아, 콩나물도 헤먹고.(아, 콩나물도 해먹고.)

103036 # 그루후젠 몰라, 우리 헤 먹는 건 콩ᄂᆞ물, 두부, 뒌장 그거 헤 먹는 거.(그 후엔 몰라, 우리 해 먹는 건 콩나물, 두부, 된장 그거 해 먹는 거.)

103036 @ 콩ᄀᆞ루 ᄀᆞᆯ아근에.(콩가루 갈아서.)

103036 # 콩ᄀᆞ루 ᄀᆞᆯ아근에 콩죽 쒀 먹는 거, 그거, 콩죽 쒀 먹는 거.(콩가루 갈아서 콩죽 쑤어 먹는 거, 그거, 콩죽 쑤어 먹는 거.)

103036 @ 콩죽 쒀 먹고.(콩죽 쑤어 먹고.)

103036 # 그거 네 가지. 우리 허는 건 그거뿐.(그거 네 가지. 우리 하는 건 그거뿐.)

103036 @ 콩국도 끌려 먹지 안허여?(콩국도 끓여 먹지 않아?)

103036 # 콩국도 끌려 먹고, 콩죽도 쒀 먹고, 두부도 만들고, 콩 장도 담아먹고 그거.(콩국도 끓여 먹고, 콩죽도 쑤어 먹고, 두부도 만들고, 콩 장도 담가먹고.)

103036 @ 제일 큰 게 장 담그는 거.(제일 큰 게 장 담그는 거.)

103036 # 장 담그는 게 제일 우선이야.(장 담그는 게 제일 우선이야.)

103036 @ 게난예, 콩도 종류가 여러 개 잇지예.(그러니까요, 콩도 종류가 여러 개 있지요.)

103036 # 파란 콩, 또 팔월베[69]엔 헤연 거 그거 잇고 콩ᄂᆞ물 놔 먹는 즘진 거 잇고.(파란 콩, 또 '팔월베'라고 해서 그거, 그거 있고 콩나물 놔서 먹는 자잘한 거 있고.)

103036 @ 그거 무신 콩이엔 ᄀᆞᆯ아?(그거 무슨 콩이라고 말해?)

103036 # 저 그자 팔월베.(저 그저 '팔월베'.)

103036 @ 팔월베.('팔월베'.)

103036 # 콩ᄂᆞ물 놔 먹는 건 팔월베. 또 그냥 퍼렁헌 콩도 잇고 그건 장 둠아 먹는 거, 퍼렁헌 콩이나 노랑헌 콩이나 거 장 둠아 먹고, 콩ᄂᆞ물 놔 먹고 ᄒᆞ쏠 좀질다 허는 거뿐이주. 질다 허는 거 뿐이지, 콩ᄂᆞ물 놔 먹는 거 ᄒᆞ쏠 질다 허는 거뿐이주. 팔월베라고 그건 ᄒᆞ쏠 일러이. 그건 이른 콩이여 일칙허는 거. 이 퍼렁헌 거 이제 이로후제 허는 거고 팔월베는 일찍 허는 게 팔월베. 게민 그 콩은 콩방울이 즘질아, 질민 그걸로 콩ᄂᆞ물 대충 콩ᄂᆞ물 놔 먹어.(콩나물 놔서 먹는 건 '팔월베'. 또 그냥 퍼런 콩도 있고 그건 장 담가 먹는 거, 퍼런 콩이나 노란 콩이나 그거 장 담가 먹고, 콩나물 놔서 먹고 조금 자잘하다 하는 거뿐이지. 잘다 하는 거뿐이지, 콩나물 놔 먹는 거 조금 잘다 하는 거뿐이지. '팔월베'라고 그건 조금 일러. 그건 이른 콩이야, 일찍하는 거. 이 퍼런 거 이제 앞으로 하는 거고 '팔월베'는 일찍 하는 게 '팔월베'. 그러면 그 콩은 콩 방울이 잘아, 잘면 그걸로 콩나물 대충 콩나물 놔서 먹어.)

103036 @ 아, 콩ᄂᆞ물 놔 먹어. (콩나물 놔서 먹어.)

103036 # 대충 콩ᄂᆞ물 놔 먹고, 걸로 장도 둠아 먹어. 솖아 장도 담고 허는디 장맛이 이 푸린 콩만이 맛이 엇다허는 거라, 그거. 푸린 콩은 장을 둠으민 솖앙 영 데겨 보면은 이 푸린 콩은 끈닥헌 징이 잇고 이 팔월베는 조팝 모냥으로 케삭케삭허여. 게민 맛이 엇다는 거여.(대충 콩나물 놔서 먹고, 그걸로 장도 담가 먹어. 삶아 장도 담그고

69) '팔월베'는 콩의 한 종류다.

하는데 장맛이 푸른 콩만큼 맛이 없다하는 거야, 그거. 푸른 콩은 장을 담그면 삶아서 이렇게 문대어 보면 이 푸른 콩은 끈적한 기운이 있고 이 '팔월베'는 조밥 모양으로 '케삭케삭'해. 그러면 맛이 없다는 거야.)

103036 @ 콩은 두 종류벳긔 엇수과?(콩은 두 종류밖에 없습니까?)

103036 # 두 종류벳긔 엇어. 이제 약콩이엔 헌 콩 까망한 콩 잇네.(두 종류밖에 없어. 이제 약콩이라고 한 콩 까만 콩 있어.)

103036 @ 이제는.(이제는.)

103036 # 이젠 그거, 그거, 그거 나난 헷주. 그전이는 이 제주도에서는 푸린 콩허고 그 팔월베 노란 거 허고.(이젠 그거, 그거, 그거 나니까 했지. 그전에는 이 제주도에서 푸른 콩하고 그 '팔월베' 노란 거하고.)

103036 @ 어제 오다근에 그거 담에 막 헌 거.(어제 오다가 그거 담에 막 한 거.)

103036 # 건 돔비 밥에 서꺼 먹는 거.(그건 동부 밥에 섞어 먹는 거.)

103036 @ 그것도 콩 아니?(그것도 콩 아니?)

103036 # 것도 콩 종륜, 콩 종륜디 돔비엔 곧주, 콩이엔 안 골아.(그것도 콩 종류는, 콩 종류인데 동부라고 말하지, 콩이라고 안 말해.)

103036 @ 돔비엔 곧주, 콩이엔 안 골아.(동부라고 말하지, 콩이라고 안 말해.)

103036 # 콩이엔 안 골아. 그건 돔비.(콩이라고 안 말해. 그건 동부.)

103036 @ 건 돔비.(그건 동부.)

103036 # 또 이젠 정월 낭 싱거근엥에 이 봄이 헤먹는 거. 시장에 강 보민 잇지 두불콩이라고 벌경헌 거 그거, 그건 두불콩, 두불콩 헤여.(또 이젠 정월 나서 심어서 이 봄에 해 먹는 거. 시장에 가서 보면 있지 두불콩이라고 벌건 거 그거, 그건 두불콩, 두불콩 해.)

103036 @ 그건 밥에 놩 먹는 거?(그건 밥에 놔서 먹는 거?)

103036 # 밥에 놩 먹는 거 그건. 건 밥에만 놔 먹주 뭐. 솖앙 떡 쉬나 허고 밥에 놩.(밥에 놔서 먹는 거 그건. 그건 밥에만 놔서 먹지 뭐. 삶아서 떡소나 하고 밥에 놔서.)

103036 @ 떡 쉬에 놔?(떡 소에 놔?)

103036 # 응, 떡 쉬에도 물령 솖아근에 골민 떡쉬에도 놓고 떡쉬도 허고 밥에 놔 먹고 그건, 경허는 거.(응, 떡소에도 말려서 삶아서 갈면 떡소에도 놓고 떡소도 하고 밥에 놔 먹고 그건, 그렇게 하는 거.)

103036 @ 둠비도 마찬가지고? 둠비는 밥에만 놩 먹어?(동부도 마찬가지고? 동부는 밥에만 놔서 먹어?)

103036 # 두부?(두부?)

103036 @ 아니, 아니.(아니, 아니.)

103036 # 돔비. 밥에만 놔, 밥에도 놓고 것도 떡쉬도 허여.(동부. 밥에만 놔, 밥에도 놓고 그것도 떡소도 해.)

103036 @ 아, 것도 떡쉬 헤져? (아, 그것도 떡소 할 수 있어?)

103036 # 응, 떡쉬도 헤여.(응, 떡소도 해.)

103036 @ 거난 장 담그는 것만 안 뒈는 거구나예?(그러니까 장 담그는 것만 안 되는 거군요?)

103036 # 이 장 듬아 먹는 콩만 이제 그거 장 듬곡 두부허고 콩ᄂᆞ물 그거, 그거허곡 이제 돔비광 두불콩은 떡쉬도 허곡 밥에도 놔 먹고 경허는 거. 죽도 끌려 먹고.(이 장 담가 먹는 콩만 이제 그거 장 담그고 두부하고 콩나물 그거, 그거 하고 이제 동부와 두불콩은 떡고물도 하고 밥에도 놔서 먹고 그렇게 하는 거. 죽도 끓여 먹고.)

103036 @ 죽도 끌려 먹고예.(죽도 끓여서 먹고요.)

밭벼농사

103039 @ 이젠 산뒤 헤 보게예. 산뒤, 산뒤는 허젠 허민 미릇 준비헤야 뒈는 거 이수과?(이젠 밭벼 해 봐요. 밭벼, 밭벼는 하려고 하면 미리 준비해야 되는 거 있습니까?)

103039 # 미릇 준비헤야 뒈는 거 씨나벳긔 더 잇어? 준비헐 거 엇어. ᄒᆞ쏠 인찍 ᄀᆞᆯ아, 그게. 보리 ᄀᆞ슬 끗나 가민 우선 늦은 보리 허기 전에부터 이건 ᄆᆞᆫ저 ᄀᆞᆯ아이. ᄒᆞᆫ 다른 농서로 허민 ᄒᆞᆫ 스무날 차이 잇게 ᄀᆞᆯ아.(미리 준비해야 되는 거 씨나밖에 더 있어? 준비할 거 없어. 조금 일찍 갈아, 그게. 보리 수확 끝나 가면 우선 늦은 보리 하기 전에부터 이건 먼저 갈아.)

103040 @ 조 허는 거 보다?(조 하는 거 보다?)

103040 # 응, 젤 인찍. 여름 농서 중에는.(응, 젤 일찍. 여름 농사 중에는.)

103040 @ 산뒤가?(밭벼가?)

103040 # 그 산뒤가 제일 인찍 갈아.(그 밭벼가 제일 일찍 갈아.)

103040 @ 그건 어떵헹 가는 거꽈?(그건 어떻게 해서 가는 겁니까?)

103040 # 것도 씨 삐여.(그것도 씨 뿌려.)

103040 @ 씨 삐여?(씨 뿌려?)

103040 # 응, 씨 삐여근엥에 ᄀᆞᆯ아.(응, 씨 뿌려서 갈아.)

103040 @ 아, 밧듸 강 씨 삐영 쉐로 밧 갈앙 그민 끗?(아, 밭에 가서 씨 뿌려서 소로 밭 갈아서 그러면 끝?)

103040 # 끗, 것도.(끝, 그것도.)

103040 @ 영 더퍼주거나 영 안헤도 뒈어?(이렇게 덮어주거나 이렇게 안 해도 돼?)

103040 # 안 헤여. 건 더프나마나 그자 씨 작작 삐여근에 밧 초불 ᄀᆞᆯ아놧다근에 ᄒᆞᆫ불 갈아이. 먼저 갈앙 그냥 놧다근에 그 위에 강 씨 삐영 두불 갈아불민 걸로 막아져 불민 끗.(안 해. 그건 덮으나마나 그저 씨 쫙쫙 뿌려서 밭 초벌 갈아놨다가 한벌 갈아. 먼저 갈아서 그냥 놨다가 그 위에 가서 씨 뿌려서 두벌 갈아버리면 그걸로 막아 버리면 끝.)

103040 @ 아, ᄒᆞᆫ불 ᄀᆞᆯ아놩 씨 삐영 두불 가는 거?(아, 한벌 갈아놔서 씨 뿌려서 두벌 가는 거?)

103040 # 두불 가는 거. 그거 경 헤불민 걸로 끗.(두벌 가는 거. 그걸 그렇게 해버리면 그걸로 끝.)

103040 @ 아까 산뒤 말고 다른 것도 경헙니까? 산뒤만 두불 가는 거꽈?(아까 밭벼 말고 다른 것도 그렇게 합니까? 밭벼만 두벌 가는 겁니까?)

103040 # 산뒤만 두불 갈고, 조도이 조 불리는 것도 초불 갈앙 잇당 두불 갈멍 씨 삐멍 그건 ᄆᆞ쉬로 다려, 다려줘야지, 조는.(밭벼만 두벌 갈고, 조도 조 밟는 것도 초벌 갈아서 있다가 두벌 갈면서 씨 뿌리면서 그건 마소로 다져, 다져줘야지, 조는.)

103040 @ 조는, 응. 게난 조도 두 번은, 두 번 가는 거구나예?(조는, 응. 그러니까 조도 두 번은, 두 번 가는 거군요?)

103040 # 두 번 가는 거.(두 번 가는 거.)

103040 @ 게믄 밧 갈앙.(그러면 밭 갈아서.)

103040 # 가는 건 두 번. 산뒤도 두 번 갈고, 조도 두 번 갈고.(가는 건 두 번. 밭벼도 두 번 갈고, 조도 두 번 갈고.)

103041 @ 게민 산뒤밧듸도 걸름 헤사 헤여?(그러면 밭벼밭도 거름 해야 해?)

103041 # 요즘은 비료 나난 무신 걸름이 엇어.(요즘은 비료 나니까 무슨 거름이 없어.)

103041 @ 옛날에, 옛날에.(옛날에, 옛날에.)

103041 # 옛날에 무신 걸름이 잇어? 엇어.(옛날에 무슨 거름이 있어? 없어.)

103041 @ 걸름 안 헤여?(거름 안 해?)

103041 # 걸름 뭐 걸름 허젠 허민 헐 게 잇어야주.(거름 뭐 거름 하려고 하면 할 게 있어야지.)

103041 @ 헐 게 잇어사주예?(할 게 있어야지요?)

103041 # 아무 걸름도 엇지. 뭐가 걸름 잇나 그 보리는 씨만 뿌리민 안 뒈니까 그 걸름 모두와 가지고 통시에 놩 그거 내여근에 것에, 보리씨만 뿌리면 안 뒈니까 그거는. 그것이 이제 완전 비료 종류라 그것이 경허듯이 헤 먹는 거.(아무 거름도 없지. 뭐가 거름 있나 그 보리는 씨만 뿌리면 안 되니까 그 거름 모아 가지고 돼지우리에 놔서 그거 내어서 그것에, 보리씨만 뿌리면 안 되니까 그거는. 그것이 이제 완전 비료 종류야 그것이 그렇게 하듯이 해 먹는 거.)

103041 @ 그거 무사 오줌도 오줌항에 담앗당 것도 걸름 헌덴 헨게마는.(그거 왜 오줌도 오줌항아리에 담았다가 그것도 거름 한다고 하던데마는.)

103041 # 그것도 보리왓듸 강 주어이, 보리왓듸만 강 주어.(그것도 보리밭에 가서 줘, 보리밭에만 가서 줘.)

103041 @ 보리왓듸만 걸름허는 거구나예.(보리밭에만 거름하는 거군요.)

103041 # 보리왓듸허고 이제 이 ᄂᆞ물팟듸.(보리밭하고 이제 이 나물밭에.)

103041 @ ᄂᆞ물팟듸.(나물밭에.)

103041 # 엿날에 김치헤 먹젠 허민 비료가 엇이난 그거 헤당 줘. 그것이 걸름이라 ᄂᆞ물팟듸, 보리밧듸.(옛날에 김치해 먹으려고 하면 비료가 없으니까 그거 해다 줘. 그것

이 거름이야 나물밭에, 보리밭에.)

103041 @ 산뒤밧듸도 걸름은 엇어예?(밭벼밭에도 거름은 없어요?)

103041 # 엇어. 요새 비료 나난 그자 비료 작작 삐엄주. 엿날엔 비료 엇인 땐.(없어. 요새 비료 나니까 그저 비료 쫙쫙 뿌리고 있지. 옛날엔 비료 없을 땐.)

103041 @ 게난.(그러니까.)

103041 # 보리밧듸허고 ᄂᆞ물팟듸나 오줌 주주. 보리, 아무 걸름도 엇인 거, 조도 걸름 엇고. 새 비료 나난.(보리밭하고 나물밭에나 오줌 주지. 보리, 아무 거름도 없는 거, 조도 거름 없고. 요새 비료 나니까.)

103044 @ 그믄 산뒤밧듸 나는 검질은?(그러면 밭벼밭에 나는 김은?)

103044 # 산뒤밧듸 나는 검질은 조밧듸 검질이나 마찬가지.(밭벼밭에 나는 김은 조밭에 김이나 마찬가지.)

103044 @ 마찬가지.(마찬가지.)

103044 # 응, 마찬가지.(응, 마찬가지.)

103044 @ 여름 검질이나 다 똑ᄀᆞ테.(여름 김이나 다 똑같아.)

103043 @ 산뒤밧듸 검질은 멧 번이나 메삽니까?(밭벼밭에 김은 몇 번이나 매야합니까?)

103043 # 세 번 메야 뒈어.(세 번 매야 돼.)

103043 @ 아, 이건 세 번이나 메사허여?(아, 이건 세 번이나 매야해?)

103043 # 인찍 갈아부난 인찍 갈아부난 조 불리기 전에 산뒤가 낭 뽀쪽뽀쪽 낭 요만썩 커가민 우선 검질메여 가멍 조도 불려 가멍. 경 헤가멍 조밧듸 메 가민 또ᄀᆞ치 두불 메여, 세불 메여.(일찍 갈아버리니까 일찍 갈아버리니까 조 밟기 전에 밭벼가 나서 뾰족뾰족 나서 요만큼씩 커가면 우선 김매어 가면서 조도 밟아 가면서. 그렇게 해 가면서 조밭에 매어 가면 또 같이 두벌 매, 세벌 매.)

103043 @ 세불이나 메야 뒈어?(세벌이나 매야 돼?)

103043 # 응, 검질 짓으민[70] 세불 검질 엇인 밧딘 두 번. 이거 산뒤엔 헌 것도이 제법 손 하영 들어.(응, 김 무성하면 세벌 김 없는 밭엔 두 번. 이거 밭벼라고 한 것도 제법 손 많이 가.)

103043 @ 게난 손 하영 드는 거여예.(그러니까 손 많이 가는 거네요.)

103043 # 세 번 메줘야 뒈고.(세 번 매줘야 되고.)

103045 @ 응. 게민 이제 다 익으민 이것도 베어살 거 아니예?(응. 그러면 이제 다 익으면 이것도 베어야할 거 아니에요?)

103045 # 이것도 비어사 호미로.(이것도 베어야 낫으로.)

103045 @ 호미로예?(낫으로요?)

103045 # 응.(응.)

103045 @ 베엉 그다음엔?(베어서 그다음엔?)

103045 # 그다음엔, 이것도 산뒤가 이제 노프면은 그냥 그걸로 무끄고 산뒤가 어디

70) '짓다'는 나무나 풀 따위가 매우 무성하게 나다는 뜻이다.

저 자갈 한 밧듸나 영 ᄇᆞ른 밧듸 허민 요만썩 줄민 다른 거 헤당 깨 틀엉 무꺼, 영 진 밧듸는.(그다음엔, 이것도 밭벼가 이제 높으면 그냥 그걸로 묶고 밭벼가 어디 저 자갈 많은 밭이나 이렇게 'ᄇᆞ른' 밭에 하면 요만큼씩 잘면 다른 거 해다가 매끼 틀어서 묶어, 이렇게 진 밭에는.)

103045 @ 그걸로 그냥예.(그걸로 그냥요.)

103045 # 그걸로 그냥 무끄고. 이제 나룩 비는 거 봐. 나룩도 그걸로 비어근에 그냥 헹 무끄잖아, 그추룩 허는 거.(그걸로 그냥 묶고. 이제 벼 베는 거 봐. 벼도 그걸로 베어서 그냥 해서 묶잖아, 그렇게 하는 거.)

103045 @ 게민 그것도 이제 집이 시껑와살 거 아니?(그러면 그것도 이제 집에 실어와야 할 거 아니?)

103045 # 집이 다 시꺼와야.(집에 다 실어와야.)

103045 @ 밧듸서 저 도께질허는 건 아니지예?(밭에서 저 도리깨질하는 건 아니지요?)

103067 # 모믈.(메밀.)

103067 @ 메밀은 밧듸서 도께질허여?(메밀은 밭에서 도리깨질해?)

103067 # 그 엿날에 멍석이엔 허민 알 건가?(그 옛날에 멍석이라고 하면 알 건가?)

103067 @ 예.(예.)

103067 # 멍석 ᄒᆞᆫ 여남은 개 아져당 탁 펴놔근에 집이 못 시꺼오민 ᄒᆞ쏠허민 모믈 마당질 감저허민 놉덜 막 하영 빌어놩 ᄒᆞᆫ 밧듸 서이썩 세와놔근엥에. 서이썩이민 양펜이 ᄋᆞ섯 사름 아니?(멍석 한 여남은 개 가져다가 탁 펴놔서 집에 못 실어오면 조금하면 메밀 마당질 감자하면 놉들 아주 많이 빌어서 한 군데 세 명씩 세워놔서. 세 명씩이면 양편에 여섯 사람 아니?)

103067 @ 예.(예.)

103067 # 게민 일로 줍아 놓고 일로 줍아 놓고. 모믈은 처암인 탁 단 풀어놩 헤놩 그다음인 일로도 줍아놓고 절로도 줍아놓고 모믈단 탁 풀어놩 줍으멍 데껴사 헤여. 탁 풀어놓지 못허영. 게난 모믈로 안아당 탁 놔근엥에 쪼끔쪼끔 줍으멍 영영 내리민 그거 보멍 도께질헤영. 이땅 하영 허는 사름은 시꺼오지 못허민 밧듸 멍석 시껑 가근에 놉 여라이 헹 강 두드려와, 모믈 하영 간 사름은.(그러면 이리로 집어 놓고 이리로 집어 놓고. 메밀은 처음엔 탁 단 풀어놔서 해놓고 그다음엔 이리로도 집어놓고 저리로도 집어놓고 메밀 단 탁 불어놔서 집으면서 던져야 해. 탁 풀어놓지 못해서. 그러니까 메밀로 안아다가 탁 놔서 조금조금 집으면서 이렇게 이렇게 내리면 그거 보면서 도리깨질해서. 이따가 많이 하는 사람은 실어오지 못하면 밭에 멍석 실어 가서 놉 여러 명 해서 가서 두드려와, 메밀 많이 간 사람은.)

103067 @ 모믈만 경허고 나머진 다 집이 가졍왕 집이서 도께질허는 거구나예.(메밀만 그렇게 하고 나머진 다 집에 가져와서 집에서 도리깨질하는 거군요.)

103067 # 집이 잇어. 모믈은 모믈도 하지 안헌 건 집이 다 시꺼와. 다 시꺼오랑 집이서 두드리는디 밧 먼 디나 갈고 부제칩이덜 모믈 하영 간 집인.(집에 있어. 메밀은 메

밀도 많지 않은 건 집에 다 실어와. 다 실어와서 집에서 두드리는데 밭 먼 데나 갈고 부잣집에들 메밀 많이 간 집은.)

103067 @ 밧듸서.(밭에서.)

103067 # 요즘은 메탁기 시난 그걸로 탁탁 두드렴주마는 경 안허민 경허민 놉덜 빌어가민 흔 밧듸 서이썩, 서이썩 남저덜 서이썩 상 여섯 사름허고 줍아 놓는 사름 또시 허고.(요즘은 탈곡기 있으니까 그걸로 탁탁 두드리지마는 그렇게 안하면 그러면 놉들 빌려 가면 한 밭에 세 명씩, 세 명씩 남자들 세 명씩 서서 여섯 사람하고 집어 놓는 사람 또 하고.)

103067 @ 그 줍아놓는 사름 이름 무신거렌 곧는 거 엇수과?(그 집어놓는 사람 이름 뭐라고 말하는 거 없습니까?)

103067 # 곧는 거 엇어. 문 줍아 놓는 거 그자 날라 오멍 줍아 놓는 거. 데끼민 그자 태작기로 두드림만 헐 거.(말하는 거 없어. 모두 집어 놓는 거 그저 날라 오면서 집어 놓는 거. 던지면 그저 타작기로 두드리기만 할 거.)

103045 @ 게민 산뒤로 다시 돌아와서예, 산뒤 시껑 오젠 허민 이것도 산뒤는 흔 바리가 멧 뭇이라?(그러면 밭벼로 다시 돌아와서요, 밭벼 실어 오려고 하면 이것도 밭벼는 한 바리가 몇 뭇이야?)

103045 # 산뒤?(밭벼?)

103045 @ 산뒤가 산뒤 안 골앗어. 흔 바리가 멧 뭇이나 뒈는 건고?(밭벼가 밭벼 안 말했어. 한 바리가 몇 뭇이나 되는 건가?)

103045 # 산뒤도 하여튼 가을 봄 농서는 헤도 가을 농서는 다 으섯 뭇이라.(밭벼도 하여튼 가을 봄 농사는 해도 가을 농사는 다 여섯 뭇이야.)

103045 @ 이것도 요섯 뭇?(이것도 여섯 뭇?)

103045 # 모믈도 으섯 뭇, 산뒤도 으섯 뭇, 콩도 으섯 뭇, 조도 으섯 뭇이라.(메밀도 여섯 뭇, 밭벼도 여섯 뭇, 콩도 여섯 뭇, 조도 여섯 뭇이야.)

103045 @ 여섯 뭇이 흔 바리, 그믄 이것도 쉐 시껑오나 사름이 정오나 옛날엔 헷주예?(여섯 뭇이 한 바리, 그러면 이것도 소 실어오나 사람이 져오거나 옛날엔 했지요.)

103045 # 응, 응.(응, 응.)

103045 @ 겡 집이 앗앙왕 집이서 도께질을 허는 거예, 마당질예. 마당질이엔 헤마씨?(그래서 집에 가져와서 집에서 도리깨질을 하는 거요, 마당질요. 마당질이라고 해요?)

103045 # 산뒤도 그 산뒤엔 헌 것도 이 보리 홀트는 것에서 홀탕 두드려 산뒤도.(밭벼도 그 밭벼라고 한 것도 이 보리 홅는 것에서 홅아서 두드려 밭벼도.)

103045 @ 아, 산뒤도 홀탕 두드려?(아, 밭벼도 홅아서 두드려?)

103045 # 응, 산뒨 홀탕 두드려, 홀탕 두드려. 그냥 도께질로 안 허고 그건 홀타놩 두드려.(응, 밭변 홅아서 두드려, 홅아서 두드려. 그냥 도리깨질로 안 하고 그건 홅아놓고 두드려.)

103045 @ 그 홀트는 건 무신거엔 골아?(그 홅는 건 뭐라고 말해?)

103045 # 이디 보리 홀트는 거 엿날.(여기 보리 홅는 거 옛날.)

103045 @ 똑ᄀᆞ튼 거에?(똑같은 것에?)

103045 # 응, 똑ᄀᆞ튼 거에 그 보리클 그냥 그냥 산뒤도 그걸로.(응, 똑같은 것에 그냥 그냥 밭벼도 그걸로.)

103045 @ 산뒤클 따로 보리클 따로 안 헤?(밭벼 홅이 따로 보리 홅이 따로 안 해?)

103045 # 안 헤. 보리클이나 산뒤클이나 꼭ᄀᆞ타, 그걸로 홀타.(안 해. '보리클'이나 '산뒤클'이나 똑같아, 그걸로 홅어.)

103045 @ 홀타근에 그다음엔.(홅아서 그다음엔.)

103045 # 홀탕 두드려.(홅아서 두드려.)

103045 @ 그다음엔 마당질헹 도께로 두드려.(그다음엔 마당질해서 도리깨로 두드려.)

103045 # ᄀᆞ스락 잇어부난. 산뒤가 ᄀᆞ스락 잇잖아게.(까끄라기 있어버리니까. 밭벼가 까끄라기 있잖아.)

103045 @ 게민 두드려난 다음에 이제 산뒤쌀 허젠 허민, 쌀 멘들젠 허민 또 ᄆᆞᆯᄀᆞ레 갈 거 아니꽈예.(그러면 두드리고 난 다음에 이제 밭벼쌀 하려고 하면, 쌀 만들려고 하면 또 연자매 갈 거 아닙니까?)

103045 # ᄆᆞᆯᄀᆞ레 가사주.(연자매 가야지.)

103045 @ 그건 ᄆᆞᆯ려근에? 가져근에 강 ᄆᆞᆯᄀᆞ레 강.(그건 말려서? 가져서 가서 연자매 가서.)

103045 # 그건 ᄆᆞᆯ려근에 물 안 헤근에 그냥 가는 거.(그건 말려서 물 안 해서 그냥 가는 거.)

103045 @ 아, ᄆᆞᆯ린 다음에 그냥 가근에.(아, 말린 다음에 그냥 가서.)

103045 # 이건 그냥 ᄀᆞ는 거, 물 안 허고. 보리만 물 적졍 ᄀᆞ는 거.(이건 그냥 가는 거, 물 안 하고. 보리만 물 적셔서 가는 거.)

103045 @ 그믄 그디 가정가근에 이제 멧 번을 헤? 아까 세 번을 헤산다고?(그러면 거기 가져가서 이제 몇 번을 해? 아까 세 번을 해야 한다고?)

103045 # 세 번, 네 번이나 헴서사 네 번이나 ᄀᆞᆯ아야 그 쏠이 벌겅헌 쏠이 잇네이. 게민 네 번 ᄀᆞᆯ아 가야 그 뻘겅헌 복데기가 벗어 비어. 경 안허민 쏠이 벌겅허여. 게민 밥도 허민 벌겅허고 암만 씻어봐도 그 복데기 안 벗어불민 밥이 벌겅헤여이. 겨난 그 벌겅헌 복데기 벳기젠 허민 네불을 ᄀᆞᆯ아야 뒈어.(세 번, 네 번이나 하고 있어야 네 번이나 갈아야 그 쌀이 벌건 쌀이 있잖아. 그러면 네 번 갈아 가야 그 뻘건 껍데기가 벗겨져 버려. 그렇지 않으면 쌀이 벌게. 그러면 밥도 하면 벌겋고 암만 씻어봐도 그 껍데기 안 벗겨버리면 밥이 벌게. 그러니까 그 벌건 껍데기 벗기려고 하면 네벌을 갈아야 돼.)

103045 @ 게난 그디서 혼불 ᄀᆞᆯ앙 푸는체 헹 허당 또 ᄀᆞᆯ앙.(그러니까 거기서 초벌 갈아서 키 해서 하다가 또 갈아서.)

103045 # 또 푸는체로 펑 또 ᄀᆞᆯ곡 또 ᄀᆞᆯ곡.(또 키로 까불러서 또 갈고 또 갈고.)

103045 @ 하루 종일 안 뒈켜.(하루 종일 안 되겠네.)

103045 # 그거 네 번을 헤야 뒈어. 경 안 허민 쪼끔썩 허젠 허민 방에에 오랑 쪄.(그거 네 번을 해야 돼. 그렇게 안 하면 조금씩 하려고 하면 방아에 와서 찧어.)

103045 @ 아, ᄀᆞ레로 가는 게 아니고?(아, 맷돌로 가는 게 아니고?)

103045 # ᄀᆞ레에서 ᄀᆞᆯ다근에 ᄀᆞ레가 다른 사름덜 오랑 ᄀᆞᆯ젠 허민 그거 여라 불 ᄀᆞᆯ젠 허민 다른 사름도 헤야 뒐 거 아니? 경허민 세 불만 ᄀᆞᆯ민 집이 정 와, 오민 먹을만썩 방에서 쪄.(맷돌에서 갈다가 맷돌이 다른 사람들 와서 갈려고 하면 그거 여러 벌 갈려고 하면 다른 사람도 해야 될 거 아니?)

103045 @ 방에에서 쪄.(방아에서 찧어.)

103045 # 방에서 찟당 보민 그것이 흘민데기 벗어져.(방에서 찧다 보면 그것이 껍데기 벗겨져.)

103045 @ 이건 정ᄀᆞ레에서 ᄀᆞ는 거 아니?(이건 풀맷돌에서 가는 거 아니?)

103045 # 아니.(아니.)

103045 @ 이건 방에서 지는 거, 산뒤는?(이건 방아에서 찧는 거, 밭벼는?)

103045 # 산뒤는 쪔시면은 복대기가 벗어, 그거. 물 아이 놔근에.(밭벼는 찧고 있으면 껍데기가 벗겨져, 그거. 물 안 놔서.)

103045 @ 물 안 놩예.(물 안 놔서요.)

103045 # 겨도 붉은 복데기가 벗어.(그래도 붉은 껍데기가 벗겨져.)

103045 @ 그 ᄆᆞᆯᄀᆞ레에 갈레 가기 전이예 그 산뒤는 잘 ᄆᆞᆯ려사주예.(그 연자매에 갈러 가기 전에요 그 밭벼는 잘 말려야지요.)

103045 # ᄆᆞᆯ려사 잘 ᄆᆞᆯ리와사.(말려야 잘 말려야.)

103045 @ 밧 이디 마당에라도.(밭 여기 마당에라도.)

103045 # 마당에 널엉 멍석에 널엉 ᄆᆞᆯ리와사.(마당에 널어서 멍석에 널어서 말려야.)

103045 @ 응, 날래[71] 널엉예.(응, '날래' 널어서요.)

103045 # 벳이 바싹 나면은 이 ᄀᆞ슬벳디는 이틀만 ᄆᆞᆯ리민 바싹허고 겨울에 잇당 눈 오고 무시거헌 땐 아멩 벳 나봐도 동지섣ᄃᆞᆯ엔 사흘 ᄆᆞᆯ리고, 나흘 ᄆᆞᆯ리곡 헤사. 경헤사 허곡 이 ᄀᆞ슬벳딘 이틀만 ᄆᆞᆯ리민 바싹 ᄆᆞᆯ라. 지금 벳디는. 벳만 나민. 겨울에 눈 오고 무시거 오고 허민 해가 쫄르잖아이. 겨민 마당도 ᄆᆞᆯ라야 뒈고 겨민 널당 보민 시간이 엇어. ᄆᆞᆯ를 시간이. 겨난 사흘, 나흘 너는 거야. 경허는 거지, 지금은 벳만 나민게 해도 질고.(볕이 바싹 나면 이 가을볕에는 이틀만 말리면 바싹하고 겨울에 가 눈 오고 무엇한 땐 아무리 볕 나봐도 동지섣달엔 사흘 말리고, 나흘 말리고 해야. 그래야 하고 이 가을볕엔 이틀만 말리면 바싹 말라. 지금 볕에는. 볕만 나면. 겨울에 눈 오고 무엇 오고 하면 해가 짧잖아. 그러면 마당도 말라야 되고 그러면 널다 보면 시간이 없어. 마를 시간이. 그러니까 사흘, 나흘 너는 거야. 그러는 거지, 지금은 볕만 나면 해도 길고.)

103047 @ 게민 이 그 산뒤도 껍데기가 이실 거 아니꽈예? 건 뭐엔 ᄀᆞᆯ아 산뒤?(그러면 이 그 밭벼도 껍데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건 뭐라고 말해 밭벼?)

---

71) '날래'는 볕에 쬐기 위하여 멍석에 널어놓은 곡식이다.

103047 # 산뒤채.(밭벼 겨.)

103047 @ 산뒤채. 그다음엔 산뒤낭, 남.(밭벼 겨. 그다음엔 밭볏짚, 나무.)

103047 # 남은이 엿날 어른들은 그걸로 멍석 즛곡.(나무는 옛날 어른들 그걸로 멍석 겯고.)

103047 @ 산뒤남으로?(밭볏짚으로?)

103047 # 응, 산뒤남으로 멍석 즛고 멩탱이, 곡석 놓는 거 잇잖아, 그런 거.(응, 밭볏짚으로 멍석 겯고 멱서리, 곡식 놓는 거 있잖아, 그런 거.)

103047 @ 그런 거 산뒤남으로 짓는 거구나.(그런 거 밭볏짚으로 겯는 거구나.)

103047 # 산뒤남으로, 산뒤남으로 헹 그 노 꼬아근엥에 멍석도 즛고 이제 영헌디 멩탱이도 즛고.(밭볏짚으로, 밭볏짚으로 해서 그 노 꼬아서 멍석도 겯고 이제 이렇게 한데 멱서리도 겯고.)

103047 @ 멩탱이도 즛곡. 초신도?(멱서리도 겯고. 짚신도?)

103047 # 엿날에 신도 삼앙 신고.(옛날에 신도 삼아서 신고.)

103047 @ 그걸로 허는 거꽈? 산뒤로?(그걸로 하는 겁니까? 밭벼도?)

103047 # 산뒤 저 이 신 영 허젠 허민 요디 깍 잇잖아. 즘진 거. 그거는이 어웍이 부럭 사가는 거 잇잖아. 그거 뽑아당. 그거 막 세지 안헌 때 뽑아당 막 널엉 물리와이. 물리민 그 소곱에 박싹허게 나불민 그거 빼뒁 그것이 두 번차 껍질허영 즘질이 깽 바싹 물렷당 걸로 영영 ᄇᆞ벼. 노 꼬는 거ᄀᆞ추룩이 ᄇᆞ병 영 ᄇᆞ병 똑허게 오그렁 코 내엉 신 삼을 땐 영 놩 허민 신으로 노로 영 또 이걸 꿰어 와. 꿰어와근에 몽클락허민 남깨기 똑똑똑허게시리 신 뽄으로 요추룩허게 만들앙 또 요찍 두칙이 뽄으로 ᄒᆞ나 만들앙 또 뒤에 박곡 헹 영 놔근에 닥닥닥 두드리민 신이 과짝, 신이 과짝 사. 깍이 요것이 신깍, 신깍허주게.(밭벼 저 이 신 이렇게 하려고 하면 요기 총 있잖아. 자잘한 거. 그거는 억새 이 배동 서가는 거 있잖아. 그거 뽑아다가. 그거 아주 쇠지 않을 때 뽑아다가 막 널어서 말려. 말리면 그 속에 빽빽하게 나버리면 그거 빼두고 그것이 두 번째 껍질해서 자잘하게 쪼개서 바싹 말렸다가 그걸로 이렇게 이렇게 비벼. 노 꼬는 것처럼 비벼서 이렇게 비벼서 똑하게 오그려서 코 만들어서 신 삼을 땐 이렇게 놔서 하면 신으로 노로 이렇게 또 이걸 꿰어 와. 꿰어 와서 몽클하면 나무막대기 똑똑똑하게끔 신 본으로 요렇게 만들어서 또 요쪽 뒤축 본으로 하나 만들어서 또 뒤에 박고 해서 이렇게 놔서 닥닥닥 두드리면 신이 곧게, 신이 곧게 서. 총이 요것이 신총, 신총하지.)

103047 @ 예.(예.)

103047 # 그것이 과짝 사민 그땐 신허는 거.(그것이 곧게 서면 그땐 신하는 거.)

103047 @ 거난 그 어웍 속에 허는 거 ᄀᆞᆫ는 말은 엇수과?(그러니까 그 억새 속에 하는 거 하는 말 없습니까?)

103047 # 그것이 신깍 내는 거.(그것이 신총 내는 거.)

103047 @ 신깍 내는 거.(신총 내는 거.)

103047 # 신깍 내는. 골으민 알 거여. 엿날 어른덜. 신깍이 뭣이꽈 허민 초신 삼을 때 요디 영 그 미[72], 그것ᄀᆞ라 미, 미 허주.(신총 내는. 말하면 알 거야. 옛날 어른들.

신총이 뭡니까 하면 짚신 삼을 때 요기 이렇게 그 '미', 그것보고 '미', '미' 하지.)

103047 @ 아, 미.(아, '미'.)

103047 # 응, 미엔 허여. 그걸로 노 꼬아근에 놀 헤영.(응, '미'라고 해. 그걸로 노 꼬아서 신날 해서.)

103047 @ 응.(응.)

103047 # 놀 헤영 허리에 차근에 욜로 헹 둘아멩 요레 무시거 또 둘아메곡 헹 산뒤찍으로 영영 줏어가이. 멍석 줏듯 줏으멍 요레 요건 신깍이민 영 옆더레 톡허게 놔근에 또 영허곡. 겨민 그 신깍이엔 헌 거 요만이벳긔 안 질어이, 요만이벳긔.(날 해서 허리에 차서 요리로 해서 달아매서 요리 무엇 또 달아매고 해서 밭볏짚으로 이렇게 이렇게 결어가. 멍석 겯듯 결으면서 요리 요거 신총이면 이렇게 옆으로 톡하게 놔서 또 이렇게 하고. 그러면 그 신총이라고 한 거 요만큼밖에 안 길어, 요만큼밖에.)

103047 @ 어웍으로 만든 거?(억새로 만든 거?)

103047 # 응, 어웍으로 만든 거.(응, 억새로 만든 거.)

103047 @ 게난 산뒤찝으론 헐 게 많다예.(그러면 밭볏짚으론 할 게 많네요.)

103047 # 응, 산뒤찝으로 신도 삼고, 멕도 줄고, 멍석도 줄고, 옛날에. 다 경헹 살앗어.(응, 밭볏짚으로 신도 삼고, 멱서리도 겯고, 멍석도 겯고, 옛날에. 다 그렇게 해서 살았어.)

103047 @ 산뒤채는 무신거헤?(밭벼겨는 뭐해?)

103047 # 산뒤채는 그 까난 채는 그자 저레 앗다놩 군불 살라불고 저 거시기 방 떼어불곡. 그 찍은 이제 산뒤찝은 우리 신 삼고, 멍석 줏고 그자 그런 거.(밭벼겨는 그 깠던 겨는 그저 저리 가져다 놔서 군불 사르고 저 거시기 방 때어버리고. 그 짚은 이제 밭볏짚은 우리 신 삼고, 멍석 겯고 그저 그런 거.)

103046 @ 산뒤 쌀도 허당 보민 ᄀᆞ루 나와 ᄒᆞ꼼?(밭벼 쌀도 하다 보면 가루 나와 조금?)

103046 # 보미.(쌀겨.)

103046 @ 보미. 그건 보미?(쌀겨. 그건 쌀겨?)

103046 # 응, 건 보미, 보미허주게.(응, 그건 쌀겨. 쌀겨하지.)

103046 @ 그건 무신거헹 먹어?(그건 뭐해서 먹어?)

103046 # 그건 먹지 못허여.(그건 먹지 못해.)

103046 @ 거믄 뭐하는 거?(그러면 뭐하는 거?)

103046 # 도야지 주주.(돼지 주지.)

103046 @ 아.(아.)

103046 # 그건 도야지 채레 가주, 먹지 못허여. 보미는 못 먹어.(그건 돼지 겨에 가지, 먹지 못해. 쌀겨는 못 먹어.)

103046 @ 보미는 산뒤에 것만 보미엔 ᄀᆞᆯ아?(쌀겨는 밭벼의 것만 쌀겨라고 말해?)

103046 # 응, 산뒤쏠에 것만.(응, 밭벼 쌀의 것만.)

---

72) '미'는 억새의 꽃이 채 나오기 전에 그것을 싸고 있는 껍질이다.

103046 @ 아, 산뒤쏠에 건 보미.(아, 밭벼 쏠의 건 쌀겨.)

103046 # 겁적 벗겨비뒁 그다음 ᄀᆞ루 닮은 거 나와, 뻘겅헌 거 벳겨노민 ᄀᆞ루라이.(껍데기 벗겨버리고 그다음 가루 같은 거 나와, 뻘건 거 벗겨놓으면 가루야.)

103046 @ 그건 도새기 주는 거.(그건 돼지 주는 거.)

103046 # 도새기 주는 거 건. 먹지 못허여, 그거 산뒤 보미는 먹지 못허여.(돼지 주는 거 그건. 먹지 못해, 그거 쌀겨는 먹지 못해.)

103046 @ 먹지 못헤여.(먹지 못해.)

103046 # 쏠에 거라도 그건 못 먹어.(쌀의 거라도 그건 못 먹어.)

103048 @ 게민 산뒤헐 때 재미난 일이나 뭐 경험 기억나는 거.(그러면 밭벼할 때 재미있었던 일이나 뭐 경험 기억나는 거.)

103048 # 기억나는 거 그 산뒤로 헤여근에 밥도 헤영 먹고, 물에 컷당 ᄀᆞ루 뿟앙 떡도 헤먹고 그거지 뭐.(기억나는 거 그 밭벼로 해서 밥도 해서 먹고, 물에 담갔다가 가루 빻아서 떡도 해먹고 그거지 뭐.)

103046 @ 산뒤는 주로 밥허고 떡허고예?(밭벼는 주로 밥하고 떡하고요.)

103046 # 밥허고 떡헤 먹는 거 그거.(밥하고 떡해 먹는 거 그거.)

103046 @ 근데 밥은 특별한 때만 헤 먹는 거 아니?(근데 밥은 특별한 때만 해 먹는 거 아니?)

103046 # 특별헌 때, 제서 때.(특별한 때, 제사 때.)

103046 @ 게난예.(그러니까요.)

103046 # 어디서 웨방서 손님 말지못헌 손님 온 때.(어디 외방에서 손님 마지못한 손님 온 때.)

103046 @ 멩질 땐?(명절 땐?)

103046 # 멩질 때, 게메.(명절 때, 그러게.)

103046 @ 상에 올리는 거.(상에 올리는 거.)

103046 # 상에 올리는 거 멩질 때허고 제서 때허곡 그거 허민 우리 일반으로 그런 쏠 혼 번 못 먹어봐. 손님이나 말지못헹 손님이나 오민 것도 맨 쏠만 놩 못헤여 줘이. 좁쏠에 서껑 반반 서꺼근에.(상에 올리는 거 명절 때하고 제사 때하고 그거 하면 우리 일반으로 그런 쌀 한 번 못 먹어봐. 손님이나 마지못해서 손님이나 오면 그것도 맨 쌀만 놔서 못해줘. 좁쌀에 섞어서 반반 섞어서.)

103046 @ 그거 반반 서끈 건 뭐렌 골아?(그거 반반 섞은 건 뭐라고 말해?)

103046 # 그거 반지기.(그거 반지기.)

103046 @ 반지기.(반지기.)

103046 # 반지기 밥헤영 막 것도 특별헌 손님 오랑 생각허노렌 헤사 그거 헹 놔.(반지기 밥해서 막 그것도 특별한 손님 와서 생각하노라고 해야 그거 해 놔.)

103046 @ 거난 반지긴 저 산뒤허고 좁쏠 서끄는 거꽈?(그러니까 반지긴 저 밭벼하고 좁쌀 섞는 겁니까?)

103046 # 응, 좁쏠.(응, 좁쌀.)

103046 @ 산뒤허고 보리 서끄는 건 아니고?(밭벼하고 보리 섞는 건 아니고?)

103046 # 보리쏠은 서끄젠 허민 겨울에 보리쏠이 엇어. 양도 먹을 게 엇어. 경허난 겨울엔 보리, 좁쏠, 여름엔 보리밥 그거라. 부제칩인 가민 여름에도 보리밥에 좁쏠을 서끄민 보리밥이 차르륵허지 안헹 펄펄허지. 엇인 사름은 어느 저르에 그거 여름에ᄁᆞ장 놧당 먹을 쏠이 엇이민 여름에 맨보리밥만 헤노민 갈갈갈갈 씨방울로 다 세어져. 경헌 거 우리 살아온 게 그런 거.(보리쌀은 섞으려고 하면 겨울에 보리쌀이 없어. 양도 먹을 게 없어. 그러니까 겨울엔 보리, 좁쌀, 여름엔 보리밥 그거야. 부잣집엔 가면 여름에도 보리밥에 좁쌀을 섞으면 보리밥이 '차르륵'하지 않고 '펄펄'하지. 없는 사람은 어느 겨를에 그거 여름에까지 놨다가 먹을 쌀이 없으면 여름엔 꽁보리밥만 해 놓으면 '갈갈갈갈' 방울로 다 셀 수 있어. 그런 거 우리 살아온 게 그런 거.)

103048 @ 게난예. 산뒤, 산뒤헐 때 막 힘든 거 무신거가 힘든 거라?(그러니까요. 밭벼, 밭벼할 때 아주 힘든 거 무엇이 힘든 거야?)

103048 # 힘든 거 기자 벨로 조나 산뒤나 경 막 힘든 건 엇어.(힘든 거 그저 별로 조나 밭벼나 그렇게 아주 힘든 건 없어.)

103048 @ 방에 지는 거?(방아 찧는 거?)

103048 # 밧듸서 헤 올 때, 방에 지는 거 그게 힘들어, 쏠 내먹는 게 젤 힘들어.(밭에서 해 올 때, 방아 찧는 거 그게 힘들어, 쌀 내어 먹는 게 젤 힘들어.)

103048 @ 게난예, 쏠 내 먹는 게 힘든 거 닮아.(그러니까요, 쌀 내어 먹는 게 힘든 거 같아.)

103048 # 쏠 내 먹는 게 이게 ᄆᆞᆯ레 강 두 번, 세 번 ᄀᆞᆯ앙오면 쏠이 벌겅헤여이, 요새 나룩쏠 닮지 안헹. 벌겅헤민 그걸 헤영케 그 붉은 겁데기 벳기젠 허민 방에에서 두 번, 세 번을 지어사 뒈어.(쌀 내어 먹는 게 이게 연자매 가서 두 번, 세 번 갈아오면 쌀이 벌게, 요새 쌀 같지 않아서. 벌거면 그걸 하얗게 그 붉은 껍데기 벗기려고 하면 방아에서 두 번, 세 번을 찧어야 돼.)

103048 @ 그게 젤 힘들크라예.(그게 젤 힘들겠어요.)

103048 # 보미 나민 그 보민 또 쳐동 또 놩 지엉 또 보미 나민 경 혼 서너 번 방에서 막 찌당 보민 손도 다 붕물고 손이 다 붕물어. 게민 나 어머니 손 북물언, 손 북물언, 허민 그것에사 손 북물엄시넨 또 욕 듣고. 경허멍 그거 막 멧 번 져근에 게난 멩질 때, 제사 때 그거주. 그냥 일반으로 우리 쏠밥을 혼 번 못 먹어본 거 이젠 이추룩 나룩 밥을 반찬 엇다 뭐허다 헤도, 홈치.(쌀겨 나면 그 쌀겨는 또 쳐두고 또 놔서 찧어서 또 쌀겨 나면 그렇게 한 서너 번 방아에서 막 찧다보면 손도 다 부르트고 손이 다 부르터. 그러면 나 어머니 손 부르텄어, 손 부르텄어, 하면 그것에야 손 부르텄냐고 또 욕 듣고. 그러면서 그거 막 몇 번 쪄서 그러니까 명절 때, 제사 때 그거지. 그냥 일반으로 우리 쌀밥을 한 번 못 먹어본 거 이젠 이렇게 쌀밥을 반찬이 없다 뭐하다 해도, 애당초.)

고구마 농사

103049 @ 그다음엔 감저, 감저 농사.(그다음엔 고구마, 고구마 농사.)

103049 # 고구마, 고구마 농사할 때가 제일 힘들어, 더워.(고구마, 고구마 농사할 때가 제일 힘들어, 더워.)

103049 @ 이제 고구마엔 골읍니까, 옛날 말로 골아사주.(이제 고구마이라고 말합니까, 옛날 말로 말해야지.)

103049 # 옛날 말로 감저.(옛날 말로 고구마.)

103049 @ 감저예.(고구마요.)

103049 # 감저 요즘은 지슬감저엔 골아, 감자엔 헴주만은 옛날엔 지슬.(감자 요즘은 '지슬감저'라고 말해, 감자라고 하고 있지만 옛날에는 '지슬'.)

103049 @ 건 지슬.(그건 감자.)

103049 # 지슬.(감자.)

103049 @ 이건 감저.(이건 고구마.)

103049 # 고구마ᄀᆞ란 감저, 경 골아낫주게.(고구마보곤 '감저', 그렇게 말했었지.)

103049 @ 고구마 농사허젠 허민 이것도 미릇 준비헤야 허는 거 이수과?(고구마 농사 하려고 하면 이것도 미리 준비해야 하는 거 있습니까?)

103049 # 고구마는.(고구마는.)

103049 @ 감저는이엔 허게예, 감저는.('감저는'이라고 해요, '감저'는.)

103050 # 감저는 이월들만 나면이 양력 이월들이 나면은 모종 저, 것ᄀᆞ라 무신 모종이엔 허느니? 이 구뎅이 팡 놓는 게 잇어. 구뎅이 파근에 요 산방만이 구뎅이 파근에 그레 막 검질이고 뭐 감저꿀 놧당 감저꿀이고 막 담아놩, 그 우터레 흑 더펑 그게 원상이라이. 원상 감저, 원상 감저헤여.(고구마는 이월만 나면 양력 이월이 나면 모종 저, 그것보고 무슨 모종이라고 하니? 이 구덩이 파 놓는 게 있어. 구덩이 파서 요 마루만큼 구덩이 파서 그리 막 검불이고 뭐, 고구마 줄기 놨다가, 고구마 줄기고 막 담아놔야, 그 위에 흙 덮어서 그게 원상이야. 원상 고구마, 원상 고구마 해.)

103049 @ 예.(예.)

103049 # 경허민 그걸 경 뜨뜻허게 헤여근에 막 감저꿀이고 무시거고 막 담아놔근에 그 우트레 흑 ᄒᆞ쏠 더펑 감저 톡톡 놩 감저 막아지게 흑 더펑 놔두민 울랑울랑 알로이 더운 짐이 올라오는 거라. 겨민 고구마순, 감저순이 믄저 나와이. 감저순이 믄저 나오민 맨 먼저 그차당 놓는 거, 원상 감저라고. 그건 원상, 원상허고 경 안헌 감전 이 노지에 감저 모종을 놓면 얼엉 재기 나질 안허메이. 겨난 감저가 유월절 ᄇᆞ뎌가민 울랑울랑 더워가사 그 감저꿀이 커근에 감저 놓는 거, 그거. 겨곡 이 원상이엔 헌 건 어디 둣은 담엠에 강 구더기 팡 요만이 놩 그거 헹 인칙 놔사 서파먹을[73] 거 아냐, 인칙 놔야.(그러면 그걸 그렇게 따뜻하게 해서 막 고구마 줄기고 뭐고 막 담아놔서 그 위에 흙 조금 덮어서 고구마 톡톡 놔서 고구마 막히게 흙 덮어 놔두면 울렁울렁 아래로 더운 김이 올라오는 거야. 그러면 고구마 순, 고구마 순이 먼저 나와. 고구마 순이 먼저 나오면 맨 먼저 잘라다가 놓는 거, 그거 원상 고구마라고. 그건 원상, 원상하고 그렇지 않은 고구만

73) '서파먹다'는 팔월되면 먹을 것이 떨어지니까 고구마 먼저 파먹는다는 뜻이다.

이 노지에 고구마 모종을 놓으면 추워서 재게 나지 않아. 그러니까 고구마가 유월절 가까워 가면 울렁울렁 더워가야 그 고구마 덩굴 커서 고구마 놓는 거, 그거. 그리고 이 원상이라고 한 건 어디 따뜻한 담 옆에 가서 구덩이 파서 요만큼 놔서 그거 해서 일찍 놔야 파먹을 거 아니냐, 일찍 놔야.)

103050 @ 그건 짤랑은엥 가졍왕.(그건 잘라서 가져와서.)

103050 # 쫄라당 그 꿀 요만썩 요만썩만 크민 쫄라당 놓는 거야.(잘라다가 그 덩굴 요만큼씩 요만큼씩 크면 잘라다가 놓는 거야.)

103050 @ 밧듸 강.(밭에 가서.)

103050 # 밧듸 강 심는 거. 거민 그거 젤 인칙 보리 ᄀᆞ슬허기 전에 그걸 놓는 거라. 감저는 인칙 놓민 인칙 드는 거난 건 그자 보리 ᄀᆞ슬허기 전이 ᄒᆞ꼼 서먹젠[74]이 엿날엔 서먹음, 서먹음허는 게 이 팔월 나가민 먹을 것이 떨어지난 감저 먼저 파먹어이. 감저를 땔 사니까 점심 때도 감저 쳥 먹고 어떤 땐 저녁 때도 밥은 쪼끔허고 감저 쳥 그걸로 때 살곡 경헤노민. 겨노난 그걸 이제 문저 인칙 파먹나 허는 게 서파먹는 거라이. 인칙 파 먹나 허는 게 감저 서파먹나, 서파먹나 허는 거라이.(밭에 가서 심는 거. 그러면 그거 젤 일찍 보리 수확하기 전에 그걸 놓는 거야. 고구마는 일찍 놓으면 일찍 드는 거니까 그건 그저 보리 수확하기 전에 조금 '서먹젠' 옛날엔 '서먹음', '서먹음'하는 게 이 팔월 나가면 먹을 것이 떨어지니까 고구마 먼저 파먹어. 고구마를 때를 사니까 점심 때도 고구마 쪄서 먹고 어떤 때는 저녁 때도 밥은 조금하고 고구마 쪄서 그걸로 때 살고 그래놓으면. 그래 놓으니까 그걸 이제 먼저 일직 파먹는다 하는 게 '서파먹는' 거야. 일찍 파먹는다 하는 게 고구마 '서파먹나', '서파먹나'하는 거야.)

103049 @ 아.(아.)

103049 # 엿날엔 아이고 감저 서먹젠 허민 서파먹젠 허민 일찍 놔야, 일찍 놔야, 허는 게 그거. 게민 요만은허게시리. 핫튼 요 산방만 허게 땅 지프게 팡 그레 막 감저꿀이고 뭐 검질이고 막 담아놩 이만 담아놩 이만은 노프게 놔근에 흑 더펑 그 우터레 감저 나민 일로 거시기 풀이 썩어가는 거라이. 썩엉 더운 짐이 울랑울랑 헤 가민 감저가 재기 낭 재기 크는 거 요새ᄀᆞ치 비료 잇어시민 무사 어려와?(옛날엔 아이고 고구마 '서먹젠' 하면 '서파먹젠' 하면 일찍 놔야, 일찍 놔야, 허는 게 그거. 그러면 요만큼하게끔. 하여튼 요 마루만큼 하게 땅 깊게 파서 그리 막 고구마 덩굴이고 뭐 검불이고 막 담아놔서 이만큼 담아놔서 이만큼 높게 놔서 흙 덮어서 그 위에 고구마 나면 이리로 거시기 풀이 썩어가는 거야. 썩어서 더운 김이 울렁울렁 해 가면 고구마가 재게 나서 재게 크는 거 요새처럼 비료 있었으면 왜 어려워?)

103050 @ 게메예.(그러게요.)

103050 # 비료 엇인 때난 그 기운으로 감저순이 요만이만 헤 가민 우선 그차당 놔.(비료 없을 때니까 그 기운으로 고구마 순이 요만큼만 해 가면 우선 잘라다가 놔.)

103050 @ 요만이헤도 강 놔 불어?(요만큼해도 가서 놔 버려?)

---

74) '서먹다'는 팔월되면 먹을 것이 떨어지니까 고구마 먼저 먹는다는 뜻이으로 앞의 '서파먹다'와 비슷하게 쓰였다.

103050 # 응.(응.)

103050 @ 또 순 또 나와?(또 순 또 나와?)

103050 # 또 나와. 또 요만이만 허민 요만썩 내비뒁 그치민 욜로 또시 순 나와.(또 나와. 또 요만큼만 하면 요만큼씩 내버려두고 자르면 요리로 다시 순 나와.)

103050 @ 그것도 강 또 싱거?(그것도 가서 또 심어?)

103050 # 경헹 놓는 거. 겨난 엿날엔 문저 파먹나 허는 게 서파먹는 거 팔월, 음력 팔월만 나가민 파다 먹어 하여튼.(그렇게 해서 놓는 거. 그러니까 옛날에 먼저 파먹는다 하는 게 '서파먹는' 거 팔월, 음력 팔월만 나가면 파다 먹어 하여튼.)

103050 @ 아.(아.)

103050 # 겨민 감저 그자 요거만썩 똑 요거만썩은 허게 든 때 막 파당 먹어, 그걸로 때 사니까.(그러면 고구마 그저 요거만큼씩 꼭 요거만큼씩은 하게 든 때 파다가 먹어, 그걸로 때 사니까.)

103050 @ 게난 아까 흔, 보리 비기 전이.(그러니까 아까 한, 보리 베기 전에.)

103050 # 응, 보리 비기 전이 그거 놔.(응, 보리 베기 전에 그거 놔.)

103050 @ 거 놔야 뒈는 거예?(그거 놔야 되는 거요?)

103050 # 일찍 놓는 거.(일찍 놓는 거.)

103050 @ 감저꿀 놓는덴 헤여?(고구마 덩굴 놓는다고 해?)

103050 # 응, 감저 싱거사 허주, 감저꿀 놓나 헌 말은 안허여.(응, 고구마 심어야 하지, 고구마 줄기 놓는다 하는 말은 안 해.)

103050 @ 아, 감저 싱근다.(아, 고구마 심는다.)

103050 # 응, 감저 싱근다 아이고 재기 싱거야 할 건디 그거주. 감저꿀 싱근덴도 안 헤여. 그자 아이고 빨리 감저 놔야 할 건디, 감저 놔야 할 건디.(응, 고구마 심는다 아이고 재게 심어야 할 건데 그거지. 고구마 덩굴 심는다고도 안 해. 그저 아이고 빨리 고구마 놔야 할 것인데, 고구마 놔야 할 것인데.)

103050 @ 감저 놔야할 건디 영 허는구나예.(고구마 놔야할 것인데 이렇게 하는 군요.)

103050 # 모종 놓는 거는 감저 모종 놔야 뒌다 허고 모종 놔야 뒌다 허고 꿀 놩 싱그는 건 감저 싱거야.(모종 놓는 거는 고구마 모종 놔야 된다 하고 모종 놔야 된다 하고 덩굴 놔서 심는 건 감자 심어야.)

103050 @ 싱거야 뒐 건디 이렇게.(심어야 될 건데 이렇게.)

103050 # 싱거야 뒌다 허고 경 말허는 거.(심어야 된다 하고 그렇게 말하는 거.)

103051 @ 감저 밧듸 걸름은 안허지예?(고구마 밭에 거름은 안하지요?)

103051 # 감저 밧듸 걸름, 무사 요샌 비료 나난 허주.(고구마 밭에 거름, 왜 요샌 비료 나니까 하지.)

103051 @ 요새 말고 옛날에.(요새 말고 옛날에.)

103051 # 옛날엔 뭐 걸름헐 거 엇어. 이 중간에는 저 바당에 듬북, 듬북 헤당 영 꿀아근에.(옛날엔 뭐 거름할 거 없어. 이 중간에는 저 바다에 '듬북', '듬북' 해다가 이렇게

깔아서.)

103051 @ 감저 밧듸?(고구마 밭에?)

103051 # 응, 감저 밧듸 꼴앙 놩 그 우터레 골아놩 그 우터레 감저 싱거. 옛날에 중간에, 중간에 멧 년 그추룩 헤서. 흔 경헤도 흔 십 년 경헤실 거라.(응, 고구마 밭에 깔아 와서 그 위에 갈아놔서 그 위에 고구마 심어. 옛날에 중간에, 중간에 몇 년 그렇게 해서. 한 그래도 한 십 년 그랬을 거야.)

103051 @ 감저 줄기를 싱그는 거 아니?(고구마 줄기를 심는 거 아니?)

103051 # 줄 싱그는 거.(줄기 심는 거.)

103051 @ 건디 무사 듬북 놔근에 그 우트레 헤?(그런데 왜 '듬북' 놔서 그 위에 해?)

103051 # 감저 놓는 밧은 초불 갈아이 흔 번. 생밧으로 안 놔둰 골아놓민 이디가 고랑이 잇어이. 게난 감저 싱그기 전에 이 고랑더레 꼴앙 일로 갈곡, 일로 갈곡 허민 요디가 파니 뒈는 거라이. 요추룩이. 파니 뒈민 그 골아논 우트레 영허민 듬북 요 고랑에 갈앙 일로 갈곡 일로 갈민 이것이 더퍼지는 거라, 흑으로. 듬북이 더퍼지민 그 우터레 감저 싱거 놔두민 요디가 걸름 뒈영 그것이 뿔아 먹으멍 듬북 물 뿔아 먹으멍 큰다 이거주. 경헌 거지.(고구마 심는 밭은 초벌 갈아 한 번. 생밭으로 안 놔두고 안 놔두고 갈아놓으면 여기가 고랑이 있어. 그러니까 고구마 심기 전에 그 고랑에 깔아서 이리로 갈고, 이리로 갈고 하면 요기가 이랑이 되는 거야. 요렇게. 이랑 되면 그 갈아놓은 위에 이렇게 하면 듬북 요 고랑에 갈아서 이리로 갈고 이리로 갈면 이것이 덮어지는 거야, 흙으로. 듬북이 덮어지면 그 위에 감자 심어 놔두면 요기가 거름 되어서 그것이 빨아 먹으면서 듬북 물 빨아 먹으면 큰다 이거지. 그런 거지.)

103054 @ 감저밧듸도 검질 메살 건가?(고구마 밭도 김 매야할 건가?)

103054 # 검질 메사, 흔불 메어사, 감저밧듸 흔불 메어사, 감저꿀 더프기 전이 흔 번만 메민 감저꿀 벋엉 딱 더퍼졍 검질 안 나.(김매야, 초벌 매야, 고구마 밭에 초벌 매야, 고구마 덩굴 덮기 전에 한 번만 매면 고구마 줄기 벋어서 딱 덮어져서 김 안 나.)

103054 @ 밧듸 땅이 감저꿀로 다.(밭에 땅이 고구마 덩굴로 다.)

103054 # 다 더퍼져 불민 검질이 안 나. 경허난 초불 ᄒᆞ꼼 감저꿀 어우러지기 전이 흔불 메사 뒈어.(다 덮어져 버리면 김이 안 나. 그러니까 초벌 조금 고구마 덩굴 어우러지기 전에 초벌 매야 돼.)

103054 @ 감저 밧듸 나는 검질은 이수과?(고구마 밭에 나는 김은 있습니까?)

103054 # ᄀᆞ뜬 거 다 여름 검질.(같은 거 다 여름 김.)

103054 @ 다 여름 검질.(다 여름 김.)

103054 # 여름 검질은 다 ᄀᆞ따.(여름 김은 다 같아.)

103054 # 응.(응.)

103054 @ 견디 감저밧듸는 초불 메젠 헤도 흔엇이 경 조밧ᄀᆞ치 하영 나질 안허난 검질이. ᄒᆞ꼼 셔 가민 꿀이 탁 더퍼져불민 검질이 엇주게.(그런데 고구마 밭에는 초벌 매려고 해도 한없이 그렇게 조밭처럼 많이 나지 않으니까 김이. 조금 있어 가면 덩굴이

탁 덮어져버리면 김이 없지.)

103055 @ 이번엔 감저, 이젠 파사주예.(이번엔 고구마, 이젠 파야지요.)

103055 # 감전 파다근에.(고구만 파다가.)

103055 @ 파젠 허민 먼저 줄을.(파려고 하면 먼저 덩굴을.)

103055 # 줄 걷어놩.(덩굴 걷어놔서.)

103055 @ 줄 어떵 걷어?(덩굴 어떻게 걷어?)

103055 # 호미로 아졍.(낫으로 가져서.)

103055 @ 호미로 아졍강.(낫으로 가져가서.)

103055 # 감저꿀 걷기 잘도 힘드는 거.(고구마 덩굴 걷기 아주 힘드는 거.)

103055 @ 아이고, 어떵 헤근에.(아이고, 어떻게 해서.)

103055 # 호미로 착착착 두 파니, 세 파닐 심엉, 요것도 감저 논 거고, 요것도 논 거고, 요것도 놓민 이 너빌 심어야. 심엉 일로 고랑 치고, 일로 고랑 치곡 헹 그 감저꿀 영 둥기멍 호미로 영 영 그치멍 또시 감저꿀 뭉크려놔. 또, 뭉크려 놓지 안허민 일로 저레 걷어가질 못헤여. 일로 영 착허게 이거 감저꿀이민 영 심엉 영영영영 헤가곡 또 일로 심엉 영영영 헤오랑 일로 또 그치멍 뭉크렁 그것이 젤 힘들어.(낫으로 착착착 두 이랑, 세 이랑 심어서, 요것도 고구마 놓은 거고, 요것도 놓은 거고, 요것도 놓으면 이 너비를 심어야. 심어서 이리로 고랑 치고, 이리로 고랑 치고 해서 그 고구마 덩굴 이렇게 당기면서 낫으로 이렇게 이렇게 자르면서 또 고구마 덩굴 뭉쳐놔. 또, 뭉쳐 놓지 않으면 이리로 저기까지 걷어가질 못해. 이리로 이렇게 착하게 이거 고구마 줄기면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가고 또 이리로 잡아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와서 이리로 또 자르면서 뭉쳐서 그것이 젤 힘들어.)

103055 @ 감저헐 때는, 아.(고구마할 때는, 아.)

103055 # 감저 팔 때가 그것이 힘들어.(고구마 팔 때가 그것이 힘들어.)

103055 @ 줄 걷는 거.(덩굴 걷는 거.)

103055 # 줄 걷는 게 힘들어. 막 허리 그차지고 누게 꿀만 걷어줘시민 생각이 들어.(덩굴 걷는 게 힘들어. 아주 허리 끊어지고 누구 덩굴만 걷어줬으면 생각이 들어.)

103055 @ 아.(아.)

103055 # 겡헹 그거 꿀 걷어놩 그거 파민 또 이젠 마다리에 담는 건 기자 감저공장 요새 감저 공장 날 때는 그디서 마다리 주민 앗당 죽 페와놩 그레 탁탁허게 헹 내불민 헤영 내불, 저 흔 줄 파뒁 또 서로가 마주 들르멍 그거 마다리레 비우멍 담앙 내불민 시꺼가는 건 지네냥으로 시꺼가는 거난 존디 꿀 걷음이 이거 힘들어이. 어떻게 힘들어. 아이고 누게 감저꿀만 걷어줘시민.(그렇게 해서 그거 덩굴 걷어놔서 그거 파면 또 이젠 자루에 담는 건 그저 고구마 공장 요새 고구마 공장 날 때는 거기서 자루 주면 가져다가 쭉 펴서 그리 탁탁하게 해서 내버리면 해서 내버, 저 한 줄 파두고 또 서로가 마주 들면서 그거 자루에 비우면서 담아서 내버리면 실어가는 건 자기대로 실어가는 거니까 좋은데 덩굴 걷기가 이거 힘들어. 어떻게 힘들어. 아이고, 누가 고구마 덩굴만 걷어줬으면.)

103055 @ 응.(응.)

103056 # 공장드레 들일 건 들이고 우리 먹을 건 ᄃᆞ시 땅 파. 둥글허게 땅 파. 옆드레 검질 딱 영 흑, 감저드레 흑 가게 말앙 검질 다 세와. 둥그렇게 구뎅이 팡. 경헹 그레 감저 앗당 놔근에 묻엇당 우리가 또 겨울엔 먹곡 씨 놔두곡 경헤여. 경허민 우로 고망 요만이만 똘라근에 요만이 똘라근에 놔둠서라 또 그 새로 주젱이 차는 거 알지?(공장에 들일 건 들이고 우리 먹을 건 다시 땅 파. 둥글게 땅 파. 옆에 김 딱 이렇게 흙, 고구마에 흙 가게 말고 김 다 세워. 둥그렇게 구덩이 파서. 그래서 거기에 고구마 가져다 놔서 묻었다가 우리 또 겨울엔 먹고 씨 놔두고 그렇게 해. 그렇게 하면 위로 구멍 요만큼만 뚫어서 요만큼 뚫어서 놔두고 그 사이로 주저리 짜는 거 알지?)

103056 @ 예.(예.)

103056 # 그거 창 톡허게 물 안들게 더꺼. 비 왐직헌 땐.(그거 짜서 톡하게 물 안 들게 덮어. 비 올 것 같을 땐.)

103056 @ ᄂᆞ람지 먼저 더끄고.(이엉 먼저 덮고.)

103056 # 응. ᄂᆞ람지 더꺼놩.(응. 이엉 덮어놔서.)

103056 @ 주젱이 차고?(주저리 짜고?)

103056 # 주젱이 창 톡 더껏당 날 존 땐 강 ᄒᆞ꼼 영 베스룩이 열아줭 짐 나불게 열아주고. 또 비 오람직이나 눈 왐직이나 허민 강 거 더퍼근에 비 못 들게 허곡 경헷다근에 거 씨 놓는 거. 씨 가냥 허기 젤 어려와.(주저리 짜서 톡 덮었다가 날 좋은 땐 가서 조금 이렇게 배뚜름하게 열어줘서 김 나버리게 열어주고. 또 비 올 것 같거나 눈 올 것 같거나 하면 가서 그거 덮어서 비 못 들게 하고 그렇게 했다가 그거 씨 놓는 거. 씨 관리하기 제일 어려워.)

103056 @ 썩어불어?(썩어버려?)

103056 # 썩어불어. 경허당 봐도 어딜론가 얼어도 썩어불고 너미 뜻아도 썩어불고 씨 놔두는 게 이게 젤 힘들어. 다른 씨 닮지 안헹 고구마씨가 젤 어루와, 힘들어. 경허난 경헹 씨 놧다근에.(썩어버려. 그러다가 봐도 어디론가 추워도 썩어버리고 너무 따뜻해도 썩어버리고 씨 놔두는 게 이게 젤 힘들어. 다른 씨 같지 않아서 씨고구마가 젤 어려워, 힘들어.)

103056 @ 그게 감저, 감저눌?(그게 고구마, 고구마 가리?)

103056 # 응, 감저눌, 감저눌이엔도 ᄀᆞᆫ고 감저 구뎅이엔도 ᄀᆞᆫ곡 헤.(응, 고구마 가리, 고구마 가리라고도 말하고 고구마 구덩이라고도 말하고 해.)

103056 @ 감저 구뎅이.(고구마 구덩이.)

103056 # 응, 감저 구뎅이. 구뎅이 강 돌아봐살 걸, 감저 구뎅이 돌아봐살 걸. 비 들엄냐, 눈 들엄냐 그거주. 강 영 헤봉 너미 뜻앙 짐이 팡팡헤가도 그거 열아줘야고 또 얼민 더꺼주고. 그 씨 놔둠이 젤 어려와. 감저씨 놔둠이, 씨 놔둠이 젤 어려와. 그거라 그거.(응, 고구마 구덩이. 구덩이 가서 돌아봐야할 걸, 고구마 구덩이 돌아봐야할 걸. 비 들어가나, 눈 들어가나 그거지. 가서 이렇게 해봐서 너무 따뜻해서 김이 팡팡해가도 그거 열어줘야 하고 또 추우면 덮어주고. 그 씨 놔두기가 젤 어려워. 씨고구마 놔두기가,

씨 놔두기가 젤 어려워. 그거야 그거.)

103055 @ 감저 파는 건 어떵 파는 거꽈?(고구마 파는 건 어떻게 파는 겁니까?)

103055 # 아, 파는 건 골갱이로 영영 땅 근으멍 감저만 빠 놓는 거. 땅 근으멍.(아, 파는 건 호미로 이렇게 이렇게 땅 긁으면서 고구마만 빼 놓는 거. 땅 긁으면서.)

103055 @ 아, 땅 근으멍.(아, 땅 긁으면서.)

103059 # 응, 골갱이로 그자. 아이고 엿날엔이 장갑이 이시카, 이 손에 감저 고름이 일로 이레 믄 부떠.(응, 호미로 그저. 아이고 옛날엔 장갑이 있을까. 이 손에 고구마 진이 이리로 이리 모두 붙어.)

103059 @ 안 지와지는 거예.(안 지워지는 거요.)

103059 # 안 지와졍 허민 섹유, 불 싸는 섹유.(안 지워져서 하면 석유, 불 켜는 석유.)

103059 @ 섹유, 아.(석유, 아.)

103059 # 그거 손드레 탁탁 놓민 문짝 벗어이. 감저 고름이 벗긴 벗는디 손이 다 케여. 독헌 ᄀᆞ라. 손이 다 벌러져. 감저고름은 잘 벗는디.(그거 손으로 탁탁 놓으면 깨끗이 벗겨져. 고구마 진이 벗겨지긴 벗겨지는데 손이 다 터. 독한 모양이야. 손이 다 갈라져. 고구마 진이 잘 벗겨지는데.)

103059 @ 석유가 독헌 거라예.(석유가 독한 거예요.)

103059 # 응, 독헌 거난 그 감저고름이 경 부떳당도 그거 싹 벗어져 그것이. 겨민 그걸로 벗엉 그걸로 허영 베껑 비누로 손 씻곡 경허노렌 헤도 손이 딱딱 벌러져.(응, 독한 거니까 그 고구마 진이 그렇게 붙었다가도 그거 싹 벗겨져, 그것이. 그러면 그걸로 벗겨져서 그걸로 해서 벗겨서 비누로 손 씻고 그러노라고 해도 손이 딱딱 갈라져.)

103059 @ 공장에서 감저 받아가기 전이는.(공장에서 고구마 받아가기 전에는.)

103059 # 감저 받아가기 전인 그렇게 많이 안 놧어.(고구마 받아가기 전엔 그렇게 많이 안 놨어.)

103059 @ 아.(아.)

103059 # 이녁 먹을 거, 먹을 거 씨 놔두고 그자 ᄒᆞᆫ 구뎅이 ᄒᆞᆫ 세 개쯤. 헤영 팡 묻으민 ᄒᆞᆫ 구뎅이는 씨 놔두고 두 구뎅이 건 우리 파멍 쳥 먹고. 걸 때로 사니까. 정심 저냑 어뜬 땐 저냑 밥 쪼금 실 땐 감저 쳐근에 그자 그 밥 ᄒᆞ꼼 신 것에 감저 쳥 먹엉 저냑 땐 어질영 설러불고. 정심 땐 주로 감저만 쳥 먹고 엿날에.(자기 먹을 거, 먹을 거 씨 놔두고 그저 한 구덩이 한 세 개쯤. 해서 파서 묻으면 한 구덩이는 씨 놔두고 두 구덩이 것은 우리 파면서 쪄서 먹고. 그걸 때로 사니까. 점심 저녁 어떤 땐 저녁 밥 조금 있을 땐 고구마 쪄서 그저 그 밥 조금 있는 것에 고구마 쪄서 먹어서 저녁 땐 어질러서 그만두고. 점심 땐 주로 고구마만 쪄서 먹고 옛날에.)

103057 @ 감저는 절간헤근에 헙니께? 뻿데기.(고구마는 얇게 썰어서 하잖아요? 절간고구마.)

103057 # 응, 뻿데기.(응, 절간고구마.)

103057 @ 뻿데기 허는 건 어떵?(절간고구마 하는 건 어떻게?)

103057 # 뻿데기도 이 감저공장 나기 전이 뻿데기 허멍 풀앗어. 풀아근에게 것도 잘 몰리와지면 일등품에 가곡 경 안허민 썩어불민 삼등에도 가곡 이등에도 가곡 허민 돈이 멧 푼 안 뒈여. 경헤도 그걸 헤영 풀아사 비료 값이라도 허젠 허민 그걸 픗는 거고. 또 이 전분공장 남 시작허난 뻿데기 설러비뒁 그자 전분공장드레 그냥.(절간고구마도 이 고구마공장 나오기 전에 절간고구마 하면서 팔았어. 팔아서 그것도 잘 말려지면 일등품에 가고 그렇게 안하면 썩어버리면 삼등에도 가고 이등에도 가고 하면 돈이 몇 푼 안 돼. 그래도 그걸 해서 팔아서 비료 값이라도 하려고 하면 그걸 파는 거고. 또 이 전분공장 나기 시작하니까 절간고구마 그만두고 그저 전분공장으로 그냥.)

103057 @ 한꺼번에.(한꺼번에.)

103057 # 한꺼번에 들여부는 거지. 마다리만 앗다주민 그디 담앙 내불민 지네냥으로 건 시꺼가는 거.(한꺼번에 들여버리는 거지. 자루만 가져다주면 거기 담아서 내버리면 자기네대로 그건 실어 가는 거.)

103057 @ 뻿데기헐 땐 어떵 헤낫수과?(절간고구마할 땐 어떻게 했었습니까?)

103057 # 뻿데기, 이거 둘르는 거.(절간고구마, 이거 두르는 거.)

103057 @ 기계예?(기계요?)

103057 # 응, 기계 영.(응, 기계 이렇게.)

103057 @ 밧듸서?(밭에서?)

103057 # 밧듸서 영 둘르는 기계 잇어. 감저 써는 기계, 감저 써는 기계 허멍 지엉 가근엥에 그디 감저 담아놩 ᄒᆞ나썩 들이치멍 영영영영 기계 손으로. 경헌디 것도 풀 아파이. 썰, 아팡 ᄀᆞᆯ체에 담아나민 작허게 어디 테역밧듸쯤 감저 앗다놩 허민 그거 널엉. 감저뻿데기헐 때가 또 힘들엉. 써는 게 힘드는 게 아니고 몰류는 게 힘들어.(밭에서 이렇게 두르는 기계 있어. 고구마 써는 기계, 고구마 써는 기계 하면서 져 가서 거기 고구마 담아놔서 하나씩 들이치면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께 기계 손으로. 그런데 그것도 팔 아파. 썰, 아파서 삼태기에 담고 나면 쫙하게 어디 잔디밭에쯤 고구마 가져다놔서 하면 그거 널어서. 절간고구마할 때가 또 힘들어서. 써는 게 힘드는 게 아니고 말리는 게 힘들어.)

103057 @ 비 와불카부덴.(비 와버릴까봐.)

103057 # 비 와 불카부덴. 비 왐직허민 밤이 강 그놈 다 모두와. 또 날 좋아가민 널어 경허당 봐도 쎅여불 때가 하. 시커멍케 쎅여불 때. 어떵 헤영 감저뻿데기 ᄒᆞ루 이틀에 몰르지 안헤여. 사흘만 벳ᄇᆞ름이 나민 ᄇᆞ름 불멍 벳이 나민 사흘만 허민 썩지 안허는디 이거 썰엉 낼 날 좋카부덴 오늘 썰민 낼은 비와불민 모돠놓민 썩어부는 거. 시커멍케.(비 와 버릴까봐. 비 올 것 같으면 밤에 가서 그놈 다 모아. 또 날 좋아 가면 널어 그러다 봐도 썩어버릴 때가 많아. 시커멓게 썩어버릴 때. 어떻게 해서 절간고구마 하루 이틀에 마르지 않아. 사흘만 볕 바람이 나면 바람 불면서 볕이 나면 사흘만 하면 썩지 않는데 이거 썰어서 내일 날 좋을까봐 오늘 썰면 내일은 비 와버리면 모아놓으면 썩어버리는 거. 시커멓게.)

103057 @ 아이고.(아이고.)

103057 # 젤 감저뻿데기 헐 때가 어려와. 게난 밤이 해, 경허민 밤이 즘 못 자. 비 왐 직헌 땐 어디 테역밧듸나 간 땐 박박 언주기 좋주마는 감저 그르에 흑밧듸 널어논 건 ᄒᆞ나로 강 줏어야 뒈여, ᄒᆞ나로.(젤 절간고구마 할 때가 어려와. 그러니까 밤에 해, 그러면 밤에 잠 못 자. 비 올 것 같을 땐 어디 잔디밭에나 간 땐 박박 그러모으기 좋지마는 고구마 그루터기에 흙밭에 널어놓은 건 하나씩 가서 주워야 돼, 하나씩.)

103057 @ 아.(아.)

103057 # 경허민 비 왐 직헌 땐 즘을 못 장 초저냑이 강 그것 강 막 줏어, 줏어. 게도 둘 신 때는 괜찮아. 둘 엇인 땐 줍도 못헤여. 둘 엇인 때. 감제뻿데기헐 때가 젤 어려와.(그러면 비 올 것 같은 땐 잠을 못 자서 초저녁에 가서 그것 가서 막 주워, 주워. 그래도 달 있을 때는 괜찮아. 달 없을 땐 줍지도 못해. 달 없을 때. 절간고구마할 때가 젤 어려워.)

103057 @ 응. 감저뻿데기 옛날부터 헹 먹어낫수과?(응. 절간고구마 옛날부터 해서 먹었었습니까?)

103057 # 응, 옛날부떠.(응, 옛날부터.)

103057 @ 그 감저 써는 기계 엇일 땐 어떵헤낫수과? 그때도 감저뻿데기 헤낫수과?(그 고구마 써는 기계 없을 땐 어떻게 했었습니까? 그래도 절간고구마 했었습니까?)

103057 # 감저뻿데기 써는 기계가 이거 제국시대부터 나는 거라이. 제국시대에 감저뻿데길 허라 헨 이 기계가 제국시대에 나온 거라. 경허난 그때부떠 기계는 잇어근에 우리 두린 때 보민 그 감저 썰어근에 뻿데기헹 물리왕 걸 공출허렌 허는 거라이.(절간고구마 써는 기계가 이거 제국시대부터 나는 거야. 제국시대에 절간고구마를 해라 해서 이 기계가 제국시대에 나온 거야. 그러니까 그때부터 기계는 있어서 우리 어린 때 보면 그 고구마 썰어서 절간해서 말려서 그걸 공출하라고 하는 거야.)

103057 @ 응.(응.)

103057 # 공출허민 이제 그 제국시대에 우리가 감절 헤영 바찌렌 그걸 멧 가멩이 헤영 바찌렌 허민 걸 바쩡 놔두난 요디 들어가는 디 요 태흥리 일로 들어가는 입구에 어디 크게 엿날 창고엔 헤사 초집이라. 크게 창고 짓언에 문 받으멍 제국시대 받으멍 다 잔뜩 데면에 해방은 뒈난 누게가 그걸 돌보지 안헨 내부난 해방뒌 누게 임제 엇이난 흔 번은 이 법에서 나상 그것들 앗당 먹을 사름은 앗당 먹으렌 헨 간 보난 문딱 썩어부난 먹을 게 잇어.(공출하면 이제 그 제국시대에 우리가 고구마를 해서 바치라고 그걸 몇 가마니 해서 바치라고 하면 그걸 바쳐서 놔두니까 요기 들어가는 데 요 태흥리 이리로 들어가는 입구에 어디 크게 옛날 창고라고 해야 초집이야. 크게 창고 지어서 모두 받으면서 제국시대 받으면서 다 잔뜩 쌓아서 해방은 되니까 누가 그걸 돌보지 않고 내버리니까 해방돼서 누가 임자 없으니까 한번은 이 법에서 나서서 그것들 가져다가 먹을 사람은 가져다가 먹으라고 해서 가 보니까 모두 썩어버리니까 먹을 게 없어.)

103057 @ 아이고, 족헌 거.(아이고, 족한 거.)

103057 # 경헤도 아져오는 사름은 아져단 우리도 아져와신디 우리 어머니가 물에 컨 막 울롸도 먹지 못헤여. 튼내 난 먹지 못헤여. 겐 문 도새기덜 줘빗주. 문 뒈야지 질룰

때난 도새기덜 줘빗주. 겨난 이거 감저 우리 역안 보난 이거 감저 써는 기계가 난 거라. 일본서 온 거엔 허멍 경헨 그거 감저뻿데기를 허는 건디 테역밧듸 넌 때는 손으로 삭허게시리 영영 허민 모둡기기 쉽는디 정헌 감저 그르에 썰엉 흑밧듸 넌 건 ᄒᆞ나로 줏어야 뒈어, ᄒᆞ나로. 흑 부뜨지 안허게 허젠 ᄒᆞ나로 줏어야 뒈여.(그래도 가져오는 사람은 가져다가 우리도 가져왔는데 우리 어머니가 물에 담가서 막 우려내도 먹지 못해. 뜬내 나니까 먹지 못해. 그래서 모두 돼지들 줘버렸지. 모두 돼지 기를 때니까 돼지들 줘버렸지. 그러니까 이거 고구마 우리 커보니까 이거 고구마 써는 기계가 난 거야. 일본서 온 거라고 하면서 그렇게 해서 그거 절간고구마를 하는 건데 잔디밭에 넌 때는 손으로 싹 하게끔 이렇게 이렇게 하면 모으기 쉬운데 저런 고구마 그루에 썰어서 흙밭에 넌 건 하나씩 주워야 해, 하나씩. 흙 붙지 않게 하려고 하나씩 주워야 돼.)

103057 @ 영 줏으는 게 아니고 영 줏어?(이렇게 줍는 게 아니고 이렇게 주워?)

103057 # 응, 그거야 톡톡톡 줏으는 거.(응, 그거야 톡톡톡 줍는 거.)

103057 @ 톡톡톡 줏어.(톡톡톡 주워.)

103057 # 응, 줏어근에 그자 무신 마다리나 무스거 이시민 톡톡 줏어당.(응, 주워다가 그거 무슨 자루나 무엇 있으면 톡톡 주워다가.)

103057 @ 담아.(담아.)

103057 # 담아당 혼 밧듸레 비우곡 비우곡 허민 경헐 거주게. 게난 우리가 젤 힘든 게 농ᄉᆞ 져근에 감저뻿데기 썰 때 그때가 힘들어.(담아다가 한 군데에 붓고 붓고 하면 그럴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젤 힘든 게 농사지어서 절간고구마 썰 때 그때가 힘들어.)

103059 @ 감저는 감저꿀 걷을 때도 힘들고, 씨 가냥허는 것도 힘들고.(고구마는 고구마 덩굴 걷을 때도 힘들고, 씨 관리하는 것도 힘들고.)

103059 # 그것이 젤 감저가 씨 가냥허는 거 힘들고 또 꿀 놓는 건 힘들지 안 헌디 모종 놓고 꿀 걷는 거, 뻿데기허는 거 그것이 젤 힘들어.(그것이 젤 고구마가 씨 관리하는 거 힘들고 또 덩굴 놓는 건 힘들지 않은데 모종 놓고 덩굴 걷는 거, 절간하는 거 그것이 젤 힘들어.)

103059 @ 감저는 성가시다예.(고구마는 성가시네요.)

103059 # 잘도 성가셔. 경헌디 그 뻿데기 아년에 감저 놩 파근에 공장드레 들일 때 그땐 좀 한글허여. 비가 오고 아무걸 허고 파근에 그자 마다리레 담앙 내불민 지네냥으로 시꺼 가는 거.(아주 성가셔. 그런데 그 절간 안 해서 고구마 놔서 파서 공장에 들일 때 그땐 좀 한가해. 비가 오고 아무것을 하고 파서 그저 자루에 담아서 내버리면 자기네대로 실어 가는 거.)

103057 @ 감저는 쏠 엇일 때 밥으로도 먹곡 또 무신거 헹 먹는 거꽈?(고구마는 쌀 없을 때 밥으로도 먹고 또 무엇 해서 먹는 겁니까?)

103057 # 쪙도 먹고 그자 이 보릿ᄀᆞ루고 무시거고 놩 범벅, 범벅도 헹 먹고 원 그거, 주로.(쪄도 먹고 그저 이 보릿가루고 무엇이고 놔서 범벅, 범벅도 해서 먹고 원 그거, 주로.)

103057 @ 이건 떡은 안 헤 먹는 거꽈?(이건 떡은 안 해 먹는 겁니까?)

103057 # 떡은 못 헹 먹어. 감저뻿데기, 뻿데기 ᄀᆞ룬 떡헹 먹어.(떡은 못 해서 먹어. 절간고구마, 절간 가룬 떡해서 먹어.)

103057 @ 어, 거난.(어, 그러니까.)

103057 # 뻿데기 ᄀᆞ룬 영 돌레떡도 헹 먹고 친떡도 쳐 먹고.(절간 가룬 이렇게 도래떡도 해서 먹고 시루떡도 쪄 먹고.)

103057 @ 아, 이걸로 친떡 헤져마씨?(아, 이걸로 시루떡 할 수 있어요?)

103057 # 응, 친떡헤여.(응, 시루떡해.)

103057 @ 오.(오.)

103057 # 감저 ᄀᆞ루에다가 또 감저 놩 버무려근에 시리에 놩 친떡도 쳐 먹고.(고구마 가루에다가 또 고구마 놔서 버무려서 시루에 놔서 시루떡도 쪄 먹고.)

103057 @ 건 무신 떡이엔 허여, 감저 친떡?(그건 무슨 떡이라고 해, 고구마 시루떡?)

103057 # 응, 감저 친떡. 경헤영 친떡도 쳐 먹곡 임시 우리 흔빨 헹 먹구정헌 건 돌레떡 만들엉 이넉냥으로 돌레떡 만들앙 숢앙 그자 그걸로 먹고.(응, 고구마 시루떡. 그렇게 해서 시루떡도 쪄서 먹고 임시 우리 조금 해서 먹고 싶을 건 도래떡 만들어서 자기대로 도래떡 만들어서 삶아서 그저 그걸로 먹고.)

103057 @ 돌레떡은 영영 줍앙 동글락허게 만드는 거예? 냅작허게예?(도래떡은 이렇게 이렇게 집어서 동그랗게 만드는 거요? 납작하게요?)

103057 # 응. 경헹 그것도 먹고. 감저 ᄀᆞ루도 여라 가지헹 먹어. 떡도 헹 먹고.(응. 그렇게 해서 그것도 먹고. 고구마 가루도 여러 가지해서 먹어. 떡도 해서 먹고.)

103058 @ 게난예. 감저 파기 전이 걷은 감저꿀은 뭐허는 거꽈?(그러니까요. 고구마 파기 전에 걷은 고구마 덩굴은 뭐하는 겁니까?)

103058 # 감저꿀은 ᄆᆞ쉬 신 사름은 ᄆᆞ쉬덜 문 앗다줘. 우리가 ᄆᆞ쉬 엇이난 봄 낭 쉐 빌엉 밧 갈젠 허민 감저꿀 문 ᄆᆞᆯ리왕, 감저꿀 ᄆᆞᆯ리와 놔근에 문 무꺼놓곡 헹 감저꿀 시꺼 갑서, 쉐 신 집이.(고구마 덩굴은 마소 있는 사람은 마소들 모두 가져다줘. 우리가 마소 없으니까 봄 나서 소 빌려서 밭 갈려고 하면 고구마 덩굴 모두 말려서, 고구마 줄기 말려 놔서 모두 묶어놓고 해서 고구마 줄기 실어 가세요, 소 있는 집에.)

103058 @ 아.(아.)

103058 # 경헹 그거 줬다근에 ᄆᆞ쉬 촐로 들어가는 거난. 그거 헷다근에 그것에 지쉐 빌어다근에 밧 빌엉 갈아. 경허는 거 감저꿀은.(그렇게 해서 그거 줬다가 마소 꼴로 들어가는 거니까. 그거 했다가 그것에 자기 소 빌려다가 밭 빌려서 갈아. 그러는 거 고구마 덩굴은.)

103058 @ 그민 이것도 ᄆᆞᆯ리와사 허는 거?(그러면 이것도 말려야 하는 거?)

103058 # ᄆᆞᆯ리와사.(말려야.)

103058 @ 밧듸서?(밭에서?)

103058 # 밧듸서 막 파싹 ᄆᆞᆯ리와근에 문 눌엉 놔두는 거난 ᄆᆞᆯ류지 안허민 눌민 썩어 불주게. 겨난 ᄆᆞ쉰 썩은 거 안 먹어, 겨난. 겡 파싹 ᄆᆞᆯ리와근에 무껑 감저꿀 ᄆᆞᆯ련 무꺼

놔시메 시꺼 갑서 허민 시꺼가, ᄆᆞ쉬 신 사름덜.(밭에서 아주 바싹 말려서 모두 가려서 놔두는 거니까 말리지 않으면 가리면 썩어버리지. 그러니까 마손 썩은 거 안 먹어, 그러니까. 그래서 바싹 발려서 묶어서 고구마 덩굴 말려서 묶어놨으니 실어 가세요 하면 실어가, 마소 있는 사람들.)

103058 @ 감저꿀은 밧듸 눌엉 내부는 거꽈? 집이 안 가져오고?(고구마 덩굴 밭에 가려서 내버리는 겁니까? 집에 안 가져오고?)

103058 # 밧듸 아니 놩 그디서 무껑 내불민 시꺼 가는 사름 쉐 신 사름 집이 시꺼가. 집이 시꺼가야 겨울에 눈 온 때도 빠 주곡, 빵 쉐 주곡 허주. 비 온 때나 어디 밧드레 빠레 와져?(밭에 안 놔서 거기서 묶어서 내버리면 실어 가는 사람 소 있는 사람 집에 실어가. 집에 실어가야 겨울에 눈 온 때도 빼어 주고, 빼서 소 주고 하지. 비 온 때나 어디 밭에 빼러 올 수 있어?)

103058 @ 게난예.(그러니까요.)

103058 # 겨난 집이 그거 다 ᄆᆞ쉬 신 사름 줘불민 가져가민 그거 줫당 봄 나민 쉐도 빌곡.(그러니까 집에 그거 다 마소 있는 사람 줘버리면 가져가면 그거 줬다가 봄 나면 소도 빌리고.)

103058 @ 응, 그 값으로.(응, 그 값으로.)

103058 # 밧도 빌엉 갈곡 경허는 거. 이 조남뎅이도 그렇고 감저꿀도 그렇고 ᄆᆞ쉬 신 사름 다 도렌 허여.(밭도 빌려서 갈고 그렇게 하는 거. 이 조 줄기도 그렇고 고구마 덩굴도 그렇고 마소 있는 사람 다 달라고 해.)

103058 @ 아, 멕이젠?(아, 먹이려고?)

103058 # 응, 멕이젠. 조남뎅이도 이거 조남뎅이 이 쉐 먹는 것이 우리 지금 이 저 나룩밥 먹듯 맛이 좋덴 허는 거라.(응, 먹이려고. 조 줄기도 이거 조 줄기 이 소 먹는 것이 우리 지금 이 저 쌀밥 먹듯 맛이 좋다고 하는 거야.)

103058 @ 아, 소가 좋아하는구나예.(아, 소가 좋아하는군요.)

103058 # 응, 감저꿀광 이제 조남뎅이.(응, 고구마 덩굴이랑 이제 조 줄기.)

103058 @ 아, 소가 젤 좋아하는 거이.(아, 소가 젤 좋아하는 거.)

103058 # 젤 좋아허는 것이 그거엔 허주. 경허난 조남뎅이나 감저꿀이나 아져가렌 허민 막 좋아허여. 남저덜이, 아이고, 이거 쉐 먹엉 좋겐.(젤 좋아하는 것이 그거라고 하지. 그러니까 조 줄기나 고구마 덩굴이나 가져가라고 하면 아주 좋아해. 남자들이, 아이고, 이거 소 먹어서 좋겠다고.)

103058 @ 고맙덴예.(고맙다고요.)

103058 # 고맙덴 헤여.(고맙다고 해.)

103058 @ 쉐촐보다 그게 더 좋아.(소꼴보다 그게 더 좋아.)

103058 # 그냥 이저 산에 강 비어오는 잡촐보단 그게 좋은 거. 그게 좋은 거.(그냥 이저 산에 가서 베어오는 잡꼴보다 그게 좋은 거. 그게 좋은 거.)

103058 @ 응, 맛좋구나.(응, 맛좋구나.)

103058 # 경허민 산에 강 비어온 촐은 ᄒᆞ루 두 번, 두 번 주민 요거 조칩은 ᄒᆞ루

줘. 조남뎅이는 ᄒᆞ루 ᄒᆞᆫ 번 줘.(그러면 산에 가서 베어온 꼴은 하루 두 번, 두 번 주면 요거 조짚은 하루 줘. 조 줄기는 하루 한 번 줘.)

103058 @ 아, ᄒᆞᆫ 번만, 응.(아, 한 번만, 응.)

103058 # 감저꿀도 ᄒᆞ루 ᄒᆞᆫ 번 줘.(고구마 덩굴도 하루 한 번 줘.)

103058 @ 아껴근에.(아껴서.)

103058 # 응, 아껴근에. 경헤게. 소 이신 사름덜은 경헤여.(응, 아껴서. 그렇게 해. 소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

기타 농사

103067 @ 그다음에는 메밀, 메밀이엔 ᄀᆞᆯ읍니까? 옛날엔 뭐엔 ᄀᆞᆯ아낫수과?(그다음에는 메밀, 메밀이라고 말합니까? 옛날엔 뭐라고 말했었습니까?)

103067 # 옛날엔 모믈.(옛날엔 메밀.)

103067 @ 모믈, 모믈 헤난 거.(메밀, 메밀 했던 거.)

103067 # 모믈 남뎅이 ᄀᆞ뜬 거는 통시에 담아놔. 것도 걸름허젠. 모믈 남뎅인 통시에 담아놔.(메밀 줄기 같은 거는 돼지우리에 담아놔. 그것도 거름하려고. 메밀 줄기는 돼지우리에 담아놔.)

103067 @ 모믈은 언제 씨 삐는 거꽈?(메밀은 언제 씨 뿌리는 겁니까?)

103067 # 모믈은 요거 씨 삐지 안허여. 요건이 불껑에다가. 불 ᄉᆞᆷ아난 불껑에 버무령 출구덕[75]에 영 뚜러멩 줍아놔.(메밀은 요거 씨 뿌리지 않아. 요건 재에다가. 불 때었던 재에 버무려서 '출구덕'에 이렇게 둘러매서 집어넣어.)

103067 @ 아.(아.)

103067 # 이젠 씨 작 뿌령 삐영 이 저 비료 시난에 씨 작허게 뿌려근엥에 경운기로 탁탁 두드령 내부는디 엿날엔 요추룩 골로 갈아이. 밧을 초불 갈앙 놧다근에 이건 초불 검질, 조팟듸 초불 검질 매어난 후제사 ᄒᆞ쏠허민 늦인 애기 나민 요건 모믈농ᄉᆞ, 경허듯이.(이젠 씨 쫙 뿌려서 뿌려서 이 저 비료 있으니까 씨 쫙하게 뿌려서 경운기로 탁탁 두드려서 내버리는데 옛날엔 요렇게 골로 갈아. 밭을 초벌 갈아서 놨다가 이건 초벌 김, 조밭에 초벌 김맸던 후에야 조금하면 늦은 아기 낳으면 요건 메밀농사, 그렇게 하듯이.)

103067 @ 아.(아.)

103067 # 건 다 농ᄉᆞ헤난 끗에 맨 막끗에라, 이건. 밧듸 조팟듸 검질 매다근에 ᄒᆞᆫ 칠뤌 초에나 뒈가민 이리 가근에 이건 ᄒᆞᆫ 너이라. 골만 영 자르르르 허게 끗어가는 거난. 쉐 아졍강 세벡이 가근에 붉기 전이 둘 신 때 밤이 골 끗어. 더우카분덴. 겨민 아졍강 무껑 시꺼다 놧당 불껑에 확확 서껑. 엿날 비료 엇일 때. 불껑에 서꺼근에 이놈으 출구덕 담앙 매어근에 줍아놓는 거주게. 요 고랑드레.(그건 다 농사하니까 끝에 맨 마지막에야, 이건. 밭에 조밭에 김매다가 한 칠월 초에나 되어가면 이리 가서 이건 한 넷이야. 골만 이렇게 자르르하게 끌어가는 거니까. 소 가져가서 새벽에 가서 밝기 전에 달 있을

75) '출구덕'은 대바구니의 한 가지로 허리나 옆구리에 차서 쓰는 바구니다.

때 밤에 골 끌어. 더울까봐. 그러면 가지고 가서 묶어서 실어다 놨다가 재에 확확 섞어서. 옛날 비료 없을 때. 재에 섞어서 이놈의 '출구덕' 담아서 매어서 집어넣는 거지. 요고랑에.)

103067 @ 응, 고랑드레.(응, 고랑에.)

103067 # 줍아놔.(집어넣어.)

103067 @ 그다음엔?(그다음엔?)

103067 # 줍아놓민 그걸로 끗. 경헹 끗어불민 끗.(집어넣으면 그걸로 끝. 그렇게 해서 끌어버리면 끝.)

103067 @ 뭘로 끗어.(뭘로 끌어.)

103067 # 끗는 거는 끄슬퀴[76] 끄슬퀴허멍 나무이파리 넙짝허게 만들어근에 영 뚜러멩 이레도 끗곡 이레도 끗곡 허민 끗어가민 막아져. 흑 막아졍 허민 그걸로 끗.(끄는 거는 '끄슬퀴', '끄슬퀴'하면서 나무이파리 넓적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둘러메서 이리도 끌고 이리도 끌고 하면 끌어가면 막혀. 흙 막혀서 하면 그걸로 끝.)

103067 @ 게민 끗? 쉽다예.(그러면 끝? 쉽네요.)

103067 # 응, 그거 모믈 카는 거 쉬와. 경헹 갈아근에 그 모믈은. 가는 거 이제도 뭐 씨 삐어근에 이젠 경운기로 확확 두드령 나가민 비료 확허게 헤불민 좋는디.(응, 그거 메밀 가는 거 쉬어. 그렇게 해서 갈아서 그 메밀은. 가는 거 이제도 뭐 씨 뿌려서 이젠 경운기로 확확 두드려서 나가면 비료 확하게 해버리면 좋은데.)

103067 @ 끄슬퀴로 끗는 건 모믈만 허는 거꽈, 아니민 다른 것도 경 끄슬퀴로 끗는 거꽈?('끄슬퀴'로 끄는 건 메밀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것도 그렇게 '끄슬퀴'로 끄는 겁니까?)

103067 # 끄슬퀴로 끗는 건 모믈벳긔 벨로 끗는 거 엇어. 모믈은 이거 영 고랑에 줍아놓민 그걸 끗엉 영 이것이 영 파니 지러기민 영 끗어비사 흙이 이레 더퍼지는 거. 흑 더프는 거 그건. 끄슬퀴로 끗는 건. 흑 더퍼주는 거, 모믈에.('끄슬퀴'로 끄는 건 메밀밖에 별로 끄는 거 없어. 메밀은 이거 이렇게 고랑에 집어넣으면 그걸 끌어서 이렇게 이것이 이렇게 이랑 길이면 이렇게 끌어버려야 흙이 이리 덮어지는 거. 흙 덮는 거 그건. '끄슬퀴'로 끄는 건. 흙 덮어주는 거, 메밀에.)

103067 @ 모멀 ᄒᆞ꼼씩 나가민 이것도 검질메 줘살 거 아니?(메밀 조금씩 나가면 이것도 김매 줘야할 거 아니?)

103067 # 아니, 검질 안 메어. 모믈팟듸 검질 안 메어. 검질 엇어. 늦어근엥에 갈아부는 따문에 검질 안 나. 시기가 늦어가난. 검질 나는 때가 다 잇는 거라. 모믈팟듼 검질 엇어.(아니, 김 안 매. 메밀밭에 김 안 매. 김 없어. 늦어서 가는 때문에 김 안 나. 시기가 늦어가니까. 김 나는 때가 다 있는 거야. 메밀밭엔 김 없어.)

103067 @ 겡 꼿 피엉 헤양허게 요즘 막 피어십디다, 모멀꼿.(그래서 꽃 피어서 하얗게 요즘 막 피었던데요, 메밀꽃.)

---

76) '끄슬퀴'는 뿌린 씨를 묻고 밭이랑을 고르는 데 쓰는 농기구로 길쭉길쭉한 나무를 함께 엮어 부채 모양으로 만든다.

103067 # 어, 이제 모믈꼿 막 피엇어. 이제 ᄒᆞ꼼 시민 그 모믈꼿 피엉 열아가멍 모믈꼿 채 아이 가분 때 비어, 모믈도. 비멍 보민 모믈꼿 늦인 건 헤뜩헤뜩 꼿두메기 잇어이. 굽으론 모믈 열앙 잇고.(어, 이제 메밀꽃 막 피었어. 이제 조금 있으면 그 메밀꽃 피어서 열리면서 메밀꽃 채 안 가버렸을 때 베어, 메밀도. 베면서 보면 메밀꽃 늦은 건 히뜩히뜩 꽃봉오리 있어. 밑으론 메밀 열려 있고.)

103067 @ 아.(아.)

103067 # 위에는 꼿 핀 거 잇고 경헌 때 비어. 그자 조 비어난 끗에민 확확 비어. 모믈 비젠 허민 엿날엔 눈 인칙 오난이, 요즘은 눈 인칙 아니와도 엿날엔 모믈 비젠 허민 짐벵이 작작. 짐벵이, 짐벵이 허여. 눈에 비에 서꺼진 거. 그거 작작 맞이멍 모믈 비어. 맨 막끗데 비주.(위에는 꽃 핀 거 있고 그런 때 베어. 그저 조 베었던 끝이면 확확 베어. 메밀 베려고 하면 옛날엔 눈 일찍 오니까, 요즘은 눈 일찍 안 와도 옛날엔 메밀 베려고 하면 진눈깨비 쫙쫙. 진눈깨비, 진눈깨비 해. 눈에 비에 섞어진 거. 그거 쫙쫙 맞으면서 메밀 베어. 맨 마지막에 베지.)

103067 @ 아.(아.)

103067 # 막끗데 농ᄉᆞ헐 때도 막끗데 허는디 비는 것도 막끗데 비어.(마지막에 농사할 때도 마지막에 하는데 베는 것도 마지막에 베.)

103067 @ 거난예.(그러니까요.)

103067 # 게난 모물께 헤양헌 말이 맞다게.(그러니까 메밀 하얀 말이 맞다.)

103067 @ 예, ᄒᆞ꼼 졉수다. ᄒᆞ꼼 지나멘.(예, 조금 지고 있어요. 조금 지나고 있어요.)

103067 # 이제 지나갈 때, 이거. 음력으로 구월이난에 이제.(이제 지나갈 때, 이거. 음력으로 구월이니까 이제.)

103067 @ 구월 초부터 모멀꼿 피엇저, 피엇저 헨게마는 요번이도 보난 아직도 피엉 이십디다.(구월 초부터 메밀꽃 피었다, 피었다 하던데 요번에도 보니까 아직도 피어 있던데요.)

103067 # 구월 뒈난 이제 ᄒᆞᆫ ᄃᆞᆯ.(구월 되니까 이제 한 달.)

103067 @ 모믈 비엉 그다음에 어떵 허여?(메밀 베어서 그다음에 어떻게 해?)

103067 # 그때 모믈 비엉 지금 나가 ᄀᆞᆫ는 게 아니 인칙이. 모믈 마당질을 모믈을 조금만 헌 사름은 집이 시꺼오고, 원체 부젯칩이덜 하영 간 사름은 멍석 ᄒᆞᆫ ᄋᆞ남은 개 시껑 가, 밧듸. 시껑가고 놉 빌곡 헹 가근에 멍석 페와놩 와작착와작착 ᄒᆞᆫ 밧듸 서이썩 사고 경헹 ᄋᆞ섯 사름. 또 날라 오는 사름 ᄒᆞᆫ 사름. 또 이레, 이레 강 줍아 놓는 사름 두 사름. 경허믄 ᄒᆞᆫ 여남은 사름 들어.(그때 메밀 베어서 지금 내가 말하는 게 아니 일찍. 메밀 마당질을 메밀을 조금만 한 사람은 집에 실어오고, 원래 부잣집에 많이 간 사람은 멍석 한 여남은 개 실어가, 밭에. 실어가고 놉 빌고 해서 가서 멍석 펴놔서 '와작착와작착' 한 군데에 세 명씩 서고 그렇게 해서 여섯 사람. 또 날라 오는 사람 한 사람. 또 이리, 이리 가서 집어 놓는 사람 두 사람. 그러면 한 여남은 사람 필요해.)

103067 @ 응.(응.)

103067 # 경허민 엿날엔 요샌 마다리 낫저. 엿날엔 가멩이에 멕에 경허민 이제 멕으로 담아놩 그것도 절복헹 또 쉐에 시껑와.(그러면 옛날엔 요샌 자루 났지. 옛날엔 가마니에 멱서리에 그렇게 하면 이제 멱서리로 담아놔서 그것도 '절복'해서 또 소에 실어와.)

103067 @ 다 거기서 도께질 헤난 걸 마다리에 담은 걸 시껑와?(다 거기서 도리깨질했던 걸 자루에 담은 걸 실어와?)

103067 @ 다 거기서 도께질헤난 걸 마다리에 담은 걸 시껑와?(다 거기서 도리깨질했던 걸 마대에 담은 걸 실어와?)

103067 # 응, 불리멍 불리멍 담아근에 여물만 담앙 ᄆᆞ쉬 신 사름덜 질메 지왕 갓당 멩텡이에 딱딱 무끄멍 시껑와.(응, 불리면서 불리면서 담아서 여물만 담아서 마소 있는 사람들 길마 지워서 갔다가 멱둥구미에 딱딱 묶으면서 실어와.)

103067 @ 경 안 헹 ᄒᆞ꼼 헌 사름은 집이 가졍왕 집이서 마당질허는 거지예?(그렇게 안 해서 조금 한 사람은 집에 가져와서 집에서 마당질하는 거지요?)

103067 # 아, 집이서 두드리고, 집이서 두드리고.(아, 집에서 두드리고, 집에서 두드리고.)

103067 @ 거민 그 보리낭, 보리낭 아니구나, 모멀낭은 뭐 허는 거꽈?(그러면 그 보릿대, 보릿대 아니구나, 메밀대는 뭐하는 겁니까?)

103067 # 모믈낭 경허난 그거 시꺼다근에 통시레 담아.(메밀대 그러니까 그거 실어다가 돼지우리에 담아.)

103067 @ 걸름으로.(거름으로.)

103067 # 걸름으로. 모믈 풍뎅이[77]덜은 풍뎅이, 풍뎅이허멍 그 모믈 불려나민 이파리 부서진 거 뒈야지 주고.(거름으로. 메밀 '풍뎅이'들은 '풍뎅이', '풍뎅이'하면서 그 메밀 불리고 나면 이파리 부서진 거 돼지 주고.)

103067 @ 아, 건 뒈야지 주고.(아, 그건 돼지 주고.)

103067 # 구진물에 컷다근에 뒈야지 주민 잘 먹어, 그거.(구정물에 담갔다가 돼지 주면 잘 먹어, 그거.)

103067 @ 아, 모멀 붕뎅이?(아, 메밀 '붕뎅이'?)

103067 # 응, 붕뎅이, 붕뎅이 허여, 그거.(응, '붕뎅이', '붕뎅이' 해, 그거.)

103067 @ 모멀 풍뎅이 건 뒈야지 주고예.(메밀 '풍뎅이' 그건 돼지 주고요.)

103067 # 조 풍뎅이, 모물 풍뎅이 거 믄 도야지 먹어.(조 '풍뎅이', 메밀 '풍뎅이' 그거 모두 돼지 먹어.)

103067 @ 아, 조풍뎅이, 모물풍뎅이.(아, 조 '풍뎅이', 메밀 '풍뎅이'.)

103067 # 응, 풍뎅이, 풍뎅이 허주게. 꺼풀.(응, '풍뎅이', '풍뎅이' 하지. 꺼풀.)

103067 @ 이거는 꺼풀.(이거는 꺼풀.)

103067 # 응. 모믈 뚜뜨려난 거나 조 뚜드려난 거나 이제 이거 불렁 깍드레 나간 거 막 훍은 거 말안 이거 모믈 풍뎅이 영허멍 앗당 도야지 주곡, 또 조 불려 나도 조 풍뎅

77) '풍뎅이'는 '풍뎅이'라고도 하며 곡식을 방아에서 찧을 때 나오는 겉껍질의 겨를 말한다.

이 도야지 주고.(응. 메밀 두드렸던 거나 조 두드렸던 거나 이제 이거 불려서 바깥으로 나간 거 아주 굵은 거 말고는 이거 메밀 '풍뎅이' 이렇게 하면서 가져다 돼지 주고, 또 조 불리고 나도 조 '풍뎅이' 돼지 주고.)

103067 @ 응.(응.)

103067 # 경허는 거. 믄 도야지, 엿날 도야지 질룰 때 그거 주멍.(그러는 거. 모두 돼지, 옛날 돼지 기를 때 그거 주면서.)

103067 @ 게민 그거 헤근에 모멀쏠은 어떵 장만허는 거꽈?(그러면 그거 해서 메밀쌀은 어떻게 장만하는 겁니까?)

103067 # 모믈쏠 정ᄀᆞ레에 ᄀᆞᆯ아.(메밀쌀 맷돌에 갈아.)

103067 @ 아, ᄆᆞᆯᄀᆞ레 안 가는 거 이건.(아, 연자매 안 가는 거 이건.)

103067 # 아니, 아니 건 ᄆᆞᆯᄀᆞ레서 안 ᄀᆞᆯ아. 정ᄀᆞ레 놔근에 초불은 영 ᄀᆞᆯ아놩 이젠 그 잠, 영 고망난 디 영 웃착에 무시거 쪼짝헌 거 잇지.(아니, 아니 그건 연자매서 안 갈아. 맷돌 놔서 초벌은 이렇게 갈아놔서 이젠 그 잠, 이렇게 구멍난 데 이렇게 위짝에 무엇 뾰족한 거 있지.)

103067 @ 응.(응.)

103067 # 그것에 ᄯᅡ시 뜸 놔근에 ᄒᆞ꼼 높으듯 허게 놩 영허민 ᄒᆞᆫ 모믈 세불, 네불이나 검펴사 다 뒈어.(그것에 다시 뜸 놔서 조금 높듯 하게 놔서 이렇게 하면 한 메밀 세벌, 네벌이나 거피해야 다 돼.)

103067 @ 아, 모믈도 여러 번 헤야 뒈는구나예?(아, 메밀도 여러 번 해야 되는군요?)

103067 # 응, 검피는 거 여라 번. 경헤영 초불 검평 체로 쳥 쏠 내왕 또 우이 거 ᄒᆞᆫ 불 검평 또 쏠 내와 앗앙 또 거피고 네불이나 거펴사 뒈어. 겨민 초불쏠은이 허민 ᄒᆞ꼼 궂어이. 떡 지져도 거멍허메. 두불, 세불, 네불 헤가민 그놈으 거 ᄀᆞ루 ᄀᆞᆯ아도 헤양허고 빙을 지져도 고와이. 초불쏠은 곱지 안헤, 거멍, 벌겅헌 게.(응, 거피하는 거 여러 번. 그렇게 해서 초벌 거피해서 체로 쳐서 쌀 내어서 또 위의 거 초벌 거피해서 또 쌀 내어서 가져다가 또 거피하고 네벌이나 거펴야 돼. 그러면 초벌쌀은 하면 조금 궂어. 떡 지져도 거매. 두벌, 세벌, 네벌 해가면 그놈의 거 가루 갈아도 하얗고 빙떡을 지져도 고와. 초벌쌀은 곱지 않아, 거멓고, 벌건 게.)

103067 @ 이거 모믈쏠 헐 때 저 뭐 껍데기?(이거 메밀쌀 할 때 저 뭐 껍데기?)

103067 # 껍데기 홁은홁은헌 껍데기 초불 ᄀᆞᆯ아난 홁은 껍데기는 베개 만들어. 베개 소곱에.(껍데기 굵디굵은 껍데기 초벌 갈았던 굵은 껍데기는 베개 만들어.)

103067 @ 모멀체.(메밀겨.)

103067 # 모믈체.(메밀겨.)

103067 @ 그다음엔.(그다음엔.)

103067 # 그다음엔 즘질아 불민 그냥 불 살롸불주, 불 살롸비어.(그다음엔 자잘해 버리면 그냥 불 사라버리지, 불 사라버려.)

103067 @ 아, 그믄 ᄀᆞ루 나온 건 이건.(아, 그러면 가루 나온 건 이건.)

103067 # ᄀᆞ루 나온 건 느젱이가이. 느젱이, 느젱이 허멍 그거는 뭐 범벅도 감저에 놩 범벅헹 먹어 불고.(가루 나온 건 나깨가. 나깨, 나깨 하면서 그거는 뭐 범벅도 고구마에 놔서 범벅해서 먹어 버리고.)

103067 @ 느젱이 범벅.(나깨 범벅.)

103067 # 응, 건 느젱이 범벅 헹 먹어 불고. 또 좁쏠 밥헹 먹을 때 설게 헌 땐 그거 느젱이 확 서끄민 밥이 복삭허여이. 게민 그거 밥에도 서껑 먹고.(응, 그건 나깨 범벅 해서 먹어 버리고. 또 좁쌀 밥해서 먹을 때 설익게 한 땐 그거 나깨 확 섞으면 밥이 '복삭'해. 그러면 그거 밥에도 섞어서 먹고.)

103067 @ 아.(아.)

103067 # 경 쏠ᄀᆞ루는 쏠은 놧당 제ᄉᆞ 때 묵도 허고 빙도 지지고.(그렇게 쌀가루는 쌀은 놨다가 제사 때 묵도 하고 빙떡도 지지고.)

103067 @ 묵도 허고 빙도 지지고.(묵도 하고 빙떡도 지지고.)

103067 # 그거.(그거.)

103067 @ 모멀은 묵허고 빙 지지고 벳긔 엇수과? 떡도 허는가, 이거.(메밀은 묵하고 빙떡 지지고 밖에 없습니까? 떡도 하는가, 이거.)

103067 # 떡도 허여. 친떡도 쳐.(떡도 해. 시루떡도 쪄.)

103067 @ 모믈로도 친떡 쳐마씨?(메밀로도 시루떡 쪄요?)

103067 # 무수에 서껑.(무에 섞어서.)

103067 @ 무수에 서껑?(무에 섞어서?)

103067 # 응, 무수 즘질이 썰엉 서껑 친떡 치민 복삭헌 게 맛잇어.(응, 무 자잘하게 썰어서 섞어서 시루떡 찌면 '복삭'한 게 맛있어.)

103067 @ 모멀친떡, 응.(메밀시루떡, 응.)

103067 # 겨고 쑥 잇잖아.(그리고 쑥 있잖아.)

103067 @ 예.(예.)

103067 # 봄 나가민 쑥 캐어당이네 범벅헤 먹고. 메밀ᄀᆞ루 놩.(봄 나가면 쑥 캐어다가 범벅해 먹고. 메밀가루 놔서.)

103067 @ 메밀ᄀᆞ루 놩. 이젠 쏠ᄀᆞ루 놩 쑥떡.(메밀가루 놔서. 이젠 쌀가루 놔서 쑥떡.)

103067 # 응, 쑥떡게. 쏠 ᄀᆞᆯ아근에 쑥떡도 헤 먹고.(응, 쑥떡. 쌀 갈아서 쑥떡도 해 먹고.)

103067 @ 쑥허고 메밀헤근에.(쑥하고 메밀해서.)

103067 # 빙 지졍 먹고 묵 쑤고 그거.(빙떡 지져서 먹고 묵 쑤고 그거.)

103067 @ 모멀은예?(메밀은요?)

103067 # 모멀ᄀᆞ루도 여라 가지여. 만두[78]도 좁앙 먹고.(메밀가루도 여러 가지야. '만두'도 만들어서 먹고.)

---

78) '만두'는 메밀가루로 둥그렇게 만든 후 안에 팥소를 넣고 가운데로 접어서 만들어 삶거나 쪄낸 후 팥고물을 묻힌 떡이다.

103067 @ 만두도 즙앙 먹고.(‘만두’도 만들어서 먹고.)

103067 # 만두도 이 저 제물 때 엿날엔이 제물 떡 큰일밧[79]듸 돈으로 부주 안 헤영 떡을 헤 가주게. 경허민 저 재료를 많이 들이지 말젠 허면 빙 지지고 손쉽게 헹 허젠 허면 그자 ᄀᆞ루 빙빙 ᄆᆞᆯ앙 만두 즙아.(‘만두’도 이 저 제물 때 옛날엔 제물 떡 ‘큰일밧’에 돈으로 부조 안 해서 떡을 해 가지. 그러면 저 재료를 많이 들이지 않으려고 하면 빙떡 지지고 손쉽게 해서 하려고 하면 그저 가루 빙빙 말아서 ‘만두’ 만들어.)

103067 @ 만둔 어떵헌 거꽈?(‘만두’는 어떻게 한 겁니까?)

103067 # 만뒤엔 헌 거 이디 만두 ᄑᆞ는 거 잇잖아이. 그추룩 영 동글랑허게 영 밀어놔근에 얍지룽이 밀어놩 사발로 영 동글랑허게 뜨잖아. 뜨민 그레 무시거 감저 친 거나 아니민 무수채나 속드레 영 놩 마주 톡 놩 영영영 접아불민 똑 접아져.(‘만뒤’라고 한 거 여기 만두 파는 거 있잖아. 그렇게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밀어놔서 얇게 밀어놔서 사발로 이렇게 동그랗게 뜨잖아. 뜨면 그리 무엇 고구마 찐 거나 아니면 무채나 속에 이렇게 놔서 마주 톡 놔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접어버리면 꼭 접어져.)

103067 @ 아, 조개송펜추룩?(아, 조개송편처럼?)

103067 # 응, 조개송펜ᄀᆞ추룩. 원 그거 크민 만두고 족게 허민 조개송펜이고.(응, 조개송편처럼. 원 그거 크면 만두고 작게 하면 조개송편이고.)

103067 @ 게민 만두 속에는 아까?(그러면 ‘만두’ 속에는 아까?)

103067 # 만두 속에도게 뭐 담지 안허여.(‘만두’ 속에도 뭐 담지 않아.)

103067 @ 뭐 담아수과 아까, 감저?(뭐 담았습니까, 아까, 고구마?)

103067 # 감저 청도 좀질이 채로 썰어근에 무수채나. 경헹 담아근에 그 모믈 만두는.(고구마 쪄도 자잘하게 채로 썰어서 무채나. 그렇게 해서 담아서 그 메밀 ‘만두’는.)

103067 @ 모믈 만두는 이렇게 만드는 거.(메밀 ‘만두’는 이렇게 만드는 거.)

103067 # 그거지.(그거지.)

103067 @ 밖에 쉬 무치고 영은 안 헤?(밖에 고물 묻히고 이렇게는 안 해?)

103067 # 쉬 무치는 거?(고물 묻히는 거?)

103067 @ 만두엔 안 무쳐?(‘만두’엔 안 묻혀?)

103067 # 무사 안 무쳐? ᄑᆞᆺ쉬 무치고 경 안허민 부떠.(왜 안 묻혀? 팥고물 묻히고 그렇지 않으면 붙어.)

103067 @ 아, 거니까.(아, 그러니까.)

103067 # ᄑᆞᆺ쉬 무쳐.(팥고물 묻혀.)

103067 @ ᄑᆞᆺ쉬 무쳐 베끗듸?(팥고물 묻혀 밖에?)

103067 # 응, ᄑᆞᆺ쉬고, 개역이고 무쳐.(응, 팥고물이고, 미숫가루고 묻혀.)

103067 @ 아, 개역도 무쳐도 뒈여?(아, 미숫가루도 묻혀도 돼?)

103067 # 응, 개역도. 이건 부뜨지만 못허게 놓는 거라. 조근조근 놓민 부떠부네.(응, 미숫가루도. 이건 붙지만 못하게 놓는 거야. 차근차근 놓으면 붙어버리네.)

103067 @ 응.(응.)

---

79) ‘큰일밧’은 집안의 중대한 일이 치뤄지는 장소라는 사전적인 뜻이 있겠으나 여기서는 장지를 의미한다.

103067 # 겨난.(그러니까.)

103067 @ 이 모멀 만뒤는, 모멀 만뒤?(이 메밀 '만뒤', 메밀 '만뒤'?)

103067 # 모멀 만두.(메밀 '만두'.)

103067 @ 모멀 만두는 어디 가져가는 거꽈? 언제 헹 먹는 거꽈?(메밀 '만두'는 어디 가져가는 겁니까? 언제 해서 먹는 겁니까?)

103067 # 그건이 집이서 제ᄉᆞ헤 먹젠 헤도 그거 헹 먹는 사름은 헹 먹고, 또 어디 큰일밧듸 제물떡 헤가는 거.(그건 집에서 제사해 먹으려 해도 그거 해서 먹는 사람은 해서 먹고, 또 어디 '큰일밧'에 제물떡 해가는 거.)

103067 @ 아, 제물떡.(아, 제물떡.)

103067 # 옛날은이 돈 부지가 엇어. 제물떡으로만.(옛날은 돈 부조가 없어. 제물떡으로만.)

103067 @ 제사 때도 허고 제물떡으로도 허고.(제사 때도 하고 제물떡으로도 하고.)

103067 # 제ᄉᆞ 때도 제물 들어오는 거 보민 만두 좁앙 들어와이. 우리는 이디서는 빙 지졍 내놓는디 어디 저 뚤덜이나 누게 오는 거 보민 제물떡 헹 오는 거 보민 그걸로 만두 좁앙 와.(제사 때도 제물 들어오는 거 보면 '만두' 만들어서 들어와. 우리는 여기서는 빙떡 지져서 내놓는데 어디 저 딸들이나 누가 오는 거 보면 제물떡 해서 오는 거 보면 그걸로 만두 만들어서 와.)

103067 @ 빙 대신에 허는 거꽈?(빙떡 대신에 하는 겁니까?)

103067 # 응, 빙 대신에. 뚤덜이나 어디 영 방상이나 ᄒᆞᆫ 디 쪼끔 생각허는 사름은 만두 좁앙 꼭꼭 만두 좁앙 ᄒᆞᆫ 고령[80]이엔 헌 거 차롱 쪼그만헌 차롱 잇어. 그걸로 하나.(응, 빙떡 대신에. 딸들이나 어디 이렇게 일가붙이나 한 데 조금 생각하는 사람은 '만두' 만들어서 꼭꼭 '만두' 만들어서 한 '고령'이라고 한 거 채롱 조그만 채롱 있어. 그걸로 하나.)

103067 @ ᄒᆞᆫ 고령, 고령.(한 '고령', '고령'.)

103067 # 응, 고령으로 하나 그거 헤영 와.(응, '고령'으로 하나 그거 해서 와.)

103067 @ 제물로.(제물로.)

103067 # 응, 제물로.(응, 제물로.)

103067 @ 제물로는 게민 어디 상 나거나 영헌 디 제물로 갈 때는 만두 말고는 다른 건 안 해?(제물로는 그러면 어디 상이 나거나 이렇게 한 데 제물로 갈 때는 '만두' 말고는 다른 건 안 해?)

103067 # 빙.(빙떡.)

103067 @ 아, 빙?(아, 빙떡?)

103067 # 응, 빙은 지지젠 허민 막. 엿날에 우리 어머니넨 상제 ᄒᆞ나에 ᄒᆞ나썩 주젠 허민 댓 상제 주젠 허민 초저녁이 앚앙 붉도록 지져. 아이고 난 나 조라와, 아이고 못 허쿠다게, 못 허쿠다, 조라왕. 요새추룩이.(응, 빙떡은 지지려고 하면 막. 옛날에 우리 어머니네는 상제 하나에 하나씩 주려고 하면 댓 상제 주려고 하면 초저녁이 앉아서 밝도

80) '고령'은 대로 엮어 만든 그릇 채롱으로 하나 만큼의 분량을 말한다.

록 지져. 아이고 난 나 졸려, 아이고 못 허겠습니다, 못 하겠습니다, 졸려서. 요새처럼.)

103067 @ 빙에는 무수?(빙떡에는 무?)

103067 # 무수채. 요새ᄀᆞ추룩 큰 판이 시민.(무채. 요새처럼 큰 판이 있으면.)

103067 @ 후라이판이라도 시민.(프라팬이라도 있으면.)

103067 # 그거 시민 ᄒᆞᆫ 판에 두 개, 세 개 지지거든. 요놈으 솟두껭이엔 ᄒᆞ나 넘어 못 허는 거라이.(그거 있으면 한 판에 두 개, 세 개 지지거든. 요놈의 솥뚜껑엔 하나 넘게 못 하는 거야.)

103067 @ 영 옴폭헤 부난.(이렇게 움푹해 버리니까.)

103067 # 게메, 알로 불 때어근에 낭불 때엉. 아이고, 어머니게 나 이거 조라왕 못허쿠다게, 못 허쿠다. 붉도록 초저녁이 앚앙 다섯 고령을 허영 내놓젠 허민 붉도록 상제 한 집쯤은.(그러게, 아래로 불 때어서 나무불 때어서. 아이고, 어머니 나 이거 졸려서 못 하겠습니다, 못 하겠습니다. 밝도록 초저녁에 앉아서 다섯 '고령'을 해서 내놓으려고 하면 밝도록 상제 많은 집쯤은.)

103069 @ 이디선 상웨떡은 안 헙니까?(여기선 상화떡은 안 합니까?)

103069 # 이제 상웨 안 헌다. 엿날에.(이제 상화 안 한다. 옛날에.)

103069 @ 옛날에 그니까.(옛날에 그러니까.)

103069 # 집이서 헤 먹을 때만 상웨허주, 어디 제물떡으로 못 헤 가.(집에서 해 먹을 때만 상화하지, 어디 제물떡으로 못 해 가.)

103069 @ 아, 제물떡으론 안 헤여.(아, 제물떡으로는 안 해.)

103069 # 못 헤여, 못 헤여. 그거 허젠 허민 얼마를 ᄀᆞᆷ을 들이렌. ᄀᆞᆷ이 하영 들어.(못 해, 못 해. 그거 하려고 하면 얼마를 감을 들이라고. 감이 많이 들어.)

103069 @ ᄀᆞᆷ이 하영 들어.(감이 많이 들어.)

103069 # 겐디이 일뤠[81], 여드레[82] 가는 할망덜은 그거 헹 가, 상웨 헹 가.(그런데 이레, 여드레 가는 할머니들은 그거 해서 가, 상화 해서 가.)

103069 @ 당에?(당에?)

103069 # 응, 당에 갈 때.(응, 당에 갈 때.)

103069 @ 일뤳당, 여드렛당?('일뤳당', '여드렛당'?)

103069 # 응, 경헌디 갈 땐 ᄒᆞᆫ 고령만 허는 거난이 밀ᄒᆞ루 ᄀᆞᆯ아. 건 밀로 헤여. 모믈론 안 뒈지. 밀ᄒᆞ루 ᄀᆞᆯ아근엥에 쉰다리 헤 놧당 박삭허게 쉰다리[83]가 시큼허게 퀘민 그것에 버무령 놔두민이. 겐디 요새 빵떡보다 그것이 맛잇어. 그 빵떡이.(응, 그런 데 갈 땐 한 '고령'만 하는 거니까 밀가루 갈아. 그건 밀로 해. 메밀론 안 되지. 밀가루 갈아서 '쉰다리' 해 놨다가 '박삭'하게 '쉰다리'가 시큼하게 괴면 그것에 버무려 놔두면. 그런데 요새 빵떡보다 그것이 맛있어. 그 빵떡이.)

103069 @ 아.(아.)

103069 # 그 밀ᄒᆞ루로 상웨, 상웨. 빵떡이엔 안헹 상웨, 상웨 헷주. 그거 피운 것이

81) '일뤠'는 '일뤳당'의 줄임말로 매달 이레에 찾아가는 당이다.
82) '여드레'는 '여드렛당'의 줄임말로 매달 여드레에 찾아가는 당이다.
83) '쉰다리'는 밥과 누룩으로 담가 만든 발효 음료다.

맛잇어낫어. 요새 빵보다.(그 밀가루로 상화, 상화. 빵떡이라고 안하고 상화, 상화 했지. 그거 부푼 것이 맛있었어. 요새 빵보다.)

103069 @ 상웨 안네는 쉬 안 놉니까?(상화 안에는 소 안 놉니까?)

103069 # 안 놔.(안 놔.)

103069 @ 아, 그냥 그것만.(아, 그냥 그것만.)

103069 # 그것만 헹 동그려근에 놔두민 뚜뜻헌 디 놔두민 북삭허게 피민 쳐. 경헹 우리 어머니네 허는 거 보민 일뤳당에 가젠 허민 그거.(그것만 해서 굴려서 놔두면 따뜻한 데 놔두면 푹신하게 부풀면 쪄. 그렇게 해서 우리 어머니네 하는 거 보면 '일뤳당'에 가려고 하면 그거.)

103069 @ 아까 옛날에 이디서 밀도 헤낫젠 허멍마씨?(아까 옛날에 여기서 밀도 했었다고 하면서요?)

103069 # 밀게. 밀을 헤사 상웰 허는 거. 밀상웨.(밀. 밀을 해야 상화를 하는 거. 밀상화.)

103069 @ 밀은 어떵 헤근에 허는 거꽈?(밀은 어떻게 해서 하는 겁니까?)

103069 # 밀도 그거이 밀도 보리추룩 두드려사 까지는 거. 홀탕. 밀도 그 기계로 영 홀타. 보리 홀트는 것에서 홀타근에 도께로 두드려사. 것도 ᄀᆞ스락이 잇는 거라이. 경헤 부난 경헹 두드리당 보민 밀이 쏠이 나와. 쏠만 나오면 그거 불령 그 쏠 놧다근에 그 상웨떡을 헹 먹젠 허민 이놈으 밀도이 물 적져근에 ᄆᆞᆯᄀᆞ레 강 ᄀᆞᆯ건 하영 안 나온다.(밀도 그것 밀도 보리처럼 두드려야 까지는 거. 홅아서. 밀도 그 그계로 이렇게 홅아. 보리 홅는 것에서 홅아서 도리깨로 두드려야. 그것도 까끄라기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두드리다 보면 밀이 쌀이 나와. 쌀만 나오면 그거 불려서 그 쌀 놨다가 그 상화떡을 해서 먹으려고 하면 이놈의 밀도 물 적셔서 연자매 가서 갈면 많이 안 나온다.)

103069 @ 하영 안헹 쪼금씩만.(많이 안 하고 조금씩만)

103069 # 쪼금씩 허는 거난 물 적정 방에서 지는 거라. 방에서 두어불 지엉 그 겁데기 벗어뒁 그땐 정ᄀᆞ레 영영헹 ᄀᆞ는 것에서 ᄀᆞ루 ᄀᆞᆯ앙 그거 빵떡 헹 일뤠, 여드레[84] 가는 거나 허주. 어디 하영 가는 건 못헤여.(조금씩 하는 거니까 물 적셔서 방아에서 찧는 거야. 방아에서 두어벌 찧어서 그 껍데기 벗겨두고 그땐 맷돌 이렇게 이렇게 해서 가는 것에 가루 갈아서 그거 빵떡 해서 '일뤠, 여드레' 가는 거나 하지. 어디 많이 가는 건 못해.)

103069 @ 밀은 언제 씨 뿌리는 거마씨?(밀은 언제 씨 뿌리는 거예요?)

103069 # 밀도 보리광 ᄀᆞ찌.(밀도 보리와 같이.)

103069 @ 아, 보리영 ᄀᆞ치.(아, 보리랑 같이.)

103069 # 딱 보리광 ᄀᆞ찌. 헤들 땐 ᄒᆞᆯ 보리보단 늦게 비고 갈 땐 보리나 ᄀᆞ찌 갈아.(딱 보리와 같이. 해들일 땐 조금 보리보다 늦게 베고 갈 땐 보리와 같이 갈아.)

103069 @ 아, 이건 겨울에, 겨울 농사구나예?(아, 이건 겨울에, 겨울 농사군요?)

103069 # 응, 겨울 농ᄉᆞ, 겨울 농ᄉᆞ 그건. 보리광 꼭ᄀᆞ찌 가는디 ᄒᆞᆯ 익음이 더뎌.

84) '일뤠, 여드레'는 '일뤳당, 여드렛당'의 줄임말로 사용한 것이다.

겨난 보리 문딱 비어 난 후제 말쩨사 비어.(응, 겨울 농사, 겨울 농사 그건. 보리와 똑같이 가는데 조금 익기가 더뎌. 그러니까 보리 모두 베고 난 후에 말째야 베어.)

103069 @ 비는 건.(베는 건.)

103069 # ᄒᆞ쏠 늦어.(조금 늦어.)

103069 @ 밀낭은 무신거 헙니까?(밀짚은 무엇 합니까?)

103069 # 밀낭은 그자 보리남뎅이광 ᄀᆞ찌 그자 통시레 담아부는 거.(밀짚은 그저 보릿대와 같이 그저 돼지우리에 담아버리는 거.)

103069 @ 아, 패랭이도 이걸로 멘들아?(아, 밀짚모자도 이걸로 만들어?)

103069 # 패렝이. 그 밀남뎅이 홀타나면 이 그 밀남뎅이 속에 질어. 요만큼씩 질어. 모작으로 똑 끊엉 영 빠민 이만큼썩 질어. 질민 그것이 또 요 꼬깽이 ᄀᆞ는 꼬깽이로 욜로 쏙 찔렁 잇고.(밀짚모자. 그 밀짚 홅고나면 이 밀짚 속에 길어. 요만큼씩 길어. 마디로 똑 잘라서 이렇게 빼면 이만큼씩 길어. 길면 그것이 또 요 끄트머리 가는 끄트머리로 요리로 쏙 찔러서 잇고.)

103069 @ 아, 경허민 길어지는 거라?(아, 그러면 길어지는 거야?)

103069 # 응. 또 문 헤여가민 쏙허민 욜로 영영 짜, 손으로.(응. 또 모두 해가면 쏙하면 요리로 이렇게 이렇게 짜, 손으로.)

103069 @ 아.(아.)

103069 # 영헤영 요거 영 놓곡 영허곡 헹 짜. 빙허게 경 막 걸게 짜놔근에 이제 우리냥으로 이제 패랭일 만들아 가는 거라. 처음에 꼭두메기부터 문저. 꼭두메기부터 뱅뱅 헤영 요디 들어가는 거 헤놩 또 너부지는 ᄒᆞ쏠 영 그걸 안트레 가는 거 쏙 요영 재우멍 부찌곡 베끗듸렌 영 늘롸가멍 부찌곡 경헹 패렝이 멘들앙 쓰고.(이렇게 해서 요거 이렇게 놓고 이렇게 하고 해서 짜. 빙하게 그렇게 아주 걸게 짜놔서 이제 우리대로 이제 밀짚모자를 만들어 가는 거야. 처음에 꼭대기부터 먼저. 꼭대기부터 뱅뱅 해서 요기 들어가는 거 해놓고 또 넓이는 조금 이렇게 그걸 안으로 가는 거 쏙 요렇게 조이면서 붙이고 바깥으로는 이렇게 늘려가면서 붙이고 그렇게 해서 밀짚모자 만들어서 쓰고.)

103069 @ 아, 밀낭으로.(아, 밀짚으로.)

103069 # 응, 밀낭으로. 것이 질겨, 보리낭보다. 경헹 허는 거.(응, 밀짚으로. 그것이 질겨, 보릿대보다. 그렇게 해서 하는 거.)

103069 @ 밀낭은 그거 말고, 걸름허는 거 말고 쓸데기는 없는 거?(밀짚은 그거 말고, 거름하는 거 말고 쓸모는 없는 거?)

103069 # 쓸데기 엇어. 보리낭이영 ᄀᆞ찌 그자 통시레 담아부는 거.(쓸모 없어. 보릿대랑 같이 그저 돼지우리에 담아버리는 거.)

103069 @ 밀도 겨울 농시난 저 보리영 비슷허게 검질도?(밀도 겨울 농사니까 저 보리랑 비슷하게 김도?)

103069 # 응, 검질도 ᄀᆞ찌 메고 보리 갈 때 ᄀᆞ찌 갈고. 빌 때만 보리보다 ᄒᆞ쏠 늦게 비어. ᄒᆞ쏠 늦게 비는 거.(응, 김도 같이 매고 보리 갈 때 같이 갈고. 벨 때만 보리보다 조금 늦게 베어. 조금 늦게 베는 거.)

103069 @ 밀은 막 하영은 안 허고예?(밀은 아주 많이는 안 하고요?)

103069 # 하영 안 허여, 쪼끔쪼끔. 헤 먹을 일 한 사름이나.(많이 안 해, 조금조금. 해 먹을 일 많은 사람이나.)

103069 @ 상웨떡 멘드는 거벳긔 밀은 쓸 일 엇인가?(상화떡 만드는 거밖에 밀은 쓸 일 없나?)

103069 # 쓸 일 엇어. 무신 빙을 지져져 뭘 헤여? 빙도 못 짓고 그자 상웨떡헤영 먹고 그자 묵 지지는 거.(쓸 일 없어. 무슨 빙떡을 지져서 뭘 해? 빙떡도 못 지지고 그저 상화떡해서 먹고 그저 묵 지지는 거.)

103069 @ 밀로도 묵 지집니까?(밀로도 묵 지집니까?)

103069 # 묵 지져. 묵은 지져.(묵 지져. 묵은 지져.)

103069 @ 묵은 지져?(묵은 지져?)

103069 # 응, 묵 지져근에 그자 거. 묵 지지는 거허고 상웨 피우는 거허고.(응, 묵 지져서 그저 그거. 묵 지지는 거하고 상화 부풀리는 거 하고.)

103069 @ 상웨 피우는 거 허고예.(상화 부풀리는 거 하고.)

103069 # 기자 엿날엔 그걸로 헹 ᄀᆞ레에 검펴근에 영 두 개썩 벌러지게 거핀덴 허여. 그거는 거핀덴 정ᄀᆞ레서 검평허민 그거 컷당 접지랑 풀, 옷에 풀 멕이는 거.(그저 옛날엔 그걸로 해서 맷돌에 벗겨서 이렇게 두 개씩 쪼개서 거피한다고 해. 그거는 거피한다고 맷돌에서 거피해서 하면 그거 담갔다가 짜서 풀, 옷에 풀 먹이는 거.)

103069 @ 아, 옷에 풀 멕이는 거.(아, 옷에 풀 먹이는 거.)

103069 # 응. 그거 접지랑 쑤엉 옷에 풀허는 거. 엿날엔 미녕옷만 입어시난 풀 아니 허민 못 입지. 경허난 그것에 흰 옷덜 입엉 광목옷, 미녕옷 그것에 흰 옷 입어노난 게나저나 그거 컷다근에 ᄌᆞ늘민[85] 막 접지라근에 접지랑 걸로 풀 쒀근에 풀허는 거, 풀허는 거. 상웨떡 만드는 거. 기자 떡도이, 묵은 지져져. 얄룹게 정기[86] 못 지지고 묵은 지져. 걸로 묵 지져 먹는 거.(응. 그거 짜서 쑤어서 옷에 풀하는 거. 옛날엔 무명옷만 입었으니까 풀 안 하면 못 입지. 그러니까 그것에 흰 옷들 입어서 광목옷, 무명옷 그것에 흰 옷 입어서 그러나저러나 그거 담갔다가 'ᄌᆞ늘민' 막 짜서 짜서 그걸로 풀 쒀서 풀하는 거, 풀하는 거, 상화떡 만드는 거. 그저 떡도, 묵은 지질 수 있어. 얇게 '정기' 못 지지고 묵은 지져. 그걸로 묵 지져 먹는 거.)

103060 @ 이 동네는 수박이나 참웨 이런 거는 안 헤낫지예?(이 동네 수박이나 참외 이런 거는 안 했지요?)

103060 # 안 헤난, 허는 사름 엇어 이디.(안 했었어, 하는 사람 없어, 여기.)

103062 @ 고치는?(고추는?)

103062 # 고치는 싱거. 많인 안 싱그는디 이녁 먹을 건 다 싱거.(고추는 심어. 많이는 안 심는데 자기 먹을 건 다 심어.)

103062 @ 먹을 것만.(먹을 것만.)

---

85) 'ᄌᆞ늘다'는 메마르고 거칠었던 것이 수분을 적당이 머금은 상태가 되었다는 뜻이다.

86) '정기'는 빙떡을 다르게 부르는 이름이다.

103062 # 응, 먹을 것만 싱거.(응, 먹을 것만 심어.)

103062 @ 고치헐 때 특별히 다른 농사영 다른 거 잇수과?(고추할 때 특별히 다른 농사랑 다른 거 있습니까?)

103062 # 다른 농ᄉᆞ 무신거 이디 사름덜은 미깡허고, 그자. 고치 이녁 먹는 거 허고 콩도 이 검은콩 ᄀᆞ뜬 거 콩, 이파리 튿아 먹젠 쪼끔쪼끔 많인 안 헤여.(다른 농사 무엇 여기 사람들은 귤하고, 그저. 고추 자기 먹는 거하고 콩도 이 검은콩 같은 거, 콩 이파리 뜯어 먹으려고 조금조금 많이는 안 해.)

103063 @ 아니, 옛날에 헤난 거예. 배추도 옛날에 갈앙 먹어낫잖아예? 배추는 어떵헹 갈앙, ᄂᆞ물, ᄂᆞ물은 어떵 갈아근에 허는 거꽈?(아니, 옛날에 했던 거요. 배추도 옛날에 갈아서 먹었었잖아요? 배추는 어떻게 해서 갈아서, 나물, 나물은 어떻게 갈아서 하는 겁니까?)

103063 # 엿날 배추. 갈아도이 이 중간으로 이레 비료 난 후제는 심어이, 모종 놧당. 심을 때도 잇고 또 경 안헹 그냥 씨 삐엉 갈앙 그자 소꽈, 소꽈. 소꽝 다박다박헌 거 뒈엄직헌 것더레만 비료 톡톡헹 놔두민 씨만 존 거 헤당 허민 퍼기 안아. 퍼기 안으멍 그냥 걸로 김치헹 먹고.(옛날 배추. 갈아도 이 중간으로 이리 비료 난 후에는 심어, 모종 놨다가. 심을 때도 있고 또 그렇게 안 해서 그냥 씨 뿌려서 갈아서 그저 솎아, 솎아. 솎아서 '다박다박'한 거 될 것 같은 것으로만 비료 톡톡해서 놔두면 씨만 좋은 거 해다가 하면 포기 앉아.)

103063 @ 퍼기 안아가 뭐?('퍼기 안아'가 뭐?)

103063 # 퍼기엔 헌 거 이제 요렇게 영 퍼기지잖아.(포기라고 한 거 이제 요렇게 이렇게 포기지잖아.)

103063 @ 속 앚이는 거?(속 앉는 거?)

103063 # 응, 속 앚이는 거. 것ᄀᆞ라 퍼기, 혼 퍼기.(응, 속 앉는 거, 그것보고 포기, 한 포기.)

103063 @ 혼 퍼기, 옛날 ᄂᆞ물덜은 영 속 안 앚고 영 퍼데기처럼.(한 포기, 옛날 나물들은 이렇게 속 안 앉고 이렇게 '퍼데기'처럼.)

103063 # 퍼데기도 잇고. 저 당배추[87]엔 헌 거이 속은 영 요 색 배추ᄀᆞ추룩 웅크려지진 안헤여. 웅크려지진 안헤도 요영 헤지멍 부드러와. 그거 당배추, 당배추 헌 거.('퍼데기'도 있고. 저 '당배추'라고 한 거 속은 이렇게 요 색 배추처럼 웅크려지지는 않아. 웅크려지지는 않아도 요렇게 해지면서 부드러워. 그거 '당배추', '당배추' 한 거.)

103063 @ 당배추.('당배추'.)

103063 # 당배추엔 헌 것이 영 속은 안 앚아도 그것이 부드러왕 허민 그거 케다근에 쫀물에 죽여 둠서라.('당배추'라고 한 것이 이렇게 속은 안 앉아도 그것이 부드러워서 하면 그거 캐다가 짠물에 죽여 두고.)

103063 @ 짐치?(김치?)

87) '당배추'는 '당배치'라고도 하며 토종 배추에서 조금 개량된 배추다. 속은 앉지 않아도 하얗고 부드러워서 김치를 담가 먹었다.

103063 # 짐치헹 먹엇지.(김치해서 먹었지.)

103063 @ 그건 밧듸 하영 가는 이디 어디 우영에나.(그건 밭에 많이 가는 여기 어디 텃밭에나.)

103063 # 응, 이녁 먹을 만큼씩. 많이 갈앙 누게 픗나, 누게 주나 안 허고 이녁 먹을 만썩.(응, 자기 먹을 만큼씩. 많이 갈아서 누구 파나, 누구 주나 안 하고 자기 먹을 만큼씩.)

103063 @ 우영이나 아니민 밧듸 에염에?(텃밭이나 아니면 밭에 옆에?)

103063 # ᄒᆞ꼼썩. 이녁 먹을 만씩만.(조금씩. 자기 먹을 만큼씩만.)

103064 @ ᄂᆞᆷ삐도?(무도?)

103064 # ᄂᆞᆷ삐도 그렇고.(무도 그렇고.)

103064 @ ᄂᆞᆷ삐영 배추는 씨는 어떵 헹 받는 거꽈?(무랑 배추는 씨는 어떻게 해서 받는 겁니까?)

103064 # 씨도 그냥이 배추씨도 갈앙 먹당 멧 개 내불민 씨가 올라와이. 올라오민 그거 털엉 또 갈고. 무수도 매어 먹당 내불민 씨 올라오민 그거 받앙 갈곡. 겨난 요즘은 다 사단 헴주마는 그전이 다 이녁대로 씨 받으멍.(씨도 그냥 배추씨도 갈아서 먹다가 몇 개 내버리면 씨가 올라와. 올라오면 그거 떨어서 또 갈고. 무도 매어 먹다가 내버리면 씨 올라오면 그거 받아서 갈고. 그러니까 요즘은 다 사다가 하고 있지마는 그전에 다 자기대로 씨 받으면서.)

103064 @ 씨 받는 ᄂᆞᆷ삐나 ᄂᆞ물은 무신거엔 ᄀᆞᆫ는 말 이수과?(씨 받는 무나 나물은 무엇이라고 하는 말 있습니까?)

103064 # 엇어.(없어.)

103064 @ 무신 ᄂᆞ물, 무신 무수 영.(무슨 나물, 무슨 무 이렇게.)

103063 # 소배추[88], 당배추 요거벳긔 엇엇저.('소배추', '당배추' 요거밖에 없었어.)

103063 @ 소배추, 당배추?('소배추', '당배추'?)

103063 # 소배치엔 헌 건 이 퍼기 안 안아.('소배치'라고 한 건 이 퍼기 안 앉아.)

103063 @ 퍼기 안 안는 거.(포기 안 앉는 거.)

103063 # 응, 끌여 먹음만 허는 거. 국만 끌여 먹는 거고. 당배치엔 헌 건 배추가 속은 안 앚아도 배치가 헤영허여이. 헤영허고 얼랑얼랑[89]허고 소배치엔 헌 건 ᄒᆞ쏠 깜시룽헤여. 배치 이파리가 빼닥빼닥허고.(응, 끓여 먹기만 하는 거. 국만 끓여 먹는 거고. '당배치'라고 한 건 배추가 속은 안 앉아도 배추가 하얘. 하얗고 '얼랑얼랑'하고 '소배치'라고 한 건 조금 까매. 배추 아파리가 빠닥빠닥하고.)

103063 @ 빼닥빼닥허고.(빠닥빠닥하고.)

103063 # 게난 그건 국 끌여 먹는 거고 당배치엔 헌 건 김치 담가 먹는 거고.(그러니까 그건 국 끓여 먹는 거고 '당배치'라고 한 건 김치 담가 먹는 거고.)

103063 @ 응.(응.)

---

88) '소배추'는 '소배치'라고도 하며 이파리가 빳빳하고 거무스름한 배추다. 김치를 담가 먹지 못하고 국을 끓여먹는 용도로 사용했다.

89) '얼랑얼랑'은 몹시 야들야들하고 윤이나는 모양이다.

103064 # 엿날에 무신 단지무수엔 헌 거 몽클랑몽클랑헌 것ᄀᆞ라 단지무수[90], 단지무수헤여이. 그거허고 쉐뿔무수[91]는 우트레 꾸짝꾸짝[92] 올라간 거.(옛날에 무슨 '단지무수'라고 한 거, 몽클몽클한 것보고 '단지무수', '단지무수'해. 그거하고 '쉐뿔무수'는 위로 곧게곧게 올라간 거.)

103064 @ 쉐뿔무수?('쉐뿔무수'?)

103064 # 응, 우트레 꾸짝꾸짝 올르는 건 쉐뿔무수라. 쉐뿔ᄀᆞ치 영 질잖아게.(응, 위로 곧게곧게 오르는 건 '쉐뿔무수'야. 소뿔처럼 이렇게 길잖아.)

103064 @ 아.(아.)

103064 # 그건 쉐뿔무수. 또 몽클락헌 건 단지무수. 그거 두 가지, 우리 헐 때. 이젠 믄 무수고 무시거고 믄 사멍 먹곡 배추도 사멍 먹곡 헤도 엿날엔 사나지 안헷저.(그건 '쉐뿔무수', 또 몽클한 건 '단지무수'. 그거 두 가지, 우리 할 때. 이젠 모두 무고 무엇이고 모두 사면서 먹고 배추도 사면서 먹고 해도 옛날엔 사지 않았었지.)

103064 @ 이제 무사 열무짐치, 열무짐치 헙니께, 그 열무짐치는?(이제 왜 열무김치, 열무김치 하잖습니까, 그 열무김치는?)

103064 # 엿날엔 그거 엇엇어. 이디선 그거 엇언.(옛날엔 그거 없었어, 여기선 그거 없었어.)

103064 @ ᄎᆞ마긴 무신거꽈, 그믄?('ᄎᆞ마기'는 뭡니까, 그러면?)

103064 # ᄎᆞ마기[93]엔 헌 거 체암에 열무 무수 나올 때 젠젠헐 때.('ᄎᆞ마기'라고 한 거 처음에 열무 무 나올 때 자잘할 때.)

103064 @ 아, 무수 처음 나올 때, 젠젠헐 때. 그거 소끄멍은에.(아, 무 처음 나올 때, 자잘할 때. 그거 솎으면서.)

103064 # 응, 젠젠헐 때. 소꽈 먹을 때. ᄎᆞ마기, ᄎᆞ마기.(응 자잘할 때. 솎아 먹을 때. 'ᄎᆞ마기. ᄎᆞ마기'.)

103064 @ 그걸로 헹 ᄎᆞ마기 허는 거?(그걸로 해서 'ᄎᆞ마기' 하는 거?)

103064 # 응, ᄎᆞ마기, ᄎᆞ마기 허는 거.(응, 'ᄎᆞ마기, ᄎᆞ마기' 하는 거.)

103064 @ 그게 열무는 아니지예? 이제 열무영은 ᄐᆞ난 거지예?(그게 열무는 아니지요? 이제 열무랑은 다른 거지요?)

103064 # 몰라, 그 ᄂᆞ물이 ᄒᆞ쏠 틀린 건가? 것도 춤ᄂᆞ물[94]은 춤ᄂᆞ물인디. 지금 무수 닮은 ᄂᆞ물인디 그게. 무수 닮으면서도 요새 나는 그 저 요새 나는.(몰라, 그 나물이 조금 다른 건가? 그것도 '춤ᄂᆞ물'은 '춤ᄂᆞ물'인데. 지금 무 같은 나물인데 그게. 무 같으면서도 요새 나는 그 저 요새 나는.)

103064 @ 열무?(열무?)

103064 # 열무 그 씨가 그 씰 거라. ᄎᆞ마기엔 헌 게 말만 틀렷지. 그것이 웨냐면이

90) '단지무수'는 단지 모양을 닮은 무을 말한다.
91) '쉐뿔무수'는 무 모양이 소뿔을 닮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92) '꾸짝꾸짝'은 나무나 줄기 따위가 굽거나 비뚤어지지 아니하고 똑바른 모양을 나타낸 말이다.
93) 'ᄎᆞ마기'는 뿌리가 들기 전의 무를 말한다.
94) '춤ᄂᆞ물'은 싹이 나서 오래되지 않은 무 이파리를 말한다.

ᄂᆞ물 색제가 보민 요새에 ᄂᆞ물광 그거 ᄀᆞ따. ᄎᆞ마기, ᄎᆞ마기 헤도 열무나 마찬가지. 그것도 막 그냥 뽑으멍덜 우리 이디서는 그거 뽑아근에 기냥 어디 풀레도 안 가고 이녁 먹을 거 조끔 헷주마는 시르레 강 보민 그거 그땐 콘테나 헹 강 막 시장에 강 ᄑᆞ는 거 보민 ᄎᆞ마기 ᄎᆞ마기허멍 ᄑᆞ는 거 이제 열무 그거라, 마찬가지.(열무 그 씨가 그 씨일 거야. ‘ᄎᆞ마기’라고 한 게 말만 달랐지. 그것이 왜냐하면 나물 색깔이 보면 요새에 나물과 그거 같아. ‘ᄎᆞ마기, ᄎᆞ마기’ 해도 열무나 마찬가지. 그것도 막 그냥 뽑으면서 우리 여기서는 그거 뽑아서 그냥 어디 팔러도 안 가고 자기 먹을 거 조금 했지마는 제주시로 가서 보면 그거 그땐 컨테이너 해서 가서 막 시장에 가서 파는 거 보면 ‘ᄎᆞ마기, ᄎᆞ마기’ 하면서 파는 거 이제 열무 그거야, 마찬가지.)

103064 @ 아까 ᄎᆞᆷ나물이엔 헤신디 ᄎᆞᆷ나물은 무신거?(아까 ‘ᄎᆞᆷ나물’이라고 했는데 ‘ᄎᆞᆷ나물’은 뭐?)

103064 # ᄎᆞᆷ나물 그거라.(‘ᄎᆞᆷ나물’ 그거야.)

103064 @ 그게 뭔디?(그게 뭔데?)

103064 # ᄀᆞᆺ사 ᄀᆞᆯ은 거.(아까 말한 거.)

103064 @ 무수?(무?)

103064 # 무수.(무.)

103064 @ 무수 밑에 하양헌 건 무수고, 우에.(무 밑에 하얀 건 무고, 위에.)

103064 # 우트레 이파리 나온 건 ᄎᆞᆷᄂᆞ물.(위로 이파리 나온 건 ‘ᄎᆞᆷᄂᆞ물’.)

103064 @ 이파리는 ᄎᆞᆷᄂᆞ물. 아, 이파리는 ᄎᆞᆷᄂᆞ물. 밑에 하양헌 건 무수.(이파리는 ‘ᄎᆞᆷᄂᆞ물’. 아, 이파리는 ‘ᄎᆞᆷᄂᆞ물’. 밑에 하얀 건 무.)

103064 # 처암 갈 때 ᄎᆞᆷᄂᆞ물 갈아사컬, ᄎᆞᆷᄂᆞ물 갈아사컬 헤영 갈앙 뽑아먹을 땐 그걸 무수이파리엔 안헹 ᄎᆞᆷᄂᆞ물 ᄎᆞᆷᄂᆞ물허당 무수 커가민 무수이파리.(처음 갈 때 ‘ᄎᆞᆷᄂᆞ물’ 갈아야겠네, ‘ᄎᆞᆷᄂᆞ물’ 갈아야겠네 해서 갈아서 뽑아먹을 땐 그걸 ‘ᄎᆞᆷᄂᆞ물’이라고 않고 ‘ᄎᆞᆷᄂᆞ물, ᄎᆞᆷᄂᆞ물’ 하다가 무 커가면 무청.)

103064 @ 아, 나중에는.(아, 나중에는.)

103064 # 무수가 커가민.(무가 커가면.)

103064 @ 어릴 때.(어릴 때.)

103064 # 어릴 땐 ᄎᆞᆷᄂᆞ물, 무수 커가민 무수이파리.(어릴 땐 ‘ᄎᆞᆷᄂᆞ물’, 무 커가면 무청.)

103064 @ 무수이파리.(무청.)

103064 # 아이고, ᄒᆞᆫ 가지로 멧 가질 ᄀᆞᆯ암시냐게?(아이고, 한 가지로 몇 가지를 말하고 있니?)

103065 @ 게메. 지슬도 갈아낫지예?(그러게. 감자도 갈았었지요?)

103065 # 지슬은, 요샌 감저, 감저헤도 엿날엔 지슬. 조끔 조끔 욜로 요만썩 갈앙 이녁 먹을 만이.(‘지슬’은, 요새는 ‘감저, 감저’해도 옛날엔 ‘지슬’. 조금 조금 요리로 요만큼씩 갈아서 자기 먹을 만큼.)

103065 @ 먹을 만이.(먹을 만큼.)

103065 # 먹을 만이 엿날에 그자 그거 헤영 쪄 먹고 그거 헹 그자 반찬이나 ᄒᆞ꼼 이녁 먹을 거. 이젠 게난 그것도 벨로 안 헤. 벨로 안 헤여. 가을 것도 안허고 엿날엔 봄 것만 헹은에 가을 거 안헤여.(먹을 만큼 그저 그거 해서 쪄 먹고 그거 해서 그저 반찬이나 조금 자기 먹을 거. 이젠 그러니까 그것도 별로 안 해. 별로 안 해.)

103065 @ 이젠 두불 허잖아예?(이젠 두벌 하잖아요?)

103065 # 이젠 두불. 가을 거 허고, 봄에도 허고 두불.(이젠 두벌. 가을 거 하고, 봄에도 하고 두벌.)

103065 @ 감전 무신거 헹 먹읍니까? 아, 지슬은 지슬.(고구마는 무엇해서 먹습니까? 아, 감자는, 감자.)

103065 # 지슬, 아, 그냥 쪙도 먹고 그걸로 헤근에 똑똑 썰어근에 뭐 찌개헐 때 찌개에도 놩 ᄀᆞ찌 헹 먹고. 또 그것만 채로 썰엉 또 양념 놓곡 보깡. 경헹.(감자, 아, 그냥 쪄서도 먹고 그걸로 해서 똑똑 썰어서 뭐 찌개할 때에도 놔서 같이 해서 먹고. 또 그것만 채로 썰어서 또 양념 놓고 볶아서. 그렇게 해서.)

103065 @ 이제나 똑같네.(이제나 똑같네.)

103065 # 이제나 꼭ᄀᆞ따. 게민 그거 무신 반찬헤 먹젠 허민 딱딱허게 홁게 썰엉 놔두고, ᄀᆞ찌 찌개헤 먹는디.(이제나 똑같아. 그러면 그거 무슨 반찬해 먹으려고 하면 딱딱하게 굵게 썰어서 놔두고, 같이 찌개해 먹는데.)

103065 @ 떡도 헤먹읍니까? 지슬로 떡은 안 헹 먹어?(떡도 해 먹습니까? 감자로 떡은 안 해서 먹어?)

103065 # 지슬로 나 떡헹 먹는 거 못 봣어. 겐디 저 육지 아줌마덜 ᄀᆞᆫ는 거 보민 지슬, 그 봄지슬 알멩이 탁 항아리 물 놓곡 담앙 놔두민 것이 막 썩나 허는 거라. 썩으민 막 젓어근에 건데기 건져뒁 놔두민 드르륵 청이 앚는 거라. 청 앚이민 그거 또 똘라둬근에 물 놔근에 그걸 막 또 좀진체로 걸렁 제라헌 청만 앚져근에 혼 두불만 울롸둬근에 떡허민 그렇게 맛잇덴.(감자로 나 떡해서 먹는 거 못 봤어. 그런데 저 육지 아줌마들 말하는 거 보면 감자, 그 봄감자 알맹이 탁 항아리 물 놓고 담아서 놔두면 그것이 막 썩는다 하는 거야. 썩으면 막 저어서 건더기 건져두고 놔두면 드르륵 청이 앉는 거야. 청 앉으면 그거 또 따라두고 물 놔서 그걸 막 또 가는체로 걸러서 제대로 된 청만 앉게 헤서 한 두벌만 우려두고 떡하면 그렇게 맛있대.)

103065 @ 아니, 썩은 내 안 나?(아니, 썩은 내 안 나?)

103065 # 울롸비엄거든. 물에 놩 울롸근에 또 그거 ᄀᆞᆯ라앚이민 물 똘라뒁 ᄯᅳ시 새 물 놩 막 젓엉 또 놔두민 우러나멍 또 ᄀᆞᆯ라앚이민 두번, 세번만 울롸불민 막 좋넨.(우려버리거든. 물에 놔서 우려서 또 그거 가라앉으면 또 물 따라두고 다시 새 물 놔서 막 저어서 또 놔두면 우러나면서 또 가라앉히면 두 번, 세 번만 우려버리면 아주 좋대.)

103065 @ 제주도에선 그런 거 안 헤낫지예?(제주도에서 그런 거 안 했었지요?)

103065 # 제주도에선 안 헤여.(제주도에선 안 해.)

103065 @ 우리 옛날엔 그런 거 안 헤낫지예?(우리 옛날엔 그런 거 안 했었지요?)

103065 # 안 헤봣어. 지금도 제주도엔 안 헌다. 육지 사름덜이나 그거 허지. 우리가

지슬을 옛날엔 지슬, 지슬 헷주. 요즘 감저엔 헤도. 그 초렝이덜은 먹을 나위 엇이민 내불엇저.(안 해봤어. 지금도 제주도에서는 안 해. 육지 사람들이나 그거 하지. 우리가 감자를 옛날엔 '지슬, 지슬' 했지. 요즘 '감저'라고 해도, 그 '초렝이'들은 먹을 나위 없으면 내버렸어.)

103065 @ 초렝이가 뭐?('초렝이'가 뭐?)

103065 # 즌즌헌 거, 졸렝이, 졸렝이.(자잘한 거, 쭉정이, 쭉정이.)

103065 @ 졸렝이, 응.(쭉정이, 응.)

103065 # 내부난 이디 육지 사름덜이 완 살멍 이걸 무사 내비엄수겐 허는 거라. 거 뭐 헐 거니? 즌즌헌 거. 나 경허난 아이고 저거 담아다 쎅이민 청 앚졍 먹는디. 아이고 그까짓 거 헹 누게?(내버리니까 여기 육지 사람들이 와서 살면서 이걸 왜 내버리고 있냐고 하는 거야. 그거 뭐 할 거니? 자잘한 거. 나 그러니까 아이고 저거 담아다가 썩히면 청 앉혀서 먹는데. 아이고, 그까짓 거 해서 누구?)

103065 @ 아, 그렇게 말헨.(아, 그렇게 말했어.)

103065 # 경헤낫저.(그렇게 했었어.)

103066 @ 피도 헤낫수과? 피.(피도 했었습니까? 피.)

103066 # 피는이 저 저리왓[95]이라고이 테역밧 간 거. 그거 처암에 갈아 놓민 피 씨를 그디 앗당 뿌리는 거라. 그런 밧듸벳긔 안 뒌덴 허멍. 아니 영 헌 밧듸 갈민 것도 막 좋는디 어떵헌산디 저리왓, 저리왓 허멍 그 테역밧 처암 간 때엔 그 벙뎅이 강 탁탁 풀루와근에 그 피씨를 뿌리는 거라. 피씨 뿌령 놧당 그 피 허민, 이놈으거 쏠 내왕 먹기가 경 어렵다.(피는 저 '저리왓'이라고 잔디밭 간 거. 그거 처음에 갈아 놓으면 피 씨를 거기 가져다가 뿌리는 거야. 그런 밭에밖에 안 된다고 하면서. 아니 이렇게 한 밭에 갈면 그것도 아주 좋은데 어떻게 한 것인지 '저리왓', '저리왓' 하면서 그 잔디밭 처음 간 때엔 그 덩어리 가서 탁탁 풀어서 그 피씨를 뿌리는 거야. 피씨 뿌려서 놨다가 그 피 하면, 이놈의 거 쌀 내서 먹기가 그렇게 어렵다.)

103066 @ 산뒤보다 더 힘들어?(밭벼보다 더 힘들어?)

103066 # 아이고, 초불 ᄀᆞᆯ곡 두불 ᄀᆞᆯ곡 ᄆᆞᆯᄀᆞ레 강 ᄀᆞᆯ곡 두불 ᄀᆞᆯ곡 세불 ᄀᆞᆯ아가사 쏠이 나오는 거라이. 경허민 이거 ᄒᆞᆫ 댓불 ᄀᆞᆯ아사 쌀 내왕 먹어.(아이고, 초벌 갈고 두벌 갈고 연자매 가서 갈고 두벌 갈고 세벌 갈아가야 쌀이 나오는 거야. 그러면 이거 한 댓벌 갈아야 쌀 내서 먹어.)

103066 @ 아.(아.)

103066 # 쏠 제라허게 막 내와 먹젠 허민 경허민 막 어루와. 게난 방에서도 지언에 체 내와뒁 또 지고 또 지고. 막 쏠 내와 먹젠 허민 댓 번 져사.(쌀 제대로 막 내 먹으려고 하면 그러면 아주 어려워. 그러니까 방아에서도 찧어서 겨 내두고 또 찧고 또 찧고. 막 쌀 내어 먹으려고 하면 댓 번 찧어야.)

103066 @ 껍데기 벗겨지는 게 힘든 거?(껍데기 벗기는 게 힘든 거?)

---

95) '저리왓'은 소 두 마리가 끄는 쟁기로 가는 밭을 말하는데 소 한 마리로는 갈기 힘든 처음 개간하는 밭을 말한다.

103066 # 응, 껍데기 벗기는 게 경 힘들어. 겐디 밥은 헤 놓민 맛잇어이.(응, 껍데기 벗기는 게 그렇게 힘들어. 그런데 밥은 해 놓으면 맛있어.)

103066 @ 아.(아.)

103066 # 메밀쏠에다가 그거 서껑 밥헤 놓민 밥은 맛잇어. 복삭헌 게. 경허는디 쏠 내 먹기가 경 힘들다, 그게.(메밀쌀에다가 그거 섞어서 밥해 놓으면 밥은 맛있어. '복삭' 한 게. 그렇게 하는데 쌀 내어 먹기가 그렇게 힘들다, 그게)

103066 @ 어떤 데서는 밑에서 불 때어근에 뜨뚯허게 헤근에 껍데기 벗긴덴 헨 게마는 그렇게 안 해?(어떤 데서는 밑에서 불 때어서 따뜻하게 해서 껍데기 벗기다고 하던데 그렇게 안 해?)

103066 # 몰라, 우리 이 제주에서는. 요즘은 이 기계방이 나난 기계에서 ᄀᆞ는 거는 쏠 내우기가 쉽주마는 엿날은 이 물ᄀᆞ레서 ᄀᆞᆯ젠 허민 경 쏠 내기가 힘들어라.(몰라, 우리 이 제주에서는. 요즘은 이 공장이 나니까 기계에서 가는 거는 쌀 내기가 쉽지마는 옛날은 이 연자매에서 갈려고 하면 그렇게 쌀 내기가 힘들더라.)

103066 @ 아까 할머니 저리왓이엔 헤신디 저리왓은 무신거?(아까 할머니 '저리왓'이라고 했는데 '저리왓'은 뭐?)

103066 # 저리왓이엔 헌 거 테역밧 가는 거. 쉐 두 개 메왕 갈아.('저리왓'이라고 한 거 잔디밭 가는 거. 소 두 개 메워서 갈아.)

103066 @ 아, 쉐 두 개 메왕 가는 거.(아, 소 두 개 메워서 가는 거.)

103066 # 요샌이 트랙타 시난 탁탁 센 밧이라도 강 다 갈주마는 엿날은 그런 기계가 엇이난 밧갈쉐 막 센 밧갈쉐덜 두 개 메와근에 사름으로 쟁기로 갈젠 허민 쉐 두 개 메왕 갈아. 그 생밧을.(요샌 트렉터 있으니까 탁탁 센 밭이라도 가서 다 갈지마는 옛날은 그런 기계가 없으니까 '밧갈쉐' 아주 센 '밧갈쉐'들 두 개 메워서 사람으로 쟁기로 갈려고 하면 소 두 개 메워서 갈아. 그 생밭을.)

103066 @ 그게 저리왓.(그게 '저리왓'.)

103066 # 그게 저리왓이라. 경헹 갈아놓민 그거 벙뎅이 풀젠 허민 그냥 벙뎅이 풀어져? 저 느 ᄀᆞᆯ으민 알 건가? 궹이엔 헌 거 잇어. 그런 거 아졍 강 이 궹이가 요영 뒤꿈치로 막 두드려 그 테역벙에. 두드려사 풀주.(그게 '저리왓'이야. 그렇게 해서 갈아놓으면 그거 덩어리 풀려고 하면 그냥 덩어리 풀 수 있어? 저 너 말하면 알 건가? 괭이라고 한 거 있어. 그런 거 가지고 가서 이 괭이가 요렇게 뒤꿈치로 막 두드려, 그 볏밥. 두드려야 풀지.)

103066 @ 테역벙에?(볏밥?)

103066 # 응, 게민 풀롸. 풀롸사 그디 그거 풀뢍 혼 번 또 모믈이나 경 피농ᄉᆞ나 헤나사 것이 풀어졍 딴 농ᄉᆞ 헤 먹주. 경 안허민 헤 먹지 못 헤여. 경허난 그거 허젠 허민 힘들어. 저리왓, 저리왓 허멍. 아이고, 아무 집이 저리왓 헴젠, 저리왓 갈암젠 헤라 허민 그걸 어떵 풀룰 거니 허민 쉐스렁 아졍가는 사름 쉐스렁, 궹이덜 아졍가는 사름. 막 그 테역 풀루젠 허민 소리덜 허멍 막 풀롸.(응, 그러면 풀려. 풀려야 거기 그거 풀어서 한 번 또 메밀이나 그렇게 피농사나 하고나야 그것이 풀어져서 다른 농사 해 먹지. 그렇지

않으면 해 먹지 못 해. 그러니까 그거 하려고 하면 힘들어. '저리왓', '저리왓' 하면서. 아이고, 아무 집이 '저리왓' 하고 있대, '저리왓' 갈고 있다고 하더라 하면 그걸 어떻게 풀 거니 하면 쇠스랑 가져가는 사람 쇠스랑, 괭이들 가져가는 사람. 막 그 잔디 풀려고 하면 소리들 하면서 막 풀어.)

103066 @ 아.(아.)

103066 # 이젠 기계로 탁탁 풀롸주마는 그때 손으로 막 풀루젠 허민. 게민 저리왓 갈아놔근에 저걸 어떵헹 헤 먹을 거넨 허멍.(이젠 기계로 탁탁 풀고 있지마는 그때 손으로 막 풀려고 하면. 그러면 '저리왓' 갈아놓고 저걸 어떻게 해서 해 먹을 거냐고 하면서.)

103066 @ 저리왓 헹 다른 농사허기 전이 피를 잠깐 허는 거구나예?('저리왓' 해서 다른 농사하기 전에 피를 잠깐 하는 거군요?)

103066 # 응, 젤 문저 필 들이쳐. 그 테역 벙에 막 풀롸낭 피씨 들이쳥 피 갈아놩 그다음은 저 어디 산촌엔 가민 풋도 갈고, 풋도 갈고. 우리 두린 때 보민 우리 어머니네 풋 줏으레 강 오키여, 풋 줏으레 강 오키여 허민, 아, 풋은 어디 강 줏어 올 거꽈? 허당 보민 아이고 저 웃드르, 저리왓 간디 풋 갈앙 내부느녜 허멍.(응, 젤 먼저 피를 들이뜨려서 피 갈아 놓고 그다음 저 어디 산촌에는 가면 팥도 갈고, 팥도 갈고. 우리 어린 때 보면 우리 어머니네 팥 주우러 갔다 오겠다, 팥 주우러 갔다 오겠다 하면, 아, 팥은 어디 가서 주워 올 겁니까? 하다 보면 아이고 저 '웃드르', ' 저리왓' 간 데 팥 갈아서 내버리잖아 하면서.)

103066 @ 아.(아.)

103069 # 게민 강 ᄉᆞ망인[96] 날은 흔 말은 줏어 오는 거라, 풋을. 깐 거, 집이 오랑 깡 보민 흔 말을 줏어 오는 거라. 큰 마다리에 가근엥에 저 줏어아졍 졍 오랑 집이 오랑 막 벳듸 ᄆᆞᆯ령 영영 부비고. 여물 나와. 야, ᄉᆞ망인 날은 흔 말을 줏엉 오는 거라.(그러면 가서 'ᄉᆞ망인' 날은 한 말은 주워 오는 거야, 팥을. 깐 거, 집에 와서 까서 보면 한 말을 주워 오는 거야. 큰 마대에 가서 저 주워서 져서 와서 집에 와서 막 볕에 말려서 이렇게 이렇게 비비고. 여물 나와. 야, 'ᄉᆞ망인' 날은 한 말을 주워 오는 거야.)

103069 @ 풋은 게난 농사로 짓는 게 아니구나예?(팥은 그러니까 농사로 짓는 게 아니군요?)

103069 # 이 옛날 어른덜은 저 웃드르 밧덜은 농ᄉᆞ로 짓는 게 아니고 그자 그 저리왓 갈멍 풋씰 그냥 뿌령 내부는 셍이라. 게민 거둡지 못헹 내불민 줏으레 강 오는 거.(이 옛날 어른들은 저 '웃드르' 밭들은 농사로 짓는 게 아니고 그저 그 '저리왓' 갈면서 팥씨를 그냥 뿌려서 내버리는 모양이야. 그러면 거두지 못해서 내버리면 주우러 갔다 오는 거.)

103069 @ 풋은 게난 집이서 농사로는 안 허는 거꽈?(팥은 그러니까 집에서 농사로는 안 하는 겁니까?)

103069 # 무사 농ᄉᆞ허는 사름은, 집이 밧 이신 사름은 풋도 갈아.(왜 농사하는 사람

96) 'ᄉᆞ망일다'는 재수가 좋은 일이 생기거나 운이 좋은 일이 생긴다는 의미다.

은, 집에 밭 있는 사람도 팥도 갈아.)

103069 @ 아, 먹을 만이만?(아, 먹을 만큼만?)

103069 # 응, 먹을 만이. 겨민 무신 픗 서 말 헤 먹엇저, 너 말 헤먹엇저, 너 말이라야 흔 말이 관뒈로 네 개난 너 말. 집이 큰일 신 사름덜.(응, 먹을 만큼. 그러면 무슨 팥서 말 해서 먹었다, 너 말 해 먹었다, 너 말이라야 한 말이 관되로 네 개니까 너 말. 집에 큰일 있는 사람들.)

103069 @ 쉬?(고물?)

103069 # 쉬헐 거, 그거. 그거주, 무신 픗으로 콩ᄂᆞ물도 놔 먹는 거 아니고 밥에 서꺼 먹는 거, 큰일 때, 잔치 때 밥에 서꺼 먹고, 떡쉬허고 그자 그거. 밧 이신 사름덜 기자.(고물할 거, 그거. 그거지, 무슨 팥으로 콩나물도 놔 먹는 거 아니고 밥 섞어서 먹는 거, 큰일 때, 잔치 때 밥에 섞어 먹고, 떡고물하고 그저 그거. 밭 있는 사람들 그저.)

103069 @ 오늘 농ᄉᆞ헌 일은 다 ᄀᆞᆯ아진 처린가?(오늘 농사한 일은 다 말해진 차렌가?)

103069 # 다 못 ᄀᆞᆯ아실 거여. 강 따시 오라근에 또 튼내멍 또 ᄀᆞᆫ곡 허주. 흔 번에나 튼내지도 못허켜.(다 못 말했을 거야. 가서 다시 와서 또 생각해서 또 말하고 하지. 한 번에 다 생각하지도 못 하겠어.)

103069 @ 농사짓는 거 이거 말고 다른 농사지어난 거 이수과, 혹시?(농사짓는 거 이거 말고 다른 농사지었던 거 있습니까, 혹시?)

103069 # 농사져난 거 난 몰르켜. 엿날엔 어떵사 헤신지. 나 역은 후젠 콩, 보리 그자 감저 그거. 지금 헤 먹는 거 고구마 이젠 농사 안 지난 것도 몰라.(농사지었던 거 난 모르겠어. 옛날엔 어떻게야 했는지. 나 큰 후엔 콩, 보리 그저 고구마 그거. 지금 해 먹는 거 고구마 이젠 농사 안 지으니까 그것도 몰라.)

103069 @ 미깡은 언제부터 헷수과? 할머니 멧 살 때쯤부터 이디 미깡낭 싱거수과? ᄒᆞ꼼 빨리 헷주 이딘예?(귤은 언제부터 했습니까? 할머니 몇 살 때쯤부터 여기 귤나무 심었습니까? 조금 빨리 했지, 여긴요?)

103069 # 미깡 이디가 젤 빨리 헤신디 이것이 흔 우리 큰뚤이 오십ᄋᆞ섯이난에 흔 오십ᄋᆞ섯이난 흔 오십년 뒈엇구나. 조금조금 시작헌 건 오십 년. 심기 시작헌 거 오십 년. 흔 멧 년 새에 막 불어비서. 또 하우스허곤딘 이거 멧 년 안 뒈고. 나가 안 혀난 몰르주, 하우스 영 불어나건딘 흔 십 년? 십 년쯤 뒌.(귤 여기가 젤 빨리 했는데 이것이 한 우리 큰딸이 오십여섯이니까 한 오십여섯이니까 한 오십년 됐구나. 조금조금 시작한 건 오십 년. 심기 시작한 거 오십 년. 한 몇 년 사이에 아주 불어버렸어. 또 하우스한 지 이거 몇 년 안 되고. 내가 안 하니까 모르지, 하우스 이렇게 불어난 지 한 십 년? 십 년쯤 됐어.)

103069 @ 오십 년 전이 미깡낭 이디서 ᄒᆞ나씩 ᄒᆞ나씩 싱그기 시작헷구나예?(오십 년 전에 귤나무 여기서 하나씩 하나씩 심기 시작했군요?)

103069 # ᄒᆞ나씩 ᄒᆞ나씩 싱것어.(하나씩 하나씩 심었어.)

103069 @ 경헹 이제 다른 농사 안 허고 다 미깡밧으로만 이젠예.(그렇게 해서 이제

다른 농사 안 하고 다 귤밭으로만 이젠요.)

103069 # 이레는 흔 오십 년 뒈고 저 신하효[97]드레는 흔 육십 년 넘엇어.(이리는 한 오십 년 되고 저 신하효쪽에는 한 육십 년 넘었어.)

103069 @ 아, 신하효가 더 먼저 헷수과?(아, 신하효가 더 먼저 했습니까?)

103069 # 젤 문저 헌 게 그디서 싱건 흔 십 년 넘어가사 이레 싱것어. 겨난 젤 저 신하효가 엿날 완전 촌이라낫어이. 게단 이 미깡을 험 시작허난 부자가 와락 뒈부는 거라. 도시가 뒈어분 거. 겐 그디서 미깡에 돈을 남 시작헤 가난 쪼끔 쪼끔 쪼끔 헤 오는 게 경 뒈불언.(젤 먼저 한 게 거기서 심어서 한 십 년 넘어 가야 이리 심었어. 그러니까 젤 저 신하효가 옛날 완전 촌이었었어. 그러다가 이 귤을 하기 시작하니까 부자가 와락 돼버리는 거야. 도시가 되어버린 거. 그래서 거기서 귤에 돈이 나기 시작해 가니까 조금 조금 조금 해 오는 게 그렇게 돼 버렸어.)

103069 @ 이제 미깡벳긔 안 허주예?(이제 귤밖에 안 하지요?)

103069 # 이젠 미깡베끈 안 헤여. 다른 농수 베랑 허는, 헐 밧도 엇고. 미깡농수 다 헤부난. 이렌 헐 농수가 엇어.(이젠 귤밖에 안 해. 다른 농사 별로 하는, 할 밭도 없고. 귤농사 다 해버리니까. 이리는 할 농사가 없어.)

4. 들일

소 기르기

104001 @ 소는 어떻게 기릅니까?(소는 어떻게 기릅니까?)

104001 # 소를 어떻게 길르느냐고?(소를 어떻게 기르냐고?)

104001 @ 응.(응.)

104001 # 요즘은 저 목장에 놩 질뤗주마는 옛날엔 쉐막이라고 영 밧거리가 뚜로 잇어이.(요즘은 저 목장에 놔서 기르고 있지마는 옛날엔 외양간이라고 이렇게 바깥채가 따로 있어.)

104001 @ 응.(응.)

104001 # 영 헛간, 헛간 허멍 기자 영 둘레로 담 싸 놔근에 칸.(이렇게 헛간, 헛간 하면서 그저 이렇게 둘레로 담 쌓아 놔서 칸.)

104001 @ 응.(응.)

104001 # 두 칸만 만들아근에 요짝에 사름이 사용허고.(두 칸만 만들어서 요쪽에 사람이 사용하고.)

104001 @ 응.(응.)

104001 # 요짝으론 이젠 영 남 세와 지둥.(요쪽으론 이젠 이렇게 나무 세워 기둥.)

97) '신하효'는 서귀포시 신효동과 하효동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104001 @ 응.(응.)

104001 # 세와근에 그디 쉐 녹대로 걸려 메영.(세워서 거기 소 굴레로 붙잡아 매어서.)

104001 @ 응.(응.)

104001 # 겨울엔 문딱 메영.(겨울엔 모두 매어서.)

104001 @ 예.(예.)

104001 # 쉐 두 개고 세 개고 혼 사름 질루는 사름도 잇고 세 개, 네 개 질루는 사름도 잇고.(소 두 개고 세 개고 한 사람 기르는 사람도 있고 세 개, 네 개 기르는 사람도 있고.)

104001 @ 예.(예.)

104001 # 혼, 새끼 놔 놓고 혼 댓 개 질루는 사름도 싯고 허민 쉔 다 메여.(한, 새끼 낳아 놓고 한 댓 개 기르는 사람도 있고 하면 소는 다 매어.)

104001 @ 예.(예.)

104001 # 녹대 이만썩 질게 헹 멧당 ᄒᆞ루 혼 번 물 멕이레 가이.(굴레 이만큼씩 길게 해서 맸다가 하루 한 번 물 먹이러 가.)

104001 @ 응.(응.)

104001 # 물을 멕여 줘야 뒈난. 이젠 집이서 물 줌주마는 옛날엔 그 소들을 멧 갤 어떵 집이서. 막 풀어놩 짝 갯것디 강 멕영 오젠 허민 물때 맞춰 가젠 허민 막 이 집 저 집 막 물때 맞춰 쉐덜 풀어 놓고 허민 쌉곡 난리라. 서로 찔레[98]도 부뜨고.(물을 먹여 줘야 되니까. 이젠 집에서 물 주고 있지마는 옛날엔 그 소들을 몇 개를 어떻게 집에서. 막 풀어놔서 쫙 바닷가 가서 먹여서 오려고 하면 물때 맞춰서 가려고 하면 막 이 집, 저 집 막 물때 맞춰서 소들 풀어 놓고 하면 싸우고 난리야. 서로 '찔레'도 붙고.)

104001 @ 하하.(하하.)

104001 # 게민 우린 ᄆᆞᄉᆞ왕 쉘 못 몰앙 뎅겨.(그러면 우린 무서워서 소를 못 몰아서 다녀.)

104001 @ 응.(응.)

104001 # 서로 찔레 부떠 놓민 사름이 죽고 살고 몰르게 막 풀어 놓민, ᄀᆞ만이 멧다근에 ᄒᆞ쏠허민 막에 멧단 쉐 들러퀴듯 헌다 허듯이 이건 멧당 풀어 놓민 꽁지 들르멍 듣는 게 일이고.(서로 '찔레' 붙어 놓으면 사람이 죽고 살고 모르게 막 풀어 놓으면, 가만히 맸다가 조금하면 외양간에 맸던 소 날뛰듯 한다 하듯이 이건 맸다가 풀어 놓으면 꽁무니 들면서 달리는 게 일이고.)

104002 @ 하하. 쉐도 털이나 털 색깔에 따라서 이름을 다르게 부릅니까? 혹시 뿔 모양에 따라서도?(하하. 소도 털이나 털 색깔에 따라서 이름을 다르게 부릅니까? 혹시 뿔 모양에 따라서도?)

104002 # 아니, 쉐 일름 이제사 쉐 일름 불르주. 그자 암쉐민 암쉐, 밧갈쉐[99]민 밧

98) '찔레'는 소끼리 뿔로 받으며 싸우는 일을 말한다.

99) '밧갈쉐'는 밭을 가는 데 부리는 소를 말한다.

갈쉐.(아니, 소 이름 이제야 소 이름 부르지. 그저 암소면 암소, '밧갈쉐'면 '밧갈쉐'.)

104002 @ 응.(응.)

104002 # 그자 그거. 그자 쉐 일름은 혼 가지.(그저 그거. 그저 소 이름은 한 가지.)

104002 @ 응.(응.)

104002 # 우리 집인 암쉐. 그자 밧갈쉐. 밧 가는 거는 밧갈쉐.(우리 집엔 암소. 그저 '밧갈쉐'. 밭 가는 거는 '밧갈쉐'.)

104002 @ 응.(응.)

104002 # 새끼 나고 암쉔 그자.(새끼 나고 암소는 그저.)

104002 @ 뿔도 무사 영 뒌 뿔도 있고 영 뒌 뿔도 잇지 안헤예, 쉐?(뿔도 왜 이렇게 된 뿔도 있지 않아요, 소?)

104002 # 어, 쉐 뿔도 영 곱닥허게 돋는 쉐가 잇고 ᄒᆞ쏠 영 오그롯허게 돋는 뿔도 잇고.(어, 소 뿔도 이렇게 곱게 돋는 소가 있고 조금 이렇게 '오그롯'하게 돋는 뿔도 있고.)

104002 @ 아.(아.)

104002 # 견디 그 뿔을 이름을 오그라졋저, 페와졋저 헌 말도 아녀.(그런데 그 뿔을 이름을 오그라졌다, 펴졌다 한 말도 안 해.)

104002 @ 예.(예.)

104002 # 쉐가 영 또 나이도 들어가민 뿔이 요쪽 ᄒᆞ쏠 오그라져 가. 이것이이.(소가 이렇게 또 나이도 들어가면 뿔이 요쪽 조금 오그라져 가. 이것이.)

104002 @ 아.(아.)

104002 # 처음 나올 땐 곧장 나오는디 나이가 들엉 오래여 가민 쉐뿔도 ᄒᆞ쏠 오그라지더라. 벵허게.(처음에 나올 땐 곧게 나오는데 나이가 들어서 오래되어 가면 소뿔도 조금 오그라지더라. 뱅하게.)

104002 @ 아.(아.)

104002 # 경 오그라져. 밧갈쉐, 암쉐 그거주.(그렇게 오그라져. '밧갈쉐', 암소 그거지.)

104003 @ 쉐는 주로 뭐 헐 때 쓰는 거과?(소는 주로 뭐 할 때 쓰는 겁니까?)

104003 # 소?(소?)

104003 @ 밧 가는 거로?(밭 가는 거로?)

104003 # 밧 가는 거.(밭 가는 거.)

104003 @ 아.(아.)

104003 # 봄 나민 밧을 두불 갈아이. 초불 갈앙 풀 쎅여 놩.(봄 나면 밭을 두벌 갈아. 초벌 갈아서 풀 썩혀 놔서.)

104003 @ 응.(응.)

104003 # 또 두불 갈아사 농서짓주. 경허난 밧갈쉔 매 집이 엇어이.(또 두벌 갈아야 농사짓지. 그러니까 '밧갈쉐'는 집집마다 없어.)

104003 @ 응.(응.)

104003 # 매 집이 엇어놓난 쉐 미릇부터 맞촤야 뒈여. 겨울에부떠 이제 우리 밧 갈 거 얼마 갈 거난 얼마 갈아 줍센 헤영 다른 디 거 마트지 말앙 우리 것부터 먼저 마타 줍서 딱 절단을 허여.(집집마다 없어서 소 미리부터 맞춰야 돼. 겨울에부터 이제 우리 밭 갈 거 얼마 갈 거니까 얼마 갈아 달라고 해서 다른 데 거 맡지 말고 우리 것부터 먼저 맡아줍서 딱 잘라서 해.)

104003 @ 응.(응.)

104003 # 경허영 쉐 빌젠 허민이 조 비어 나민, 조코고리 톤아나민 그 조남뎅이이.(그래서 소 빌리려고 하면 조 베고 나면, 조 이삭 뜯고 나면 그 조 줄기.)

104003 @ 응.(응.)

104003 # 조남뎅이도 앗당 쉐 줍센 앗당 주곡.(조 줄기도 가져다가 소 주라고 가져다 주고.)

104003 @ 응.(응.)

104003 # 또 고구마 놔 나민 고구마 줄.(또 고구마 놓고 나면 고구마 덩굴.)

104003 @ 응.(응.)

104003 # 그거 물류와근에 쉐고 물이고 줍센 그것도 주고. 경허민 그거 공짜 아니여. 밧이라도 ᄒᆞ루 갈아 주믄 허여.(그거 말려서 소고 말이고 주라고 그것도 주고. 그러면 그거 공짜 아니야. 밭이라도 하루 갈아 주면 해.)

104003 @ 응.(응.)

104003 # 그거 문 앗다 주곡 허멍 우리 밧 마탕 헤 줍서, 우리 농서 다 헤 줍서 허민 알앗저 허여근에 미릇에 그 촐로 미릇 술 쓰는 거라. 경허민 초불 갈 밧은 이제 농서, 보리농서 안 헌 밧. 그냥 겨울에 아무 농서도 안 헌 밧은 초불 갈앗다근에 또 농서 부찌고 경허는 따문에.(그거 모두 가져다 주고 하면서 우리 밭 맡아서 해 주세요, 우리 농사 다 해 주세요 하면 알아다 해서 미리 그 꼴로 미리 수를 쓰는 거야. 그러면 초벌 갈 밭은 이제 농사, 보리농사 안 한 밭. 그냥 겨울에 아무 농사도 안 한 밭은 초벌 갈았다가 또 농사하고 그러는 때문에.)

104003 @ 응.(응.)

104003 # 이제 보리 갈아난 밧 ᄀᆞ튼 건 초불에 그냥 씨 삐여근에 초불 갈아가멍 씨 삐영 그냥 졸 불리고. 경 안 헌 건 초불 갈아 놧단 두불 또 ᄒᆞ쏠 갈아근에 씨 삐여근에 경허는 거. 경헤부난 쉔 부자칩이나 쉐 여라 개 메주, 보통은 그냥 하나.(이제 보리 갈았던 밭 같은 건 초벌에 그냥 씨 뿌려서 초벌 갈아가면서 씨 뿌려서 그냥 조를 밟고. 그렇게 안 한 건 초벌 갈아 놨다가 두벌 또 조금 갈아서 씨 뿌려서 그렇게 하는 거. 그렇게 해버리니까 소는 부잣집이나 소 여러 개 매지, 보통은 그냥 하나.)

104003 @ 응.(응.)

104003 # 암쉐 하나 메는 사람, 밧갈쉐 하나 메는 사람 주로 경허여.(암소 하나 매는 사람, '밧갈쉐' 하나 매는 사람 주로 그렇게 해.)

104003 @ 겐 주로 밧 가는 디 쓰는 거우다예?(그래서 주로 밭 가는 데 쓰는 거네요?)

104003 # 응, 밧 가는 디 쓰는 거.(응, 밭 가는 데 쓰는 거.)

104003 @ 밧 불르기도 허고예?(밭 밟기도 하고요?)

104003 # 응. 우리 ᄀᆞ튼 사름은 쉐 엇엉. 멜 디도 엇고 촐왓도 엇고 경허난.(응. 우리 같은 사람은 소 없어서. 맬 데도 없고 꼴밭도 없고 그러니까.)

104003 @ 응.(응.)

104003 # 경허난 이 촐 한 사람덜 쉐 여남은 개썩 질루는 사름은 부제칩이라이. 부제칩이민 팔월 낭 저 웃드르 여, 이디서 여쩨렌 헤도 몰르주. 저 일로 가단 보민 교래리 ᄇᆞ디게 가가민 ᄎᆞ남밧듸 잇잖여. 그 근방 저 그 오름덜 신 근방 그레 강 막 촐을 허민, 문 이 촐 비여나민 돌셍기 다 줏어벼, 혼 펜더레. 줏어뒁 허민 낫[100], 호미로 안 비영 그 낫으로 영영 후리는 거.(그러니까 이 꼴 많은 사람들 소 여남은 개씩 기르는 사람은 부잣집이야. 부잣집이면 팔월 나서 저 '웃드르' 여, 여기서 '여쩨'라고 해도 모르지. 저 이리로 가다 보면 교래기 가까이 가면 'ᄎᆞ남밧'이 있잖아. 그 근방 저 오름들 있는 근방 그리 가서 막 꼴을 하면, 모두 이 꼴 베고 나면 돌멩이 다 주워버려, 한 편에. 주워두고 하면 벌낫, 낫으로 안 베어서 그 벌낫으로 이렇게 이렇게 후리는 거.)

104003 @ 응.(응.)

104003 # 허민 그 사름덜 다섯도 비고 열 사름도 비고 허민, 가민 혼 딜로 꼭ᄀᆞ찌 사민 혼 사름 낫 영 허민 ᄀᆞ찌, ᄀᆞ찌 영 후려.(하면 그 사람들 다섯도 베고 열 사람도 베고 하면, 가면 한 군데로 똑같이 서면 한 사람 벌낫 이렇게 하면 같이, 같이 이렇게 후려.)

104003 @ 응.(응.)

104003 # 열 사름이민 열 사름이 ᄀᆞ찌. 경허민 소리덜 내놔근에 막. 뭔, 뭔 소리산지 소리덜 내놔근에 낫질헐 땐 영 헤 가민 막 듣기 좋다. 보기도 좋고.(열 사람이면 열 사람이 같이. 그러면 소리들 내놔서 막. 뭔, 뭔 소리인지 소리들 내놔서 벌낫질할 땐 이렇게 해 가면 막 듣기 좋아. 보기도 좋고.)

104003 @ 응.(응.)

104003 # 낫질 허는 것이. 게민 낫 열 사름, 열 사름 비민 무끄는 것도 열 사름 들어.(벌낫질 하는 것이. 그러면 벌낫 열 사람, 열 사람 베면 묶는 것도 열 사람 들어.)

104003 @ 응.(응.)

104003 # 무끄는 사름도 열 사름.(묶는 사람도 열 사람.)

104003 @ 예.(예.)

104003 # 게민 거 아싯날 비민 낼 ᄒᆞ루 벳 맞춰사 모린 강 무꺼.(그러면 그거 전날 베면 낼 하루 볕 맞춰야 모레는 가서 묶어.)

104003 @ 응.(응.)

104003 # 경허민 그거 문 무꺼당 요즘은 바레기[101] 시난 중간에 바레기로 시꺼 왓주마는. 쉐에 물에 질메, 곳사 거튼 건 질메 지왕 것에 허영 쉐 여남은 개썩 헹 막 시껑

100) '낫'은 자루가 길고 큰 낫으로 서서 꼴을 벨 때 사용하는 도구다. 표준어 '낫'과는 크기와 용도가 다르다.
101) '바레기'는 소나 말이 끄는 달구지를 말한다.

ᄂᆞ려오고.(그러면 그거 모두 묶어다가 요즘은 달구지 있으니까 중간에 달구지로 실어 왔지마는. 소에 말에 길마, 아까 같은 건 길마 지워서 그것에 해서 소 여남은 개씩 해서 막 실어서 내려오고.)

104003 @ 응.(응.)

104003 # 촐 경헤낫어. 경허단 중간으로 이렌 그 ᄆᆞᆯ바레기가 잇어낫어이. 게난 그 바레기로 시끄민 바레기 ᄒᆞ나에 열 바리도 시끄고 경허난. 바레기도 시끄멍 ᄂᆞ리고 허난.(꼴 그렇게 했었어. 그러다가 중간으로 이리는 그 '말바레기'가 있었어. 그러니까 그 '바레기'로 실으면 '바레기' 하나에 열 바리도 싣고 그러니까. '바레기'도 실으면서 내리고 하니까.)

104003 @ 응.(응.)

104003 # 이 소소헌 사름, 부제칩덜이나 경허주, 경 안 헌 사름은 소 하나 질루는 사름. 원, 우린 원, 쉐 질롸보지 안허고 우리 아바지 살아계신 때 소도 질루고 ᄆᆞᆯ도 질롸주마는 우리 두린 때라부난 그땐 어떵헌 줄 모르고.(이 소소한 사람, 부잣집들이나 그렇게 하지, 그렇게 안 한 사람은 소 하나 기르는 사람. 원, 우리 원, 소 길러보지 않고 우리 아버지 살아계신 때 소도 기르고 말도 길렀지마는 우린 어린 때라 버리니까 그땐 어떻게 한 줄 모르고.)

104004 @ 응, 소는 처음부터 밧 잘 가는 게 아니잖아예?(응, 소는 처음부터 밭 잘 가는 게 아니잖아요?)

104004 # 아이고.(아이고.)

104004 @ 질들이젠 허민 어떵허여?(길들이려고 하면 어떻게 해?)

104004 # 질들이젠 허민이 큰 돌, ᄀᆞ레, 아니 큰 돌이 아니고 우리 저 영영 ᄀᆞ는.(길들이려고 하면 큰 돌, 맷돌, 아니 큰 돌이 아니고 우리 저 이렇게 이렇게 가는.)

104004 @ 응.(응.)

104004 # ᄀᆞ레 잇지이. 그런 거 허영 두 개썩 메웁고 또 그 우터레 큰 돌 지둘루고 허영 그거 끗어근에 앞으로 상 이꺼. 밧 가는 걸로 또고냥에서 사름이 사곡 헤근에 이꺼. ᄀᆞ리치젠.(맷돌 있지. 그런 거 해서 두 개씩 메우고 또 그 위에 큰 돌 지질르고 해서 그거 끌어서 앞으로 서서 이끌어. 밭 가는 걸로 엉덩이에 사람이 서고 해서 이끌어. 가르치려고 하면.)

104004 @ 응.(응.)

104004 # 경허민 이거이 ᄒᆞ쏠허민 새 송애기 ᄀᆞ르치듯 허단이 막 들러켜이.(그러면 이거 조금하면 새 송아지 가르치듯 하다가 막 날뛰어.)

104004 @ 하하하.(하하하.)

104004 # 막 드러눠 불고.(막 드러누워 버리고.)

104004 @ 응.(응.)

104004 # 드러눠 불민 막 두드리멍. 또 요 소소히 두드리민 일어나지도 안 허여. 막 두드려 가민 저거 하나 못 젼뎌 가민 일어나.(드러누워 버리면 막 두드리면서. 또 소소하게 두드리면 일어나지도 않아. 막 두드려 가면 저거 하나 못 견뎌 가면 일어나.)

104004 @ 응.(응.)

104004 # 일어나젠 허민 막 삐드글락 삐드글락 거리멍 ᄃᆞᆼ기지 말렌 막 일어나젠. 경헤도 삐드글락 거리멍. 경헤영 똑 ᄒᆞ루만 강 헤 오민 이틀차 가민 쑤글쑤글 허여.(일어나려고 하면 막 삐딱삐딱 거리면서 당기지 말라고 막 일어나려고. 그래도 삐딱거리면서. 그래서 딱 하루만 가서 해서 오면 이틀째 가면 고분고분해.)

104004 @ 응.(응.)

104004 # 쑤글쑤글허민 이틀찬 가민 멍에엔 헌 거 메웁고 장기 메웁고 허영 갈젠 허민 체암인 사름이 이꺼이.(고분고분하면 이틀짼 가면 멍에라고 한 거 메우고 해서 갈려고 하면 처음엔 사람이 이끌어.)

104004 @ 응.(응.)

104004 # 이꺼근에 똑 질 발롸 줘사 뒈여 그건. 질 봘랑 옆더레 이거 영 쭉 가젠 허민, 우터레 올라사젠 허민, 쑥허게 머리 밀려주고, 저펜더레 가젠 허민 영 ᄃᆞᆼ겨 주곡. 허영 강 영 멍에 돌아올 땐 영 ᄒᆞᆫ 이틀은 이꺼 줘, 사름이. 경허민 ᄒᆞᆫ 이틀 허민 사흘찬 쉐가 영 사름 안 이꺼도 구짝 가단 옆더레 ᄒᆞ꼼 베쓱허민 옆이 줄 쪼금 밧 가는 사름이 조롬에 산 영 ᄃᆞᆼ기민 또 고랑더레 똑 사고. 또 바우레 올라가민 요쪽 ᄃᆞᆼ기민 또 요 고랑더레 산 걷곡 경허여.(이끌어서 꼭 길 바르게 해줘야 돼 그건. 길 바르게 해서 옆에 이거 이렇게 쭉 가려고 하면, 위로 올라서려고 하면, 쑥하게 머리 밀어주고, 저편을 가려고 하면 이렇게 당겨주고. 해서 가서 이렇게 밭머리 돌아올 땐 이렇게 한 이틀은 이끌어 줘, 사람이. 그러면 한 이틀 하면 사흘짼 소가 이렇게 사람 안 이끌어도 곧추 가다가 옆으로 조금 '베쓱'하면 옆에 줄 조금 밭 가는 사람이 뒤에 서서 이렇게 당기면 또 고랑으로 꼭 서고. 또 가장자리로 올라가면 요쪽 당기면 또 요 고랑으로 서서 걷고 그렇게 해.)

104004 @ 아.(아.)

104004 # 막 ᄀᆞ르칠 땐 힘들어. 또 ᄆᆞᆯ도 ᄀᆞ르치젠 허민 막 ᄆᆞᆯ들은 뒷발질 막 와들랑와들랑 들러퀴멍 허고.(막 가르칠 땐 힘들어. 또 말도 가르치려고 하면 막 말들은 뒷발질 막 팔딱팔딱 날뛰면서 하고.)

104004 @ 하하하.(하하하.)

104004 # 경헤도 경 헤영 ᄀᆞ리치멍.(그래도 그렇게 해서 가르치면서.)

104004 @ 응.(응.)

104004 # ᄆᆞᆯ도 탕 뎅기고 ᄆᆞᆯ 바레기도 메우고 경헷주.(말도 타서 다니고 말 달구지도 메우고 그렇게 했었지.)

104005 @ 쉐도 나이가 이십니게?(소도 나이가 있잖습니까?)

104005 # 쉐 나이가 잇주.(소 나이가 있지.)

104005 @ ᄒᆞᆫ 살 뭰 쉐는 뭐 ᄀᆞᆫ는 말 잇지예?(한 살 된 소는 뭐 하는 말 있지요?)

104005 # 쉐 송애기.(소 송아지.)

104005 @ 예, 쉐 송애기.(예, 소 송아지.)

104005 # 또 ᄒᆞ쏠 역아가민 부렝이. 역앙 밧 갈아가민 그땐 밧갈쉐.(또 조금 커가면

부룩소. 커서 밭 갈아가면 그땐 ‘밧갈쉐’.)

104005 @ 아.(아.)

104005 # 그거.(그거.)

104005 @ 게민 멧 설 뒈민 밧 가는 거라?(그러면 몇 살 되면 밭 가는 거야?)

104005 # 올리 나민 새해 흔 해 키웡 또 새핸 밧.(올해 나면 새해 한 해 키워서 또 새해는 밭.)

104005 @ 세 설 나민?(세 살 나면?)

104005 # 응, 세 설 나민 밧 감 베와.(응, 세 살 나면 밭 갈기 배워.)

104005 @ 응, 그 ᄀᆞᆫ는 말 잇수과, 금승, 다간 영 허는 말?(응, 그 하는 말 있습니까, 하릅, 두습 이렇게 하는 말?)

104005 # 다간, 다간이엔 헌 거 ᄒᆞᄊᆞᆯ 역으민 다간이엔 허고.(두습, 두습이라고 한 거 조금 크면 두습이라고 하고.)

104005 @ 응.(응.)

104005 # 금송애기엔 헌 건 금방 낭 오래지 안 헌 거. 사름 거트민 어린 애기덜. 이건 금송애기 쪼그만헌 거 금송애기여.(하릅송아지라고 한 건 금방 나서 오래지 않은 거. 사람 같으면 어린 아기들. 이건 하릅송아지 조그마한 거 하릅송아지야.)

104005 @ 아, 아.(아, 아.)

104005 # 또 ᄒᆞᄊᆞᆯ 역아가민 이건 일 년이 넘어가민 이건 다간, ᄒᆞᄊᆞᆯ 역아가민, ᄒᆞᄊᆞᆯ 커가민 요건 부렝이.(또 조금 커 가면 이건 일 년이 넘어가면 이건 두습, 조금 커가면. 조금 커가면 요건 부룽이.)

104005 @ 아.(아.)

104005 # 게민 소는 흔 세 설만 나가민 밧을 갈아.(그러면 소는 한 세 살만 나가면 밭을 갈아.)

104005 @ 응.(응.)

104005 # 밧을 갈아. ᄀᆞ르쳐근에 밧을 갈아.(밭을 갈아. 가르쳐서 밭을 갈아.)

104005 @ 예.(예.)

104005 # ᄆᆞᆯ이나 쉐나. ᄆᆞᆯ도 세 설만 뒈 가민 ᄀᆞ리쳐. 무시거 끗는 거, 짐 시끄는 거.(말이나 소나. 말도 세 살만 되어 가면 가르쳐. 무엇 끄는 거, 짐 싣는 거.)

104005 @ 아.(아.)

104005 # ᄆᆞᆯ은 짐 시끄고. ᄆᆞᆯ은 밧은 못 갈아, 밧은. ᄆᆞᆯ은 밧 못 갈앙 쉐로만 갈앙 그자. 짐 시끄는 거. 그것덜 ᄀᆞ리쳥 짐 시끄고.(말은 짐 싣고. 말은 밭은 못 갈아, 밭은. 말은 밭 못 갈아서 소로만 갈아서 그저. 짐 싣는 거. 그것 가르쳐서 짐 싣고.) ,

104006 @ 아까 잠대 얘기 헤나신디 잠대 일름덜 막 잇어낫수게, 벳, 보섭 이런 거 알아지쿠과?(아까 쟁기 얘기 했었는데 쟁기 이름들 막 있었잖습니까, 볏, 보습 이런 거 알겠습니까?)

104006 # 이름이 아니고.(이름이 아니고.)

104006 @ 응.(응.)

104006 # 벳이엔 헌 거는 영 넙작헌 거고.(볏이라고 한 거는 이렇게 넓적한 거고.)

104006 @ 응.(응.)

104006 # 보섭이엔 헌 거는 영 넙작헌 거 놔낭.(보습이라고 한 거는 이렇게 넓적한 거 놓고.)

104006 @ 응.(응.)

104006 # 또 요레 똑 요 손바닥보단 ᄒᆞ쏠 넙고 요만이 넙은 거 똑 요만인 헌 거라.(또 요리 꼭 요 손바닥보단 조금 넓고 요만큼 넓은 거 꼭 요만큼 한 거야.)

104006 @ 응.(응.)

104006 # 게민 그 벳은 영 넙작헌 건디 이 땅을 영 그 쪼그만헌 걸로 밧을 영 꾹 찔렁 영 갈아가민.(그러면 그 볏은 이렇게 넓적한 건데 이 땅을 이렇게 그 조그마한 걸로 밭을 이렇게 꾹 찔러서 이렇게 갈아가면.)

104006 @ 응.(응.)

104006 # 흑이 영 양펜더레 갈라지는 거.(흙이 이렇게 양쪽으로 갈라지는 거.)

104006 @ 아.(아.)

104006 # 영 넙작헌 거 이만은 넙은 거. 게민 영 그 봉웃지게 요추룩 족은 거 꾹허게 끼와근에 요걸로 밧 영 갈멍 흑 영 올라와 가민 넙작헌 거 흑 양펜더레 영 갈라지는 거.(이렇게 넓적한 거 이만큼 넓은 거. 그러면 이렇게 봉긋하게 요렇게 작은 거 꾹하게 끼워서 요걸로 밭 이렇게 갈면서 흙 이렇게 올라와 가면 넓적한 거 흙 양편으로 이렇게 갈라지는 거.)

104006 @ 응.(응.)

104006 # 경헤불민 이디 흑이 이 펜더레 허고 이펜더레 가 불민 이거 고랑.(그렇게 해버리면 여기 흙이 이편으로 하고 이편으로 가 버리면 이거 고랑.)

104006 @ 이디 잡는 건 무신거렌 ᄀᆞᆫ고.(여기 잡는 건 무엇이라고 말하고.)

104006 # 쟁깃멱.(‘쟁깃멱’.)

104006 @ 머력?(‘머력’?)

104006 # 응, 쟁깃멱.(응, ‘쟁깃멱’.)

104006 @ 응.(응.)

104006 # 이거 손젭이가 쟁깃멱.(이거 손잡이가 ‘쟁깃멱’.)

104006 @ 응, 응.(응, 응.)

104006 # 그거.(그거.)

104006 @ 또 다른 건?(또 다른 건?)

104006 # 다른 건.(다른 건.)

104006 @ 잘 몰르크라.(잘 모르겠어.)

104006 # ᄌᆞ세히 몰라. 나가, 나가 쉐가 질룅 나가 밧 갈아 봐시민 이거 뭣이여, 뭣이여 허지마는.(자세히 몰라. 내가, 내가 소가 길러서 내가 밭 갈아 봤으면 이거 뭐다, 뭐다 하지마는.)

104006 @ 아까 잘 알안게마씨.(아까 잘 알던데요.)

104006 # 요디 허는 거 밧 갈 때 요디 허는 거. 요디 놩.(요기 하는 거 밭 갈 때 요기 하는 거. 요기 놔서.)

104006 @ 응.(응.)

104008 # 요건 멍에.(요건 멍에.)

104008 @ 응.(응.)

104008 # 욜로 요 이디 야가지 요건 졸라무꺼사 멍에레 쉐 둥기는 거라. 기운 내영. 게난 요건 접제기.(요리로 요 여기 목 요건 졸라매야 멍에에 소 당기는 거야. 기운 내서. 그러니까 요건 접게.)

104008 @ 응, 접제기.(응, 접게.)

104008 # 멍에에 접제기, 우이 건 멍에.(멍에에 접게, 위의 건 멍에.)

104008 @ 응.(응.)

104008 # 영 줄 허는 건 벳줄.(이렇게 줄 하는 건 봇줄.)

104008 @ 벳줄.(봇줄.).

104008 # 영 심엉 똥고망에 상 요레 가가민 욜로 둥기고 또 요펜더레 가가민 욜로 둥기곡.(이렇게 잡아서 엉덩이에 서서 요리 가면 요리로 당기고 또 요편으로 가면 요리로 당기고.)

104008 @ 응.(응.)

104008 # 또 말 안 들엉, 재기 안 걸어가민 탁 후려.(또 말 안 들어서, 재게 안 걸어가면 탁 후려.)

104008 @ 예.(예.)

104008 # 허멍 탁 뜨리민 그때 졸졸졸허게 나가. 경허주게.(하면서 탁 때리면 그때 졸졸졸하게 나가. 그렇게 하지.)

104007 @ 아까, 질메 짐 지울 때, 질메도 짐 지울 때 이름이 잇수게?(아까, 길마 짐 지울 때, 길마도 짐 질 때 이름이 있잖습니까?)

104007 # 질메 지울 때 이 또꼬냥에 가는 거는.(길마 지울 때 이 엉덩이에 가는 거는.)

104007 @ 응.(응.)

104007 # 고들게. 고들겐디 또 요 앞으로 쉐 질메 지와 놩 고들게 거 헤 놩 욜로 딱 제와사.(껑꺼리. 껑꺼린데 또 요 앞으로 소 길마 지워 놓고 껑꺼리 그거 해 놔서 요리로 딱 조여야.)

104007 @ 베로예?(바로요?)

104007 # 응, 베로 헹 딱 제와사 질메 지민 영영헹 몽글몽글헹 벗어지지 안허는 게 그건 오랑, 오랑. 욜로 영 줄라메는 건 오랑.(응, 바로 해서 딱 조여야 길마 지면 이렇게 이렇게 해서 '몽글몽글'해서 벗겨지지 않는 게 그건 뱃대끈, 뱃대끈. 요리로 이렇게 졸라매는 건 뱃대끈.)

104007 @ 오랑.(뱃대끈.)

104007 # 배 요펜으로 질메 지와나근에 요펜 질메더레 딱 둥겨근에 요펜까지레 이

배더레 ᄃᆞᆼ겨 딱 제와사 쉐 질메 짐을 시끄민 영영 허민 벗어지지 안허여.(배 요편으로 길마 지우고 나서 요편 길마에 탁 당겨서 요편까지 배에 당겨 딱 조여서 소 길마 짐을 실으면 이렇게 이렇게 하면 벗겨지지 않아.)

104007 @ 응.(응.)

104007 # 오랑 그거. 쉐 질메 오랑. 그거허고 이 또꼬냥더레 끼우는 건 고들게. 그거, 그거벳긘 몰라. 또 질메에 그거벳긘 엇임도 허고.(뱃대끈 그거. 소 길마 뱃대끈. 그거하고 이 엉덩이에 끼우는 건 껑거리. 그거, 그거밖에 몰라. 또 길마에 그거밖에 없기도 하고.)

104009 @ 목장, 옛날에 목장 헤근에 쉐덜 막 올려낫수게?(목장, 옛날에 목장 해서 소들 막 올렸었잖아요?)

104009 # 응, 지금 쉐 올리듯이.(응, 지금 소 올리듯이.)

104009 @ 응, 그 목장은 어떵헤, 마을에서 공동으로 허는 거지예?(응, 그 목장은 어떻게 해, 마을에서 공동으로 하는 거지요?)

104009 # 공동으로. 공동으로 저 쉐 목장에 강 마장, 마장 헤여이. 쉐 마장에 올려사 허컬 봄 나가민 농사 마딱 져 나민 경허민 그디서 누게누게 쉐, 저 마장에 올릴 사름덜은 영 담 다와나근에 헐 거난 마장에 올릴 사름덜은 아무나대고 목장에 담 추리레 가게.(공동으로. 공동으로 저 소 목장에 가서 마장, 마장 해. 소 마장에 올려야 하겠는데 봄 나가면 농사 모두 짓고 나면 그렇게 하면 거기서 누구누구 소, 저 마장에 올릴 사람들은 이렇게 담 쌓아서 할 거니까 마장에 올릴 사람들은 아무고 목장에 담 추스리러 가자.)

104009 @ 응.(응.)

104009 # 담을 노프게 싸놔사 소가 어드레 나가지 안허주게. 요새 다 쒜 말목 박으난 헴주마는 옛날엔 담을 든든허게 다와사.(담 높게 쌓아야 소가 어디로 나가지 않지. 요새 다 소 말목 박으니까 하고 있지마는 옛날엔 담을 든든하게 쌓아야.)

104009 @ 응.(응.)

104009 # 다왕 쉐 어드레 넘어가지 못허게. 다와근에 그 안에 가근에 마장, 마장허멍 쉐 서른 사름이민 서른 사름, 열 사름이민 열 사름 그디 강 쉐 올렷당 ᄒᆞᆫ 덜에 ᄒᆞᆫ 번 담 터져시냐 강 막 돌아봐. 경허당 봐도 이 부렝이 같은 건 이 암쉐 소리만 나민 그 담을 어떵사 넘엉 가는디 넘엉 가불민 쉐 춪지 못헹덜 막.(쌓아서 소 어디 넘어가지 못하게. 쌓아서 그 안에 가서 마장, 마장하면서 소 서른 사람이면 서른 사람, 열 사람이면 열 사람 거기 가서 소 올렸다가 한 달에 한 번 담 허물어졌나 가서 막 돌아봐. 그러다가 봐도 이 부룩소 같은 건 이 암소 소리만 나면 그 담을 어떻게야 넘어서 가는지 넘어서 가버리면 소 찾지 못해서들 막.)

104009 @ 하하하.(하하하.)

104009 # 화륵[102]허주. 경허영 허난 마장이엔 허여, 마장, 엿날엔. 게민 마장헨 허민 쉐 ᄒᆞᆫ 열 ᄆᆞ리도 가고 스무 ᄆᆞ리도 가곡 허민 그 사름덜 수정이 다 가민, ᄒᆞᆫ 덜에 ᄒᆞᆫ

102) '화륵'은 당황하여 이리저리 바삐 헤매는 모양이다.

번 담 추리레 가. 우리 마장 담 추리레 가게 헹 강.('화륵'하지. 그렇게 하면서 하니까 마장이라고 해, 마장, 옛날엔. 그러면 마장해서 하면 소 한 열 마리도 가고 스무 마리도 가고 하면 그 사람들 숫자가 다 가면, 한 달에 한 번 담 추스르러 가. 우리 마장 담 추스르러 가자 해서 가.)

104009 @ 응.(응.)

104009 # 그 쉐도 돌아보고 또 담도 터져시민 노프게 다웁고 헤사 쉐가 기어나지 못헐 거. 경헨 허곡, 경허단 봐도 어떵헨 튀어낭 막 쉐 이여벤 막 농서철 ᄇᆞ뎌가민 난리라, 쉐 춧지 못헹.(그 소도 돌아보고 또 담도 터졌으면 높게 쌓고 해야 소가 도망가지 못할 거. 그렇게 해서 하고, 그러다 봐도 어떻게 해서 도망가서 막 소 잃어버려서 막 농사철 가까워 가면 난리야, 소 찾지 못해서.)

104010 @ 쉐 질룰 때 젤 힘든 건 어떤 게 힘든 거마씨?(소 기를 때 젤 힘든 건 어떤 게 힘든 거예요?)

104010 # 젤 힘드는 거 촐 헤오는 게 힘드는 거.(젤 힘든 거 꼴 해오는 게 힘든 거.)

104010 @ 촐 헤오는 거, 쉐 멕일 촐?(꼴 해오는 거, 소 먹일 꼴?)

104010 # 응, 쉐 멕일 촐 헤오는 게 젤 힘들어근에 허곡 팔월 나가민 쉐 마장에 올렷당 ᄀᆞ슬 들어가민 또 내려와.(응, 소 먹일 꼴 해오는 게 젤 힘들어서 하고 팔월 나가면 소 마장에 올렸다가 가을 들어가면 또 내려와.)

104010 @ 응.(응.)

104010 # 내려오민 이제 쉐 신 사름덜 서로가 '돌옴[103]' 짓는 거엔 허는 건 우리가 만일에 애기 어멍이 쉐 잇고 나가 쉐 잇곡 또 옆집이 쉐 잇곡 허민 쉐 다섯 개민 다섯 갤 합쳐 놓민 ᄒᆞᆫ 사름썩 돌아가멍. 돌아가멍 저레 내놩 ᄀᆞ꽈.(내려오면 이제 소 있는 사람들 서로가 '돌옴' 짓는 거라고 하는 건 우리가 만일에 아기 엄마가 소 있고 내가 소 있고 또 옆집에 소 있고 하면 소 다섯 개면 다섯 갤 합쳐 놓으면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돌아가면서 저리로 내놔서 가꿔.)

104010 @ 응.(응.)

104010 # 어디 먼 디 ᄃᆞᆯ아나지 못허게. ᄀᆞ꾸단에 조 비여 나민 조 비어난 조쿠루. 조 무껑 다 시꺼간 줄 알민 그 밧듸 가근에 막 멕여. 조 비여 나민 그디 검질 잇이난 풀덜 잇이난 그 풀 멕이젠 막 그레 몰아가고. 돌옴 짓음이엔 헌 게.(어디 먼 데 달아나지 못하게. 가꾸다가 조 베고 나면 조 베고 난 조 그루. 조 묶어서 다 실어간 줄 알면 그 밭에 가서 막 먹여. 조 베고 나면 거기 검불 있으니까 풀들 있으니까 그 풀 먹이려고 막 그리 몰아가고. '돌옴' 짓음이라고 한 게.)

104010 @ 돌옴 짓은덴 허여.('돌옴' 짓는다고 해.)

104010 # 응, 돌아가멍 쉐 ᄀᆞ꾸는 게, 돌옴 짓엉.(응, 돌아가면서 소 가꾸는 게, '돌옴' 지어서.)

104010 @ 응.(응.)

104010 # 쉐 열이면 열 사름이 ᄒᆞᆫ디레 놔근에 ᄒᆞ루 ᄒᆞᆫ 사름썩 강. ᄒᆞ루 ᄒᆞᆫ 사름썩

103) '돌옴'은 소나 말을 여럿이 돌아가며 돌보는 일을 말한다.

강 경 쉐 ᄀᆞ꽈난.(소 열이면 열 사람이 한군데 놔서 하루 한 사람씩 가서. 하루 한 사람씩 가서 그렇게 소 가꿨어.)

104010 @ 아.(아.)

104010 # 돌아나지 못허게 ᄀᆞ꾸는 거주게. 어드레 돌아나지 못허게. 겐 어둑어 가민, 이런 때 후제사 몰앙 들어와. 집이 일헹 들어올 만헤 가사. 게민 이놈의 쉐들이 돌아오라가민 이녁 만썩 집 춧앙 기여들어.(달아나지 못하게 가꾸는 거지. 어디 달아나지 못하게. 그래서 어두워지면, 이런 때 후에야 몰아서 들어와. 집에 일해서 들어올 만해 가야. 그러면 이놈의 소들이 돌아오면 자기만큼씩 집 찾아서 기어들어.)

104010 @ 집 알아근에.(집 알아서.)

104010 # 응, 집 알앙 구짝 마귀 알앙 기여들고.(응, 집 알아서 곧추 마구간 알아서 기어들고.)

104010 @ 응.(응.)

104010 # 사름보단 더 영리허여. 오민 기자 오랑 지 마귀더레 톡톡 들어사민 집이 싯당 사름덜 ᄆᆞᆫ. 그 뿔러레 녹대 걸러메여 또. 경 안허민 밤이 돌아나 불카부덴.(사람보다 더 영리해. 오면 그저 와서 자기 마구간에 톡톡 들어서면 집에 있다가 사람들 모두. 그 뿔에 굴레 붙잡아 매서 또. 그렇게 안 하면 밤에 달아나 버릴까봐.)

말 기르기

104011 @ 게민 이번에 말예, 말은 어떻게 기릅니까?(그러면 이번에 말요, 말은 어떻게 기릅니까?)

104011 # ᄆᆞᆯ은이 베랑 걸러 메영 집이서 질룸 버릇 안 허여.(말은 별로 붙잡아 매서 집에서 기르는 버릇 안 해.)

104011 @ 응.(응.)

104011 # 그자 이 담 다왕 어디 울왓디라도. 담 다와근에 빙허게 ᄆᆞᆯ 다섯 개민 다섯 개, 영 질루젠 허민. 촐은 줘이. 촐은 헤당 놧당 영 풀어 놩 주는디 베랑 걸러 메영 질룸 버릇을 안 허여, ᄆᆞᆯ은. 기자 영 담 다왕 울왓디 ᄒᆞ나 영 놩 내불고. 게민 바령밧, 바령밧 허는 게 그거라이. ᄆᆞᆯ덜은 놩 질롸나민 ᄆᆞᆯ 오줌 싸고 똥 오줌 싸고 허민 그것이 거는 거라, 엿날은. 게민 큰 밧덜 동네 ᄆᆞ쉬덜, ᄆᆞ쉬 한 집인 동네 ᄆᆞ쉬덜도 저 부찐컨 부찌라 허민 그레 돌옴 짓엉 놔 불주. 놩 내불민 겨울에 거기서 촐 주곡 그 밧듸 살멍 오줌 싸고 똥 싸고 헤나민 바령밧[104], 바령밧 허여, 그게.(그저 이 담 쌓아서 어디 텃밭이라도. 담 쌓아야 빙 하게 말 다섯 개면 다섯개, 이렇게 기르려고 하면. 꼴은 줘. 꼴은 해다가 놨다가 이렇게 풀어 놔 주는데 별로 붙잡아 매어서 기르는 버릇을 안 해, 말은. 그저 이렇게 담 쌓아서 텃밭 하나 이렇게 놔서 내버리고. 그러면 '바령밧', '바령밧' 하는 게 그거야. 말들은 풀어서 기르면 말 오줌 싸고 똥 오줌 싸고 하면 그것이 거는 거야, 옛날은. 그러면 큰 밭들 동네 마소들, 마소 많은 집은 동네 마소들도 저 붙이려면

104) '바령밧'은 가축의 배설물로 지력을 회복하기 위해 가축을 방목하는 밭이다.

붙여라 하면 그리 ‘돌옴’ 지어서 놔버리지. 놔서 내버리면 겨울에 거기서 꼴 주고 그 밭에 살면서 오줌 싸고 똥 싸고 하고 나면 ‘바령밧’, ‘바령밧’ 해, 그게.)

104011 @ 응.(응.)

104011 # 바령밧듸 곡석은 잘 뒈여근에 ᄉᆞ못 흥얼흥얼 조도 불리민 막 잘뒈고 허난. 아이고 이 바령밧듸 곡석도 좋아라. 경허주. 그건 바령 들임이라고. 바령, 바령 허여.(‘바령밧’에 곡식은 잘 되어서 사뭇 흥얼흥얼 조도 밟으면 막 잘되고 하니까. 아이고 이 ‘바령밧’에 곡식도 좋더라. 그렇게 하지. 그건 ‘바령’ 들임이라고. ‘바령’, ‘바령’ 해.)

104011 @ 예.(예.)

104011 # 그 ᄆᆞᆯ덜만 질롸난 밧이. 게민 바령밧듸 아무 디 올리 바령 들염서라 경허영.(그 말들만 길렀던 밭이. 그러면 ‘바령밧’에 아무 데 올해 ‘바령’ 들이고 있더라 그렇게 해서.)

104011 @ 아까 다섯 집이 ᄀᆞ치 돌아가멍.(아까 다섯 집이 같이 돌아가면서.)

104011 # ‘돌옴’ 짓음.(‘돌옴’ 짓기.)

104011 @ ‘돌옴’ 짓음?(‘돌옴’ 짓기?)

104011 # 응. 돌옴 짓어근에 쉐 ᄀᆞ꾸레 가.(응. ‘돌옴’ 지으면서 소 가꾸러 가.)

104011 @ 응.(응.)

104011 # 오늘은 느네 강 ᄀᆞ꾸민 또 닐은 요펜 집이서 강 ᄀᆞ꾸고. 또 딴 집이서 강 ᄀᆞ꾸고 그 쉐 임제마다 돌아가멍.(오늘은 너희가 가서 가꾸면 또 낼은 요편 집에서 가서 가꾸고. 또 다른 집에서 가서 가꾸고 그 소 임자마다 돌아가면서.)

104011 @ 예.(예.)

104011 # 그거 경허난 돌옴 짓엇젠 허는 거. 돌아가멍 ᄀᆞ꾸는 게.(그거 그러니까 ‘돌옴’ 지었다고 하는 거. 돌아가면서 가꾸는 게.)

104012 @ 그다음에 말 종류는 어떤 종류, 어떤 종류 잇어마씨? 말도 색깔에 따라 크기에 따라 다릅니께. 색깔에 따라 부르는 이름이 잇수과?(그다음에 말 종류는 어떤 종류, 어떤 종류 있어요? 말도 색깔에 따라 크기에 따라 다르잖아요. 색깔에 따라 부르는 이름이 있습니까?)

104012 # 색깔에 따라 부르는 말은 엇어. 웅매민 웅매 저, 웅매엔 헌 건 수컷ᄀᆞ랑 웅매. ᄌᆞ매엔 헌 건 암컷ᄀᆞ라 ᄌᆞ매.(색깔에 따라 부르는 말은 없어. 수말이면 수매 저, 수말이라고 한 건 수컷보고 수말. 암말이라고 한 건 암컷보고 암말.)

104012 @ 응.(응.)

104012 # 색 따라근에 무시거여 무시거여 부르는 이름 그런 건 우리 안 들어봇어.(색 따라서 무엇이다 무엇이다 부르는 이름 그런 건 우리 안 들어봤어.)

104013 @ 말은 주로 어떵헐 때 사용허는 거마씨?(말은 주로 어떻게 할 때 사용하는 거예요?)

104013 # 젤 어떵헐 때 사용허느냐 허면 ᄆᆞᆯ은 촐 비여 놩 날라올 때 사용허고 저 밧 불릴 때. 옛날엔 조를 좁씨 삐여 놩 막 다려. 다려사 이 조가 흥글어불지 안 헌 덴 조 남뎅이 나가민 흥걸어 불지 안헌덴 막 씨 삐여낭 막 텡텡 다려.(젤 어떻게 할 때 사용하

느냐 하면 말은 꼴 베어 놔서 나를 때 사용하고 저 밭 밟을 때. 옛날엔 조를 좁씨 뿌려 놔서 막 다져. 다져야 이 조가 흔들어버리지 않는다고 조 줄기 나가면 흔들어 버리지 않는다고 막 씨 뿌려놓고 막 탱탱 다져.)

104013 @ 응, 응.(응, 응.)

104013 # 경허민 ᄀᆞ문 때쯤은 강 검질메젠 허민 검질메기가 궂어이. 텡텡헤노난.(그러면 가문 때쯤은 가서 김매려고 하면 김매기기 궂어. 탱탱해서.)

104013 @ 아.(아.)

104013 # 경헤도 좁씨 돌아나지 안허게 그걸 막 불려. 게난 그런 때 필요헌 거.(그래도 좁씨 달아나지 않게 그걸 막 밟아. 그러니까 그런 때 필요한 거.)

104013 @ 응.(응.)

104013 # 경허민 테우리, 테우리 허멍 그땐 ᄆᆞᆯ 임제가 ᄆᆞᆯ ᄋᆞ라 개 헤영 허민 그 테우리 나시 밥허젠 허민 고기 구워 놓고 엿날 그 곤밥 곤밥 허멍 쏠밥허여 놓고, 고기 구워 놓고.(그러면 '테우리, 테우리' 하면서 그땐 말 임자가 말 여러 개 해서 하면 그 '테우리' 몫 밥하려고 하면 고기 구워 놓고 옛날 그 '곤밥', '곤밥' 하면서 쌀밥해 놓고, 고기 구워 놓고.)

104013 @ 응.(응.)

104013 # 경허영 앗아가.(그래서 가져가.)

104013 @ 아.(아.)

104013 # 테우리영 허멍.('테우리'라고 하면서.)

104013 @ ᄆᆞᆯ 봐주는 사름?(말 봐주는 사람?)

104013 # ᄆᆞᆯ 임제가 테우리라.(말 임자가 '테우리'야.)

104013 @ ᄆᆞᆯ 임제가 테우리라?(말 임자가 '테우리'야?)

104013 # 응. 게민 열 집이고, 스무 집이고 가민 ᄒᆞ루 ᄒᆞᆫ 번은 그 밥을 얻어먹주. 겐 그전인 밧딜 헤 가이. 테우리 나시 밥이엔 헹 가민 하르방이 영 받앙 앚앙 밥을 영 이레저레 ᄆᆞᆫ 케우려.(응. 그러면 열 집이고, 스무 집이고 가면 하루 한 번은 그 밥을 얻어먹지. 그래서 그전엔 밭에 해 가. '테우리' 몫 밥이라고 해서 가면 할아버지가 이렇게 받아서 밥을 이렇게 이리저리 모두 고수레해.)

104013 @ 응.(응.)

104013 # 경허영 케우려 두곡 영 반찬 같은 거나 뭣이라도 헹 가면 ᄆᆞᆫ 튿으멍 케우려뒁 밥을 먹어신디.(그렇게 해서 고수레해 두고 이렇게 반찬 같은 거나 무엇이라도 해서 가면 모두 뜯으면서 고수레해 두고 밥을 먹었는데.)

104013 @ 응.(응.)

104013 # 오래영 신식 뒈난 것도 밧듸서 안 헤영 집일 꼭 헤 가, 집이.(오래되어서 신식 되니까 그것도 밭에서 안 하고 집엘 꼭 해 가, 집에.)

104013 @ 응.(응.)

104013 # 게건 아이구 이젠 벨 식 다 나. 영허난 무사 말이과 허난, 게도 밧듸 강 허민 그 ᄆᆞ쉬 보는 아이덜도 그 곤밥 ᄒᆞᆫ 직 얻어먹을 거 아니냐? 허지만은 이제 집이

아져가 불민 ᄆᆞ쉬 보는 사름은 입이 보영헌다.(그러면 아이고 이젠 별 식 다 나. 이렇게 하니까 왜 말입니까 하니까, 그래도 밭에 가서 하면 그 마소 보는 아이들도 그 쌀밥 한 숟가락 얻어먹을 거 아니냐? 하지만은 이제 집에 가져가 버리면 마소 보는 사람은 입이 뽀얗다.)

104013 @ 입이 보영허여?(입이 뽀얘?)

104013 # 응, 아무것도 안 주난 입이 보영헌다 허는 거주.(응, 아무것도 안 주니까 입이 뽀얗다 하는 거지.)

104013 @ 하하.(하하.)

104013 # 옛날 곤밥, 곤밥 허멍 밥이 쏠밥이 그렇게 어려왓어.(옛날 '곤밥', '곤밥' 하면서 밥이 쌀밥이 그렇게 어려웠어.)

104014 @ 응. 말도 나이에 따라서 이름, 불르는 이름 이신가마씨?(응. 말도 나이에 따라서 이름, 부르는 이름 있었나요?)

104014 # 아니.(아니.)

104014 @ 엇어?(없어?)

104014 # 나이에 따라 불르는 이름은.(나이에 따라 부르는 이름은.)

104014 @ 금승, 다간 영 허는 거 엇어?(하릅, 두습 이렇게 하는 거 없어?)

104014 # 저 어린 것ᄀᆞ라 불르는 건 요건 금승ᄆᆞᆼ생이.(저 어린 것보고 부르는 건 요건 하릅망아지.)

104014 @ 아, 금승ᄆᆞᆼ생이.(아, 하릅망아지.)

104014 # 응. 두린 거엔 헹 금승ᄆᆞᆼ생이엔 허주, 역아불민 금승이엔 뭐, 뭐 엇어. 쉐는 다간, 무슨 부렝이.(응. 어린 거라고 해서 하릅망아지라고 하지, 커버리면 하릅이라고 뭐, 뭐 없어. 소는 두습, 무슨 부룩소.)

104014 @ 응.(응.)

104014 # 요건 암송애기, 요건 부렝이엔 헌 건 숫송애기ᄀᆞ라 부렝이.(요건 암송아지, 요건 부룩소라고 한 건 수송아지보고 부룩소.)

104014 @ 예.(예.)

104014 # 또 ᄒᆞ쏠 크민 밧갈쉐 그거주. ᄆᆞᆯ은 처음 두린 때 이거 금승, 금승 허주.(또 조금 크면 '밧갈쉐' 그거지. 말은 처음 어린 때 이거 하릅, 하릅 하지.)

104014 @ 아.(아.)

104014 # 역아불민 무신 말, 무신 말 이름이 엇어. 요샌 다 이름 지왐주. 옛날엔 이름이 엇어, 그게.(커버리면 무슨 말, 무슨 말 이름이 없어. 요샌 다 이름 짓고 있지. 옛날엔 이름이 없어, 그게.)

104014 @ ᄆᆞᆯ 이신 집은 하지 안허지예?(말 있는 집은 많지 않지요?)

104014 # 하지 안허여.(많지 않아.)

104014 @ ᄆᆞᆯ 잇인 집은 막 부제칩이과?(말 있는 집은 아주 부잣집입니까?)

104014 # 막 부제칩덜이나 ᄆᆞᆯ 헤영 이녁 농서허고 ᄂᆞᆷ의 거 ᄒᆞ쏠 헤줫주, ᄆᆞᆯ 기자 경 헤도 ᄒᆞᆫ 두 개, 서너 개 잇는 집도 잇어, 쪼금 사는 집은. 두 개, ᄒᆞᆫ 세 개쯤 잇인 사름

은 서로덜 ᄆᆞᆯ, 족은 사름덜끼리 어우려.(아주 부잣집이나 말 해서 자기 농사하고 남의 거 조금 해줬지, 말 그저 그래도 한 두 개, 서너 개 있는 집도 있어, 조금 사는 집은. 두 개, 한 세 개쯤 있는 사람은 서로들 말, 작은 사람들끼리 어울려.)

104014 @ 응.(응.)

104014 # 어우령 다섯 개고 ᄋᆞ섯 개고 어우령 이넉 농서덜 허당, 농서 허당 ᄒᆞ쏠 남은 사름덜 거 우리 것도 ᄒᆞ쏠 ᄇᆞᆯ려 줍서 허민 강 ᄇᆞᆯ려주고 경 허는 거.(어울려서 다섯 개고 여섯 개고 어울려서 자기 농사들 하다가, 농사 하다가 조금 남은 사람들 것 우리 것도 조금 밟아 주세요 하면 가서 밟아주고 그렇게 하는 거.)

104014 @ 응.(응.)

104014 # 어우령도 허고 어울지 안헌 집도 잇고. 대개 두 집, 세 집 어울멍덜.(어울려서도 하고 어울리지 않은 집도 있고. 대개 두 집, 세 집 어울려서들.)

104014 @ ᄆᆞᆯ은 탕 어디 가기도 허지예?(말은 타서 어디 가기도 하지요?)

104014 # 응.(응.)

104015 @ 옛날에 ᄆᆞᆯ 탕 다녀낫지예, 어디 가젠, 멀리 가젠 허민예?(옛날에 말 타서 다녔었지요, 어디 가려고, 멀리 가려고 하면요?)

104015 # 멀리 가젠 허민 ᄆᆞᆯ 탕. 안장 지왕 슬랑슬랑허게시리. 요새 이 저, 이디서 거시기 가근에 ᄆᆞᆯ 태우는 건 보민 소리 나는 것에, 방울 소리 나는 것이 엇어이. 경헌디 ᄆᆞᆯ 뒤에 방울 ᄃᆞᆯ아메여.(멀리 가려고 하면 말 타서. 안장 지워서 '슬랑슬랑'하게끔. 요새 이 저, 여기서 거시기 가서 말 태우는 건 보면 소리 나는 것에, 방울 소리 나는 것이 없어.)

104015 @ 아.(아.)

104015 # 게민 ᄆᆞᆯ 탕 가가민 이 방울 소리가 솔랑솔랑솔랑 나. 게민 어디 ᄆᆞᆯ 탕 왐신가 ᄆᆞᆯ 방울 소리 남저 경허멍.(그러면 말 타서 가면 이 방울 소리가 '솔랑솔랑솔랑' 나. 그러면 어디 말 타서 오고있나 말 방울 소리 난다 그렇게 하면서.)

104015 @ 응.(응.)

104015 # 겨고 집이서도 어디 웨방 갈 때 ᄆᆞᆯ 탓다근에 들어오라 가민, 에고, ᄆᆞᆯ방울 소리 나는 거 보난 오는 거 닮다. 아방 오는 거 닮다. 경 허주.(그리고 집에서도 어디 외방 갈 때 말 탔다가 들어와 가면, 에고, 말 방울 소리 나는 거 보니까 오는 거 같다. 아버지 오는 거 같다. 그렇게 하지.)

104015 @ 응.(응.)

104015 # 쪼그만헌 집인, 그 탕 다니는 말은 쪼그만 집인 질롸 ᄒᆞ나. ᄒᆞ나 질롓당 봄 나민 그것에 어우령 밧 ᄇᆞᆯ리고. 경 허영.(조그마한 집엔, 그 타서 다니는 말은 조그만 집엔 길러, 하나. 하나 길렀다가 봄 나면 그것에 어울려서 밭 밟고. 그렇게 해서.)

먹이

104016 @ 소허고 ᄆᆞᆯ허고 먹는 건 무신거, 무신거 멕입니까?(소하고 말하고 먹는 건

무엇, 무엇 먹입니까?)

104016 # 말허고 소허고 먹이는 건 틀리지 안허여.(말하고 소하고 먹이는 건 다르지 않아.)

104016 @ 응.(응.)

104016 # 그자 말 멕이는 것도 소 멕이는 것도 ᄀᆞ치, 조칙이고 감저꿀이고 말 똑ᄀᆞ치 먹어.(그저 말 먹이는 것도 소 먹이는 것도 같이, 조짚이고 고구마 덩굴이고 말 똑같이 먹어.)

104016 @ 아, 출허고 그 곡석 대들.(아, 꼴하고 그 곡식 줄기들.)

104016 # 곡석 대도 ᄀᆞ치 먹어, 아무거라도 조칙이고 뭐 감저꿀이고 그런 거 ᄀᆞ치 먹는디.(곡식 줄기도 같이 먹어, 아무것이라도 조짚이고 뭐 고구마 덩굴이고 그런 거 같이 먹는데.)

104017 @ 게민 출은 허젠 허민 어떵헤근에 헙니까?(그러면 꼴은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서 합니까?)

104017 # 출게 ᄀᆞ사 나 ᄀᆞᆫ듯이 낫꾼덜 빌엉 가근에.(꼴 아까 나 말하듯 낫꾼들 빌려 가서.)

104017 @ 어디 가근에?(어디 가서?)

104017 # 저 웃드리더레. 이 출왓은 ᄇᆞ든 디 엇어. 막 웃드리드레 가근에 저.(저 '웃드리'에. 이 꼴밭은 가까운 데 없어. 아주 '웃드리'에 가서 저.)

104017 @ 놈의 출왓 허민 안 뒈지, 뒈지 안헤, 자기 거 잇어야 뒈여?(남의 꼴밭 하면 안 되지, 되지 않아, 자기 거 있어야 돼?)

104017 # 자기 거 이서사. 놈의 출왓은 사사, 출을 사사.(자기 것 있어야. 남의 꼴밭은 사야, 꼴을 사야.)

104017 @ 아, 출을 사사.(아, 꼴을 사야.)

104017 # 응, 놈의 출왓은 허젠 허민 출은 사사 비어 올 거. 경 안허민, 이녁, 부제칩덜은 이녁 출왓덜이 이서, 웃드르 가민.(응, 남의 꼴밭은 하려고 하면 꼴은 사야 베어 올 거. 그렇지 않으면, 자기, 부잣집들은 자기 꼴밭들이 있어, '웃드르' 가면.)

104017 @ 응.(응.)

104017 # 이제 출케덜 놧다근에 돈덜 하영 삼젠 허는 게 그거라. 고지 가근에 막 출케 놧다근에 돈 하영 삼젠.(이제 '출케'들 놨다가 돈들 많이 벌려고 하는 게 그거야. 숲에 가서 막 '출케' 놨다가 돈 많이 벌려고.)

104017 @ 출케?('출케'?)

104017 # 출케, 출케 헤여.('출케, 출케' 해.)

104017 @ 출케가 무신거?('출케'가 뭐?)

104017 # 출 비여난 디.(꼴 베어난 데.)

104017 @ 출 그르가 출케.(꼴 그루가 '출케'.)

104017 # 경허믄 이제 그것들 놧다근에 출 비여난 밧들 놧다근에. 요즘은 쉐, 쉐, 말은 안 질루난, 가인으로 안 질루난.(그러면 이제 그것들 놨다가 꼴 베었던 밭들 놨다가.

요즘은 소, 소, 말은 안 기르니까, 개인으로 안 기르니까.)

104017 @ 예, 예.(예, 예.)

104017 # 이젠 이 동네에 소나 물이나 질루는 사름 엇어, 우리 동네도.(이젠 이 동네에 소나 말이나 기르는 사람 없어, 우리 동네도.)

104017 @ 응, 집이서 안 질루지.(응, 집에서 안 기르지.)

104017 # 응, 집이서 안 질뤙 문 허영 헤불민 농설 안 지난 요즘은 게난 쉐 물 질루는 사름이 엇이난 그 쉐 질를 때 막 웃드르 가근에 촐 비는 촐밧도 사고. 또 초집 헤여 근에 집 일젠 허민 새 비는 밧도 사고.(응, 집에서 안 길러서 모두 해서 해버리면 농사를 안 지으니까 요즘은 그러니까 소 말 기르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 소 기를 때 막 '웃드르' 가서 꼴 베는 꼴밭도 사고. 또 초가집 해서 집 이려고 하면 띠 베는 밭도 사고.)

104017 @ 응.(응.)

104017 # 부제칩이덜은 다 경 허여.(부잣집들은 다 그렇게 해.)

104018 @ 예, 게민 촐꾼, 촐 비는 사름 빌엉.(예, 그러면 꼴꾼, 꼴 베는 사람 빌려서.)

104018 # 빌엉, 게민 낫질허는 사름은 비민 우린 좀호미[105]로, 강 비는 사름 세 곱 주는 거라이.(빌려서. 그러면 벌낫질하는 사람은 베면 우린 '좀호미'로, 가서 베는 사람 세 곱 주는 거야.)

104018 @ 돈을?(돈을?)

104018 # 응, 돈을.(응, 돈을.)

104018 @ 일당을?(일당을?)

104018 # 응, 그 촐 비는 일당을 경 세 곱 주는 거라. 세 곱 비주게. 우린 ᄒᆞ루ᄌᆞ물앙 강 이 호미로 영영 비는 건. 서른 단 세 바리민 멧 단이냐, 서른 단씩 세 바리, 세 개민, 육십, 백 단.(응, 그 꼴 베는 일당을 그렇게 세 곱 주는 거야. 세 곱 베지. 우린 하루 저물도록 가서 이 호미로 이렇게 이렇게 베는 건. 서른 단, 세 바리면 몇 단이냐, 서른 단씩 세 바리, 세 개면 육십, 백 단.)

104018 @ 응, 구십 개.(응, 구십 개.)

104018 # 그거벳긔 못 비여.(그거밖에 못 베어.)

104018 @ 응.(응.)

104018 # 촐 백 단, 그거벳긔 못 비여. 이 좀호미로 가민 밧듸 궂은 디만 비메, 낫 못 비는 디. 이 밧이 존 딘 낫으로 거려 불민 영 헌 트멍, 돌 트멍 거튼 딘 앞아근에 호미로벳긔 못 비난 우리 세 곱 받아.(꼴 백 단, 그거밖에 못 베어. 이 '좀호미'로 가면 밭에 궂은 데만 베어, 벌낫 못 베는 데. 이 밭이 좋은 덴 벌낫으로 베어 버리면 이렇게 한 틈, 돌틈 같은 덴 앉아서 낫으로밖에 못 베니까 우리 세 곱 받아.)

104018 @ 응.(응.)

104018 # 경허민 낫 헤나민 그런 디 강 비여. 그런 디 강 비여. 무끄는 건 여자도

105) '좀호미'는 일반적으로 쓰는 낫을 말하는 것으로 손으로 한 줌씩 쥐면서 벤다는 뜻으로 '좀'이 붙은 형태이다.

무꺼. 또 무끄는 품은 여자가 무꺼도 저 낫 비는 사름, 흔 사름 품 줘, 무끄는 사름.(그러면 벌낫 하고나면 그런 데 가서 베어. 그런 데 가서 베어. 묶는 건 여자도 묶어. 또 묶는 품삯은 여자가 묶어도 저 벌낫 베는 사람, 한 사람 품삯 줘, 묶는 사람.)

104018 @ 아. 무끄는 게 힘들어?(아. 묶는 게 힘들어?)

104018 # 힘들어. 힘드는 따문에. 무끄는 건 굽어사만 허거든. 경헨에 굽엉, 낫덜로 비여 논 거민 이제 헤싹허민 이걸 벵벵벵 영 헤다 놩 강알 트멍더레 꼭 접정 께 영영 풀어, 풀엉 허고 허는 따문에 굽엉 허는 따문에 막 못 젼뎌.(힘들어. 힘들기 때문에. 묶는 건 굽어서만 하거든. 그래서 굽어서, 벌낫들로 베어 놓은 거면 이제 '헤싹'하면 이걸 뱅뱅뱅 이렇게 헤다 놔서 삳 틈에 꼭 끼워서 매끼 이렇게 이렇게 풀어, 풀어서 하고 하는 때문에 굽어서 하는 때문에 아주 못 견뎌.)

104018 @ 응.(응.)

104018 # 경허난 낫질 허는 사름 품 줘, 무끄는 건.(그러니까 벌낫질 하는 사람 품삯을 줘, 묶는 건.)

104018 @ 아.(아.)

104018 # 견디 이 호미질 영영 앚앙 빈 건 얼마 안 줘.(그런데 이 낫질 이렇게 이렇게 앉아서 벤 건 얼마 안 줘.)

104018 @ 응.(응.)

104018 # 또 촐도 멧 단 못 비고게.(또 꼴도 몇 단 못 베고.)

104019 @ 게민 그 촐 시껑 오젠 허민 쉐, 쉐 등에?(그러면 그 꼴 실어 오려고 하면 소, 소 등에?)

104019 # 응, 쉐 등에 지와.(응, 소 등에 지워.)

104019 @ 흔 바리, 흔 쪽에 얼마?(한 바리, 한 쪽에 얼마?)

104019 # 흔 쪽에 열다섯 개썩.(한 쪽에 열다섯 개씩.)

104019 @ 흔 쪽에 열다섯 개썩 허민 그게 서른 개가 흔 바리?(한 쪽에 열다섯 개씩 하면 그게 서른 개가 한 바리?)

104019 # 응, 서른 단이 흔 바리.(응, 서른 단이 한 바리.)

104019 @ 서른 단이 흔 바리.(서른 단이 한 바리.)

104019 # 촐은 서른 단이 흔 바리, 조는 으섯 단이 흔 바리.(꼴은 서른 단이 한 바리, 조는 여섯 단이 한 바리.)

104019 @ 응.(응.)

104019 # 이거 석 단 넘엉 못 시끄주. 또 지는 것도 얼마 못 져.(이거 석단 넘게 못 싣지. 또 지는 것도 얼마 못 져.)

104019 @ 응.(응.)

104019 # 조나 이따근에 이 가름밧[106]듸 막 좋은 디 고고리가 이만썩 홁주게. 지러기가 이만썩 허여. 또 막 궂은 밧듸 고고린 요만썩 허여. 베롱베롱[107] 그축 허난. 경헤

106) '가름팟'은 마을 안의 밭으로 기름지고 관리가 잘된 밭을 말한다.
107) '베롱베롱'은 이삭이 잘고 많이 달리지 않은 모양을 흉내 낸 말이다.

도 석 단, 흔 짝에 석 단 넘엉은 못 시꺼.(조나 있다가 이 '가름밧'에 막 좋은 데 이삭이 이만큼씩 굵지. 길이가 이만큼씩 해. 또 아주 궂은 밭에 이삭 요만큼씩 해. '베롱베롱' 그렇게 하니까. 그래도 석 단, 한 쪽에 석 단 넘게는 못 실어.)

104019 @ 게민 그거 집이 가졍오민 어떵?(그러면 그거 집에 가져오면 어떻게?)

104019 # 집이 가졍오민, 집이 오랑 부려근에 믄 흔 밧더레 멍석 놔근에 그 털어지카부덴 믄 멍석 페와 놩 그레 조근조근 푸멍 줄 사령 또 놩 또 시끄레 가고 경허주게. 것가 시꺼가고 시꺼오고. 집이 강 흔 사름 잇다근에 거 오민 푸멍 기자, 우선 짐 ᄂᆞ려 놓멍 데며가멍 흔 사름만 눌지도 못허난.(집에 가져오면, 집에 와서 부려서 모두 한 군데에 멍석 놔서 그 떨어질까봐 모두 멍석 펴서 그리 차근차근 푸면서 줄 사려서 또 놔서 또 실으러 가고 그렇게 했지. 그것이 실어가고 실어오고. 집에 가서 한 사람 있다가 그거 오면 푸면서 그저, 우선 짐 내려 놓으면서 쌓아가면서 한 사람만 가리지도 못하니까.)

104019 @ 아.(아.)

104019 # 게민 또 시끄레 강 또 시껑 오고. 시끄는 사름은 둘리.(그러면 또 실으러 가서 또 실어 오고. 싣는 사람은 둘.)

104019 @ 응.(응.)

104019 # 집이 오랑 푸는 사름은 ᄒᆞ나도 푸고.(집에 와서 푸는 사람은 하나도 푸고.)

104019 @ 게민 그 바레기 나난 한 번에 하영 시꺼시켜예?(그러면 그 달구지 나니까 한 번에 많이 실었겠네요?)

104019 # 응, 바레기 난 후제 쉐레 짐 안 시꺼난.(응, 달구지 난 후에 소에 집 안 실었어.)

104019 @ 게난예, 쉐로 멧 번 왓다갓다 헐 거예?(그러니까요, 소로 몇 번 갔다 왔다 할 거요?)

104019 # 응, 멧 번 왓다갓다 헐 거 바레기로 강 흔 쉐 ᄒᆞ나 흔 열 번 가오는 거민 흔 번에 강 시꺼왕.(응, 몇 번 갔다 왔다 할 거 달구지로 가서 한 소로 하나 한 열 번 갔다오는 거면 한 번에 가서 실어와.)

104019 @ 응, 게난.(응, 그러니까.)

104019 # 게난 그루후제 쉐덜토 얼마 안 질롼. 집이서 그냥 밧 가는 거 ᄒᆞ나썩만 질뤄. 이젠 낭 밧 허난 쉐 질루는 사름도, 물 질루는 사름도 ᄒᆞ나도 엇어. 경허난.(그러니까 그 후에 소들도 얼마 안 길렀어. 집에서 그냥 밭 가는 거 하나씩만 길러. 이젠 나무 밭 하니까 소 기르는 사람도, 말 기르는 사람도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104019 @ 필요가 엇이난예, 이젠예?(필요가 없으니까요, 이젠요?)

104019 # 필요가 엇주.(필요가 없지.)

104020 @ 게민 그 곡석 대는, 뭐 먹는 거 쉐나 물 멕이는 그 곡석 대는?(그러면 그 곡식 줄기는, 뭐 먹는 거 소나 말 먹이는 그 곡식 줄기는?)

104020 # 조, 조 남뎅이는 소나 물이나 먹고, 감저, 이 고구마 줄도 소나 물이나 먹는디 산뒤엔 헌 거 잇지이, 산뒤찍이나 ᄆᆞ물찍이나 헌 건 이건 안 먹어.(조, 조 줄기는

소나 말이나 먹고, 고구마, 이 고구마 덩굴도 소나 말이나 먹는데 밭벼라고 한 거 있지, 밭볏짚이나 메밀짚이나 한 건 이건 안 먹어.)

104020 @ 보리낭도 안 먹을 거 아니?(보릿짚도 안 먹을 거 아니?)

104020 # 보리낭도 안 먹고. 보리낭도 안 먹으난 보리낭은 통시에 담아놩 걸름허고.(보릿짚도 안 먹고. 보릿짚도 안 먹으니까 보릿짚은 돼지우리에 담아놔서 거름하고.)

104020 @ 응.(응.)

104020 # 또 이거 저 산뒤찍은 허민 겨울에 멍석 줄기, 멩텡이 줄기 그것에 들어가 불고.(또 이거 저 밭볏짚은 하면 겨울에 멍석 짜기, 멱둥구미 짜기 그것에 들어가 버리고.)

104020 @ 응.(응.)

104020 # ᄆᆞ물찝도 안 먹으민 이거 통시레 담아놔. ᄆᆞ물찝허고 저 보리찝은 통시에 담아 놔, 도세기 질루는 디. 겐 걸로 걸름 만들아.(메밀짚도 안 먹으면 이거 돼지우리에 담아놔. 메밀짚하고 저 보릿짚은 돼지우리에 담아놔, 돼지 기르는 데. 그래서 그걸로 거름 만들어.)

104021 @ 촐 비는 게 젤 힘들엉예?(꼴 베는 게 젤 힘들어요?)

104021 # 어, 촐 비는 게 젤 힘들어.(어, 꼴 베는 게 젤 힘들어.)

104021 @ 할무니 헤난 거, 촐 빌 때 헤난 거 재미난 말 잇이민 ᄀᆞᆯ아줍서.(할머니 했던 거, 꼴 벨 때 했던 거 재미있는 말 있으면 말해주세요.)

104021 # 재미난 말 엇어, 우린 촐 무끄레만 뎅기고.(재미있는 말 엇어, 우리 꼴 묶으러만 다니고.)

104021 @ 응.(응.)

104021 # 촐 무끄레 강 재미나게 ᄀᆞᆯ은 건 촐 무끄멍 촐 무껑 내치민 또 흔밧더레 모다다 놔사 눌 거주, 누난 촐 날르다근에 점심 때 뒈난, 야, 왕 점심덜 먹어불라. 점심 출리난. ᄀᆞ만 십서, 영 거펑치[108] 신 디가 잇어이, 허난.(꼴 묶으러 가서 재미있게 말하는 건 꼴 묶으면서 꼴 묶어서 내치면 또 한군데 모여 놔야 가릴 거지, 가리니까 꼴 나르다가 점심 때 되니까, 야, 와서 점심들 먹어라, 점심 차리니까. 가만히 계세요, 이렇게 '거펑치' 있는 데가 있어, 하니까.)

104021 @ 거펑치가 뭐?('거펑치'가 뭐?)

104021 # 거펑치가 영 굴렝이.('거펑치'가 이렇게 구렁.)

104021 @ 응.(응.)

104021 # 게난 영 높은 디 산에 왕 점심 먹어 불라 허난에, 아이, ᄀᆞ만십서, 요 굴렁지 거 멧 단 헹 무껑 강 먹게, 어떵 더운 디레 따시 ᄂᆞ려옵니까 허멍. 게난 촐 날르단 하르방이 점심 출렁 놔두난 쉔 오랑 문딱 먹어 분 거 아니?(그러니까 이렇게 높은 데 산에 와서 점심 먹어 버려라 하니까, 아이, 가만 계세요, 요 구렁 거 몇 단 해서 묶어서 가서 먹게, 어떻게 더운 데로 다시 내려옵니까 하면서. 그러니까 꼴 나르다가 할아버지가 점심 차려서 놔두니까 소는 와서 모두 먹어 버린 거 아니?)

108) '거펑치'는 땅이 움푹하게 파인 구렁이라고 제보자가 설명했다.

104021 @ 아이고.(아이고.)

104021 # 먹어 부난 야 느네덜 밥 먹어 불라 헐 때 먹지 소 다 들러먹어 부난 오널 점심 굶엉 어떵 헐 거니, 허난, 아이고 내붑서게. 원 우리 재미난 거 엇주만 하르방 막 저들멍 겐 놈의 고구마 파단 군 거라.(먹어버리니까 야 너희들 밥 먹어 버려라 할 때 먹지 소 다 들어먹어 버리니까 오늘 점심 굶어서 어떻게 할 거니, 하니까, 아이고 내버리세요. 원 우리 재미있는 거 없지만 할아버지 막 걱정하면서 그래서 남의 고구마 파다가 구운 거야.)

104021 @ 응.(응.)

104021 # 밧듸 고구마 심은 거 시난 파단 궝 이거라도 하나썩 먹으라. 배고팡 오널 저물앙 어떵 헨 살 거니. 멀어부난 집이 점심 먹으레 못 오지. 걸엉 뎅기고 헐 때난. 이디서 저 산 바레지는 디 잇잖아, 그디서 걸엉 이디 가곡 오단 보민 어둑어 불걸.(밭에 고구마 심은 거 있으니까 파다가 구워서 이거라도 하나씩 먹어라. 배고파서 오늘 저물도록 어떻게 해서 살 거니. 멀어버리니까 집에 점심 먹으러 못 오지. 걸어서 다니고 할 때니까. 여기서 저 산 보이는 데 있잖아, 거기서 걸어서 여기 가고 오다 보면 어두워 버릴걸.)

104021 @ 맞아.(맞아.)

104021 # 겨난 점심 굶언. 우리 원 그때 혼 번 무시거 헤낫주. 촐 무끄는 것에 재미나고 거시기 헌 건 엇어. 못 젼디난이.(그러니까 점심 굶었어. 우리 원 그때 한 번 뭐 했었지. 꼴 묶는 것에 재미있고 거시기 한 건 없어. 못 견디니까.)

104021 @ 응.(응.)

104021 # 그거 다 무꺼사지 날라다 놓민 눌어사지.(그거 다 묶어야지 날라다 놓으면 가려야지.)

104021 @ 응.(응.)

104021 # 경허단 보민 손 빨른 사름 가민 ᄀᆞ치 ᄀᆞ치 재기 헤영 오고. 손이나 ᄒᆞ쏠 뜬 사름은 가민 어둑아, 어둑아. 열 사름 빈 거 혼 다섯 사름 가민 어둑아 벼. 낫으로 열 사름 빈 거 다섯 사름 가민 그거 무끄고 날라다 놓고 혼 밧듸. 날라다 놓고 무끄고 헤사. 겨고 또 그거 물 안 들게 눌고 경허단 보민 어둑아 부는 거라. 무끔만 허는 건 낮전 다 무끄는디 낮 전 무꺼 놩 낮 후젠 그거 믄 혼 밧듸 날라다 놔야지. 또 눌어야 허지이. 눌민 이제 또 옆이서 줄 비영 그거 믄 얽어 뒁 ᄇᆞ름 불민 뒈싸 불카부덴 돌 허멍 다 뭐 지둘룅. 촐 열 사름 빈 거민 혼 눌에 다 눌지도 못허여. 두 눌이나 경 눌어가고 허단 보민 왁왁 어둑아. 겨민 촐 무끄는 사름은 똑 낫질 허는 사름과 ᄀᆞ치 품 주고 경 허여.(그러다 보면 손 빠른 사람 가면 같이 같이 재게 해서 오고. 손이나 조금 느린 사람은 가면 어두워, 어두워. 열 사람 벤 거 한 다섯 사람 가면 어두워 버려. 벌낫을 열 사람 벤 거 다섯 사람 가면 그거 묶고 날라다 놓고 한 군데. 날라다 놓고 묶고 해야. 그리고 또 그거 물 안 들게 가리고 그러다 보면 어두워 버리는 거야. 묶기만 하는 건 오전에 다 묶는데 오전에 묶어 놔서 오우헨 그거 모두 한군데 잘라다 놔야지. 또 가려야지. 가리면 이제 또 옆에서 줄 꼬아서 그거 모두 얽어 두고 바람 불면 뒤집어 버릴까봐

돌 하면서 다 뭐 지질러서. 꼴 열 사람 벤 거면 한 가리에 다 가리지 못해. 두 가리나 그렇게 가려가고 하다 보면 왁왁 어두워. 그러면 꼴 묶는 사람은 꼭 낫질하는 사람과 같이 품삯 주고 그렇게 해.)

104021 @ 응.(응.)

104021 # 즘호미로 빈 것만 품 안 주주.(호미로 벤 것만 품삯 안 주지.)

104021 @ 예.(예.)

104021 # 경 무신 촐험에 재미나고 무시거허곤 엇어.(그렇게 무슨 꼴하기에 재미있고 무엇하고는 없어.)

104021 @ 게민 기억에 남는 거?(그러면 기억에 남는 거?)

104021 # 원, 기억에 남는 거 그거. 우리 촐 무끄렝 뎅기는 거. 밤이 촐 무끄레 가젠 허민 걸어 뎅기는 따문에 이디서 걸어근에 가민, 그땐 ᄒᆞ꼼 걸음 잰 때라이. 두 시간이로 가 져시카?(원, 기억에 남는 거 그거. 우리 꼴 묶으러 다니는 거. 밤에 꼴 묶으러 가려고 하면 걸어 다니는 때문에 여기서 걸어서 가면, 그땐 조금 걸음 잰 때야. 두 시간으로 갈 수 있었을까?)

104021 @ 응.(응.)

104021 # 아침, ᄀᆞ만 시라. 네 시에 나상 걸으민 네 시, 다섯 시, 두 시간 반은 걸어야 가겠네.(아침, 가만 있어라. 네 시에 나서서 걸으면 네 시, 다섯 시, 두 시간 반은 걸어야 가겠네.)

104021 @ 여섯 시 넘엉예? 동틀 때 뒈민.(여섯 시 넘어서요? 동틀 때 되면.)

104021 # 경허난 이디서 밤이 나상 걸어, 밤이.(그러니까 여기서 밤에 나서서 걸어, 밤에.)

104021 @ 아.(아.)

104021 # 돌 신 때 경헤도 걷기가 좋는디 돌 엇인 땐 진짜. 이추룩 세멘 질이라도 헌 거민 허주마는. 경 안 허영 기자 가단 보민 울탕불탕허민 발 뒤창, 엎더지곡 아이고 첨. 경허민 멎어, 주인은. 주인은 그디서 멎어. 쏠 아졍가고. 그디 가민 어디 저디 물 봉강 가근에 그 물 강 떠다 놓고. 허벅 아졍강 물 질어다 놧당 그디서 밥허여. 멎어근에 밤 멎어. 경허민 우리 일꾼덜만 올라갓다 ᄂᆞ려왓다 헐 거주.(달 있을 때 그래도 걷기 좋은데 달 없을 땐 진짜. 이렇게 시멘트 길이라도 한 거면 하지마는. 그렇게 안 해서 그저 가다 보면 울퉁불퉁하면 발 뒤창, 엎어지고 아이고 첨. 그렇게 하면 머물러, 주인은. 주인은 거기서 머물러. 쌀 가져가고. 거기 가면 어디 저기 물 찾아 가서 그 물 가서 떠다 놓고. 허벅 가져가서 물 길어다 놨다가 거기서 밥해. 머물러서 밤 머물러. 그러면 우리 일꾼들만 올라갔다 내려왔다 할 거지.)

104021 @ 멎이는 게 그디 사는 거?('멎이는' 게 거기 사는 거?)

104021 # 사는 거. ᄒᆞ룻밤이나 이틀 밤이나 그디 살아. 쏠 아지고 뭐 반찬이사 뭔장, ᄂᆞ물 그것만 헹 가민 이디서 무시거 먹을 거 온 때랑 ᄉᆞᆼ키 헹 옵서. ᄉᆞᆼ키 헤여 오라 허는 게 ᄂᆞ물이나 헤영 솖앙 그거 아졍 올라가민 그디서 문 밥헹 줘.(사는 거. 하룻밤이나 이틀 밤이나 거기 살아. 쌀 가지고 뭐 반찬이야 된장 나물 그것만 해서 가면 여기서 무

엇 먹을 거 온 때는 푸성귀 해서 오세요. 푸성귀 해 와라 하는 게 나물이나 해서 삶아서 그거 가져서 올라가면 거기서 모두 밥해서 줘.)

104021 @ 아.(아.)

104021 # 쏠은 문 미릿 아졍 올라갓다근에.(쌀은 모두 미리 가져서 올라갔다가.)

104021 @ 응.(응.)

104021 # 경 어떵헨 그디서 밤을 멎냐 허면 촐 아시날 강 비여근에 그거 무꺼근에 담 싸듯 싸, 촐을. 경 집 짓엉 그 안에 누워.(그렇게 어떻게 해서 거기서 밤을 머무느냐 하면 꼴 전날 가서 베어서 그거 묶어서 담 쌓듯 쌓아, 꼴을. 그렇게 집을 지어서 그 안에 누워.)

104021 @ 하하.(하하.)

104021 # 촐단 아래 누워.(꼴단 아래 누워.)

104021 @ 아, 촐단 아래.(아, 꼴단 아래.)

104021 # 경헨 누웟단 뒷날 아침이 이젠 솟 아졍갓다근에 솟디서 불 솜으멍 밥허영. 경 밥허영 내불민 우린 이디서 가멍 뭐 뭐 아졍오라 허민 기자 뒌장에 ᄂᆞ물 숢은 거나 시민 아졍강. 겐 그거 뭐 반찬 아무것도 엇어. 뒌장에 ᄂᆞ물 숢은 거라. 그거, 옛날에 경헨 살안.(그렇게 해서 누웠다가 뒷날 아침에 이젠 솥 가져갔다가 불 때면서 밥해. 그렇게 밥해서 내버리면 우린 여기서 가면서 뭐 뭐 가져와라 하면 그저 된장에 나물 삶은 거나 있으면 가져가서. 그래서 그거 뭐 반찬 아무것도 없어. 된장에 나물 삶은 거야. 그거, 옛날에 그렇게 해서 살았어.)

104021 @ 예.(예.)

104021 # 이제랑 잘 들어봐 어떵헨 살아시.(이제랑 잘 들어봐 어떻게 해서 살았는지.)

104021 @ 게메예. 걸어 가렌 헤도 버쳥 못 가쿠다, 이제.(그러게요. 걸어 가라고 해도 부쳐서 못 가겠습니다, 이제.)

104021 # 아이구, 이젠 걸엉 뎅기렌 허민 못 걸어.(아이구, 이젠 걸어 다니라고 하면 못 걸어.)

104021 @ 게난.(그러니까.)

104021 # 견디 ᄀᆞ만이 생각해 보민 이디서 네 시에 나사민, 네 시 전이라. 세 시쯤 나사서. 나상 가면 요 신흥, 신흥 혼 이리쯤 가근에 허면은 그때ᄁᆞ장, 하여튼 다섯 시ᄁᆞ장 가야 뒐 거난에.(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기서 네 시에 나서면, 네 시 전이야. 세 시쯤 나서야. 나서서 가면 요 신흥, 신흥 한 이리쯤 가서 하면 그때까지, 하여튼 다섯 시까지 가야 될 거니까.)

104021 @ 응.(응.)

104021 # 이디서 세 시에 나상 가진 거 닮다. 경헹 그디 가민 다섯 시 반으로 으섯 시 뒈엇어. 경헨 그디 강 밥헤 놧이민 그 밥 먹엉 촐 괄아가민 무끄지도 못허고 강 인칙 무꺼사 그 촐을 다 날라다 놓민 눌어뒁 올 거난 막 인칙 가.(여기서 세 시에 나서서 간 거 같다. 그렇게 해서 거기 가면 다섯 시 반으로 여섯 시 되었어. 그래서 거기 가서

밥해 놓았으면 그 밥 먹고 꼴 말라가면 묶지도 못하고 가서 일찍 묶어야 그 꼴을 다 날라다 놓으면 가려두고 올 거니까 아주 일찍 가.)

104021 @ 촐이 과는 건 어떵 헌 거?(꼴이 과는 건 어떻게 하는 거?)

104021 # 과는 건 ᄆᆞᆯ라 부는 거. 과상허게 ᄆᆞᆯ른 거.(과는 건 말라 버리는 거. 앙상하게 마른 거.)

104021 @ 거민 잘 못 무껑?(그러면 잘 못 묶어서?)

104021 # 잘 못 무껑. 촉촉헌 때 가사 촐이 꼭꼭 무꺼지주 겨난.(잘 못 묶어서. 촉촉한 때 가야 꼴이 꼭꼭 묶을 수 있지 그러니까.)

104021 @ 게민 또 ᄆᆞᆯ려사 허여, 그거?(그러면 또 말려야 해, 그거?)

104021 # 아니 다 ᄆᆞᆯ른 촐이라.(아니 다 마른 꼴이야.)

104021 @ 아.(아.)

104021 # 오널 비민 낼 ᄒᆞ루 ᄆᆞᆯ류와.(오늘 베면 낼 하루 말려.)

104021 @ ᄒᆞ루 ᄆᆞᆯ류왓당 무끄는 거?(하루 말렸다가 묶는 거?)

104021 # 어, ᄒᆞ루 ᄆᆞᆯ류왕 뒷날 무껑 경허는 거주. 경허민 그거 터불지 안허주. ᄆᆞᆯ류지 안허영 그냥 무꺼 놓민 터.(어, 하루 말렸다가 뒷날 묶어서 그렇게 하는 거지. 그러면 그거 뜨지 않지. 말리지 않고 그냥 묶어 놓으면 떠.)

104021 @ 곰팡이 피어?(곰팡이 피어?)

104021 # 응, 곰팡이 펴. 경헤불민 ᄆᆞ쉬덜 잘 안 먹주게.(응, 곰팡이 피어. 그래버리면 마소들 잘 안 먹지.)

104021 @ 아.(아.)

104021 # 그걸 ᄆᆞᆯ류와근에 바싹 ᄆᆞᆯ류왕 무꺼사 곰팡이 안 피여근에.(그걸 말려서 바싹 말려서 묶어야 곰팡이 안 피어서.)

104021 @ 너미 ᄆᆞᆯ라도 안 뒈고?(너무 말라도 안 되고?)

104021 # 응, 너미 ᄆᆞᆯ라도 안 뒈고. 게난 오널 빈 거 낼 아침이 가면 낼 ᄒᆞ루 살앙 모레 아칙이 가면 아침 빈 것서부터 ᄎᆞᄎᆞᄎᆞ 무꺼 가.(응, 너무 말라도 안 되고. 그러니까 오늘 벤 거 낼 아침에 가면 낼 하루 살아서 모레 아침에 가면 아침에 벤 것부터 차차차 묶어 가.)

104021 @ 아.(아.)

땔감

104022 @ 이번엔 짇을거 헤난 거예. 짇을거는 보통 어떤 거, 어떤 거로 짇을거 헤낫수과?(이번엔 땔감 했던 거요. 땔감은 보통 어떤 거, 어떤 거로 땔감 했었습니까?)

104022 # 우리?(우리?)

104022 @ 응.(응.)

104022 # 대부분은 검질도 비어당 짇주마는 솔입 걷으레.(대부분은 검불 베어다가 때지마는 솔가리 걷으러.)

104022 @ 응.(응.)

104022 # 솔입 걷고 또 나무가 엇인 때난 나무 헤다근에 잇당 이 제서 때나 불 땡헤 먹젠 허민 이디서 저 여우네[109] 우이 ᄎᆞ남밧[110]이엔 헌 디 잇어, ᄎᆞ남밧.(솔가리 걷고 또 나무가 없을 때니까 나무 해다가 있다가 이 제사 때나 불 때서 해 먹으려고 하면 여기서 저 '여우네' 위에 'ᄎᆞ남밧'이라고 한 데 있어, 'ᄎᆞ남밧'.)

104022 @ 응.(응.)

104022 # 일로 가다 보민 어들로 감신가 몰라. 이딜로 가민 교래[111]로 가, 아니?(이리로 가다 보면 어디로 가는지 몰라. 여기로 가면 교래로 가, 아니?)

104022 @ 교래리로 가. 물영아리 지나근에 교래리로 지나근에.(교래리로 가. 물영아리 지나서 교래리로 지나서.)

104022 # 아, 물영아리[112] 지낭.(아, 물영아리 지나서.)

104022 @ 예, 예.(예, 예.)

104022 # 게난 그 물영아리 앞더레 그디 가민 ᄎᆞ남이 잇어이. 그디 강 ᄎᆞ남 강 져와, 겨울에.(그러니까 그 물영아리 앞으로 거기 가면 참나무가 있어. 거기 가서 참나무 가져와, 겨울에.)

104022 @ 아.(아.)

104022 # 이 숫 묻으멍 가젱이덜 탁탁 끈엉 내분 거.(이 숯 묻으면서 가지들 탁탁 잘라서 내버린 거.)

104022 @ 아.(아.)

104022 # 그거 ᄆᆞᆯ른 것 강 지어다근에. 그거 ᄒᆞᆫ, ᄒᆞ루 ᄒᆞᆫ 번벳긔 강 못 졍 오거든.(그거 마른 것 가서 지어다가. 그거 한, 하루 한 번밖에 가서 못 져서 오거든.)

104022 @ 그럼 주로 나무허고 솔입허고?(그럼 주로 나무하고 솔가리하고?)

104022 # 응, 솔입허고.(응, 솔가리하고.)

104022 @ 그다음에?(그다음에?)

104022 # 팔월 나민 그자 검질.(팔월 나면 그저 검불.)

104022 @ 검질허고?(검불하고?)

104022 # 어, 그거.(어, 그거.)

104023 @ 쉐똥, 말똥도?(소똥, 말똥도?)

104023 # 쉐똥, ᄆᆞᆯ똥은 이 풀 ᄆᆞᆯ똥이엔 헤근에 봄이 줏은 ᄆᆞᆯ똥은 걸름허렌 통시더레 줏어당 비우고.(소똥, 말똥은 이 풀 말똥이라고 해서 봄에 주운 말똥은 거름하려고 돼지우리에 주워다 비우고.)

104023 @ 응.(응.)

104023 # 또 이 가을에 줏는 건 하늬바람 불민 막 ᄆᆞᆯ름이 쉬워이. 경허민 그거 줏어다근에 ᄆᆞᆯ류왕 굴묵 때기.(또 이 가을에 줍는 건 하늬바람 불면 아주 말리기 쉬어. 그러

109) '여우네'는 서귀포시 남원읍 신흥 2리의 옛지명이다.
110) 'ᄎᆞ남밧'은 글자 그대로 하면 참나무밭 정도가 되는데 남원읍 신흥 2리에 있는 지명인 듯하다.
111) '교래'는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를 말한다.
112) '물영아리'는 서귀포시 남원읍 수망리에 있는 오름을 말한다.

면 그거 주워다가 말려서 ‘굴묵’ 때기.)

104023 @ 아.(아.)

104023 # 막 그걸로 굴묵 때민 방이 뜻아이.(막 그걸로 ‘굴묵’ 때면 방이 따뜻해.)

104023 @ 아, 쉐똥허고 말똥 줏으레 많이 가낫수과?(아, 소똥하고 말똥 주우러 많이 갔었습니까?)

104023 # 아이고, 새벡이 강 보민 어느 동안에 잰 사름 잇어. 붉음 전이 강 보민, 둘 훤헌 쯤은 강 보민 ᄆᆞ쉬덜 영 가뒁 길루는 디가 잇어. 어느 때사 왕 줏어 간디 몰라. 원 경헨 물똥 구덕, 물똥 구덕 허멍 구덕, 거 흔 얼마 들건고, 커, 구덕 영 뚜러메는 거. 그걸로 가근에 어떤 때 소망일민 흔 구덕 줏어 오고 경 안 허민 ᄒᆞ나, ᄒᆞ나토 못 허영 그냥 돌아올 때 잇고.(아이고, 새벽에 가서 보면 어느 동안에 잰 사람 있어. 밝기 전에 가서 보면, 달 훤한 때쯤 가서 보면 마소들 이렇게 가둬서 기르는 데가 있어. 어느 때야 와서 주워 갔는지 몰라. 원 그렇게 해서 말똥 바구니, 말똥 바구니하면서 바구니, 그거 한 얼마 들어갈까, 커, 바구니 이렇게 둘러매는 거. 그걸로 가서 어떤 때 사망 일면 한 바구니 주워 오고 그렇게 안 하면 하나, 하나도 못 해서 그냥 돌아올 때 있고.)

104023 @ 응.(응.)

104023 # 간 잰 사름은 어느 동안에 강 줏어 와. 게민 그거 줏어당 물류와. 널엉 내불민 흔 이틀 내불민 바싹 물르민 담앙 어드레 데몃다근에 데명 뭐 더껑. ᄂᆞ람쉬 헹 더껏다근에 그거 파내멍 겨울에 굴묵 살르민 경 구들이 ᄃᆞᆺ아.(가서 잰 사람은 어느 동안에 가서 주워 와. 그러면 그거 주워다가 말려. 널어서 내버리면 한 이틀 내버리면 바싹 마르면 담아서 어디 쟁였다가 쟁여서 뭐 덮어서. 이엉 해서 덮었다가 그거 파내면서 겨울에 ‘굴묵’ 사르면 그렇게 구들이 따뜻해.)

104024 @ 응, 솔입 걷으레 가난 말 ᄀᆞᆯ아줍서.(응, 솔가리 걷으러 갔던 말해주세요.)

104024 # 솔입 걷으렌 글겡이 이추룩 헌 거, 쒜로 영 만든 거.(솔가리 걷으러 긁개 이렇게 한 거, 쇠로 이렇게 만든 거.)

104024 @ 응.(응.)

104024 # 영 만들앙, 우리 손가락은 다섯 개주마는 여섯 개, 일곱 개 뒈어이.(이렇게 만들어서, 우리 손가락은 다섯 개지마는 여섯 개, 일곱 개 돼.)

104024 @ 예.(예.)

104024 # 그걸로 강 소낭 밧듸 강 막 솔입 걷어. 솔입 걷어근에 그거 짊어 놔 둬근에 이젠. 그거 지엉 재기 와 불민 어멍 욕들지 안헐 건디이. 강 베튈락허고 무시거허고 공기허고 허단 보민 세월 가는 중 몰랑 집이 오민 ᄀᆞ자, 솔입 요거 걷으멍 ᄀᆞ자 살아사 허멍 막 욕듣곡.(그걸로 가서 소나무 밭에 가서 솔가리 걷어. 솔가리 걷어서 그거 짊어 놔두고 이젠. 그거 져서 재게 와 버리면 어머니 욕먹지 않을 건데. 가서 줄넘기하고 무엇하고 공기하고 하다 보면 세월 가는 줄 몰라서 집에 오면 아직까지, 솔가리 요거 걷으면서 아직까지 살았냐 하면서 막 욕먹고.)

104024 @ 하하.(하하.)

104024 # 경허영.(그렇게 하면서.)

104024 @ 솔입은 저 그거 글겡이로 긁은 다음에 어떵 헤영 잘?(솔가리는 저 그거 긁개로 긁은 다음에 어떻게 해서 잘?)

104024 # 영 톡톡톡톡 ᄒᆞ꼼썩 톡톡 받치멍 영영 허멍 톡 허게 안아 놓고, 안아 놓고 허멍 질게 놔근에 저 베 끗뎅이 심엉 ᄃᆞᆼ겨 오멍 ᄆᆞᆯ아.(이렇게 톡톡톡톡 조금씩 톡톡 받치면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톡하게 안아 놓고, 안아 놓고 하면서 길게 놔서 저 바 끄트머리 잡아서 당겨 오면서 말아.)

104024 @ 아, ᄆᆞᆯ아?(아, 말아?)

104024 # 어. 질게, 저만이 질게 놓민.(어. 길게, 저만큼 길게 놓으면.)

104024 @ 응.(응.)

104024 # 저 베 끗뎅이로 강 영 상 베 영 ᄃᆞᆼ기곡 일로 영영 ᄇᆞᆯ랑 영 헤 오라 가곡 꼭꼭 ᄇᆞᆯ랑 영영 ᄇᆞᆯ르민 벵허게 ᄆᆞᆯ아져.(저 바 끄트머리로 가서 이렇게 서서 바 이렇게 당기고 이리로 이렇게 이렇게 밟아서 이렇게 해 와 가고 꼭꼭 밟아서 이렇게 밟으면 뱅하게 말려.)

104024 @ 아.(아.)

104024 # 경헹 ᄆᆞᆯ앙 짊어 놩 글겡이로 또시 영, 솔입은 톡톡 받치민 ᄆᆞᆫ 기여들여.(그래서 말아서 짊어 놔서 긁개로 다시 이렇게, 솔가리는 톡톡 받치면 모두 기어들어.)

104024 @ 아.(아.)

104024 # 톡 받쳥 졍 와.(톡 받쳐서 져와.)

104024 @ 겐 ᄒᆞᆫ 짐 헹 오는 거라?(그래서 한 짐 해서 오는 거야?)

104024 # 경헤영 ᄒᆞᆫ 짐, ᄒᆞᆫ 짐 헤영 어가라 올 건디.(그래서 한 짐, 한 짐 해서 곧 올 건데.)

104024 @ 하하하.(하하하.)

104024 # 두름이 설뢍.(어린 것이 서러워.)

104024 @ 무시거 구름이?(무엇 구름이?)

104024 # 두름이 설롸, 두려.(어린 것이 서러워, 어려.)

104024 @ 두름이 설롸?(어린 것이 서러워?)

104024 # 응. 두릴 때가, 게난 두름이 섭다 허는 게 그거주. 두린 때라 놓난 어멍 욕허고 무시거허고, 욕들어 나도 그걸 잊어벼.(응. 어릴 때가, 그러니까 어린 것이 섧다 하는 게 그거지. 어린 때라서 어머니 욕하고 무엇하고, 욕먹었어도 그걸 잊어버려.)

104024 @ 맞아.(맞아.)

104024 # 이녁 자파리허멍 느가 이기느니 나가 이기느냐 허멍 나 멧 번 이겻저, 느 멧 번 졋저 허멍 거 무시거 놓지도 안허는 거주마는 장난으로 경허단 집이 오믄 욕 들엇주게 어멍신디. ᄀᆞ자 뭐 헤신디 허멍.(자기 장난하면서 네가 이기네 내가 이기네 하면서 나 몇 번 이겼다, 너 몇 번 졌다 하면서 그거 무엇 놓지도 않는 거지마는 장난으로 그렇게 하다가 집에 오면 욕먹었지 어머니께. 이제까지 뭐 했냐고 하면서.)

104025 @ 응. 낭 허는 거는?(응. 나무 하는 거는?)

104025 # 나무 거는, 거는 가면이 남 이걸 영 ᄀᆞ뜽허게 가젱이 톡톡 꺼끄멍 영 줴멍

허영 ᄀᆞ뜽케 놩 톡 놩 무꺼.(나무 거는, 그거는 가면 나무 이걸 이렇게 가지런히 가지 톡톡 꺾으면서 이렇게 조이면서 해서 가지런히 놔서 톡 놔서 묶어.)

104025 @ 응.(응.)

104025 # 무끄고 무끄고 헤근에 그걸 양펜으로 이만이 이거 지레기 허게시리 영 지러기 허영 딱 이녁 지어 올 만큼 지영 흔 겨울 들어근에 마딱 겨울 농서 다 헤 두고 ᄀᆞ슬 다 장만헤 두고 허영 동지섣달 놀아가민 그디 가, 나무 지레.(묶고 묶고 해서 그걸 양편으로 이만큼 이거 길이 하게끔 이렇게 길이 해서 딱 자기 져 올 만큼 져서 한 겨울 들어서 모두 겨울 농사 다 해 두고 수확 다 장만해 두고 해서 동지섣달 놀면 거기 가, 나무 지러.)

104025 @ 응.(응.)

104025 # 강 흔 멧 짐 지어 오면 흔 댓 번 지어 오면 이, 헤 먹을 때에 불은 때여, 그걸로. 그거 안 허민 검질벳긔 엇이난. 그거 헷다근에 잇당 고사리 솖을 때, 제서 때, 멩질 때, 그런 때 쓰젠. 경허젠 남을 강 헤와.(가서 한 몇 짐 져 오면 한 댓 번 져 오면 이, 해 먹을 때에 불은 때, 그걸로. 그거 안 하면 검불밖에 없으니까. 그거 했다가 있다가 고사리 삶을 때, 제사 때, 명절 때, 그런 때 쓰려고. 그렇게 하려고 나무를 가서 해 와.)

104025 @응.(응.)

104025 # 헤 오민 그걸 애껴근에 아무 때나 불 안 솜앙 똑 헤 먹을 때 뒈사 걸로 고사리도 솖아야 허지, 고사리 솖아나고 또 묵도 쒀 나고 그디 믄 헤 나민 불 막 왕강허게 지잖아.(해 오면 그걸 아껴서 아무 때나 불 안 때고 꼭 해 먹을 때 되어야 그걸로 고사리도 삶아야 하지, 고사리 삶고 나도 또 묵도 쑤고 거기 모두 하고 나며 불 막 '왕강하게' 지잖아.)

104025 @ 응.(응.)

104025 # 그거 담아다 놩 고기도 굽고 겡헷어, 옛날에.(그거 담아다 놓고 고기도 굽고 그랬어, 옛날에.)

104025 @ 그 낭은 아무 낭이나 그차와도 뒈여?(그 나무는 아무 나무나 잘라와도 돼?)

104025 # 아무 남이나 뒈여, 아무 남이나. 겐디 그건, 그딘 가민 그 ᄎᆞ남덜 숫 허젠 이만큼 술진 건이 숫 만들젠 믄 그차 불민 가젱이 내부는 게 하.(아무 나무나 돼, 아무 나무나. 그런데 그건, 거긴 가면 그 참나무들 숯 하려고 이만큼 살찐 건 숯 만들려고 모두 잘라버리면 가지 내버리는 게 많아.)

104025 @ 아.(아.)

104025 # 경허민 그 가젱이 바싹 물른 거 겡헨 줏으민 바싹 물른 거난 게벼움도 허여이.(그러면 그 가지 바싹 마른 거 그렇게 해서 주우면 바싹 마른 거니까 가볍기도 해.)

104025 @ 응.(응.)

104025 # 지어 오라, 그거. 게고 ᄎᆞ남 불은 솜아 나민 불이라도 불망굴이 오래 가.

(져 와, 그거. 그리고 참나무 불은 때고 나면 불이라도 잉걸이 오래 가.)

104025 @ 아.(아.)

104025 # 오래 가. 이 소낭 거튼 건 활활활 부떠부는디.(오래 가. 이 소나무 같은 건 활활활 붙어버리는데.)

104025 @ 응.(응.)

104025 # 불부뜨는 것도 재기 부떠 불고 꺼지는 것도 재기.(불붙는 것도 재게 붙어버리고 꺼지는 것도 재게.)

104025 @ 응.(응.)

104025 # 불망굴도 재기 삭아지는디 ᄎᆞ남은 숫 만드는 것이, 경허난 ᄎᆞ남 숫이엔. 불이 재기 삭아지질 안허여이.(잉걸도 재게 삭아지는데 참나무는 숯을 만드는 것이, 그러니까 참나무 숯이라고. 불이 재게 삭아지지 않아.)

104025 @ 응.(응.)

104025 # 경허난 그걸로 헤단 불 ᄉᆞᆷ아나민 그거 담아 놩 궤기도 굽곡 헷주.(그러니까 그걸로 해다가 불 때고 나면 그거 담아 놔서 고기도 굽고 했지.)

104026 @ 전번이도 ᄒᆞᆫ 번 ᄀᆞᆯ아주긴 헤신디 숫 허는 건 어떵 허는 것과?(저번에도 한 번 말해주긴 했는데 숯 하는 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104026 # 숫은이 막 구뎅이 저 산에 강 보민, 고사리 꺾끄레 이젠 경 엇어도 우리 그 전이 강 보민 구뎅이가 막 지프게 파, 이만큼, 막 지프게 파 놩. 남 요만썩 쫄르메, 그 숫 남, ᄎᆞ남. 우리 홀목보담 ᄉᆞᆯ진 거.(숯은 막 구덩이 저 산에 가서 보면, 고사리 꺾으러 이젠 그렇게 없어도 우리 그 전에 가서 보면 구덩이를 막 깊게 파, 이만큼, 아주 깊게 파 놔서. 나무 요만큼씩 잘라, 그 숯 나무, 참나무. 우리 손목보다 살찐 거.)

104026 @ 응.(응.)

104026 # 또 ᄀᆞ늘아야 우리 홀목이라. 요만썩 질게 헤 놩 숫 그, 숫 묻나, 묻나 허는 거 말만 들엇주, 그걸 문딱 재여 놓넨.(또 가늘어야 우리 손목이야. 요만큼씩 길게 해놔서 숯 그, 숯 묻는다, 묻는다 하는 거 말만 들었지, 그걸 모두 쟁여 놓는다고.)

104026 @ 구뎅이에.(구덩이에.)

104026 # 응, 구뎅이에 재여 놔근에 이젠 이 앞으로 굴뚝 내고 저 두우로 내 나갈 디, 경 안 허민 불이 꺼 부난 내 나갈 궁기 트고 앞으로 불 때는 궁기 터근에 경허영 흑 씨와 나근에 흑으로 막 묻어.(응, 구덩이에 쟁여 놔서 이젠 이 앞으로 굴뚝 내고 저 뒤로 연기 나갈 데, 그렇게 안 하면 불이 꺼져 버리니까 연기 나갈 구멍 트고 앞으로 불 때는 구멍 터서 그래서 흙 씌우고 나서 흙으로 막 묻어.)

104026 @ 응.(응.)

104026 # 묻어근에 흑 탁 더퍼근에 일로 불 탁 터 놓민 우이 것도 카고 아래 것도 카고 경헤가민 거자 불부뜨는 줄 알아가민 우로 강 꼰꼰꼰꼰 흑을 불라줘.(묻어서 흙 탁 덮어서 이리로 불 탁 터 놓으면 위의 것도 타고 아래 것도 타고 그렇게 해가면 거의 불 붙는 줄 알면 위로 가서 '꼰꼰꼰꼰' 흙을 밟아줘.)

104026 @ 응.(응.)

104026 # 불랑 딱 불라 불민 그 불이 꺼지는 거주게. 경허영 불 꺼지민 그날 처녁 불 다 꺼져신가 헹 뒷날끄장 불 잇넨 허멍 ᄒᆞ루, 오널 강 불 껏다근에, 오널 저물아 갈 때 불 끄민 내일 ᄒᆞ루 살앙 모리사 강 그걸 파. 숫 파레, 숫 파레 허멍. 숫 파는 디 혼 디 뚜라 가고, 경허영 우리 어무니네 강 보민 그 구뎅이 영 헤싸놓민.(밟아서 딱 밟아 버리면 그 불이 꺼지는 거지. 그렇게 해서 불 꺼지면 그날 저녁 불 다 꺼졌나 해서 뒷날까지 불 있다고 하면서 하루, 오늘 가서 불 껐다가, 오늘 저물어 갈 때 불 끄면 내일 하루 살아서 모레야 가서 그걸 파. 숯 파러, 숯 파러 하면서. 숯 파는 데 함께 따라 가고, 그렇게 해서 우리 어머니네 가서 보면 그 구덩이 이렇게 헤쳐 놓으면.)

104026 @ 예.(예.)

104026 # 불 다 부떵 칸 것도 잇고 숫 잘 뭰 거 다 칸 왕셍이 숫이 뒈고 경 안 헌 건 숫 안 뒈근에 덜 칸 것이 하.(불 다 붙어서 탄 것도 있고 숯 잘 된 거 다 타서 '왕셍이' 숯이 되고 그렇게 안한 건 숯 안 돼서 덜 탄 것이 많아.)

104026 @ 응.(응.)

104026 # 경허민 또 다른 것에 또.(그러면 또 다른 것에 또.)

104026 @ 한 번 더?(한 번 더?)

104026 # 응, ᄒᆞᆫ 번 더. 우린 그런 거 판 묻는 것도 안 보고 숫 멘드는 걸 안 봣주. 곧는 거 들은 거뿐이라 이건.(응, 한 번 더. 우린 그런 거 파서 묻는 것도 안 보고 숯 만드는 걸 안 봤지. 말하는 거 들은 거뿐이야 이건.)

104026 @ 응.(응.)

104026 # 곧는 거 말 들은 거뿐이라. 경허민 고사리 꺼끄레 강 보민 산터카부덴 허단 보민 그것이 숫 구워난 구뎅이.(말하는 거 말 들은 거뿐이야. 그러면 고사리 꺾으러 가서 보면 묘광일까봐 하다 보면 그것이 숯 구웠던 구덩이.)

104026 @ 응.(응.)

104026 # 이거, 이거 뭐 헤난 디과 물으민 숫 묻어난 숫 구뎅이 아니냐 경허여.(이거, 이거 뭐 했던 데입니까 물으면 숯 묻었던 숯 구덩이 아니냐 그렇게 해.)

104026 @ 응.(응.)

104026 # 움막움막 들어간 디가 잇어. 겐디 요즘은 그런 거 엇어, 숫 안 묻엉.(움푹움푹 들어간 데가 있어. 그런데 요즘은 그런 거 없어, 숯 안 묻어서.)

104026 @ 예.(예.)

104026 # 경허영 그 전인 이 남 헤도 장이 사낫어이.(그렇게 해서 그 전엔 이 나무도 해도 장에서 샀었어.)

104026 @ 예.(예.)

104026 # 저 가시리 사름덜 숫 풀레이.(저 가시리 사람들 숯 팔러.)

104026 @ 응.(응.)

104026 # 저 어웍 헤다근에 영 여장, 여장 톡허게시리 헤 놩 숫 잘리 만들앙 요만씩 만들앙.(저 억새 해다가 이렇게 엮어서, 엮어서 톡하게끔 해 놔서 숯 자루 만들어서 요만씩 만들어서.)

104026 @ 응.(응.)

104026 # 것에 헹 숫 졍 오랑 세 포씩 졍 오랑 허민 흔 포에 그때 돈 무신 이십 원씩 헤신가, 삼십 원씩 헤신가, 경헨. 이 가시리 사름덜은 가시리 성읍리 엿날엔 숫만 묻으렌 허난 숫만 묻어근에 겨울 들민 숫 풀레 막 오라.(그것에 해서 숯 져 와서 세 포씩 져 와서 하면 한 포에 그때 돈 무슨 이십 원씩 했나, 삼십 원씩 했나, 그렇게 해서. 이 가시리 사람들은 가시리, 성읍리 옛날엔 숯만 묻으라고 하니까 숯만 묻어서 겨울 되면 숯 팔러 막 와.)

104026 @ 응.(응.)

104026 # 매 집이 오랑 숫 사렌 곧고. 엿날엔 숫이 어려울 때난.(집집마다 와서 숯 사라고 말하고. 옛날엔 숯이 어려울 때니까.)

104026 @ 응.(응.)

104026 # 게민 추남 숫 사민 헤 먹을 때는 그것이 불 오래, 질기게 가난게.(그러면 참나무 숯 사면 해 먹을 때는 그것이 불 오래, 질기게 가니까.)

104026 @ 응.(응.)

104026 # 겨난 숫 삽서, 숫 삽서 허영 숫 풀레 오민 흔 포 사는 사름, 두 포 사는 사름 경허여. 웃드리 사름덜이 대개 숫 풀레 하영 오라난. 그건 알아져.(그러니까 숯 사세요, 숯 사세요 하면서 숯 팔러 오면 한 포 사는 사람, 두 포 사는 사람 그렇게 해. '웃드리' 사람들이 대개 숯 팔러 많이 왔었어. 그건 알 수 있어.)

104026 @ 응.(응.)

104027 # 짇을거 허는 거에서 기억에 남는 일이나?(땔감 하는 거에서 기억에 남는 일이나?)

104027 @ 기억에 남는 거 무신 그 낭 지레 뎅겨난 거, 솔입 걷으레 뎅겨난 거 그거. 누물 캐레, 이땅 봄 나민 드릇누물 캐러 뎅기다근에 마농 캐러 뎅기당 그거. 그 두리난 장난이주게. 그 무신 먹어 볼 것도 엇인 거라, 뻥이엔 헌 건이.(기억에 남는 거 무슨 그 나무 지러 다녔던 거, 솔가리 걷으러 다녔던 거 그거. 나물 캐러, 있다가 봄 나면 들나물 캐러 다니다가 마늘 캐러 다니다가 그거. 그 어리니까 장난이지. 그 무슨 먹어 볼 것도 없는 거야, 삘기라고 한 건.)

104027 @ 하하하.(하하하.)

104027 # 뻥이 헹 뻥이치기 허단 오고. 경헤난 거 원 그거라. 재미난 거 엇어, 우리 두린 때 살아봐도 옛날이라부난, 어렵게 살아부난.(삘기 해서 삘기치기 하다가 오고. 그렇게 했던 거 원 그거야. 재미있는 거 없어, 우리 어린 때 살아봐도 옛날이라서, 어렵게 살아버리니까.)

104027 @ 짇을거 중에서는 어떤 거 허는 게 젤 힘들어 게민?(땔감 중에서는 어떤 거 하는 게 젤 힘들어 그러면?)

104027 # 풀 검질 비는 게 힘들어. 풀 검질이엔 헌 건이 팔월 나민 이 에염에, 질레에 검질이 덤방허여. 게민 그것 강 막 비여근에, 비영 물려근에 집이 왕 눌엇다근에 겨울에, 봄 나가민 이제 오월 장마 때가 제일 짇을거 어렵주게.(풀 검불 베는 게 힘들어.

풀 검불이라고 한 건 팔월 나면 이 옆에, 길에 김이 '덤방'해. 그러면 그것 가서 막 베어서, 베어서 말려서 집에 와서 가렸다가 겨울에, 봄 나가면 이제 오월 장마 때가 제일 땔감 어렵지.)

104027 @ 응.(응.)

104027 # 마는 팍팍 지고 불 솜아사 밥은 헹 먹을 거난.(장마는 팍팍 지고 불 때야 밥은 해서 먹을 거니까.)

104027 @ 응.(응.)

104027 # 그때 오월 장마에 짇을거엔 허멍 솔입 걷어당 잔뜩 데며. 데며근에 물 안 들게 데미고. 글후제 그자 풀 검질도 비어당 데멍 놧당 그것도 짇고 기자 남도 지어당 짇고 경허멍 살안. 우린 그거 겨울에. 이 소, ᄆᆞ쉬 하영 질루는, 소 하영 질루는 사름은 그 촐 헤다근에 그 쉐 멕이민 반도 안 먹어이.(그때 오월 장마에 땔감이라고 하면서 솔가리 걷어다가 잔뜩 쟁여. 쟁여서 물 안 들게 쟁이고. 그 후에 그저 풀 검불도 베어다가 쟁여 놨다가 그것도 때고 그저 나무도 져다가 때고 그렇게 하면서 살았어. 우린 그거 겨울에. 이 소, 마소 많이 기르는, 소 많이 기르는 사람은 그 꼴 해다가 그 소 먹이면 반도 안 먹어.)

104027 @ 응.(응.)

104027 # 게민 그 쉐머력[113]에 검질 확확 언줭 짇으민 불을 때민 우리ᄀᆞ치 짇을거 허렌 안 뎅겨.(그러면 그 '쉐머력'에 검불 확확 그러모아서 때면 불을 때면 우리 같이 땔감 하러는 안 다녀.)

104027 @ 쉐 먹단 남은 거?(소 먹다 남은 거?)

104027 # 응, 쉐 먹당 남아, 하영 남아.(응, 소 먹다 남아, 많이 남아.)

104027 @ 응.(응.)

104027 # 고사리도 안 먹고 그디 어욱 든 것도 안 먹고, 곤 것만 ᄀᆞᆯ려 먹엉 내불민 그거 언주어다근에 불 솜앙, 부제칩이 짇을거 허레 안 뎅기지. 우리ᄀᆞ치 엇인, 쉐 엇인 사름덜.(고사리도 안 먹고 거기 억새 든 것도 안 먹고, 고운 것만 가려 먹어서 내버리면 그거 그러모아서 불 때서, 부잣집에 땔감 하러 안 다니지. 우리같이 없는, 소 없는 사람들.)

104027 @ 아까 무신거 쉐머력에?(아까 무엇 '쉐머력'에?)

104027 # 쉐머력.('쉐머력'.)

104027 @ 머력은 무신거?('머력'은 뭐?)

104027 # 쉐 멘 머력에, 이 쉐 메민 그 머력.(소 맨 머리에, 이 소 매면 그 머리.)

104027 @ 머력이 쉐 멘 옆에, 앞에?('머력'이 소 맨 옆에, 앞에?)

104027 # 앞에.(앞에.)

104027 @ 앞에.(앞에.)

104027 # 이것이 쉐 메면 촐을 이 앞으로 줘사 먹을 거 아니. 경허민 먹고정헌 것만 쉐 꼴만 ᄀᆞᆯ령 먹지, 고사리 안 ᄀᆞᆯ려 먹지, 그디 어욱 든 것도 안 ᄀᆞᆯ려 먹지 허민 그 어

113) '쉐머력'에서 '머력'은 머리라는 뜻인데 여기서는 소의 앞에 있는 먹이통이라는 뜻으로 쓰였다.

웍 든 거영 고사리영 영영 주둥이 영영 허멍 거 맛 존 것만 골령 먹엉 밀령 내불메. 그거, 그거 언주어당 짇어. 부제칩이 사름덜.(이것이 소 매면 꼴을 이 앞으로 줘야 먹을 거 아니. 그러면 먹고 싶은 것만 소 꼴만 가려서 먹지, 고사리 안 가려 먹지, 거기 억새 든 것도 안 가려 먹지 하면 그 억새 든 거랑 고사리랑 이렇게 이렇게 주둥이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그거 맛 좋은 것만 가려서 먹어서 밀려서 내버려. 그거, 그거 그러모아다 때. 부잣집 사람들.)

104027 @ 응.(응.)

104027 # 그거 언줘당 짇는 따문에 짇을거 허레 뎅기는 거 뭐 몰라, 부제칩이 사름덜은. 게고 조롬으론 쉐똥 걸름 그 똥 싸 논 거, 아무날은 저 쉐걸름 터사 허컬, 터사 허컬 헌 건, 흔 메틀 흔 댓새 쉐 먹어가고 일론 똥 싸 가민 이디가 쉐똥이 이만은 헤 가민 그거 믄 통시더레 터 놔. 게민 놉 빌어근에 부제칩이덜은 그거 믄 통시레 터 놧다 근에 쎅영 보리 갈고 경헷주.(그거 그러모아다 때는 때문에 땔감 하러 다니는 거 몰라, 부잣집의 사람들은. 그리고 뒤론 소똥 거름 그 똥 싸 놓은 거, 아무 날은 저 소두엄 떠야 할걸, 떠야 할걸 한 건, 한 며칠 한 닷새 소 먹여가고 이리론 똥 싸 가면 여기가 소똥이 이만큼은 해 가면 그거 모두 돼지우리에 떠놔. 그러면 놉 빌어서 부잣집들은 그거 모두 돼지우리에 떠 놨다가 썩혀서 보리 갈고 그랬지.)

사냥

104028 @ 이번엔 사냥허는 거예. 아까 ᄒᆞ꼼 골아줘신디 사냥은 주로 무신거, 사농?(이번엔 사냥하는 거요. 아까 조금 말해줬는데 사냥은 주로 무엇, 사냥?)

104028 # 사농게.(사냥.)

104028 @ 사농헐 때는?(사냥할 때는?)

104028 # 사농헐 때는 우리가 영, 우린 개도 안 질루고 사농헐 사름도 엇곡 허난 아니 허주마는이, 이땅 영 들에 뎅기단 보면은 개 돌앙 가는 거라이. 그 꿩 사농허젠 돌앙 가면은 ᄀᆞ만히 보면 동산에 강 갠, 개가 말 잘 알아들어. 개가 막 가근에 어드레 강 뎅기당 그 새끼 낳젠 앚은 것덜 영영 막 코, ᄒᆞ쏠 허민 개코엔 허지 안 허여. 막 내 맞춰 근에 강 뎅기당 보민 꿩 신 디 갈 거 아니? 허민 꿩은 불써 ᄂᆞ는 거라, ᄂᆞ는 거.(사냥할 때는 우리가 이렇게, 우린 개도 안 기르고 사냥할 사람도 없고 하니까 안 하지마는, 이따 이렇게 들에 다니다 보면 개 데리고 가는 거야. 그 꿩 사냥하려고 데리고 가면 가만히 보면 동산에 가서 개는, 개가 말 잘 알아들어. 개가 막 가서 어디로 가서 다니다가 그 새끼 낳으려고 앉은 것들 이렇게 이렇게 막 코, 조금 하면 개코라고 하지 않아. 막 냄새 맡아서 가서 다니다 보면 꿩 있는 데 갈 거 아니? 하면 꿩은 벌써 나는 거야, 나는 거.)

104028 @ 응.(응.)

104028 # 저디 먼 동산에 앗당 사름은 ᄂᆞᆫ다 허여. 꿩 ᄂᆞᆫ덴.(저기 먼 동산에 가서 사람은 난다 해. 꿩 난다고.)

104028 @ 응.(응.)

104028 # 는다, 는다, 는다 헤 가민 그거 베리멍 막 개가 헹편엇이 둘아이. 게민 꿩도 풍언은 풍언이라. 높은 낭에 강 앚아 불민 그 아래 강 개가 아멩 들러쿼도 못 물 건디 개가 저 끗더레 나무에 높은 나무에 앚아도 개가 가민 또 노랭 둘아. 놀아. 개가 ᄒᆞ쏠 허민 꿩이 놀당도 지치민 앞더레 돌아온다 허는 게 그거라이. 놀당 버치민 알러레 아무 디라도 탁 앚으민 그땐 강 무는 거라.(난다, 난다, 난다 해 가면 그거 보면서 막 개가 형편없이 달려. 그러면 꿩도 '풍언'은 '풍언'이야. 높은 나무에 가서 앉아 버리면 그 아래 가서 개가 아무리 날뛰어도 못 물 건데 개가 저 끝에 나무에 높은 나무에 앉아도 개가 가면 또 놀라서 달려. 날아. 개가 조금 하면 꿩이 날다가도 지치면 앞으로 돌아온다 하는 게 그거야. 날다가 부치면 아래로 아무 데라도 탁 앉으면 그땐 가서 무는 거야.)

104028 @ 응.(응.)

104028 # 개가 그 꿩 ᄒᆞ나 놀민 그 꿩 물어올 때ᄁᆞ지 막 쫓아. 나무에 앚아도 가. 나무에 앚앙 막 헤가민 그 꿩이 그 나무에 앚앗당 그냥 ᄀᆞ만이 앚아시민 안 물 건디 또 놀아. 놀당 보민 지치민 어디 나무인지 어드렌지 몰랑 알러레 앚을 거 아니? 게민 그때 무는 거라. 게민 는다 허민 그 개가 기자 그 는다 소리 들으멍 어느ᄁᆞ장이라도 둘아, 그 개가. 경 돋당 그 꿩을 물어 와. 사농 잘허는 거는 경헹 물곡 경 안 허는 건 기자 어디 강 뎅기당 ᄒᆞ나, ᄒᆞ루 ᄒᆞ나 못 봉가오는 게 일이고. 경허민 개도 영 보당 아 요건 개 사농이나 잘험 직허다. 개도 보면은.(개가 그 꿩 하나 날면 그 꿩 물어올 때까지 막 쫓아. 나무에 앉아도 가. 나무에 앉아서 막 해가면 그 꿩이 그 나무에 앉았다가 그냥 가만히 앉았으면 안 물 건데 또 날아. 날다 보면 지치면 어디 나무인지 어디인지 몰라서 아래 앉을 거 아니? 그러면 그때 무는 거야. 그러면 난다 하면 그 개가 그저 그 난다 하는 소리 들으면서 어디까지라도 달려, 그 개가. 그렇게 달리다가 그 꿩을 물어 와. 사냥 잘하는 거는 그렇게 해서 물고 그렇게 안 하는 건 그저 어디 가서 다니다가 하나, 하루 하나 못 주워오는 게 일이고. 그러면 개도 이렇게 보다가 아, 요건 개 사냥이나 잘할 것 같다. 개도 보면.)

104028 @ 예.(예.)

104028 # 요건 어진 게 어떵 사농도 못 허켜.(요건 어진 것이 어떻게 사냥도 못하겠다.)

104028 @ 하하.(하하.)

104028 # 겨고 ᄒᆞ쏠 영 허당 개가 든든헌 건 베리면 아, 이건 사농이 잘험 직 허다.(그리고 조금 이렇게 하다가 개가 단단한 건 보면 아, 이건 사냥이 잘할 듯하다.)

104029 @ 주로 그믄 꿩을 주로, 사농허면 주로 꿩이과?(주로 그러면 꿩을 주로, 사냥하면 주로 꿩입니까?)

104029 # 꿩인디 꿩허고 노리.(꿩인데 꿩하고 노루.)

104030 @ 아, 노리도 헙니까?(아, 노루도 합니까?)

104030 # 응, 옛날엔 노리도 허연. 게민 노리허고 이 저 꿩은이 옛날에 막 높은 자

리만 쓴덴 헌다. 꿩도 어렵고 노리도 어렵고 허난 높은 제헐 때만 그런 때만 쓴덴 허여이건. 만일에 우리가 개인으로 잇당 어디 토신제헐 때 산제 지낼 때 그런 때.(응, 옛날엔 노루도 했어. 그러면 노루하고 이 저 꿩은 옛날에 막 높은 자리만 쓴다고 한다. 꿩도 어렵고 노루도 어렵고 하니까 높은 제할 때만 그런 때만 쓴다고 해 이건. 만일에 우리가 개인으로 있다가 어디 토신제할 때 산제 지낼 때 그런 때.)

104030 @ 예.(예.)

104030 # 딱 헤놧당 그런 때 제숙으로.(딱 해놨다가 그런 때 제육으로.)

104030 @ 노루는 어떻게 잡아? 노루도 개로?(노루는 어떻게 잡아? 노루도 개로?)

104030 # 개로. 암만 노리가 뛴덴 헤도 얼마 못 뛰는 거라. 개로 잡아.(개로. 아무리 노루가 뛴다고 해도 얼마 못 뛰는 거야. 개로 잡아.)

104030 @ 아, 총 쏘아근에 잡아?(아, 총 쏘아서 잡아?)

104030 # 총 안 쏘아, 개. 저 엿날엔 총 엇어낫어.(총 안 쏘아, 개. 저 옛날엔 총 없었어.)

104030 @ 무장 개로.(무조건 개로.)

104030 # 개로 기자 꿩 사농, 노리 사농헌 디, 경헌디 노리가 멧 개 경 잡아져게? 노리 멧 개 못 잡앙 막 겨울 들엉 굶엉 해변이 ᄂᆞ려온 거나, 준준헌 것덜 기자 뛰지 못허는 것덜 그런 거나.(개로 그저 꿩 사냥, 노루 사냥했는데, 그런데 노루가 몇 개 그렇게 잡을 수 있어? 노루 몇 개 못 잡아서 막 겨울 들어서 굶어서 해변에 내려온 거나, 자잘한 것들 그저 뛰지 못하는 것들 그런 거나.)

104031 @ 혹시 지달이도? 잡아근에 허는 사름 잇어낫수과?(혹시 오소리도? 잡아서 하는 사람 있었습니까?)

104031 # 지달이는 그거 약초로 어디 코 놩 어디 지달이 고망 촛아근에 건 뭣에사 먹는 건지 약으로 먹넨 허멍.(오소리는 그거 약초로 어디 올가미 놔서 어디 오소리 구멍 찾아서 그건 뭐에야 먹는 건지 약으로 먹는다고 하면서.)

104031 @ 응.(응.)

104031 # 지달이, 지달인 이 땅 팡 땅 속에 막 소곱더레만 기여들주게. 경허민 그거 나오는 디 강 코 놧다근에 어떵 헨 걸려근에 ᄒᆞ나 잡앙.(오소리, 오소리는 이 땅 파서 땅 속에 막 속에만 기어들지. 그러면 그거 나오는 데 가서 올가미 놨다가 어떻게 해서 걸려서 하나 잡아서.)

104031 @ 예.(예.)

104031 # 뭣에는 쓰는디 약 쓴덴 헤낫어 그거.(뭐에 쓰는지 약 쓴다고 했었어, 그거.)

104032 @ 응, 족제비도 헤?(응, 족제비도 해?)

104032 # 응, 족제빈 코도 놓고 테기 놩도 잡고 개가 잘 물어 저건.(응, 족제빈 올가미도 놓고 새덫 놔서도 잡고 개가 잘 물어 저건.)

104032 @ 응.(응.)

104032 # 개도 잘 물고 집이 옛날 집인 막 족제비 하난 코 놩 잡안.(개도 잘 물고

집에 옛날 집엔 막 족제비 많으니까 올가미 놔서 잡았어.)
104032 @ 응.(응.)
104032 # 그 가죽만 폴아.(그 가죽만 팔아.)
104032 @ 아, 족제비는?(아, 족제비는?)
104032 # 응, 족제빈 솔은 데껴불고 가죽만 몰렁 폴민.(족제비는 살은 던져버리고 가죽만 말려서 팔면.)
104032 @ 응.(응.)
104032 # 영 보민 옛날 목수건, 목두리, 목두리 허멍.(이렇게 보면 옛날 목수건, 목도리, 목도리 하면서.)
104032 @ 응.(응.)
104032 # 족제비 가죽으로 영 목에 거는 거이.(족제비 가죽으로 이렇게 목에 거는 거.)
104032 @ 그거.(그거.)
104032 # 주로 그거 헤영 뎅겨근에.(주로 그거 해서 다녀서.)
104032 @ 이제도 그거 허는 사름덜 이십니께.(이제도 그거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104032 # 아이고 이제도 그거 허민야, 족제비 가죽 헹 목두리.(아이고 이제도 그거 하면야, 족제비 가죽 해서 목도리.)
104032 @ 예, 비싼 거.(예, 비싼 거.)
104032 # 비싸 그거.(비싸 그거.)
104032 @ 아까 무신 코 말고 무신거엔 골아신디.(아까 무슨 코 말고 무엇이라고 말했는데.)
104032 # 코 말고?(코 말고?)
104032 @ 테기, 테기. 테긴 어떵헨 허는 건지?(새덫, 새덫. 새덫은 어떻게 해서 하는 건지?)
104032 # 이거 테기엔 헌 거는이 저 테기도.(이거 새덫이라고 한 거는 저 새덫도.)
104032 @ 무신거 잡을 때?(뭐 잡을 때?)
104032 # 생이 잡을 때이, 생이 잡을 때는 테기엔 헌 거는 영 그물로 동글랑허게이. 동글랑허게 헹 그물로 영 헌 디 강 놧다근에 그걸 또 그물만 헤저. 그물 헤영 대에 끼와근에 영 질게이.(새 잡을 때, 새 잡을 때는 새덫라고 한 거는 이렇게 그물로 동그랗게. 동그랗게 해서 그물로 이렇게 한 데 가서 놨다가 그걸 또 그물만 할 수 있어? 그물 해서 대에 끼워서 이렇게 길게.)
104032 @ 응.(응.)
104032 # 요만은 질게 헤영 그디 강 영 세우는 거라. 이것이 안 세우민 톡 누워베이.(요만큼 길게 해서 거기 가서 이렇게 세우는 거야. 이것이 안 세우면 톡 누워버려.)
104032 @ 응.(응.)
104032 # 누우민 욜로 줄 영 둥기다근에 욜로 헨에 똑허게 꼽아근에.(누우면 요리로 줄 이렇게 당기다가 요리로 해서 똑하게 꼽아서.)

104032 @ 응.(응.)

104032 # 꼽앙 요 앞더레 먹을 거 놔 두민 생이나 꿩이나 오랑 그거 톡톡 좃아 먹노렌 허민 그디 꼽은 거 톡 건드려 불민 탁 지여 부는 거라.(꼽아서 요 앞에 먹을 거 놔두면 새나 꿩이나 와서 그거 톡톡 쪼아 먹노라고 하면 거기 꼽은 거 톡 건드려 버리면 탁 접혀 버리는 거야.)

104032 @ 아.(아.)

104032 # 지민 이젠 어디 나가도 들어오도 못헹 이시민 강 봉가오는 거. 테기엔 허는 거.(접히면 이젠 어디 나가도 들어오지도 못해서 있으면 가서 주워오는 거. 새덫이라고 하는 거.)

104033 @ 사농허는 사름이나 주위에 잇어낫수과? 뭐 아부지가 허거나 오빠가 허거나 아니민 삼춘이 허거나?(사냥하는 사람이나 주위에 있었습니까? 뭐 아버지가 하거나 오빠가 하거나 아니면 삼촌이 하거나?)

104033 # 게 그거 사농. 우리 집인 그런 사름 엇어.(게 그거 사냥. 우리 집엔 그런 사람 없어.)

104033 @ 옆집이는?(옆집에는?)

104033 # 옆집이도 이 동넨 그런 사름 엇어. 웃드르 ᄀᆞ타시민 잇엇주마는 이 동넨 옛날에 경 사농 뎅겨난 사름 엇어.(옆집에도 이 동넨 그런 사람 없어. '웃드리' 같았으면 있었지마는 이 동넨 옛날에 그렇게 사냥 다녔던 사람 없어.)

104033 @ 게민 주변에, 이 동넨 사농 뎅기는 사름 엇구나예?(그러면 주변에, 이 동넨 사냥 다니는 사람 없군요?)

104033 # 응, 이 동넨 엇어. 어디 웃드르더레나. 경허고 이 중간으로 우리 연세 뭔 사름, 우리 우로 우터레 뭔 사름이라도 사농헤난 사름 엇어.(응, 이 동넨 없어. 어디 '웃드르'에나. 그리고 이 중간으로 우리 나이 된 사람, 우리 위로 위로 된 사람이라도 사냥했던 사람 없어.)

104033 @ 아.(아.)

104033 # 글로후렌 우리가 어린 때 본 거난. 어릴 때 나이든 사름 허는 거 봣주, 이 따근에 이 새 집 짓어근에 성주풀이헐 때 그거 허는 사름 잇어. 그 성주풀이 헐 때 무신 어디 가근에. 아, 성주풀이가 아니고, 성주풀이는 집에서 허는 거고, 누게가 아파근에이.(그 후엔 우리가 어린 때 본 거니까. 어릴 때 나이든 사람 하는 거 봤지, 있다가 이 새 집 지어서 성주풀이할 때 그거 하는 사람 있어. 그 성주풀이할 때 무슨 어디 가서. 아, 성주풀이가 아니고, 성주풀이는 집에서 하는 거고, 누가 아파서.)

104033 @ 응.(응.)

104033 # 아팡 산, 산으로 가라 허는 사름은 이건 옛날에 그 부모덜이 개 질롸근에 사농헤난 사름덜.(아파서 산, 산으로 가라 하는 사람은 이건 옛날에 그 부모들이 개 길러서 사냥했던 사람들.)

104033 @ 아.(아.)

104033 # 그런 사름덜은 허민 야인 산신으로 가라, 산신으로 강 산신놀이[114]를 헤주

라 허는 거라.(그런 사람들은 하면 이 아인 산신으로 가라, 산신으로 가서 산신놀이를 해주라 하는 거야.)

104033 @ 응.(응.)

104033 # 산신놀이를 어떵 허느냐 허민 독 헹 가근에 독 헹 혼 사름은 막 돌아, 돌으민 혼 사름은 는다, 돌아난다, 돌아난다, 워리 머머머머 놀아난다 허멍 개 불르는 문 헤여. 경허영 그거 산신놀이 헤주는 거.(산신놀이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닭 해서 가서 닭 해서 한 사람은 막 달려, 달리면 한 사람은 난다, 달아난다, 달아난다, 워리 머머머머 날아난다 하면서 개 부르는 모두 해. 그렇게 해서 그거 산신놀이 해주는 거.)

104033 @ 아.(아.)

104033 # 경허영.(그렇게 해서.)

104033 @ 누가 아프면?(누가 아프면?)

104033 # 아프면 거. 꿩사농헤나고 뭐 헤난 사름은.(아프면 그거. 꿩사냥했었고 뭐 했던 사람은.)

104033 @ 조상이?(조상이?)

104033 # 조상이. 경헨 아, 이 집인 초상님 때부터 꿩사농 뎅겨낫구나 허민 그거 허젠 산으로 가근에 옛날엔 굿허젠 허민 개 불르는 소리 어리 머머 허주.(조상이. 그렇게 해서 아, 이 집엔 조상님 때부터 꿩사냥 다녔었구나 하면 그거 하려고 산으로 가서 옛날엔 굿하려고 하면 개 부르는 소리 어리 머머 하지.)

104033 @ 응.(응.)

104033 # 그 꿩사농 뎅기는 사름더레 꿩 는다 헤둬근에 워리 머머머머 허멍 영 ᄀᆞ르쳐 줘, 개가 어떵 눈치 빠른지.(그 꿩사냥 다니는 사람에게 꿩 난다 해두고 워리 머머머머 하면서 이렇게 가르쳐 줘, 개가 어떻게 눈치 빠른지.)

104033 @ 아.(아.)

104033 # 게난 그 꿩사농헤나근에 허면 그 집인 가민 산신놀이헤사켜 헌 건 게민 산으로 가근에 그 개 불르는 소리.(그러니까 그 꿩사냥하고 나서 하면 그 집엔 가면 산신놀이해야겠다 한 건 그러면 산으로 가서 그 개 부르는 소리.)

104033 @ 응.(응.)

104033 # 꿩 ᄂᆞ는 소리. 경 헤근에 문 산신놀이 허는 거. 독, 장독 하나 아졍 가근에.(꿩 나는 소리. 그렇게 하고나면 모두 산신놀이 하는 거. 닭, 장닭 하나 가져 가서.)

104033 @ 응.(응.)

104033 # 어드레 는다. 개 어드레 불르라, 문 개 불르는 소리 문 내고.(어디로 난다. 개 어디로 불러라, 모두 개 부르는 소리 모두 내고.)

104033 @ 응.(응.)

104033 # 어드레 꿩 놀암저 허는 것도 다 허고.(어디로 꿩 난다 하는 것도 다 하고.)

104033 @ 응.(응.)

104033 # 경헹 산신놀이허는 거.(그렇게 해서 산신놀이하는 거.)

---

114) '산신놀이'는 사냥이 잘되기를 비는 굿이다.

104033 @ 예.(예.)
104033 # 경 안 허민 안 허여.(그렇게 안 하면 안 해.)
104033 @ 응.(응.)

5. 바다일

105001 @ 바당일은 어떤 거 어떤 거 헤낫수과? 옛날에 무신거 무신거 잇어?(바다일은 어떤 거 어떤 거 했었습니까? 옛날에 무엇 무엇 있어?)
105001 # 메역허고게 엿날엔 메역, 고동, 셍복, 해숨 바다에 거 주로 그거야. 젤 목은 저 메역, 톨 그거.(미역하고 옛날엔 미역, 소라, 전복, 해삼 바다에 거 주로 그거야. 제일 중심은 저 미역, 톳 그거.)
105001 @ 그게 젤.(그게 젤.)
105001 # 젤 목이라이. 톨도 허민 이녁만썩 못 헤 먹엉 다 금헷다근에 공동으로강 막이 것이 조합에 가입허영 사름덜이 다 조합에 가입허영 허민 어촌계에 가입헌 사름덜은 그 톨도 허고, 메역이고 톨이고 다 가입헌 사름은 허고 경 안헌 사름 못허게 허여이.(젤 중심이야. 톳도 하면 자기만큼씩 못 해 먹어서 다 금했다가 공동으로 가서 막 이것이 조합에 가입해서 사람들이 다 조합에 가입해서 하면 어촌계에 가입한 사람들은 그 톳도 하고, 미역이고 톳이고 다 가입한 사람은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 못하게 해.)
105001 @ 응.(응.)
105001 # 경허민 그 메역도 헤영 먹젠 허민 딱 양력, 음력으로 흔 삼월달이민 양력으로 흔 ᄉᆞ월들 뒐 건가?(그러면 그 미역도 해서 먹으려고 하면 딱 양력, 음력으로 산 삼월이면 양력으로 한 사월 될 건가?)
105001 @ 응.(응.)
105001 # 경허민 메역 허체[115]허젠 허민이 이디서 이 신흥리광 우리 이 태흥리광 ᄀᆞᆷ[116]이 잇어. 이 바당 ᄀᆞᆷ도. 딱 ᄀᆞᆷ을 놔근에 메역 허치나 허젠 허민 상줌수[117], 상줌수엔 헌 건 젤 물질 잘허는 사름 특허게 물질허는 사름, 저 펜이서 둘, 이 펜 바당에서 둘헤영 딱 가근에 ᄒᆞᆨᄉᆞ 지내어.(그러면 미역 '허체'하려고 하면 여기서 이 신흥리와 우리 태흥리와 'ᄀᆞᆷ'이 있어. 이 바다 'ᄀᆞᆷ'도. 딱 'ᄀᆞᆷ'을 놔서 미역 '허체'나 하려고 하면 '상줌수', '상줌수'라고 해서 제일 물질 잘하는 사람 특별히 물질하는 사람, 저 편에서 둘, 이 편 바다에서 둘해서 딱 가서 고사 지내.)
105001 @ 아, 고사 지내어.(아, 고사 지내.)
105001 # 응, 메역 첫번으로 허체허젠 허민 이 바당 ᄀᆞᆷ으로 강 이 신흥리 'ᄀᆞᆷ'광 태흥리 'ᄀᆞᆷ'에 강 딱 저 우리 알아듣게 허젠 허민 기도허는 거라이.(응, 미역 첫 번째로 '허체'하려고 하면 이 바다 'ᄀᆞᆷ'으로 가서 이 신흥리 'ᄀᆞᆷ'과 태흥리 'ᄀᆞᆷ'에 가서 딱 저 우

115) '허체'는 해산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 채취를 금하였다 가 합의된 날짜에 그 금지를 풀고 해산물을 캐기 시작하는 일이다.
116) 'ᄀᆞᆷ'은 두 가지를 가르는 경계선이다. 여기서는 옆 마을인 신흥리와 태흥리의 경계를 말한다.
117) '상줌수'는 물질을 잘하는 상군 해녀를 말한다.

리 알아듣게 하려고 하면 기도하는 거야.)

105001 @ 예, 기주마씨.(예, 그렇지요.)

105001 # ᄀᆞᆺ엔 헌 게 기도허는 거라이. 경헤영 딱 헤영 오라근에 메역 허체허여.(고사라고 한 게 기도하는 거야. 그렇게 해서 딱 해서 와서 미역 '허체'해.)

105001 @ 무신거 올려? 고사헐 때.(무엇 올려? 고사할 때.)

105001 # 응, 올려.(응, 올려.)

105001 @ 떡이영 고기영?(떡이랑 고기랑?)

105001 # 떡허고 고기허고 술허고 경 강 올려. 쪼금쪼금 만인 아녀.(떡하고 고기하고 술하고 그렇게 가서 올려. 조금조금 많이는 안 해.)

105001 @ 바당에서?(바다에서?)

105001 # 응, 바당에 가근에. 오늘 우리 생각이민 오늘 이거 우리 태흥 전체 다 이제 메역 허체헴시난 해녀들 무신 사고 엇이, 일 엇이 무사히 지내줍서 허는 식이라이.(응, 바다에 가서. 오늘 우리 생각이면 오늘 이거 우리 태흥 전체 다 이제 미역 '허체'하고 있으니까 해녀들 무슨 사고 없이, 일 없이 무사히 지내주세요 하는 식이야.)

105001 @ 예.(예.)

105001 # 경헹 강 ᄀᆞᆺ 지내는 거라이. 경허민 그때 막 메역 허체허민 옛날엔 메역도 자유대로 못 헤여이. 웨방 손님 ᄀᆞᆯ리젠 허민 어뜬 날은 메역 허체 못 허여. 웨방서 막 메역 허체 아무날 헴다 허민 어디 강 오랑 곱앗당이라도 해녀덜 물에 들레 싹 물르레 강 들어불민 그 조름엔 어들로 강 트멍에 강 혜영 돌아도 몰라. 경헌 따문에 그것덜 춧아근엥에.(그래서 가서 고사 지내는 거야. 그러면 그때 막 미역 '허체'하면 옛날엔 미역도 자유로이 못 해. 외방 손님 가리려고 하면 어떤 날은 미역 '허체' 못 해. 외방에서 막 미역 '허체' 아무 날 한다 하면 어디 가서 와서 숨었다가 해녀들 물에 들어가려고 싹 물에 가서 들어가면 그 뒤에 어디로 가서 틈에 가서 해서 달려도 몰라. 그런 때문에 그것들 찾아서.)

105001 @ 못허게?(못하게?)

105001 # 못허게 막젠 허민 감시 놓고 난릴 데싸. 엿날에.(못하게 막으려고 하면 감시 놓고 난리를 뒤집어. 옛날에.)

105001 @ 하하하.(하하하.)

105001 # 또 경허고 우리도 어릴 때에 물질 베와올 때에 물질 배우레 가민 쳇번은 어릴 때난 내비어이. 요만은 헌 디 강 지퍼근에 메역 요만썩 헌 거 톹앙 오민게 그때 흔 열두 술쯤, 흔 술쯤 헌 때난 저 두렁박이엔 헌 거, 똑 요만인 헌 거라이. 요만이 헹 강 지엉 하울락 하울락허민 막 지펏젠 헷자 욜로 요레라.(또 그리고 우리도 어릴 때에 물질 배울 때 물질 배우러 가려고 하면 첫 번째는 어릴 때니까 내버려. 요만큼 한 데 가서 짚어서 미역 요만큼씩 한 거 뜯어서 오면 그때 한 열두 살 쯤, 한 살쯤 한 때니까 저 두레박이라고 한 거, 꼭 요만큼 한 거야. 요만큼 해서 가서 져서 '하울락 하울락'하면 막 깊었다고 해도 요리로 요리야.)

105001 @ 예.(예.)

105001 # 경헌 때는 내비어. 흔 일 년은 내빗당. 그 물질이 ᄒᆞ쏠 익숙어 강 조금 베끗듸레 나강 지픈 디레 히는 중 알아가민 그땐 메역 못허게 막 감시덜 놔.(그런 때는 내버려. 한 일 년은 내버렸다가. 그 물질이 조금 익숙해져서 조금 바깥에 나가서 깊은 데로 헤엄치는 줄 알게 되면 그땐 미역 못하게 막 감시들 해.)

105001 @ 응.(응.)

105001 # 이제 품 줘근에 감시덜 놓민 메역 헤영 또 우린 메역 그거 ᄒᆞ꼼 헤영 오랑 ᄃᆞᆼ사. 정 어들로 영 물에 영 뷔리당 영 막 ᄀᆞᆺ들로 뷔려. 막 솔피당 감시 안 오는 중 알민 메역 조금 헤영 오랑 돌 알르레 막 묻어비어.(이제 품삯 줘서 감시들 놓으면 미역 해서 또 우린 미역 그거 조금 해와서 지켜. 저렇게 어디로 이렇게 물에 이렇게 보다가 이렇게 막 바닷가로 봐. 막 살피다가 감시 안 오는 줄 알면 미역 조금 해 와서 돌 아래 막 묻어버려.)

105001 @ 곱짐으로?(숨김으로?)

105001 # 응, 곱져. 곱졍 오랑 막 그 감시허는 사름덜 오랑 막 테왁 문 들러보고 문 헤봐근에 아니허민 이젠 가비어이. 가불 땐 이제 그것 강 솔째기 담앙 오랑 그거 물령 그거 풀아근에 그땐 조끔허영 그거 풀민 요시 광목, 이런 옷ᄀᆞᆷ이 많이 이섯주만은 옛날은 미녕, 짠 거, 그런 거 상 몸빼[118]헤영 입고.(응, 숨겨. 숨겨서 와서 막 그 감시하는 사람들 와서 막 '테왁' 모두 들어보고 모두 해봐서 안하면 이젠 가버려. 가버릴 땐 이제 그것 가서 살짝 담아서 와서 그거 말려서 그거 팔아서 그땐 조금해서 그거 팔면 요새 광목, 이런 옷감이 많이 있었지마는 옛날은 무명, 짠 거, 그런 거 사서 일바지해서 입고.)

105001 @ 미역 풀앙?(미역 팔아서?)

105001 # 응, 메역 풀아근에 그 신도 상 신고. 경헤낫저, 우리 엿날에.(응, 미역 팔아서 그 신도 사서 신고. 그렇게 했었어, 우리 옛날에.)

105001 @ 메역이 값을 하영 줘낫수과?(미역이 값을 많이 줬었습니까?)

105001 # 메역은 엿날에 갑 하영 줜. 이젠 메역 갑 안 주난 이젠 이딘 메역 헐 거로 생각 아녀. 내비뒁 그자 이 고동, 셍복 그것만 헤도.(미역은 옛날에 값 많이 줬어. 이젠 미역 값 안 주니까 이젠 여긴 미역 할 거로 생각 안 해. 내버려두고 그저 이 소라, 전복 그것만 해도.)

105001 @ 옛날에 메역 공동으로 허민.(옛날에 미역 공동으로 하면.)

105001 # 공동으로 메역 아녀, 공동으로.(공동으로 미역 안 해, 공동으로.)

105001 @ 공동으로 아니? 해녀들만 가근에.(공동으로 아니? 해녀들만 가서.)

105001 # 그자 해녀덜만 이녁만썩 헤지는 대로.(그저 해녀들만 자기만큼씩 할 수 있는 대로.)

105001 @ 줌수, 줌녜? ('줌수', '줌녜'?)

105001 # 이젠 해녀엔 ᄀᆞᆫ주, 그땐 줌수, 줌수 헤낫어.(이젠 해녀라고 말하지, 그땐

118) '몸빼'는 일할 때 입는 바지의 하나로 '일바지'로 순화해 쓰기를 권하고 있다. 일본에서 들어온 옷으로 통이 넓고 발목을 묶게 되어 있다.

‘줌수’, ‘줌수’ 했었어.)

105001 @ 줌수예.(‘줌수’요.)

105001 # 줌수덜 가민 상줌수, 중줌수, 하 요거이. 세 질, 네 질에 가는 거라이. 경허민 이녁 헤 지는 대로 헤여, 메역은. 경 금헷당 허민 기자 하영 헤지는 사름 하영 허고 족영 헤지는 사름, 족아도 이녁 찍 하도 이녁 찍 그거 갈르지 안허는 거난. 경 못허는 사름만 해롭는 거주. 금헷당 허젠 허민.(‘줌수’들 가면 ‘상줌수’, ‘중줌수’, ‘하’ 요거이. 세 종류, 네 종류에 가는 거야. 그러면 자기 할 수 있는 대로 해, 미역은. 그렇게 금했다가 하면 그저 많이 하는 사람 많이 하고, 적게 하는 사람, 적어도 자기 몫, 많아도 자기 몫 그거 가르지 않는 거니까. 그렇게 못하는 사람만 해로운 거지. 금했다가 하려고 하면.)

105001 @ 아.(아.)

105001 # 경허멍 헤영 그 메역을 풀아시멍 그걸로 생활헤영 옷도 미녕도 사당 헹 입곡 또 ᄒᆞ쏠 서가난 광목 그런 시마지[119] ᄀᆞ뜬 거 그런 거 사난 우리가 헤단 옷헨 입으멍 살아신디. 요즘은 또 이젠 메역은 이건 원 먹을 걸로 안 알아.(그러면서 해서 그 미역을 팔면서 그걸로 생활해서 옷도 무명도 사다가 해서 입고 또 조금 있어가니까 광목 이런 ‘시마지’ 같은 거 그런 거 사니까 우리가 해다가 옷 해서 입으면서 살았는데. 요즘은 또 이젠 미역은 이건 원 먹을 걸로 안 알아.)

105001 @ 게난예.(그러니까요.)

105001 # 먹을 걸로 안 알아. 이따근에 ᄒᆞᆫ 정월 체음 메역 날 때 고동 잡으레 뎅기멍 쪼금 어릴 때 요만썩 헐 때 헤영 오민 그때 맛잇덴 ᄒᆞ꼼 먹는 거뿐.(먹을 걸로 안 알아. 있다가 한 정월 처음 미역 날 때 소라 잡으러 다니면서 조금 어릴 때 요만큼씩 할 때 해서 오면 그때 맛있다고 조금 먹는 거뿐.)

105001 @ 아까 상줌수, 하줌수 허민 어떵헌 사름이 상줌수?(아까 ‘상줌수’, ‘하줌수’ 하면 어떤 사람이 ‘상줌수’?)

105001 # 지픈 디 강 히고 하영 ᄌᆞ물아 내는 게 상줌수. 힘도 뱔르고 막 지픈 디 강 영 보민 우리 영 ᄒᆞᆫ 번 조름에 영 따라강 못허는 사름덜 영 따라강 보민 이 우이서 물창 못 보게 히여. 가물가물허여. 영 우로 베리민 사름이 물창 영 히어뎅기는 게 가물가물허게 뷔려. 경 지픈 디서 히고.(깊은 데 가서 헤엄치고 많이 캐내는 게 ‘상줌수’. 힘도 빠르고 아주 깊은 데 가서 이렇게 보면 우리 이렇게 한 번 뒤에 이렇게 따라가서 못하는 사람들 이렇게 따라가서 보면 이 위에서 물밑 못 보게 헤엄쳐. 가물가물해. 이렇게 위로 보면 사람이 물밑 이렇게 헤엄쳐 다니는 게 가물가물하게 보여. 그렇게 깊은 데서 헤엄치고.)

105001 @ 숨도 오래 츰아?(숨도 오래 참아?)

105001 # 응, 숨을 오래 츰아야 지픈 디 가는 거. 거난 엿날 눈은이 요새 이추룩 큰 눈이 아니라이.(응, 숨을 오래 참아야 깊은 데 가는 거. 그러니까 옛날 물안경은 요새 이렇게 큰 물안경이 아니라.)

105001 @ 안경추룩?(안경처럼?)

---

119) ‘시마지’는 ‘시렁목’이라고도 하는데 얇고 성글게 짠 면직물로 아기 기저귀 천으로 사용되는 옷감이다.

105001 # 욜로 요만인 헌 거라.(요리로 요만큼 한 거야.)

105001 @ 이런 거 아니? 안경추룩.(이런 거 아니? 안경처럼.)

105001 # 똑 그추룩 허영 욜로 요만썩 허영 요영. 영허민이 지픈 디레 숨벼[120]가민 이 머리 땡기는 사름 이 눈이 바짝 부떠노민 이디 머리가 딱 ᄃᆞᆼ겨비엉 경허민 지픈 디 못 히는 사름 잇어. 거난 요새 이 안경이 영 크난에 덜허는디 엿날엔 쬐끄만헌 거 요만은 헌 거 경허민 머리가 잔뜩 ᄃᆞᆼ겨불민 지픈 디 못 가는 사름이 잇어.(꼭 그렇게 해서 요리로 요만큼씩 해서 요렇게. 이렇게 하면 깊은 데로 '숨벼'가면 이 머리 당기는 사람이 눈이 바짝 붙어놓으면 여기 머리가 딱 당겨버려서 그러면 깊은 데 헤엄치지 못하는 사람 있어. 그러니까 요새 이 안경이 이렇게 크니까 덜하는데 옛날엔 조그마한 거 요만큼 한 거 그러면 머리가 잔뜩 당겨버리면 깊은 데 못 가는 사람이 있어.)

105002 @ 듬북허고 감태는 어떵헹 헤난마씨?(듬북하고 감태는 어떻게 했던 거예요?)

105002 # 듬북도이 바당도 다 시계에 똘르는ᄀᆞ라. 엿날은 듬북을 막 질어. 우리 질로 ᄒᆞᆫ 질썩 허민 음력 정월이 정월 멩질만 넘엉 물끼 나민 물싸, 물끼엔 헌 건 물싸는 게 물끼라이. 조금은 물 안 싸근에 그자 들민 든 대로 ᄀᆞ만이 잇고 또 물끼엔 헌 건 물이 싹 내려가 불어.(듬북도 바다도 다 시계에 따르는지. 옛날은 듬북을 아주 길어. 우리 길로 한 길씩 하면 음력 정월이 정월 명절만 넘어서 물때 되면 물써, 물때라고 한 건 물써는 게 물때야. 조금은 물 안 써서 그저 밀면 민 대로 가민히 있고 또 물때라고 한 건 물이 싹 내려가 버려.)

105002 @ 예.(예.)

105002 # 내려가민 이디 물이 숨빡헷던 물이 싹 내려가민 여기가 ᄆᆞᆯ라이. 경허난 듬북이엔 헌 건 우리 발로 ᄒᆞᆫ 발썩 넘어. 경허민 그걸 막 비어. 비엉 땡겨다놔근에 이제 감저 모종 놓는 거야. 모종, 고구마 모종.(내려가면 여기 물이 '숨빡'했던 물이 싹 내려가면 여기가 말라. 그러니까 듬북이라고 한 건 우리 발로 한 발씩 넘어. 그러면 그걸 막 베어. 베어서 당겨놨다가 이제 고구마 모종 놓는 거야. 모종, 고구마모종.)

105002 @ 어제 ᄀᆞᆯ아난 거.(어제 말했던 거.)

105002 # 응, 어제 ᄀᆞᆯ아난 거 그추룩허영 밧 갈아놩 ᄀᆞᆯ아근에 그 우트레 ᄯᅳ시 흑 더퍼놔근에 고구마 심어사 모종 낭 커근에 또 그거 꿀 그차다 놓고 경허는 거.(응, 어제 말했던 거 그렇게 해서 밭 갈아놓고 깔아서 그 위에 다시 흙 덮어놔서 고구마 심어야 모종 나서 커서 또 그거 줄기 잘라다 놓고 그렇게 하는 거.)

105002 @ 거난 그건 감저 걸름허젠 허는 거구나.(그러니까 그건 고구마 거름하려고 하는 거구나.)

105002 # 응, 감저 걸름허젠 그거는 허는 거고. 이 뒈야지 질루는 디 허는 거는 보리 갈 때 쓰는 거고.(응, 고구마 거름하려고 그거는 하는 거고. 이 돼지 기르는 데 하는 거는 보리 갈 때 쓰는 거고.)

105002 @ 어쨋거나 듬북은 걸름허는 용으로예?(어쨌거나 듬북은 거름하는 용으로

120) '숨비다'는 숨을 참고 물속으로 들어간다는 뜻이다.

요?)

105002 # 응, 걸름허는 거.(응, 거름하는 거.)

105002 @ 그것도 개인이 강 헹 오는 거, 공동으로 허는 거?(그것도 개인이 가서 해서 오는 거, 공동으로 하는 거?)

105002 # 어, 그건 이녁냥으로 개인으로 강도 허고 바당이 막 파도가 쳐근엥에 태풍이 불면 올라와이. 먼 디 것이, 곳디 건 아니 메어져도 먼 디 건 그 듬북은 먼 디 건 올라오는 건 보민 슬그랑허지 안허영 는질는질는질허여이. 경헤도 그거 올라오민 그거는 반으로 강 갈라. 이녁 반만썩 가근에 흔 반에 멧 사름 헤영 강 갈랑 그거 물르민 물른 대로 갈라 이제이.(어, 그건 자기대로 개인으로 가서도 하고 바다가 막 파도가 쳐서 태풍이 불면 올라와. 먼 데 것이, 바닷가의 건 안 매어져도 먼 데 건 그 듬북은 먼 데 건 올라오는 건 보면 '슬그랑'하지 않고 '는질는질는질'해. 그래도 그거 올라오는 그거는 반으로 가서 갈라. 자기 반만큼씩 가서 한 반에 몇 사람 해서 가서 갈라서 그거 마르면 마른 대로 갈라 이제.)

105002 @ 아.(아.)

105002 # 모돠놓멍 하고 족고 간에 모돵 얼마썩 영 영 눈 짐작헤근에 모돠놩 그거 갈라당 데몃다근에 그것도 감저 모종도 놓고 또 모종 놩 모종 컹 싱글 때 또 고구마 들렌 그런 디도 강 끌고 경 헷는디 이젠 그런 이 듬북이 안 나, 이제, 이 바당에. 어떤 일인지 원. 이디도 이 앞이 바당 막 가까운 딘디 이 정월만 낭 물싸가민 듬북이 바짝허민 사름 걸려근에 어디 걸어 뎅기질 못 헤신디 하나도 엇어, 이젠.(모아 놓으면서 많고 적고 간에 모아서 얼마씩 이렇게 이렇게 눈 짐작해서 모아놔서 그거 갈라다가 쟁였다가 그것도 고구마 모종도 놓고 또 모종 놔서 모종 커서 심을 때 또 고구마 들라고 그건 데도 가서 깔고 그렇게 했는데 이젠 그런 이 듬북이 안 나, 이제, 이 바다에. 어떤 일인지 원. 여기도 이 앞에 바다 막 가까운 덴데 이 정월만 나서 물써면 듬북이 '바짝'하면 사람 걸려서 어디 걸어 다니지를 못 했는데 하나도 없어, 이젠.)

105002 @ 이젠예.(이젠요.)

105002 # 경헤노난 듬북이 잘 안 나노난 고동도 알르레 ᄂᆞ려가 비언 벨로 엇고 셍복이나 그전이 저 오분제기, 오분제기 허멍 이 곳딜로 강 요렇게 요영헌 디 강 손 찔러보민 요만썩헌 오분제기가 잇어이. 그런 거 엇어, 이제.(그러니까 듬북이 잘 안 나니까 소라도 아래로 내려가 버려서 별로 없고 전복이나 그전에 저 오분자기, 오분자기 하면서 이 바닷가로 가서 요렇게 요렇게 한 데 가서 손 찔러보면 요만큼씩 한 오분자기가 있어. 그런 거 없어, 이제.)

105002 @ 게난예, 먹을 게 엇이난.(그러니까요, 먹을 게 없으니까.)

105002 # 먹을 거 엇이난. 풀이 엇이난 풀 안 나노난. 풀 나사 그것도 먹엉 사는 건디 풀이 하나토 엇어. 조개풀, 조개풀 허멍 강보민 요만썩 헌 거 다박다박헌 풀이 민짝[121] 나. 경허민 그 민짝 난 트멍에 요추룩 돌 알 강 영 문직으민 준 것도 잇고 홁은 것도 잇고 많이 떼당 먹어신디 이젠 오분제기 ᄒᆞ나 봉그젠 허민 하늘에 벨 따기라이.

121) '민짝'은 '문짝'이라고도 하며 '몽땅, 모두'의 의미로 쓰이는데, 여기서는 '많이'라는 뜻으로 쓰였다.

(먹을 거 없으니까. 풀이 없으니까 풀이 안 나니까. 풀 나야 그것도 먹어서 사는 건데 풀이 하나도 없어. 조개풀, 조개풀 하면서 가보면 요만큼씩 한 거 '다박다박'한 풀이 '민짝' 나. 그러면 그 '민짝' 난 틈에 요렇게 돌 아래 가서 이렇게 만지면 잔 것도 있고 굵은 것도 있고 많이 떼다 먹었는데 이젠 오분자기 하나 주우려고 하면 하늘에 별 따기야.)

105002 @ 양식헤 부난.(양식해 버리니까.)

105002 # 원, 양식헤 부난산디 원원 오분제기 하나 구경을 못헤여, 이제.(원, 양식해 버리니까인지 원원 오분자기 하나 구경을 못 해, 이제.)

105002 @ 감태는마씨?(감태는요?)

105002 # 감태는 메역ᄀᆞ치 더박더박허여이. 막 질진 안헌 거지. 다박다박다박허멍도 퍼기가 안아. ᄂᆞ물 퍼기 모냥으로 영 밧닥헌 거. 그거 요즘은 올리난 엿날엔 ᄌᆞ물안도 풀앗주마는이 요즘은 ᄌᆞ물지 안헤영 그냥 풍패, 올린 거 쎄영 올린 거 그거허영 풀아. 것도 ᄒᆞᆫ 칭[122]에 요즘 십만 원이라이.(감태는 미역처럼 '더박더박'해. 아주 길진 않은 거지. '다박다박다박'하면서도 포기가 앉아. 나물 포기 모양으로 이렇게 바짝한 거. 그거 요즘은 올리니까 옛날엔 캐서도 팔았지마는 요즘은 캐지 않아서 그냥 '풍패', 올린 거 많아서 올린 거 그거 해서 팔아. 그것도 한 칭에 요즘 십만 원이야.)

105002 @ 감태?(감태?)

105002 # 응, 거난 요번이 감태 허는 할망은 ᄒᆞᆫ 이백만 원 산 사름도 잇고, ᄒᆞᆫ 삼백 산 사름도 잇고.(응, 그러니까 요번에 감태 하는 할머니는 한 이백만 원 번 사람도 있고, 한 삼백 번 사람도 있고.)

105002 @ ᄒᆞᆫ 가마니에 얼마 영헤?(한 가마니에 얼마 이렇게 해?)

105002 # 칭으로 떠. ᄒᆞᆫ 칭에 얼마 허는 거.(칭으로 떠. 한 칭에 얼마 하는 거.)

105002 @ ᄒᆞᆫ 칭은 얼만이 헌 거? 멧 키로나.(한 칭은 얼마만큼 한 거? 몇 킬로나.)

105002 # ᄒᆞᆫ 칭은 육십 키로.(한 칭은 육십 킬로.)

105002 @ 아, 육십 키로가 ᄒᆞᆫ 칭. 겡 칭에 얼마?(아, 육십 키로가 한 칭. 그래서 칭에 얼마?)

105002 # 경 ᄒᆞᆫ 칭에 얼마. 올리 막 감태가이 놀 하영 안 불어노난 올라오질 안헌 거라이. 겟단 요새사 쪼금 올라온 거. 경허난 감태 시월이 좋안 경 막 하영 버슬엄서. 이제 오늘도 막 어제도 간 보난 축항에 간 보난 헨 널어선게.(그렇게 한 칭에 얼마. 올해 막 감태가 너울 많이 안 불어버리니까 올라오지 않은 거야. 그랬다가 요새야 조금 올라온 거. 그러니까 감태 세월이 좋아서 그렇게 막 많이 벌고 있어. 이제 오늘도 막 어제도 가서 보니까 축항에 가 보니까 해서 널었더라.)

105002 @ 감탠 무신거 헹 먹는 거?(감태는 무엇 해서 먹는 거?)

105002 # 건 이디서 몰라. 어디 뭐 약.(그건 여기서 몰라. 어디 뭐 약.)

105002 @ 뭐에 쓰는 거?(뭐에 쓰는 거?)

---

122) '칭'은 무게의 단위로 1칭은 1근의 100배이다. 한 근은 고기나 한약재의 무게를 잴 때는 600그램에 해당하고, 과일이나 채소 따위의 무게를 잴 때는 한 관의 10분의 1로 375그램에 해당한다.

105002 # 뭐에사 쓰는디 우린 받아가는 거난 몰라. 뭐에 쓰는 건디 뭐 엿날에는 요즘은 몰라도 엿날에 무신 아까젱끼[123]도 만든다 무신 화장품에도 들어간다 그런 말이 잇어신디.(뭐에야 쓰는지 우린 받아가는 거니까 몰라. 뭐에 쓰는 건지 뭐 옛날에는 요즘은 몰라도 옛날에 무슨 '아까젱끼'도 만든다 무슨 화장품에도 들어간다 그런 말이 있었는데.)

105002 @ 먹는 건 아니?(먹는 건 아니?)

105002 # 먹는 건 아니. 화장품에도 들어가곡 뭐 아까젱끼에도 들어가곡 약초로만 믄 들어가는 거 그건. 약초에 들어가는 거.(먹는 건 아니. 화장품에도 들어가고 뭐 '아까젱끼'에도 들어가고 약초만 모두 들어가는 거 그건. 약초에 들어가는 거.)

105002 @ 감탠 공동으로 허는 거, 개인이 허는 거?(감태는 공동으로 하는 거, 개인이 하는 거?)

105002 # 개인이 이건 이녁 만썩.(개인이 이건 자기 만큼씩)

105002 @ 옛날에도 이녁 만썩.(옛날에도 자기 만큼씩.)

105002 # 엿날에도 감태는 공동으로 안 허여. 이녁 만썩 헤지는 대로.(옛날에도 감태는 공동으로 안 해. 자기만큼씩 할 수 있는 대로.)

105002 @ 듬북만.(듬북만.)

105002 # 응, 듬북만 이 저 ᄀᆞ찌 헤놩 갈르든지 어떵 허주이. 감태는 이녁 만썩.(응, 듬북만 이 저 같이 해놔서 가르든지 어떻게 하지. 감태는 자기 만큼씩.)

105002 @ 이녁 만썩.(자기 만큼씩.)

105002 # 감태도 엿날에 돈 하영 갈 땐 이 조합원들이 공동으로 헤낫어이. 헷단 이젠 그거 안 헤여. 그거 헤놔 봐야 뭐 얼마 뒈지도 안허고 자꾸 올르지도 안허곡 허는 거난.(감태도 옛날에 돈 많이 갈 땐 이 조합원들이 공동으로 했었어. 했다가 이젠 그거 안 해. 그가 해놔 봐야 뭐 얼마 되지도 않고 자꾸 오르지도 않고 하는 거니까.)

105003 @ 고둥은 어떵 헹 잡으는 거마씨?(소라는 어떻게 해서 잡는 거예요?)

105003 # 고동은 감태가 잘 나야 고동이 하는 거라 것도. 먹을 거 이성이. 이디서 ᄀᆞ뜨민 막 멀어, 가는 거. 이디서 ᄀᆞᆯ아도 몰라. 이디서 보민 사름이 아득아득 사름은 못 붸리고 테왁만 아뜩아뜩 붸려져이. 경헌디 막 멀리 내려강은에 지픈 디 강 히민 감태가 이렇게 시민 감태 이렇게 헤쓰민 그 아래 고동이 잇어. 거 줏어오는 거.(소라는 감태가 잘 나야 소라가 많은 거야 그것도. 먹을 거 있어서. 여기서 같으면 아주 멀어, 가는 거. 여기서 말해도 몰라. 여기서 보면 사람이 아득아득 사람은 안 보이고 '테왁'만 '아뜩아뜻' 보여. 그런데 막 멀리 내려가서는 깊은 데 가서 헤엄치면 감태가 이렇게 있으면 감태 이렇게 헤집으면 그 아래 소라가 있어. 그거 주워오는 거.)

105003 @ 고동은 소라?('고동'은 소라?)

105003 # 응, 소라.(응, 소라.)

105003 @ 아.(아.)

105003 # 소라 보고 엿날은 요즘은 중간은 소라 중간엔 고동 엿날엔 구젱기, 구젱기

123) '아까젱기'는 일본에서 판매되었던 빨간 상처 소독약 '赤チンキ'를 말한다.

헤낫어.(소라 보고 옛날은 요즘은 중간은 소라 중간엔 ‘고동’ 옛날엔 ‘구젱기’, ‘구젱기’ 했었어.)

105003 @ 아, 구젱기엔도 헤난.(아, ‘구젱기’라고도 했었어.)

105003 # 응, 엿날은 아이고 구젱기 하영 잡아서라.(응, 옛날은 아이고 ‘구젱기’ 많이 잡았더라.)

105003 @ 더 옛날이 구젱기?(더 옛날이 ‘구젱기’?)

105003 # 응, 더 엿날이 구젱기. 그다음 말째라 가난에 고동, 또 아이고 고동, 고동 허단 이젠 소라.(응, 더 옛날이 ‘구젱기’. 그다음 말째가 되니까 ‘고동’, 또 아이고 ‘고동’, ‘고동’하다가 이젠 소라.)

105003 @ 이젠 소라, 응.(이젠 소라, 응.)

105003 # 이름이 세 가지라이, 이 고동.(이름이 세 가지야, 이 소라.)

105003 @ 게메예, 그것도예.(그러게요, 그것도요.)

105003 # 것도 일름이 세 가지라. 엿날엔 구젱기, 구젱기 허단, 그다음은 고동, 이제라 가난 소라, 그거.(그것도 이름이 세 가지야. 옛날엔 ‘구젱기’, ‘구젱기’ 하다가, 그다음은 ‘고동’, 이제가 되니까 소라, 그거.)

105003 @ 그건 좀수들만 강은에 허는 거구나예, 곶뒨 엇어예?(그건 해녀들만 가서 하는 거군요, 바닷가엔 없어요?)

105003 # 곶듸 엇어. 요 작년ᄁᆞ장은 곶듸, 그전에는 곶듸 하낫어이. 곶듸 항 물싸민, 물싸민 저 바구니 우리 잇잖아 요만은 헌 바구니 영 차는 거. 그것에 창 가근에 준 건 강 이시민 파당 먹어신디 이젠 그것이 엇어. 고동이 올라오지 안허여. 먹을 것이 엇으난 산디 이 푸십새[124]가 엇으난산디 고동도 곶듸 먹을 풀이 잇어야 올라오는 거주. 게난 이제 고동 잡는 거 보민 싹 아래 ᄂᆞ려가.(바닷가에 없어. 요 작년까지는 바닷가에, 그전에는 바닷가에 많았었어. 바닷가에 많아서 물써면, 물써면 저 바구니 우리 있잖아 요만큼 한 바구니 이렇게 차는 거. 그것에 차서 가서 잔 건 가서 있으면 파다가 먹었는데 이젠 그것이 없어. 소라가 올라오지 않아. 먹을 것이 없으니까인지 이 ‘푸십새’가 없어서인지 소라도 바닷가에 먹을 풀이 있어야 올라오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소라 잡는 거 보면 싹 아래 내려가.)

105003 @ 그믄 이거 구젱기 말고 보말 닮은 거 이수게?(그러면 이거 소라 말고 고둥 같은 거 있잖습니까?)

105003 # 보말 닮은 거 보말이지.(고둥 같은 거 고둥이지.)

105004 @ 보말도 여러 개 잇지예, 이름이. 무신 보말, 무신 보말 이수과?(고둥도 여러 개 있지요, 이름이. 무슨 고둥, 무슨 고둥 있습니까?)

105004 # 보말도 잇고, 춤ᄀᆞ메기도 잇고, 수두리도 잇고, 문닫개도 잇고 여러 가지라.(고둥도 있고, 개울타리고둥도 있고, 팽이고둥도 있고, 눈알고둥도 있고 여러 가지야.)

105004 @ 문닫개?(눈알고둥?)

105004 # 응.(응.)

---

124) ‘푸십새’는 파란색 채소 등을 말하는데 여기서는 물풀을 의미한다.

105004 @ 또?(또?)

105004 # 그거벳긘이. 문닫개 저 거시기 수두리.(그거밖에. 눈알고둥 저 거시기 팽이고둥.)

105004 @ 춤ᄀᆞ메기.(개울타리고둥.)

105004 # 응, 춤ᄀᆞ메기 또 저, 보말.(응, 개울타리고둥 또 저, 고둥.)

105004 @ 보말.(고둥.)

105004 # 수두리.(팽이고둥.)

105004 @ 수두리.(팽이고둥.)

105004 # 문닫개.(눈알고둥.)

105004 @ 문닫개.(눈알고둥.)

105004 # 그거, 네 가지.(그거, 네 가지.)

105004 @ 네 개.(네 개.)

105004 # 응, 네 개. 문닫개는 헤당 베랑 누게 잡아 가젠도 안 헤여. 겐디 먹젠 잡아오민이 ᄒᆞ쏠 요거 씁쓰룽헌 맛이 서, 무쳐 놓민. 그것이 맛이 좋앙 막 잡아부난 것도 엇어, 이제. 그건이 폴지도 아녀. 이녁대로 잡아당 이녁 먹는 거. 겨민 그것도 체암엔 문닫개난 쓰덴 누게 안 먹단 이젠이 그걸 무쳐 놓민 씁쓰룽헌 맛으로 맛이 나와근에 무쳐 놓민 그걸 먹어 놓난 계속 잡아 놓민, 우리 강 이제 문닫개 잡아도 나 흔 때 반찬헐 거 못 혜영 와.(응, 네 개. 눈알고둥은 해다가 별로 누가 잡아가려고도 안 해. 그런데 먹으려고 잡아오면 조금 요거 씁쓸한 맛이 있어, 무쳐 놓으면. 그것이 맛이 좋아서 막 잡아버리니까 그것도 없어, 이제. 그건 팔지도 않아. 자기대로 잡아다가 자기 먹는 거. 그러면 그것도 처음엔 눈알고둥이니까 쓰다고 누구 안 먹다가 이젠 그걸 무쳐 놓으면 씁쓸한 맛으로 맛이 나와서 무쳐 놓으면 그걸 먹어 놓으니까 계속 잡아 놓으면, 우리 가서 이제 눈알고둥 잡아도 내가 한 때 반찬할 거 못 해서 와.)

105004 @ 응, 춤ᄀᆞ메긴 어떤 거꽈?(응, 개울타리고둥은 어떤 겁니까?)

105004 # 춤ᄀᆞ메긴 존존헌 거.(개울타리고둥은 자잘한 거.)

105004 @ 존존헌 거.(자잘한 거.)

105004 # 그건 젤로이, 먹어도 설사도 안 나고 견디 여물이 얼마 안 뒈여. 줏어놓긴 줏어 놔 봐도 요멘썩 헌 거라부난. 경헌 거라 부난.(그건 젤로, 먹어도 설사도 안 나고 그런데 여물이 얼마 안 돼. 주워놓긴 주워 놔 봐도 요만씩 한 거라서. 그런 거라 버리니까.)

105004 @ 그냥 보말은?(그냥 고둥은?)

105004 # 그냥 보말은 홁어이, 요만큼씩. 요만씩 헌 거 홁으민 것도 키로에, 여라근에 여물만 빤 거이 삼만삼천 원이라이. 이디서 우리 ᄑᆞ는 거. 저딘 강 얼마사 받는디 몰라도. 받아가는 게 삼만삼천 원썩 경 받아. 경허민 소망인 사름은 ᄒᆞ루 가근에 흔 이 키로 잡앙 오는 사름 일 키로 잡앙 오는 사름, 우리 ᄀᆞ뜬 사름은 가면 흔 오백쯤 줏어 오고.(그냥 고둥은 굵어, 요만큼씩. 요만큼씩 한 거 굵으면 그것도 킬로에, 열어서 여물만 뺀 것 삼만삼천 원이야. 여기서 우리 파는 거. 저긴 가서 얼마나 받는지 몰라도. 받아가

는 게 삼만삼천 원씩 그렇게 받아. 그러면 사망인 사람은 하루 가서 한 이 킬로 잡아서 오는 사람 일 킬로 잡아서 오는 사람, 우리 같은 사람은 가면 오백쯤 주워 오고.)

105004 @ 수두리는 어떤 거라?(팽이고둥은 어떤 거야?)

105004 # 수두리도 똑 보말 닮은 건디 요것이 잘 열지를 못 헤는 거라. 잘못 솖아 뎅기민 요 대가리만 나와. 또꼬냥에 건 믄딱 그차져 불어. 대가리만 나오민 얼마 뒈질 안헤여, 요것이. 것도 맛은 잇는디 보말이나 꼭ᄀᆞ뜬 건디 요 수두리는 잘못허민이 대가리만 끄차져근에 대가리만 나와. 게난 수두리는 영허민 보말은 멘질락허고 수두리는 영영허고 꼬깽이가 쪼짱헤여. 경허난이 이것이 잘 안 나와이. ᄀᆞ메기 일름도 여라 가지주.(팽이고둥은 꼭 고둥 같은 건데 요것이 잘 열지를 못하는 거야. 잘못 삶으면 요 머리만 나와. 엉덩이에 건 모두 잘라져 버려. 머리만 나오면 얼마 되지 않아, 요것이. 그것도 맛은 있는데 고둥이나 똑같은 건데 요 팽이고둥은 잘못하면 머리만 잘라져서 머리만 나와. 그러니까 팽이고둥은 이렇게 하면 고둥은 매끈하고 팽이고둥은 이렇게 이렇게 하고 끄트머리가 뾰족해. 그러니까 이것이 잘 안 나와. 고둥 이름도 여러 가지지.)

105004 @ 게난예, 메옹이도 잇지 안허여?(그러니까요, 두드럭고둥도 있지 않아?)

105004 # 춤ᄀᆞ메기, 나 ᄀᆞᆫ건 들어봐이. 춤ᄀᆞ메기, 보말, 수두리, 문닫개, 또, 메옹기.(개울타리고둥, 나 말하면 들어봐. 개울타리고둥, 고둥, 팽이고둥, 눈알고둥, 또, 두드럭고둥.)

105004 @ 메옹기도 잇어?(두드럭고둥도 있어?)

105004 # 메옹기엔 헌 거 홁은 거.(두드럭고둥이라고 한 거 굵은 거.)

105004 @ 아, 이건 홁은 거.(아, 이건 굵은 거.)

105004 # 홁은 거, 또 마타슬[125]이엔 헌 건 요만썩 헌 거.(굵은 거, 또 '마타슬'이라고 한 건 요만큼씩 한 거.)

105004 @ 아, 마타슬.(아, '마타슬'.)

105004 # 요만썩 마타슬이엔 헌 거, 까망헌 거, 요만씩 헌 거, ᄉᆞ랑ᄉᆞ랑헌 거. 건 장마에 가민 흔 밧듸 막 메와져이, 장마에. 마타슬이엔 헌 거.(요만큼씩 '마타슬'이라고 한 거, 까만 거, 요만큼씩 한 거, 길쭉길쭉한 거. 그건 장마에 가면 한 군데 막 모여져, 장마에. '마타슬'이라고 한 거.)

105004 @ 마타슬.('마타슬'.)

105004 # 경허난 마타슬, 마타슬 허는 거. 이 장마 때 가민 영헌 돌 아래 가민 요것이 영헌 듸 그자 민짝 메와져. 경허민 그런 거 줏어당 열아 먹젠 줏어 오주. 거 풀진 못헤여. 누게 사가는 사름도 엇고.(그러니까 '마타슬', '마타슬' 하는 거. 이 장마 때 가면 이렇게 한 돌 아래 가면 요것이 이렇게 한 데 그저 가득 메워져. 그러면 그런 거 주워다가 까 먹으려고 주워 오지. 거 팔진 못해. 누가 사가는 사람도 없고.)

105004 @ 마타슬, 또 다른 것도 잇수과?('마타슬', 또 다른 것도 있습니까?)

105004 # 다른 거 이제 쉐다슬이엔 헌 거, 홁은 거, 메옹기. 건 지픈 디가 잇어. 메옹기엔 헌 거 그거이 메옹기엔도 ᄀᆞᆫ곡 쉐다슬이엔도 ᄀᆞᆫ곡.(다른 거 이제 '쉐다슬'이라고

125) '마타슬'은 두드럭고둥의 한 종류로 장마철에 많이 나온다고 한다.

한 거, 굵은 거, 두드럭고둥. 그건 깊은 데 있어. 두드럭고둥이라고 한 거 그것이 두드럭고둥이라고도 말하고 '쉐다슬'이라고도 말하고.)

105004 @ 아, ᄀᆞ뜬 거.(아, 같은 거.)

105004 # 응, ᄀᆞ뜬 건디 홁으난 건. 이만큼씩 홁어, 그건. 여물도 홁고.(응, 같은 건데 굵으니까 그건. 이만큼씩 굵어, 그건. 속도 굵고.)

105004 @ 아.(아.)

105004 # 겐디 그건 잘, 이녁 잡아당 먹음이나 벳긔 베랑 사가진 아녀.(그런데 그건 잘, 자기 잡아다가 먹기나 밖에 별로 사가지는 않아.)

105004 @ 이거 말고도 바당에 가근에 이거 ᄀᆞ메기 잡으레 강 허는 거 뭐 이수과? 뭐 잡읍니까?(이거 말고도 바다에 가서 이거 보말 잡으러 가서 하는 거 뭐 있습니까? 뭐 잡습니까?)

105004 # 뭐 잡을 거 그런 거. ᄀᆞ메기허고 그자 춤ᄀᆞ메기, 문닫개, 수두리, 보말 그거나 벳긔 잇당 땅개비엔 헌 거 벨망이.(뭐 잡을 거 그런 거. 고둥하고 그저 개울타리고둥, 눈알고둥, 팽이고둥, 고둥 그거나 밖에 있다가 무늬애기배말이라고 한 거 애기삿갓조개.)

105004 @ 그건 무신거?(그건 무엇?)

105004 # 벨망이엔 헌 거 잇어. 땅개비, 땅개비허멍 납작납작허멍 검은 돌에 부뜨는 게 잇어.(애기삿갓조개라고 한 거 있어. 무늬애기배말, 무늬애기배말 하면서 납작납작하면서 검은 돌에 붙는 게 있어.)

105004 @ 응, 땅개비?(응, 무늬애기배말?)

105004 # 응. 그런 건 이녁 먹젠 쪼금 헤영 오주, 그거 풀젠도 못 허고 이녁 먹젠 그거 역벌이멍 돈 줄 거 ᄀᆞ메기나 하나이나 잡주. 그거 헤당 먹젠 안허여. 그건 여물도 얼마 안 허난 놀아진 사름이나 강 ᄒᆞ쏠 헤당 먹주, 그거. 베랑 누게 떼어오는 사름도 엇고.(응. 그런 건 자기 먹으려고 조금 해서 오지, 그거 팔려고도 못 하고 자기 먹으려고 그거 일부러 돈 줄 거 보말이나 하나나 잡지. 그거 해다가 먹으려고 안 해. 그건 속도 얼마 안 하니까 노는 사람이나 가서 조금 해다 먹지, 그거. 별로 누가 떼어오는 사람도 없고.)

105004 @ 군벗은?(군부는?)

105004 # 응, 군벗은 이거 헤당 그건 풀아. 게도 잘 튼냅신게. 난 이디 앚앙 살아도 튼내지 못헤영.(응, 군부는 이거 해다가 그건 팔아. 그래도 잘 생각해 내내. 난 여기 앉아서 살아도 생각해내지 못해서.)

105004 @ 이거 옛날엔 안 먹어낫수게?(이거 옛날엔 안 먹었잖습니까?)

105004 # 아이고, 엿날에 먹어, 이거. 엿날부떠 먹어. 군벗도 헤다근에 군벗 강 떼어다근에 물 팔팔 끌릴 때에 뭔 망사리에 놩 푹 ᄃᆞᆼ그는 거라, 이건이.(아이고, 옛날에 먹어, 이거. 옛날부터 먹어. 군부도 해다가 군부 가서 떼어다가 물 팔팔 끓일 때에 무슨 망사리에 놔서 푹 담그는 거야, 이건.)

105004 @ ᄒᆞ꼼 질기지 안헤?(조금 질기지 않아?)

105004 # 푹 둥가근엥에 확 건졍 더운 물에 푹 둥강 확 건져비사주, 오래 솖아불민 질겨.(푹 담가서 확 건져서 더운 물에 푹 담가서 확 건져버리지, 오래 삶아버리면 질겨.)

105004 @ 아, 오래 솖앙 질긴 거구나.(아, 오래 삶아서 질긴 거구나.)

105004 # 오래 솖으민 질경 물 팔팔 끌인 디 무신 망사에 푹 둥가근에 군벗이 죽음만 허면, 죽음만 허면 확 건져내어근에 무시걸로 영 작작작작 영 그 망사리에 놩 영영 밀어. 밀멍 밀어근엥에 영 물에 놩 헹구곡, 헹구곡 혜영 여물만 영 건지민 혜영케 벗어이. 그땐 무청 먹어. 그건 힘들어, 먹젠 허민.(오래 삶으면 질겨서 물 팔팔 끓인 데 무슨 망사에 푹 담가서 군부가 죽기만 하면, 죽기만 하면 확 건져내어서 무얼로 이렇게 작작작작 이렇게 그 망사리에 놔서 이렇게 이렇게 밀어. 밀면서 밀어서 이렇게 물에 놔서 헹구고, 헹구고 해서 여물만 이렇게 건지면 하얗게 벗겨져. 그땐 무쳐서 먹어. 그건 힘들어, 먹으려고 하면.)

105004 @ 손이 하영 가는구나예.(손이 많이 가는군요.)

105004 # 응, 손이 하영 들어. 게난 잡아놓민 받아가긴 받아 가는디 것도 깝도 얼마 안 주고. 누게 경 힘들엉 허지도 안허여. 이녁 먹을 거나 강 헤옴벳긔.(응, 손이 많이 들어. 그러니까 잡아 놓으면 받아 가긴 받아 가는데 그것도 값도 얼마 안 주고. 누구 그렇게 힘들어서 하지도 않아. 자기 먹을 거나 가서 해오는 것밖에.)

105005 @ 또 겡이.(또 게.)

105005 # 겡이는이 저 그것이 약재라고 잡는 사름은 막 하영 잡앙 키로에 팔천 원씩 헨 작년이도 흔 이십 키로도 잡앙 풀고, 주문와사 거는. 약 딸려 먹는 거라부난.(게는 저 그것이 약재라고 잡는 사람은 아주 많이 잡아서 킬로에 팔천 원씩 해서 작년에도 한 이십 킬로도 잡아서 팔고, 주문와야 그거는. 약 달여서 먹는 거라서.)

105005 @ 옛날엔 안 잡아낫수과?(옛날엔 안 잡았었습니까?)

105005 # 엿날엔 잡아도 이녁대로 잡아당 뻣앙 죽 쑤어 먹기, 국 끌려 먹기 헷주. 요새추룩 약 빠는 디 강 그거 딸령 빠근엥에 약으로 먹어보진 안헷어.(옛날엔 잡아도 자기대로 잡아다가 빻아서 죽 쑤어 먹기, 국 끓여 먹기 했지. 요새처럼 약 빼는 데 가서 그거 달여서 빼서 약으로 먹어보진 않았어.)

105005 @ 겡이도 여러 종류 이수과?(게도 여러 종류 있습니까?)

105005 # 여러 종류 잇어.(여러 종류 있어.)

105005 @ 어떤 어떤 거 이수과?(어떤 어떤 거 있습니까?)

105005 # 전복겡이[126]엔 헌 건 거멍헌 게 홁은 거 발도 이 아강발 영 접지는 거 그것도 홁고, 또 똥겡이[127]엔 헌 것이 또 잇어이. 건 막 우에 ᄆᆞ른밧 ᄀᆞᆯ메[128] 잇어, 물ᄀᆞᆯ메. 경헌디 그건 가죽이 멜랑멜랑멜랑허여. 멜랑멜랑허고 겡이도 원 곱도 안허고 붸림에도 경허난 똥겡이, 똥겡이 허는 거지.('전복겡이'라고 한 건 거먼 게 굵은 거 발도 이 집게발 이렇게 집는 거 그것도 굵고, 또 '똥겡이'라고 한 것이 또 있어. 그건 아주 위에 마른 밭 'ᄀᆞᆯ메' 있어, '물ᄀᆞᆯ메'. 그런데 그건 가죽이 말랑말랑말랑해. 말랑말랑하고 게도 원

126) '전복겡이'는 게의 일종으로 색깔이 검고 크기가 큰 것이다.
127) '똥겡이'는 게의 일종으로 게딱지가 딱딱하지 않고 마른 모래밭을 기어다닌다고 한다.
128) 'ᄀᆞᆯ메'는 조간대 층위마다의 경계점으로 'ᄀᆞᆯ미'라고도 한다.

숨지도 않고 보기에도 그렇게 하니까 ‘똥겡이’, ‘똥겡이’ 하는 거지.)

105005 @ 이것도 먹는 거?(이것도 먹는 거?)

105005 # 어, 것도 먹긴 먹어도이 그놈으 거 심도 못허여, 재영.(어, 그것도 먹긴 먹어도 그놈의 거 잡지도 못해, 재어서.)

105005 @ 아. 재영.(아, 재어서.)

105005 # 그거 막 재영 심지도 못허고 그거 지금 약 빠먹나 허는 겡이는 아래 강 돌 일러도 잡곡 이 물때나 물싸민 영 뚯은 때쯤은 가민 영헌 디 막 나와이. 나오민 어떵헹 심젠 허민 겡이가 어떻게 뿔르는지 몰라. 경허민 ᄒᆞ루 강 잘 잡는 사름은 ᄒᆞᆫ 오 키로, 경 안헌 사름은 ᄒᆞᆫ 삼 키로 겡 강 줏어와, 것도. 줏어단 막 ᄑᆞ는 사름은 풀아.(그거 아주 재어서 잡지도 못하고 그거 지금 약 빼어 먹는다 하는 게는 아래 가서 돌 일으켜도 잡고 이 물때나 물써면 이렇게 따뜻한 때쯤은 가면 이런 데 막 나와. 나오면 어떻게 해서 잡으려고 하면 게가 어떻게 빠른지 몰라. 그러면 하루 가서 잘 잡는 사람은 한 오 킬로,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한 삼 킬로 그래서 가서 주워와, 그것도. 주워다가 막 파는 사람은 팔아.)

105005 @ 건 잡는 법이 잇는 게 아니고 그냥 심어지민 잡는 거?(그건 잡는 법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잡아지면 잡는 거?)

105005 # 응, 심는 건 그자 ᄀᆞᆯ갱이로 어디 돌구멍에 영헌 디 박아지민 ᄀᆞᆯ갱이로 긁노렌 허민 것이 화륵허게 나와이. 나오민 그거 심엉.(응, 잡는 건 그저 호미로 어디 돌구멍에 이런 데 박히면 호미로 긁는다고 하면 그것이 ‘화륵’하게 나와. 나오면 그거 잡아서.)

105005 @ 그냥 손으로?(그냥 손으로?)

105005 # 손으로 심는 거.(손으로 잡는 거.)

105005 @ 응.(응.)

105005 # 게당 어떵 손 젭져불민 막.(그러다가 어떻게 손 꼬집혀 버리면 막.)

105005 @ 게니까.(그러니까.)

105005 # 손을 젭지민 요놈이 족아도이 피가 나게 줍아. 내불지 안허영.(손 꼬집히면 요놈이 작아도 피가 나게 물어. 내버리지 않아서.)

105005 @ 응.(응.)

105005 # 경헹 겡이만 톡허게 발 털엉 톡허게 헤도 요놈으 털어져도 ᄒᆞᆫ동안 접진 냥 잇어, 요것이. 겡이도 여라 종류주.(그렇게 해서 게만 톡하게 발 떨어서 톡하게 해도 요놈이 떨어져도 한동안 꼬집은 대로 있어, 요것이. 게도 여러 종류지.)

105005 @ 여러 종류예.(여러 종류요.)

105005 # 그것은 무신 전복겡이.(그것은 무슨 ‘전복겡이’.)

105005 @ 전복겡이, 똥겡이.(‘전복겡이’, ‘똥겡이’.)

105005 # 똥겡이. 또 무신 ᄑᆞᆺ겡이[129]엔 헌 건 뿔긋뿔긋헌 거, 요만썩 헌 거, 즌즌헌 겡이. 그건 누게 줏어가지도 안허여. 이녁이나 먹젠 줏어오주.(‘똥겡이’. 또 무슨 ‘ᄑᆞᆺ겡이’

129) ‘ᄑᆞᆺ겡이’는 게의 일종으로 색깔이 불긋하고 크기가 작다.

라고 한 건 불긋불긋한 거, 요만큼씩 한 거, 자잘한 게. 그건 누가 주워가지도 않아. 자기나 먹으려고 주워오지.)

105005 @ 응, 그.(응, 그.)

105005 # 맛도 엇고.(맛도 없고.)

105005 @ 맛도 엇고. 그 ᄀᆞ메기 속에 들어가근에 사는 거 이수게, 겡이.(맛도 없고. 그 고둥 속에 들어가서 사는 거 있잖아요, 게.)

105005 # 건 게들메기.(그건 소라게.)

105005 @ 게들메기.(소라게.)

105005 # 응, 건 게들메기.(응, 그건 소라게.)

105005 @ 응.(응.)

105005 # ᄒᆞ쏠허민 게들메기 ᄀᆞ찌 놈이 집이 강 들어앚암젠 허여. 거 어디 빈 딱살만 이시민 어디 강 뎅기당 그 빈 딱살 속에 옴막 기어드는 거. 게들메기 거.(조금하면 소라게 같이 남의 집에 가서 들어앉는다고 해. 그거 어디 빈 고둥껍질만 있으면 어디 가서 다니다가 그 빈 고둥껍질 속에 '옴막' 기어드는 거. 소라게 거.)

105005 @ 응, 그다음에.(응, 그다음에.)

105005 # 고동도 그런 거 게들메기엔 헌 거이 고동도 잡앙 왕 보민, 그 고동 게들메긴 홁어.(소라도 그런 거 소라게라고 한 거 소라도 잡아서 와 보면, 그 소라 소라겐 굵어.)

105005 @ 아.(아.)

105005 # 홁어근에 그 안네 빈 고동 껍데기 시민 옴막 기어들어근에 사름 봐지민 발발발발 막 돌아 그거. 게도 건 베랑 누게 줏어오지도 안허고 먹지도 베랑 안허고.(굵어서 그 안에 빈 소라 껍데기 있으면 '옴막' 기어들어서 사람 보이면 발발발발 막 달려 그거. 그래도 그건 별로 누가 주워오지 않고 먹지도 별로 않고.)

105005 @ 이제 ᄑᆞ는 거추룩 큰 겡인 제주도 엇어낫어예?(이제 파는 거처럼 큰 게는 제주도에 없었지요?)

105005 # 이제 그추룩헌 겡이 이디서 안 나와.(이제 그런 게 여기서 안 나와.)

105005 @ 안 나와예.(안 나와요.)

105005 # 이추룩 수랑수랑 이만썩헌 겡이 그런 거 안 나와, 이 제주.(이렇게 길쭉길쭉 이만큼씩 한 게 그런 거 안 나와, 이 제주.)

105005 @ 제주도는예.(제주도는요.)

105005 # 응, 그런 건 안 나와.(응, 그런 건 안 나와.)

105006 @ 횃불로, 불 무사 영 찍이나 이런 걸로 횃불 만들앙 궤기 잡아낫수과?(횃불로, 불 왜 이렇게 짚이나 이런 걸로 횃불 만들어서 고기 잡았었습니까?)

105006 # 궤기 잡지를 안허고 그런 건 우리 밤ᄀᆞ메기[130], 밤ᄀᆞ메기허멍 조금에 물싸민 저 물싸면은 그 횃불 영 들렁 강 보민 그 ᄀᆞ메기가 과제기[131] 나이. 보말이엔 헌 거

130) '밤ᄀᆞ메기'는 밤에 횃불을 들고 바닷가에서 잡는 고둥을 말한다.

131) '과제기'는 고둥이 많이 모여 있는 모양을 나타낸 말이다.

이.(고기 잡지를 않고 그런 건 우리 ‘밤ᄀᆞ메기’, ‘밤ᄀᆞ메기’ 하면서 조금에 물써면 저 물써면 그 횃불 이렇게 들어서 가서 보면 그 고둥이 ‘과제기’ 나. 고둥이라고 한 거.)

105006 @ 응.(응.)

105006 # 과제기 나민 엿날엔 강 그것 강 씰어다근에 엿날엔 그런 ᄀᆞ메기 잡앙 ᄑᆞ는 사름도 엇고 사는 사름도 엇어낫어. 게난 이녁 먹젠, 이녁 먹젠 낮이 일허다근에 ᄀᆞ메기 잡으레 못 간 사름덜은 횃불 쌍 가근에 요즘 전기불이민 전기 후라시라도 영 들렁 가주마는 검질로 무껑 훼 쌍 영 들르민 ᄀᆞ메기 과작헤시민 영 씰어.(‘과제기’ 나면 옛날엔 가서 그걸 가서 쓸어다가 옛날엔 그런 고둥 잡아서 파는 사람도 없고 사는 사람도 없었어. 그러니까 자기 먹으려고, 자기 먹으려고 낮에 일하다가 고둥 잡으러 못 간 사람들은 횃불 켜서 가서 요즘 전깃불이면 전기 손전등이라도 이렇게 들어서 가지마는 검불도 묶어서 홰 켜서 이렇게 들면 고둥 ‘과작’했으면 이렇게 쓸어.)

105006 @ 아.(아.)

105006 # 씰어당 그자 이녁 먹는 거, 엿날에. 겟주마는 그런 ᄀᆞ메기가 엇어. 하도 잡아놓난.(쓸어다가 그저 자기 먹는 거, 옛날에. 그랬지마는 그런 고둥이 없어. 하나도 잡아놓으니까.)

105006 @ 그건 아까 언제 가는 거 조금에?(그건 아까 언제 가는 거 조금에?)

105006 # 조금에 물 ᄒᆞ쏠 들도 싸도 아니헐 때, 그런 때 강, 들도 싸도 안허는 거 닮아도 조금에도 쪼끔 물이 ᄂᆞ려불어이. 경헌 땐 강 횃불 드르민 발 요만이만 적지민 난 거 줏어오지게.(조금에 물 조금 밀지도 써지도 않을 때, 그런 때 가서, 밀지도 써지도 않은 거 같아도 조금에도 조금 물이 내려버려. 그런 땐 가서 횃불 들면 발 요만큼만 적시면 나온 거 주워오지.)

105006 @ 조금은 게난 음력으로 메칠쯤 뒈는 거마씨?(조금은 그러니까 음력으로 며칠쯤 되는 거예요?)

105006 # 음력으로 ᄃᆞᆯ 발룅 딱 보름이면은 보름 물이 젤 그날 ᄒᆞ루 잘 싸는 거.(음력으로 달 바루어서 딱 보름이면 보름 물이 젤 그냥 하루 잘 써는 거.)

105006 @ 응.(응.)

105006 # 또 그거 구물어 가민 이제 ᄎᆞᄎᆞᄎᆞᄎᆞ 물이 떨어져 가이. 싸 가는 게. 떨엇당 그것이 막 구물어. ᄃᆞᆯ이 막 구물면은 물이 쌋당 또 초승 나가면은 또 물이 ᄎᆞᄎᆞᄎᆞᄎᆞ 들어. 혼 ᄃᆞᆯ이민 그믐 물끼, 보름 물끼 두 물끼라, 물끼가이.(또 그거 저물어 가면 이제 차차차차 물이 줄어 가. 써 가는 거. 줄었다가 그것이 막 저물어. 달이 막 저물면 물이 썼다가 또 초승 나가면 또 물이 차차차 밀어. 한 달이면 그믐 물때, 보름 물때 두 물때야, 물때가.)

105006 @ 응.(응.)

105006 # 그믐 물끼엔 헌 건 ᄃᆞᆯ이 구물면은 막 그믐날은 물이 ᄇᆞ싹 싸는 거. 또 보름날 뒈민 물이 바짝 싸는 거. 또 보름 넘어사가민 ᄎᆞᄎᆞᄎᆞᄎᆞ 물이 떨어졍 조금 들어 가는 거.(그믐 물때라고 한 건 달이 저물면 막 그믐날은 물이 바짝 써는 거. 또 보름날 되면 물이 바짝 써는 거. 또 보름 넘어가면 차차차차 물이 떨어져서 조금 밀어가는 거.)

105006 @ 응.(응.)

105006 # 겨민 스무사흘 한줴기. 옛날 말로 스무사흘 한줴기. 스무사흘 뒈민 들도 싸도 안허는 거라이.(그러면 스무사흘 조금. 옛날 말로 스무사흘 조금. 스무사흘 되면 밀지도 써지도 않는 거야.)

105006 @ 아, 스무사흘은 혼조기.(아, 스무사흘은 조금.)

105006 # 응. 음력으로 스무사흘이 한조금.(응. 음력으로 스무사흘이 조금.)

105006 @ 음력으로 스무사흘이 한조금.(음력으로 스무사흘이 조금.)

105006 # 응, 또 음력으로 초여드레가 한조금. 팔일.(응, 또 음력으로 초여드레가 조금, 팔일.)

105006 @ 팔일이 한조금.(팔일이 조금.)

105006 # 응, 혼 둘에 두 번이라.(응, 한 달에 두 번이야.)

105006 @ 이게 젤 물 안 싸는 거?(이게 젤 물 안 써는 거?)

105006 # 응, 그것이 한조금날이 물 젤 안 싸는 거. 들도 싸도 안허는 거 이거.(응, 그것이 조금날이 물 젤 안 써는 거. 밀지도 써지도 않는 거 이거.)

105006 @ 십오일하고 그믐이 물 젤 많이 싸는 거예?(십오일하고 그믐이 물 젤 많이 써는 거요?)

105006 # 응, 보름날이 젤 최고 싸는 거, 그믐날이 최고 싸는 거. 젤 물 잘 싸는 날이 그믐날, 보름날.(응, 보름날이 젤 최고 써는 거, 그믐날이 최고 써는 거. 젤 물 잘 써는 날이 그믐날, 보름날.)

105006 @ 응. 이거 혼물, 두물 영 헙니까?(응. 이거 한물, 두물 이렇게 합니까?)

105006 # 응. 보름이민 일곱물.(응. 보름이면 일곱물.)

105006 @ 보름이 일곱물. 그다음에.(보름이 일곱물. 그다음에.)

105006 # 또 그믐이 일곱물.(또 그믐이 일곱물.)

105006 @ 그믐이 일곱물. 물 안 싸는 날은 멧 물이라?(그믐이 일곱물. 물 안 써는 날은 몇 물이야?)

105006 # 스무사흘날. 한조금이라고 그때가 젤 물 안 싸는 거. 스무사흘이, 또 초여드레. 그디가 물 원 안 싸는 거.(스물사흗날. 조금이라고 그때가 젤 물 안 써는 거. 스물사흘이, 또 초여드레. 거기가 물 원 안 써는 거.)

105006 @ 응. 그때는 멧 물이엔은 안 골아?(응. 그때는 몇 물이라고 안 말해?)

105006 # 혼물, 두물 안헤영 오늘은 아끈줴기 낼은 한줴기.(한물, 두물 안해서 오늘은 '아끈줴기' 낼은 한조금.)

105006 @ 아끈줴긴 뭐꽈?('아끈줴기'는 뭡니까?)

105006 # 일렛날은 물이 쪼끔 싸네. 그때허곡 요거. 한조기날은 물 들도 싸도 안헌 날이라.(이렛날은 물이 조금 써네. 그때하고 요거. 조금날은 물 밀지도 써지도 않은 날이야.)

105006 @ 거난 아끈줴기는 한조금 바로 전날?(그러니까 '아끈줴기'는 조금 바로 전날?)

105006 # 응, 전날. 게난 요거 이틀은 물 들도 싸도 안허는 날.(응, 전날. 그러니까 요거 이틀은 물 밀지도 써지도 않는 날.)

105006 @ 이 날은 뭐 못잡겟구나예?(이 날은 뭐 못 잡겠군요?)

105006 # 응. 게난 서물날부떠 이 해녀들 물에 들어도. 서물날부떠 허민 이제 초여드레가 한조기, 아흐레날, 열흘, 열ᄒᆞ루부떠는 물질을 시작허는 거라. 서물날부떠, 열ᄒᆞ룻날부떠.(응. 그러니까 서무날부터 이 해녀들 물에 들어도. 서무날부터 하면 이제 초여드레가 조금, 아흐레, 열흘, 열하루부터는 물질을 시작하는 거야. 서무날부터, 열하룻날부터.)

105006 @ 열ᄒᆞ룻날부터. 그게 서물, 그때부터 물질 시작허는 거.(열하룻날부터. 그게 서물, 그때부터 물질 시작하는 거.)

105006 # 응.(응.)

105006 @ 팔일이 한물이구나게. 구일이 두물, 아 아니네.(팔일이 한물이구나. 구일이 두물, 아 아니네.)

105006 # 아니, 구일이 ᄒᆞᆫ물.(아니, 구일이 한물.)

105006 @ 구일이 ᄒᆞᆫ물. 십일이 두물.(구일이 한물. 십일이 두물.)

105006 # 두물.(두물.)

105006 @ 십일일이 세물.(십일일이 세물.)

105006 # 응.(응.)

105006 @ 십이일, 십삼일, 십사일, 삼사오륙칠 거믄 보름이 일곱물예.(십이일, 십삼일, 십사일, 십사오육칠 그러면 보름이 일곱물요.)

105006 # 응, 보름이 일곱물.(응, 보름이 일곱물.)

105006 @ 십육일은?(십육일은?)

105006 # 또 ᄒᆞᆫ 물끼는 스물사흘이 한조금이라이.(또 한 물때는 스무사흘이 조금이야.)

105006 @ 응. 스물사흘이 한조금.(응, 스물사흘이 조금.)

105006 # 스무나흘이 ᄒᆞᆫ물, 스무닷새가 두물, 스무엿새민 서물.(스무나흘이 한물, 스무닷새가 두물, 스무엿새면 서물.)

105006 @ 아, 스물사흘이 한조금이난 스무나흘이 ᄒᆞᆫ물, 이십오 일이 두물, 이십육 일이 서물예.(아, 스무사흘이 조금이니까 스무나흘이 한물, 이십오 일이 두물, 이십육 일이 서물요.)

105006 # 응, 경헹 세영 딱 보름 뒈민 일곱물이라이.(응, 그래서 세어서 딱 보름 되면 일곱물이야.)

105006 @ 보름 뒈민 일곱물예.(보름 되면 일곱물요.)

105006 # 응, 십오일 뒈민 일곱물.(응, 십오일 되면 일곱물.)

105007 @ 예, 게민 아 옛날에 원담이엔 헌 것도 혜근에 궤기 잡아낫수과?(예, 그러면 아 옛날에 '원담'이라고 한 것도 해서 고기 잡았었습니까?)

105007 # 아, 원담[132]이엔 헌 건이 바당에 강 영 늙은 하르방덜 그자 고기 못 나끄

민 강 영 둘러낫어. 담을 다와서이. 노프게도 안 다와. 요만은 다우민 물끼에 고기가 들어오민 나가질 못허는 거라이. 견디 그것도 어느 때 들어오느냐면 그 원에도 아무 때나 고기 안 들어. 엿날엔 멜을 잘 들어. 멜 들엉 그 멜 조름 쪼차오는 게 그 원 다왕 놔두민 그 멜 조름 쪼창 들어온 땐 고기들 하영 잡아. 원 다왓다근에.(아, '원담'이라고 한 건 바다에 가서 이렇게 늙은 할아버지들 그저 고기 못 낚으면 가서 이렇게 둘렀었어. 담을 쌓아서. 높게도 안 쌓아. 요만큼 쌓으면 물때에 고기가 들어오면 나가질 못하는 거야. 그런데 그것도 어느 때 들어오느냐면 그 '원'에도 아무 때나 고기 안 들어. 옛날엔 멸치 잘 들어. 멸치 들어서 그 멸치 뒤에 쫓아오는 게 그 '원' 쌓아서 놔두면 그 멸치 뒤에 쫓아서 들어온 땐 고기들 많이 잡아. '원' 쌓아서.)

105007 @ 원 다왓다근에.('원' 쌓아서.)

105007 # 원이엔 헌 거 그거. 원담 다왕, 원담 다왕, 거 고기 잡는 하르방덜이 이디도 엿날 하르방 이선 죽어빗주마는 그 하르방 우리 두릴 때 보민 원담 다우레 간. 원담 다왕 뭐헐 거꽈 허민 물이 물르민 고기 들어오민 잡을 거 아냐 허멍 이디도 요 저디 산 것이엔 헌디 느랑 원담 다와낫어. 하르방이 경허단 이젠 안혀부난 그것도 막 헤싸져부난 어디 원담 다와난 것도 몰르고, 경.('원'이라고 한 거 그거. '원담' 쌓아서, '원담' 쌓아서, 그거 고기 잡는 할아버지들이 여기도 옛날 할아버지 있어서 죽어버렸지마는 그 할아버지 우리 어릴 때 보면 '원담' 쌓으러 갔어. '원담' 쌓아서 뭐할 겁니까 하면 물이 마르면 고기 들어오면 잡을 거 아니냐 하면서 여기도 요 저기 '산것'이라고 한 데 늘 '원담' 쌓았었어. 할아버지가 그러다가 이젠 안 해버리니까 그것도 막 허물어져버리니까 어디 '원담' 쌓았던 것도 모르고, 그렇게)

105007 @ 게난예.(그러니까요.)

105007 # 응, 겡헷당 고기들 들어오민 잇다근에 하영은 못 봉가도 멧 개씩. 잇당 멜 조름에 들어온 땐 하영 봉그고 멜 아니 든 땐 어떵허당 하르방이 영 가다오다 물끼에 강 보민 잇당 멧 개씩 봉가와.(응, 그랬다가 고기들 들어오면 있다가 많이는 못 주워도 몇 개씩. 있다가 멸치 뒤에 들어온 땐 많이 줍고 멸치 안 든 땐 어쩌다가 할아버지가 이렇게 가다오다 물때에 가서 보면 있다가 몇 개씩 주워와.)

105007 @ 그건 어떵 손으로 잡아, 채로 건져?(그건 어떻게 손으로 잡아, 채로 건져?)

105007 # 거시기 구물 헤여근에 영. 그것ᄀᆞ라 족바디, 족바디 헹 영(거시기 그물 해서 이렇게. 그것보고 뜰채, 뜰채 해서 이렇게.)

105007 @ 족바디?(뜰채?)

105007 # 응. 남 영 오그렁 뱅동글랑허게 허영 ᄉᆞ랑허게 허영 그물 헤영 걸로 멘들아. 멘들앙 강 영.(응. 나무 이렇게 오그려서 동그랗게 해서 길쭉하게 해서 그물 해서 그걸로 만들어. 만들어서 가서 이렇게.)

105007 @ 거려?(떠?)

---

132) '원담'은 해안가에 만을 이루는 곳에 돌담을 두르고 밀물을 따라 몰려든 고기떼를 썰물 때 그 안에 가둬 놓아 잡을 수 있게 만든 장치다. 지역에 따라서 '갯담', '원'이라고도 한다.

105007 # 거려, 거려. 게안허민 손으론 못 심지.(떠, 떠. 그렇지 않으면 손으로는 못 잡지.)

105007 @ 게난 손으로 못 심지. 족바디?(그러니까 손으로 못 잡지. 뜰채?)

105007 # 응, 족바디 그게.(응, 뜰채 그게.)

105007 @ 멜은 어떵 잡아낫수과?(멸치는 어떻게 잡았었습니까?)

105007 # 멜도 그런 걸로. 족바디엔 헌 건 나무나 경 아니민 대, 왕대 잇잖아이. 왕댈 영 큰 왕대허여근에 영 벌르는 거라이.(멸치도 그런 걸로. 뜰채라고 한 건 나무나 그렇지 않으면 대, 왕대 있잖아. 왕대를 이렇게 큰 왕대해서 이렇게 쪼개는 거야.)

105007 @ 응.(응.)

105007 # 벌렁 벳디 놔두민 이것이 반쯤은 ᄆᆞ르민 홀랑홀랑허여이, 대가이.(쪼개서 볕에 놔두면 이것이 반쯤은 마르면 흘렁흘렁해, 대가.)

105007 @ 응.(응.)

105007 # 홀랑홀랑허민 그 댈 오그리는 거라. 뱅허게 오그렁 요영 오그렁 욜론 영 벌리고 욜론 오그렁 흔 밧듸레 졸라 무끄는 거라. 영 질게 손젭이에.(흘렁흘렁하면 그 대를 오그리는 거야. 뱅하게 오그려서 요렇게 오그려서 요리로는 이렇게 벌리고 요리로는 오그려서 한 군데 졸라 묶는 거야. 이렇게 길게 손잡이에.)

105007 @ 예.(예.)

105007 # 겡 것에 구물허영 강 그걸로 가근에 그것도 요영헌 디, 또 노 ᄒᆞ나 허영 욜로 졸라 무끄고 요레 ᄯᆡᆼ기는 거 헤여이. 영 물알로 강 고길 거리민 이 노를 영 ᄃᆞᆼ겨사 영 올라올 거 아니?(그래서 그것에 그물해서 가서 그걸로 가서 그것도 요렇게 한 데, 또 노 하나 해서 요리로 졸라 묶고 요리 당기는 거 해. 이렇게 물밑으로 가서 고기를 잡으면 이 노를 이렇게 당겨야 이렇게 올라올 거 아니?)

105007 @ 예.(예.)

105007 # 경헤영 그걸로 강 멜도 거리고 고기도 올라오민 그걸로 강 영 거리고 경허는 거. 것이 족사들.(그래서 그걸로 가서 멸치도 뜨고 고기도 올라오면 그걸로 가서 이렇게 뜨고 그렇게 하는 거. 그것이 '족사들'.)

105007 @ 족바디 아니고?('족바디' 아니고?)

105007 # 족바디엔도 ᄀᆞᆫ고 우린 옛날엔 족사들. 사들이엔 ᄀᆞᆯ아난.('족바디'라고도 말하고 우린 옛날엔 '족사들'. 사둘이라고 말했었어.)

105007 @ 족사들?('족사들'?)

105007 # 응, 우리 두린 때 아이고 족사들 아젼간덜 막 거렵시녜. 족바디엔 안헹 족사들 아졍강 멜 거렴저, 무신 고기도 간 거려왓저, 그거라.(응, 우리 어린 때 아이고 '족사들' 가져가서들 막 잡잖아. '족바디'이라고 안 해서 '족사들' 가져가서 멸치 잡는다, 무슨 고기도 가서 잡아왔지, 그거야.)

105009 @ 응, 옛날에 멜은 그냥 들어오는 거 ᄒᆞ꼼씩만 거리는 거꽈? 저 조천드렌 막 하영 들어와낫덴 헨게마는.(응, 옛날엔 멸치는 그냥 들어오는 거 조금씩만 잡는 겁니까? 저 조천쪽엔 아주 많이 들어왔었다고 하던데.)

105009 # 옛날은 배로 헤여근에 이 조천드레 어드레 헷주마는 이딘 들어온 멜 베끤 배로 멜 거릴 디가 엇어. 이딘 문 여파당[133]이라부난.(옛날은 배로 해서 이 조천으로 어디로 했지마는 여긴 들어온 멸치밖에 배로 멸치 잡을 데가 없어. 여긴 모두 '여파당'이라서.)

105009 @ 무신 바당?(무슨 바다?)

105009 # 여바당이라부난 여 하부난.(여바다라서 여가 많아서.)

105009 @ 아, 여가 하부난.(아, 여가 많으니까.)

105009 # 응, 몰래가 하야 뒈는데 그전이 저 표선인 가민 멜 거려낫어. 그 몰래 판으로 멜 강 둥겨와. 막 멜 둥기는 소리가 웨여근에 들을 만허여.(응. 모래가 많아야 되는데 그전에 저 표선에 가면 멸치 잡았었어. 그 모래사장으로 멸치 가서 당겨와. 막 멸치 당기는 소리를 외쳐서 들을 만해.)

105009 @ 아, 남원인 그게 바당이.(아, 남원은 그게 바다가.)

105009 # 이디 바당이 문 여라노난이 어디 フ듸라도 모살 판데기가 엇어, 이디. 경헤노난.(여기 바다가 모두 여라서 어디 바닷가에라도 모래판이 없어, 여기. 그러니까.)

105009 @ 게난 멜을 못 허는구나예?(그러니까 멸치를 못 하는군요?)

105009 # 조천쪽드레 어딘이 바당이 몰래 바당이 하거든. 겨난 이디도 저 표선이 가민 그 몰래 바당에, 엿날에 멜 거려낫어, 그디서.(조천쪽으로 어딘 바다가 모래 바다가 많거든. 그러니까 여기도 저 표선에 가면 그 모래 바다에, 옛날에 멸치 잡았어, 거기서.)

105009 @ 배로 헹 몰앙예?(배로 해서 몰아서요?)

105009 # 몰앙와근엥에 フ듸 오랑 막 둥겨근에 멜덜 거려낫어. 이딘 그런 거 엇어.(몰아와서 바닷가에 와서 막 당겨서 멸치들 잡았었어. 여기 그런 거 없어.)

105009 @ 이딘 그런 거 엇어예.(여긴 그런 거 없어요.)

105009 # 어떵허다근에 멜 フ듸 들어오라근에 허민 그런 거나 봉가당 먹고. 경허민 멜 들어왓젠 허민 물싸가민 돌고망에 문 박아진 거 돌 일르멍 우리 줏어와난.(어떻게 하다가 멸치 바닷가에 들어오라고 하면 그런 거나 주워다가 먹고. 그렇게 하면 멸치 들어왔다고 하면 물써면 돌구멍에 모두 박힌 거 돌 일으키면서 우리 주워왔었어.)

105009 @ 돌 일르멍 무신걸 줏어?(돌 일으키면서 무엇을 주워?)

105009 # 그 멜.(그 멸치.)

105009 @ 멜을.(멸치를.)

105009 # 응. 물끼쯤은 물 솜빡헌[134] 디 물싸불민 멜이 다 나가지 못헹 막 돌고망마다 영헌 요만썩 헌 물통마다 나가지 못헹 들어온 게 잇어. 겨민 그거 막 줏어.(응. 물때쯤은 물 '솜빡'한 데 물써면 멸치가 다 나가지 못해서 막 돌구멍마다 이렇게 한 요만큼씩 한 물통마다 나가지 못해서 들어온 게 있어. 그러면 그거 막 주워.)

105009 @ 아, 아까 원에 강 허는 게 아니고 그냥 바당에도 막.(아, 아까 '원'에 가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바다에도 막.)

---

133) '여파당'은 물속에 잠겨 보이지 않는 바위가 많은 바다로 '여+바당'으로 만들어진 말이다.

134) '솜빡허다'는 물건이 가득하게 많이 담겨 있거나 쌓여 있다는 뜻이다.

105009 # 원에 허는 건 그 원 단 사름이 경 ᄆᆞ음대로 못 잡게 허메.(‘원’에 하는 건 그 ‘원’ 쌓은 사람이 그렇게 마음대로 못 잡게 해.)

105009 @ 아, 그냥 ᄒᆞ꼼 영 물 골른 디 가근에.(아, 그냥 조금 이렇게 물 고인 데 가서.)

105009 # 응, 골르는 디 그 원 안 다운 디 강 ᄒᆞ꼼썩 돌 트멍에도 접져지곡 영헌 쪼끄만헌 동글락 동글락헌 통에도 멧 개썩 허고 허민 그런 거 봉가낫주, 원 다운 디선 우리 못 허여.(응, 고인 데 그 ‘원’ 안 쌓은 데 가서 조금씩 돌 틈에도 끼어있고 이렇게 한 조그마한 동그란 동그란 통에도 몇 개씩 하고 하면 그런 거 주웠었지, ‘원’ 쌓은 데선 우리 못 해.)

105009 @ 아.(아.)

105009 # 원 다운 임제가 잇어부난.(‘원’ 쌓은 임자가 있어버리니까.)

105010 @ 궤기는 어떵헹 나깐마씨? 건 남자덜 허는 건가?(고기는 어떻게 해서 낚았어요? 그건 남자들 하는 건가?)

105010 # 응, 건 남저덜 허는 거. 여저덜은 그런 고기 안 나까봐서, 여기. 이제난 여저덜도 막 춤대 헹 강 고기 나끄지. 엿날엔 그런 거 엇어.(응, 그건 남자들 하는 거. 여자들은 그런 고기 안 낚았었어, 여기. 이제니까 여자들도 막 낚싯대 해서 가서 고기 낚지. 옛날엔 그런 거 없어.)

105010 @ 궤기 나끄는 건 남저덜만.(고기 낚는 건 남자들만.)

105010 # 남저덜만.(남자들만.)

105011 @ 낚싯대 같은 거 헤근에 헤여?(낚싯대 같은 거 해서 해?)

105011 # 낚싯대로 아녕 술. 막 질, 흔, 흔 서른 발씩 헹 가근에 그놈으 이디서 미녕실로 헹 노 어디 강 사드근에 그걸 막 감 밍기는 거라이. 감 밍겨놓민 이 술이 빠닥헤여. ᄆᆞᆯ랑ᄆᆞᆯ랑허질 안허고.(낚싯댈 안하고 줄. 아주 길, 한, 한 서른 발씩 해서 가서 그놈의 여기서 무명실로 해서 노 어디 가서 사다가 그걸 막 감 뭉개는 거야. 감 뭉겨놓으면 이 줄이 빳빳해. 말랑말랑하지 않고.)

105011 @ 감 밍기는 건 뭐?(감 뭉개는 건 뭐?)

105011 # 그 술이.(그 줄이.)

105011 @ 뭐 멕이는 거?(뭐 먹이는 거?)

105011 # 감물을 멕이는 거라.(감물을 먹이는 거야.)

105011 @ 아, 술에.(아, 줄에.)

105011 # 응, 고깃술에 감물을 멕이면 이 그 고깃술이 빠닥빠닥 세는 거라이. 세민 그거 아졍강 멀리 가근에 배 탕 가민 갈치 그거 나까오는 거. 그거 허주, 이 ᄀᆞᆺ듸 고기는 춤대 요만썩 헌 걸로 무시거 젠젠헌 거, 요만썩헌 궤기 그런 거벳긔 안 올라오주.(응, 낚싯줄에 감물을 먹이면 이 그 낚싯줄이 빳빳 세는 거야. 세면 그거 가져가서 멀리 가서 배 타서 가면 갈치 그거 낚아오는 거. 그거 하지, 이 바닷가 고기는 낚싯대 요만씩 한 걸로 무엇 자잘한 거, 요만큼씩 한 고기 그런 거밖에 안 올라오지.)

105011 @ 낚시대는, 춤대 허는 거는 대낭으로 허는 거지예?(낚싯대는, 낚싯대 하는

거는 대나무로 하는 거지요?)

105011 # 대낭으로 헤영 이디서만 허고, 그 술 경허민 이건 흔 ᄉᆞ십 발 허여이. 갈치 나까오는 거 엿날에. 흔 사십 발 허여근에 술 빠짝허게 허젠 허민 감 뭉기민 감이 바짝바짝 세잖아이.(대나무로 해서 여기서만 하고, 그 줄 그렇게 하면 이건 한 사십 발 해. 갈치 낚아오는 거 옛날에. 한 사십 발 해서 줄 바짝하게 하려고 하면 감 뭉개면 감이 바짝바짝 세잖아.)

105011 @ 감은 선 걸로?(감은 선 걸로?)

105011 # 응, 선 거. 선 걸로 허민 감 들여놓민.(응, 선 거. 선 걸로 하면 감 들여 놓으면.)

105011 @ 옷에 물들이는 거추룩예?(옷에 물들이는 거처럼요?)

105011 # 응. 바짝바짝 세여이. 세민 그거 사령 가근엥에 막 술 막 놀려근에 배 저레.(응. 바짝바짝 세어. 세면 그거 사려서 가서 막 줄 막 움직여서 배 저리.)

105011 @ 가운데 중간중간에 낚시 바농을 끼우는 거라.(가운데 중간중간에 낚시 바늘을 끼우는 거야.)

105011 # 아니 끗겡이 하나에 낚시 두 개 걸어 메어.(아니 끄트머리 하나에 낚시 두 개 걸어 매.)

105011 @ 아, 그 술에 낚시 두 개.(아, 그 줄에 낚시 두 개.)

105011 # 경헤영 막 널리 흘려근에 놔둬. ᄒᆞ꼼 배 나가멍 흘령 다 흘려지민 ᄀᆞ만이 앚앗다근에 술을 ᄃᆞᆼ기면 어떵허당 갈치 들어올 때는 많이 나깡 오고 경 아니민 ᄒᆞ나 두 개 나깡 오는 사름. 경 아니민 펀찍 못 나깡 오는 사름 경허여.(그래서 막 널리 흘려서 놔둬. ᄒᆞ꼼 배 나가면서 흘려서 다 흘려지면 가만히 앉았다가 줄 당기면 어떻게 하다가 갈치 들어올 때는 많이 낚아서 오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 두 개 낚아서 오는 사람. 그렇지 않으면 '펀찍' 못 낚아서 오는 사람 그렇게 해.)

105011 @ 그건 춤대 엇이 그냥 허는 거 아니?(그건 낚싯대 없이 그냥 하는 거 아니?)

105011 # 춤대 엇이 허는 거. 춤대 엇이 그건 허는 거. 요즘은 갈치도이 ᄑᆞ는 춤대들 잇잖아이.(낚싯대 없이 하는 거. 낚싯대 없이 그건 하는 거. 요즘은 갈치도 파는 낚싯대들 있잖아.)

105011 @ 예.(예.)

105011 # 그런 거 헹 강 갈치도 나깡 오고, 고등에도 나까 오고, 다 헴주만은 엿날엔 그런 것이 엇엇어.(그런 거 해서 가서 갈치도 낚아 오고, 고등어도 낚아 오고, 다 하고 있지만 옛날은 그런 것이 없었어.)

105011 @ 응. 게민 낚시, 보통 낚시줄은 아까 그추룩 헤근에 미녕으로 아까?(응. 그러면 낚시, 보통 낚싯줄은 아까 그렇게 해서 무명으로 아까?)

105011 # 미녕실로 헤영.(무명실로 해서.)

105011 @ 미녕실로 감 밍겡예?(무명실로 감 뭉개서요?)

105011 # 경헤영 감 밍겡은에 바짝바짝 세게 헤사 경헤사.(그렇게 해서 감 뭉개서

바짝바짝 세게 해야 그렇게 해야.)

105011 @ 옛날에, 지금은 낚시줄 나이롱 줄 헴주만은 옛날은 그걸로 헷구나예?(옛날에, 지금은 낚싯줄 나일론 줄 하고 있지만 옛날은 그걸로 했군요?)

105011 # 그런 것이 그것이 엇어. 그런 것이 엇어.(그런 것이 그것이 없어. 그런 것이 없어.)

105011 @ 낚시 바농은 어떵 멘드는 거?(낚시 바늘은 어떻게 만드는 거?)

105011 # 바농은 간 어디사 간 멘드는 디, 거는 사와.(바늘은 가서 어디 가서 만드는데, 거는 사와.)

105011 @ 사와.(사와.)

105011 # 갈치 낚시는 질어. 이만큼헌 거 요영 오그라진 거. 이만큼 질어. 갈치나끄는 뽕돌은이 이만은 허여, 커.(갈치 낚시는 길어. 이만큼 한 거 요렇게 오그라진 거. 이만큼 길어. 갈치 낚는 봉돌은 이만큼 해, 커.)

105011 @ 아.(아.)

105011 # 또 어렝이 뽕돌은 요만씩벳긔 안허고. 어렝이 나끄는 거.(또 어렝놀래기 봉돌은 요만큼씩밖에 안하고. 어렝놀래기 낚는 거.)

105011 @ 어렝이 뽕돌은.(어렝놀래기 봉돌은.)

105011 # 줄아.(잘아.)

105011 @ 줄아. 응.(잘아. 응.)

105011 # 요만썩 헌 거 이디 대 저 잇잖아, 수리대. 그거 헹 강 허는 거난 영 그것에 줄라멩 놔둬도 고기가 물민 고기가 쫑끗쫑끗허민 딩기는 거라 이디서이. 막 게민 엿날엔 저 웃드르선이 어렝이 나끄레 이디 물끼 나가민 막 하영 와.(요만큼씩 한 거 여기 대 저 있잖아, 이대. 그거 해서 가서 하는 거니까 이렇게 그것에 졸라매서 놔둬도 고기가 물면 고기가 쫑끗쫑끗하면 당기는 거야 여기서. 막 그러면 옛날엔 저 중산간에선 어렝놀래기 낚으러 여기 물때 돼 가면 아주 많이 와.)

105011 @ 아.(아.)

105011 # 막 하영 와. 엿날에 고기가 어려우난 걸로 멩질도 헤 먹고 제스도 헤먹고 어렝이 나까단.(아주 많이 와. 옛날에 고기가 어려우니까 그걸로 명절도 해서 먹고 제사도 해먹고 어렝놀래기 낚아다가.)

105011 @ 주로 어렝이만 나까? 다른 건 안 나까져?(주로 어렝놀래기만 낚아? 다른 건 안 낚여?)

105011 # 어렝이, 어렝이 나끄고 것에 소망 일엉 우럭도 올라오민 우럭도 나끄고, 경허는.(어렝놀래기, 어렝놀래기 낚고 그것이 사망 일어서 우럭도 올라오면 우럭도 낚고, 그러는.)

105012 @ 작살로 고기 잡으는 거는?(작살로 고기 잡는 거는?)

105012 # 건 해녀덜.(그건 해녀들.)

105012 @ 옛날에도 헤난?(옛날에도 했었어?)

105012 # 요즘은 그런 거 벨로 엇어. 허긴 헤도 하지 아녀. 그전인 보민 해녀들마다

그 작살 아졍 뎅겨. 대 이만은 헌 거 ᄒᆞ나 헤여근에 고무줄 딱 졸라 메영 고기 저만이 봐지민 고무줄을 싹 늦촤. 고무줄 늦촹 강 고기 발라 강 작살 영 대영 고무줄 출락 내불민 그때는 그 고기가 맞는 거라. 소망 일민. 경헹 고기 쏩는 거, 그거. 작살로 쏩는 거.(요즘은 그런 거 별로 없어. 하긴 해도 많지 않아. 그전엔 보면 해녀들마다 그 작살 가지고 다녀. 대 이만큼 한 거 하나 해서 고무줄 딱 졸라 매서 고기 저만큼 보이면 고무줄을 싹 늦춰. 고무줄 늦춰서 가서 고기 방향으로 가서 작살 이렇게 대어서 고무줄 '출락' 내버리면 그때는 그 고기가 맞는 거야. 사망 일면. 그래서 고기 쏘는 거, 그거. 작살로 쏘는 거.)

105012 @ 아, 옛날에 작살로 해녀들 고기 잡아낫구나예.(아, 옛날에 작살로 해녀들 고기 잡았었군요.)

105012 # 해녀들 물에 들레 가멍. 완전 엿날에 그거 엇어나고 요 중간에.(해녀들 물에 들어가려고 가면서. 완전 옛날에 그거 없었었고 요 중간에.)

105012 @ 중간에.(중간에.)

105012 # 완전 엿날엔 그런 게 어디 서서? 겨난 중간에 그거 낭 고기 쏘아 가난 아이고 요즘은이 해녀들 다 고기 쏘아 오랑 먹고. 돈에 뭣에 드느니, 드느니? 헤도 또 요즘은 또 그거 쏩는 사름은 쏘고 고동만 줍젠 허지.(완전 옛날엔 그런 게 어디 있었어? 그러니까 중간에 그거 나서 고기 쏘아 가니까 아니고 요즘은 해녀들 다 고기 쏘아 와서 먹고. 돈에 무엇에 드니, 드니? 해도 또 요즘은 또 그거 쏘는 사람은 쏘고 소라만 주우려고 하지.)

105013 @ 궤깃배는 어떤 종류 잇어마씨, 궤기 잡으레 가는 배.(고깃배는 어떤 종류 있어요, 고기 잡으러 가는 배.)

105013 # 궤기 잡으레 가는 건 지금은 ᄆᆞᆫ 발동기잖아이.(고기 잡으러 가는 건 지금은 모두 발동기잖아.)

105013 @ 옛날에.(옛날에.)

105013 # 엿날엔 풍선배라고이.(옛날엔 풍선이라고.)

105013 @ 응.(응.)

105013 # 사름이 경허난 엿날엔 바당에서 많이 죽어이 사람이. ᄇᆞ름 불민 이 배돗이엔 헌 건이 천이라 영. 천에다가 영 대 세와근에 그것에 고망 뚤라근에 그 풍선에 영 배돗, 배돗 허멍 그것에 ᄇᆞ름이 부떠사 배가 짤짤짤짤 나가주게. 잇당 이 테레비 보민 잇잖아.(사람이 그러니까 옛날엔 바다에서 많이 죽어 사람이. 바람 불면 이 돛이라고 한 건 천이야 이렇게. 천에다가 이렇게 대 세워서 그것에 구멍 뚫어서 그 풍선에 이렇게 돛, 돛 하면서 그것에 바람이 붙어야 배가 잘잘잘잘 나가지. 있다가 이 텔레비전 보면 있잖아.)

105013 @ 예, 잇어마씨.(예, 있어요.)

105013 # 그추룩 헌 거라.(그렇게 한 거야.)

105013 @ 돗단배.(돛단배.)

105013 # 그런 거라. 배돗, 배돗 허는 게.(그런 거야. 돛, 돛 하는 게.)

105013 @ 뱃옷? 옷?(배 옷? 옷?)

105013 # 아니, 옷이 아니고 돗.(아니, 옷이 아니고 돛.)

105013 @ 아, 배돗. 응.(아, 돛. 응.)

105013 # 게민 그거 들앙 먼 바당에 강 고기 나까근에 그 생성들 나깡 오젠 허당 보민 ᄇᆞ름이나 불민 오지 못헹 바당에서 죽는 사름 하, 엿날에.(그러면 그거 달아서 먼 바다에 가서 고기 낚아서 그 생선들 낚아 오려고 하다가 보면 바람이나 불면 오지 못해서 바다에서 죽는 사람 많아, 옛날에.)

105023 @ 배돗은 게난 ᄒᆞ나만 달아?(돛은 그러니까 하나만 달아?)

105023 # 두 개.(두 개.)

105023 @ 두 개.(두 개.)

105023 # 앞이 족은 거, 뒤엔 큰 거 헹 두 개 들아낫어.(앞에 작은 거, 뒤엔 큰 거 해서 두 개 달았었어.)

105023 @ 앞이 족은 거 하나, 뒤에 큰 거 하나 헤근에 두 개, 응. 게민 이런 돗단배는 무신거엔 골아?(앞에 작은 거 하나, 뒤에 큰 거 하나 해서 두 개, 응. 그러면 이런 돛단배는 뭐라고 말해?)

105023 # 풍선.(풍선.)

105023 @ 풍선. 이런 배 말고 다른 밴 엇어? 돗 엇인 거.(풍선. 이런 배 말고 다른 배는 없어? 돛 없는 거.)

105023 # 돗 엇인 건 요새 뗌메나 아니곡 발동기나 아니민 그런 배 엇어.(돛 없는 건 요새 거룻배나 아니고 발동기나 아니면 그런 배 없어.)

105022 @ 테우 이런 건?(떼 이런 건?)

105022 # 테우?(떼?)

105022 @ 떼배? 그냥 낭 영 싸근에.(떼? 그냥 나무 이렇게 잘라서.)

105022 # 아, 그건 테우.(아, 그건 떼.)

105022 @ 응, 테우.(응, 떼.)

105022 # 응, 그건 낭만 이추룩헌 낭 요추룩 놔, 요추룩. 조근조근조근 놩 일로 고망 뚤라근에 요 고망 ᄒᆞ쏠 뚤르고 요레 고망 뚤르곡 헤영 요레 남 영 놩 요영헹 똑 헹 마께로 두드렁 요추룩 헹 줴왕이.(응, 그건 나무만 이렇게 한 나무 요렇게 놔, 요렇게. 차근차근차근 놔서 이리로 구멍 뚫어서 요 구멍 조금 뚫고 요 구멍 조금 뚫고 요리 구멍 뚫고 해서 요리 나무 이렇게 놔서 요렇게 해서 꼭 해서 방망이로 두드려서 요렇게 해서 조여.)

105022 @ 응.(응.)

105022 # 경헹 욜론 가민 베로 막 줴와비어, 양펜 끗을. 줴왕 허민 요로 이젠 네라고이 또 그디 무시거 고망 뚤라근에 진진헌 낭 고망 뚤르곡 허영 톡허게 끼왕 젓는 거 이거라, 이거. 네 젓는 거.(그래서 요리로는 가면 바로 막 조여버려, 양편 끝을. 조여서 하면 요리로 이젠 노라고 또 거기 무엇 구멍 뚫어서 긴긴한 나무 구멍 뚫고 해서 톡하게 끼워서 젓는 거 이거야, 이거. 노 젓는 거.)

105022 @ 영 젓어.(이렇게 저어.)

105022 # 영영 젓어. 경헤영 저 바당에 강 자리나 거려오곡 어렝이나 나끄게 뎅김베 뀐 어디 강 고기 나끄레 못 가는 배.(이렇게 이렇게 저어. 그렇게 해서 저 바다에 가서 자리나 잡아오고 어렝놀래기나 낚으러 다니기밖에 어디 가서 고기 낚으러 못 가는 배.)

105013 @ 멀리 가는 건 풍선.(멀리 가는 건 풍선.)

105013 # 멀리 가는 거 아니. 그거 ᄇᆞ름만 불엇다 허민 올라와보지 못허는 거난 쪼금 나가 이레 쪼끔 나강 어렝이 나끄는 거. 엿날에 자리 거리레 요레 ᄒᆞ쏠 나강 거리는 거.(멀리 가는 거 아니. 그거 바람만 불었다 하면 올라와보지 못하는 거니까 쪼금 나가 이리 쪼금 나가서 어렝놀래기 낚는 거. 옛날에 자리 잡으러 요리 조금 나가서 잡는 거.)

105013 @ 응.(응.)

105013 # 경헤도 엿날도 자리 거리레 갓당도 어떵 헹 갈ᄇᆞ름이나 세게 불민 올라와보지 못헤영 죽은 사름이 하. 바당에 강 죽은 사름이 하.(그래도 옛날도 자리 잡으러 갔다가도 어떻게 해서 갈바람이나 세게 불면 올라오지 못해서 죽은 사람이 많아. 바다에 가서 죽은 사람이 많아.)

105013 @ 게난예.(그러니까요.)

105013 # 요즘은 기곗배난 뭐 ᄇᆞ름 세고 아무걸 허고 태풍만 아니 불면은 바당에 가거든. 엿날엔 뭐 원체 날이나 ᄇᆞᆯ민 가고 경 안허민 못 가고.(요즘은 기계배니까 뭐 바람 세고 아무걸 하고 태풍만 안 불면 바다에 가거든. 옛날엔 뭐 원체 날이나 좋으면 가고 그렇지 않으면 못 가고.)

105014 @ 응. 좀수들이 강 바당에 강 헹 오는 것들은 주로 뭐뭐뭐마씨? 옛날에.(응. 잠수들이 가서 바다에 가서 해서 오는 것들은 주로 뭐뭐뭐예요? 옛날에.)

105014 # 엿날엔 기자 고동허고.(옛날엔 그저 소라하고.)

105014 @ 고동.(소라.)

105014 # 셍복.(전복.)

105014 @ 셍복.(전복.)

105014 # 원, 그거주. 미시거 메역헐 때 메역철 나민 메역.(원, 그거지. 무엇 미역할 때 미역 철 나면 미역.)

105014 @ 메역.(미역.)

105014 # 원, 그거주. 무시거 헤영 오는 거 엇어. 소망 일엉 셍복이나 잡는 사름 지픈 디 강 히는 사름 셍복, 그거. 그거나 헹 엿날엔 셍복, 고동, 그거 메역 그것만 헤연 살앗주. 무시거 벨로 헐 것 엇어, 해녀덜. 요즘도 마찬가지 고동 그자.(원, 그거지. 무엇 해서 오는 거 없어. 사망 일어서 전복이나 잡는 사람 깊은 데 가서 헤엄치는 사람 전복, 그거. 그거나 해서 옛날엔 전복, 소라, 그거 미역 그것만 해서 살았지. 무엇 별로 할 것 없어, 해녀들. 요즘도 마찬가지 소라 그저.)

105014 @ 응. 셍복은 것도 재수 존 사름이 강 허는 거주예?(응. 전복은 그것도 재수 좋은 사람이 가서 하는 거지요?)

105014 # 응, 재수 좋앙 눈에 비추민 허고 경 안허민 것도 우리 ᄀᆞ튼 사름은 셍복

ᄒᆞ나 잡아보지 못헤엿어.(응, 재수 좋아서 눈에 비추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것도 우리 같은 사람은 전복 하나 잡아보지 못했었어.)

105014 @ 하하하.(하하하.)

105014 # 것도이 머정[135]이 이신 사름이라야 셍복도 보이주, 경 안허민 안 보여.(그것도 재수가 있는 사람이라야 전복도 보이지, 그렇지 않으면 안 보여.)

105014 @ 머정이 무신거?('머정'이 뭐?)

105014 # 머정이엔 헌 건 어떤 사름은 가면은 ᄀᆞ치 ᄀᆞ치 강 우리가 요디 가근에 돌을 일러도 요펜 사름은 잘 보이는 거라이.('머정'이라고 한 건 어떤 사람은 가면 같이 같이 가서 우리가 요기 가서 돌을 일으켜도 요편 사람은 잘 보이는 거야.)

105014 @ 응.(응.)

105014 # 이펜 사름 ᄒᆞ나도 못 잡는 사름이 잇어.(이편 사람 하나도 못 잡는 사람이 있어.)

105014 @ 맞아, 맞아.(맞아, 맞아.)

105014 # 겨난 이것이 머정이 잇다, 엇다 허는 것이 그거야.(그러니까 이것이 '머정' 있다, 없다 하는 것이 그거야.)

105014 @ 아.(아.)

105014 # 재수가 좋고 궂는 것이. 어뜬 사름은 재수가 좋앙 물에 감만 허민 셍복을 잡고.(재수가 좋고 궂은 것이. 어떤 사람은 재수가 좋아서 물에 가기만 하면 전복을 잡고.)

105014 @ 게난.(그러니까.)

105014 # 어뜬 사름은 암만 ᄀᆞ찌 강 물에 들어도 셍복 하나 구경을 못허는 사름이 잇어. 겨난 것ᄀᆞ라 머정이라고.(어떤 사람은 아무리 같이 가서 물에 들어가도 전복 하나 구경을 못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그것보고 '머정'이라고.)

105014 @ 머정이라고 ᄀᆞᆫ는구나예. 머정 잇덴?('머정'이라고 말하는군요. '머정' 있다고.)

105014 # 응, 머정 이신 사름은 셍복을 잘 잡고 엇인 사름은 못 잡나 그거지.(응, '머정' 있는 사람은 전복을 잘 잡고 없는 사람은 못 잡는다 그거지.)

105015 @ 응. 줌수들이 물질허레 갈 때 무신거 무신거 가졍 가?(응. 잠수들이 물질허러 갈 때 무엇 무엇 가져 가?)

105015 # 지금은?(지금은?)

105015 @ 아니, 옛날에.(아니, 옛날에.)

105015 # 엿날에 무신거 가졍갈 거 엇어.(옛날에 무엇 가지고 갈 거 없어.)

105015 @ 구덕에.(바구니에.)

105015 # 구덕에 그냥 검질 담앙 가근에.(바구니에 그냥 검불 담아서 가서.)

105015 @ 검질 담앙.(검불 담아서.)

105015 # 그걸 왜 검질 담앙, 요즘은이 이 고무옷이 나난 겨울이고 여름이고 고무옷

135) '머정'은 '어떤 일에 있어서의 재수'라는 의미다. '머의', '머젱이'라고 한다.

딱 입엉 가면 이젠 저 수도가 잇곡 전기가 시난 탁 허게 보일라 터근에 해녀들 강 와도 호강이라이. 보일라 탁 텅 더운물 나민 옷 삭 벗어뒁 더운물 작작 치데기멍 모욕을 허지만은 엿날은 요 속곳이엔 헌 거 잇어이. 속곳이엔 헌 거 욜로 요만은 헌 거 입엉 적삼도 엇어, 이디 그자 맨 둑지에. 눈이 오고 아무걸 허고, 아무것도 안 입엉 그냥. 그 눈 팡팡 와도 그것만 입엉 강 그 고동 멧 개 강 줏어 아졍 오민 막 얼엉 닥닥 털어이. 얼민, 털민 그 불 솜아, 츳젠.(그걸 왜 검불 담아서, 요즘은 이 고무옷이 나니까 겨울이고 여름이고 고무옷 딱 입어서 가면 이젠 저 수도가 있고 전기가 있으니까 딱 하게 보일러 틀어서 해녀들 가서 와도 호강이야. 보일러 탁 틀어서 더운물 나면 옷 삭 벗어두고 더운물 작작 끼얹으면서 목욕을 하지만 옛날은 요 속곳이라고 한 거 있어. 속곳이라고 한 거 요리로 요만큼은 한 거 입어서 적삼도 없어, 여기 그저 맨 어깨에. 눈이 오고 아무걸 하고, 아무것도 안 입어서 그냥. 그 눈 팡팡 와도 그것만 입어서 가서 그 소라 몇 개 가서 주워 가져 오면 아주 추워서 덜덜 떨어. 추우면, 떨면 그 불 때, 쬐려고.)

105015 @ 응.(응.)

105015 # 구덕에다가 이제 검질을 흔 구덕썩 담앙 ᄂᆞ려가.(구덕에다가 이제 검불을 한 구덕씩 담아서 내려가.)

105015 @ 응.(응.)

105015 # 게민 우리가 열이민 열 사름이 구덕을 흔 구덕썩 담앙 가민 ᄒᆞ꼼썩 짇으멍 그 불 츳는 거라. 불 솜앙. 츳와사 집이 오주. 경 안허민 얼엉 오질 못허난게.(그러면 우리가 열이면 열 사람이 구덕을 한 구덕씩 담아서 가면 조금씩 때면서 그 불 쬐는 거야. 불 때서. 쬐어야 집에 오지. 그렇지 않으면 추워서 오지 못하니까.)

105015 @ 응.(응.)

105015 # 요즘은이 해녀들 보일라 터어노난 강 더운물에 모욕 삭 허민 몸이 삭삭 풀어점지.(요즘은 해녀들 보일러 틀어놓으니까 가서 더운물에 목욕 싹 하면 몸이 싹싹 풀어지고 있지.)

105015 @ 예.(예.)

105015 # 그거 아니. 엿날엔 물점삼[136]을 입으카. 물적삼이 무시거라, 구경도 못허곡 그자 물옷 ᄒᆞ나 요거 속곳이엔 헹 욜로 요레 헌 거 메친 멘 거 ᄒᆞ나만 입엉 눈 팡팡 와도 해솜 난덴 눈 잘 온 땐 해솜이 나이.(그거 아니. 옛날엔 '물적삼'을 입을까. '물적삼'이 뭐야, 구경도 못하고 그저 물옷 하나 욕 속곳이라고 해서 요리로 요리 한 거 멜빵 맨 거 하나만 입어서 눈 팡팡 와도 해삼 난다고 눈 잘 온 때는 해삼이 나.)

105015 @ 아.(아.)

105015 # 눈 아니 온 때는 해솜도 잘 안 나. 눈 막 많이 온 땐, 야, 올리 해솜 잘 나켜, 눈 하영 오랑. 경.(눈 안 온 때는 해삼도 잘 안 나. 눈 아주 많이 온 땐, 야, 올해 해삼 잘 나겠다, 눈 많이 와서. 그렇게.)

105015 @ 응.(응.)

105015 # 눈 하영 오는 핸 해솜이 잘 나. 그 몰래판에 가면. 경허민 그 해솜 잡젠덜

136) '물적삼'은 제주도 전통 해녀복의 윗옷으로 잠수할 때 물소중이 위에 입는다.

막 강 얼엉 닥닥닥닥 허멍 강 오민 아이고 얼어근에. 눈이 팡팡팡팡 오는디.(눈 많이 오는 해는 해삼이 잘 나. 그 모래판에 가면. 그래면 그 해삼 잡으려고들 막 가서 추워서 닥닥닥닥 하면서 가서 오면 아이고 추워서. 눈이 팡팡팡팡 오는데.)

105015 @ 구덕에 검질 놓고 또.(바구니에 검불 놓고 또.)

105015 # 테왁 놓고.(테왁 놓고.)

105015 @ 테왁 놓고.(테왁 놓고.)

105015 # 경헤영 졍 가는 거, 베로.(그래서 져서 가는 거, 바로.)

105015 @ 이건 테왁이고 밑에 건.(이건 테왁이고 밑에 건.)

105015 # 밑에 건 구덕에.(밑에 건 구덕에.)

105015 @ 망사리?(망사리?)

105015 # 응, 테왁에 돌아메는 거.(응, 테왁에 달아매는 거.)

105015 @ 테왁에 돌아매는 건 망사리.(테왁에 달아매는 건 망사리.)

105015 # 그건 망사리. 망사리 헹 돌아메사게 그디 강 뭐 잡아근에 그레 들이쳐 아졍 오주. 물에 가면.(그건 망사리. 망사리 해서 달아매야 거기 가서 뭐 잡아서 그리 들이뜨려 가져 오지. 물에 가면.)

105015 @ 응. 그거 가지고.(응. 그거 가지고.)

105015 # 테왁은 우리가, 테왁은 우리가 지펑 밀렁 의지허는 거, 우리가. 테왁 엇엉은 휘질 못허난 그거 지퍼근에 테왁 헹 그 망사리에 요만은 허게 헤영 남 오그려이.(테왁은 우리가, 테왁은 우리가 짚어서 밀려서 의지하는 거, 우리가. 테왁 없어서는 헤엄치질 못하니까 그거 짚어서 테왁 해서 그 망사리에 요만큼은 하게 해서 나무 오그려.)

105015 @ 응.(응.)

105015 # 남 오그렁 요만은 헤영은에 그 망사릴 돌아메는 거라.(나무 오그려서 요만큼은 해서 그 망사리를 달아매는 거야.)

105015 @ 응.(응.)

105015 # 돌아메곡 테왁 돌아메민 영 그 대 영 심으민 그 테왁이 영 둥둥 뜨난 그거 의지가 막 크는 거라. 그거 밀려근에 이디도 가곡 저디도 가곡 헴주. 경 안허민 이 튼 손에는 얼마 못 뎅겨. 얼마 못 뎅경 와, 지쳥.(달아매고 테왁 달아매면 이렇게 그 대 이렇게 잡으면 그 테왁이 이렇게 둥둥 뜨니까 그거 의지가 아주 큰 거야. 그거 밀려서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하고 있지. 그렇게 안하면 이 다른 손에는 얼마 못 다녀. 얼마 못 다녀서 와, 지쳐서.)

105015 @ 그다음은 호미나 무신거 들렁 가야헐 거 아니?(그다음은 호미나 무엇 들어서 가야할 거 아니?)

105015 # 메역헐 땐 호미.(미역할 땐 낫.)

105015 @ 메역헐 땐 호미.(미역할 땐 낫.)

105015 # 그 즈음은, 이제 골겡이 다.(그 즈음은, 이제 호미 다.)

105015 @ 아.(아.)

105015 # 쪼그만헌 골겡이 ᄒᆞ나 앗앙강.(쪼그마한 호미 하나 가져가서.)

105015 @ 거 무신 골겡이엔 허여?(그거 무슨 호미라고 해?)

105015 # 무신 골겡이? 요즘 그자 골겡이 허주, 무신 골겡이가 엇어, 골겡이는.(무슨 호미? 요즘 그저 호미 하지, 무슨 호미가 없어, 호미는.)

105015 @ 아, 바당에서 쓰는 골겡이 따론 안 나와?(아, 바다에서 쓰는 호미 따로는 안 나와?)

105015 # 아니 나와.(아니 나와.)

105015 @ 옛날에도 똑같애?(옛날에도 똑같아?)

105015 # 똑ᄀᆞ태. 요즘 골겡인 저 엿날은 검질매는 골겡이 그냥 아젼 뎅겨신디 요즘은 바당에 아졍 뎅기는 거 이디 검질 안 매난 동글랑허게 기자 동글랑허게 요만은 허게 영 오그려진 거, 그거.(똑같아. 요즘 호민 저 옛날은 김매는 호미 그냥 가져 다녔는데 요즘은 바다에 가지고 다니는 거 여기 김 안 매니까 동그랗게 그저 동그랗게 요만은 하게 이렇게 오그라진 거, 그거.)

105015 @ 거 뭐엔 ᄀᆞᆫ는 말은 엇고?(거 뭐라고 하는 말은 없고?)

105015 # 뭐엔 ᄀᆞᆫ는 말 엇어. 골겡이, 골겡이난 그걸로 강 고동이라도 이영헌 트멍에 이시민 손으로 못 빠내민 그거 오벼내는 거.(뭐라고 하는 말 없어. 호미, 호미니까 그걸로 가서 소라라도 이렇게 한 틈에 있으면 손으로 못 빼면 그거 후비는 거.)

105015 @ 셍복 영 허는 거?(전복 이렇게 하는 거?)

105015 # 빗창[137].('빗창'.)

105015 @ 빗창예. 것도 가졍 가살 거 아니? 이신 사름?('빗창'요. 그것도 가져 가야 할 거 아니? 있는 사람?)

105015 # 이신 사름은 가졍 가주.(있는 사람은 가지고 가지.)

105015 @ 물질허레 좀수들 갈 때 구덕에.(물질하러 잠수들 갈 때 바구니에.)

105015 # 다 가졍 가.(다 가져 가.)

105015 @ 구덕에 거난 눈도예.(바구니에 그러니까 물안경도요.)

105015 # 눈도 놓고, 빗창 놓고, 메역헐 땐 호미도 놓고 또 헛물[138]헐 땐 골겡이도 놓고 빗창도 놓고 경헤영 가고 그거주. 무시거 벨 다른 거 아졍 뎅기는 건 엇어. 가민 빗창은 그 셍복이나 하나썩 떼젠 허민 물에 들레 갈 땐 요 구불[139]에 창 가.(물안경도 놓고, '빗창'도 놓고, 미역할 땐 호미도 놓고 또 '헛물'할 땐 호미도 놓고 빗창도 놓고 그렇게 해서 가고 그거지. 무엇 별 다른 거 가지고 다니는 건 없어. 가면 '빗창'은 그 전복이나 하나씩 떼려고 하면 물에 들러 갈 땐 요 '구불'에 차서 가.)

105015 @ 구불에?('구불'에?)

105015 # 응, 구불에, 이디 창 가.(응, '구불'에, 여기 차서 가.)

105015 @ 그디가 구불에?(거기 '구불'에?)

105015 # 이디가 이디 허리에.(여기가 여기 허리에.)

---

137) '빗창'은 전복을 따는 데 쓰는 도구이다.

138) '헛물'은 해녀가 물에 들어가 미역이 아니라 소라나 전복 등만을 잡는 것을 말한다. 과거 미역을 채취하면 돈이 되는 일이었으나 소라나 전복은 파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헛된 것이라는 뜻이다.

139) '구불'은 엉덩이 위쪽 부분으로 허리 쪽을 말한다.

105015 @ 준등이?(등?)

105015 # 응, 준등이 영혜영 이디 곰을 우리가 메잖아이.(응, 등 이렇게 해서 여기 고름을 우리가 매잖아.)

105015 @ 응.(응.)

105015 # 이 곰 멘 것덜에 벵허게 흔 번 감앙 이디 창 가.(이 고름을 맨 것들에 뱅하게 한 번 감아서 여기 차서 가.)

105015 @ 빗창을?('빗창'을?)

105015 # 응. 창 강 셍복 봐지민 영 심엉 확 빠네지. 경 안허민 빠네지 못헤.(응. 차서 가서 전복 보이면 이렇게 잡아서 확 빼지. 그렇게 않으면 빼지 못해.)

105016 @ 응. 게난 옛날 물질에 비허민 이젯 물질은 막.(응. 그러니까 옛날 물질에 비하면 이제 물질은 막.)

105016 # 아이고, 막 한글허는 거. 막 한글헌 물질. 엿날 닮지 안헤영. 요즘은 뭐 고무옷 하나만 입엉 물에 들엉 눈 팡팡 온 디레 세 시간이고 네 시간이고 이녁 살고 싶은 대로 살앙 와. 기자.(아이고, 아주 한가한 거. 아주 한가한 물질. 옛날 같지 않아서. 요즘은 뭐 고무옷 하나만 입어서 물에 들어가서 눈 팡팡 온 데로 세 시간이고 네 시간이고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살아서 와. 그저.)

105017 @ 고무옷은 언제쯤 나수과? 할머니도 고무옷 입어봔?(고무옷은 언제쯤 났습니까? 할머니도 고무옷 입어봤어?)

105017 # 안 입어봔.(안 입어봤어.)

105017 @ 안 입어봔.(안 입어봤어.)

105017 # 고무옷 나건 디가 흔 고무옷 나건 디가 흔 삼십 년.(고무옷 난 지가 한 고무옷 난 지가 한 삼십 년.)

105017 @ 응, 삼십 년. 응.(응, 삼십 년. 응.)

105017 # 그 정도. 흔 삼십오 년으로 삼십 년 새로 그거. 겨난 요시 물질은 바다에 강 살고 싶은 대로 살앙 오주마는 이거 고무옷 나건 디가 삼십오 년.(그 정도. 한 삼십오 년으로 삼십 년 사이로 그거. 그러니까 요새 물질은 바다에 가서 살고 싶은 대로 살아서 오지마는 이거 고무옷 난 지가 삼십오 년.)

105017 @ 옛날에.(옛날에.)

105017 # 삼십오 년, 삼십오 년 뭰서.(삼십오 년, 삼십오 년 되고 있어.)

105017 @ 거난 처음에는 아까 속곳만 입엉예. 속곳은 그냥 속곳이엔 골아, 뭐 곧는 말 엇어?(그러니까 처음에는 아까 속곳만 입어서요. 속곳은 그냥 속곳이라고 말해, 뭐 하는 말 없어?)

105017 # 속곳이엔 골아.(속곳이라고 말해.)

105017 @ 그냥 속곳이엔 골아?(그냥 속곳이라고 말해?)

105017 # 속곳이엔 허고 물옷.(속곳이라고 하고 물옷.)

105017 @ 물옷.(물옷.)

105017 # 응, 물옷. 물에 들어 갈 때만 즈지 입으난 물옷. 그자 곧기 좋덴 물옷 이레

앗아오라 영허고 경 안헌 땐 속곳.(응, 물옷. 물에 들어 갈 때만 자주 입으니까 물옷. 그저 말하기 좋다고 물옷 이리 가져와라 이렇게 하고 그렇지 않은 땐 속곳.)

105017 @ 속곳. 아까 물적삼도.(속곳. 아까 '물적삼'도.)

105017 # 물적삼, 치레허는 사름은 물적삼헹 입어이.('물적삼', 치레하는 사람은 '물적삼'해서 입어.)

105017 @ 아.(아.)

105017 # 물적삼 헹 입는 사름 멧 아니라. 그냥 물적삼이 어디 서? 그냥 맨 차 그 속곳 하나만 입엉 듣는 거주. 그 눈 와도.('물적삼' 해서 입는 사람 몇 아니야. 그냥 '물적삼'이 어디 있어? 그냥 맨 채로 그 속곳 하나만 입어서 달리는 거지. 그 눈 와도.)

105017 @ 게난.(그러니까.)

105017 # 경허멍 물질허엿어, 엿날에.(그러면서 물질했어, 옛날에.)

105017 @ 그 물옷은 멩지로, 아니 멩지엔 골아점저, 미녕으로 헤진 거?(그 물옷은 명주로, 아니 명주라고 말해진다, 무명으로 한 거?)

105017 # 미녕으로. 미녕으로 허주. 멩지로 어디.(무명으로. 무명으로 하지. 명주로 어디.)

105017 @ 게난예. 미녕으로 헤근에 게민 요기허고 요기까지 헤지는 거.(그러니까요. 무명으로 해서 그러면 요기하고 요기까지 할 수 있는 거.)

105017 # 미녕으로 허는디 일로만 영 쫙 체여근에 이디 문 단추 돌아이.(무명으로 하는데 이리로만 이렇게 쫙 찢어서 여기 모두 단추 달아.)

105017 @ 무신 단추?(무슨 단추?)

105017 # 아무 단추라도이 저 모작 ᄆᆞ쳐근에.(아무 단추라도 저 매듭 맺어서.)

105017 @ 응.(응.)

105017 # 모작 문 ᄆᆞ쳐. 그 속곳 만들앙 입젠 허민이 질게 천 헹 막 질게 허영 ᄀᆞ는ᄀᆞ는허게 허영 그거 막 감쳥. 그거 문 모작을 ᄆᆞᆺ쳐. 돌메기[140], 돌메기 허멍(매듭 모두 맺어. 그 속곳 만들어서 입으려고 하면 길게 천 해서 아주 길게 해서 가늘디 가늘게 해서 그거 막 감쳐. 그거 모두 매듭을 맺어. 매듭단추, 매듭단추하면서.)

105017 @ 돌메기?('돌메기'?)

105017 # 응. 돌메기, 돌메기 허메.(응. '돌메기', '돌메기' 해.)

105017 @ 아, 돌메기.(아, '돌메기'.)

105017 # 그 모작을 돌메기엔 허멍 그걸 문 ᄆᆞ쳐근에 요디 두 개 돌고 요 아래 오민 세 개 돌아. 일로 술 베려지카부덴. 그거 욜로 요레 세 개 돌고 그다음 일로 곰 헤여근에 딱 무꺼.(그 매듭을 '돌메기'라고 하면서 그걸 모두 맺어서 요기 두 개 달고 요 아래 오면 세 개 달아. 이리로 살 보일까봐. 그거 요리로 요리 세 개 달고 그다음 이리로 고름 해서 딱 묶어.)

105017 @ 아, 여기 곰 무끄곡.(아, 여기 고름 묶고.)

105017 # 응, 경헤영 이디 메곡 헤사 물에 강 숨빌[141] 때 안 벗어지주. 경 안허민

140) '돌메기'는 매듭을 지어 만든 단추로 '돌마기, ᄆᆞ작단추, 벌ᄆᆞ작'라고도 한다.

이디 안 메민 벗어져 비어.(응, 그래서 여기 매고 해야 물에 가서 '숨빌' 때 안 벗겨지지. 그렇지 않으면 여기 안 매면 벗겨져 버려.)

105017 @ 이딘 ᄒᆞ나만 이짝은 안 허고.(여긴 하나만 이쪽은 안 하고.)

105017 # 아니 ᄒᆞ나만. ᄒᆞ나 메도 뒈여. 벗어지지 안혀. 경 안 허민 그거 안 메민 물에 물기운이 세나 물알로 숨비엉 영 갈 땐 이것이 벗어져 비어. 옷이 벗어져비여. 경허난 벗어지지 못허게 허젠 그거 메는 거. 메친, 메친 허멍.(아니 하나만. 하나 매도 돼. 벗겨지지 않아. 그렇게 안 하면 그거 안 매면 물에 물기운이 세거나 물밑으로 '숨비'어서 이렇게 갈 땐 이것이 벗겨져 버려. 옷이 벗겨져 버려. 그러니까 벗겨지지 않게 하려고 그거 매는 거. 멜빵, 멜빵 하면서.)

105017 @ 이게 메친? 메는 끈?(이게 '메친'? 매는 끈?)

105017 # 끈ᄀᆞ라 메친.(끈보고 '메친'.)

105017 @ 응. 겡 그거 입다근에 고무옷 바로 난 건가? 그 사이에 또.(응. 그래서 그거 입다가 고무옷 바로 난 건가? 그 사이에 또.)

105017 # 그거 입단에 바로 고무옷이 나가난에 처암은 우이 것만 나낫어이.(그거 입다가 바로 고무옷이 나가니까 처음은 위의 것만 났었어.)

105017 @ 고무옷이 우에 것만?(고무옷이 위의 것만?)

105017 # 응. 우에 것만 나오단에 ᄎᆞᄎᆞᄎᆞᄎᆞ 이제 아랫것이 나옴 시작허난 이젠 싹허게 아랫거영 전부다 나난 기자 고무옷만 입어. 고무옷 입젠 허민 아래 얇은 내의 입어사 입어져. 경 안허민 몸에 부떵 잘 입지 못허여. 고무옷 입는 건이 바짝 몸에 부뜨게 헤놓곡 허난 둘리 안 들민 고무옷은 못 입어. 둘리가 수눌멍 입어, 이거.(응. 위의 것만 나오다가 차차차차 이제 아래 것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이젠 싹하게 아래 거랑 전부다 나니까 그저 고무옷만 입어. 고무옷 입으려고 하면 아래 얇은 내의 입어야 입을 수 있어. 그렇지 않으면 몸에 붙어서 잘 입지 못해. 고무옷 입는 건 바짝 몸에 붙게 해놓고 하니까 둘이 안 들면 고무옷은 못 입어. 둘이가 품앗이 하면서 입어, 이거.)

105017 @ 아.(아.)

105017 # 알로 알 바지는 입어 놓민 이 우잇옷도 모가진 끼와 놓민 알르로 ᄂᆞ리우지 못허지. 아랫거 우이로 막 올리지 못허지. 경허난 둘리가 서로 수눌멍 입어. 엿날 옷은 그자 이녁만썩 입엉 입어지는 대로 돌앗주만은 요즘은 경 못혜여.(아래로 아래 바지는 입어 놓으면 이 위의 옷도 모가지는 끼워 놓으면 아래로 내리지 못하지. 아래 거 위로 막 올리지 못하지. 그러니까 둘이가 서로 품앗이하면서 입어. 옛날 옷은 그저 자기만큼씩 입어서 입을 수 있는 대로 달렸지만은 요즘은 그렇게 못해.)

105017 @ 게민 큰눈 이거 큰 건 언제 난 거라, 이거.(그러면 '큰눈' 이거 큰 건 언제 난 거야, 이거.)

105017 # 큰 거 나건 딘 막 오래서.(큰 거 나온 지 아주 오랬어.)

105017 @ 아, 건 오래연.(아, 그건 오래됐어.)

105017 # 건 ᄒᆞᆫ 오십 년도 넘어. 오십년 ᄃᆞᆫᄃᆞᆫ이 뒛주, 큰눈[142] 은. 큰눈 나건 딘 ᄒᆞᆫ

141) '숨비다'는 해산물을 따거나 캐기 위해 숨을 죽이고 들어간다는 뜻이다.

오십 년도 넘엇고.(그건 한 오십 년도 넘어. 오십 년 단단히 됐지, '큰눈'은. '큰눈' 난지 한 오십 년도 넘었고.)

105017 @ 예.(예.)

105017 # 큰눈 나건 딘 흔 육십 년 뒘고. 우리 어릴 때에 큰눈, 큰눈 허난 저 큰눈 허영 무시거 헐 거, 저거 무시거 헐 거, 무시거 헐 거 허단 보난 ᄒᆞ나 두 개 씀 시작허난 것이 펜헤영 체음엔 숨 못 쉬엉 죽나 무시거 헌다 허멍덜 막 헤낫어. 경허멍 허단 이젠 큰눈 베와 놓난덜 다 그건디 체음엔 요멘썩헌 눈 썽 요만은 헌 눈. 저 큰눈 쓰난 못 붸리는 것이 엇어, 훤헌 게.('큰눈' 나건 지 한 육십 년 되고 있고. 우리 어릴 때에 '큰눈, 큰눈' 하니까 저 '큰눈' 해서 무엇 할 거, 저거 무엇 할 거, 무엇 할 거 하다 보니 하나 두 개 쓰기 시작하니까 그것이 편해서 처음엔 숨 못 쉬어서 죽는다 무엇 한다 하면서들 막 했었어. 그렇게 하면서 하다가 이젠 '큰눈' 배워 놓으니까들 다 그건데 처음엔 요만큼씩 한 물안경 써서 요만큼 한 물안경. 저 '큰눈' 쓰니까 못 보는 게 엇어, 훤한 게.)

105015 @ 테왁은 어떵 멘드는 거꽈?('테왁'은 어떻게 만드는 겁니까?)

105015 # 엿날엔 콕.(옛날엔 박.)

105015 @ 응.(응.)

105015 # 콕 잇잖아, 콕. 엿날 이런 집이 아니라. 초집이라 엿날엔이.(박 있잖아, 박. 옛날 이런 집이 아니야. 초가집이야 옛날엔.)

105015 @ 초집.(초가집.)

105015 # 초집이난 초집에덜 돈 사젠 돈이 어려운 때는 콕을 싱거, 매집이. 콕 싱경 걸름이나 잘 허면 콕이 이만큼 크는 것이 잇어이.(초가집이니까 초가집에들 돈 벌려고 돈이 어려운 때는 박을 심어, 매집에. 박 심어서 거름이나 잘 하면 박이 이만큼 크는 것이 있어.)

105015 @ 예.(예.)

105015 # 해녀들은 어느 집이 막 콕 큰 거 잇어라, 잇어라 허민 미릇 강 막 부탁허여. 부탁허민 그 콕을 오래 익여사 뒈여.(해녀들은 어느 집에 막 박 큰 거 있더라, 있더라 하면 미리 가서 막 부탁해. 부탁하면 그 박을 오래 익혀야 돼.)

105015 @ 아.(아.)

105015 # 오래오래 익이민 낭ᄀᆞ치 꿩꿩헤지고 ᄒᆞ꼼 덜 익이민 흘랑흘랑허영 까져불어이.(오래오래 익히면 나무같이 꽝꽝해지고 조금 덕 익으면 흘렁흘렁해서 까져 버려.)

105015 @ 아.(아.)

105015 # 물에만 살아노난 까져.(물에만 살아놓으니까 까져.)

105015 @ 예.(예.)

105015 # 겐디 막 잘 익여근엥에 그거 허민 고망을 똑 이 둘레 고망 파지. 이보단 더 널르겐 안 파. 이 둘레 고망을 파면 그 고망 파근에 낭께기로 소곱에 거 파내지 못헹 톡톡톡톡 찍어. 찍으멍 놔두민 그것이 썩어이. 썩어불민 그 알멩이 씨는 안 빠지고

142) '큰눈'은 해녀가 물질할 때 쓰는, 큰 알 하나로 된 물안경이다.

그 저 알멩이는 썩으멍 물로 문 빠져비어. 빠져불민 그땐 바싹 몰려근에 그 고망 연 거 영헹 내불민 ᄇᆞ름 들멍 몰르민 뻐꾹이[143] 헤다근에 그레 맞게 딱 끼와.(그런데 아주 잘 익혀서 그거 하면 구멍을 꼭 이 둘레 구멍 파지. 이보단 더 넓게 안 파. 이 둘레 구멍을 파면 그 구멍 파서 나뭇개비로 속의 거 파내지 못해서 톡톡톡톡 찍어. 찍으면서 놔두면 그것이 썩어. 썩어버리면 그 알맹이 씨는 안 빠지고 그 저 알맹이는 썩으면서 물로 모두 빠져버려. 빠져버리면 그땐 바싹 말려서 그 구멍 연 거 이렇게 해서 내버리면 바람 들면서 마르면 '뻐꾹이' 해다가 그리 맞게 딱 끼워.)

105015 @ 뭘로 만드는 거라?(뭘로 만드는 거야?)

105015 # 고망을 막아, 뻐꾹이 헤다근에.(구멍을 막아, '뻐꾹이' 해다가.)

105015 @ 뭘로 멘들아진 거, 그건.(뭘로 만들어진 거, 그건?)

105015 # 뻐꾹이, 뻐꾹이. 엿날 뻐꾹이엔 헌 거 잇어. 이런 거시기가 말고.('뻐꾹이', '뻐꾹이'. 옛날 '뻐꾹이'라고 한 거 있어. 이런 거시기가 아니고.)

105015 @ 고무로 뭰 거?(고무로 된 거?)

105015 # 고무로 뭰 것도 아니라, 그런 게.(고무로 된 것도 아니야, 그런 게.)

105015 @ 낭으로 뭰 거?(나무로 된 거?)

105015 # 몰랑몰랑헌 게 이제 ᄀᆞ뜨민 이 저 플라스틱 닮은 거라이. ᄆᆞ랑ᄆᆞ랑헌 거, 그런 거 동글랑허게 똘랑 꼭허게 막아불민 물만 안 들민 요샌 뻐꾹이로 저거 테왁을 만들어 놓민 이만썩 컷주마는 요만은 헌 거 지펑 막 먼 디ᄁᆞ장 강 메역을 허민 테왁이 옴막옴막 기어들엉 베리지 못허게 허는 사름이 하. 게난 엿날에 콕으로 테왁 헌 거.(말랑말랑한 게 이제 같으면 이 저 플라스틱 같은 거야. 말랑말랑한 거, 그런 거 동그랗게 뚫어서 꼭하게 막아버리면 물만 안 들면 요샌 '뻐꾹이'로 저거 테왁을 만들어 놓으면 이만큼씩 컸지마는 요만은 한 거 짚어서 아주 먼 데까지 가서 미역을 하면 테왁이 '옴막옴막' 기어들어서 보지 못하게 하는 사람이 많아. 그러니까 옛날에 박으로 테왁 한 거.)

105015 @ 응, 그민 밑에 망사리에 그물은?(응, 그러면 밑에 망사리에 그물은?)

105015 # 그물은 이디서이 팔월[팔뤌] 이때 나민 이제 어욱이가 경 꼿 피지 안허나이. 겨민 막 어욱 빠레 가. 그 부레기 빠레.(그물은 여기서 팔월 이때 나면 이제 억새가 그렇게 꽃 피지 않니. 그러면 막 억새 빼러 가. 그 배동 빼러.)

105015 @ 아.(아.)

105015 # 부레기가 요만썩 베려져, 벨라져근에 그 저 부레기 막 새 불지 안헌 거. 그것 강 막 빵 와.(배동이 요만큼씩 보여, 벌어져서 그 저 배동 막 쇠어 버리지 않은 거. 그것 가서 막 빼서 와.)

105015 @ 어욱 꼿 피기 전이.(억새 꽃 피기 전에.)

105015 # 응, 꼿 막 피어불기 전에. 새어, 그것이 새어근에 그 어욱 부레기가 벨록벨록 나올 정도 뒈가민 가근에 막 빠오민, 아이고 이디서 몰려근에 그거 막 몰리젠 허민 오래 가. 몰리우민 그 부레기가 이디서 몰리멍 탁 벌어지민 그 부레기 문 북삭북삭헌 거 문 빼비어.(응, 꽃 막 피어버리기 전에. 쇠어, 그것이 쇠어서 그 억새 배동 '벨록벨

143) '뻐꾹이'는 스티로폼이나 물에 뜨는 소재의 플라스틱 종류를 말하는데 '버구기'라고도 한다.

록' 나올 정도 되어가면 가서 막 빼서 오면, 아이고 여기서 말려서 그거 막 말리려고 하면 오래 가. 말리면 그 배동이 여기서 말리면서 탁 벌어지면 그 배동 모두 폭신폭신한 거 모두 빼어 버려.)

105015 @ 응.(응.)

105015 # 빼어뒁이네 그 껍데기를 몰리왓다근에 그거 물 컹. 즈늘민[144] 이제 마께를 막 두드리는 거라이. 두드령 복삭허게 두드령 이제. 아이고, 그 노 꼬젠 허민 막 성가셔. 이제, 그놈을 앚앙 문 좀질게 또 깨는 거라이. 막 줄게 깨엉 허민 그걸로 막 노 잇엉 혼 팔십 발, 상줌수덜은 팔십 발을 꼽는 거라.(빼어 두고 그 껍데기를 말렸다가 그거 물에 담가서. '즈늘민' 이제 방망이로 막 두드리는 거야. 두드려서 복삭하게 두드려서 이제. 아이고, 그 노 꼬려고 하면 아주 성가셔. 이제, 그놈을 앉아서 모두 자잘하게 또 쪼개는 거야. 아주 잘게 쪼개서 하면 그걸 막 노 이어서 한 팔십 발, 상잠수들은 팔십 발을 꼬는 거야.)

105015 @ 응.(응.)

105015 # 그걸 헤영 망사리 뭇이는 거라. 이녁대로.(그걸 해서 망사리 맺는 거야. 자기대로.)

105015 @ 아.(아.)

105015 # 거 아무나 뭇지도 못헤근에.(그거 아무나 맺지도 못해서.)

105015 @ 게난.(그러니까.)

105015 # 게난 어디 가근에 아이고 망사리 코 놔줍서, 망사리 코 놔줍서 헤영, 망사리 코 놩 빌엉 오면 이녁대로 영 잣아오당 뚜시 굴룬코 하나 놓곡, 두 개 놓곡 허멍 벌루멍 그걸 망사릴 만들아신디 이젠 뭐 나이롱 하난 그런 나이롱 확 그차당 헴주 무신.(그러니까 어디 가서 아이고 망사리 코 놔주세요, 망사리 코 놔주세요 해서, 망사리 코 놔서 빌어서 오면 자기대로 이렇게 짜다가 다시 군코 하나 놓고, 두 개 놓고 하면서 벌리면서 그걸 망사리 만들었는데 이젠 뭐 나일론 많으니까 그런 나일론 확 잘라다가 하지 무슨.)

105015 @ 게난예.(그러니까요.)

105015 # 엿날에 그 미[145], 것ᄀᆞ라 미, 미 헤낫어.(옛날에 그 '미', 그것보고 '미', '미' 했었어.)

105015 @ 미, 응. 미로예.('미', 응. '미'로요.)

105015 # 미 빠다근에 아이고 이제 미 이제 헤당 미 빠당 놔둬사, 미 빠당 놔둬사 허멍. 걸로 노 꼬앙 신도 삼앙 신고 망사리 노도 허고. 또 쉐, 소 질루는 사름이 머력에 쉐 메는 거. 질기거든 그게. 그게 질겨. 다른 이 찍 노보다.('미' 빼다가 아이고 이제 '미' 이제 해다가 '미' 빼다가 놔둬야, '미' 빼다가 놔둬야 하면서. 그걸로 노 꼬아서 신도 삼아서 신고 망사리 노도 하고. 또 소, 소 기르는 사람이 머리에 소 매는 거. 질기거든 그게. 그게 질겨. 다른 이 짚 노보다.)

144) '즈늘다'는 땅속에 빗물이 스며들어서 흙이 단단하지 않고 밭 갈기에 알맞을 정도로 무르다는 뜻인데 여기서는 삘기를 말렸다가 물에 불려서 말랑말랑한 상태가 된다는 뜻으로 쓰였다.

145) '미'는 참억새의 꽃이 채 나오기 전에 그것을 싸고 있는 껍질이다.

105015 @ 응.(응.)

105015 # 질기난 이제 쉐 녹대.(질기니까 이제 소 굴레.)

105015 @ 녹대.(굴레.)

105015 # 녹대엔 헌 거 이 집이 멜 때 허는 거. 그런 거 허고. 경허민 팔월[팔뤌] 나가민 산에 미 빠레 가겐 허멍덜 막 점심 싸 아지고 그것덜 막 강 빠. 빵 오랑 집이 오랑 그거 물림이 ᄒᆞ루 이틀에 물라져? 이추룩 벳 나는 디 ᄒᆞᆫ 열흘썩 물리왕 그거 막 북삭허게 피어불민 거 쏙쏙 빼어비뒁은에 경헹 빼어뒁 이젠 그거 이제 그 속배설 물리운 걸로, 엿날엔 성냥이 엇어이.(굴레라고 한 거 이 집에 맬 때 하는 거. 그런 거 하고. 그러면 팔월 나면 산에 '미' 빼러 가자고 하면서들 막 점심 싸 가지고 그것들 막 가서 빼. 빼서 와서 집에 와서 그거 말림이 하루 이틀에 말릴 수 있어? 이렇게 볕 나는 데 한 열흘씩 말려서 그거 막 푹신하게 피어버리면 그거 쏙쏙 빼어버리고 그래서 빼어두고 이젠 그거 이제 그 속대 말린 걸로, 옛날엔 성냥이 없었어.)

105015 @ 응.(응.)

105015 # 성냥 엇이민 하르방덜 또 이제 끅을 강 걷어와. 끅 잇지이?(성냥 없으면 할아버지들 또 이제 칡을 가서 걷어와. 칡 있지?)

105015 @ 예, 예.(예, 예.)

105015 # 그거 걷어당 끅도 이제 영 째어. 그냥 통차 안 물랑 짝 째엉 물리왕 이제 그놈을 이제 영 놔근에 찍으로 영 물아, 물아. 물멍 이걸 일로 당겨이. 당경 화싱불, 화싱불 허멍 드러 드르에 갈 땐 성냥 엇인 때난 그것에 불 부쪙 영 불 부쪙 가민 ᄒᆞ루 저물앙 그거 밧듸 놔둠서 담뱃불 부찌고.(그거 걷어다가 칡도 이제 이렇게 찢어. 그냥 통째 안 말려서 쫙 찢어서 말려서 이제 그놈을 이제 이렇게 놔서 짚으로 이렇게 말아, 말아. 말면서 이걸 이리로 당겨. 당겨서 화승불, 화승불 하면서 마구 들에 갈 땐 성냥 없을 때니까 그것에 불 붙여서 이렇게 불 붙여서 가면 하루 저물도록 그거 밭에 놔두고 담뱃불 붙이고.)

105015 @ 끅으로? 미로 안 허고?(칡으로? '미'로 안 하고?)

105015 # 미로.('미'로.)

105015 @ 미로예.('미'로요.)

105015 # 미 부레기, 부레기 북삭헌 거 잇잖아. 그거 허영 ᄌᆞ근ᄌᆞ근 놓멍 끅으로 감아.('미' 배동, 배동 북삭한 거 있잖아. 그거 해서 차근차근 놓으면서 칡으로 감아.)

105015 @ 아, 끅으로 감아.(아, 칡으로 감아.)

105015 # 응, 뱅뱅 감아근에 끗껭이로 불 부쪙 가민 ᄒᆞ루 종일 부떠, 그것이.(응, 뱅뱅 감아서 끄트머리로 불 붙여서 가면 하루 종일 붙어, 그것이.)

105015 @ 경헹 걸로 담뱃불 부찌는 거.(그래서 그걸로 담뱃불 붙이는 거.)

105015 # 걸로 담뱃불 강. 톡허게 밧머력에 강 놔두민 기자 그것이 부떠 가. ᄒᆞᆫ 요만이만 헌 거민 ᄒᆞ루 저물앙 부떠.(그걸로 담뱃불 가서. 톡하게 밭머리에 가서 놔두면 그저 그것이 붙어 가. 한 요만큼만 한 거면 하루 저물도록 붙어.)

105015 @ 아까 어디 놔둔다고 밧 머레기?(아까 어디 놔둔다고, 밭 '머레기'?)

105015 # 밧머력에, 밧머력에. 하르방덜 밧 갈레 갈 때 뭐 촐 비레 갈 때 무신 일허레 갈 땐 밧담 엠에 강 놓지, 영 담 에염에.(밭머리에, 밭머리에. 할아버지들 밭 갈러 갈 때 뭐 꼴 베러 갈 때 무슨 일하러 갈 땐 밭담 옆에 가서 놓지, 이렇게 담 옆에.)

105015 @ 그게 밧머력에?(그게 밭머리에?)

105015 # 응, 머력에.(응, 머리에.)

105015 @ 응.(응.)

105015 # 경허민 그디 놔둠서라 담배 먹구정 허민 그디 강 그것에 강 부쪙와.(그러면 거기 놔두고 담배 피고 싶으면 거기 가서 그것에 가서 붙여와.)

105015 @ 그 이름이 화싱불?(그 이름이 화승불?)

105015 # 화싱불.(화승불.)

105015 @ 화싱?(화승?)

105015 # 응. 화싱. 화싱 ᄒᆞ쏠허민 화싱 무껑, 화싱 무껑 허여. 경허민 것이 화싱불이라. 알 거여, 엿날 하르방덜 다 알아.(응. 화승. 화승 조금하면 화승 묶어, 화승 묶어 해. 그러면 그것이 화승불이야. 알 거야, 옛날 할아버지들 다 알아.)

105015 @ 예, 예, 들어난.(예, 예, 들었었어.)

105015 # 경헤여 가단에 중간에 또 뭣사 헌디 우리 아버지네, 아 우리 아버지넨 돌아가셔 불고 우리 오라바니네가 담뱃불을 부쪙 무시거 잇당 영영 두드려이. 두들민 펠록펠록허다근에 요 남 썩은 것덜에 불이 펜찍허게 가민 내가 퐁퐁퐁 나. 그땐 또 그걸로 담배 부쪄.(그렇게 하다가 중간에 또 뭐야 했는지 우리 아버지네, 아 우리 아버지네는 돌아가셔 버리고 우리 오라버니네가 담뱃불을 붙어서 무엇 있다가 이렇게 이렇게 두드려. 두드리면 반짝반짝하다가 요 나무 썩은 것들에 불이 번쩍하게 하면 연기가 퐁퐁퐁 나. 그땐 또 그걸로 담배 붙여.)

105015 @ 건 무신거엔 ᄀᆞᆯ아? 부돌?(그건 무엇이라고 말해? 부돌?)

105015 # 불찍.(부싯깃.)

105015 @ 이건 부돌, 부쉐.(이건 부돌, 부시.)

105015 # 요영 두드리는 건 부돌.(요 이렇게 두드리는 건 부싯돌.)

105015 @ 쉐는 부쉐 아니?(쇠는 부시 아니?)

105015 # 불찍, 불찍.(부싯깃, 부싯깃.)

105015 @ 불찍은 부치는 거예.(부싯깃은 붙이는 거요.)

105015 # 응, 영 두드리는 거 쉔디 이건 저 부돌이라, 부돌. 두드리는 건 몰라, 나. 그자 부돌이엔 말만 들엇주.(응, 이렇게 두드리는 거 쇠인데 이건 저 부싯돌이야, 부싯돌. 두드리는 건 몰라, 나. 그저 부싯돌이라고 말만 들었지.)

105015 @ 응.(응.)

105015 # 부돌 헤영 요추룩 놩 톡톡 두드리민 불이 펜찍펜찍허당 거 불찍드레 톡 가민 내가 퐁퐁 나민 그땐 담배 부찌곡.(부싯돌 해서 요렇게 놔서 톡톡 두드리면 불이 번쩍번쩍하다가 거 부싯깃으로 톡 가면 연기가 퐁퐁 나면 그땐 담배 붙이고.)

105015 @ 불찍은 무신걸로 멘든 거라?(부싯깃은 무엇으로 만든 거야?)

105015 # 쉐로.(쇠로.)

105015 @ 불찍. 불 부트는 거. 내 나는 거.(부싯깃. 불 붙는 거. 연기 나는 거.)

105015 # 건 남토막 썩은 거.(그건 나무토막 썩은 거.)

105015 @ 아.(아.)

105015 # 남토막 썩은 거 헤다근에 바싹 몰리와. 남토막 북삭헌 거 썩은 것 강 봉가 다근에 바싹 몰리와이. 몰리왕 나두민 그것이 북삭허여. 북삭허민 그드레 요영 헤근에 톡톡 두드렁 영 보찌 심엉 톡톡 두드렁 불이 펠록허멍 그레 가민 내가 퐁퐁허게 나는 거라이. 경허멍 하는 거 나가 봣어. 어렵게 어렵게 엿날, 얼마나 어려와시민.(나무토막 썩은 거 해다가 바싹 말려. 나무토막 푹신한 거 썩은 거 가서 주워다가 바싹 말려. 말려서 놔두면 그것이 푹신해. 푹신하면 거기에 요렇게 해서 톡톡 두드려서 이렇게 '보찌' 잡아서 톡톡 두드려서 불이 번쩍하면서 그리 가면 연기가 퐁퐁하게 나는 거야. 그러면서 하는 거 내가 봤어. 어렵게 어렵게 옛날, 얼마나 어려웠으면.)

105015 @ 성냥 엇이난예.(성냥 없으니까요.)

105015 # 성냥 엇이난.(성냥 없으니까.)

105018 @ 톳은 어떵 허영 헙니까? 톳.(톳은 어떻게 해서 합니까? 톳.)

105018 # 톨?(톳?)

105018 @ 응, 톨 이디도 톨 하영 헤낫지예?(응, 톳 여기도 톳 많이 했었지요?)

105018 # 응, 톨 우린 조합원으로 공동으로 강 막 비어.(응, 톳 우린 조합원으로 공동으로 가서 막 베어.)

105018 @ 아, 톨은 공동으로 허는 거?(아, 톳은 공동으로 하는 거?)

105018 # 공동으로 막 이 조합원들만 강 막 비엉. 문 지어내엉 몰류민 받아갈 때가 잇어. 받아가는 사름이 잇어. 겐디 이젠 톨도 안 나.(공동으로 막 이 조합원들만 가서 막 베어. 모두 져내서 말리면 받아갈 때가 있어. 받아가는 사람이 있어. 그런데 이젠 톳도 안 나.)

105018 @ 게난예.(그러니까요.)

105018 # 톨도 우리가 먹젠 혼발 비오젠 헤도 톨이 엇어. 원 경 톨 나던 디 톨 나민 우리 질로 혼 질 넘는 톨이 잇어낫어. 질어. 겨민 탁탁 이 저 바지게로 질 때 바지게로 걸쳐근에 지어나신디, 톨이엔 헌 거 엇엉 이제 새돌 혼 또 새돌 나가민 톨이 나게 뒌 거라이 이거이. 나가, 요멘썩 허민 ᄀᆞ새 아졍강 문딱 비어와 비어. ᄀᆞ새로 강.(톳도 우리가 먹으려고 조금 베어오려고 해도 톳이 없어. 원 그렇게 톳 나던데 톳 나면 우리 길로, 한 길 넘는 톳이 있었어. 길어. 그러면 탁탁 이 저 바지게로 질 때 바지게로 걸쳐서 졌었는데, 톳이라고 한 거 없어서 이제 새달 한 또 새달 나가면 톳이 나게 된 거야 이거. 나가, 요만큼씩 하면 가위 가져가서 모두 베어와 버려. 가위로 가서.)

105018 @ 이제?(이제?)

105018 # 이녁만썩 먹젠덜. 게민 톨이 엇어. 톨이 나질 안허여. 톨 뿔리도 엇고.(자기만큼씩 먹으려고들. 그러면 톳이 없어. 톳이 나지 않아. 톳 뿌리도 없고.)

105018 @ 옛날엔 공동으로 헤근에 헤낫수과?(옛날엔 공동으로 해서 했었습니까?)

105018 # 공동으로 이 앞드레 문딱 톨밧이라낫어. 민짝 톨 나근에 경헤나신디 이젠 원 숭키 먹을 것도 못 헤여와. 나질 안헤영.(공동으로 이 앞에 모두 톳밭이었어. 모두 톳 나서 그랬었는데 이젠 원 푸성귀 먹을 것도 못 해와. 나질 않아서.)

105018 @ 경허민 그거 다 공동으로 강 ᄀᆞ치 헤근에 또 ᄀᆞ치 나눠?(그러면 그거 다 공동으로 가서 같이 해서 또 같이 나눠?)

105018 # ᄀᆞ치 나눵 돈만 갈랑 먹는 거.(같이 나눠서 돈만 갈라서 먹는 거.)

105018 @ 다 똑같이?(다 똑같이?)

105018 # 응, 똑ᄀᆞ치. 똑ᄀᆞ치 허영.(응, 똑같이. 똑같이 해서.)

105018 @ 하영헌 사름은 하영 안 허고.(많이 한 사람은 많이 안 하고.)

105018 # 아니, 아니 이건 공동으로 허는 거난.(아니, 아니 이건 공동으로 하는 거니까.)

105018 @ 아.(아.)

105018 # 비는 사름, 지어내는 사름 헤영 ᄀᆞ찌 강 ᄆᆞᆯ릴 때도 지어오곡 ᄆᆞᆯ륩곡 다 헤근에 집이 아져들엿당 풀 땐 거 문 ᄀᆞ치 다듬앙 ᄀᆞ치 풀아근에 돈으로 갈르는 거.(베는 사람, 져 나르는 사람 해서 같이 가서 말릴 때도 져 오고 말리고 다 해서 집에 가져갔다가 팔 땐 그거 모두 같이 다듬어서 같이 팔아서 돈으로 가르는 거.)

105018 @ 응.(응.)

105018 # 조합원은.(조합원은.)

105019 @ 우미도 헤낫수과?(우뭇가사리도 했었습니까?)

105019 # 우미도 헷주마는 우민 공동으로 안헹 이녁만썩. 이제도 우미 받아가. 이제도 우미 메멍 받아가.(우뭇가사리도 했지마는 우뭇가사리는 공동으로 안 하고 자기만큼씩. 이제도 우뭇가사리 받아가. 이제도 우뭇가사리 매면서 받아가.)

105019 @ 건 어떵 허는 거꽈?(그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105019 # 건 기자 메영 ᄆᆞᆯ륨만 허민 받아가.(그건 그저 매어서 말리기만 하면 받아가.)

105019 @ 응.(응.)

105019 # 이디서 솖아 먹을 사름들은 발레여. 그거 물 적지멍. 물 가근에, 민물에 강 톡톡 적져근에 얄루렝이 널엉 놔두민 파싹 ᄆᆞᆯ르민 또 물 적졍 또 널고 흔 서너 불 헤가민 헤영케 발아. 발아불민 그땐 솖아근에 저 묵 쑤듯 묵 놔두듯 그 물 걸렁 놔두민 토랑토랑 얼려. 게민 그땐 먹는 거.(여기서 삶아서 먹을 사람들은 바래. 그거 물 적시면서. 물 가서, 민물에 가서 톡톡 적셔서 얇게 널어서 놔두면 바싹 마르면 또 물 적셔서 또 널고 한 서너 벌 해가면 하얗게 바래. 바래면 그땐 삶아서 저 묵 쑤듯 묵 놔두듯 그 물 걸러서 놔두면 '토랑토랑' 얼려. 그러면 그땐 먹는 거.)

105019 @ 여름에 우리 냉국헹 먹는예.(여름에 우리 냉국해서 먹는요.)

105019 # 응, 그거.(응, 그거.)

105019 @ 그 우미는 바당 지픈 디 가사 잇어? 아니민.(그 우뭇가사리는 바다 깊은 데 가야 있어? 아니면.)

105019 # 아니, 그건 야픈 디.(아니, 그건 얕은 데.)

105019 @ 아, 야픈 디 잇어마씨?(아, 얕은 데 있어요?)

105019 # 야픈 디 물 막 싸불민 그자 발 요만인 적경 가근에 메는 디도 잇고 또 물 싸불민 발 안 적져도 메는 디도 잇고. 우민 막 곳듸 나는 거.(얕은 데 물 막 써버리면 그저 발 요만큼 적셔서 가서 매는 데도 있고 또 물 써 버리면 발 안 적셔도 매는 데도 있고. 우미는 아주 갯가에 나는 거.)

105019 @ 아.(아.)

105019 # 지픈 디도 나긴 나근에 지픈 디도 나곡 야픈 디도 나주마는 요새 지픈디 강 경.(깊은 데도 나긴 나서 깊은 데도 나고 얕은 데도 나지마는 요새 깊은 데 가서 그렇게.)

105020 @ 셍복허고 소라는, 셍복허고 고동은 공동으로 허는 거 아니고 다 개인으로 허는 거지예?(전복하고 소라는, 전복하고 소라는 공동으로 하는 거 아니고 다 개인으로 하는 거지요?)

105020 # 개인으로.(개인으로.)

105020 @ 좀수들이예.(잠수들이요.)

105020 # 해녀들 이녁 헤지는 게 흔이라. 하영 허민 하영 받을 거. 족영 허민 족영 헐 거. 게난 막 상군덜은 어뜬 땐 가민 ᄒᆞ루 가민 흔 구십 키로도 잡아오는 사름도 잇고.(해녀들 자기 할 수 있는 게 한이야. 많이 하면 많이 받을 거. 적게 하면 적게 할 거. 그러니까 막 상군들은 어떤 땐 가면 하루 가면 한 구십 킬로도 잡아오는 사람도 있고.)

105020 @ 응.(응.)

105020 # 또 우리ᄀᆞ찌 못허는 사름은 흔 삼 키로, 흔 오 키로 경 잡앙 나오는 사름도 잇고, 경허여.(또 우리처럼 못하는 사람은 한 삼 킬로, 한 오 킬로 그렇게 잡아서 나오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해.)

105021 @ 셍복도 암커 잇고 수커 이수과?(전복도 암컷 있고 수컷 있습니까?)

105021 # 응.(응.)

105021 @ 어떵 구분허여?(어떻게 구분해?)

105021 # 암첨복은 술이 영 베쪽허게 튀어난 게 여물이 크고.(암전복은 살이 이렇게 삐쭉하게 튀어난 게 여물이 크고.)

105021 @ 응.(응.)

105021 # 수첨복은 ᄒᆞ쏠 납시록헤여. 여물이 잣지 못헤영 ᄒᆞ쏠 납시룩헤여. 크기는 헤도.(수전복은 조금 납작해. 여물이 '잣지' 못해서 조금 납작해. 크기는 해도.)

105021 @ 거민 어떤 게 좋아? 암커가 좋아, 수커가 좋아?(그러면 어떤 게 좋아? 암컷이 좋아, 수컷이 좋아?)

105021 # 그거는 우리 몰라. 암커 좋나, 수커 좋나 허는 말은 안 ᄀᆞᆯ아낫어.(그거는 우리 몰라. 암컷 좋다, 수컷 좋다 하는 말은 안 했었어.)

105021 @ 어느 게 무게가 하영 나가?(어느 게 무게가 많이 나가?)

105021 # 무게 하영 남은 꼭ᄀᆞ뜬 거시기에는 암컷이 더 나가는디 경 꼭ᄀᆞ뜬 게 경

큰 것이 저 죽 골른 것이 잇어? 그자 어떵허당 요즘은 엿날 닮지 안헹 셍복 보기가 이거 하늘에 벨 따기라.(무게 많이 나가는 것은 똑같은 거시기에는 암컷이 더 나가는데 그렇게 똑같은 게 그렇게 큰 것이 저 쭉 고른 것이 있어? 그저 어떻게 하다가 요즘은 옛날 같지 않아서 전복 보기가 이거 하늘에 별 따기야.)

105021 @ 영 뒤에 고망 뽕뽕 뚤라져 이십니께? 그거 무신거엔 곧는 말 이수가?(이렇게 뒤에 구멍 뽕뽕 뚫려 있잖습니까? 그거 무엇이라고 하는 말 있습니까?)

105021 # 건 미시거 곧는 말 엇어. 그자 셍복닥살에 고망이주. 그거 영 뽈록뽈록헌 거. 셍복닥살에도 잇고 조개에도 그 고망이 잇고.(그건 무엇 하는 말 없어. 그저 전복갑에 구멍이지. 그거 이렇게 볼록볼록한 거. 전복갑에도 있고 오분자기에도 그 구멍이 있고.)

105021 @ 조개?(조개?)

105021 # 응. 오분제기가.(응. 오분자기가.)

105021 @ 아, 오분제기가 조개.(아, 오분자기가 조개.)

105021 # 응, 오분제기가 조갠디 딱, 똑 셍복이나 ᄀᆞ따. 이 작살에 고망 뚤라지는 거.(응, 오분자기가 조갠데 딱, 똑 전복이나 같아. 이 작살에 구멍 뚫어지는 거.)

105021 @ 숫자가 틀려?(숫자가 달라?)

105021 # 숫자 틀리지 아녀. 고망 숫잔 틀리지 아녀.(숫자 다르지 않아. 구멍 숫잔 다르지 않아.)

105021 @ 게민 어떵 구분헤? 셍복인지 오분제긴지.(그러면 어떻게 구분해? 전복인지 오분자긴지.)

105021 # 아, 셍복닥살은 ᄒᆞ쏠 엉겨이. 두들두들허게 족아도 셍복닥살은 이 등뗑이가 두들두들허게 엉기고 또 조개는 이 닥살이 멘짝헤여, 멘짝헤여. 고망도 줄고. 암만 셍복도 요만은 헌 거 허곡 또 조개 큰 거 허곡 헤도 이 조개 고망이 줄아. 멘지락허고 끗껭이가 멘지락허고 고망도 줄곡. 셍복닥살은 족아도 요디가 두들두들 헌 게이. 요만이만 헌 것도, 요만이 헌 것도 닥살이 틀려.(아, 전복갑은 조금 엉겨. 두둘두둘하게 작아도 전복갑은 이 등이 두둘두둘하게 엉기고 또 오분자기는 이 껍데기가 매끈해, 매끈해. 구멍도 잘고. 암만 전복도 요만큼은 한 거 하고 또 오분자기 큰 거 하고 해도 이 오분자기 구멍이 잘아. 매끈하고 끄트머리가 매끈하고 구멍도 잘고. 전복갑은 작아도 요기가 두둘두둘한 게. 요만큼만 한 것도, 요만큼 한 것도 껍데기가 달라.)

105021 @ 전복 쪼끌락헌 건 무시거엔 곧는 거 이수과?(전복 조그마한 건 무엇이라고 말하는 거 있습니까?)

105021 # 전복 쪼끌락헤도 곧는 말 엇어.(전복 조그마해도 하는 말 없어.)

105021 @ 어린 전복. 곧는 말 엇어.(어린 전복. 하는 말 없어.)

105021 # 곧는 말 엇어. 조개는 오분제기, 오분제기 허주마는 셍복은 즌 거 큰 거 헤도 따로 곧는 말은 엇어. 다른 일름은 엇어. 크다 족다 허는 것만.(하는 말 없어. '조개'는 오분자기, 오분자기 하지마는 전복은 잔 거 큰 거 해도 따로 하는 말 없어. 다른 이름은 없어. 크다 작다 하는 것만.)

105021 @ 소라는?(소라는?)

105021 # 소라도 큰 거, 족은 거 헤도 경 곧는 말 틀리지 안허고. 준 거, 홁은 거 그거 뿐이주. 크다 족다 허는 거 뿐이주.(소라도 큰 거, 작은 거 해도 그렇게 하는 말 다르지 않고. 잔 거, 굵은 거 그거 뿐이지. 크다 작다 하는 거 뿐이지.)

105021 @ 전복 껍데긴 무신거엔 골아?(전복갑은 무엇이라고 말해?)

105021 # 전복 껍데기 뭐엔 안 곧는디.(전복갑 뭐라고 안 말하는데.)

105021 @ 껍데기 곧는 말 엇어?(껍데기 하는 말 없어?)

105021 # 엇어.(없어.)

105021 @ 전복에도 영 보민 이빨도 ᄒᆞ꼼 돋아근에 잇고.(전복에도 이렇게 보면 이빨도 조금 돋아 있고.)

105021 # 게옷, 소곱엣 거 게옷이엔 허여. 영 배설ᄀᆞ라.(‘게옷’, 속의 거 ‘게옷’이라고 해. 이렇게 내장보고.)

105021 @ 아, 배설ᄀᆞ라 게옷.(아, 내장보고 ‘게옷’.)

105021 # 원, 그거주 뭐 셍복닥살 어떵허다, 셍복 어떵허다 허는 말은 엇어. 기자 게옷만 잇고.(원, 그거지 뭐 전복갑 어떻게 하다, 전복 어떻게 하다 하는 말은 없어. 그저 ‘게옷’만 있고.)

105021 @ 아, 게옷만 잇고.(아, ‘게옷’만 있고.)

105021 # 조개도 조개도 그렇고 게옷이엔 헌 건 요영헌디 사름 ᄀᆞ트민 창자라, 창자. 게옷이엔 헌 게.(오분자기도 오분자기도 그렇고 ‘게옷’이라고 한 건 요렇게 한데 사람 같으면 창자야, 창자. ‘게옷’이라고 한 거.)

105021 @ 응, 창지, 게옷. 밑에 퍼렁헌 거.(응, 창자, ‘게옷’. 밑에 파란 거.)

105021 # 응, 퍼렁헌 거. 영 떼영 보민 퍼렁.(응, 퍼런 거. 이렇게 떼어서 보면 퍼렇고.)

105021 @ 어떤 건 퍼렁허고 어떤 건 하양헤라.(어떤 건 퍼렇고 어떤 건 하얗더라.)

105021 # 술진 놈은 ᄒᆞ쏠 헤영허고 준 놈은 ᄒᆞ쏠 검고 경헤. 셍복도 잇당 ᄒᆞ쏠 검은 게 잇긴, 술져도 검은 게 잇긴 잇는디 경헤도 대개 보민 술진 건 희고 ᄒᆞ쏠 줄다 허는 건 ᄒᆞ쏠 검고 경헤여.(살찐 놈은 조금 하얗고 마른 놈은 조금 검고 그렇게 해. 전복도 있다가 조금 검은 게 있긴, 살쪄도 검은 게 있긴 있는데 그래도 대개 보면 살찐 건 희고 조금 마르다 하는 건 조금 검고 그래.)

105021 @ 고동은 고동도 껍데기 잇고 안에 들어간 거 이수게?(소라는 소라도 껍데기 있고 안에 들어간 거 있잖습니까?)

105021 # 껍데기 또 잇어. 뚜껭이.(껍데기 또 있어. 뚜껑.)

105021 @ 뚜껭인 무신거엔 골아, 그냥 뚜껭이?(뚜껑은 무엇이라고 말해, 그냥 뚜껑.)

105021 # 그자 뚜껭이. 건 일름 틀리지 안헤여. 고동 닥살. 껍데기 그자 경허주.(그저 뚜껑. 그건 이름 다르지 않아. 소라껍데기, 껍데기 그저 그렇지.)

105021 @ 이거 우에 잇는 건 고동 닥살. 그다음에 요건 고동 뚜껭이.(이거 위에 있는 건 소라껍데기. 그다음에 요건 소라 뚜껑.)

105021 # 응, 뚜겡이. 딱지, 딱지 허메. 뚜껭이엔 안 헤.(응, 뚜껑. 딱지, 딱지 해. 뚜껑이라고 안 해.)

105021 @ 아, 딱지.(아, 딱지.)

105021 # 딱지 떼불라. 영.(딱지 떼버려라. 이렇게.)

105021 @ 딱지 떼불라. 안에 영 가민 살 잇고 똥 이신디 그 사이에 ᄒᆞ꼼 씁니께? 그건 무신거엔 ᄀᆞᆯ아?(딱지 떼버려라. 안에 이렇게 가면 살 있고 똥 있는데 그 사이에 조금 쓰잖아요? 그건 무엇이라고 말해?)

105021 # 그 안네 또 요영 감아진 거 보민 그디 놀개 닮은 거 잇지.(그 안에 또 요렇게 감아진 거 보면 거기 날개 닮은 거 있지.)

105021 @ 응.(응.)

105021 # 얇은 거이. 게옷.(얇은 거. '게옷'.)

105021 @ 그것이 게옷?(그것이 '게옷'?)

105021 # 응, 그것이 게옷. 그거 써. 그거 게옷 다듬아 불라. 쓴다 영. 또 먹음도 궂고. 그거 안 다듬아 불민. 경허난 그것이 게옷.(응, 그것이 '게옷'. 그거 써. 그거 '게옷' 다듬어 버려라. 쓴다 이렇게. 또 먹기도 나쁘고. 그거 안 다듬어 버리면. 그러니까 그것이 '게옷'.)

105021 @ 아까 전복에는 게옷이고.(아까 전복에는 '게옷'이고.)

105021 # 전복도 그것이 게옷이엔 허고 고동에도 그 영 납작헌 거 잇어, ᄀᆞᆯ메. 경허민 그 게옷 떼어불라. 경 안허민 쓴다. 그거 먹으민 건 써, 맛이 엇어.(전복도 그것이 '게옷'이라고 하고 소라에도 그 이렇게 납작한 거 있어, 'ᄀᆞᆯ메'. 그러면 그 '게옷' 떼버려라. 그렇지 않으면 쓴다. 그거 먹으면 그건 써, 맛이 없어.)

105021 @ 응. 거기도 무신 그거 말고 다른 이름은 엇어?(응. 거기도 무슨 그거 말고 다른 이름은 없어?)

105021 # 다른 이름은 엇어. 고동 깍이나벳긔 무시거.(다른 이름은 없어. 소라 '깍'이나밖에 무엇.)

105021 @ 고동 깍은 무시거라?(소라 '깍'은 뭐야?)

105021 # 똥.(똥.)

105021 @ 아, 똥이 깍?(아, 똥이 '깍'?)

105021 # 응. 똥ᄀᆞ라 깍. 고동 깍.(응. 똥보고 '깍'. 소라 '깍'.)

105021 @ 또 다르게 ᄀᆞᆫ는 건 엇고.(또 다르게 말하는 건 없고.)

105021 # 다르게 ᄀᆞᆫ는 건 엇어.(다르게 말하는 건 없어.)

105021 @ 그다음에.(그다음에.)

105021 # 집이 강 튼내보멍 전화로라도 잊어분 거 잇건 나가 ᄀᆞᆯ아줄 거.(집에 가서 생각해보면서 전화로라도 잊어버린 거 있으면 내가 말해줄 거.)

105024 @ 하하하. 아까 혹시 돗. 배 돗 단 거예, 이거는 돗인디 세우는 낭은 무신거?(하하하. 아까 혹시 돛. 배 돛 단 거요, 이거는 돛인데 세우는 나무는 무엇?)

105024 # 대.(대.)

105024 @ 그냥 대?(그냥 대?)

105024 # 돗대.(돛대.)

105024 @ 건 돗대. 그다음 배에도 앞쪽은 뭐엔 곧고 뒤쪽엔 뭐엔 곧고 허는 이름 이수과?(건 돛대. 그다음 배에도 앞쪽은 뭐라고 말하고 뒤쪽엔 뭐라고 말하고 하는 이름 있습니까?)

105024 # 앞쪽엔 이물, 뒤쪽에는 고물. 고물쪽, 이물쪽.(앞쪽엔 이물, 뒤쪽에는 고물. 고물쪽, 이물쪽.)

105024 @ 아, 고물쪽, 이물쪽 허고예.(아, 고물쪽, 이물쪽 하고요.)

105024 # 고물이엔 헌 건 이 뒤쪽이라. 앞이는 이물.(고물이라고 한 건 이 뒤쪽이야. 앞에는 이물.)

105024 @ 응, 그거 말곤 또 그디서 불르는 일름 엇인가?(응, 그거 말고는 또 거기서 부르는 이름 없나?)

105024 # 그거 말안 나 배 안 부려나난 몰라. 그것 말안 고물, 이물 헌 것만 알지.(그거 말고 나 배 안 부려서 몰라. 그거 말고 고물, 이물 한 것만 알지.)

105024 @ 고물, 이물 헌 것만예. 사공도 배 젓는 사름은 사공이렌 골아, 네 젓는 사름?(고물, 이물 한 것만요. 사공도 배 젓는 사람은 사공이라고 말해, 노 젓는 사람?)

105024 # 네 젓는 사름이 사공.(노 젓는 사람이 사공.)

105024 @ 사공은 돗단배 허는 디도 돗배에도 사공 잇어사주예?(사공은 돛단배 하는 데도 돛배에도 사공 있어야지요?)

105024 # 사공이멍 말멍 사공이엔 허는 건 이거 저 육지 가민 뱃물질허는 사름 잇잖아이. 뱃물질허민 그 물질 가민 해녀덜 물에 들어근에 물건 헤내는 거 마타근에 배드레 올려주곡 네 젓어주곡 그것이 사공이라이.(사공이면서 말면서 사공이라고 하는 건 이거 저 육지 가면 뱃물질하는 사람 있잖아. 뱃물질하면 그 물질 가면 해녀들 물에 들어가서 물건 해내는 거 맡아서 배에 올려주고 노 저어주고 그것이 사공이야.)

105024 @ 아.(아.)

105024 # 것이 뱃사공.(것이 뱃사공.)

105024 @ 그건 배 ᄒᆞ나에 ᄒᆞᆫ 사름만 타?(그건 배 하나에 한 사람만 타?)

105024 # 아니, 여라 사름. 이제 돈을 하영 버슬구정 허민 어느 배엔 멧 사름 시껏다, 어느 배엔 멧 사름 갓다 이거지. 그거 배 임제가 돈을 하영 버슬구정 허민 여라 사름 시껑 강 물건 해내는 냥 그걸 다 이제 뗑겨줘. 먼 디 강 물건. 이디선 경 안 헌디 육지서는 먼 디 가근엥에 물질해 오거든. 배 탕 강. 겨난 그디 그거 허는 것이 부름씨허는 사름이 사공이라. 그거 물건 헤영 올려 놔주곡. 또 이디 오민 또 ᄂᆞ리와 주곡 허는 게 그게 사공.(아니, 여러 사람. 이제 돈을 많이 벌고 싶으면 어느 배엔 몇 사람 실었다, 어느 배엔 몇 사람 갔다 이거지. 그거 배 임자가 돈을 많이 벌고 싶으면 여러 사람 실어서 가서 물건 해내는 대로 그걸 다 이제 당겨줘. 먼 데 가서 물건. 여기선 그렇게 안 하는데 육지서는 먼 데 가서 물질해 오거든. 배 타고 가서. 그러니까 거기 그거 하는 것이 심부름하는 사람이 사공이야. 그거 물건 해서 올려 놔주고. 또 여기 오면 또 내려 주고

하는 게 그게 사공.)

105024 @ 내도 영 젓젠 허민예.(노도 이렇게 저으려고 하면요.)

105024 # 소리허지게. 이엿사 허멍.(소리하지. '이엿사'하면서.)

105024 @ 아, 이엿사, 이엿사, 응.(아, '이엿사, 이엿사', 응.)

105024 # 이 여저덜토 우린 뱃물질 안 헤도, 뱃물질 헤난 사름덜 소리 내놩 허민 들엄직이 허기도 헤여.(이 여자덜토 우린 뱃물질 안 해도, 뱃물질 했던 사람들 소리 내놓고 하면 들을만 하기도 해.)

105024 @ 배 방향 조정허젠 허민 영 땡기는 것도 이수과?(배 방향 조정하려고 하면 이렇게 당기는 것도 있습니까?)

105024 # 아니, 이 풍선엔 그런 거 엇어.(아니, 이 풍선엔 그런 거 없어.)

105024 @ 그런 거 엇어.(그런 거 없어.)

105024 # 배 영 어디 강 돌리젠 허민 배 여라이 네 젓당이라도 더러 놔둬근에 배 네로 어떵 영 조정허영 돌리주 어디 심엉 둥기는 것이 엇어.(배 이렇게 어디 가서 돌리려고 하면 배 여럿이 노 젓다가 더러 놔두고 배 노로 어떻게 이렇게 조정해서 돌리지 어디 잡아서 당기는 것이 없어.)

105024 @ 응. 그믄 배 이제 멈춰야 뒈켜 헤근에 영 밑에 뭐 털어칩니께?(응. 그러면 배 이제 멈춰야 되겠다 해서 이렇게 밑에 뭐 떨어뜨리잖습니까?)

105024 # 닷.(닻.)

105024 @ 닷.(닻.)

105024 # 건 막 들어오라근엥에 막 멈촤 갈 땐 먼 딜로 닷 줘가멍 쑥 들어오랑 또 가까운 디레 오민 또 곳듸 축항에 정헌 디 돌 쭈짝쭈착 시민 그레 닷줄 훅 데끼민 그디서 메여.(건 막 들어와서 막 멈춰 갈 땐 먼 데로 닻 줘가면서 쑥 들어와서 또 가까운 데로 오면 또 갯가에 축항에 그런 데 돌 '쭈짝쭈짝' 있으면 그리 닻줄 훅 던지면 거기서 매어.)

105024 @ 아, 그디서 메영예.(아, 거기서 매어서요.)

105024 # 먼 디서 허는 건 뒷닷, 뒷닷.(먼 데서 하는 건 '뒷닻', '뒷닻'.)

105024 @ 뒷닷? 뒷닷은 어떵헌 거라?('뒷닻'? '뒷닻'은 어떻게 한 거야?)

105024 # 배 이레 영 오잖아이. 영 오라가민 요 앞이 닷은 막 이디 들어오랑 곳듸레 무끄고. 요건 뒤에서부터 배 멈추게 ᄒᆞ고 들이치는 거.(배 이리 이렇게 오잖아. 이렇게 와 가면 요 앞에 닻은 막 여기 들어와서 갯가에 묶고. 요건 뒤에서부터 배 멈추게 하고 들이뜨리는 거.)

105024 @ 아, 물에 들이치는 거.(아, 물에 들이뜨리는 거.)

105024 # 그게 뒷닷. 경허는 거.(그게 '뒷닻'. 그렇게 하는 거.)

105024 @ 할머니 그 줌수가 물질허레 가민 테왁도 막 여러 갠디 내 거 어떵 알아? 나 테왁인 거 어떵 알아.(할머니 그 잠수가 물질하러 가면 테왁도 막 여러 갠데 내 거 어떻게 알아? 나 테왁인 거 어떻게 알아?)

105024 # 원, 페적도 안 허곡 헤도 다 알아.(원, 표적도 안 하고 해도 다 알아.)

105024 @ 막 터가불지 안허여? 무꺼?(막 떠가버리지 않아? 묶어?)

105024 # 무끄지 안헤도 이녁 테왁 다 알아근에 이거 테왁을 딱 이디 놔뒁 숨비면 나왕 봐도 이녁 테왁 훤허게 알아. 어디 멀리 안 가는 거난. 이디서 이디서 숨비영 이디서 나오는 거난 훤허게 알아. 다 이녁 테왁만썩 촞앙.(묶지 않아도 자기 테왁 다 알아서 이거 테왁을 딱 여기 놔두고 '숨비'면 나와서 봐도 자기 테왁 훤하게 알아. 어디 멀리 안 가는 거니까. 여기서 여기서 '숨비'어서 여기서 나오는 거니까 훤하게 알아. 다 자기 테왁만큼씩 찾아서.)

105024 @ 이디 테왁 놧당 물속에 들어갓당 나오민 떠내려 가불지 안헤?(여기 테왁 놨다가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면 떠내려 가버리지 않아?)

105024 # 떠내려, 경 안 떠내려가. 요즘은 이 물 가부난에 떠나가는디 이녁만썩 막. 닷베[146]라고이 베 메여근에 아래 돌을 강 무껑. 막 먼 바당에 가민 물이 짝허게 ᄂᆞ려가주. 들물, 썰물 헤여이. 물이 들어올 때는 절로 이레 물이 영 오라가고 썰물은 일로 저 베끗듸레 막 내쳐불어. 경헌 따문 해녀덜 그 먼 바당에 가민 숨비엉 나왕 보민 테왁이 끗어 가부는 거라. 게민 그걸 닷베라고이 베 메어근에 돌에 강 딱 물아래 강 무꺼뒁 물질헤여.(떠내려, 그렇게 안 떠내려가. 요즘은 이 물 가버리니까 떠나가는데 자기만큼씩 막. '닷베'라고 배 매어서 아래 돌을 가서 묶어서. 막 먼 바다에 가면 물이 짝하게 내려가지. 밀물, 썰물 해. 물이 들어올 때는 저리로 이리 물이 이렇게 와 가고 썰물은 이리로 저 밖에 막 내쳐버려. 그런 때문에 해녀들 그 먼 바다에 가면 '숨비'어서 나와 보면 테왁이 끌어 가버리는 거야. 그러면 그걸 '닷베'라고 배 매어서 돌에 가서 딱 물아래 가서 묶어두고 물질해.)

105024 @ 물아래.(물아래.)

105024 # 물아래 강 무꺼뒁.(물아래 가서 묶어둬서.)

105024 @ 건 이제사 허는 거?(그건 이제야 하는 거?)

105024 # 건 이제사, 닷베, 닷베허멍.(그건 이제야, '닷베', '닷베'하면서.)

105024 @ 아, 옛날엔 경 안 헤낫구나.(아, 옛날엔 그렇게 안 했었구나.)

105024 # 엿날에 경 엿날에 어디 강 경. 고무옷 입어사 얼게 살주. 경 안헹 커승커승[147] 강 들엉 나오는디 닷베 무끄곡 경 멀리 가도 못허고 얼엉. 요즘은 고동 잡으레 이디서 가민 테왁 못 붸릴 디 강 막 멀리 가.(옛날에 그렇게 옛날에 어디 가서 그렇게. 고무옷 입어야 춥게 살지. 그렇게 안하고 '커승커승' 가서 들어서 나오는데 '닷베' 묶고 그렇게 멀리 가지도 못하고 추워서. 요즘은 소라 잡으러 여기서 가면 테왁 못 볼 데 가서 막 멀리 가.)

105024 @ 응.(응.)

105024 # 게난 저 먼 바당에 가노난이 그 닷베들 이디서 문 헤영 가. 멧 발, 여남은 발썩 헌 거 헤영 가. 물아래 들어가근에 돌 아래 베 메어둬근에 물질허는 거 아니?(그러니까 저 먼 바다에 가놓으니까 그 '닷베'들 여기서 모두 해서 가. 몇 발, 여남은 발씩 한

146) '닷베'는 테왁을 고정하기 위해서 닻의 역할을 하는 돌을 묶기 위해 사용하는 바를 말한다.
147) '커승커승'은 잠깐씩 갔다왔다 하는 모습을 말한다.

거 해서 가. 물아래 들어가서 돌 아래 바 매어두고 물질하는 거 아니?)

105024 @ 응.(응.)

105024 # 엿날엔 메역 ᄒᆞ꼼썩 허는 거난 경 얼어부난 멀리 가지도 안허고.(옛날엔 미역 조금씩 하는 거니까 그렇게 추워버리니까 멀리 가지도 않고.)

105015 @ 테왁허고 망사리 헐 때 망사리 요 위에 낭은 무신거엔 골아?(테왁하고 망사리 할 때 망사리 요 위에 나무는 무엇이라고 말해?)

105015 # 어음[148].('어음'.)

105015 @ 어음?('어음'?)

105015 # 응, 테왁어음.(응, '테왁어음'.)

105015 @ 테왁어음. 테왁허고 망사린 뭘로 영 무꺼살 거 아니?('테왁어음'. 테왁하고 망사리는 뭘로 이렇게 묶어야할 거 아니?)

105015 # 테왁어음 헤여나근에 그레 노로 헤근에 테왁 동글락헌 거 요거 동글락 헌 거민이 욜로 헤영 요레 강 ᄒᆞᆫ 밧듸 테왁어음더레 ᄃᆞᆯ아메고.('테왁어음' 하고나서 그리 노로 해서 테왁 동그란 거 요거 동그란 거면 요리로 해서 요리 가서 한 군데 '테왁어음'에 달아매고.)

105015 @ 응.(응.)

105015 # 또 욜로 헤여근에 테왁어음더레 두 밧듸 무꺼사 뒈어.(또 요리로 해서 '테왁어음'에 두 군데 묶어야 돼.)

105015 @ 두 밧듸?(두 군데?)

105015 # 응, ᄒᆞᆫ 밧듸는 요영 넙게 메고 ᄒᆞᆫ 밧듸는 줄 요추룩헌 줄 ᄒᆞᆫ 밧듸만 딱 ᄃᆞᆯ아 메민 뒈는 거. 경헤사 허주 요것이 테왁어음 지금 어음이엔 허는 거 아니?(응, 한 군데는 요렇게 넓게 매고 한 군데는 줄 요렇게 한 줄 한 군데만 딱 달아 매면 되는 거. 그래야 하지 요것이 '테왁어음' 지금 '어음'이라고 하는 거 아니?)

105015 @ 예, 예.(예, 예.)

105015 # 요 굽뎅이로 요렌 영 넙게 메어이. 경 잔뜩 이 저 테왁 움직거리지 안허게 메고 또 노 ᄒᆞ나 욜로 요레 메는 건 ᄒᆞ쏠 질게 헤영 강 메어근에 그냥 테왁 ᄒᆞ쏠 홍글홍글 헤도 어떵 안허게 경헹. 다 경헤도 이녁 테왁은 패적 안 헤도 다 알아.(요 굽으로 요리는 이렇게 넓게 매어. 그렇게 잔뜩 이 저 테왁 움직이지 않게 매고 또 노 하나 요리로 요리 매는 건 조금 길게 해서 가서 매어서 그냥 테왁 조금 흔들흔들 해도 어떻게 하지않게 그렇게 해서. 다 그래도 자기 테왁은 표적 안 해도 다 알아.)

105015 @ 게메 어떵 알앙?(그러게 어떻게 알아서?)

105015 # 경헤도 다 원 물에 들엉 나민 이녁 망사리 문 ᄎᆞᆺ아. 물아래 강 막 이디서 테왁 이디 잇고, 이디 잇고 부쪄 부쪄 잇어도 숨비엉 강 메역 헹 나왕 이녁 테왁 영 베령 훤헤여. 아져 뎅기는 거 훤허영 ᄎᆞᆺ아.(그래도 다 원 물에 들고 나면 자기 망사리 모두 찾아. 물아래 가서 막 여기서 테왁 여기 있고, 여기 있고 붙여 붙여 있어도 '숨비'어 가서 미역 해서 나와서 자기 테왁 이렇게 보고 훤해. 가져 다니는 거 훤하게 찾아.)

148) '어음'은 망사리에 그물을 끼워 고정시키기 위해 나무나 대로 만든 둥근 테두리로 '에움'이라고 한다.

6. 의생활

106001 @ 옷감의 종류에는 어떤 게 잇어마씨?(옷감의 종류는 어떤 거 있어요?)

106001 # 옛날은 베허고 미녕, 멩지벳긔 엇엇어, 엿날엔. 이 광목이엔 헌 건 구경 못헤난 거.(옛날은 베하고 무명, 명주밖에 없었어, 옛날엔. 이 광목이라고 한 건 구경 못했던 거.)

106001 @ 응.(응.)

106001 # 요새난 다우다[149]니 인주니 저런 거 나왐주. 우리 두린 땐 그런 거 하나 엇언.(요새니까 '다우다'니, 인조니 저런 거 나오고 있지. 우리 어린 땐 그런 거 하나 없었어.)

106001 @ 그런 거 하나도 엇어난예.(그런 거 하나도 없었어요.)

명주

106002 @ 그믄 먼저 멩지 허는 거예.(그러면 먼저 명주 하는 거요.)

106002 # 멩지 허는 건 누에 질루는 거라이. 누에 질뢍 멩지 빠는 거. 견디 요 누에 베렝인이 이디 먹을 거 아무것도 엇어도 요디 놓민 논 대로 그대로 이디서만 안네서만 돌주. 베꼇듸로 원 나가지 안허메.(명주 하는 건 누에 기르는 거야. 누에 길러서 명주 빼는 거. 그런데 요 누에 벌레는 여기 먹을 거 아무것도 없어도 요기 놓으면 놓은 대로 그대로 여기서만 안에서만 돌지. 바깥으로 원 나가지 않아.)

106002 @ 기어가지 안헤마씨?(도망가지 않아요?)

106002 # 원 기어나지 안헤여.(원 도망가지 않아.)

106002 @ 아.(아.)

106002 # 겨민 이 채롱이라고 영 저 욜로 요영 요만썩 헌 차롱에 놔. 이만썩 진 것에 경 놓민 좀박[150]이라고 칭칭칭칭 올려놔.(그러면 이 채롱이라고 이렇게 저 요리로 요렇게 요만큼씩 한 채롱에 놔. 이만큼씩 긴 것에 그렇게 놓으면 '좀박'이라고 칭칭칭칭 올려놔.)

106002 @ 응.(응.)

106002 # 놀 디가 비잡으면은 칭칭칭칭 영 올려놔. 올려놓민 그 안네서만 뱅뱅 돌주. 절대 이 누에엔 헌 건 베꼇듸레 나감 버릇이 안허는 거라.(놀 데가 비좁으면 층층층층 이렇게 올려놔. 올려놓으면 그 안에서만 뱅뱅 돌지. 절대 이 누에라고 한 건 바깥으로 나가는 버릇을 않는 거야.)

106006 @ 누에 차롱에 헤근에.(누에 채롱에 해서요.)

---

149) '다우다'는 광택이 있는 얇은 견직물인 '태피터'의 잘못된 발음이다.

150) '좀박'은 곡식을 뜨거나 풀 때 사용하는 나무를 기름하게 파서 만든 도구다. '솔팍, 손박' 등으로도 부른다.

106006 # 차롱에 헤근에 엿날 어른덜이 이 차롱에 허민이 좀방메, 좀방메 요거ᄀᆞ치룩이 칭칭이 칭칭이 영 노프게 영 남 여러 밧듸 세와근에 칭칭이 놓는 거라이. 겨민 이거 아무것에나 못 놔. 대차롱 대로 만든 차롱 영 이만은 질게 하고 요만은 넙게 헤근에 누엘 질르면 요놈으 버렝이가 다른 버렝이들은 옴직옴직 나가 불잖아. 절대 나간 버릇은 엇어. 경 바위 엇어도. 그 안에서만 막 감돌아.(채롱에 해서 옛날 어른들이 이 채롱에 하면 '좀방메', '좀방메' 요거처럼 층층이 층층이 이렇게 높게 이렇게 나무 여러 군데 세워서 층층이 놓는 거야. 그러면 이거 아무것에나 못 놔. 대채롱 대로 만든 채롱 이렇게 이만큼 길게 하고 요만큼 넓게 해서 누에를 기르면 요놈 벌레가 다른 벌레들은 '옴직옴직' 나가 버리잖아. 절대 나가는 버릇은 없어. 그렇게 가장자리 없어도. 그 안에서만 막 감돌아.)

106002 @ 응.(응.)

106002 # 겨민 다 먹은 거 닮으민 영 뽕잎 튿아다근에 이젠 그냥 주는 거라, 탁 허게. 어릴 때는, 막 어릴 때는 요놈으 버렝이가 붸리지 못허여이. 젠젠, 요만썩 헌 건디 경허민 뽕남을 튿아당 막 즘질게 썰엉 칼로 썰엉 영 놔두민 그거 먹으멍 어떵 어떵 커이. 겨민 딱 일주일이민 밥 딱 멈추는 거라. 안 먹어. 이놈으 것이 것이 즘자는 시간이라이. 하룻밤 ᄒᆞ루. 딱 즘자는 시간.(그러면 다 먹은 거 같으면 이렇게 뽕잎 뜯어다가 이젠 그냥 주는 거야, 탁 하게. 어릴 때는, 아주 어릴 때는 요놈의 벌레가 보이지 않아. 자잘한, 요만큼씩 한 건데 그러면 뽕나무를 뜯어다가 막 자잘하게 썰어서 칼로 썰어서 이렇게 놔두면 그거 먹으면서 어떻게 어떻게 커. 그러면 딱 일주일이면 밥 딱 멈추는 거야. 안 먹어. 이놈의 것이 그것이 잠자는 시간이야. 하룻밤 하루. 딱 잠자는 시간.)

106006 @ 경 헤근에.(그렇게 해서.)

106006 # 겨민 그것이 즘자는 시간이라이. 일주일에 ᄒᆞᆫ 번이. 딱 경 허민 밥도 주민 안 먹곡 딱 사름ᄀᆞ치룩 고개 요렇게 헤여.(그러면 그것이 잠자는 시간이야. 일주일에 한 번. 딱 그렇게 하면 밥도 주면 안 먹고 딱 사람처럼 고개 요렇게 해.)

106006 @ 이렇게?(이렇게?)

106006 # 어, 경허민 이놈으 것이 ᄒᆞ루밤, 오늘 아침부터 기민 낼 아침이민 이거 ᄯᅳ시 밥 주민 먹는 거라. 이거, 이거 누에 밥이라이. 우리 밥이엔 허여. 뽕남 주는 게.(어, 그러면 이놈의 것이 하룻밤, 오늘 아침부터 하면 낼 아침이면 이거 다시 밥 주면 먹는 거야. 이거, 이거 누에 밥이야. 우리 밥이라고 해. 뽕나무 주는 게.)

106006 @ 뽕남 주는 거?(뽕나무 주는 거?)

106006 # 밥 주민 그땐 먹어. 먹어근에 그땐 그게 커가민 그것이 흘 벗는 거라.(밥 주면 그땐 먹어. 먹어서 그땐 그게 커가면 그것이 허물 벗는 거야.)

106006 @ 흘?(허물?)

106006 # 어, 봇 벗어불어사 크는 거라. 우리 ᄀᆞ트민 옷이 족아가민 벗엉 새 옷 입듯이 것이 그 봇을 벗어비사 몸뚱어리가 크게 나올 거 아니? 몸뚱어리 커가민 그 봇이 아메도 벗을 거 아니라이. 경허민 그거 깨나민 그 봇도 벗어불곡 허민 ᄎᆞᄎᆞ 홁어지는 거라이.(어, 태 벗어버려야 크는 거야. 우리 같으면 옷이 작아지면 벗어서 새 옷 입듯이

그것이 그 태를 벗어버려야 몸뚱어리가 크게 나올 거 아니? 몸뚱어리 커가면 그 태도 아무래도 벗을 거 아니야. 그러면 그거 깨고 나면 그 태도 벗어버리고 하면 차차 굵어지는 거야.)

106006 @ 응.(응.)

106006 # 홁으민 또 일주일 동안은 줘가민 요만썩은 헤가이. 무쿨무쿨허게 홁어 가. 게민 똑 일주일에 흔 번씩 요거 사 주만 살면은 오 주찬 올리는 거라. 무시거 영 헹 무시거 저 엿날엔 뭐 올릴 거 엇이난에 이 누에도 영 올릴 때 뒈면 막 어디레 영 고개 치멍 막 붸려. 막 돌아뎅겨. 게가민 새 잇잖아. 이 집 비는 새. 거 헤다근에 요만씩 믄착믄착 쫄라. 쫄랑 노 꼬아근엥에 그 옆드레 젭정 확 떼우민 요것이 요치룩 영 앙상헤져이. (굵으면 또 일주일 동안은 줘가면 요만큼씩은 해져. 뭉클뭉클하게 굵어 가. 그러면 꼭 일주일에 한 번씩 요거 사 주만 살면 오 주째는 올리는 거야. 무엇 이렇게 해서 무엇 저 옛날엔 뭐 올릴 거 없으니까 이 누에도 이렇게 올릴 때 되면 막 어디로 이렇게 고개 치면서 막 봐. 막 돌아다녀. 그러면 띠 있잖아. 이 집 이는 띠. 거 해다가 요만큼씩 뭉텅뭉텅 잘라. 잘라서 노 꼬아서 그 옆에 끼워 놓고서 확 비틀면 요것이 요렇게 이렇게 앙상해져.)

106006 @ 예.(예.)

106006 # 앙상허민 요레 줍아놩 내불민 요디서 막 집을 짓는 거라, 그 누에가. 집 짓으민 내중에 그거 실 빼영 멩지 허는 거여 그게. 그거 실 빼여. 이제 저 어디니 지금도 헴서. 누에 질르는 거 나완게, 저 안동, 안동이 어디라? 흑쏠 허믄 안동페 젤 쉐는 것에.(앙상하면 요리 집어놔서 내버리면 요기서 막 집을 짓는 거야, 그 누에가. 집 지으면 나중에 그거 실 빼어서 명주 하는 거야 그게. 그거 실 빼. 이제 저 어디니 지금도 하고 있어. 누에 기르는 거 나오더라, 저 안동, 안동이 어디야? 조금 하면 안동베 제일 세는 것에.)

106006 @ 육지, 육지.(육지, 육지.)

106006 # 안동페라이, 젤 육지 안동이렌 헌 디 그디 누에 질롸서. 흔 번 테레비에 나완게, 그냥. 막 홁어근에 막 홁은 때쯤은 돌아나진 안헤도 그냥 남썹 이만썩 너븐 거 그땐 기냥 한밥 먹은 땐 기자 기냥 이파리 튿아당 썰지 안헹 그냥 탁탁탁 풀엉 그냥 내벼. 내불민 막 커. 그 자리에서 잘 먹은 놈은 제기 올르곡 이 집도 고양 짓어. 못 먹은 놈은 어떵헹 줄고 것도. 재기 집도 안 짓고 집 짓는 것이 어려와. 기운이 엇는ᄀ라. 게난 이것을 잘 멕여야 뒈어. 경허민 그자 금방 줭 놔두민 이 남썹 가까 먹는 소리가 영 들으민 와상와상와상 소리 나이.(안동베야, 젤 육지 안동이라고 한 데 거기 누에 기르고 있어. 한 번 텔레비전에 나오더라, 그냥. 아주 굵어서 아주 굵은 때쯤은 달아나지는 않아도 그냥 나뭇잎 이만큼씩 넓은 거 그땐 그냥 한밥 먹은 땐 그냥 이파리 뜯어다가 썰지 않고 그냥 탁탁탁 풀어서 그냥 내버려. 내버리면 막 커. 그 자리에서 잘 먹은 놈은 재게 오르고 이집 도 고이 지어. 못 먹은 놈은 어떻게 해서 마르고 그것도. 재게 집도 안 짓고 집 짓는 것이 어려워. 기운이 없는지. 그러니까 이것을 잘 먹여야 돼. 그러면 그저 금방 줘서 놔두면 이 나뭇잎 깎아 먹는 소리가 이렇게 들으면 아삭아삭아삭 소리

나.)

106006 @ 예.(예.)

106006 # 먹는 소리도 와상와상 허곡. 이놈으 누에를 질룰 때에 그 한밥 막 먹어갈 때에. 담밸 먹으나 여기서 고기 굽는 내가 나나, 안 뒈, 이거 그때. 물 잘잘잘잘 허멍 누에가 죽어가. 물 찰찰찰찰 허멍 누렁헌 물 나가멍 누에가 죽어. 게난 이거 잘도 정성헤사 뒈는 거. 옆이서 담배 못 먹고 어디 저디서 고기 굽는 내 건허게 나게 말앙 고기도 먹고. 경헤사 뒈여.(먹는 소리도 아삭아삭 하고. 이놈의 누에를 기를 때에 그 한밥 막 먹어갈 때에. 담배를 먹거나 여기서 고기 굽는 냄새가 나거나, 안 돼, 이거 그때. 물 잘잘잘잘 하면서 누에가 죽어가. 물 찰찰찰찰 하면서 누런 물 나가면서 누에가 죽어. 그러니까 이거 잘도 정성들여야 되는 거. 옆에서 담배 못 피우고 어디 저기서 고기 굽는 냄새 건하게 나게 하지 말고 고기도 먹고. 그렇게 해야 돼.)

106006 @ 아까 한밥 먹을 때. 한밥이 무신거?(아까 한밥 먹을 때, 한밥이 뭐?)

106006 # 한밥이렌 헌 거는 누에 올를 때 낭 먹는 거. 그땐 부지런히 먹고 부지런히 주곡 헤사 뒈여.(한밥이라고 한 거는 누에 오를 때 나서 먹는 거. 그땐 부지런히 먹고 부지런히 주고 해야 돼.)

106006 @ 아.(아.)

106006 # 막 부지런히 먹엉 입 흔시 안 노령 먹엉 다 먹어가민 또 앗앙 드리곡 다 먹어가민 또 주곡 헤영 다 먹엉 일주일만 뒈가민 막 올르젠 막 그땐 주댕이 영 허영, 영.(막 부지런히 먹어서 입 한시 안 놀려서 먹어서 다 먹어가면 또 가져가서 들이고 다 먹어가면 또 주고 해서 다 먹어서 일주일만 되어 가면 막 오르려고 막 그땐 주둥이 이렇게 해, 이렇게.)

106006 @ 하하하.(하하하.)

106006 # 겨민 그거 영 발 접형 영 영 앙치랑허게 헌 디레 톡톡톡 좁아놩 내불민 둘아나지도 안 허곡 그자 막 그디서 막 집을 짓어이. 집 짓으민 그걸로 실 빼는 거여.(그러면 그거 이렇게 발 접혀서 이렇게 이렇게 '앙치랑'하게 한 데 톡톡톡 집어놔서 내버리면 달아나지도 않고 그저 막 거기서 막 집을 지어. 집 지으면 그걸로 실 빼는 거야.)

106006 @ 건 어떵헹 실 빼는 거꽈?(그건 어떻게 해서 실 빼는 겁니까?)

106006 # 그것이 어떵사 짓어 가는디 베끗딜로 짓음 시작헹 안에 짓어 가민 어떵 짓으는 중 몰라. 그자 영 붸리믄 고개 그자 그자 이거라, 이거. 고갤 그자. 입으로 실을 내우는 거라이, 입으로. 게민 고갤 그자 영 붸리믄 이거라, 이거. 고개 영영 허멍 그자 영영영영 허멍 그자 집 짓엉 그 안네 들어앚이민 또 요놈으 게 어느 때 타느냐 허민 그 누에 올령 딱 날짜 봥 일주일만 뒈민 이놈으 걸 그것이 누에고치라. 누에고치, 누에고치 허믄 또 그놈을 따 놔. 따 놓민 이제 초불 짓은 거 이렇게 벳겨 불어이.(그것이 어떻게야 지어 가는지 바깥으로 짓기 시작해서 안에 지어 가면 어떻게 짓는지 몰라. 그저 이렇게 보면 고개 그저 그저 이거야, 이거. 고개를 그저. 입으로 실을 내는 거야, 입으로. 그러면 고개를 그저 이렇게 보면 이거야, 이거. 고개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그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그저 집 지어서 그 안에 들어앉으면 또 요놈의 것이 어느

때 따느냐 하면 그 누에 올려서 딱 날짜 봐서 일주일만 되면 이놈의 걸 그것이 누에고치야. 누에고치, 누에고치 하면 또 그놈을 따 놔. 따 놓으면 이제 초벌 지은 거 이렇게 벗겨 버려.)

106006 @ 겉에 거?(곁의 거?)

106006 # 응. 겉에 거 벳겨 불어둥 소곱에 퀭퀭헌 것만 놧다근에 허민 열흘만 넘어가민 또 소곱에서 나비가 퉹 나와비여. 나비 뒈엉 나와불민 그 실 못 빠내메, 그거.(응. 겉의 거 벗겨 버려두고 속에 '퀭퀭'한 것만 놨다가 하면 열흘만 넘어가면 또 속에서 나비가 되어서 나와버려. 나비 되어서 나와버리면 그 실 못 빼, 그거.)

106006 @ 그믄 어떵헤?(그러면 어떻게 해?)

106006 # 그걸 쫄라져 불민이 나비 니빨이 어떵 사나운디 일로 굼기 똘라불민 실이 쫄라져근에 실이 부트질 안헤근에 허민 실 못 빼는 거라, 겨민.(그걸 잘라 버리면 나비 이빨이 어떻게 사나운지 이리로 구멍 뚫어버리면 실이 잘라져서 실이 붙지 않아서 하면 실 못 빼는 거야, 그러면.)

106006 @ 실 빠젠 허민?(실 빼려고 하면?)

106006 # 실을 빠젠 허민 이놈으 거 솟디 놩 솖으멍 실을 빼는 거라이. 솟디 놩 젓으멍 빼영 영 허민 이디 젯가락 대막대기로 젯가락 두 개 헤영 질게 헹 팔팔 끓이는 물에 놩 그자 젓어. 영 젓으멍 영 빼여근에 허민 요자기 물르렌 안 골안?(실 빼려고 하면 이놈의 거 솥에 놔서 삶으면서 실을 빼는 거야. 솥에 놔서 저으면서 빼어서 이렇게 하면 여기 젓가락 대막대길 젓가락 두 개 해서 길게 해서 팔팔 끓는 물에 놔서 그저 저어. 이렇게 저으면서 이렇게 빼서 하면 요전에 물레라고 안 말했어?)

106006 @ 예.(예.)

106006 @ 그런 거 놩 영영영영 헤가민 실을 막 빼여지는 거라이. 그걸로 빼영 그걸로 멩지 짜는 거. 경허난 그 누에로 멩지 짜는 건디.(그런 거 놔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가면 실을 막 뺄 수 있는 거야. 그걸로 빼서 그걸로 명주 짜는 거. 그러니까 그 누에로 명주 짜는 건데.)

106006 @ 이런 거?(이런 거?)

106006 # 응, 이거주, 이거. 이거 영영 둘러가민 일로 솟듸 거 헤영 젓어 가는 냥 실이 부트멍 나오는 거라. 경 아녕 이것이 그것이 소곱에서 나비 뒈엉 나옴 시작허민 고망 뚤아져 불민 실이 안 부떵 실 못 빼는 거.(응, 이거지, 이거. 이거 이렇게 이렇게 둘러가면 이리로 솥의 거 해서 저어 가는 대로 실이 붙으면서 나오는 거야. 그렇게 않고 이것이 그것이 속에서 나비 돼서 나오기 시작하면 구멍 뚫어져 버리면 실이 안 붙어서 실 못 빼는 거.)

106006 @ 게믄 실 멩글젠 허민 고치를 솟듸 놩 솖아.(그러면 실 만들려고 하면 고치를 솥에 놔서 삶아.)

106006 # 솖으멍 젓으멍 실 부쪄가멍 영 헤가믄 실 부트멍 나왕 그것이 고치 세 개, 네 개 거 부트멍 나오민 똑 이디 저 옷 주는 실 줌진 실만은 허게 나와.(삶으면서 저으면서 실 붙여가면서 이렇게 해가면 실 붙으면서 나와서 그것이 고치 세 개, 네 개 거

붙으면서 나오면 꼭 여기 저 옷 깁는 실 자잘한 실만큼 하게 나와.)

106006 @ 게믄 그걸 이레 영 걸어?(그러면 그걸 이리 이렇게 걸어?)

106006 # 응, 게민 이거 영영 둘러가민 막 부트멍.(응, 그러면 이거 이렇게 이렇게 둘러가면 막 붙으면서.)

106006 @ 요렇게 멘들아?(요렇게 만들어?)

106006 # 응, 요추룩 멘들아. 이거 미녕실 짜는 거나, 이 멩지실 빠는 거나 꼭ᄀᆞ따. 영영 둘르멍 허민 그거 멩지실 빼영 ᄆᆞᆯ렷당 것도 또. 게난 멩지 짜젠 허민 얼마나 힘들어. 그거 누에 질롱. 또 그거 실 빼영 또 이거 이제 영 가림 짓어놓민 또 이제 틀 멘들앙 영 놔둠서 이제 또 영 감나, 실을.(응, 요렇게 만들어. 이거 무명실 짜는 거나, 이 명주실 빼는 거나 똑같아. 이렇게 이렇게 두르면서 하면 그거 명주실 빼면서 말렸다가 그것도 또. 그러니까 명주 짜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어. 그거 누에 길러서. 또 그거 실 빼서 또 이거 이제 이렇게 가름 지어놓으면 또 이제 틀 만들어서 이렇게 놔두고서 이제 또 이렇게 감아, 실을.)

106006 @ 응.(응.)

106006 # 감앙 동글랑허게 감아놔사 저저 시계 부러기 만허게 이만큼 둥글락허게 감아 놓민 그것이 열 갠가 허민 또 나 잘 몰라, 설명도. 허민 그걸 또 이제 븐 날 봉가근에 멩지 놀아사, 놀아사 허는 게 그거 이제ᄀᆞ치 심엉 질게 또 빼영 빙빙 질게 오민 할망들 그거 그전에는 잊어불지도 안 헹.(감아서 동그랗게 감아놔야 저저 시계 부피 만하게 이만큼 둥글게 감아 놓으면 그것이 열 갠가 하면 또 나 잘 몰라, 설명도. 하면 그걸 또 이제 날 좋은 날 주워서 명주 날아야, 날아야 하는 게 그거 이제처럼 잡아서 길게 또 빼서 빙빙 길게 오면 할머니들 그거 그전에는 잊어버리지도 않고.)

106006 # 요놈으 실을 빼단 할망이 엄지손ᄀᆞ락 영 허곡 영 허영, 영 허곡 영 허멍 톡톡톡톡 형 허민 그거 헷당 또 끼곡 끼곡 헨에. 그놈으 걸 내중엔 그거 헹 ᄯᅳ시 ᄇᆞ디 공젱이레 질러 ᄒᆞ나씩이. 요거 고망으로 영영영 빼내멍 찔렁 두으로 강 막뎅이 질렁 또 영 클르레 놩. 이 멩지 허젠 허난 멩지나 미녕이나 힘들어.(요놈의 실을 빼다가 할머니 엄지손가락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서 톡톡톡톡 해서 하면 그거 했다가 또 끼우고 끼우고 해서. 그놈의 걸 나중엔 그거 해서 다시 바디 고리에 찔러 하나씩. 요거 구멍으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빼내면서 찔러서 뒤로 가서 막대 찔러서 또 이렇게 틀에 놔서. 이 명주 하려고 하니까 명주나 무명이나 힘들어.)

106006 @ 응.(응.)

106006 # 또 이제 그걸 이젠 또 풀 멕이네이, 이제. 조끔조끔 이제 저만썩 질게 헹 풀 멕영 ᄆᆞᆯ롱 이추룩 날 존 땐 자기 헤지곡 경 아니믄 비나 왐직헌 날은 ᄆᆞᆯ르지 못형, 게민 이제 뒤에 베클을 요만이 헌 거 놩 그거 대 놓멍 또 감앙, 감앙 그걸 베 짜는디.(또 이제 그걸 이젠 또 풀 먹여, 이제. 조금조금 이제 저만큼씩 길게 해서 풀 먹여서 말려서 이렇게 날 좋은 땐 재게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비나 올 것 같은 날은 마르지 못해서, 그러면 이제 뒤에 베틀을 요만큼 한 거 놔서 그거 대 놓으면서 또 감아서, 감아서 그걸 베 짜는데.)

106006 @ 이런 거?(이런 거?)

106006 # 응, 이런 거. 이거 이거 잘 만들어 놔신게. 요추룩 클 걸엉 짜는디 우리도 짜보긴 ᄒᆞ꼼 짜 봐서. ᄒᆞ꼼 짜 봐신디 그루후제 ᄒᆞᆫ 열 멧 살에 짜 본 냥 원 안 짜봣어. 이놈으 ᄇᆞ딜 이걸 이추룩 봉을고[151] 영영 헤져사 이거 짜는 거라이.(응, 이런 거. 이거 이거 잘 만들어 놓았네. 요렇게 틀 걸어서 짜는데 우리도 짜보긴 조금 짜 봤어. 조금 짜 봤는데 그 후에 한 열 몇 살에 짜 본 대로 원 안 짜봤어. 이놈의 바디를 이걸 이렇게 '봉을고' 이렇게 이렇게 할 수 있어야 이거 짜는 거야.)

106006 @ 응.(응.)

106006 @ 이걸 영 허민 이놈으 ᄇᆞ디가 알러레 ᄂᆞ려불민 요 중간으로 중간으로 이제 그 북이라고. 이 꼬리 감앙 찔른 거. 그걸 요레 빼고 욜로 찔르고 욜로 빼곡 허멍. 이거 비 요레 찔러뒁 이 손으로 영 찔러뒁 요 손으로 마튼디 이건 앞으로 때려야 뒈어. 때리곡 또 경 허곡 허민 손 잰 사람은 멩지도 ᄒᆞ루 열댓 자이, 멩지 ᄒᆞ루 열댓 자를 짜보라. 아이고 열댓 자, 열여섯 자 경 짜멍 그 옷들을 헨 입엇어, 엿날에. 이거 베클 잘 만들어 놔신게.(이걸 이렇게 하면 이놈의 바디가 아래로 내려 버리면 요 중간으로 중간으로 이제 그 북이라고. 이 실톳 감아서 찌른 거. 그걸 요리 빼고 요리로 찌르고 요리로 빼고 하면서. 이거 북 요리 찔러두고 이 손으로 이렇게 찔러두고 요 손으로 받았는데 이건 앞으로 때려야 돼. 때리고 또 그렇게 하고 하면 손 잰 사람은 명주도 하루 열댓 자, 명주 하루 열댓 자를 짜봐라. 아이고 열 댓 자, 열여섯 자 그렇게 짜면서 그 옷들을 해서 입었어, 옛날에. 이거 베틀 잘 만들어 놨네.)

106020 @ 이거 먼저 물르레부터예, 물르레 이거 혹시.(이거 먼저 물레부터요, 물레 이거 혹시.)

106020 # 요건 씨 ᄇᆞᆯ르는 건게, 이건.(요건 씨 바르는 거네, 이건.)

106020 @ 씨 ᄇᆞᆯ르는 거. 멘네 씨 ᄇᆞᆯ르는 거. 멘네 ᄒᆞ꼼 이땅 허고. 이거.(씨 바르는 거. 목화 씨 바르는 거. 목화 조금 있다가 하고. 이거.)

106020 # 요거 실 내는 거.(요거 실 내는 거.)

106020 @ 실 내는 건디 요 잡는 디 무신거엔 ᄀᆞᆯ아?(실 내는 건데 요 잡는 데 무엇이라고 말해?)

106020 # 요건 잡는 딘 그자 손젭이주.(요건 잡는 덴 그저 손잡이지.)

106020 @ 손젭이 그냥. 요 바퀴는?(손잡이 그냥. 요 바퀴는?)

106020 # 요건 그자 이거나 이거나 그자 물르레엔만 ᄀᆞᆯ아.(요건 그저 이거나 이거나 그저 물레라고만 말해.)

106020 @ 따로 ᄀᆞᆫ는 말 엇수과?(따로 하는 말 없습니까?)

106020 # 요건 실 저 짜는 가락지.(요건 실 저 짜는 가락.)

106020 @ 요건 가락지. 요거는?(요건 가락. 요거는?)

106020 # 실가락이. 요것도 그냥 이건 ᄯᅮ루 우리 ᄀᆞᆯ아보지 아년.(실 가락. 요것도 그냥 이건 따로 우리 말해보지 않았어.)

151) '봉을다'는 단단하게 당겨서 매는 것을 말한다.

106020 @ 골아보지 안헤연?(말해보지 않았어?)

106020 # 이런 건 따로 곧는 건 우리가 물어보지 못헌 거라.(이런 건 따로 말하는 건 우리가 물어보지 못한 거야.)

106020 @ 뭐, 물렛줄, 궤머리기둥, 궤머리.(뭐, 물렛줄, 괴머리기둥, 괴머리.)

106020 # 궤머리기둥엔 헌 거는 이거이, 짜는 것이 궤머리지둥이 실 거여, 어디.(괴머리기둥이라고 한 거는 이거, 짜는 것이 괴머리기둥이 있을 거야, 어디.)

106020 @ 아, 거기 궤머리지둥이렌 헷수과?(아, 거기 괴머리기둥이라고 했습니까?)

106020 # 어디 이디 궤머리지둥이 어느 것산디. 이건 베클.(어디 여기 괴머리기둥이 어느 것인지. 이건 베틀.)

106020 @ 이거부터, 이거부터 또 다른 거 아는 거 아무것도 엇어? 물레바퀴.(이거부터, 이거부터 또 다른 거 아는 거 아무것도 없어? 물레바퀴.)

106020 # 바퀴도 이거 뜨로 골아 본 건, 물레 바퀴엔 헌 건 물레 요거 살.(바퀴도 이거 따로 말해 본 건, 물레 바퀴라고 한 건 물레 요거 살.)

106020 @ 물레살.(물렛살.)

106020 # 살이렌 골앗주. 물레 바퀴엔 헌 말은 아이고 물렛살 요거 비틀어지민 안 뒌다고 요거 가락지. 요건 실 빼는 거, 실 빼는디 요건 원 무시거옌 곧는지 원 들어본 디 엇어. 그자(살이라고 말했지. 물레 바퀴라고 한 말은 아이고 물렛살 요거 비틀어지면 안 된다고 요거 가락. 요건 실 빼는 거, 실 빼는데 요건 원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원 들어본 적 없어. 그저.)

106020 @ 이건 즈룩?(이전 자루?)

106020 # 즈룩. 할망들이 요건 무시거 요건 무시거옌 골앙 헤시민 허주만 그자 물레민 물레다, 이건 실 빼는 물레 실 이거 멘네 씨 갈르는 물르레, 원 그거 두 가지만 골아 나난 우리 몰라.(자루. 할머니들이 요건 무엇 요건 무엇이라고 말해서 했으면 하지만 그저 물레면 물레다, 이건 실 빼는 물레 실 이거 목화 씨 가르는 '물르레', 원 그거 두 가지만 말해서 우리 몰라.)

106020 @ 이건 물레, 이건 물르레?(이건 물레, 이건 '물르레'?)

106020 # 응.(응.)

106020 @ 물르레는?('물르레'는?)

106020 # 씨 불르는 거.(씨 바르는 거.)

106020 @ 멘네 씨 불르는 거예, 요디 이름 요것도 이름 이신가?(목화 씨 바르는 거요, 요기 이름 요것도 이름 있나?)

106020 # 이름 몰라. 이거 이름 안 골아.(이름 몰라. 이거 이름 안 말해.)

106020 @ 이름 안 골아.(이름 안 말해.)

106020 # 그저 꼴아 앚는 건 판대기 허는 거뿐. 이거ᄀᆞ라, 발로 불라야 뒈잖아, 판대기 불라.(그저 깔아 앉는 건 판대기 하는 거뿐. 이거보고, 발로 밟아야 되잖아, 판대기 밟아.)

106020 @ 쐐기 뭐 이런 말 엇어?(쇄기 뭐 이런 말 없어?)

106020 # 엇어.(없어.)

106020 @ 엇어예.(없어요.)

106020 # 엿날 할망들 딱 흔 가지뿐. 원, 뭐옌 ᄀᆞᆫ는 걸 못 들엇어, 이것이.(옛날 할머니들 딱 한 가지뿐. 원, 뭐라고 말하는 걸 못 들었어, 이것이.)

106020 @ 그믄 야이도 물레, 야이도 물레?(그러면 이 얘도 물레, 이 얘도 물레?)

106020 # 어.(어.)

106020 @ 똑ᄀᆞ테?(똑같아?)

106020 # 똑ᄀᆞ트게 불러.(똑같게 불러.)

106020 @ 이름 똑ᄀᆞ치 불러?(이름 똑같이 불러?)

106020 # 씨 갈르는 물레 앗아오라.(씨 가르는 물레 가져와라.)

106020 @ 아, 씨 갈르는 물레, 이건 실 짜는 물레.(아, 씨 가르는 물레, 이건 실 짜는 물레.)

106020 # 경벳긔 안 ᄀᆞᆯ아. 뚠 이름이 엇어 요거는 베 짜는 베틀.(그렇게밖에 안 말해. 다른 이름이 없어, 요거는 베 짜는 베틀.)

106021 @ 베틀, 베틀은, 베틀도 이게 이름이.(베틀, 베틀은, 베틀도 이게 이름이.)

106021 # 이름이 이제, 이제난 여러 가지 썸지. 엿날엔 여러 가지 지운 게 엇어. 엿날엔 엿날 할망들 경 그자.(이름이 이제, 이제니까 여러 가지 쓰고 있지. 옛날엔 여러 가지 지은 게 없어. 옛날엔 옛날 할머니들 그렇게 그저.)

106021 @ 경헤도 바디, 바디집 이런 거 잇잖아예.(그래도 바디, 바디집 이런 거 있잖아요.)

106021 # 응, 요거 저.(응, 요거 저.)

106021 @ 이앗대?(이앗대?)

106021 # 바디엔 헌 건 바디가 아니고.(바디엔 헌 건 바디가 아니고.)

106021 @ ᄇᆞ디, ᄇᆞ디?(ᄇᆞ디, ᄇᆞ디?)

106021 # ᄇᆞ디 잇곡, ᄇᆞ디집이엔 헌 거 영 거.(바디 있고, 바디집이라고 한 거 이렇게 한 거.)

106021 @ 이거, 이거.(이거, 이거.)

106021 # 요거이. 요거 ᄇᆞ디 아냐? 요건 ᄇᆞ디집, 요건 ᄇᆞ디 그거.(요거. 요거 바디 아니냐? 요건 바디집, 요건 바디 그거.)

106021 @ 요건?(요건?)

106021 # 우린 그것만 요건 비.(우린 그것만 요건 북.)

106021 @ 비?(북?)

106021 # 비, 비. 요건 요것이 저 꼬리 놔근에 이레 영 요거 중간으로 요거 올려 불민 중간으로 놔 불민 요거 심엉 잡아딩기는 거고 이건.(북, 북. 요건 요것이 저 실톳 놔서 이리 이렇게 요거 중간으로 요거 올려 버리면 중간으로 놔 버리면 요거 잡아서 잡아당기는 거고 이건.)

106021 @ 그게 비?(그게 북?)

106021 # 응, 이거 실 놩 밀력 ᄃᆞᆼ격 영영 허는 거. 영영.(응, 이거 실 놔서 밀었다 당겼다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이렇게.)

106021 @ 영영 밀력 ᄃᆞᆼ격 허는 거예?(밀었다 당겼다 하는 거요?)

106021 # 꼬리 놔근에.(실톳 놔서.)

106021 @ 그다음 뭐 이앗대 이런 거 엇어?(그다음 뭐 잉앗대 이런 거 없어?)

106021 # 그런 말은 못 들엇어, 우린.(그런 말은 못 들었어, 우린.)

106021 @ 그민 이디 앚이는 디 허리에 영 차는 거.(그러면 여기 앉는 데 허리에 이렇게 차는 거.)

106021 # 허리에 차는 것도 이것이 그자 허리에 차는 거여 뿐이주, 무신. 요거 뭣이다 허는 이름을 안 지운 거라, 할망들이.(허리에 차는 것도 이것이 그저 허리에 차는 거다 뿐이지, 무슨. 요거 무엇이다 하는 이름을 안 지은 거야, 할머니들이.)

106021 @ 아니 발로 무신거 ᄇᆞᆯ르라 영 안 헤?(아니 발로 무엇 밟아라 이렇게 안 해?)

106021 # 아니, 그런 말도 엇어.(아니, 그런 말도 없어.)

106021 @ 도투마리?(도투마리?)

106021 # 도꼬마리, 거 영.(도투마리, 그거 이렇게.)

106021 @ 응, 도꼬마리.(응, 도투마리.)

106021 # 도꼬마리엔 헌 건 요디 그 영 천 짤 거 영 감는 거 그거 ᄒᆞ나. 베클 그자 그런 말만 들엇주. 도꼬마리허고 베클 말만 들엇주. 발 ᄃᆞᆼ기는 것도 무신거엔 ᄀᆞᆫ는 냥 엇고, 듣지 못허고.(도투마리라고 한 건 요기 그 이렇게 천 짤 거 이렇게 감는 거 그거 하나, 베틀 그저 그런 말만 들었지. 도투마리하고 베틀 말만 들었지. 발 당기는 것도 무엇이라고 말하는 것도 없고, 듣지 못하고.)

106021 @응.(응.)

106021 # 그자 베클 그자 요 뒤에 거 헌 거 도꼬마리. 그거, 그거만 들엇주. 뭐 이 허리에 차는 것도 뭐엔 ᄀᆞᆫ는 걸 우리가 못 들어서 할망들이 ᄀᆞᆫ질 아녀, 이거는.(그저 베틀 그저 요 뒤의 거 한 거 도투마리. 그거, 그것만 들었지. 뭐 이 허리에 차는 것도 뭐라고 말하는 걸 우리가 못 들어서 할머니들이 말하질 않아, 이거는.)

106021 @ 이거는 비. 손에 영 잡은 건 비.(이거는 북. 손에 이렇게 잡는 건 북.)

106021 # 비 손에 영영 허는 건 비. 요거는 ᄇᆞ디.(북 손에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건 북. 요거는 바디.)

106021 @ 요건 ᄇᆞ디.(요건 바디.)

106021 # 영영 허는 건 ᄇᆞ디.(이렇게 이렇게 하는 건 바디.)

106021 @ 다음에 이디 이디 영 뎅 낭 이신 거 이앗대엔 헤는 건디.(다음에 여기 여기 이렇게 대서 나무 있는 거 잉앗대라고 하는 건데.)

106021 # 그건디.(그건데.)

106021 @ 몰라예.(몰라요.)

106021 # 응, 그런 말은 안 ᄀᆞᆯ안. 뭐가 뭔데 저 영영 ᄂᆞ리우노렌 허민 그디 영 실이

영 감아진 거 이성, 잉엣대엔 헌 말은 잇어.(응, 그런 말은 안 말했어. 뭐가 뭔데 저 이렇게 이렇게 내린다고 하면 거기 이렇게 실이 감아진 거 있어서, 잉앗대라고 한 말은 있어.)

106021 @ 잉엣대.(잉앗대.)

106021 # 그거라, 그거. 그거 ᄒᆞ나뿐 잇주.(그거야, 그거. 그거 하나뿐 있지.)

106021 @ 나왐서예, ᄒᆞ꼼씩예.(나오고 있어요, 하나씩요.)

106021 # 그루후젠 원 무시거엔 ᄀᆞᆫ는 걸 몰라. ᄀᆞᆫ지도 아니허고 할망들 들어본 디도 엇고, 나.(그 후엔 원 무엇이라고 말하는 걸 몰라. 말하지도 않고 할머니들 들어본 적도 없고, 나.)

106021 @ 용두머리.(용두머리.)

106021 # 용두머리엔 헌 말은 우린 못 들언.(용두머리라고 한 말은 우린 못 들었어.)

106021 @ 이디, 이디 위에 이신 거. 아니, 요기 요기 쪼짝 나온 거. 눈썹대.(여기, 여기 위에 있는 거. 아니, 요기 요기 '쪼짝' 나온 거. 눈썹대.)

106021 # 그런 눈썹대여, 용두머리엔 헌 말은 어디 육지서 나온 말이주.(그런 눈썹대다, 용두머리라고 한 말은 어디 육지서 나온 말이지.)

106021 @ 이거 육지말 이건.(이건 육짓말 이건.)

106021 # 이디선 그런 말 안 써.(여기선 그런 말 안 써.)

106021 @ 이디선 그런 말 안 썬예.(여기선 그런 말 안 썼어요.)

106021 # 그저 미녕 짜는 거 베클, 저 도꼬마리엔 헌 건 매 또꼬냥 감은 거 감은 거 그거 도꼬마리. 원 그거 짜는 거 그자 그 ᄇᆞ디, ᄇᆞ디집 요 실 영영 허는 거 비. 그거 뿐이주. 허리에 감는 게 뭐인지, 요 베틀에 요 발 ᄃᆞᆼ기는 거 뭐인디 그런 말은 안 ᄀᆞᆯ아.(그저 무명 짜는 거 베틀, 저 도투마리라고 한 건 맨 마지막 감은 거 감은 거 그거 도투마리. 원 그거 짜는 거 그저 그 바디, 바디집 요 실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 북. 그거뿐이지. 허리에 감는 게 뭔지, 요 베틀에 요 발 당기는 거 뭔지 그런 말은 안 해.)

106021 @ 안 ᄀᆞᆯ아예?(안 말해요?)

106021 # 옛날 할망들 원 그런 말 ᄀᆞᆫ는 걸 못 들언.(옛날 할머니들 원 그런 말 하는 걸 못 들었어.)

106021 @ 게민 이제.(그러면 이제.)

106021 # 이 육지 분들은 이 베 짜멍 베, 베클 노래도 다 불른덴 헤여. 헤도 이디 할망덜 그런 거 불름이랑마랑, 우리 제주 할망들이 완전 엿날도 어두우난게 그런 거, 저런 거 원.(이 육지 분들은 이 베 짜면서 베, 베틀 노래도 다 부른다고 해. 해도 여기 할머니들 그런 거 부르기는커녕, 우리 제주 할머니들 완전 옛날도 어리석으니까 그런 거, 저런 거 원.)

106021 @ 힘드난게.(힘드니까.)

106003 @ 멩지는 종류가 어떻게 어떻게 이수과? 멩지실 종류가?(명주는 종류가 어떻게 어떻게 있습니까? 명주실 종류가?)

106003 # 멩지실 종류는.(명주실 종류는.)

106003 @ 아니, 멩지 종류, 실이 아니고 멩지 짠 거.(아니, 명주 종류, 실이 아니고 명주 짠 거.)

106003 # 짠 거 종류는 멧 가지 엇어. 실이 좀질민 무신 으돕 새 멩지, 일곱 새 멩지, 영만 들엇지. 멩지실도 홁게 낸 거 잇고 좀질게 낸 거 잇어이. 경허민 좀진 건 아이고 요거 으돕 새 헤사 뒈켜.(짠 거 종류는 몇 가지 없어. 실이 자잘하면 무슨 여덟 새 명주, 일곱 새 명주, 이렇게만 들었지. 명주실도 굵게 낸 거 있고 자잘하게 낸 거 있어. 그러면 자잘한 건 아니고 요거 여덟 새 해야 되겠다.)

106003 @ 아, 미녕 말고 멩지도 경 골아낫수과?(아, 무명 말고 명주도 그렇게 말했었습니까?)

106003 # 어. 멩지도 경 골아. 멩지도 실 좀진 건 요건 으돕 새, 홁은 건 요거 실 홁어부난 흔 일곱 새 헤사켜 그거주. 게난 일곱 새가 멧, 무신건디, 으돕 새가 뭔지 그자 멩지 골은 거 들은 거뿐 나도.(어. 명주도 그렇게 말해. 명주도 실 자잘한 건 요건 여덟 새, 굵은 건 요거 실 굵어버리니까 한 일곱 새 해야겠다 그거지. 그러니까 일곱 새가 몇, 무엇인지, 여덟 새가 뭔지 그저 명지 말한 거 들은 거뿐 나도.)

106003 @ 생멩진 무신거라?(생명주는 무엇이야?)

106003 # 생멩지는 짜멍사라 멩지가 바짝 허잖아이. 빠짝허민 그건 생멩지. 이 멩지를 이제 또 짜놓민 바짝헌 멩지를 모랑모랑허게 허젠 허면 저 지금 메밀 잇잖아이. 메밀껍 헤낭 겁데기, 겁데기 불 살롸근에 그것이 막 ᄉᆞ는 거라이. 술민 또 그 메밀겁데기에 불치를 또 서껑 또 술고, 또 술고 흔 세불, 네불 불껑에다 불을 살롸가민 요놈이 불껑 영 물에 놓민 문작혀. 손이 문작허여이. 그때는 그 물 카 놔근에 이 멩지를 놩 숢는 거라. 숢앙 놔두민 멩지가 그냥 짠 건 버짝허는디, 요 멩지가 말랑말랑허는 거라. 그 물에 놩 숢으민.(생명주는 짜면서 바로 명주가 바짝하잖아. 바짝하면 그건 생명주. 이 명주를 이제 또 짜놓으면 바짝한 명주를 말랑말랑하게 하려고 하면 저 지금 메밀 있잖아. 메밀껍질 해놓고 껍데기, 껍데기 불 사라서 그것이 막 사르는 거야. 사르면 또 그 메밀껍질에 재를 또 섞어서 또 사르고, 또 사르고 한 세벌, 네벌 재에다 불을 사라가면 요놈이 재 이렇게 물에 놓으면 문적해. 그때는 그 물 타 놔서 그 명주를 삶는 거야. 삶아서 놔두면 명주가 그냥 짠 건 '버짝'하는데, 요 명주가 말랑말랑하는 거야. 그 물에 놔서 삶으면.)

106003 @ 모멀채?(메밀겨?)

106003 # 모물채에다 놔근에 채를 불에 ᄉᆞ는 거라. 채를 불에 술고 또 불에 술곡 그 채를 놔근에 또 그 불껑에다가 그 모물채 서껑 불 부쳥 놔두고 불 부쳥 놔두고 허민 그 재가 여러 번 불 부떠 가민 물에 카 놓민 재 문작허여이, 멘작허여. 영영 허민 비눗물ᄆᆞ냥 멘작허민 멩질 그 물에 놩 숢는 거라. 막 골고루 헹 영 물 적지멍 숢아놓민 멩지가 이제 버짝헷던 멩지가 놀싹ᄒᆞ는 거라이. 멩지 눼는[152] 거.(메밀겨에다 놔서 겨를 불에 사르는 거야. 겨를 불에 사르고 또 불에 사르고 그 겨를 놔서 또 그 재에다가 그 메밀겨 섞어서 불 붙여서 놔두고 불 붙여서 놔두고 하면 그 재가 여러 번 불 붙어 가면 물

152) '눼다'는 뻣뻣한 생명주에 재를 넣고 삶아서 부드럽게 만드는 것을 말한다.

에 타 놓으면 재 문적해. 미끌해. 이렇게 이렇게 하면 비눗물처럼 미끌하면 명주를 그 물에 놔서 삶는 거야. 막 골고루 해서 이렇게 물 적시면서 삶아놓으면 명주가 이제 '버짝'했던 명주가 '놀싹'하는 거야. 명주 '눼는' 거.)

106003 @ 멩지 눼는 거.(명주 '눼는' 거.)

106003 # 경허민 그땐 이젠 그거 멩지 헹 막 두어 번, 서너 불 막 깨끗허게 뿔아뒁 풀헤영 막 마께로 두드리멍, 에휴, 멩지 다듬나 허는 게이 다듬이로 이거.(그러면 그땐 이젠 그거 명주 해서 막 두어 번, 서너 벌 막 깨끗하게 빨아두고 풀해서 막 방망이로 두드리면서, 에휴, 명주 다듬는다 하는 게 다듬이로 이거.)

106003 @ 응.(응.)

106003 # 이거 영영 계속 다듬아. 게민 멩지가 삔직삔직허게 다듬아져사 걸로 새서방들 엿날에 옷 헐 거 엇이난 그걸로 큰옷 허고 두루막 허고, 바지 저고리 허곡. 경헹 새서방 옷들 허고 또 새각시덜도 시집가젠 허민 그것이 물들영 파란 물들이곡 또 붉은 물들이곡 허영 이불짓 허고, 그거 다듬앙 이불 만들고. 새각시 치메, 저고린 그자 헤영 헌 걸로 그냥 허곡. 거민 요거 생멩진는 버짝허영 만날 뿔아도 버짝버짝 허여이. 경허민 이 멩지 눼영 다듬나 허는 게 그게 제일 힘들어.(이거 이렇게 이렇게 계속 다듬어. 그러면 명주가 반짝반짝하고 다듬어져야 그걸로 새신랑들 옛날에 옷 할 거 없으니까 그걸로 큰옷 하고 두루마기 하고, 바지 저고리 하고. 그래서 새샌랑 옷들 하고 또 새각시들도 시집가려고 하면 그것이 물들여서 파란 물들이고 또 붉은 물들이고 해서 이불깃 하고, 그거 다듬어서 이불 만들고, 새색시 치마, 저고린 그저 하얀 걸로 그냥 하고. 그러면 요거 생명주는 '버짝'해서 만날 빨아도 '버짝버짝' 해. 그러면 이 명주 '눼엉' 다듬는다 하는 것이 그게 제일 힘들어.)

106004 @ 게민 멩지로는 주로 새서방 새각시 옷만 멘드는 거과?(그럼 명주는 주로 새신랑 새색시 옷만 만드는 겁니까?)

106004 # 처암엔 엿날엔 경허는 거라, 완전. 그냥 우리 일반도 헹 입는디. 우리 일반 끄장 그걸로 다 헹 입젠 허민 엇이민 그걸 막 요새 비단옷 헹 입지듯이 새서방 새각시 걸 헹 입지는 거라. 겨민 그 사람네 그거 입어 나민 어디 갈 때나 치메 저고리도 어디 갈 때, 나들이헐 때나 입주. 집이선 안 입주게. 그걸 막 곤 옷으로, 어디 나갈 때 그거 그냥.(처음엔 옛날엔 그렇게 하는 거야, 완전. 그냥 우리 일반도 해서 입는데. 우리 일반까지 그걸로 다 해서 입으려고 하면 없으면 그걸 막 요새 비단옷 해서 입히듯 새신랑 새색시 걸 해서 입히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들 그거 입고 나면 어디 갈 때나 치마 저고리도 어디 갈 때, 나들이할 때나 입지. 집에선 안 입지. 그걸 아주 고운 옷으로, 어디 나갈 때 그거 그냥.)

무명

106007 @ 게민 이번엔 미녕예. 미녕 종류는 어떤 거 어떤 거 이수과?(그러면 이번엔 무명요. 무명 종류는 어떤 거 어떤 거 있습니까?)

106007 # 미녕 종류? 멧 가지 엇어. 흰 거뿐이주.(무명 종류? 몇 가지 없어. 흰 거뿐이지.)

106007 @ 그것도 아까추룩 다섯새 미녕, 엿새미녕 이렇게 헤?(그것도 아까처럼 다섯새 무명, 엿새 무명 이렇게 해?)

106007 # 그건이 실 내는 사람이 실 줏는 사람이 즘상헌[153] 사람은 실도 즘상허게 내영 ᄀᆞ늘이 곱닥허게 내여. 내민 일곱새 미녕이라고 즘지롱허고, 그자 어리손질[154]형에이 휘딱휘딱 넘어가주 허는 사람은 실도 홁게 내여이. 영영 허민, 영 내민 실이 홁어. 홁으민 요건 에에 엿새 미녕베낀 안 뒈켜. 미녕 짜 놓민 둘둘헌 게 두꺼와 그거. 게난 실 홁게 내고 즘질게 내는 거. 그거, 미녕은.(그건 실 내는 사람이 실 잣는 사람이 '즘상'한 사람은 실도 '즘상'하게 내어서 가늘게 곱게 내어. 내면 일곱새 무명이라고 자잘하고, 그저 '어리손질'해서 에이 후딱후딱 넘어가지 하는 사람은 실도 굵게 내.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렇게 내면 실이 굵어. 굵으면 요건 에에 엿새 무명밖에 안 되겠다. 무명 짜 놓으면 '둘둘헌' 게 두꺼워, 그거. 그러니까 실 홁게 내고 자잘하게 내는 거. 그거, 무명은.)

106007 @ 혹시 토목, 생목 영 허는 거 이수과?(혹시 토목, 생목 이렇게 하는 거 있습니까?)

106007 # 토목, 생목 허는 말은 못 들엇어, 우리가.(토목, 생목 하는 말은 못 들었어, 우리가.)

106007 @ 이디 멩지, 육지 멩지.(여기 명주, 육지 명주.)

106007 # 육지 멩지 이디 멩지 허민 이디 멩지가 원래. 그전에는 멩지도 이디 멩지나 육지 멩지나 엥간히 ᄀᆞ따신디. 토목 무신거 허는 거.(육지 명주 여기 명주 하면 여기 명주가 원래. 그전에는 명주도 여기 명주나 육지 명주나 웬만히 같았는데. 토목 무엇 하는 거.)

106007 @ 게난 토목.(그러니까 토목.)

106007 # 건 베주, 베.(그건 베지, 베.)

106007 @ 그건 베?(그건 베?)

106007 # 베가 육지 베가 고와이, 이디 베보단. 엿날 이디 베도 이디도 삼을 어느 때 비느냐 허민 보리 ᄀᆞ슬광 똑ᄀᆞ따이, 허는 거라, 이거.(베가 육지 베가 고와, 여기 베보단. 옛날 여기 베도 여기도 삼을 어느 때 베느냐 허민 보리 수확과 똑같아, 하는 거야, 이거.)

106008 @ 삼은 이땅 할머니, 미녕 헤 나걸랑. 미녕으로 게민 무신 옷 멘드는 거꽈?(삼은 이따가 할머니, 무명 하고 나걸랑. 무명으로 게민 무슨 옷 멘드는 겁니까?)

106008 # 미녕으론 요새 그자 감 들영 입는 옷, 엿날은 이 제주도는 그추룩 감만 들이멍 입엇어. 흰 옷 입젠 헤도 비누가 잇어사 뿔아 입을 거 아니?(무명으론 요새 그저 감 들여서 입는 옷, 옛날은 이 제주도는 그렇게 감만 들이면서 입었어. 흰 옷 입으려고

153) '즘상허다'는 세심하고 꼼꼼하다는 뜻이다.

154) '어리손질'은 '어리-'는 일부 동물 명사나 식물 명사 앞에 붙어, '모자라는', '덜 갖추어진'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로 '손질' 앞에 붙어서 대충 손질하다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해도 비누가 있어야 빨아 입을 거 아니?)

106008 @ 게난예.(그러니까요.)

106008 # 비누 엇엉 뿔지 못허고 허난 그자 감물 물들영 입엉 버물민 그냥 물에 강 뜸이나 영영 헤왕 그자 입곡. 이 멩지 옷 ᄀᆞ튼 거 허민 뭔 물에 뻐느냐 허민 ᄀᆞᆺ사 ᄀᆞᆫ듯이 잿물, 그거 카노민 물이 멘지락허여. 게민 것에 컹 놔두민 뒈. 때가 쏙 빠져. 게민 그걸로 힌 옷 그것에서 때 지왕 입곡 경헷주. 어디 미녕 옷 힌 거 입어보질 못헷어. 때 지우지 못헤영. 검은 물 들영.(비누 없어서 빨지 못하고 하니까 그저 감물 들여서 입어서 더러우면 그냥 물에 가서 땀이나 이렇게 이렇게 헹궈서 그저 입고. 이 명주 옷 같은 거 하면 무슨 물에 빠느냐 하면 아까 말하듯 잿물, 그거 타 놓으면 물이 매끄러워. 그러면 그것에 담가서 놔두면 돼. 때가 쏙 빠져. 그러면 그걸로 흰 옷 그것에서 때 지워서 입고 그랬지. 어디 무명 옷 흰 거 입어보질 못했어. 때 지우지 못해서. 검은 물 들여서.)

106008 @ 주로 입는 게 갈중의?(주로 입는 게 갈중의?)

106008 # 응, 갈중의허곡 검은 물 들영.(응, 갈중의하고 검은 물들여서.)

106008 @ 아, 검은 물.(아, 검은 물.)

106008 # 검은 몸빼.(검은 일바지.)

106008 @ 아, 검은 몸빼.(아, 검은 일바지.)

106008 # 검은 몸빼 그자. 주로 입는 건 갈몸빼, 갈중의 그거. 그거 입엇주, 경.(검은 일바지 그저. 주로 입는 건 '갈몸뻬', 갈중의 그거. 그거 입었지, 그렇게.)

106008 @ 미녕, 광목은 나중에사 난 거꽈?(무명, 광목은 나중에야 난 겁니까?)

106008 # 광목 막 우리 역은 후제 막 역은 후제. 우리 흔 이십 대 그때 미녕으로 이불안 허고. 흔 이십오 세 거저 흔 삼십 대 나가난 광목이 널어진 거.(광목 막 우리 큰 후에. 우리 한 이십 대 그때 무명으로 이불안 하고. 한 이십오 세 거의 한 삼십 대 나가니까 광목이 널린 거.)

106008 @ 그믄 옛날에는 그냥 미녕밖에.(그러면 옛날에는 그냥 무명밖에.)

106008 # 미녕으로만 겡 헤 놓민 옷을 헹 입어가민 헐어가민 미녕을 경 하영 헤져? 이녁 밧 엇곡 허민 그 소게를 하영 멘네를 하영 갈지 못허는 거라. 미녕 ᄒᆞ꼼만 허민 그거 무시거 수정이나 한 디쯤은 무시거 바지 저고리 헹 입곡 무시거 허당 보민 어느 절에 옷 헹 입곡 헐 저르가 엇엇어.(무명으로만 그렇게 해놓으면 옷을 해서 입어가면 헐어가면 무명을 그렇게 많이 할 수 있어? 자기 밭 없고 하면 그 솜을 많이 목화를 많이 갈지 못하는 거야. 무명 조금만 하면 그거 무엇 숫자나 많은 데쯤은 무엇 바지 저고리 해서 입고 무엇 하다보면 어느 겨를에 옷 해서 입고 할 겨를이 없었어.)

106011 @ 홍세미녕은 무신거과?(홍세무명은 무엇입니까?)

106011 # 홍세엔 헌 건 그 미녕 헷당 시집 장게갈 때 홍세 놓는 거. 이제 ᄀᆞ뜨민 거ᄀᆞ라 뭐엔 ᄀᆞᆫ느니 저.(홍세라고 한 건 그 무명 했다가 시집 장가갈 때 홍세 놓는 거. 이제 같으면 그것보고 뭐라고 말하니 저.)

106011 @ 함.(함.)

106011 # 함. 함 소곱에 놩 가는 거 요샌 엿날엔 이제도 그거주. 육지엔 '함 사세요.'

함 풀레 가주마는이 이던 그것이 엇어. 동글랑헌 남 하꼬 요 베개보단 ᄒᆞ쏠 크게 헤여 근에 미녕 두 필, 두 필 넘어도 안 놔. 두 필이엔 헌 건 마흔 자짜리 두 개. 사십 자짜리 두 개이. 그거 두 개 놩 그디 여장 쓴 거 놓곡 형 잔칫날사 아졍강 줘.(함. 함 속에 놔서 가는 거 요샌 옛날엔 이제도 그거지. 육지엔 '함 사세요.' 함 팔러 가지마는 여긴 그것이 없어. 동그란 나무 상자 요 베개보단 조금 크게 해서 무명 두 필, 두 필 넘게도 안 놔. 두 필이라고 한 건 마흔 자짜리 두 개. 사십 자짜리 두 개. 그거 두 개 놔서 거기 예장 쓴 거 놓고 해서 잔칫날이야 가져가서 줘.)

106011 @ 뭘 허렌 주는 거라?(뭘 하라고 주는 거야?)

106011 # 그 소곱에 여장이 잇거든.(그 속에 예장이 있거든.)

106011 @ 아니, 미녕은 무신거 허렌 그거 주는 거?(아니, 무명은 무엇 하라고 그거 주는 거?)

106011 # 새각시 선물로.(새색시 선물로.)

106011 @ 아, 선물로 옷 헹 입으렌?(아, 선물로 옷 해서 입으라고?)

106011 # 옷 헹 입으렌 선물로 주는 거. 게민 그것이 여장 써근에 그 미녕 두 필 헌 거 그거 마흔 자가 ᄒᆞᆫ 필이라이. 게난 그거 두 필 놓곡 그 여장 쓴 거 그 함에 담앙 잔칫날사 아졍가는 거.(옷 해서 입으라고 선물로 주는 거. 그러면 그것이 예장 써서 그 무명 두 필 한 거 그거 마흔 자가 한 필이야. 그러니까 그거 두 필 놓고 그 예장 쓴 거 그 함에 담아서 잔칫날에야 가져가는 거.)

106012 @ 그믄 이제 그 미녕허젠 허믄 멘네 헤삽니께? 멘네는 어떵 헹 허는 거과?(그러면 이제 그 무명하려고 하면 목화 해야하잖아요? 목화는 어떻게 해서 하는 겁니까?)

106012 # 멘네 이제 ᄀᆞᆫ듯이 이것에서.(목화 이제 말하듯이 이것에서.)

106012 @ 아니, 농사짓는 거.(아니, 농사짓는 거.)

106012 # 농사짓는 거 이거 씨 뿌령 갈앙.(농사짓는 거 이거 씨 뿌려서 갈아서.)

106012 @ 멧 월에?(몇 월에?)

106012 # 이것이 ᄒᆞᆫ 음력 삼월 달에 갈암실 거라.(이것이 한 음력 삼월 달에 갈고 있을 거야.)

106012 @ 멘네를?(목화를?)

106012 # ᄒᆞ쏠 인칙 갈아. 경 나민 여름에 검질메젠 강 보민이 멘네 ᄃᆞ레, 멘네 ᄃᆞ레 허멍 요만썩 헌 거 뭉클뭉클 ᄃᆞᆯ아전. 그거 연헌 땐 그렇게 맛이 좋아. 게민 검질메레 가민 그거 ᄐᆞᆫ아 먹어불민 어멍헌티 욕 다 듣곡 야, 뭣으로 옷 헤 입을 거넨 허멍. 거 따 먹어불민 뭣으로 옷 헤 입을 거넨 허멍 막 욕듣고 허여.(조금 일찍 갈아. 그렇게 나면 여름엔 김매려고 가서 보면 목화 다래, 목화 다래 하면서 요만큼씩 한 거 뭉클뭉클 달려서. 그거 연한 땐 그렇게 맛이 좋아. 그러면 김매러 가면 그거 뜯어 먹어버리면 어머니께 욕 다 듣고 야, 뭣으로 옷 해 입을 거냐고 하면서. 그거 따 먹어버리면 무엇으로 옷 해 입을 거냐고 하면서 막 욕먹고 해.)

106012 @ 하하하.(하하하.)

106012 # 도랑도랑 요만썩 헌 땐 막 어릴 때난 똑 허게 까민 경 돌헌 게 맛이 잇어, 그것이. 겨민 따먹어 빔젠 검질은 안 메곡 것만 따 먹어불민 뒈느넨 허멍 욕듣곡 헤낫어.(달랑달랑 요만큼씩 한 땐 막 어린 때니까 똑 하게 까면 그렇게 단 게 맛이 있어, 그것이. 그러면 따먹어 버린다고 김은 안 매고 그것만 따 먹어버리면 되느냐고 하면서 욕먹고 했었어.)

106012 @ 멘네도 막 하영, 밧디 하영 갈아삽니까?(목화도 아주 많이, 밭에 많이 갈아야 합니까?)

106012 # 하영 갈아서이. 가는 사람덜은 하영 가는 사름, 부제칩이 사람들은 천 펭도 갈아이. 흔 오백 펭, 흔 삼십 펭 그자 그 정도 갈민 우린 밧 엇이난 흔 삼십 펭, 흔 사십 펭쯤 갈암주. 경허민 그것에서 수정은 으라이곡 그걸로 영 짱 옷 헹 입젠 허믄 옷이 멧 가지나 뒈어? 뒈지도 안허지.(많이 갈아서. 가는 사람들은 많이 가는 사람, 부잣집 사람들은 천 평도 갈아. 한 오백 평, 한 삼십 평 그저 그 정도 갈면 우리 밭 없어서 한 삼십 평, 한 사십 평쯤 갈고 있지. 그러면 그것에서 숫자는 여럿이고 그걸로 이렇게 짜서 옷 해서 입으려고 하면 옷이 몇 가지나 돼? 되지도 않지.)

106012 @ 미녕은 씨 부령 그냥 밧 갈아불민 뒈어?(무명은 씨 뿌려서 그냥 밭 갈아버리면 돼?)

106012 # 어, 밧 갈앙 내불민 뒈어.(어, 밭 갈아서 내버리면 돼.)

106012 @ 고랑에 영 허는 건 아니고?(고랑에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

106012 # 고랑에 허는 거 아니고 씨 삐엉 내불면 나민 그자 검질만 메주민 이 팔월만 나가민 그 멘네ᄀᆞ라 ᄃᆞ레, ᄃᆞ레 허주. ᄃᆞ레 모냥으로 열앙 ᄃᆞ레기 열앗단 딱 딱 벌어지믄이 체암 타는 건 경 고와, 솜이. 박삭헌 게 밧듸 강 보민 베릴만 허여. 날 좋은 때쯤은, 밧이 헤영허난. 겨민 엿날 치메라고 영 허리 돈 치메 잇잖아. 그거 입엉 영 받아근에 소게 막 이레 타 놔. 요샌 잘리 잡앙 허주마는 잘리가 어딘나? 그 치메 입엉 영영 받앙 이레 믄 타 놔, 이레.(고랑에 하는 거 아니고 씨 뿌려서 내버리면 나면 그저 김만 매주면 이 팔월만 나가면 그 목화보고 다래, 다래 하지. 다래 모양으로 열어서 다래 열었다가 딱딱 벌어지면 처음 따는 건 그렇게 고와, 솜이. '박삭'한 게 밭에 가서 보면 볼만해. 날 좋은 때쯤은, 밭이 하야니까. 그러면 옛날 치마라고 이렇게 허리 단 치마가 있잖아. 그거 입어서 이렇게 받아서 솜 막 이리 따 놔. 요샌 자루 잡아서 하지마는 자루가 어디 있니? 그 치마 입어서 이렇게 이렇게 받아서 이리 모두 따 놔, 이리.)

106012 @ 그 ᄃᆞ레만 영 타 놔?(그 다래만 이렇게 따 놔?)

106012 # 타 놔. 그 속에 박쎅이 핀 거만.(따놔. 그 속에 '박쎅이' 핀 거만.)

106012 @ 핀 건만?(핀 거만?)

106012 # 핀 거 솜만 따 놔.(핀 거 솜만 따 놔.)

106012 @ 아, 그 안에 솜만?(아, 그 안에 솜만?)

106012 # 솜만 쏙쏙 빼멍 이레 놔근에 허민 두 번, 세 번차ᄁᆞ장은 솜이 곱고 네 번차라가민 막 궂어.(솜만 쏙쏙 빼면서 이리 놔서 하면 두 번, 세 번째까지는 솜이 곱고 네 번째라가면 막 나빠.)

106012 @ 아, 그디 솜 튿아불민 그디 또다시 솜이 영 올라오는 거?(아, 거기 솜 뜯어버리면 거기 또다시 솜이 이렇게 올라오는 거?)

106012 # 또시 솜 박삭허게 피면 그거 튿아불민 그거 아레 밑에 또 ᄃᆞ레가 잇어 또 연 거. 게민 두불ᄁᆞ장은 막 곱곡 세불차 ᄃᆞ레 케는 거는 ᄒᆞ쏠 궂어가. 닞이 케는 건 ᄒᆞ쏠 궂어가. 겡 이제 팔월만 낭 막 닞이 케는 건 원 곱지 아녀. 벙뎅이 져부는 거 하곡.(다시 솜 '박삭'하게 피면 그거 뜯어버리면 그거 아래 밑에 또 다래가 있어 또 열린 거. 그러면 두벌까지는 아주 곱게 세벌째 다래 캐는 거는 조금 나빠. 늦게 캐는 건 조금 나빠. 그래서 이제 팔월만 나서 막 늦게 캐는 건 원 곱지 않아. 덩어리 져버리는 거 많고.)

106012 @ 게민 그거.(그러면 그거.)

106012 # 박삭허질 못헤여.('박삭'하지 못해.)

106012 @ 그믄 그걸 탕 왕 집이 왕 어떵 헙니까?(그러면 그걸 따서 집에 오서 어떻게 합니까?)

106012 # 그거 오민이 그걸 영영 보민이 그디 모들모들헌 소게 트멍에 씨 말고도.(그거 오면 그걸 이렇게 이렇게 보면 거기 '모들모들'한 솜 틈에 씨 말고도.)

106012 @ 씨 말고도?(씨 말고도?)

106012 # 모들락모들락헌 게 하. 게민 영영 허멍 그거 믄 또 빼어비여. 모들락 모들락헌 거 빼어동 그거 이젠 영 헌 디 강 놩 영 들르민 씨가 믄 갈라지는 거라이, 아까.(모도록모도록한 게 많아.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그거 모두 또 빼어버려. 모도록모도록한 거 빼어두고 그거 이젠 이렇게 한 데 가서 놔서 이렇게 들면 씨가 모두 갈라지는 거야, 아까.)

106012 @ 안에 씨 이신 거?(안에 씨 있는 거?)

106012 # 앞으레 씨가 갈라 오곡 베끗디레 소게 나곡 허면 그 소겔 또시 벳디서 바싹 발헤여근에 태우는 딜 가. 소게 태우는 디. 틀 허는 디 강 이제 소게틀을 요새 ᄀᆞ트면 기계로 내주마는 발로 ᄇᆞᆯ르는 거라이. 발로 ᄇᆞᆯ랑 허민 소게가 바싹 티왕 나오민.(앞에 씨가 갈라 오고 밖으로 솜 나가고 하면 그 솜 또 볕에서 바싹 바래서 타는 데 가. 솜 타는 데 가. 솜 타는 데. 틀 하는 데 가서 이제 솜틀을 요새 같으면 기계로 내지마는 발로 밟는 거야. 발로 밟아서 하면 솜이 바싹 타서 나오면.)

106012 @ 소게 ᄇᆞᆯ르는 디 뭐엔 ᄀᆞᆯ아, 소게 태우는 디.(솜 밟는 데 뭐라고 말해, 솜 타는 데.)

106012 # 소게틀.(솜틀.)

106012 @ 소게틀?(솜틀?)

106012 # 소게틀, 소게틀 허멍.(솜틀, 솜틀 하면서.)

106012 @ 소게틀 이신 집은 소게틀집?(솜틀 있는 집은 솜틀집?)

106012 # 응, 소게틀집. 소게틀집이엔 허멍 강 그거 티왕 허민 이놈을 이레 놩 바짝, 영헌 멘짝헌 디 놩 그걸 막 페와 영. 막 페와 놓민 대막뎅이 요만은 쫄라근에 톡 놔근에 이놈을 손으로 짝 밀어. 밀민 이것이 동글랑케 밀어져.(응, 솜틀집. 솜틀집이라고 하

면서 가서 그거 타서 하면 이놈을 이리 놔서 바짝, 이런 매끈한 데 놔서 놔서 그걸 막 펴 이렇게. 막 펴 놓으면 대막대기 요만큼은 잘라서 톡 놔서 이놈을 손으로 쫙 밀어. 밀면 이것이 동그랗게 밀려.)

106012 @ 응.(응.)

106012 @ 동글랑케 감아지민 그거 쏙쏙 빼민 그걸로 이젠 영 좁앙 실 영 빼는 거라, 영영.(동그랗게 감기면 그거 쏙쏙 빼면 그걸로 이젠 이렇게 집어서 실 이렇게 빼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106012 # 게민 요만이 넘엉 못 빼여이. 게민 요거 요 가락지더레 영 올려뒁 또 영 빼곡. 경허민 좀상헌 사람은 영 영 소게 요 심엉 영영영영허영 요추룩 손 노리멍 영영 허민 좀질게 빠지곡. 어떤 사람은 영영 헤불민.(그러면 요만큼 넘어서 못 빼. 그러면 요거 요 가락에 이렇게 올려두고 또 이렇게 빼고. 그러면 '좀상헌' 사람은 이렇게 이렇게 솜 요 잡아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요렇게 손 움직이면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 자잘하게 빠지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렇게 해버리면.)

106012 @ 뚜꺼워져?(두꺼워져?)

106012 # 솔지게 나오민 미녕이 허민 두껍는 거. 경허는 거. 좀상헌 사람은 영 베리멍 일로 영영 들르멍 영 솔허게 빼주게, 영. 솔허게 영 빼가민 실이 줄게 나오는 건 좀질곡.(살찌게 나오면 무명이 하면 두꺼워지는 거. 그러는 거. '좀상헌' 사람은 이렇게 보면서 이리로 이렇게 이렇게 들면서 이렇게 살짝 빼지, 이렇게. 살짝 이렇게 빼어 가면 실이 잘게 나오는 건 자잘하고.)

106012 @ 것도 이런 걸로 허는 거?(것도 이런 걸로 하는 거?)

106012 # 응, 이것에서. 이것에서 허는 거고. 요건 씨 갈르는 거고.(응, 이것에서. 이것에서 하는 거고. 요건 씨 가르는 거고.)

106012 @ 이건 씨 갈르는 거고, 이건 그냥 실 빼는 거예.(이건 씨 가르는 거고, 이건 그냥 실 빼는 거요.)

106012 # 이건 실 빼는 거, 이건.(이건 실 빼는 거, 이건.)

106012 @ 응.(응.)

106012 # 이건 벨로 무신 하지 안여. 이건 실 빼는 거 허고. 이건 씨 갈르는 거. 두 개.(이건 별로 무엇 하지 않아. 이건 실 빼는 거 하고. 이건 씨 가르는 거.)

모시

106013 @ 게민 이딘 모신 안 허주예? 모시.(그러면 여긴 모시는 안 하지요? 모시.)

106013 # 모시. 우린 모시 허는 건 못 봔. 모시도 허젠 허민 그거 모시도 똑 삼이나 마찬가지.(모시. 우린 모시 하는 건 못 봤어. 모시도 하려고 하면 그거 모시도 꼭 삼이나 마찬가지.)

106013 @ 응.(응.)

106013 # 겐디 우리 제주선 난 모시 허는 건 안 봔.(그런데 우리 제주선 난 모시 하는 건 안 봤어.)

106014 @ 그민 모시론 어떤 옷 멩들앙 입는 거과?(그러면 모시로는 어떤 옷 만들어서 입는 겁니까?)

106014 # 모신 이거 헤영허게 이제 보민 모시옷, 모시옷 허멍 상그랑헌[155] 거 잇잖아. 그치룩 헌 거.(모시는 이거 하얗게 이제 보면 모시옷, 모시옷 하면서 '상그랑헌' 거 있잖아. 그렇게 한 거.)

106014 @ 여름에?(여름에?)

106014 # 응, 여름에 입는 거. 상그랑허게 모시옷 헤근에, 헤영허게 거 짱.(응, 여름에 입는 거. '상그랑'하게 모시옷 해서, 하얗게 거 짜서.)

삼

106016 @ 게민 이번엔 삼예, 삼.(그러면 이번엔 삼요, 삼.)

106016 # 삼은 이제 베옷이엔 헌 건 삼베엔 헌 건이. 이디서도 우리도 삼을 갈아낫어. 우리 어무니네 우리 두릴 때 보면 삼 갈면, 그것이 이제 어느 때 가느냐면 이 새해낭 혼 삼월둘에 갈암신가? 갈민 이놈은 삼은 막 좇아야만 뒈어이. 드물민 거려불면 안 뒈어.(삼은 우리 베옷이라고 한 건 삼베라고 한 건. 여기서도 우리도 삼을 갈았었어. 우리 어머니네 우리 어릴 때 보면 삼 갈면, 그것이 이제 어느 때 가느냐면 새해 나서 한 삼월에 갈고 있나? 갈면 이놈은 삼을 막 잦아야만 돼. 드물면 걸러 버리면 안 돼.)

106016 @ 아.(아.)

106016 # 지깍 좇아근에 우터레 ᄀᆞ늘아도 영 ᄀᆞ는ᄀᆞ는허게 우트레만 올라가사. 경허믄 보리 비어 둬근에 이놈을 막 비어. 비면은 대막뎅이 요만썩 질게 헤근에 딱 두 개 영 무꺼놓민 요 트멍으로 줍정 쫙쫙 훌트는 거라. 영 훌텅 영 훌터가민 작작 영 훌트민 요거 상겁죽이 벳겨지는 거라이.(빽빽이 잦아서 위로 가늘어도 이렇게 가늘디가늘게 위로만 올라가야. 그러면 보리 베어두고 이놈을 막 베. 베면 대막대기 요만큼씩 길게 해서 딱 두 개 이렇게 묶어놓으면 요 틈으로 끼워서 쫙쫙 홅는 거야. 이렇게 홅어서 이렇게 홅어가면 작작 이렇게 홅으면 요거 '상겁죽'이 벗겨지는 거야.)

106016 @ 아.(아.)

106016 # 그거 벳경 그때 그거 헤근에 ᄆᆞᆯ렷다근에 그걸로 삼을 삼젠 허민 이 동무릅 우리 아니 헤봣주만은 우리 할머니네, 우리 어머니네 허는 거 보민 겨울에 쯤은 이디가 실령 짓뻘겅허여. 요놈으 거 물을 적져사 이 동무릅에 놩 찍 허게 밀 거 아니?(그거 벗겨서 그때 그거 해서 말렸다가 그걸로 삼을 삼으려고 하면 이 무릎 우리 안 해봤지만 우리 할머니네, 우리 어머니네 하는 거 보면 겨울에 쯤은 여기기 시려서 시뻘개. 요놈의 거 물을 적셔야 이 무릎에 놔서 찍 하게 밀 거 아니?)

106016 @ 응.(응.)

155) '상그랑허다'는 베옷 따위가 몸에 붙지 않고 바람이 통하여 시원하다는 뜻이다.

106016 # 밀어근에 우리 실 거꺼지민 영 실봉오지 영영 ᄇᆞ병 잇듯이 이게 잇는 거라. 잇어, 잇어, 이걸. 그 삼 지럭을 경 미녕 지럭이 짜게 안 뒈는 거주. 영 이거 삼 삼아, 삼 삼아 허는 것이 바로 그거. 이디 차롱 하나 놔둠서라, 삼 겁 ᄒᆞ나 앗아내엉 영 니껍으로 착. 니 엇인 사람은 안 뒈. 니로 심엉 영 헹 짝 ᄃᆞᆼ기민 이것이 두 개 갈라져 이. 갈라지민 요 실 앗당 요 영 놩 짝 허게 밀민 노 꼬아지는 거라.(밀어서 우리 실 잘리면 이렇게 실봉오지 이렇게 이렇게 비벼서 잇듯 이게 잇는 거야. 이어, 이어, 이걸. 그 삼 길이를 그렇게 무명 길이 짜게 안 되는 거지. 이렇게 이거 삼 삼아, 삼 삼아 하는 것이 바로 그거. 여기 채롱 하나 놔두고, 세 가닥 하나 가져다 이렇게 이빨로 착. 이 없는 사람은 안 돼. 이로 잡아서 이렇게 해서 쫙 당기면 이것이 두 개 갈라져. 갈라지면 요 실 가져다가 요 이렇게 놔서 쫙 하게 밀면 노 꼬아지는 거야.)

106016 @ 아. 이어져근에 길어지는 거.(아. 이어져서 길어지는 거.)

106016 # 경헹 여쩡 이레 놓곡, 놓곡 헤근에 차롱에 ᄒᆞ나 크나 족으나 수북허게 놓민 그 차롱에 거 내비뒁 또 딴 차롱 헤 놓고 경. 실 잇는 거 삼을 잇엉 베 짜는 거. 요만은 헌 거 무신 삼 그걸 얼마를 헤 먹젠. 게난 삼 삼아, 삼 삼아 허는 게, 할망덜 보민 이 동무릅이 짓뻘경헤여이.(그래서 엮어서 이리 놓고, 놓고 해서 채롱에 하나 크나 작으나 수북하게 놓으면 그 채롱의 거 내버려두고 또 다른 채롱 해 놓고 그렇게. 실 잇는 거 삼을 이어서 베 짜는 거. 요만큼 한 거 무슨 삼 그걸 얼마를 해 먹으려고. 그러니까 삼 삼아, 삼 삼아 하는 게, 할머니들 보면 이 무릎이 시뻘개.)

106016 @ 예.(예.)

106016 # 엿날에 뭐 요새 ᄀᆞ트면 온돌방이나 잇저. 엿날엔 영헌 마리방에 또 마루 안 논 집이는 검질 깔앙 북덕방[156]이라고이, 경 헌 디 앚앙 직직 직직 헤놓민 여기가 얼엉 ᄉᆞ뭇 짓뻘경허여. 경헤영 삼, 삼, 삼은, 삼 삼아 허영 그거 헤 놩 또 그걸로 이제 요런 것에 놩 이런 거보단 ᄒᆞᆺ쏠 크게 헤영 영 둘러근에 이젠 또 가림을 만드는 거라. 실가림[157] 모냥으로, 가림 만들앙. 베 허기가 또 힘들어. 가림 만들앙 이제 또 ᄀᆞᆺ사 나 멩지 눼엇덴 ᄀᆞᆯ앗지. 잿물 헹이. 그치룩 헌 재 솟듸 놩, 큰 가마솟듸 놩 이놈으 실을 그디 놩 또 이기는 거라.(옛날에 뭐 요새 같으면 온돌방이나 있지. 옛날엔 이런 마루방에 또 마루 안 놓은 집에는 검불 깔아서 '북덕방'이라고, 그렇게 한 데 앉아서 직직 직직 해놓으면 여기가 추워서 사뭇 시뻘개. 그래서 삼, 삼, 삼은, 삼 삼아 해서 그거 해 놔서 또 그걸로 이제 요런 것에 놔서 이런 거보다 조금 크게 해서 이렇게 둘러서 이젠 또 '가림'을 만드는 거야. '실가림' 모양으로, '가림' 만들어서. 베 하기가 또 힘들어. '가림' 만들어서 이제 또 아까 나 명주 '눼엇덴' 말했지. 잿물 해서. 그렇게 한 재 솥에 놔서, 큰 가마솥에 놔서 이놈의 실을 거기 놔서 또 이기는 거야.)

106016 @ 응.(응.)

106016 # 이겨근엥에 그걸 실 이긴 걸 아졍강 뿔젠 허민 이 물에 가근에 널르닥헌 물에 상 양펜으로 사는 거라. 일로 사곡 일로 사곡 허민 실가름을 영영 헤우지도 못허

156) '북덕방'은 바닥을 마감 하지 않고 검불 등을 깔아놓은 방이다.
157) '실가림'은 실 뭉텅이에서 몇 올을 한 가닥으로 갈라내는 것이다.

는 거라. 이건 영. 추례로만 영. 일로 경허민 일로 영허민 또 절로 영허곡 헤근에 일로 영영영영 헹구멍 헹 그 물을 판찍 빠비뒁 궂은 물 빼동 집이 오랑 ᄒᆞ룻밤 컹 울롸 부는 거라, 잿물. 울롸뒁 그게 ᄆᆞ르면 실이라.(이겨서 그걸 실 이긴 걸 가져가서 빨려고 하면 이 물에 가서 넓은 물에 서서 양편으로 서는 거야. 이리로 서고 이리로 서고 하면 '실가름'을 이렇게 이렇게 헹구지도 못하는 거야. 이건 이렇게. 차례로만 이렇게. 이리로 그렇게 하면 이리로 이렇게 하면 또 저리로 이렇게 하고 해서 이리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헹구면서 해서 그 물을 깨끗이 빼두고 궂은 물 빼두고 집에 와서 하룻밤 담가서 우려 버리는 거야, 잿물. 우려두고 그게 마르면 실이야.)

106016 @ 응.(응.)

106016 # 실이난 또 그것도 이추룩 헌 것에 끼왕 또 영 허멍 감아이.(실이니까 또 그것도 이렇게 한 것에 끼워서 또 이렇게 하면서 감아.)

106016 @ 예.(예.)

106016 # 동글레기 감아사. 베 만들젠 허민 나 설명허젠 허민 막 오래영 못허켜. 머리 아파 나 그거 생각허민.(동그랗게 감아야. 베 만들려고 하면 나 설명하려고 하면 막 오래 걸려서 못하겠어. 머리 아파 나 그거 생각하면.)

106017 @ 베로는 무신 옷 멩그는 거과?(베로는 무슨 옷 만드는 겁니까?)

106017 # 여름에 베옷 잇잖아. 상그랑헌[158] 베옷덜, 엿날에. 요즘은 상복덜토 허곡 그걸로 상복덜 ᄆᆞᆫ 베옷으로. ᄒᆞ쏠 아이고 아무 딘 간 보난 짓뻘겅허게 ᄆᆞᆫ 베옷으로만 상복헤서라 영 헌 말 듣지. 그런 거, 그런 거 허는 거. 그런 것도 잇곡 그냥 집이서 그자 바지 적삼 그런 거 베옷으로들 헹 상글상글허게 헹 입곡, 그거. 베옷은 이 미녕옷ᄀᆞ치 늘싹[159]허지 안헌 거난. 상그랑허여, 베옷은. 이거 미녕실ᄀᆞ치 늘싹허질 안헌 거라부난.(여름에 베옷 있잖아. '상그랑'한 베옷들, 옛날에. 요즘은 상복들도 하고 그걸로 상복들 모두 베옷으로. 조금 아이고 아무 덴 가서 보니까 시뻘겋게 모두 베옷으로만 상복했더라 이렇게 한 말 듣지. 그런 거, 그런 거 하는 거. 그런 것도 있고 그냥 집에서 그저 바지 적삼 그런 거 베옷으로들 해서 '상글상글'하게 해서 입고, 그거. 베옷은 이 무명옷 같이 '늘싹'하지 않은 거니까. '상그랑'해, 베옷은. 이거 무명실같이 '늘싹'하질 않은 거라서.)

도구

106020 @ 게민 요거 이거 다시 한 번 허게에. 요거 무신거엔 ᄀᆞᆯ은다?(그러면 요거 이거 다시 한 번 해요. 요거 무엇이라고 말한다?)

106020 # 씨 ᄇᆞᆯ르는 거 이건.(씨 바르는 거 이건.)

106020 @ 이건 씨 ᄇᆞᆯ르는 물레?(이건 씨 바르는 물레?)

106020 # 요건 실 내는 거.(요건 실 내는 거.)

158) '상그랑허다'는 옷감이 몸에 붙지 않고 바람이 잘 통하게 조금 뻣뻣한 상태를 말한다.
159) '늘싹'은 옷감이 뻣뻣하지 않아 축 늘어진 모양을 말한다.

106020 @ 이거 씨 불르는 건 어떵 헹 씨 불르는지 혼 번만 더 골아줍서.(이거 씨 바르는 건 어떻게 해서 씨 바르는지 한 번만 더 말해주세요.)

106020 # 씨 불르는 거 이거이. 요 판대기를 영 불랑 앚앙, 불랑 앚으민, 우리 멘네 솜 타올 거 아니? 타오민 이걸 이레 멕여. 멕이멍 영영 둘러가민 솜은 요레 나오곡 저 실은 요레 털어지곡 솜은 요 베끗더레 요레 나오는 거.(씨 바르는 거 이거. 요 판대기를 이렇게 밟아서 앉아서, 밟아서 앉으면, 우리 목화솜 따올 거 아니? 따오면 이걸 이리 먹여. 먹이면서 이렇게 이렇게 돌리면, 솜은 요리 나오고, 저 실은 요리 떨어지고, 솜은 요 바깥에 요리 나오는 거.)

106020 @ 응. 이게 씨 불르는 물레.(응. 이게 씨 바르는 물레.)

106020 # 요건 씨 불르는 거 요건 실 내는 거.(요건 씨 바르는 거 요건 실 내는 거.)

106020 @ 실 내는 건 어떵헹 허는 거과?(실 내는 건 어떻게 해서 하는 겁니까?)

106020 # 실 내는 건 이건 불르지 안헤. 요디 욜로 요 새에 돌 하나 지둘롸, 요디.(실 내는 건 이건 바르지 않아. 요기 요리로 요 사이에 돌 하나 지질러, 요기.)

106020 @ 그디 돌 하나 지둘롸. 경헹?(거기 돌 하나 지질러. 그래서?)

106020 # 경 안 허민 요것이 트글락트글락[160] 안 뒈지. 요것이 튀영 경허난 요레 톡 허니 돌멩이 하나 곱닥헌 돌멩이들 요레 톡 지둘롸 불민 요것에서 영 실 줏는 거, 요거. 가레기에서.(그렇지 않으면 요것이 '트글락트글락' 안 되지. 요것이 튀어서 그러니까 요리 톡하니 돌멩이 하나 고운 돌멩이들 요리 톡 지질러 버리면 요것에서 이렇게 실 잣는 거, 요거. 가락에서.)

106020 @ 이거 영 돌리멍.(이거 이렇게 돌리면서.)

106020 # 응, 돌리멍.(응, 돌리면서.)

106020 @ 그다음에.(그다음에.)

106020 # 게믄 실 줏젠 허민.(그러면 실 자으려고 하면.)

106020 @ 실은 어떵 헹 어디 끼우는 거꽈?(실은 어떻게 해서 어디 끼우는 겁니까?)

106020 # 실을 요거 요거 솔진 게 실이여. 요거 솔진 거 요건 가레기고. 게 요거 실 나왓네, 요거, 요거. 요거 실이난 요레 영 헤 뒁 이거 영 둘르멍 영 허민 요 가레기 도는 더레 이디 실 감아진 거라. 실 뽀그락[161]헷네이.(실을 요거, 요거 살찐 게 실이야. 요거 살찐 거 요건 가락이고. 그러게 요 거 실 나왔네, 요거, 요거. 요거 실이니까 요리 이렇게 해두고 이거 이렇게 두르면서 이렇게 하면 요 가락 도는 데 여기 실 감긴 거야. 실 '뽀그락'했네.)

106020 @ 예, 실 감아진 거.(예, 실 감긴 거.)

106020 # 실 감아지는 거, 이추룩.(실 감기는 거, 이렇게.)

106020 @ 어디레 실이 감아져? 실이 영 돌앙은에 이레 감아지는 거?(어디에 실이 감겨? 실이 이렇게 돌아서 이리 감기는 거?)

106020 # 아니야. 이거 영영 허민 영영 우리가 영 낼 거 아니? 내민 일로 영 허민

160) '트글락트그락'은 단단히 고정되지 않은 나무토막 등이 부딪치는 소리다.
161) '뽀그락'은 물레의 가락에 실이 많이 감긴 모양을 보고 이렇게 표현했다.

그대로, 그대로 이리 강 가민 이레 안 돌려, 이레 그대로 감아지는 거.(아니야. 이거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낼 거 아니? 내면 이리로 이렇게 하면 그대로, 그대로 이리 가서 가면 이리 안 돌려, 이리 그대로 감기는 거.)

106020 @ 이레 그대로 감아지는 거.(이리 그대로 감기는 거.)

106020 # 응, 그대로 감아지는 거. 영 헹 나오민 또 그대로 가근에 영 이레 올리는 거.(응, 그대로 감기는 거. 이렇게 해서 나오면 또 그대로 가서 이렇게 이리 올리는 거.)

106020 @ 거믄 원래 그 멘네나 그런 것은 어디 이신 거과? 고치나 그런 건 어디 놔?(그러면 원래 그 목화나 그런 것은 어디 있는 겁니까? 고치나 그런 건 어디 놔?)

106020 # 뭔 고치가 잇어?(무슨 고치가 있어?)

106020 @ 아니. 멘네, 목화. 소게 가근에 영 페왕 온 거.(아니. 목화, 목화. 솜 가서 이렇게 펴 온 거.)

106020 # 아, 그건 아무것이라도 허멍 구덕에 놓나 뭐 차롱에 놓나 아무신디 놔도.(아, 그건 아무것이라도 하면서 바구니에 놓거나 뭐 채롱에 놓거나 아무 데 놔도.)

106020 @ 어느 짝에 놔?(어느 쪽에 놔?)

106020 # 이쪽에 건 아무 짝에 놔도 안 걸려.(이쪽에 건 아무 쪽에 놔도 안 걸려.)

106020 @ 그디서 실 뺑 어디 끼와?(거기서 실 빼서 어디 끼워?)

106020 # 실 이레 빼멍 끼네, 이레, 이레.(실 이리 빼면서 끼네, 이리로, 이리로.)

106020 @ 이레 끼와.(이리 끼워.)

106020 # 영 물아다 논 건 뭐 구덕에 놓나 아무 데나 이딜 놓나 이딜 놓나 건 ᄒᆞ나 앗앙 ᄒᆞ나 다 빼지민 또 영 앗아근에 빼는 거난 아무 디 놔도 상관엇고. 요거 실 요레 영 빼민 영영 둘르는 거 아니?(이렇게 말아다 놓은 건 뭐 바구니에 놓거나 아무 데나 여길 놓거나 여길 놓거나 그건 하나 가져다 하나 다 빼면 또 이렇게 가져서 빼는 거니까 아무 데 놔도 상관없고. 요거 실 요리 이렇게 빼면 이렇게 이렇게 두르는 거 아니?)

106020 @ 예.(예.)

106020 # 실을 영 빼오랑 이제 요레 올리젠 허민 요 풀을 영 들러. 들렁 요 발라만 강 영 놩 술허게 영 둘르멍 놔 가민 요레 다 감아지는 거.(실을 이렇게 빼서 이제 요리 올리려고 하면 요 팔을 이렇게 들어. 들어서 요 방향으로만 가서 이렇게 놔서 살짝 이렇게 두르면서 놔 가면 요리 다 감아지는 거.)

106020 @ 아.(아.)

106020 # 영 뽑아갈 땐 요치룩 요영 뽑아당 요 우티레 감젠은 허민 이 풀을 영 들러. 영 들르면 들르멍 요거 솔솔 둘러가민 요레 오랑 감아지는 거. 뽀그락허게 감아졋네이.(이렇게 뽑아갈 땐 요렇게 요렇게 뽑아다가 요 위에 감으려고 하면 이 팔을 이렇게 들어. 이렇게 들면 들면서 요거 솔솔 돌려가면 요리 와서 감기는 거. '뽀그락'하게 감아졌네.)

106020 @ 뽀그락허게 감아젼.('뽀그락'하게 감아졌어.)

106020 # 경헹 감아지는 거.(그래서 감아지는 거.)

106020 @ 아, 그다음엔 아까 짜는 거. 이거 짤 땐 어떵헹 짜는 거과?(아, 그다음엔

아까 짜는 거. 이거 짤 땐 어떻게 해서 짜는 겁니까?)

106020 # 짜는 거 우리 엿날엔이 이 허리에 요런 거 허영 쪄이. 요레 쩡 친허연 앞에 그 ᄇᆞ디집에 거 감아이. 감앙 허민 저 베클 뒤에 거 그거 무신거엔 허느니, 나 몰르켜. 그것에서 코 저 이 두에 코에 지금 그 졸라멘 거 아니?(짜는 거 우리 옛날엔 이 허리에 요런 거 해서 껴. 요리 껴서 끈해서 앞에 그 바디집의 거 감아. 감아서 하면 저 베틀 뒤에 그거 무엇이라고 하니, 나 모르겠어. 그것에서 코 저 이 뒤에 코에 지금 그 졸라맨 거 아니?)

106020 @ 예.(예.)

106020 # 졸라메난 요리 오민 신을 영 혜영 신을 영 잡아둥기곡 영 늦추곡 혜영 이 발을 영 노단착 발. 영 늦추와도 이레 비 질르곡, 영 헤도 들러지민 또 일로 비 질르곡, 영 허민 일로 비 질르곡, 또 영 둥경 욜로 비 질르곡, 때리곡 경 허는 거, 이거. 이거 그거라 이거 보난. 영 놔신게.(졸라매니까 요리 오면 신을 이렇게 해서 신을 이렇게 잡아당기고 이렇게 늦추고 해서 이 발을 이렇게 오른쪽 발. 이렇게 늦춰도 이리 북 찌르고, 이렇게 해도 들리면 또 이리로 북 찌르고, 이렇게 하면 이리로 북 찌르고, 또 이렇게 당겨서 요리로 북 찌르고, 때리고 그렇게 하는 거, 이거. 이거 그거야 이거 보니까. 이렇게 놨네.)

106020 @ 예.(예.)

106020 # 거난 이제 기계로 헹 기계로 짬지. 엿날에는 기계로 안 헌 때는 육지서도 다 이거. 영 발로 영, 영영영영 허멍 발로 비 질르곡 뜨리곡.(그러니까 이제 기계로 해서 기계로 짜고 있지. 옛날에는 기계로 안 한 때는 육지서도 다 이거. 이렇게 발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발로 북 찌르고 때리고.)

106020 @ 그믄 ᄒᆞ루 처녁에 이건 얼마나, 얼만이나 헙니까?(그러면 하루 저녁에 이건 얼마나, 얼마만큼이나 합니까?)

106020 # 미녕은 잘 짜는 사름은 서른 자 짠덴 허여이.(무명은 잘 짜는 사람은 서른 자 짠다고 해.)

106020 @ ᄒᆞ루에.(하루에.)

106020 # 응, ᄒᆞ루에 서른 자 짜곡. 경 아니헌 사름은 스물여덟 자, 스물일곱 자 경 짜이.(응, 하루에 서른 자 짜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스물여덟 자, 스물일곱 자 그렇게 짜.)

106020 @ 멩지는?(멩지는?)

106020 # 어, 멩지는 얼마 못 짜. 열다섯 자 짜면 막 최고 잘 짜는 거. 멩진 막 줌질아 부난.(어, 명주는 얼마 못 짜. 열다섯 자 짜면 막 최고 잘 짜는 거. 명주는 막 자잘해 버리니까.)

106020 @ 아, 줌질아 부난.(아, 자잘해 버리니까.)

106020 # 실이 줌질아 부난 경벳긔 못 허는 거여, 이거.(실이 자잘해 버리니까 그렇게밖에 못 하는 거야, 이거.)

106020 @ 이건 집집마다 다 잇어나수과?(이건 집집마다 다 있었습니까?)

106020 # 집집마다도 엇언. 놈이 집이 거 빌멍 허여. 집집마다도 엇어. 그디 허민 미녕 야, 베클 ᄒᆞ꼼 빌리라 하면은 우리 어느 때ᄁᆞ장 짜 나사 벳귄 빌릴 수 엇다 허민 그거 짜 놔건 빌리라 허민 미릇부터 또 ᄀᆞᆯ앙 놔둬사 것도. 경 매 집이 엇어. 베클 맏는 것도. 게민 놈이 거 빌멍 다 허주.(집집마다도 없었어. 남의 집의 거 빌면서 해. 집집마다도 없어. 거기 하면 무명 야, 베틀 조금 빌려라 하면 우리 어느 때까지 짜 나야 밖엔 빌릴 수 없다 하면 그거 짜 놓으면 빌리라 하면 미리부터 또 말해 놔둬야 그것도. 그렇게 매 집에 없어. 베틀 맡는 것도. 그러면 남의 거 빌면서 다 하지.)

106020 @ 겡 이건 밧듸 강 일허다근에 일 안 허는 날 쉬는 날 허는 거?(그래서 이건 밭에 가서 일하다가 일 안 하는 날 쉬는 날 하는 거?)

106020 # 응, 영 비 오는 날, 비 오는 날 ᄀᆞ튼 때도 허곡. 날 존 때도 놈 누게 짜 도렌 허믄 날 좋아도 가긴 가야 뒈. 짜 도렌 헌 때. 경허곡 대부분은 비 온 날 그자 집이 든 날에 짜. 밧딧일 허다근에, 트멍 보멍. 이녁 클 잇인 사람은 겡헹 트멍 보고 허곡 놈이 클 빌어 온 사름은 재기 헹 줘 불젠 허민 날 존 때도 짜고 부지런히 짱 줘불곡. 경 허는 거주.(응, 이렇게 비오는 날, 비오는 날 같은 때도 하고. 날 좋은 때도 남 누구 짜 달라고 하면 날 좋아도 가진 가야 돼. 짜 달라고 한 때. 그리고 대부분은 비 온 날 그저 집에 든 날에 짜. 밭일 하다가, 틈 보면서. 자기 틀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해서 틈 보고 하고 남의 틀 빌려온 사람은 재게 해서 줘 버리려고 하면 날 좋은 때도 짜고 부지런히 짜서 줘버리고. 그러는 거지.)

바느질

106022 @ 바농질허는 것은, 바농질허는 건 뭐에 놔 둡니까? 바농허고 실허고.(바느질하는 것은, 바느질하는 건 뭐에 놔 둡니까? 바늘하고 실하고.)

106022 # 바농허고 실허고 놓는 건 요자기도 ᄀᆞᆯ앗주만은 쪼그만한 바구니, 저만은 헌 것에 헤영 실도레기도 놓고 실도레기는 아니주. 낭으로 된 납작헌 거 실패, 실패 허멍 그것에 놔근에 허민.(바늘하고 실하고 놓는 건 요번에 말했지만 조그만 바구니, 저만큼 한 것에 해서 실타래도 놓고 실타래는 아니지. 나무로 된 납작한 거 실패, 실패 하면서 그것에 놔서 하면.)

106022 @ 바농 찔르는 것도 잇수게?(바늘 찌르는 것도 있잖습니까?)

106022 # 그 바농 질르는 거, 저 고냉이포[162], 고냉이포 허멍 영 귀나게 포 줍아근에 그 안에 뭐 실도레기도 놓고 바농도 놓고 다 헹 놔근에 영 감췽 놔두는 거 잇어. 영 귀나게 헤여근에. 이 고냉이포엔 헌 거 영 줍아 영. 영영 요추룩 헹 줍앙은에. 게민 욜로 영 헹 문 놩 영 뱅뱅 감앙 바농질허다근에 그레 실도 놓고. (그 바늘 찌르는 거, 저 '고냉이포', '고냉이포' 하면서 이렇게 귀나게 겹으로 접어서 그 안에 뭐 실타래도 놓고 바늘도 놓고 다 해서 놔서 이렇게 감춰 놔두는 거 있어. 이렇게 귀 나오게 해서. 이 '고냉이포'라고 한 거 이렇게 접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요렇게 해서 접어서. 그러면 요

162) '고냉이포'는 헝겊 조각을 이어서 만든 반짇고리다.

리로 이렇게 해서 모두 놔서 이렇게 뱅뱅 감아서 바느질하다가 그리 실도 놓고.)

106022 @ 그게 고냉이포?(그게 '고냉이포'?)

106022 # 그게 고냉이포. 바농도 놓고.(그게 '고냉이포'. 바늘도 놓고.)

106022 @ 바농도 놓고예.(바늘도 놓고요.)

106022 # 실도 감은 거 놓고 경헹 가냥허는 거. 바농상지엔 헌 건.(실도 감은 거 놓고 그렇게 해서 관리하는 거. 반짇고리함라고 한 건.)

106022 @ 바농상지?(반짇고리함?)

106022 @ 바농상지엔 헌 건 동그랑허게 대로 짠 거 잇어. 조그만허게.(반짇고리함라고 한 건 동그랗게 대로 짠 거 있어. 조그맣게.)

106022 @ 대로?(대로?)

106022 # 어. 엿날 조그만허게 동그랑허게 짜. 요보단 족게 짜, 요만이. 동그랑허게 짜.(어. 옛날 조그맣게 동그랗게 짜. 요거보다는 작게 짜, 요만큼. 동그랗게 짜.)

106022 @ 바농상지 안넨 게민 고냉이포 잇고, 바농 잇고.(반짇고리함 안엔 그러면 '고냉이포' 있고, 바늘 있고.)

106022 # 바농 잇고, ᄀᆞ새 놓고, 실 놓고 그자 그추륵 히어뜩헌 거 옷 허단 것도 요만썩 조각지 남은 것도 그레 놓고. 경 허는 거.(바늘 있고, 가위 놓고, 실 놓고 그저 그렇게 허드레 거 옷 하던 것도 요만큼씩 조각 남은 것도 그리 놓고. 그렇게 하는 거.)

106022 @ 바농 찌르지 말렌 손에 영 허는 건 무신거라?(바늘 찌르지 말라고 손에 이렇게 하는 건 뭐야?)

106022 # 손 골메 잇어낫주마는 우린 손 골멘 안 쪄. 우리가 엿날 손바농질만 허민 이 손ᄀᆞ레기로 영 바농을 심으민 요 손ᄀᆞ레기 콥으로만 영 밀려나부난. 이 콥이 막 터져나부난 콥이 납작헷네, 지금. 이 콥은 이 베끗듸가 벵신 뒈민 이 안에서도 벵신 뒝 나오는 ᄀᆞ라 원. 콥이 고와가질 안 헤여, 이거. 납작헤근에. 엿날엔 게나 제나 손바농질만 헤.(손 골무 있었지마는 우린 손 골무 안 껴. 우리가 옛날 손바느질만 하면 이 손가락으로 이렇게 바늘 잡으면 요 손가락 손톱으로만 이렇게 밀어버리니까. 이 손톱이 막 터져서 손톱이 납작했어, 지금. 이 손톱은 이 밖이 병신 되면 이 안에서도 병신 돼서 나오는 모양이야 원. 손톱이 곱게 되지 않아, 이거. 납작해서. 옛날엔 그러나 저러나 손바느질만 해.)

106022 @ 그 바농 종류도 여러 개 잇수과? 두꺼운 거 잇고 조그락헌 거 잇고혜, 바농도?(그 바늘 종류도 여러 개 있습니까? 두꺼운 거 있고 조그마한 거 있고 해, 바늘도?)

106022 # 줌진 옷 허는 건 바농 ᄀᆞ는 거. 이 미녕옷 허는 건 ᄒᆞ꼼 중바농, 그거.(자잘한 옷 하는 건 바늘 가는 거. 이 무명옷 하는 건 조금 중바늘, 그거.)

106022 @ 바농 이름이 뭐 큰 바농, 족은 바농.(바늘 이름이 뭐 큰 바늘, 작은 바늘.)

106022 # 아이, 큰 바농 엇어. 요샌 큰 바농 잇어라. 이만썩 진 거.(아니, 큰 바늘 없어. 요샌 큰 바늘 있더라. 이만큼씩 긴 거.)

106022 @ 이불 허는 것은 큰 걸로 허지 안헤여?(이불 하는 것은 큰 걸로 하지 않아?)

106022 # 큰 걸로 허는디 그자 그 옷 허는 바농이라도 ᄒᆞ쏠 홁은 바농. 그걸로, 그걸로.(큰 걸로 하는데 그저 그 옷 하는 바늘이라도 조금 굵은 바늘 그걸로, 그걸로.)

106022 @ 홁은 바농으로.(굵은 바늘로.)

106022 # 옷 허는 바농으로 이불도 허곡, 옷도 허곡. 바농질 요즘은 ᄒᆞ쏠 틀리는 셍이라라, 바농이. 바농 나오는 거 보민.(옷 하는 바늘로 이불도 하고, 옷도 하고. 바느질 요즘은 조금 다른 모양이야, 바늘이. 바늘 나오는 거 보면.)

106022 @ 엿날에 바농 멧 개나 잇어나수과?(옛날에 바늘 몇 개나 있었습니까?)

106022 # 바농 멧 개사 허는디 뭐. 시민 서너 개 실 거. 경 안 허민 두어 개. 바농 여불민 옷 못 허카부덴 어떵 멩심하는지.(바늘 몇 개야 하는지 뭐. 있으면 서너 개 있을 거. 그렇지 않으면 두어 개. 바늘 잃어버리면 옷 못 할까봐 어떻게 명심하는지.)

106022 @ 바농은 어디 강 사와?(바늘은 어디 가서 사와?)

106022 # 바농이 어디사 강 사오는디, 것 몰라. 어디사 강 사와신디. 바농은 일본 뎅기는 사름안티 부탁헹 사당 하는 거.(바늘이 어디야 가서 사오는지, 그것 몰라. 어디야 가서 사왔는지. 바늘은 일본 다니는 사람한테 부탁해서 사다가 하는 거.)

106023 @ 바농질허는 방법은 어떤 거 잇수과? 영영 허는 건 그냥 호는 거?(바느질하는 방법은 어떤 거 있습니까?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건 그냥 호는 거?)

106023 # 호는 거 허곡, 저 뒷바농질이엔 헌 건 욜로 영 찔렁 욜로 빠내민 또 요 곱으로 강 또 찔러. 찔렁 그거 뒷바농질허는 거. 또 홈는 건 그자 영 심엉 영영영영 바농 ᄒᆞ나 솜박 호와지민 영 ᄃᆞᆼ기주만은 뒷바농질허는 거 ᄒᆞᆫ 바농 ᄒᆞᆫ 바농벳긔 못 헤. 오래여, 그건. 뒷바농질허는 건.(호는 거 하고, 저 박음질이라고 한 건 욜로 이렇게 찔러서 욜로 빼내면 또 요 곁으로 가서 또 찔러. 찔러서 그거 박음질하는 거. 또 호는 건 그저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바늘 하나 가득 호면 이렇게 당기지만 박음질하는 거 한 바늘, 한 바늘밖에 못 해. 오래 걸려, 그건. 박음질하는 건.)

106023 @ 어떵헐 땐 뒷바농질헤삽니까?(어떻게 할 땐 박음질해야 합니까?)

106023 # ᄃᆞᆫᄃᆞᆫ허게 허젠 헐 때.(단단하게 하려고 할 때.)

106023 @ 아, ᄃᆞᆫᄃᆞᆫ허게 허젠 헐 때?(아, 단단하게 하려고 할 때?)

106023 # 응, ᄃᆞᆫᄃᆞᆫ허게 헐 땐 요거 뒷바농질헤근에 ᄒᆞᆫ 방울, ᄒᆞᆫ 방울 허곡. 경 안 허영 이 겨울 옷, 솜옷 ᄀᆞ튼 건 ᄒᆞ쏠 입엉 버물민 박 튿어근에 또 뿔 거 따문에 경 허는 건 영 호와. 그자 순당순당순당.(응, 단단하게 할 땐 요거 박음질해서 한 방울, 한 방울 하고. 그렇게 않고 이 겨울 옷, 솜옷 같은 건 조금 입어서 더러우면 박 뜯어서 또 빨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 이렇게 호아. 그저 숭덩숭덩숭덩.)

106023 @ 끝에 영영영 허는 건? 감치는 거?(끝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건? 감치는 거?)

106023 # 감치지 안헹 그자 모작 쳥 실만 끄차 불어.(감치지 않고 그저 매듭 지어서 실만 잘라 버려.)

106023 @ 아니, 천 올 풀리지 말렌.(아니, 천 올 풀리지 말라고.)

106023 # 아, 올 풀리지 말렌 허는 건 그건 감쳐사.(아, 올 풀리지 말라고 하는 건

그건 감쳐야.)

106023 @ 건 감치는 거예.(건 감치는 거요.)

106023 # 응, 건 빙빙허게 실이 감쳐.(응, 건 빙빙빙하게 실이 감쳐.)

106023 @ 감치는 거.(감치는 거.)

106023 # 건 올 풀어지지 말렌 감치는 거.(그건 올이 풀어지지 말라고 감치는 거.)

106023 @ 그다음에 또 허는 거 엇수과? 이런 디 단 영 접어근에 허민 이딘 어떵헤?(그다음에 또 하는 거 없습니까? 이런 데 단 이렇게 접어서 하면 여긴 어떻게 해?)

106023 # 그디도 요새난 이거 영 바농을 이제 무시거 요새 허는 바농은 몰라. 영 걸리잖아. 삼각구 나게 허주마는. 엿날엔 그냥 그자 웨바위[163] 지금 이것추룩 일로 뒷바농질만 허는 거여, 이거 다.(거기도 요새니까 이거 이렇게 바늘을 이제 무엇 요새 하는 바늘은 몰라. 이렇게 걸리잖아. 삼각형 나게 하지마는. 옛날엔 그냥 그저 '웨바위' 지금 이것처럼 이리로 박음질만 하는 거야, 이거 다.)

106023 @ 아, 뒷바농질로.(아, 박음질로.)

106023 # 응, 손으로 영 뒷바농질허여, 뱅뱅허게. 일로도 거고 일로도 그거고. 요즈음 저 쓰붕 알 ᄀᆞ튼 거 영 가르치잖아.(응, 손으로 이렇게 박음질해, 뱅뱅하게. 이리로도 그거고 이리로도 그거고. 요즘음 저 바지 아래 같은 거 이렇게 뒤집잖아.)

106023 @ 예, 요렇게 허고, 요렇게 허고 세모.(예, 요렇게 하고, 요렇게 하고 세모.)

106023 # 손으로 안 허는 거여, 다 기계로 허는 거라 부난 몰라.(손으로 안 하는 거야, 다 기계로 하는 거라 버리니까 몰라.)

106023 @ 그다음 영 두 개, 천 두 개 쪼그락헌 거 두 갠디 영 합쳐근에 영 크게 멘들젠 허민.(그다음 이렇게 두 개, 천 두 개 조그마한 거 두 갠데 이렇게 합쳐서 이렇게 크게 만들려고 하면.)

106023 # 두 개 합청 크게 멘들젠 허민.(두 개 합쳐서 크게 만들려고 하면.)

106023 @ 영영 두 개 접어.(이렇게 이렇게 두 개 접어.)

106023 # 건 잇으는 거주.(그건 잇는 거지.)

106023 @ 잇을 땐 무시거 뒷바농질로 잇어?(이을 땐 무엇 박음질로 이어?)

106023 # 뒷바농질로 든든허게 허는 것은 뒷바농질, 경 아니헌 건, 대충 허는 건 호와.(박음질로 단단하게 하는 것은 박음질, 그렇게 안 한 건, 대충 하는 건 호아.)

106023 @ 경 헹 영 헹.(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106023 # 길민 영 꼬부려, 두 개 딱허게 싹 훌터 불어.(길면 이렇게 구부려, 두 개 딱하게 싹 훑어 버려.)

106023 @ 영 꼬불령.(이렇게 구부려서.)

106023 # 영 혼 번에 경헤영 싹 훌터 불어.(이렇게 한 번에 그렇게 해서 싹 훑어 버려.)

106023 @ 싹 훌터 불어. 경헹 그다음엔.(싹 훑어 버려. 그래서 그다음엔.)

106023 # 경헹 잇어.(그래서 이어.)

106023 @ 잇어.(이어.)

---

163) '웨바위'는 바지 단을 접어서 바느질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한 겹으로 마감하는 것을 말한다.

106023 # 응, 잇는 거라.(응, 잇는 거야.)

106023 @ 경헹?(그래서?)

106023 # 경허민 잇어지는 거.(그러면 이어지는 거.)

106023 @ 영 허민 잇어지는 거? 영 허는 건 뭐엔 골아?(이렇게 하면 이어지는 거? 이렇게 하면 뭐라고 말해?)

106023 # 험벅 세기는[164] 거.(헝겊 '세기는' 거.)

106023 @ 세기는 거?('세기는' 거?)

106023 # 응, 옷 세겨근에. 험벅 세경 허라 영 헹. 잇엉도 허렌 허곡, 세경도 허렌 허곡.(응, 옷 '세겨서'. 헝겊 '세경' 해라 이렇게 해서. '세겨서'도 하라고 하고, 덧대어서도 하라고 하고.)

106023 @ 아, 잇으렌 헌 말이 세경 허렌 헌 말?(아, 이으라고 한 말이 '세경' 하라고 한 말?)

106023 # 질게 허는 건 잇으라, 또 쪼꼬만허게 허는 건 그레 험벅 새끼 흔 방울 허영 세겨 불라.(길게 하는 건 이어라, 또 조그맣게 하는 건 그리 헝겊 한 방울 해서 '새겨' 버려라.)

106023 @ 세겨 불라.('세겨' 버려라.)

106023 # 구멍 막으라 허는 거.(구멍 막아라 하는 거.)

106023 @ 아, 구멍 막으는 거.(아, 구멍 막는 거.)

106023 # 쪼꼬만헌 건 헹 그레 구멍 멕여 불라, 세겨 불라 영 허는 거.(조그마한 건 해서 그리 구멍 먹어 버려라, '세겨' 버려라 이렇게 하는 거.)

106023 @ 이디 양말 터지민.(여기 양말 뚫어지면.)

106023 # 건 구멍 막는 거.(건 구멍 막는 거.)

106023 @ 건 구멍 막는 거. 그민 세기는 건 어떤 거라?(건 구멍 막는 거. 게민 '세기는' 건 어떤 거야?)

106023 # 세기는 건이 험벅 세경 허는 건이 요만썩 요만썩헌 험벅 욜로도 부치곡 또 욜로도 부치곡 크게.('세기는' 건 헝겊 '세겨서' 하는 건 요만큼씩, 요만큼씩 헝겊 요리로도 부치고 또 요리로도 부치고 크게.)

106023 @ 아, 이어가지고.(아, 이어가지고.)

106023 # 크게 잇는 거 그거ᄀᆞ라 세기는 거, 크게 만드는 거.(크게 잇는 거 그거보고 '세기는' 거, 크게 만드는 거.)

106023 @ 쪼골락헌 거.(조그만 거.)

106023 # 쪼골락 헌 거 영 잇어가멍, 잇어가멍 허는 게 그게, 세기는 거.(조그마한 거 이렇게 이어가면서, 이어가면서 하는 게 그게, '세기는' 거.)

106023 @ 그게 세기는 거.(그게 '세기는' 거,)

106023 # 그거.(그거.)

---

164) '세기다'는 조그만 헝겊을 덧대는 것을 말한다.

옷의 종류

106024 @ 옷의 종류. 남자 옷은 어떤 옷, 어떤 옷 이서마씨? 남자 옷.(옷의 종류. 남자 옷은 어떤 옷, 어떤 옷 있어요? 남자 옷.)

106024 # 남ᄌᆞ 옷 엿날엔 요즈음 헤도 엿날엔 바지, 저고리, 그거. 두루막.(남자 옷 옛날엔 요즘은 해도 옛날엔 바지, 저고리, 그거. 두루마기.)

106024 @ 바지, 저고리, 두루막 또.(바지, 저고리, 두루마기 또.)

106024 # 빤스엔 허주. 엿날 팬티엔 아녕 빤스 그거 뿐. 바지, 저고리, 두루막. 여름옷, 홑옷으로 만든 건 정벵이.('빤스'라고 하지. 옛날 팬티라고 않고 '빤스' 그것 뿐. 바지, 저고리, 두루마기. 여름옷, 홑옷으로 만든 건 잠방이.)

106024 @ 정벵이.(잠방이.)

106024 # 적삼.(적삼.)

106024 @ 적삼.(적삼.)

106024 # 그거 여름옷은.(그거 여름옷은.)

106024 @ 여름옷은.(여름옷은.)

106024 # 게난 중이적삼 허는 게 그게 홑옷이라이.(그러니까 고의적삼 하는 게 그게 홑옷이야.)

106024 @ 중이, 적삼.(중의, 적삼.)

106024 # 여름에 입는 거 그거.(여름에 입는 거 그거.)

106024 @ 아까 정벵이까지.(아까 잠방이까지.)

106024 # 응, 그거고 바지저고린 겨울옷이라이. 바지하고 저고리 그거. 또 중이, 적삼 허는 건 알아듣기 쉬우렌 중이허고 적삼이렌 허는 건 정벵이하고 적삼뿐이라, 요거 두 가지.(응, 그거고 바지저고린 겨울옷이야. 바지하고 저고리 그거. 또 고의 적삼 하는 건 알아듣기 쉬우라고 중의하고 적삼이라고 하는 건 잠방이하고 적삼뿐이야, 요거 두 가지.)

106024 @ 정벵이는 중이하고 뭐가 달라?(잠방이는 중의하고 뭐가 달라?)

106024 # 중이나 정벵이나 꼭ᄀᆞ튼 건디 일름만 틀려. ᄒᆞ쏠 허면 중이적삼 영 허곡 입을 땐 정벵이 아져오라, 적삼 아져오라 경허지.(중의나 잠방이나 똑같은 건데 이름만 달라. 조금 하면 고의적삼 이렇게 하고 입을 땐 잠방이 가져와라, 적삼 가져와라 그렇게 하지.)

106024 @ 바지를 중이엔 허지 안허여?(바지를 중의라고 하지 않아?)

106024 # 응, 바지. 남저 거.(응, 바지. 남자 거.)

106024 @ 남자 바지를 중이엔 허는디. 정벵이는?(남자 바지를 중의라고 하는데. 잠방이는?)

106024 # 정벵이도 중이가 정벵이라. 거 이름이 틀려.(잠방이도 중의가 잠방이야. 그거 이름이 달라.)

106024 @ 중이가 정벵이?(중의가 잠방이?)

106024 # 겨울옷 아니난 여름 거난.(겨울옷 아니니까 여름 거니까.)

106024 @ 여름 거.(여름 거.)

106024 # 중이적삼 영 헹 곧젠 허민 중이적삼 영 허곡 입을 때, 야, 정벵이 앗아오라, 적삼 앗아오라, 입을 땐 경헤도 혼듸 포정 곧젠 허민 중의적삼 경 곧는 거. 벨다른 거 아니, 이거.(고의적삼 이렇게 해서 말하려고 하면 고의적삼 이렇게 하고 입을 때, 야, 잠방이 가져와라, 적삼 가져와라, 입을 땐 그래도 함께 말하려고 하면 고의적삼 그렇게 말하는 거. 별다른 거 아니, 이거.)

106028 @ 남자 저고리.(남자 저고리.)

106028 # 이거 남자 저고리고.(이거 남자 저고리고.)

106028 @ 저고리도 이런 데 다 이름 이수게. 이런 거예 무신거옌 골읍니까? 이거.(저고리도 이런 데 다 이름 있잖습니까. 이런 거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106028 # 이건 여자 옷이나 남자 옷이나.(이건 여자 옷이나 남자 옷이나.)

106028 # 꼭ᄀᆞ타?(똑같아?)

106028 # 짓, 동전, 앞섭, 곰, 소미 그거, 그거지.(깃, 동전, 앞섶, 고름, 소미 그거, 그거지.)

106028 @ 거뿐?(그거뿐?)

106028 # 거뿐이지.(그거뿐이지.)

106028 @ 이디도 이름 잇덴 허는디 이런 덴 이름 엇어?(여기도 이름 있다고 하던데 이런 덴 이름 없어?)

106028 # 이름 엇어, 이거. 요새에난 이거 이름 지엄지, 엿날엔 이거 저고리 소미, 소미, 요건 짓, 동전, 앞섭, 곰 요거뿐이야.(이름 없어, 이거. 요새니까 이거 이름 짓고 있지, 옛날엔 이거 저고리 소매, 소매, 요건 깃, 동정, 앞섶, 고름 요거뿐이야.)

106028 @ 앞섭 말고 속에 들어가는 건?(앞섶 말고 속에 들어가는 건?)

106028 # 속에 들어가는 건 안 앞섭, 밧 앞섭이라. 안에 건 안 앞섭 베끗듸 건 베겻앞섭, 요거 동전, 짓, 앞섭, 곰, 소미 이거주. 벨다른 거 엇어.(속에 들어가는 건 안 앞섶, 밖 앞섶이야. 안의 건 안 앞섶 바깥의 건 바깥 앞섶, 요거 동정, 깃, 앞섶, 고름, 소매 이거지. 별다른 거 없어.)

106028 @ 바지는?(바지는?)

106028 # 바지, 허리허고 요거.(바지, 허리하고 요거.)

106028 @ 허리허고 그다음엔?(허리하고 그다음엔?)

106028 # 허리허고 가달 요거.(허리하고 다리 요거.)

106028 @ 가달뿐?(다리뿐?)

106028 # 그거뿐.(그거뿐.)

106028 @ 이디 야이는예 무신거옌?(여기 얘는 뭐라고?)

106028 # 이거 요새 거난 복잡허주, 엿날에는 이추룩 복잡 안허게 혜.(이거 요새 거니까 복잡하지, 옛날에는 이렇게 복잡하지 않게 해.)

106028 @ 바지 허젠 허민 이렇게 영 마루폭, 이디 작은사폭, 이딘 이딘 큰사폭 영

써져신디 이런 말 안 써?(바지 하려고 하면 이렇게 이렇게 마루폭, 여기 작은사폭, 여긴 여긴 큰사폭 이렇게 쓰여 있는데 이런 말 안 써?)

106028 # 아, 족은셋복, 큰셋복 요거.(아, 작은사폭, 큰사폭 요거.)

106028 @ 예, 족은사폭.(예, 작은사폭.)

106028 # 요런 디.(요런 데.)

106028 @ 요건 큰사폭예.(요건 큰사폭요.)

106028 # 요건 상복. 요건 족은셋복 요건 큰, 큰셋복이렌 헌 거는.(요건 '상복'. 요건 작은사폭 요건 큰, 큰사폭이라고 한 거는.)

106028 @ 요거 무신거라?(요거 뭐야?)

106028 # 상복.('상복'.)

106028 @ 상복?('상복'?)

106028 # 응, 요거 상복, 큰 복. 제일 큰 것이 상복, 요건 족은셋폭.(응, 요거 '상복', 큰 폭. 제일 큰 것이 '상복', 요건 작은사폭.)

106028 @ 요건 족은셋폭, 요건 큰사폭.(요건 작은사폭, 요건 큰사폭.)

106028 # 큰셋폭.(큰사폭.)

106028 @ 큰사폭?(큰사폭?)

106028 # 사폭이 아이고 셋복, 큰셋복.(사폭이 아니고 '셋복', 큰사폭.)

106028 @ 큰셋복.('큰사폭'.)

106028 # 족은셋복. 요건 상복, 이건 ᄀᆞ짝 나가는 거난 상복.(작은사폭. 요건 '상복', 이건 곧추 나가는 거니까 '상복'.)

106028 @ 족은셋복. 이신게게.(작은사폭. 있네.)

106028 # 요거, 요거 허리.(요거, 요거 허리.)

106028 @ 허리. 요디, 요디 밑에는.(허리. 요기, 요기 밑에는.)

106028 # 밑엔 엇어. 이건 이건 무신거 다님 치는 거나벳긔.(밑엔 없어. 이건 이건 무엇 대님 치는 거나밖에.)

106028 @ 다님 치는 거예. 게민 남자 옷은 아까 요거허고 그다음엔 우에 입는 건 두루막?(대님 치는 거요. 그러면 남자 옷은 아까 요거하고 그다음엔 위에 입는 건 두루마기?)

106028 # 두루막. 두루막이엔도 허곡 후루메[165]엔도 허곡.(두루마기. 두루마기라고도 하고 '후루메'라고도 하고.)

106028 @ 후루메엔도 허곡예.('후루메'라고도 하고요.)

106028 # 후루메. 두루막이엔도 ᄀᆞᆫ곡 후루메엔도 ᄀᆞᆫ곡. 꼭ᄀᆞ타. 저고리나 마찬가지.('후루메'. 두루마기라고도 말하고 '후루메'라고도 말하고. 똑같아. 저고리나 마찬가지.)

106028 @ 저고리나 마찬가지?(저고리나 마찬가지?)

106028 # 짓, 동전, 소미, 앞섭, 이거 족은셋복, 큰셋복, 요거, 요거, 족은셋복 뒤에 요건 앞섭.(깃, 동정, 소매, 앞섶, 이거 작은사폭, 큰사폭, 요거, 요거, 작은사폭 뒤에 요

165) '후루메'는 '후리메'라고도 하며 두루마기의 중세국어형인 '쿠루메, 쿠리메'에서 온 말인 듯하다.

건 앞섶.)

106028 @ 요거 족은셋복?(요거 작은사폭?)

106028 # 응, 셋복 아니 족은셋복이 아니고 이건 그냥 셋복 두 개뿐.(응, 사폭 아니 작은사폭이 아니고 이건 그냥 사폭 두 개뿐.)

106028 @ 그냥 셋복.(그냥 사폭.)

106028 # 또 요것도 두 개뿐.(또 요것도 두 개뿐.)

106028 @ 이거 셋복?(이거 사폭?)

106028 # 응, 양펜이 다 이거 부찐 거난 알 영 퍼지렌 부찌는 거주. 겨난 이거 큰 복, 족은 복이 엇어.(응, 양편에 다 이거 붙인 거니까 아래 이렇게 퍼지라고 붙이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 큰 폭, 작은 폭이 없어.)

106028 @ 그냥 셋복.(그냥 사폭.)

106028 # 양 셋복, 이 이몸 덩어린 꼭ᄀᆞ트난.(양 사폭, 이 길 덩어리 똑같으니까.)

106028 @ 요딘 소미?(요긴 소매?)

106028 # 소미. 보선. 이거 이몸은 꼭ᄀᆞ타. 저고리나 아무거라도 꼭ᄀᆞ튼디 요것만 요거 셋복만 요거 틀리주. 요거 요거 우 쪼라지고 요레 퍼지게 헷잖아, 그거.(소매. 버선. 이거 길은 똑같아. 저고리나 아무거라도 똑같은데 요것만 사폭만 요거 다르지. 요거 요거 위 줄어들고 요리 퍼지게 했잖아, 그거.)

106028 @ 두루막 말고 또 이수게? 남자 입는 거 조끼? 조낀 안 입어?(두루마기 말도 또 있잖습니까? 남자 입는 거 조끼? 조낀 안 입어?)

106028 # 조끼 입어.(조끼 입어.)

106028 @ 조낀 다르게 곧는 말 이수과? 아, 마고자.(조낀 다르게 하는 말 있습니까? 아, 마고자.)

106028 # 요새난 마고자지. 엿날엔 마고자 엇어나서. 요새에 마고자지. 엿날엔 마고자 엇어.(요새니까 마고자지. 옛날엔 마고자 없었었어. 요새에 마고자지. 옛날엔 마고자 없어.)

106028 @ 조끼.(조끼.)

106028 # 조끼만 잇주.(조끼만 있지.)

106028 @ 조끼는 잇어난?(조끼는 있었어?)

106028 # 조끼뿐이주. 요새 마고자 나건 디 멧 년 안 뒈어. 마고자 허는 말은 이제사 나온 말이고. 엿날은 저고리 입으민 저고리 위에 쮀께에, 적삼을 입든 저고릴 입든 쮀께 하나 그거.(조끼뿐이지. 요새 마고자 난 지 몇 년 안 돼. 마고자 하는 말은 이제야 나온 말이고. 옛날은 저고리 입으면 저고리 위에 조끼에, 적삼을 입든 저고리를 입든 조끼 하나 그거.)

106028 @ 응, 그 뭐 도폭? 이런 거는.(응, 그 뭐 도복? 이건 거는.)

106028 # 도폭은 큰 거 잇어, 또.(도복은 큰 거 있어, 또.)

106028 @ 큰 거 잇어예.(큰 거 있어요.)

106028 # 큰 거는 이 절헐 때도 입곡, 그거 결혼식 때도 입곡, 요끙장 떠이, 크게.

게민 소미도 이만은 허게 허곡. 소미 이만은 허게 허곡 그거는이 또 후루메보단 틀려이. 이디 또 불림복[166]이라고 요디 굴른 복 두 개가 잇어. 요레 둘이가.(큰 거는 이 절할 때도 입고, 그거 결혼식 때도 입고, 요까지 와, 크게. 그러면 소매도 이만큼은 하게 하고. 소매 이만큼은 하게 하고 그거는 또 '후루메'보단 달라. 여기 또 '불림복'이라고 요기 군폭 두 개가 있어. 요리 둘이가.)

106028 @ 아.(아.)

106028 # 그 나머진 이것과 후루메광 ᄀᆞ튼디 요디 뒤에 복 두 개가 불리는 복 잇어, 뒤에까지. 겐디 질어. 후루메 닮지 아녕 이건 이 발봉오지 톡 막아지게, 건 막 질게.(그 나머지는 이것과 '후루메'와 같은데 요기 뒤에 폭 두 개가 불리는 폭 있어, 뒤에까지. 그런데 길어. '후루메' 같지 않고 이건 이 발부리 톡 막히게, 그건 막 길게.)

106028 @ 건 결혼식헐 때 입으는 거?(그건 결혼식할 때 입는 거?)

106028 # 결혼식헐 때도 입곡 제ᄉᆞ 때도 입곡. 게민 소미도 이만은 허여. 이만은 허곡 질곡. 요디 요거 뒷복 ᄒᆞ나가 요거 불림복이라고 요 두 개가 굴루이[167] 잇어이. 그런 건 다 ᄀᆞ타. 그루후제는.(결혼식할 때도 입고 제사 때도 입고. 그러면 소매도 이만큼은 해. 이만큼은 하고 길고. 요기 요거 뒤 폭 하나가 요거 '불림복'이라고 요 두 개가 '굴루이' 있어. 그런 건 다 같아. 그 후에는.)

106028 @ 저 뭐 상제들 입는 상복 헐 때 뒤에 저 남자 상제 헐 때 그거추룩? 뒤에 뒷복은?(저 뭐 상제들 입는 상복 할 때 뒤에 저 남자 상제 할 때 그거처럼? 뒤에 뒤폭은?)

106028 # 남자 상제들 헤여도이 저 상제들 뒷복헤도 그런 복 엇어. 상제도.(남자 상제들 해도 저 상제들 뒤 폭해도 그런 폭 없어. 상제도.)

106028 @ 틀려?(달라?)

106028 # 상제들은 이런 불림복이 엇이 그냥 밋밋허곡, 남자 상제 아들 상제는 소미가 요디 쪼라졍 그냥 우린 여상 후리메고이 사위덜 옷은 이디 우머니[168] 둘린 옷, 소미 이만은허게 헤여.(상제들은 이런 '불림복'이 없이 그냥 밋밋하고, 남자 상제 아들 상제는 소매가 요기 줄어들어서 그냥 우린 예사로 '후리메'고 사위들 옷은 여기 '우머니' 달린 옷, 소매 이만큼은 하게 해.)

106028 @ 틀려?(달라?)

106028 # 틀려. 왜냐허민 사위덜 옷은 틀리게 헌 때문 소미가 이디 등겨. 크게 허곡 또 그냥 상가, 상제 옷덜은 남저 상제 본 아덜들 입는 옷은 소미 꼭 두루멧 소미ᄀᆞ치 홀타지게 허여. 사위덜 건 이레 영 질게 허곡.(달라. 왜냐하면 사위들 옷은 다르게 한 때문 소매가 이렇게 늘어뜨려. 크게 하고 또 그냥 상가, 상제 옷들은 남자 상제 본 아들들 입는 옷은 소매 꼭 두루마기 소매같이 '홀타지게' 해. 사위들 건 이리 이렇게 길게 하고.)

---

166) '불림복'은 상제의 상복에서 어깨와 앞가슴 붙이는 베 헝겊을 '불림'이라고 하는데 쓸데없는, 필요 밖으로 덧붙은 폭을 이렇게 부르고 있다.

167) '굴루이'는 '꼭 필요한 것 이외에 더해서', '쓸데없이'의 의미이다.

168) '우머니'는 두루마기 등의 소매에 달린 속주머니를 말한다.

106025 @ 그다음에 여자 옷, 여자.(그다음에 여자 옷, 여자.)

106025 # 여자 옷은 꼭ᄀᆞ타. 뚤이나 아들이나.(여자 옷은 똑같아. 딸이나 아들이나.)

106025 @ 치메허고 저고리.(치마하고 저고리.)

106025 # 이제난 저고리엔 헴주. 엿날엔 치메뿐.(이제니까 저고리라고 하지. 옛날엔 치마뿐.)

106025 @ 치메뿐?(치마뿐?)

106025 # 치메 하나 헤주민 그자 우엔 아무거라도 입엉 뎅겻어, 엿날엔. 근디 요즘은 뭐 상제 옷이라고 우잇옷도 틀리다 무시거다 허는디 우잇옷도 영 보믄 이건 허기 쉬운 거라. 기자 질게 헹 허리띠 무끄게시리 질게 헹 소미만 ᄃᆞᆯ앙 짓도 엇이. 요즘 옷은 짓이멍 뭣이멍 요레 요만이 영 질게 헹 ᄒᆞ나 부치민.(치마 하나 해주면 그저 위엔 아무거라도 입어서 다녔어, 옛날엔. 그런데 요즘은 뭐 상제 옷이라고 윗옷도 다르다 무엇이다 하는데 윗옷도 이렇게 보면 이건 하기 쉬운 거야. 그저 길게 해서 허리띠 묶게끔 길게 해서 소매만 달아서 깃도 없이. 요즘 옷은 깃이면서 무엇이면서 요리 요만큼 이렇게 길게 해서 하나 붙이면.)

106025 @ 아니, 상제 옷 말고 그냥 평상시에 입는 거.(아니, 상제 옷 말고 그냥 평상시에 입는 거.)

106025 # 펭상시에 누게가 입어?(평상시에 누가 입어?)

106025 @ 여자 아이들 저고리허고 치메.(여자 아이들 저고리하고 치마.)

106025 # 아, 펭상시에 입는 거 엿날엔 저고리 그자 우리 저고리고. 학생들, 학생들은 요만이 뜨게 입어이, 치메를. 엿날엔 어디 바지가 잇어? 몸빼가 엇주, 학생들이. 치메허민 딱 요디 무릅 아레 뜨게 헹 입곡 그자 검은 물들영 검은 치메에 우엔 흰 저고리 그거. 곰 ᄃᆞᆯ곡 헤영 그거. 입어난 거.(아, 평상시에 입는 거 옛날엔 저고리 그저 우리 저고리고. 학생들, 학생들은 요만큼 오게 입어, 치마를. 옛날엔 어디 바지가 있어? 일바지가 없지, 학생들이. 치마하면 딱 요기 무릎 아래 오게 해서 입고 그저 검은 물들어서 검은 치마에 위엔 흰 저고리 그거. 고름 달고 해서 그거. 입었던 거.)

106025 @ 여자 저고리도 여기 동정하고 짓 잇고.(여자 저고리도 여기 동정하고 깃 있고.)

106025 # 아, 여자 학생덜도 문 이치룩.(아, 여자 학생들도 모두 이렇게.)

106025 @ 학생덜 말고 어른덜도게.(학생들 말고 어른들도.)

106025 # 어른덜도 문 이치룩.(어른들도 모두 이렇게.)

106025 @ 이건 동정, 이건 짓.(이건 동정, 이건 깃.)

106025 # 짓, 압섭, 곰.(깃, 앞섶, 고름.)

106025 @ 이건 곰, 요건 압섭.(이건 고름, 요건 앞섶.)

106025 # 요건 치메, 어깨마리.(요건 치마, 어깨걸이.)

106025 @ 요건 어깨마리.(요건 어깨걸이.)

106025 # 다 경헹 입엇지, 엿날엔.(다 그렇게 해서 입었지, 옛날엔.)

106025 @ 이거는 여기는 폭.(이거는 여기는 폭.)

106025 # 건 치멧복이난 뭔.(그건 치마폭이니까 무슨.)

106025 @ 치메폭.(치마폭.)

106025 # 이건 천이 족으민 여러 복 들어가는 거. 경 아녀민 두 복, 세 복 경허민 치메 헹 입는 거 이거.(이건 천이 적으면 여러 폭 들어가는 거. 그렇지 않으면 두 폭, 세 폭 그렇게 하면 치마 해서 입는 거 이거.)

106025 @ 이거 끝에는 치메단?(이거 끝에는 치맛단?)

106025 # 치메알. 단 허는 거.('치메알'. 단 하는 거.)

106025 @ 단이 아니고 알? 치메알?(단이 아니고 '알'? '치메알'?)

106025 # 응.(응.)

106025 @ 그다음에는 이거 영 뒤로 영 허민 이레 영 가려집니께.(그다음에는 이거 이렇게 뒤로 이렇게 하면 이리 이렇게 가려지잖습니까.)

106025 # 옆치메 이건.(통치마 이건.)

106025 @ 옆치메?(통치마?)

106025 # 옆치메라고이 이건 처녀들이 안 입고 요즘은 처녀고 무시거고 잇당 다 입어 나사는디 무용헐 땐 허는디 시집간 사람들벳긘 안 입어, 이건. 처녀들은. (통치마라고 이건 처녀들이 안 입고 요즘은 처녀고 무엇이고 있다가 다 입고 나서는데 무용할 땐 하는데 시집간 사람들밖에 안 입어, 이건. 처녀들은.)

106025 @ 처녀들은 어떤 거 입어?(처녀들은 어떤 거 입어?)

106025 # 그냥 통치메로.(그냥 통치마로.)

106025 @ 아, 처녀들은 통치메로.(아, 처녀들은 통치마로.)

106025 # 어, 부쪙 이런 진 치메 안 입어. 통치메 그냥 요만이 뜨게. 경헹 입곡.(어, 붙여서 이런 긴 치마 안 입어. 통치마 그냥 요만큼 오게. 그렇게 해서 입고.)

106025 @ 시집간 사름은?(시집간 사람은?)

106025 # 시집간 사름은 영 둘루는 치메, 그거.(시집간 사람은 이렇게 두르는 치마, 그거.)

106025 @ 둘루는 치메 아까.(두르는 치마 아까.)

106025 # 옆 튼 거.(옆 튼 거.)

106025 @ 옆치메?(통치마?)

106025 # 응, 옆치메 그것 입곡, 경 헷지, 엿날에.(응, 통치마 그것 입고, 그렇게 했지, 옛날에.)

106025 @ 여자들은 여름에 입는 거 겨울에 입는 거 ᄐᆞ나?(여자들은 여름에 입는 거 겨울에 입는 거 달라?)

106025 # ᄐᆞ나지 아녀. 옷 얄룹고 두꺼운 건 ᄐᆞ나. 겨울엔 저고리 입지마는 여름엔 홑옷 입잖아, 여름에. 엿날에이 요새 ᄀᆞ트난 하간 거 이치룩 헌 옷도 나고 허난 이 옷, 저 옷도 입엄주. 엿날엔 딱 미녕이믄 미녕이라이, 적삼이민 적삼 하나, 다른 거 엇엇어. 우리 엿날에 우리 두릴 때 입을 건.(다르지 않아. 옷 얇고 두꺼운 건 달라. 겨울엔 저고리 입지마는 여름엔 홑옷 입잖아, 여름에. 옛날에 요새 같으니까 온갖 거 이렇게 한 옷

도 나고 하니까 이 옷, 저 옷도 입고 있지. 옛날엔 딱 무명이면 무명이야, 적삼이면 적삼 하나, 다른 거 없었어. 우리 옛날에 우리 어린 때 입을 건.)

106025 @ 속에 입는 건?(속에 입는 건?)

106025 # 적삼허곡 몸빼 하나 그자. 미녕 몸빼에 미녕 적삼 하나 그거 입엇어. 소곱에 여름에 팬티 ᄒᆞ나 멘들앙 미녕으로 팬티엔 안 허여, 빤스.(적삼하고 일바지 하나 그저. 무명 일바지에 무명 적삼 하나 그거 입었어. 속에 여름에 팬티 하나 만들어서 무명으로 팬티라고 안 해, '빤스'.)

106025 @ 빤스, 빤스 말고 아까 속곳.(팬티, 팬티 말고 아까 속곳.)

106025 # 속곳은 물질허는 사름덜.(속곳은 물질하는 사람들.)

106025 @ 아, 그믄 그거 만들앙 입은 것도 빤스도 속곳이엔 안 ᄀᆞᆯ아?(아, 그러면 그거 만들어서 입은 것도 팬티도 속곳이라고 안 말해?)

106025 # 속곳이엔은 안 ᄀᆞᆯ아, 우린.(속곳이라고 안 말해, 우린.)

106025 @ 그냥 빤스?(그냥 '빤스'?)

106025 # 어, 그냥 빤스. 빤스렌 헷주.(어, 그냥 '빤스'. '빤스'라고 했지.)

106025 @ 요 안에 요만헌 바지 안 입어? 치메 안에?(요 안에 요만한 바지 안 입어? 치마 안에?)

106025 # 그거이 엿날에.(그거 옛날에.)

106025 @ 속바지 뭐 이런 거.(속바지 뭐 이런 거.)

106025 # 그런 거 안 입엉 정벵이, 정벵이엔 헤낫저.(그런 거 안 입고 잠방이, 잠방이라고 했었어.)

106025 @ 정벵이.(잠방이.)

106025 # 소곱에 입는 속 정벵이.(속에 입는 속 잠방이.)

106025 @ 속 정벵이.(속 잠방이.)

106025 # 엿날엔이 바지도 뭐가 엇어낫져. 그런 거 허젠 허민 무시거 서사 헹 입느네. 엿날에 그자 얼엉 톡톡톡톡 털멍이라도 그 미녕으로 헹 요만은 뜨게 헹 정벵이 새끼 ᄒᆞ나 헹 입으민 눈 팡팡 온 때 게도 그거 입엉 뎅기곡.(옛날엔 바지도 뭐가 없었었어. 그런 거 하려고 하면 무엇 있어야 해서 입지. 옛날에 그저 추워서 톡톡톡톡 떨면서라도 그 무명으로 해서 요만큼은 오게 해서 잠방이 새끼 하나 해서 입으면 눈 펑펑 온 때 그래도 그거 입어서 다니고.)

106027 @ 옷 멘들젠 허민 어떵 헤근에 멘드는 거꽈? 옷 본 헤다근에 헤여?(옷 만들려고 하면 어떻게 해서 만드는 겁니까? 옷 본 해다가 해?)

106027 # 아니.(아니.)

106027 @ 게민.(그러면.)

106027 # 엿날 옷은 본 안 헌다.(옛날 옷은 본 안 한다.)

106027 @ 게믄 어떵 헹?(그러면 어떻게 해서?)

106027 # 그냥 이녁대로 그자 품만 얼마 지러기, 지럭시 얼마 허민 그자 자 놔근에 영 식식허게 자 놩 ᄆᆞᆯ르멍 그자 품만 마촹, 품 멧 치여 놓라 허민 멧 치 놓고, 지럭시

멧 치 놓라 허민 그거 허영 삭삭 몰으민. 본 허영 하간 거이 엿날 이디 우리 조선 옷 입는 거 본 아니 놩 몰라난.(그냥 자기대로 그저 품만 얼마 길이, 길이 얼마 하면 그저 자 놔서 이렇게 식식하게 자 놔서 마르면서 그저 품만 맞춰서, 품 몇 치다 놓아라 하면 몇 치 놓고, 길이 몇 치 놓아라 하면 그거 해서 삭삭 마르면. 본 해서 온갖 거 옛날 여기 우리 조선 옷 입는 거 본 안 놔서 말랐었어.)

106027 @ 아, 그민 영 ᄀᆞ세로 잘랑?(아, 그러면 이렇게 가위로 잘라서?)

106027 # 응, ᄀᆞ세로.(응, 가위로.)

106027 @ 그다음.(그다음.)

106027 # 큰옷이고, 후르메고, 치메고이 멧 자 지럭시다, 멧 자에 멧 치 놓라 허민 그걸로 끗이주. 본 헤당 몰라본 적은 엇다, 우리. 본 헤당 몰라본 적은.(큰옷이고, '후루메'고, 치마고 몇 자 길이다, 몇 자에 몇 치 놓아라 하면 그걸로 끝이지. 본 해다가 말라본 적은 없어, 우리. 본 해다가 말라본 적은.)

106027 @ 그 천 놔근에.(그 천 놔서.)

106027 # 천 놓고, 자 놓곡 헤근에 자로 싹 재어근에.(천 놓고, 자 놓고 해서 자로 싹 재어서.)

106027 @ 재어근에 기려?(재어서 그려?)

106027 # 길이도 재곡 품도 재곡.(길이도 재고 품도 재고.)

106027 @ 아니, 그니까 그리냐고?(아니, 그러니까 그리냐고?)

106027 # 안 그려.(안 그려.)

106027 @ 연필로 영 표시 안 허여?(연필로 이렇게 표지 안 해?)

106027 # 아녀, 안 허여. 이거 고비가 영 나는 거난, 천 고비가 나는 거난 멧 자 허민 딱 오그렁 영 싹 씰민 고비 나민 그 고비로 그치멍 헷주. 그리고 무시거 안 헤낫저. 우리는 나도이 이 도폭이나 이런 옷 그자 손으로 만드는 것은 느랑 헤낫어이. 새각시 옷덜토 강 헤도렌 허민 허곡 허민 그자 자 놔근에 자로 멧 치, 품 얼마입나 허민 그자 자로 놩 멧 치 놓고, 지럭시 멧 치 놓고, 치메 지럭시도 멧 치, 멧 자 멧이 큰옷 경 허민 그자 치수로만 말헤 놓멍 그치멍 헷주. 본 안 헤낫저.(안 해, 안 해. 이거 굽이가 이렇게 나는 거니까, 천 굽이가 나는 거니까 몇 자하면 딱 오그려서 이렇게 싹 쓸면 굽이 나면 그 굽이로 자르면서 했지. 그리고 무엇 안 했었어. 우리는 나도 이 도복이나 이런 옷 그저 손으로 만드는 것은 늘 했었어. 새색시 옷들도 가서 해달라고 하면 하고 하면 그저 자 놔서 자로 몇 치, 품 얼마 입는다 하면 그저 자로 놔서 몇 치 놓고, 길이 몇 치 놓고, 치마 길이도 몇 치, 몇 자 몇이 큰옷 그렇게 하면 그저 치수로만 말해 놓으면서 자르면서 했지. 본 안 했었어.)

106027 @ 그냥 그걸로 헤근에 그다음엔 손으로?(그냥 그걸로 해서 그다음엔 손으로?)

106027 # 손으로 호와. 아이고 엿날 바농질헤난 거 막 복잡헌 거. 손으로 그거 문 호우젠 허민이 새각시 옷도 강으네 ᄒᆞ루 치메 저고리여 무시거여 허젠 허민 ᄒᆞ루 걸려 비어.(손으로 호아. 아이고 옛날 바느질했던 거 막 복잡한 거. 손을 그거 모두 호려고

하면 새색시 옷도 가서 하루 치마저고리다 무엇이다 하려고 하면 하루 걸려 버려.)

106027 @ ᄒᆞ루민 만들아져?(하루면 만들 수 있어?)

106027 # ᄒᆞ루민 멘들아. ᄒᆞ루민 만들아. 그자 수왕수왕 호는 거니까. 겨고 윤디 들고, 멩지옷은 허젠 허민 윤디 잇잖아. 윤디 들엉 화리에 숯불 살롸놩 묻엇다근에 뜻뜻허민 그걸로 싹 씰민 실밥이 쏙 허게 밀어져이. 경헤근에 옷허곡 경헌 거.(하루면 만들어. 하루면 만들어. 그저 듬성듬성 호는 거니까. 그리고 인두 들어가고, 명주옷은 하려고 하면 인두 있잖아. 인두 들어서 화로에 숯불 살라 놓고 묻었다가 따뜻하면 그걸로 싹 쓸면 실밥이 쏙 하게 밀 수 있어. 그래서 옷하고 그런 거.)

106028 @ 보선.(버선.)

106028 # 보선은 이거 마찬가지.(버선은 이거 마찬가지.)

106028 @ 보선 이디.(버선 여기.)

106028 # 보선도 누게 신는 버선 발에 맞은 신, 본인이 허믄 나가 나 발에 보선 아정 강 보선 톡허게 이치룩 벗엉 톡허게 놩 꼭꼭허게 바농으로 시꺼, 시꺼. 겨 안 허민 연필로 꼭꼭꼭 점 찍어. 경 헤근에 보선 ᄆᆞᆯ란에 헷주.(버선도 누구 신는 버선 발에 맞은 신, 본인이 하면 내가 내 발에 버선 가지고 가서 버선 톡하게 이렇게 벗어서 톡하게 놔서 꼭꼭하게 바늘로 시쳐, 시쳐. 그렇지 않으면 연필로 꼭꼭꼭 점 찍어. 그렇게 해서 버선 말라서 했지.)

106028 @ 응.(응.)

106028 # 본 놓고 무시거 놓고 안 헹 보선 놔근에 확 ᄆᆞᆯ라근에.(본 놓고 무엇 놓고 안 하고 버선 놔서 확 말라서.)

106028 @ 이딘 보선 앞코?(여긴 버선 앞코?)

106028 # 요건 앞, 요건 뒤.(요건 앞, 요건 뒤.)

106028 @ 뒤치기?(뒤축?)

106028 # 응.(응.)

106028 @ 이딘 목.(여긴 목.)

106028 # 목, 그거.(목, 그거.)

106028 @ 보선목. 이딘 볼.(버선목. 여긴 볼.)

106028 # 볼, 보선.(볼, 버선.)

106028 @ 이디 영 뒌 디 무신거엔 ᄀᆞᆫ는 거 이수과?(여기 이렇게 된 데 무엇이라고 말하는 거 있습니까?)

106028 # 엇어.(없어.)

106028 @ 이디.(여기.)

106028 # 그것도 엇고.(그것도 없고.)

106028 @ 이디.(여기.)

106028 # 요것ᄀᆞ라 에ᄐᆞᆨ.(요것보고 '에ᄐᆞᆨ'.)

106028 @ 그것ᄀᆞ라 에ᄐᆞᆨ.(그것보고 '에ᄐᆞᆨ'.)

106028 # 응, 그거 ᄒᆞ나 에ᄐᆞᆨ이엔 허주.(응, 그거 하나 '에ᄐᆞᆨ'이라고 하지.)

106028 @ 요거 ᄒᆞ나뿐?(요거 하나뿐?)
106028 # 응, 이 보선은 뭐 여러 가지 엇어.(응, 이 버선은 뭐 여러 가지 없어.)
106028 @ 이디 회목?(여기 회목?)
106028 # 그런 거 엇어.(그런 거 없어.)
106028 @ 뒤치기.(뒤축.)
106028 # 거 안 ᄀᆞᆯ아봣저. 그저 뒤치기엔 허고 앞볼 헌 거 허고.(그거 안 말해봤어. 그저 뒤축이라고 하고 앞볼 한 거 하고.)
106028 @ 뒤치기허고.(뒤축하고.)
106028 # 앞볼.(앞볼.)
106028 @ 앞볼.(앞볼.)
106028 # 응, 거뿐이주(응, 그거뿐이지.)
106028 @ 다음에 코.(다음에 코.)
106028 # 아이고, 코는 그냥 이신 거난 그자.(아이고, 코는 그냥 있는 거니까 그저.)
106028 @ 이딘 보선목.(여긴 버선목.)
106029 @ 단추도 여러 가지 종류가 이수과?(단추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까?)
106029 # 단추.(단추.)
106029 @ 응.(응.)
106029 # 우리가이 저 벌모작이라고 영 천 혜영 ᄀᆞ는ᄀᆞ는허게 막 바농으로 놀리멍 그걸 막 감쳐이. 경헹 막 ᄀᆞ늘게 헹 모작을 ᄆᆞ쳐. 모작 ᄆᆞ청 ᄃᆞ는 것도 벌모작.(우리가 저 매듭단추라고 이렇게 천 해서 가늘디가늘게 막 바늘로 놀리면서 그걸 막 감쳐. 그래서 막 가늘게 해서 매듭을 마쳐. 매듭 마쳐서 다는 것도 매듭단추.)
106029 @ 벌모작. 그다음엔 그냥 단추는?(매듭단추. 그다음엔 그냥 단추는?)
106029 # 단추는 이런 거 ᄃᆞᆯ아.(단추는 이런 거 달아.)
106029 @ 그냥 이런 단추는?(그냥 이런 단추는?)
106029 # 그런 단추 그냥 ᄃᆞᆯ아, 무신거.(그런 단추 그냥 달아, 무엇.)
106029 @ 엿날엔 이런 거 엇어나실 거 아니꽈?(옛날엔 이런 거 없었을 거 아닙니까?)
106029 # 엿날엔 이런 단추 잇어.(옛날엔 이런 단추 있어.)
106029 @ 아, 잇어. 무신거엔 ᄀᆞᆯ아, 이런 거.(아, 있어. 무엇이라고 말해, 이런 거.)
106029 # 엿날엔 이디 구제기딱살로 만든 단추가 잇어.(옛날엔 여기 소라딱지로 만든 단추가 있어.)
106029 @ 구제기딱살로 만든 단추?(소라딱지로 만든 단추?)
106029 # 어, 그런 단추 사당 ᄃᆞᆯ주. 이 남자 옷에는 ᄆᆞᆫ.(어, 그런 단추 사다가 달지. 이 남자 옷에는 모두.)
106029 @ 그다음에 뭐 이수게? 마고자 같은 데 허는 그 큰 거.(그다음에 뭐 있잖습니까? 마고자 같은 데 하는 그 큰 거.)
106029 # 마고자 허는 디도 엿날엔 이디 마고자가 무신거가 엇어낫저, 우리 엿날에.

아이고, 이제난 마고지여 무시거여 헴주. 엿날엔 마고지가 어디 서시니? 마고지렌 헌 옷은 우리 역은 후제 이제사 이거 마고자 헌 후제 이거 흔 멧 년 뒈시니? 흔 이십, 삼십 년 안 뒈어. 마고지, 마고자. 흔 삼십 년 뒈긴 뒘저. 마고자엔 말 든건 디.(마고자 하는데도 옛날엔 여기 마고자가 무엇이 없었었어, 우리 옛날에. 아이고, 이제니까 마고자다 무엇이다 하고 있지. 옛날엔 마고자가 어디 있었니? 마고자라고 한 옷은 우리 큰 후에 이제야 이거 마고자 한 후에 이거 한 몇 년 됐니? 한 이십, 삼십 년 안 돼. 마고자, 마고자. 한 삼십 년 되긴 되고 있어. 마고자라고 말 들은 지.)

재단과 염색

106030 @ 옷감 손질허는 거. 멩지 손질허젠 허민.(옷감 손질하는 거. 명주 손질하려고 하면.)

106030 # 건 마께로 막 다듬이질 헤사. 풀헤영.(그건 방망이로 막 다듬이질 해야. 풀해서.)

106030 @ 풀은 무신 풀로?(풀은 무슨 풀로?)

106030 # 밀풀. 밀 골아근에이 밀 골아근에 저 물에 컹 놔두민 막 즈늘아이 밀. 막 즈늘민 그거 막 잘리에 놩 영 밀어근에 허민 헤영헌 물 나오민 그거 쑤는 거라, 풀.(밀풀. 밀 갈아서 밀 갈아서 저 물에 담가 놔두면 막 물러져 밀. 막 물러지면 그거 막 자루에 놔서 이렇게 밀어서 하면 하얀 물 나오면 그거 쑤는 거야, 풀.)

106030 @ 밀ᄀᆞ루를?(밀가루를?)

106030 # 밀ᄀᆞ루가 아니고 엿날엔 이디 밀 헤영근에 ᄀᆞ레서 검피는 거네이. 검평 그 검핀 밀쏠을 물에 크는 거라이. 컷다근에 그걸 잘리에 싸근에 막 영영영영 주물라가민 헤영헌 물이 나오는 거라. 게민.(밀가루가 아니고 옛날엔 여기 밀 해서 맷돌에서 거피하는 거야. 거피해서 그 거피한 밀쌀을 물에 담그는 거야. 담갔다가 그걸 자루에 싸서 막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주물러 가면 하얀 물이 나오는 거야. 그러면.)

106030 @ 청묵허듯이?(청묵하듯이?)

106030 # 그거 짜근에 청묵허듯이 그거 헹 쑤어. 쑤웡 뒈민 물 놔근에이 멩지 멕영 부들부들 시들어 가민 그땐 개여놩 막 두드려. 마께로 막 두드리당 또 이젠 거자 두드려지민 요 멩지옷 허기가 젤 힘들어.(그거 짜서 청묵하듯이 그거 해서 쑤어. 쑤면 되면 물 놔서 명주 먹여서 부들부들 시들어 가면 그땐 개어놔서 막 두드려. 방망이로 막 두드리다가 또 이젠 거의 두드려지면 요 명주옷 하기가 제일 힘들어.)

106030 @ 아.(아.)

106030 # 또 이젠 둥글렁헌 홍지대엔 헌 거 잇어. 이만은 진 거이. 이만은 질고 요 보단 ᄒᆞ쏠 더 술 좋아. 것에 뱅뱅 감아근에 막 다듬이로 마주 앚앙 다듬이로 막 두드려. 게민 이 멩지가 삔직삔직허게 다듬아져. 이 멩지옷 헤 입으민 젤 시끄롸. 다듬젠 허민 마께질 허메. 미녕옷은 그자 발로 꼭꼭 불라근에 헹 입어도 뒈는디. 멩지옷은 경 안 허민 옷 살앙 바제기 올 살앙 뽄이 엇어. 게난 이거 빈직빈직허게 허젠 허믄 다듬이로 게

나게나 밤에 앚이민 다듬이 소리가 귀가 터져. 삼사방이 다듬이 헌다고.(또 이젠 둥그런 홍두깨라고 한 거 있어. 이만큼은 긴 거. 이만큼은 길고 요보단 조금 더 살 좋아. 그것에 뱅뱅 감아서 막 다듬이로 마주 앉아서 다듬이로 막 두드려. 그러면 이 명주가 반짝반짝하게 다듬어져. 이 명주옷 해 입으면 제일 시끄러워. 다듬으려고 하며 방망이질 해. 무명옷은 그저 발로 꼭꼭 발라서 해서 입어도 되는데. 명주옷은 그렇게 안 하면 옷 살아서 '바제기' 올 살아서 폼이 없어. 그러니까 이거 반짝반짝하게 하려고 하면 다듬이로 그러나저러나 밤에 앉으면 다듬이 소리가 귀가 터져. 사방이 다듬이 한다고.)

106030 @ 발로 볼르는 건 어떵 볼르는 거?(발로 밟는 건 어떻게 밟는 거?)

106030 # 발로 기자 이 미녕옷은 그자 포에 쌍 저 똑똑 풀 멕영 시들어가면 개여 놔근에 무신 저 포대기에 쌍 발로 꼭꼭 볼르민 풀이 과짝 옷이 반들반들헤지주게.(발로 그저 이 무명옷은 그저 보자기에 싸서 저 똑똑 풀 먹여서 시들어가면 개어 놔서 무슨 저 보자기에 싸서 발로 꼭꼭 밟으면 풀이 곧게 옷이 반들반들해지지.)

106030 @ 다듬질허는 거 대신에?(다듬이질하는 거 대신에?)

106030 # 다듬질 안 허영 기냥 반질반질허게 헹 몰르민 다리웰로 쓱 다리민 싹싹 펴와지민 그냥 입주. 게도이 멩지옷ᄀᆞ치룩 막 입으민 잘도 시끄러웡 원.(다듬이질 안 하고 그냥 반질반질하게 해서 마르면 다리미로 쓱 다리면 싹싹 펴지면 그냥 입지. 그래도 명주옷처럼 막 입으면 잘도 시끄러워서 원.)

106030 @ 빨래는 게민 어떵헹 헙니까? 비누도 엇곡.(빨래는 그러면 어떻게 해서 합니까? 비누도 없고.)

106030 # 에이구 겨난 엿날엔이. 겨난 흰옷이, 흰옷 입엉 고양 입젠 허민 어디 갈 때나 입엉 때가 반은 묻어도 그냥 입어. 올 못 빼도록 그냥 입지. 요샌 흔 번 입엉 강 오민 지금 이거 아무것도 안 부떠도 이제 뿔아야 입을 거 아니. 게주만은 이 옷이 가물가물허도록 입어, 이거. 가물가물허도록 입어, 흰옷이. 경허민 물에 커이. 물에 컹 오래오래 놔두민 물이 흔 이 철엔 물에 컹 사흘만 뒈민 물이 썩은 물이 북싹허게 올라와. 올라오민 가근에 영 뿔민 그 물 북싹한 썩은 물 나올 때 강 뿔민 벌써 흔 불 빠지는 거라, 빠져. 경허민 안 골아냐게, 멩지 저 눼는[169] 거 거시기.(에이구 그러니까 옛날엔. 그러니까 흰옷 입어서 고이 입으려고 하면 어디 갈 때나 입어서 때가 반은 묻어도 그냥 입어. 올 못 빼도록 그냥 입지. 요샌 한 번 입고 가서 오면 지금 이거 아무것도 안 붙어도 이제 빨아야 입을 거 아니. 그렇지마는 이 옷이 가물가물하도록 입어, 이거. 가물가물하도록 입어, 흰옷이. 그러면 물에 담가. 물에 담가서 오래오래 놔두면 물이 한 이 철에는 물에 담가야 사흘만 되면 물이 썩은 물이 '북싹'하게 올라와. 올라오면 가서 이렇게 빨면 그 물 '북싹'한 썩은 물 나올 때 가서 빨면 벌써 한 벌 빠지는 거야, 빠져. 그러면 안 말하더냐, 명주 저 '눼는' 거 거시기.)

106030 @ 모멀체?(메밀겨?)

106030 # 모물체 ᄉᆞᆫ 거 그걸로 헤근에 그거 카 놔근에 솟듸 놩 옷에 놩 솖아. 솖으민 때가 문짝 져, 것도. 경 허멍 입엇주. 어떵 헤근에 비누 엇이 겨난 감옷만 감옷만 헹

169) '눼다'는 뻣뻣한 생명주에 재를 넣고 삶아서 부드럽게 만드는 것을 말한다.

입는 거라. 거 때 지우지 말젠 그자 버물고 안 버물고 헹 입단 보민 감옷이 헐어가민 이 무릅에쯤은 때가 눌엉 삔직삔직허여. 경헤도 물에 적지곡 적지곡 허민 그자 내만 헹과지는 거주.(메밀겨 사른 거 그걸로 해서 그거 타 놔서 솥에 놔서 옷에 놔서 삶아. 삶으면 때가 모두 지워져, 그것도. 그렇게 하면서 입었지. 어떻게 해서 비누 없이 그러니까 감옷만 감옷만 해서 입는 거야. 그거 때 지우지 말려고 그저 더럽고 안 더럽고 해서 입다고 보면 감옷이 헐어가면 이 무릎에쯤은 때가 눌어서 번들번들해. 그래도 물에 적시고 적시고 하면 그저 내만 헹궈지는 거지.)

106031 @ 감물은 어떵 들이는 거마씨?(감물은 어떻게 들이는 거예요?)

106031 # 감물 이제 혼 유월들 나민 감 연헌 때 들여사 감물 안 빠져이. 겨믄 그 감 뻣아근에 물 짱.(감물 이제 한 유월 나면 감 연한 때 들여야 감물 안 빠져. 그러면 그 감 빻아서 물 짜서.)

106031 @ 무신거에 빠, 뻣아.(무엇에 빻, 빻아?)

106031 # 마께로 막 두드리멍 뻣는 거.(방망이로 막 두드리면서 빻는 거.)

106031 @ 어디 놩? 도고리에 놩?(어디 놔서? 함지박에 놔서.)

106031 # 도고리에 놩 막 뻣아근에.(함지박에 놔서 막 빻아서.)

106031 @ 그다음.(그다음.)

106031 # 겡 잘리에 놩 딱허게 물 짜근에 그 물 옷에 막 놩 놀리는 거라. 놀리민 그 물 드는 거. 경헹 발헤사 감물이주. 발허지 안헹은 헤영헌 거 물이 아니.(그래서 자루에 놔서 딱하게 물 짜서 그 물 옷에 막 놔서 주무르는 거야. 주무르면 그 물 드는 거. 그래서 바래야 감물이지. 바래지 감물이지. 바래지 않아서 하얀 거 물이 아니.)

106031 @ 물 들영, 물 헤근에 이디 이디 영 어디 빨랫줄에라도.(물 들여서 물 해서 여기 여기 이렇게 어디 빨랫줄에라도.)

106031 # 널엉.(널어서.)

106031 @ 널어?(널어서.)

106031 # 널엉 자꾸 물 적지멍 발헤사 벌겅허주. 경 안 허민 벌겅 안헤여.(널어서 자꾸 물 적시면서 바래야 벌겋지. 그렇지 않으면 발갛지 않아.)

106031 @ 그다음 혼 번 감물헤 나민 그 아무 물이나 물만 적시면 뒈어? 감물 또 헤여?(그다음 한 번 감물하고 나면 그 아무 물이나 물만 적시면 돼? 감물 또 해?)

106031 # 무사 감물 또 헤여?(왜 감물 또 해?)

106031 @ 혼 번만 허믄 뒈여?(한 번만 하면 돼?)

106031 # 무사 감물 또 헤여? 혼 번만 헤영 게메 감옷을 막 벳 난 때 물 적져근에 짝 페왕 발레여. 발레 강 혼 메틀만 발레가민 감물이 발강게 처음엔 막 고와. 빨강헌 게 고와. 건디 오래 익어가민 뜸 부떠가민 썩어비엉이. 게가민 시커멍 감옷이. 헐어가민 거멍허곡. 경 허는 거.(왜 감물을 또 해? 한 번만 해서 글쎄 감옷을 막 볕 난 때 물 적셔서 쫙 펴서 바래. 바래 가서 한 며칠만 바래 가면 감물이 발갛게 처음엔 아주 고와. 빨간 게 고와. 그런데 오래 익어 가면 땀 붙어 가면 썩어버려. 그래 가면 시커먼 감옷이. 헐어가면 거멓고. 그렇게 하는 거.)

106031 @ 저 어디 보면 잔디, 풀밧듸 막 천 널어근에 감물 들이는 거.(저 어디 보면 잔디, 풀밭에 막 천 널어서 감물 들이는 거.)

106031 # 널엇지, 감물 들이는 거. 그거 발레는 거. 벌겅게 발라. 막 발강케 바라가민 요색으로 발강케 바라가. 경 헌 땐 처암 헤온 때 무사 감물 들인 것도 고와이. 곤디 오래 입어가민 그것이 시커멓게 뚬 부떠가고 시커멍.(널었지, 감물 들이는 거. 그거 바래는 거. 벌겋게 바래. 막 발갛게 바래 가면 요색으로 발갛게 바래 가. 그렇게 한 땐 처음 해온 때 왜 감물 들인 것도 고와. 고운데 오래 입어가면 그것이 시커멓게 땀 붙어가고 시커먼.)

106031 @ 감물 말고 거멍헌 물은 어떵 들이는 거마씨?(감물 말고 검은 물은 어떻게 들이는 거예요?)

106031 # 거멍헌 물은, 검은 물은 사당 솟듸서 엿날에. 요즘은 검은 물 또 나가 아니 헤부난 허주. 우리 두린 때 검은 물 들이는 거 보민 원료가 잇어. 저 물장시 왐저, 물장시 왐저 허멍 물레 들이는 사름덜이 물레 들일 거 잇건 들이세요, 들이세요 허멍 물장시들이 뎅겨이.(거먼 물은, 검은 물은 사다가 솥에서 옛날에. 요즘은 검은 물 또 나가 안 해버리니까 하지. 우리 어린 때 검은 물들이는 거 보면 원료가 있어. 저 물감장사 온다, 물감장사 온다 하면서 물감 들이는 사람들이 물감 들일 거 있으면 들이세요, 들이세요 하면서 물감장사들이 다녀.)

106031 @ 예.(예.)

106031 # 겨민 막 이 몸빼들 헹 입젠 허민 검은 물 들이젠 허민 물장시 와 가민 우리 물들이쿠덴 헹 막 모집을 헤 오는 거라, 따시. 야, 검은 물 오늘 들이젠 헴저. 니네 물 들일 거 잇건 들이라, 들이라 영 헤 오민 그 사람이 문딱 거 원료 놓고 검은 물 놓곡 솟듸서 막 솖으멍 물들여주는 거라.(그러면 막 이 일바지들 해서 입으려고 하면 검은 물 들이려고 하면 물감장사 와 가면 우리 물들이겠다고 해서 막 모집을 해 오는 거야, 다시. 야, 검은 물 오늘 들이려고 한다. 너희 물들일 거 있으면 들여라, 들여라 이렇게 해서 오면 그 사람이 모두 그거 원료 놓고 검은 물 놓고 솥에서 막 삶으면서 물들여주는 거야.)

106031 @ 아.(아.)

106031 # 경헹 검은 물 들여근에 검은 몸빼도 헹 입곡, 치메도 헹 입곡 미녕이난, 경허는 거지. 광목 나건지도 멧 년 안 뒈고.(그렇게 해서 검은 물 들여서 검은 일바지도 해서 입고 무명이니까, 그러는 거지. 광목 난 지도 몇 년 안 되고.)

106031 @ 그믄 거 미녕에 벌겅헌 물 뭐 이런 건 어떵 들이는 거?(그러면 그거 무명에 벌건 물 뭐 이런 건 어떻게 들이는 거?)

106031 # 벌겅헌 물도 마찬가지.(벌건 물도 마찬가지.)

106031 @ 마찬가지?(마찬가지?)

106031 # 검은 물들이는 거나 마찬가지.(검은 물들이는 거나 마찬가지.)

106031 @ 무사 벌겅헌 치메에 초록색 저고리 입곡 영 헙니께.(왜 벌건 치마에 초록색 저고리 입고 이렇게 하잖습니까.)

106031 # 건 멩짓물이 멩지에다가 초록 물도 들여이. 초록 물도 들여도 그 물도 솖아사 뒈여. 들이는 사름이 와사 물색 어느 정도 봉 어느 색으로 헤도라 허민 물 들이는 사름이 색 알아근에 그대로 들여. 그대로 들여 줘사주, 우리냥으론 안 들여 봔.(그건 명주 물이 명주에다가 초록 물도 들여. 초록 물도 들여도 그 물도 삶아야 돼. 들이는 사람이 와야 물감 색 어느 정도 놔서 어느 색으로 해달라 하면 물 들이는 사람이 색 알아서 그대로 들여. 그대로 들여 줘야지, 우리대로는 안 들여 봤어.)

106031 @ 우리냥으론 못 허는 거구나예.(우리대론 못 하는 거군요.)

106032 @ 신발, 이제 신발. 신발의 종류는 어떤 게 잇어마씨?(신발, 이제 신발. 신발의 종류는 어떤 게 있어요?)

106032 # 신발 또 무시거.(신발 또 무엇.)

106032 @ 초신.(짚신.)

106032 # 초신이사 그대로 그냥 초신이주.(짚신이야 그대로 그냥 짚신이지.)

106032 @ 초신, 남신.(짚신, 나막신.)

106032 # 남신도 어디 강 그려놔신게.(나막신도 어디 가서 그려놨네.)

106032 @ 초신, 남신 그다음 가죽으로 뭰 건?(짚신, 나막신 그다음 가죽으로 된 건?)

106032 # 가죽으로 뭰 신은 우리 그런 건 잘 몰라. 가죽신은 잘 몰라. 겐디 남신은 엿날 할망덜 보민 이 남으로 판 거라이. 파근에 아무나 이 남신도 못 신어. 젊은 사름이 나벳긔.(가죽으로 된 신은 우리 그런 건 잘 몰라. 가죽신은 잘 몰라. 그런데 나막신은 옛날 할머니들 보면 이 나무로 판 거야. 파서 아무나 이 나막신도 못 신어. 젊은 사람이 나밖에.)

106032 @ 무사?(왜?)

106032 # 발이 ᄒᆞ쏠 푸들락허민 발목 거꺼, 이거. 눈 올 때 발목 거꺼. 게난 젊은 사름들이나 이 남신도 신주. 늙은 어른덜은 남신 안 신어. 푸드글락허민 발목 거끌 건디. 게난 남신 신는 사름 멧 엇어. 이 신은 하영 신어.(발이 조금 삐끗하면 발목 꺾어, 이거. 눈 올 때 발목 꺾어.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나 이 나막신도 신지. 늙은 어른들은 나막신 안 신어. 삐끗하면 발목 꺾을 건데. 그러니까 나막신 신는 사람 몇 없어. 이 신은 많이 신어.)

106032 @ 초신은 게난.(짚신은 그러니까.)

106032 # 초신은 사름마다 다 신어, 이건.(짚신은 사람마다 다 신어, 이건.)

106035 @ 초신은 어떵헹 멘드는 거마씨?(짚신은 어떻게 해서 만드는 거예요?)

106035 # 이거. 이것도 곳사도 골앗주만은 망사리 노 허는 거나 이 초신 삼는 노 꼬는 거나 요 깍 내는 거나, 요거 깍이주. 초신 깍 요거 허는 거나, 요 놀이나이.(이거. 이것도 아까 말했지마는 망사리 노 하는 거나 이 짚신 삼는 노 꼬는 거나 요 총 내는 거나, 요거 총이지. 짚신 총 요거 하는 거나, 요 날이나.)

106035 @ 이게 초신깍?(이게 짚신총?)

106035 # 이것이 깍 아냐? 베롱베롱[170]헌 요거, 요거.(이것이 총 아니냐? '베롱베롱'

한 요거, 요거.)

106035 @ 아, 여기가 깍.(아, 여기가 총.)

106035 # 응.(응.)

106035 @ 놀은 어느 거라, 놀.(날은 어느 거야, 날.)

106035 # 놀은 이 소곱에 이거 잇잖아. 요 소곱에 또 요 소곱에 놀이 잇어, 이거. 이 안에도 놀 잇고. 이 아래도 놀 잇고, 이 소곱에도 이거 놀 잇어. 이거.(날은 이 속에 이거 있잖아. 요 속에 또 요 속에 날이 있어, 이거. 이 안에도 날 있고. 이 아래도 날 있고, 이 속에도 이거 날 있어, 이거.)

106035 @ 놀.(날.)

106035 # 응, 게난 신을 삼으멍 문딱 깍을 요추룩 헤근에 영 과제기 내놓민 요거는 요 구멍으로 따시 고젱이로 이걸 꿰여, 이 신 깍마다. 쏙쏙쏙 꿰어오랑 지금 요디 완 졸라멧잖아, 이거. 졸라멘 거. 졸라멩 이 저 신골이라고 똑 신 본으로 만든 나무로 만든 거 잇어.(응, 그러니까 신 삼으면서 모두 총을 요렇게 해서 이렇게 '과제기' 내놓으면 요거는 요 구멍으로 다시 꼬챙이로 이걸 꿰어, 이 신 총마다. 쏙쏙쏙 꿰어와서 지금 요기 와서 졸라맸잖아, 이거. 졸라맨 거. 졸라매서 이 저 신골이라고 꼭 신 본으로 만든 나무로 만든 거 있어.)

106035 @ 신골.(신골.)

106035 # 꼭 찔렁, 꼭 찔렁 독독독 박앙 내놓민 이 신깍이 과짝 사민 그땐 신이 신기도 좋고 멜라지지 안허영. 경허는 거, 이거. 게난 이걸 뭣으로 허느넨 허민 곳사도 골앗주마는 산에 가민 미.(꼭 찔러서, 꼭 찔러서 독독독 박아서 내놓으면 이 신총이 '과짝' 서면 그땐 신이 신기도 좋고 무너지지 않아서. 그러는 거, 이거. 그러니까 이걸 뭣으로 하느냐고 하면 아까도 말했지마는 산에 가면 새품.)

106035 @ 미[171].('미'.)

106035 # 그거 빠다근에 그거 막 고장 패기, 막 고장 패불민 너무 세어불곡 고장이 메쪽메쪽 나올 때 강 그거 막 빠다근에 집이서 막 몰령 그거 부럭지 문 빠비뒁 그거 헹 놧당 이걸로 깍 내고, 신 삼곡, 망사리 노 헹 망사리로 허곡 경 허는 거. 이거, 이거. 이것이 젤 쫀 물에 가도 어느 물에 가도 질기는 거.(그거 빼다가 그거 막 꽃 피기, 막 꽃 피어버리면 너무 쇠어버리고 꽃이 삐쭉삐쭉 나올 때 가서 그거 막 빼다가 집에서 막 말려서 그거 배동 모두 빼버려 두고 그거 해서 놨다가 이걸로 총 내고, 신 삼고, 망사리 노 해서 망사리로 하고 그렇게 하는 거. 이거, 이거. 이것이 제일 짠 물에 가도 어느 물에 가도 질기는 거.)

106035 @ 미로 헌 거?('미'로 한 거?)

106035 # 미로 헌 거.('미'로 한 거.)

106035 @ 미로 헌 초신은 이름 다르게 부릅니까?('미'로 한 짚신은 이름 다르게 부릅니까?)

---

170) '베롱베롱'은 구멍이 난 모습을 표현한 말이다.

171) '미'는 참억새의 꽃이 채 나오기 전에 그것을 싸고 있는 껍질이다.

106035 # 아니야. 그자 초신이라.(아니야, 그저 짚신이야.)

106035 @ 그냥 초신.(그냥 짚신.)

106035 # 이 미로 헤도 요 놀만 미로 간 거주. 요 바닥은 이거 찝으로 헌 거 아냐, 찝으로.(이 '미'로 해도 요 날만 '미'로 간 거지. 요 바닥은 이거 짚으로 한 거 아니냐, 짚으로.)

106035 @ 놀만 미로 헌 거?(날만 '미'로 한 거?)

106035 # 응, 놀만 미로 헌 거. 이건 그자 초신.(응, 날만 '미'로 한 거. 이건 그냥 짚신.)

106035 @ 초신.(짚신.)

106035 # 그냥 초신.(그냥 짚신.)

106036 @ 초신도 종류가 여러 개 이수과?(짚신도 종류가 여러 개 있습니까?)

106036 # 엇어.(없어.)

106036 @ 깍 내영 허는 초신 잇고 깍 안 내는 초신 잇곡.(총 내어서 하는 짚신도 있고 총 안 내는 짚신도 있고.)

106036 # 아니, 깍 안 내는 초신이 엇어. 다 깍 내사 이거. 초신이엔 헌 거 깍 엇이민 초신 안 뒈는 거. 이거 다 깍 내여사.(아니, 총 안 내는 짚신이 없어. 다 총 내야 이거. 짚신이라고 한 거 총 없으면 짚신 안 되는 거. 이거 다 총 내야.)

106036 @ 이것도 막 즘질게 허는 것도 잇고 그냥 듬성듬성 허는 것도 잇곡.(이것도 아주 자잘하게 하는 것도 있고 그냥 듬성듬성 하는 것도 있고.)

106036 # 즘질이 헌 건 엿날 어른덜이 이 고무신 안 날 때에 메느리 헤오젠 허민 이것에다가 뭐 물사 들이는디 어떵허는디 막 즘질게 헤영 곱닥허게 헤영 초신 삼앙 아져가. 집이서 신는 건 그자 대충 이녁냥으로덜 헹 아져가곡 이 초신 고양허는 사름은 고양 잘헤여. 경허난 새각시 신은 맞춰. 곱닥허게시리 허곡 경 안헌 건 집이서 대충 헹들 신고. 경 허는 거, 이거.(자잘하게 한 건 옛날 어른들이 이 고무신 안 날 때 며느리 해오려고 하면 이것에다가 뭐 물이야 들이는지 어떻게 하는지 아주 자잘하게 해서 곱게 해서 짚신 삼아서 가져가. 집에서 신는 건 그저 대충 자기대로들 해서 가져가고 이 짚신 곱게 하는 사람은 곱게 잘 해. 그러니까 새색시 신은 맞춰. 곱게끔 하고 그렇게 하지 않은 거 집에서 대충 해서들 신고. 그렇게 하는 거, 이거.)

106033 @ 가죽신은 이게 가죽으로 멘든 신인디.(가죽신은 이게 가죽으로 만든 신인데.)

106033 # 나 가죽으로 멘든 신 잘 안 봐봔.(나 가죽으로 만든 신 잘 안 봤었어.)

106033 @ 안 봐봔?(안 봤었어?)

106033 # 잘 안 봔, 이거.(잘 안 봤어, 이거.)

106033 @ 그믄 가막창신[172]은 무시거파?(그러면 '가막창신'은 무엇입니까?)

106033 # 가막창신이엔 헌 건 엿날에 우리 오라바니가 장게갈 때 우리 어릴 때 보난 가막창신이엔 헌 건 저 그땐 이디서 난 신이 아니라 그때 일본서 난 신인디 우리 아버

172) '가막창신'은 검은색 가죽신으로 표면을 우모직으로 싸고 안은 융을 대고, 바닥 창에는 징을 박은 형태이다.

지가 일본 뎅길 때난 그 신을 막 새각시, 그 신 헤가부난 막 소문 나낫어. 아무 사름 가막창신 헤왓젠 헌 거. 전 닮은 거라이, 북삭헌 거 전 닮은 거.('가막창신'이라고 한 건 옛날에 우리 오라버니가 장가갈 때 우리 어릴 때 보니까 '가막창신'이라고 한 건 저 그땐 여기서 난 신이 아니라 그때 일본서 난 신인데 우리 아버지가 일본 다닐 때니까 그 신을 막 새색시, 그 신 해가버리니까 막 소문 났었어. 아무 사람 '가막창신' 해왔다고 한 거. 전 같은 거야, 푹신한 거 전 같은 거.)

106033 @ 전이 무신거?(전이 뭐?)

106033 # 전 복삭복삭헌 저, 복삭헌 솜 닮은 거 잇잖아, 기지에. 그런 거 그런 기진데 뚜껀뚜건헌 거 색 검은 색도 잇고 또 그 무신 색 요런 색이, 요런.(전 폭신폭신한 저, 푹신한 솜 같은 거 있잖아, 천에. 그런 거 그런 천인데 두껍디두꺼운 거 색 검은 색도 있고 또 그 무슨 색 요런 색이, 요런.)

106033 @ 보라색.(보라색.)

106033 # 응, 보라색. 그런 걸로 헤단에 그런 걸로 헤 오난네 신이 잘도 고완게. 저 색이 그것이 가막창신이라, 엿날에. 이런 고무신이 아니고.(응, 보라색. 그런 걸로 해다가 그런 걸로 해 와서 신이 잘도 곱더라. 저 색이 그것이 '가막창신'이야, 옛날에. 이런 고무신이 아니고.)

106033 @ 천으로 헌 거구나예.(천으로 한 거군요.)

106033 # 이 고무신 나온 디 얼마 오래지 안헨, 이거. 우린 느랑 초신만 신엉 살아신디. 이 고무신 나건디가 이 해방 끗나가사 고무신이 나온 거야, 이게. 우린 느랑 초신만 신엉 살앗어. 제국시대 ᄒᆞ쏠 비싸난에 끔끔헨 그 왜정 때 ᄒᆞ쏠 끗나가난 이 고무신이 나온 거주. 그 전이 우리 고무신 못 신어 봔. 어느 하간에 고무신, 우리 일본 시대 살멍 얼마나 고생허멍 살아신디.(이 고무신 나온 지 얼마 오래지 않았어, 이거. 우린 늘 짚신만 신어서 살았는데. 이 고무신 나건 지가 이 해방 끝나가야 고무신이 나온 거야, 이게. 우린 늘 짚신만 신어서 살았어. 제국시대 조금 비싸서 '끔끔'해서 그 왜정 때 조금 끝나가니까 이 고무신이 나온 거지. 그 전에 우리 고무신 못 신어 봤어. 어느 겨를에 고무신, 우리 일본 시대 살면서 얼마나 고생하면서 살았는데.)

모자 등

106036 @ 모자는 할머니, 어떤 거 잇어마씨? 모자.(모자는 할머니, 어떤 거 있어요? 모자.)

106036 # 엿날엔 모저 안 써낫저, 우리. 엿날에 모자가 어디 셔?(옛날엔 모자 안 썼었어, 우리. 옛날에 모자가 어디 있어?)

106036 @ 남자덜.(남자들.)

106036 # 남저 모저도 베랑 엇어. 남저 모저 베랑 엇어근에 기자 모저, 난 모저 쓰는 거 못 봐서. 잇땅 나까오리[173] 저 일본서 잇다근에 어떵 뎅기당 주문헤 온 사람덜

[173] '나까오리'는 일본어 'なかおれ'에서 온 말로 중절모를 말한다.

나까오리엔 헌 그거 ᄒᆞ나썩 썽 뎅겻주, 모저.(남자 모자도 별로 없어. 남자 모자 별로 없어서 그저 모자, 난 모자 쓰는 거 못 봤어. 가끔 '나까오리' 저 일본서 있다가 어떻게 다니다가 주문해 온 사람들 '나까오리'라고 한 그거 하나씩 써서 다녔지, 모자.)

106038 @ 옛날에 여름에 쓰는 모자 패랭이?(옛날에 여름에 쓰는 모자 패랭이?)

106038 # 패랭이.(패랭이.)

106038 @ 여름엔 그자 패랭이.(여름엔 그저 패랭이.)

106038 # 여름엔 죽으나 사나 패랭이. 남저 어른덜도 보민 패랭이. 패랭이도 미처 그 사지 못허민 우리냥으로 그 밀찍헤근에 짱, 우리 밀찍헹 짜근에 이녁대로 짱 쓰곡.(여름엔 죽으나 사나 패랭이. 남자 어른들도 보면 패랭이. 패랭이도 미처 그 사지 못하면 우리대로 그 밀짚해서 짜서, 우리 밀짚해서 짜서 자기대로 짜서 쓰고.)

106039 @ 겨울에는.(겨울에는.)

106039 # 겨울엔이 무시거 쓸 거 엇어. 아무것도 우리도. 우리 두린 땐 멘 대멩이 겨울에도 살고 ᄒᆞ쏠 역아 가난에 미녕 수건 헤근에 얼민 영 헤근에 요디 ᄒᆞ쏠 졸라메는 거뿐이주.(겨울엔 무엇 쓸 거 없어. 아무것도 우리도. 우리 어린 땐 맨 머리 겨울에도 살고 조금 커 가니까 무명 수건 해서 추우면 이렇게 해서 요기 조금 졸라매는 거뿐이지.)

106039 @ 뭐 털실로 짜는 건 이제사 나중에사 나온 거?(뭐 털실로 짜는 건 이제야 나중에야 나온 거?)

106039 # 아이고 털실로 짜는 거 요새사 남주, 중간에도 엇어.(아이고 털실로 짜는 거 요새야 나고 있지, 중간에도 없어.)

106039 @ 가죽 같은 걸로 털로 헤근에.(가죽 같은 걸로 털로 해서.)

106039 # 가죽으로 뭘.(가죽으로 뭘.)

106039 @ 사냥꾼이나 이런 사람덜은.(사냥꾼이나 이런 사람들은.)

106039 # 사냥꾼헤도 가죽으로 무시거 헌 거, 저 노리 가죽 헤근에 영 벳경 마주 접은 거, 영 마주 접으민 이디 귀ᄀᆞ치 영 벌겨지고 요디만 영 마주쳥.(사냥꾼해도 가죽을 무엇 한 거, 저 노루 가죽 해서 이렇게 벗겨서 마주 접은 거, 이렇게 마주 접으면 여기 귀처럼 이렇게 벌려지고 요기만 이렇게 마주쳐서.)

106039 @ 거 무신거엔 골아?(그거 무엇이라고 말해?)

106039 # 가죽감태[174], 가죽감태 허멍.(가죽감태, 가죽감태 하면서.)

106039 @ 가죽감태.(가죽감태.)

106039 # 그 사냥 뎅기는 사름들 잇당 그거 헹 쓰는 하르방들 잇당 까끔 ᄒᆞ나씩 봐. 게난 그거 어떵 만드는 중은 몰른디. 영 접아신ᄀᆞ라 영만 접앙 쓴 건ᄀᆞ라 일로도 귀 영 등기곡 영 헤져. 영 쓴 거 보면. 영 헤진 거 써, 그 사냥꾼들 보면.(그 사냥 다니는 사람들 가끔 그거 해서 쓰는 할아버지들 가끔 가끔 하나씩 봐. 그러니까 그거 어떻게 만드는 줄 모르는데. 이렇게 접었는지 이렇게만 접어서 쓴 건지 이리로도 귀 이렇게 늘어뜨리고 이렇게 해. 이렇게 쓴 거 보면. 이렇게 된 거 써, 그 사냥꾼들 보면.)

174) '가죽감태'는 짐승의 가죽으로 만든 방한모다.

106042 @ 이딘 안 헷주마는 망건이영 탕건이영 이런 것도 이수게?(여긴 안 했지마는 망건이랑 탕건이랑 이런 것도 있잖습니까?)

106042 # 망건 탕건은 그거는 이젠 망건이엔 아녕 탕건입저주. 탕건엔, 망건이엔 말은 엇어.(망건 탕건은 그거는 이젠 망건이라고 않고 '탕건입저'이지. 탕건엔, 망건이라는 말은 없어.)

106042 @ 탕건입저?('탕건입저'?)

106042 # 입저허곡.(갓하고.)

106042 @ 입저허곡.(갓하고.)

106042 # 탕건이엔 허주, 경 망건이엔 헌 건 엇어.(탕건이라고 하지, 그렇게 망건이라고 한 건 없어.)

106042 @ 입저허곡 탕건허곡예.(갓하고 탕건하고요.)

106042 # 응, 그거라. 입저는 이디 동그락헌 거 잇잖여. 영 허곡 탕건이엔 헌 건 이 소곱에 쓰는 거. 그거 우리 친정에 엿날에 멧 년 전ᄁᆞ장도 그거 써. 절헐 때. 이 저 제사 때 절헐 때, 그거 써낫어. 게단 말젠 유건이라고 마주 접은 거 영 유건 ᄒᆞ나 썽 절허곡.(응, 그거야. 갓은 여기 동그란 거 있잖아. 이렇게 하고 탕건이라고 한 건 이 속에 쓰는 거. 그거 우리 친정에 옛날에 몇 년 전까지도 그거 써. 절할 때. 이 저 제사 때 절할 때, 그거 썼었어. 그랬다가 말짜는 유건이라고 마주 접은 거 이렇게 유건 하나 써서 절하고.)

106042 @ 이게 탕근?(이게 탕건?)

106042 # 응, 이건 탕근.(응, 이건 탕건.)

106042 @ 이거는?(이거는?)

106042 # 영 동그락헌 거 아, 요것이 탕근이고 요것은 입저. 나 안 봐난 거여, 이거. 영 전 돋은 것이.(이렇게 동그란 거 아, 요것이 탕건이고 요것은 갓. 나 안 봤던 거야, 이거. 이렇게 전 돋은 것이.)

106042 @ 이렇게 이디만 도령들 무사 영 쓰는 거 이수게?(이렇게 여기만 도령들 왜 쓰는 거 있잖습니까?)

106042 # 아, 그런 건 우리 이디 제주도 안엔 안 봐난. 이것만 봐서, 난 이것만. 이거허곡 전 돋앙 큰 거.(아, 그런 건 우리 여기 제주도 안에서는 안 봤었어. 이것만 봤어, 난 이것만.)

106042 @ 아, 총모자.(아, 총모자.)

106042 # 그거 두 개만 봣어. 그것만 봣주. 이런 건 안 봐나난 몰라.(그거 두 개만 봤어. 그것만 봤지. 이런 건 안 봐서 몰라.)

106042 @ 게믄 이건 무신거옌 ᄀᆞᆯ아.(그러면 이건 무엇이라고 말해?)

106042 # 입저.(갓.)

106042 @ 입저?(갓?)

106042 # 영 둥그락헌 건 탕건. 입저, 탕근만 봣주. 우린 그루후젠 우린 다른 건 안 봔.(이렇게 둥그런 건 탕건. 갓, 탕건만 봤지. 우리 그 후에 우린 다른 건 안 봤어.)

106042 @ 이거 잘 안 보이는데 이렇게 뭰 거, 패랭이추룩 이렇게 뭰 거 갓?(이거 잘 안 보이는데 이렇게 된 거, 패랭이처럼 이렇게 된 거 갓?)

106042 # 갓, 이거.(갓, 이거.)

106042 @ 갓?(갓?)

106042 # 이거.(이거.)

106042 @ 건 갓.(그건 갓.)

106042 # 갓이고.(갓이고.)

106042 @ 이것 탕근?(이것 탕건?)

106042 # 요건 탕근이고 입제엔 헌 건 영 이추룩 전 돋은 거고. 이디선 입저, 입저 헤낫어, 요건 탕근이고.(요건 탕건이고 갓이라고 한 건 이렇게 이렇게 전 돋은 거고. 여기선 갓, 갓 했었어, 요건 탕건이고.)

106042 @ 이런 게 입저?(이런 게 갓?)

106042 # 이딘 딱 두 가지만 헤낫주. 영 여라 가지.(여긴 딱 두 가지만 했었지. 이렇게 여러 가지.)

106042 @ 그다음 유건.(그다음 유건.)

106042 # 유건은 영 마주 접아진 거.(유건은 이렇게 마주 접은 거.)

106042 @ 두건추룩?(두건처럼?)

106042 # 응, 두건추룩 마주 접아진 거. 유건이엔 헤근에 멧 년 전ᄁᆞ장 우리 오빠네 산 때는 거 제ᄉᆞ 때.(응, 두건처럼 마주 접은 거. 유건이라고 해서 몇 년 전까지 우리 오빠네 살았을 때는 그거 제사 때.)

106042 @ 제 지낼 때 하는 거예?(제 지낼 때 하는 거요?)

106042 # 응, 거 써낫주마는 이젠 것도 어디사 가신디 그런 거 쓰지도 안허고.(응, 그거 썼지마는 이젠 그것도 어디야 갔는지 그런 거 쓰지도 않고.)

106044 @ 비 올 때 입는 거. 비 올 때 어디 드르에 쉐 보러 가는 사름덜 입는 거 잇어낫수게?(비 올 때 입는 거. 비 올 때 어디 들에 소 보러 가는 사람들 입는 거 있었잖습니까?)

106044 # 우장.(우장.)

106044 @ 우장.(우장.)

106044 # 저 새로 헹 짠 거이.(저 새로 해서 짠 거.)

106044 @ 응, 짠 거.(응, 짠 거.)

106044 # 그거벳긘 이디서 우장벳긘 무시거 난 거 엇다. 이전에 난 거는 그거라. 우리 어릴 때 난 건. 그루후제 시국이 바꽈져 가난 이젠 비옷이여, 뭐여 헷주. 엿날엔.(그거밖에는 여기서 우장밖에는 무엇 나온 거 없다. 이전에 나온 거는 그거야. 우리 어릴 때 나온 건. 그 후에 시국이 바뀌져 가니까 이젠 비옷이다, 뭐다 했지. 옛날엔.)

106044 @ 우장 입을 때 우에 무신거 씁니까?(우장 입을 때 위에 무엇 씁니까?)

106044 # 패랭이.(패랭이.)

106044 @ 패랭이 써? 삿갓 안 쓰고?(패랭이 써? 삿갓 안 쓰고?)

106044 # 삿갓 안 쓴다.(삿갓 안 쓴다.)

106044 @ 패랭이 써?(패랭이 써?)

106044 # 응, 삿갓이엔 헌 거 엿날에 보민 삿갓은 대로 짠 거라이. 대로 짠 거 큰 거 보민 막 잘 사는 사름덜이나 그런 거 ᄒᆞ나 여름에도 썽 뎅겻주. 소소히 그거 쓴 사름은 베랑 엇어.(응, 삿갓이라고 한 거 옛날에 보면 삿갓은 대로 짠 거야. 대로 짠 거 큰 거 보면 아주 잘 사는 사람들이나 그런 거 하나 여름에도 써서 다녔지. 소소히 그거 쓴 사람은 별로 없어.)

106044 @ 정당, 정당벌립?(댕댕이덩굴, '정당벌립'?)

106044 # 정당벌립[175]이엔 헌 거 패랭이. ᄒᆞ쏠 허민 정당벌립, 정당벌립.('정당벌립'이라고 한 거 패랭이. 조금 하면 '정당벌립', '정당벌립'.)

106044 @ 그건 밀낭으로 헌 거 아니주예?(그건 밀짚으로 한 거 아니지요?)

106044 # 몰라. 그런 말 들어나긴 들어나도 그런 걸 쓴 건 난 안 봣어.(몰라. 그런 말 들어보긴 들어봐도 그런 걸 쓴 건 난 안 봤어.)

106044 @ 쓴 건 안 봐봔?(쓴 건 안 봤었어?)

106044 # 정당벌립, 정당벌립 헤도 우린 그런 거 안 봐난. 쓴 것도 안 보고.('정당벌립', '정당벌립' 해도 우린 그런 거 안 봤었어. 쓴 것도 안 보고.)

106044 @ 쓴 것도 안 보곡?(쓴 것도 안 보고?)

106044 # 쓴 것도 안 보고. 만든 것도 안 보고. 정당벌립이엔 헤사 패랭이ᄀᆞ치 짠 거주, 무신.(쓴 것도 안 보고. 만든 것도 안 보고. '정당벌립'이라고 해야 패랭이처럼 짠 거지, 무슨.)

106044 @ 패랭이추룩 짠 건디 밀낭으로 헌 게 아니고예, 어디 산에 잇는 낭으로.(패랭이처럼 짠 건데 밀짚으로 한 게 아니고요, 어디 산에 있는 나무로.)

106044 # 줄로 만든 거.(줄로 만든 거.)

106044 @ 줄로 벋는 걸로.(줄로 벋는 걸로.)

106044 # 이런 거 우리 그런 건 안 봐난, 몰라. 정당벌립, 정당벌립 허여나도.(이런 거 우리 그런 건 안 봤었어, 몰라. '정당벌립', '정당벌립' 했어도.)

106044 @ 게난예.(그러니까요.)

7. 식생활

밥과 국

107001 @ 식생활, 밥하고 국헹 먹어난 거예. 옛날예, 이제사 말고 옛날 헤난 거라예. 밥의 종류, 밥은 무신 종류 무신 종류 밥이 이수과?(식생활, 밥하고 국해서 먹었던 거

175) '정당벌립'은 댕댕이덩굴로 엮어 만든 모자이다

요. 옛날요, 이제야 말고 옛날 했던 거예요. 밥의 종류, 밥은 무슨 종류 무슨 종류 밥이 있습니까?)

107001 # 옛날엔이, 여름 나민 보리밥, 겨울은 나민 그 나 한 번 골앗지이. 영, 조코고리 그 수랑수랑헌 거 영 나오는 그거, 조코고리이. 그것도 흐린 것가 잇고 모인 것가 잇어. 경허난 흐린 좁쏠이엔 허민 밥이 모인 좁쏠만 놩 헤. 겨울엔 그거 여름엔 보리밥. 경허민 부제칩 사람들은 보리밥이나 조팝이나 그리질 안허는디 이 이녁 토지가, 땅이 엇인 사람들은 밥이 그려. 그리민 톨도 비어다 놩 밥에, 톨밥도 헤 먹곡, 쑥도 헤다 놔근에 쑥에 메밀가루 놩 범벅. 그거, 그거 헤 먹곡. 경헤서 봄 나가면, 그거허고 국 끌려 먹나 허는 거는.(옛날엔이, 여름 나면 보리밥, 겨울은 나면 그 나 한 번 말했지. 이렇게, 조이삭 그 기름기름한 거 이렇게 나오는 그거, 조이삭. 그것도 차진 것이 있고 메진 것도 있어. 그러니까 차진 좁쌀이라고 하면 밥이 메진 좁쌀만 놔서 해. 겨울엔 그거 여름엔 보리밥. 그러면 부잣집 사람들은 보리밥이나 조밥이나 부족하지 않은데 이 자기 토지가, 땅이 없는 사람들은 밥이 부족해. 부족하면 톳도 베어다가 놔서 밥에, 톳밥도 해 먹고, 쑥도 해다 놔서 쑥에 메밀가루 놔서 범벅. 그거, 그거 해 먹고. 그렇게 해서 봄 나면, 그거하고 국 끓여 먹는다 하는 거는.)

107001 @ 그건 ᄒᆞ꼼 잇당. 할무니 아까 밥이 그려 헌 말은 무신 말?(그건 조금 이따가. 할머니 아까 밥이 '그려' 한 말은 무슨 말?)

107001 # 밥이 어렵다. 우리 굶으멍 살앗다.(밥이 어렵다. 우린 굶으면서 살았다.)

107001 @ 아, 그 말이 그린덴 헌 말? 밥이 그렵다?(아, 그 말이 '그린다'고 한 말? 밥이 '그렵다'?)

107001 # 응, 밥을 그렵다.(응, 밥을 '그렵다'.)

107001 @ 아, 밥이 그렵다?(아, 밥이 '그렵다'?)

107001 # 응, 배불게 못 먹으난, 밥을. 그려운 거지.(응, 배부르게 못 먹으니까, 밥을. '그려운' 거지.)

107001 @ 밥이 그렵덴 허는구나예.(밥이 '그렵'다고 하는군요.)

107001 # 넉넉하지 못허난, 밥이 그렵다 허는 거여. 배고프멍 사니까.(넉넉하지 못하니까, 밥이 '그렵다' 하는 거고. 배고프면서 사니까.)

107002 @ 게면, 밥허는 쌀 종류는? 게난 아까 보리쏠허고.(그러면 밥하는 쌀 종류는? 그러니까 아까 보리쌀하고.)

107002 # 좁쏠허고.(좁쌀하고.)

107002 @ 좁쏠허고.(좁쌀하고.)

107002 # 또 제사 때 헤 먹는 거 이제 산뒤쏠허고.(또 제사 때 해 먹는 거 이제 밭벼쌀하고.)

107002 @ 산뒤쏠허고.(밭벼쌀하고.)

107002 # 그게 대중이여.(그게 대중이야.)

107002 @ 게민 먼저 보리밥, 보리밥은 어떵헤근에 허는 거마씨? 그러면 먼저 보리밥, 보리밥은.(그러면 먼저 보리밥, 보리밥은 어떻게 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보

리밥, 보리밥은.)

107002 # 보리밥은 요번에도 골앗주마는이. 보리 비어당 장만혜여근에 뚜드렁 장만허잖아.(보리밥은 요번에도 말했지마는. 보리 베어다가 장만해서 두드려서 장만하잖아.)

107002 @ 예.(예.)

107002 # 경허민 그거 바싹 몰리면 그거 몰ᄀᆞ레 잇잖아, 이제 그거 알아질 거여. 몰ᄀᆞ레이. 그디 가근에 그거 물 버무렁 골아. 또시 막 ᄀᆞ레 둥글렴시민 그 헐문데기가 벗어이. 벗으민 그것 또 오랑 몰리왕 뚜시 두불 가근에 물 버무렁 또 두불 골아사 그 껍데기가 다 벗어이. 게민 바싹 몰리민, 그거 알 건디. 영 정ᄀᆞ레엔 헌 거. 영 둘르는 거.(그러면 그거 바싹 마르면 그거 연자매 있잖아, 이제 그거 알 수 있을 거야, 연자매. 거기 가서 그거 물 버무려서 갈아. 또 막 맷돌 굴리고 있으면 그 껍데기가 벗겨져. 벗겨지면 그것 또 와서 말리면서 다시 두벌 가서 물 버무려서 또 두벌 갈아야 그 껍데기가 다 벗겨져. 그러면 바싹 말리면, 그건 알 건데. 이렇게 풀맷돌이라고 한 거. 이렇게 두르는 거.)

107002 @ 겐디 밥은 허젠 허민 어떵허여?(그런데 밥은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

107002 # 또 벌러근에, 또 시쳐. 시져근에 밥헤영 부꺼가민 바싹 부끄민. 보리체가 박삭 나와. 경헤도 그걸 밥허민 먹어. 그자 경헹 밥헤 놓민 보리쏠 수정 세져. 밥이 이, 요새 쏠ᄀᆞ치 부뜨질 안허여. 지만썩 둥글어.(또 쪼개서, 또 씻어. 씻어서 밥해서 끓어가면 바싹 끓으면. 보리겨가 '박삭' 나와. 그래도 그걸 밥하면 먹어. 그저 그렇게 해서 놓으면 보리쌀 숫자 셀 수 있어. 밥이 이, 요새 쌀같이 붙지 않아. 자기만큼씩 뒹굴어.)

107003 @ 예, 보리밥은 허젠 허민 물 하영 들어?(예, 보리밥은 하려고 하면 물 많이 들어가?)

107003 # 응, 물 하영 들어. 물 하영 들어근에 체암이 솟듸 놩 바글바글 궤여근에 솟뚜께 푹 더껑 혼참 놩 혼 십분 이십분 놔둬사, ᄒᆞ쏠 물이 들어강 밥이 복삭헤여이. 게민 따시 알로 불 솜아근에 이제. 그걸 뿔라 물기 엇이 뿔라. 엿날 무쉐솟이난. 저런 솟이 아니고.(응, 물 많이 들어. 물 많이 들어서 처음에 솥에 놔서 바글바글 끓엿 솥뚜껑 푹 덮어서 한참 놔서 한 십분 이십분 놔둬야, 조금 물이 들어가서 밥이 '복삭'해. 그러면 다시 아래고 불 때서 이제. 그걸 잦혀서 물기 없이 잦혀. 옛날 무쇠솥이니까. 저런 솥이 아니고.)

107003 @ 예.(예.)

107003 # 엿날 무쉐솟 이 저, 거시기 보민 그 테레비 보민 가마솟 잇잖아. 그런 솟듸난.(옛날 무쇠솥 이 저, 거시기 보면 그 텔레비전 보면 가마솥 있잖아. 그런 솥에니까.)

107003 @ 예.(예.)

107003 # 밥 박삭 부끄민 불 탁 꺼근에 솟두께 폭 더껑 오래오래 놔두면. 쏠에 물이 들엉 다 피어나이. 게민 또 알로 불 솔아근에 과랑과랑 솔앙 오래오래 놔두민 밥이 더운 짐으로 밥이 폭허게 틈 자민. 밥이 복삭 허는 거라. ᄒᆞ쏠, 괄괄허지 안헹. 물기가 다 뿔아먹엉. 요새 쏠밥은 바글바글 궤민 톡허게 압력솟 잇주마는. 불 탁 껑 고만히 놧당.

시민 밥이 푸들푸들 뒈주마는 엿날엔 그거 아니. 가마솟듸 밥헤 놓민, 바글바글 궤민 불 껑 한참 놧다근에, 흔 이십분 놧다근에. 또 불 심앙, 것이 뿔르는 거라, 밥을. 뿔른다는 것은 물기 엇이 ᄇᆞ뜨는 거라. 물을 ᄇᆞ따부는 거라. 밥이 ᄒᆞ쏠 복삭하민 퍼놩 먹는 거. (밥 '박삭' 끓으면 불 탁 꺼서 솥뚜껑 폭 덮어서 오래오래 놔두면. 쌀에 물이 들어서 다 피어나. 그러면 또 아래로 불 때서 활활 때서 오래오래 놔두면 밥이 더운 김으로 밥이 폭하게 뜸 들이면. 밥이 '복삭' 하는 거야. 조금, 활활하지 않고. 물기를 다 빨아먹어서. 요새 쌀밥은 부글부글 끓으면 톡하게 압력솥 있지마는. 불 탁 꺼서 가만히 놨다가. 있으면 밥이 '푸들푸들' 되지마는 옛날엔 그거 아니. 가마솥에 밥해 놓으면, 부글부글 끓으면 불 꺼서 한참 놨다가, 한 이십분 놨다가. 또 불 때서, 그것이 잦히는 거야, 밥을. 잦힌다는 것은 물기 없이 밭는 거야. 물을 밭는 거야. 밥이 조금 '복삭'하면 퍼놔서 먹는 거.)

107004 @ 음, 예. 게민 반지기 밥이엔 헌 것은 무신거마씨?(음, 예. 그러면 반지기 밥이라고 한 것은 무엇이에요?)

107004 # 반지기는 보리쏠에 곤쏠 서끄는 거. 건 손님이나 온 때쯤. 대접하젠 하민 맨 보리밥만 허민 괄괄[176]하잖아. 게실게실[177]헌 게. 경허민 그 쏠을 서끄민. 밥이 푸들푸들[178]허주. 게민 손님 온 때. 그거, 그거 반지기.(반지기는 보리쌀에 흰쌀 섞는 거. 그건 손님이나 온 때쯤. 대접하려고 하면 맨 보리밥만 하면 '괄괄'하잖아. '게실게실'한 게. 그러면 그 쌀을 섞으면. 밥이 '푸들푸들'하지. 그러면 손님 온 때. 그거, 그거 반지기.)

107004 @ 반지기.(반지기.)

107004 # 응, 보리쏠에 곤쏠 서끈 거, 반지기.(응, 보리쌀에 흰쌀 섞은 거, 반지기.)

107004 @ 반씩 서끈 거 아니면 곤쏠 ᄒᆞ꼼만 놔도 반지기?(반씩 섞은 거 아니면 흰쌀 조금만 놔도 반지기?)

107004 # 응, 반지기.(응, 반지기.)

107004 @ 반반 안 헤도?(반반 안 해도?)

107004 # 응, 반반 아니 헤도, 그거 헤도. 육지 사름들은 저추룩 가마솟듸 엿날 보리밥허민 식식식식허멍 막 밥 남죽으로 젓어. 이레 영 데싸놩 식식. 또 요레 데쏴놩 식식허멍. 경허민 밥이 풀 나이, 육지 사름들이. 게민 밥이 푸들푸들하게 헹 먹는디.(응, 반반 안 해도, 그거 해도. 육지 사람들은 저렇게 가마솥에 옛날 보리밥하면 '식식식식'하면서 막 밥 죽젓개로 저어. 이리 이렇게 뒤집어놔서 '식식'. 또 요리 뒤집어 놔서 '식식'하면서. 그러면 밥이 풀 나, 육지 사람들이. 그러면 밥이 '푸들푸들'하게 해서 먹는데.)

107004 @ 아, 보리밥이라도?(아, 보리밥이라도?)

107004 # 응, 보리밥이라도. 막 영 헤영 대겨[179].(응, 보리밥이라도. 막 이렇게 해서 '대겨'.)

---

176) '괄괄'은 보리밥이 풀기가 없어서 한 방울씩 돌아다니는 모양이다.

177) '게실게실'은 풀기가 없어서 아주 메진 모양을 뜻한다.

178) '푸들푸들'은 밥이 차져서 끈기가 있는 모양이다.

179) '대기다'는 풀과 같이 묽은 물건을 무엇에 칠한다는 뜻인데 여기서는 보리쌀을 으깨어 풀기가 있게 만드는 것을 말한다.

107004 @ 아, 대겨.(아, ‘대겨’.)

107004 # 응, 남죽 요만헌 너븐 남죽으로. 이리 영 데싸놩 식식식식 허멍 막 우리도 웃어. 밥을 저렇게 안 대기면 못 먹느냐 허난 보리밥은 케실케실하지. 풀 안 부떠가지고. 게실게실허니까. 그 풀 나게 막 대긴 물에 육지 사름덜은. 식식허멍.(응, 죽젓개 요만큼한 넓은 죽젓개로. 이리 이렇게 뒤집어놔서 식식식식 하면서 막 우리도 웃어. 밥을 저렇게 안 ‘대기면’ 못 먹느냐 하니까 보리밥은 ‘케실케실’하지. 풀 안 붙어가지고. ‘게실게실’하니까. 그 풀 나게 막 ‘대긴’ 물에 육지 사람들은. ‘식식’하면서.)

107004 @ 호흐흐흐. 아.(흐흐흐흐. 아.)

107004 # 막 대겨. 경허민 밥이 풀 낭 푸득푸득허주게. 경허민 요새난 거주. 육지 사름들도 장남밥[180]이라고이 농촌 사름들 밥 먹는 건이, 사발이 이만큼 움팍 커.(막 ‘대겨’. 그러면 밥이 풀 나서 ‘푸득푸득’하지. 그러면 요새니까 그거지. 육지 사람들도 ‘장남밥’이라고 농촌의 사람들 밥 먹는 건, 사발이 이만큼 움푹 커.)

107004 @ 예.(예.)

107004 # 경 허민 그 보리밥을 무룩허게 거려. 경헤도 남저들 그 노동일 헤나민 배고파. 그거 먹어도. 이 보리밥은 기운이 엇어. 먹으민 금방 풀어져 비어. 경허는 거라. 이젠 우리도이 이젠 쌀만 놩 밥헤 먹잖아. 게민 엿날엔 공기로 하나 수뿍 먹주마는. 반 공기 먹어, 이제. 반 공기 먹어도 배가 붕긋허곡. 배고파 뷔질 안허여. 이 쏠은 진기가 잇어. 기운이 잇어, 밥에. 엿날엔 케실케실허난 그냥 밥 먹으민 지르륵지르륵[181] 경헷주.(그렇게 하면 그 보리밥을 가득 떠. 그래도 남자들 그 노동일 하고나면 배고파. 그거 먹어도. 이 보리밥은 기운이 없어. 먹으면 금방 풀어져 버려. 그러는 거야. 이젠 우리도 이젠 쌀만 놔서 밥해 먹잖아. 그러면 옛날엔 공기로 하나 가득 먹지마는. 반 공기 먹어, 이제. 반 공기 먹어도 배가 봉긋하고. 배고파 보이질 않아. 이 쌀은 진기가 있어. 기운이 있어, 밥에. 옛날엔 ‘케실케실’하니까 그냥 밥 먹으면 ‘지르륵 지르륵’ 그랬지.)

107004 @ 예.(예.)

107005 @ 그민 흰밥은. 곤밥예, 곤밥은 언제 먹는 거?(그러면 흰밥은. 흰밥요, 흰밥은 언제 먹는 거?)

107005 # 엿날은 곤밥, 곤밥 허멍 울지 말라, 곤밥헹 낼모리 저녁은 제ᄉᆞ 돌아와가믄 우리 곤밥헹 거 아니냐. 제ᄉᆞ 때나, 멩질 때나 그거. 경허다근에 마지 못허영 웨방 손님 온 때나. 그런 땐이 헐 수 엇이 그 쏠 놧다근에 맨 보리밥은 허믄 잘잘잘잘 허잖아.(옛날은 흰밥, 흰밥 하면서 울지 마라, 곤밥해서 내일모래 저녁은 제사 돌아와가면 우리 흰밥해서 그거 아니냐. 제사 때나, 며절 때나 그거. 그러다가 마지 못해서 외방 손님 온 때나. 그런 땐 할 수 없이 그 쌀 놨다가 맨 보리밥은 하면 잘잘잘잘 하잖아.)

107005 @ 예.(예.)

107005 # 게민 그거 서꺼근에 그거 손님 대접허는 거라, 엿날엔. 잘 알아 들엄서?(그러면 그거 섞어서 그거 손님 대접하는 거야, 옛날엔. 잘 알아듣고 있어?)

---

180) ‘장남밥’은 머슴이나 일꾼을 뜻하는 ‘장남’에 ‘밥’이 결합하여 만들어진 말로 장남이 먹을 밥이라는 뜻이다.
181) ‘지르륵지르륵’은 보리쌀이 소화되지 않고 그냥 미끄러져 내려가는 모양이다.

107005 @ 예, 곤밥은 게난 이딘 나룩쏠 엇이난, 산뒤쏠로 하는 거지예?(예, 쌀밥은 그러니까 여긴 볍쌀 없으니까, 밭벼쌀로 하는 거지요?)

107005 # 응, 산뒤쏠 헤영, 산뒤쏠 헤 놓으믄 겁데기만 까믄 벌겅허여. 이 산뒤 쏠이 불근 겁데기가 이성, 그걸 베끼젠 허믄 세불, 네불을 골아사 그거 불근 겁데기 베껴. 막 흰쏠 내어먹기가 힘들어 그게, 경허난.(응, 밭벼쌀 해서, 밭벼쌀 해 놓으면 껍데기만 까면 벌개. 이 밭벼쌀이 붉은 껍데기가 있어서, 그걸 벗기려고 하면 세벌, 네벌을 갈아야 그거 붉은 껍데기 벗겨. 막 흰쌀 내어먹기가 힘들어 그게, 그러니까.)

107005 @ 밥허는 건 똑ᄀᆞ타? 보리밥이영?(밥하는 건 똑같아? 보리밥이랑?)

107005 # 응, 꼭ᄀᆞ트는디, 지금 쏠만이 진기는 엇어. 지금 쏠은 밥허믄 포돌포돌 허는디. 포돌포돌헌 기운은 엇어.(응, 꼭같은데, 지금 쌀만큼 진기는 없어. 지금 쌀은 밥하면 '포돌포돌'하는데. '포돌포돌'한 기운은 없어.)

107005 @ 아, 산뒤쏠이?(아, 밭벼쌀이?)

107005 # 케수룩헌 게 밥이 게삭허여.('케수룩'한 게 밥이 '게삭'해.)

107006 @ 조팝은?(조밥은?)

107006 # 조팝은 뭐 진기 엇이 케삭허고. 케실케실허여. 경 헤도 케실케실허믄 고구마 잇잖아이.(조밥은 뭐 진기 없이 '케삭'하고. '케실케실'해. 그래도 '케실케실'하면 고구마 있잖아.)

107006 @ 예, 감저.(예, 감자.)

107006 # 응, 그거 놔근에 밥허영 탁탁 밥자로 영 풀르믄 그것이 밥이 ᄒᆞ쏠 포돌포돌허여. 고구마 놩 탁탁 풀르면.(응, 그거 놔서 밥해서 탁탁 밥자로 이렇게 풀면서 그것이 밥이 조금 '포돌포돌'해. 고구마 놔서 탁탁 풀면.)

107006 @ 어떵 풀르는 거꽝? 그거는.(어떻게 푸는 겁니까? 그거는.)

107006 # 감저 우리 탁탁 감자 벙뎅일 풀르는 거. 탁탁허게시리 숫고락으로 영영 젓어가믄.(고구마 우리 탁탁 고구마 덩어릴 푸는 거. 탁탁하게끔 숟가락으로 이렇게 이렇게 저어가면.)

107006 @ 응.(응.)

107006 # 경 허믄 풀어져. 경허믄 그 쏠에 서꺼지믄 그땐 밥이 ᄒᆞ쏠 포돌포돌 허여. 고구마 놩 헤 놓으믄.(그러면 풀어져. 그러면 그 쌀에 섞어지면 그땐 밥이 조금 '포돌포돌'해. 고구마 놔서 해 놓으면.)

107006 @ 아, 응. 게난 보리쏠 엇일 땐?(아, 응. 그러니까 보리쌀 없을 땐?)

107006 # 좁쏠만.(좁쌀만.)

107006 @ 좁쏠만 헹 조팝. 예.(좁쌀만 해서 조밥. 예.)

107006 # 여름엔 보리밥만.(여름엔 보리밥만.)

107006 @ 여름엔 보리밥만예.(여름엔 보리밥만요.)

107006 # 응.(응.)

107007 @ 풋도 놔근에 밥허지예.(팥도 놔서 밥하지요?)

107007 # 아, 풋게.(아, 팥요.)

107007 @ 어떵 할 때 픗 놩 밥헙니까?(어떻게 할 때 팥 놔서 밥합니까?)

107007 # 픗 놩 할 때 우리 일허젠 허면, 픗에 보리쏠에 놩 숢앙 놧다근에, 산뒤 쏠 그걸 조금 서꺼. 놉들 빌엉 일허젠 허면. 우리 먹는 거는 보리밥 케실케실헌 거 먹주마는. 놉들은 빌엉 일허젠 허믄 그 밥을 못 내노난 그 픗에 보리쏠에 숢앗다근에, 그 산뒤 쏠 그거 곤쏠, 곤쏠 허멍 그걸 조금 서꺼.(팥 놔서 할 때 우리 일하려고 하면, 팥에 보리쌀에 놔서 삶아서 놨다가, 밭벼쌀 그걸 조금 섞어. 놉들 빌어서 일하려고 하면. 우리 먹는 거는 보리밥 '케실케실'한 거 먹지마는. 놉들은 빌어서 일하려고 하면 그 밥을 못 내놓으니까 그 팥에 보리쌀에 삶았다가, 그 밭벼쌀 그거 흰쌀, 흰쌀 하면서 그걸 조금 섞어.)

107007 @ 음.(음.)

107007 # 게민 밥에 진기가 잇어. 포돌포돌헌 게. 게민 놉 빌엉 일헐 때. 경 아녀민 큰일, 잔치 때, 그런 때. 그런 때 서꺼 먹는 거, 픗은.(그러면 밥에 진기가 있어. '포돌포돌'한 게. 그러면 놉 빌어서 일할 때. 그렇게 안하면 큰일, 잔치 때, 그런 때. 그런 때 섞어 먹는 거, 팥은.)

107008 @ 피밥은? 피쏠로도 밥헹 먹어?(피밥은? 피쌀로도 밥해서 먹어?)

107008 # 응, 피쏠도 허민 똑 좁쏠 닮아이. 밥맛은 복삭헌 게 밥맛은 잇어, 그것이. 쏠 내 먹기가 힘들어, 그거.(응, 피쌀도 하면 꼭 좁쌀 같아. 밥맛은 '복삭'한 게 밥맛은 있어, 그것이. 쌀 내어 먹기가 힘들어, 그거.)

107008 @ 산뒤보다 더 힘들어?(밭벼보다 더 힘들어?)

107008 # 힘들어. 다섯불이나 쪔서사 그게 쏠이 나와. 다섯불이나 골아야.(힘들어. 다섯벌이나 찧어야 그게 쌀이 나와. 다섯벌이나 갈아야.)

107008 @ 응.(응.)

107008 # 겐디 메밀쏠에 서껑 밥허민 그건 진짜 맛이 잇어, 그거는.(그런데 메밀쌀에 섞어서 밥하면 그건 진짜 맛이 있어, 그거는.)

107008 @ 이건 메밀쏠허고 서꺼근에 밥허는 거?(이건 메밀쌀하고 섞어서 밥하는 거?)

107008 # 폭삭하면서도 초근초근초근 밥을 기자 배 엇엉 못 먹어. 이건 배불러도 막 먹고 싶은 거라. 밥맛이 잇어.('폭삭'하면서도 '초근초근초근' 밥을 그저 배 없어서 못 먹어. 이건 배불러도 막 먹고 싶은 거야. 밥맛이 있어.)

107009 @ 아, 기마씨. 감저밥.(아, 그래요. 고구마밥.)

107009 # 감저밥이엔 헌 건. 우리 그자 좁쏠에 감저 놩 허민 그거 감저밥이라 허는 거주, 또로 무신 감저밥이 또로 엇어. 좁쏠에 그자 고구마 그거 썰어 놓으민 감저밥 감저밥 허는 거.(고구마밥이라고 한 건. 우리 그저 좁쌀에 고구마 놔서 하면 그거 고구마밥이라 하는 거지, 또 무슨 고구마밥이 또 없어. 좁쌀에 그저 고구마 그거 썰어 놓으면 고구마밥, 고구마밥 하는 거.)

107010 @ 무도 밥에 놩 먹어낫수과? 놈삐?(무도 밥에 놔서 먹었었습니까? 무?)

107010 # 몰라. 무는 우린 그런 거는 밥에 안 놔.(몰라. 무는 우린 그런 거는 밥에

안 놔.)

107010 @ 안 먹어난예.(안 먹었었어요.)

107011 @ 톨은?(톳은?)

107011 # 톨은 밥을 헹 먹어.(톳은 밭ㄹ 해서 먹어.)

107011 @ 건 어떵 허는 거꽈?(그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107011 # 톨 지금도 혼번에 보난 토수토수 육지 사름은 토수엔 ᄀᆞᆯ아. 우리는 톨이엔 ᄀᆞᆯ아도이, 요번에도 테레비에 나오는 거 보난 토수밥 맛잇어요 허멍 헌디, 쏠에 서꺼근에 고치 놩 밥허여.(톳 지금도 한번에 보니까 '토수토수' 육지 사람은 '토수'라고 말해. 우리는 '톨'이라고 말해도, 요번에도 텔레비전에 나오는 거 보니까 '토수'밥 맛웠어요 하면서 하는데, 쌀에 섞어서 고추 놔서 밥해.)

107011 @ 아, 처음부터?(아, 처음부터?)

107011 # 응, 좀질게 썰어근에 쏠에 흔듸 놩 밥헤근에, 밥 틈 자민 삭삭 서꺼근에 육지 사름들은 고치장 놩 밥 박박 비벼 먹잖아, 그거라.(응, 자잘하게 썰어서 쌀에 함께 놔서 밥해서, 밥 뜸 들면 삭삭 섞어서 육지 사람들은 고추장 놔서 밥 박박 비벼 먹잖아, 그거야.)

107011 @ 옛날은 어떵 헤낫수과? 게믄?(옛날은 어떻게 했었습니까? 그러면?)

107011 # 엿날 이디서는 이디서도 비벼먹는 사람은 밥 비벼 먹어, 뭰장 놩.(옛날 여기서는 여기서도 비벼먹는 사람은 밥 비벼 먹어, 된장 놔서.)

107011 @ 고추장 아니고?(고추장 아니고?)

107011 # 고치장이 어디 고치장이 잇어? 뭰장 놩 그자 비벼 먹엇지. 거 비벼먹는 거. 또 경 안허민 그냥 배고프난 헐 수 엇이 톨에 요샌 헤영헌 저 나룩쏠 놩 헤 먹주마는 엿날엔 좁쏠에 그 톨 놩 밥허민 사락사락헤여이. 경헤도 죽지 말젠 그거 먹는 거 엿날엔. 배고팡 죽지 말젠.(고추장이 어디 고추장이 있어? 된장 놔서 그저 비벼 먹었지. 거 비벼 먹는 거. 또 그렇게 안하면 그냥 배고프니까 할 수 없이 톳에 요샌 하얀 저 볍쌀 놔서 해 먹었지마는 옛날엔 좁쌀에 그 톳 놔서 밥하면 사락사락해. 그래도 죽지 않으려고 그거 먹는 거 옛날엔. 배고파서 죽지 않으려고.)

107011 @ 톨은 무사 놓는 거?(톳은 왜 놓는 거?)

107011 # 톨? 굶어가난 그걸 밥 대신 먹는 거. 굶엉 죽지 말젠.(톳? 굶어가니까 그걸 밥 대신 먹는 거. 굶어서 죽지 않으려고.)

107011 @ 거난 밥에, 밥 양을 늘릴려고?(그러니까 밥에, 밥 양을 늘리려고?)

107011 # 응, 늘릴려고. 밥을, 쏠이, 쏠만, 좁쏠이고, 보리쏠이고 흔듸 놩 먹을 거민 흔듸 놩 밥을 허면 다섯 식구가 밥을 다섯 사발을 거려야 뭴 건디, 흔 공기 넣으면 밥 다섯 사발이 아니면 톨 서끄민 밥이 하거든. 여러 사름 먹젠 허는 거, 배불게 먹젠.(응, 늘리려고. 밥을, 쌀이, 쌀만, 좁쌀이고, 보리쌀이고 함께 놔서 먹을 거면 함께 놔서 밥을 하면 다섯 식구가 밥을 다섯 사발을 떠야 될 건데, 한 공기 넣으면 밥 다섯 사발이 아니면 톳 섞으면 밥이 많거든. 여러 사람 먹으려고 하는 거, 배부르게 먹으려고.)

107011 @ 게난, 톨은 원래 톨밥은 좁쏠이영 서끄는 거? 보리쏠이영 서끄는 거 아니

고?(그러니까, 톳은 원래 톳밥은 좁쌀이랑 섞는 거? 보리쌀이랑 섞는 거 아니고?)

107011 # 보리쏠로도 서껑 먹고, 좁쏠로도 서끄는 거 경 허는 거.(보리쌀로도 섞어서 먹고, 좁쌀로도 섞는 거 그렇게 하는 거.)

107011 @ 아.(아.)

107011 # 엿날 그 굶을 때야.(옛날 그 굶을 때야.)

107012 @ 거난예, 패밥은 무신거꽈? 패.(그러니까요, 패밥은 무엇입니까? 패.)

107012 # 패는 밥 안헹 먹어봔.(패는 밥 안해서 먹어봤어.)

107012 @ 아, 패는 안헤봔. 음.(아, 패는 안 해봤어. 음.)

107012 # 패는 우리가 뭇 숢아 먹을 때.(패는 우리가 무릇 삶아 먹을 때.)

107012 @ 예, 그 뭇 숢아 먹을 때.(예, 그 무릇 삶아서 먹을 때.)

107012 # 뭇 숢아 먹을 때 그 뭇에 놓으민 뭇이 체암 숢앙 물 바싹 부끌 때는 막 독헹 야가지 아팡 못 먹어이. 게민 초벌 물 막 부꽈. 알로 불 막 때엉 물 그 숢은 거는 물 막 부꽈비동 그 물 뚤라동 또시 새 물 놩 또 숢아. 세 번차 물 골아놔야 제 맛이 그때사 나오랑 먹는 거. 그거 그 독헌 물 제허렌 그거 놓는 거.(무릇 삶아서 먹을 때 그 무릇에 놓으면 무릇이 처음 삶아서 물 바싹 끓을 때는 아주 독해서 목 아파서 못 먹어. 그러면 초벌 물 막 끓어. 아래로 불 막 때어서 물 그 삶은 거는 물 막 끓어 버리고 그 물 따라두고 또 새 물 놩 또 삶아. 세 번째 물 갈아놔야 제 맛이 그때야 나와서 먹는 거. 그거 그 독한 물 제하라고 그거 놓는 거.)

107012 @ 거난 뭇을 경 오래 숢아야 뒈는 거?(그러니까 무릇을 그렇게 오래 삶아야 되는 거?)

107012 # 뭇은 뭇을 세 번을 골아놔야 뒈어.(무릇은 무릇은 세 번을 갈아와야 돼.)

107012 @ 아, 세 번을, 경헹 이거 세 번 숢아놩 패 놩 숢앙 ᄀᆞ치 밥헹 먹는 거?(아, 세 번을, 그래서 이거 세 번 삶아놔서 패 놔서 삶아서 같이 밥해서 먹는 거?)

107012 # 밥헹 먹는 게 아니고, 그거는 저 보릿개역 헤근에 그냥 영 무쳐 먹는 거.(밥해서 먹는 게 아니고, 그거는 저 보리 미숫가루 해서 그냥 무쳐서 먹는 거.)

107012 @ 아, 이거 그믄 아까 뭇 세 번 숢앙, 그다음에 패 놓곡.(아, 이거 그러면 아까 무릇 세 번 삶아서, 그다음에 패 놓고.)

107012 # 패 놓곡 헹 숢앙, 패는 패대로 그냥 먹는디, 그 뭇만 이제 보릿개역에 막 버무령 먹는 거.(패 놓고 해서 삶아서, 패는 패대로 그냥 먹는데, 그 무릇만 이제 보리 미숫가루에 막 버무려서 먹는 거.)

107012 @ 아, 패는 ᄀᆞ치 먹는 거 아니고?(아, 패는 같이 먹는 거 아니고?)

107012 # 아니.(아니.)

107012 @ 그럼 패 따로?(그럼 패 따로?)

107012 # 응, 팬 그 뭇에 놩 뭇 물 들민 그땐 세 번차 골민 패가 막 맛잇어. 둘 헌게.(응, 팬 그 무릇에 놔서 무릇 물 들면 그땐 세 번째 갈면 패가 아주 맛있어. 달콤한게.)

107012 @ 뭇이영 ᄀᆞ치 숢아야 맛잇어?(무릇이랑 같이 삶아야 맛있어?)

107012 # 응, 경 헤사 북삭헌 게 맛잇주. 그냥 솖은 건 맛도 엇고, 먹지도 못허곡게.(응, 그래야 폭신한 게 맛있지. 그냥 삶은 건 맛도 없고, 먹지도 못하고.)

107012 @ 그럼 경 헤놩 패는 패만 뜨로 먹곡, 뭇은 보릿개역 서껑 먹고.(그럼 그렇게 해놔서 패는 패만 따로 먹고, 무릇은 보리 미숫가루 섞어서 먹고.)

107012 # 그거 엿날 아무것도 엇인 때, 어려운 때, 죽지 말젠 그거 먹은 거. 거 죽지 말젠.(그거 옛날 아무것도 없을 때, 어려운 때, 죽지 않으려고 그거 먹은 거. 그거 죽지 않으려고.)

107012 @ 게난예.(그러니까요.)

107012 # 게난 우리 부모들 자식들 나근에 굶지지 말젠 그거 헨 멕이는 거, 아기들 죽이진 말젠.(그러니까 우리 부모들 자식들 낳아서 굶기지 않으려고 그거 해서 먹이는 거, 아이들 죽이지 않으려고.)

107012 @ 응, 예.(응, 예.)

107012 # 굶엉 죽엿젠 말 듣지 말젠. 그거 멕인 거.(굶어서 죽엿다고 말 듣지 않으려고. 그거 먹인 거.)

107013 @ 이번엔 국 헐 건디예, 국은 무신 국, 무신 국 엿날에 잇어나수과?(이번엔 국 할 건데요, 국은 무슨 국, 무슨 국 옛날에 있었습니까?)

107013 # 엿날엔 그저, 무수 철 나민 무수국, 배추 철이민 배추국. 배추도 솖앙 끌리지 아녕 그자 뒌장 놩 물 팔팔 끌려가민 배추 시청, 박박 무지려 놩 그냥 끌령 먹어, 그냥. 육지 사름들은 솖앙 또 뒌장 놓고 막 문데경 국 끌리잖아. 경 안허여. 그자 뒌장 놩 바락하게 궤민 ᄂᆞ물 박박 영 무질여 놩 ᄂᆞ물 익으면 그거 거려 놩 먹어.(옛날엔 그저, 무 철 나면 뭇국, 배추 철이면 배추국. 배추도 삶아서 끓이지 않고 그저 된장 놔서 물 팔팔 끓어가면 배추 씻어서, 박박 무질러 놔서 그냥 끓여서 먹어, 그냥. 육지 사람들은 삶아서 또 된장 놓고 막 문대서 국 끓이잖아. 그렇게 안 해. 그저 된장 놔서 '바락'하게 끓으면 나물 박박 이렇게 무질러 놔서 나물 익으면 그거 떠 놔서 먹어.)

107014 @ 그게 ᄂᆞ물국예.(그게 나물국요.)

107014 # 그게 ᄂᆞ물쿡이야.(그게 나물국이야.)

107014 @ 뒌장은 찬물에 처음부터 풀엉예?(된장은 찬물에 처음부터 풀어서요?)

107014 # 응, 풀어 놓곡. 그게 ᄂᆞ물쿡이라 그게 ᄂᆞ물쿡.(응, 풀어 놓고. 그게 나물국이야 그게 나물국.)

107015 @ 콩ᄂᆞ물로도 국 끌령 먹어낫수과?(콩나물로도 국 끓여서 먹었었습니까?)

107015 # 콩ᄂᆞ물도 그저 콩ᄂᆞ물쿡, 콩ᄂᆞ물쿡 허멍 그건 뒌장 안 놩 그자 간장 ᄀᆞ튼 거 그자 놔근에 끌리당, 그 콩ᄂᆞ물도, 콩ᄂᆞ물쿡이 베랑 끌려 먹지 아녀. 그자 솖아근에 무쳥 그자 숭키로 그냥 접아먹으민 접아먹주, 국 끌령은 베랑 안 먹어봇어, 이디서.(콩나물도 그저 콩나물국, 콩나물국 하면서 그건 된장 안 놔서 그저 간장 같은 거 그저 놔서 끓이다가, 그 콩나물도, 콩나물국이 별로 끓여 먹지 않아. 그저 삶아서 무쳐서 그저 푸성귀로 그냥 집어먹으면 집어먹지, 국 끓여서 별로 안 먹어 봤어, 여기서.)

107015 @ 콩ᄂᆞ물은 콩ᄂᆞ물이엔 ᄀᆞᆯ아? 엿날엔 무신거엔 ᄀᆞᆯ아낫어?(콩나물은 콩나물

이라고 말해? 옛날엔 무엇이라고 말했었어?)

107015 # 콩지름.('콩지름'.)

107015 @ 콩지름 예, 응.('콩지름'요, 응.)

107015 # 제사 때 돌아, 아이고 콩지름 놔사 먹컬. 경허여. 콩ᄂᆞ물 놔사 한 말은 이건 중간으로 난 말. 그 전인 콩지름.(제사 때 돌아, 아이고 콩나물 놔야 먹을걸. 그렇게 해. 콩나물 놔야 한 말은 이건 중간으로 난 말. 그 전엔 '콩지름'.)

107015 @ 이제사 난 말예.(이제야 난 말요.)

107015 # 아이구, 아무 때 제사헤 먹젠 허민 이제 며틀 남으난 콩지름 놔사 그때에 키와 먹을걸, 경 허주. 게민 고사리에, 그것에 채소 헹 먹는 거. 제사 때 이 방상들 오민 그자. 채소 그거.(아이구, 아무 때 제사해 먹으려고 하면 이제 며칠 남으니까 콩나물 놔야 그때 키워 먹을걸, 그렇게 하지. 그러면 고사리에, 그것에 채소 해서 먹는 거. 제사 때 이 친척들 오면 그저. 채소 그거.)

107017 @ 게민 이제 콩국, 콩국은 어떻게 끌립니까? 나 그거 못 끌령 맨날 갈갈헴서.(그러면 이제 콩국, 콩국은 어떻게 끓입니까? 나 그거 못 끓여서 맨날 '갈갈'해.)

107017 # 콩국은이, 콩ᄀᆞ루 물에 카.(콩국은, 콩가루 물에 타.)

107017 @ 콩ᄀᆞ룰 물에 카?(콩가루를 물에 타?)

107017 # 언물에 카근에, 물 팔팔 끌릴 때 소로록 허게 비와이. 비왕 확확 젓어불민 콩국 안 뒈어. 가르륵 헤여 비어.(찬물에 타서, 물 팔팔 끌을 때 소르르 하게 부어. 부어서 확확 저어버리면 콩국 안 돼. '가르륵' 해 버려.)

107017 @ 응.(응.)

107017 # 게민, 불 놎인 불 놔근에 그 우트레 이제 소금 솔솔 쪼끔쪼끔 뿌리멍 간 맞촤가멍 부그락하게 궤듯 젓질 말아. 젓지 말앙 부끔직허건 불 ᄒᆞ쏠 놎추아 불곡, 경헹 우싹허게 궤거들라근에, 폭 솟뚜게 더껑 놔두면, 놧다근에 쪼꼼 잇당 틈 자건 그때 영 젓으민 콩국이 투박투박투박 헤여이 그땐. 두부국 닮아. 두부 놓앙 끌린 거 닮아.(그러면, 불 낮은 불 놔서 그 위에 이제 소금 솔솔 조금조금 뿌리면서 간 맞춰가면서 '부그락'하게 끓듯 젓지 마라. 젓지 말고 끓을 듯하면 불 조금 낮춰 버리고, 그래서 '우싹'하게 끓거든, 폭 솥뚜껑 덮어서 놔두면, 놨다가 조금 있다가 뜸들이면 그때 이렇게 저으면 콩국이 '투박투박투박' 해 그땐. 두부국 같아. 두부 놔서 끓인 거 같아.)

107017 @ 응.(응.)

107017 # 그추룩 허주 콩 ᄀᆞᆯ앙, 물 캉 막 영 젓어불민.(그렇게 하지, 콩 갈아서, 물 타서 막 이렇게 저어버리면.)

107017 @ 맛엇어, 비려.(맛없어, 비려.)

107017 # 응, 그자 가르륵 헤여.(응, 그저 '가르륵' 해.)

107017 @ 거기 무시거 안 놔? 놈삐나, 무수나?(거기 무엇 안 놔? 무나, 무나?)

107017 # 아, 무순 놔.(아, 무는 놔.)

107017 @ 아, 무수나 ᄂᆞ물?(아, 무나 나물?)

107017 # 배추 놔도 좋고, 무수 놔도 좋고여, 이건.(배추 놔도 좋고, 무 놔도 좋고야,

이건.)

107017 @ 그거 언제 놔? ᄂᆞ물이나 그건.(그건 언제 놔? 나물이나 그건.)

107017 # ᄂᆞ물 먼저 놔놩, 그 우트레 비와 놔근에 혼 번 처암이 놀 때랑 휘허게 혼 번 젓어. 젓어놩, ᄀᆞ만히 놓으민 콩이 영 북삭하게 올라와이.(나물 먼저 놓고 나서, 그 위에 부어 놔서 한 번, 처음에 놓을 때랑 휘하게 한 번, 저어. 저어놔서, 가만히 놓으면 콩이 이렇게 '북삭'하게 올라와.)

107017 @ 응.(응.)

107017 # 올라오는 거 자꾸 젓어불민 가르릭 헤근에 영 콩국 닮지 안허여. 기자 우트레 저 간장이든 게난 아씩 곤 맞춰 이 물을 곤 맞추지 말앗당.(올라오는 거 자꾸 저어 버리면 '가르릭'해서 이렇게 콩국 같지 않아. 그저 위에 저 간장이든 그러니까 살짝 간 맞춰서 이 물을 간 맞추지 않았다가.)

107017 @ 예.(예.)

107017 # 그 콩국 비와 논 후제랑 간장이나 소금이나 북삭하게 부꺼 불어 가건 간장이라도 숫고락으로 영 거리멍 솔솔 우트레 쪼끔 그 곤에 맞을 만이만 헷다근에 경 헷다근에, 솟뚜게 푹 더껑 ᄒᆞ쏠 잇다근에 솟뚜게 열어동 영 젓으민 투북투북투북 허여. 그땐 두부국 닮아.(그 콩국 부어 놓은 후에랑 간장이나 소금이나 '북삭'하게 끓어 버려 가면 간장이라도 숟가락으로 이렇게 뜨면서 살살 위에 조금 그 간에 맞을 만큼만 했다가 그렇게 했다가, 솥뚜껑 푹 덮어서 조금 있다가 솥뚜껑 열어두고 이렇게 저으면 '투북투북 투북' 해. 그땐 두부국 같아.)

107017 @ 예.(예.)

107017 # 경허는 거지이, 이거 비와 놩 막 젓으카부덴? 이디 사름들도 요새 엿날 어른들도 헐 줄 몰르켜 허멍 막 젓어불민 가르릭허여. 그럼 콩국 닮질 안허여, 게난.(그렇게 하는 거지, 이거 부어 놔서 막 저을까봐? 여기 사람들도 요새 옛날 어른들도 할 줄 모르겠다 하면서 막 저어버리면 '가르릭'해. 그럼 콩국 같지 않아, 그러니까.)

107017 @ 맞아.(맞아.)

107017 # 것도 영 젓어불민 갈갈허여.(그것도 이렇게 저어버리면 '갈갈'해.)

107017 @ 그럼 한 번도 젓지 말아야 허여?(그럼 한 번도 젓지 말아야 해?)

107017 # 젓지 말앙 그자 북삭하게 올라오랑 부글부글 그 궤어가민 알로 물 궤어가민 북삭하게 올라와이.(젓지 말고 그저 '북삭'하게 올라와서 부글부글 그 끓어가면 아래로 물 끓어가면 '북삭'하게 올라와.)

107017 @ 예.(예.)

107017 # 게난 그거 부끄지 못하게, 이놈으 거 쫀물은 가민 와싹 부끄지 안허메.(그러니까 그거 끓지 않게, 이놈의 거 짠물은 가면 와싹 끓지 않아.)

107017 @ 아.(아.)

107017 # 게난 간장이든 소금이든 그자 우트레 쪼끔쪼끔 뿌리멍 알로 놎은 불로 쪼끔 솖다근에, 곤 맞을 만이 간장이든 소금이든 놔지건 불 톡 꺼둬근에 폭 뚜께 더껑 놧당 ᄒᆞ쏠 잇당 영 젓으민 그때 투박투박허여, 그때.(그러니까 간장이든 소금이든 그저 위

에 조금조금 뿌리면서 아래로 낮은 불로 조금 삶다가, 간 맞을 만큼 간장이든 소금이든 놓으면 불 톡 꺼두고 폭 뚜껑 덮어서 놨다가 조금 있다가 이렇게 젓으면 그때 '투박투박'해, 그때.)

107018 @ 호박입국?(호박잎국?)

107018 # 호박입국은 연헌 호박입 헤영 박박 밀어불민 풀내 나이, 호박입도.(호박잎국은 연한 호박잎 해서 박박 밀어버리면 풀내 나, 호박잎도.)

107018 @ 아, 그믄 어떡해?(아, 그럼 어떡해?)

107018 # 어떤 사름은 퍼렁헌 물 나 비사 좋넹 허멍 막 밀어불민 풀내가 나. 맛이 엇어. 게난 쪼끔 밀어근에 그자 그디 구진 거 밀어질 정도 할할 헹구멍 헤뒁, 그거 즘질이 썰엉, 이건 그자 물 팔팔 끌령 톡 허게 놓으민 얼마 엇엉 먹어져. 게민 팔팔 끌려근엥에 헤 가건 무신 밀가루든 뭐든 쪼끔 물 카.(어떤 사람은 파란 물 나 버려야 좋다고 하면서 막 밀어버리면 풀내가 나. 맛이 없어. 그러니까 조금 밀어서 그저 거기 궂은 거 밀어질 정도로 할할 헹구면서 해두고, 그거 자잘하게 썰어서, 이건 그저 물 팔팔 끓여서 톡 하게 놓으면 얼마 없어서 먹을 수 있어. 그러면 팔팔 끓여서 해 가면 무슨 밀가루든 뭐든 조금 물 타.)

107018 @ 예.(예.)

107018 # 이건 물 카근에 소로록허게 비왕 확확 젓으민 뒈어, 이건. 경 헹 호박입국 끌려 먹는 거.(이건 물 타서 소르르하게 부어서 확확 저으면 돼, 이건. 그렇게 해서 호박잎국 끓여 먹는 거.)

107018 @ 이건 무신 뭐 멜치나, 메리치나 이런 거 안 놔?(이건 무슨 뭐 멸치나 멸치나 이런 건 안 놔?)

107018 # 메리치도 놓곡, 메리치 다시다라도 시민 놓곡. 이건 아무거라도, 아무거라도 놔.(멸치도 놓고, 멸치 다시다라도 있으면 놓고. 이건 아무거라도, 아무거라도 놔.)

107018 @ 그 호박입 그 막에, 그 가시 즘진 가시들 막 돋아십니께?(그 호박잎 그 막요, 그 가시 자잘한 가시들 막 돋아있잖아요?)

107018 # 즘진 가시 돋아도 호박입에 거는 베끼지 못허곡. 호박입 뎅가리이, 뎅가리 혼 번에 거끄질 말앙, 욜로 영 거껑 영 잡아뎅기민 요 호박입 이파리에도 요런 것이 잇어이. 그것에서 딱 베껴지멍 나와. 게민 호박 요 남뎅이를 세 번, 네 번에 갈랑 또 거껑 영 잡아둥겨, 또 거껑 영 잡아둥기곡, 흑끔 이디가 그럼 줄거리 다 나와, 그거. 줄거리 나와 비어.(자잘한 가시 돋아도 호박잎의 거는 벗기지 못하고. 호박잎 줄거리, 줄거리 한 번에 꺾지 말고, 요리로 이렇게 꺾어서 이렇게 잡아당기면 요 호박잎 이파리에도 요런 것이 있어. 그것에서 딱 벗겨지면서 나와. 그러면 호박 요 줄거리를 세 번, 네 번에 갈라서 또 꺾어서 이렇게 잡아당겨, 또 꺾어서 이렇게 잡아당기고, 조금 여기가 그럼 줄거리가 다 나와, 그거. 줄거리가 나와 버려.)

107018 @ 응.(응.)

107018 # 그 가시 돋은 거 나와 비어.(그 가시 돋은 거 나와 버려.)

107018 @ 응.(응.)

107018 # 경허민 그거 끌려 먹는 거. 호박입은 아무라도 끌려 먹는 거라. 요새나는 호박입.(그러면 그거 끓여 먹는 거. 호박잎은 아무라도 끓여 먹는 거야. 요새 나는 호박잎.)

107019 @ 몸국은?(모자반국은?)

107019 # 몸국은이, 이젠 이 바당에 우리 엿날에 막 이디도 몸을 경 나나신디, 몸이 ᄒᆞ나도 엇어.(모자반국은, 이젠 이 바다에 우리 옛날에 막 여기도 모자반을 그렇게 났었는데, 모자반이 하나도 엇어.)

107019 @ 응.(응.)

107019 # 몸국이, 뒈야지, 엿날엔 이 잔치 때나 대소상 때나, 뒈야지 잡앙 솖잖아.(모자반국이, 돼지, 옛날엔 이 잔치 때나 대소상 때나, 돼지 잡아서 삶잖아.)

107019 @ 예.(예.)

107019 # 솖아난 물에 무수 이파리.(삶았던 물에 무청.)

107019 @ 예, 춤ᄂᆞ물?(예, '춤ᄂᆞ물'.)

107019 # 응, 무수이파리허곡 그거 반반허곡, 무수이파리에 그거에 반반 서껑, 그 뒈야지 솖아난 국물에 놩 툭허게 끌리곡. ᄀᆞ루, 모믈ᄀᆞ루든, 밀ᄀᆞ루든 조금 놩 풀풀허게 끌리민 경 맛잇어. 이제도 몸국 끌렁 풀더라고, 시에 가민.(응, 무청하고 그거 반반하고, 무청에 그거 반반 섞어서, 그 돼지 삶았던 국물에 놔서 툭하게 끓이고. 가루, 메밀가루든, 밀가루든 조금 놔서 풀풀하게 끓이면 그렇게 맛있어. 이제도 모자반국 끓여서 팔더라고, 시에 가면.)

107019 @ 예, 이제 몸국할 때 몸허고, 아까 놈삐ᄂᆞ물?(예, 이제 모자반국할 때 모자반하고, 아까 무청?)

107019 # 놈삐도 놓곡.(무도 놓고.)

107019 @ 놈삐도 놓고?(무도 놓고?)

107019 # 놈삐를 놓나, 무수 그 등체기 춤나물, 잇잖아, 춤나물 이파리.(무를 놓거나, 무 그 밑동 '춤ᄂᆞ물', 있잖아, '춤ᄂᆞ물' 이파리.)

107019 @ 예, 이파리.(예, 이파리.)

107019 # 그것에 몸에 서꺼근엥에.(그것에 모자반에 섞어서.)

107019 @ 아, 몸에 서껑?(아, 모자반에 섞어서?)

107019 # 응, 서껑. 경 허민 더 맛이 잇어. 그냥 몸만 놓은 거보담.(응, 섞어서. 그렇게 하면 더 맛이 있어. 그냥 모자반만 놓은 거보다.)

107019 @ 응.(응.)

107019 # 그거 좀 서꺼사, 서꺼사 맛이 나.(그거 좀 섞어야, 섞어야 맛이 나.)

107019 @ 아.(아.)

107019 # 영 보난이, 몸국, 몸국 허멍 저 뒈야지고기 쪼끔 썰어놓곡 끌려신디 그것이 그 무수이파리가 들어가야 맛이 잇는디. 그냥 헤 놓난 흔엇이 등거운 맛 엇어. 나도 사 먹어 봣어, 사 먹어 봣서. 제주시 간 때도. 겐디 아이고 이거 무수이파리 헤근에 솖앗당, 요것에 쪼끔쪼금 서꺼시민 맛이 더 날 건디 경헤도. 그 사름들 그거 어디 가근에

그 무수이파리 허당 솖으멍 경.(이렇게 보니까, 모자반국, 모자반국 하면서 저 돼지고기 조금 썰어놓고 끓였는데 그것이 그 무청이 들어가야 맛이 있는데. 그냥 해 놓으니까 한 없이 '등거운' 맛이 없어. 나도 사 먹어 봤어, 사 먹어 봤어. 제주시 간 때도. 그런데 아이고 이거 무청 해서 삶았다가, 요것이 조금조금 섞었으면 맛이 더 날 건데 그래도. 그 사람들 그거 어디 가서 그 무청 하다가 삶으면서 그렇게.)

107019 @ 몸보다 싸주마씨. 아닌가? 요즘 몸이 워낙 비싸난?(모자반보다 싸지요. 아닌가? 요즘 모자반이 워낙 비싸니까?)

107019 # 그것도 헤당 풀민. 저 흔번 우리 엿날에 무수허러 갈 때, 무수 간 디 이조끔 시민 막 겨울 들어가민 무수들 메잖아. 정월, 이월에 강, 막 간 무수 영 허멍 보난 무수이파리 줏으레 온 사람이 잇어, 마다리 아지곡. 뭐 헐 거엔 허난에, 이거 시래기국 끌릴 거옌.(그것도 해다가 팔면. 저 한번 우리 옛날에 무하러 갈 때, 무 간 데 조금 있으면 막 겨울 들어가면 무들 매잖아. 정월, 이월에 가서, 막 가서 무 이렇게 하면서 보니까 무청 주우러 온 사람이 있어, 마대 가지고. 뭐 할 거냐고 하니까, 이거 시래기국 끓일 거라고.)

107019 @ 아.(아.)

107019 # 게난 나 생각으로 아이고 저걸 저거 문 베렝이 일곡 헌디 저 시레길 헤당 누가 다 먹을 건가. 난 시래기국 먹으레 아이 가켜. 그거 그 버렝이 문 먹어난 거, 버렝인 무수 메멍 보난 버렝이도 다 이신디. 거 영 베리당 보멍 버렝이도 탁탁 털어불곡 뭐 허주마는. 그자 보난 마다리레 그자 막 줏으멍 담아. 담앙 그것 강 솖앙 시래기국 허긴 허는디. 에 난 그거 보난 시래기국 먹으레 아이 가켜.(그러니까 내 생각으로 아이고 저걸 저거 모두 벌레 일고 한데 저 시래기를 해다가 누가 다 먹을 건가. 난 시래기국 먹으러 안 가겠다. 그거 그 벌레 모두 먹었던 거, 벌레는 무 매면서 보니까 벌레도 다 있는데. 그거 이렇게 보다가 보면서 벌레도 탁탁 떨어버리고 뭐 하지마는. 그저 보니까 마대에 그저 막 주우면서 담아. 담아서 그걸 가서 삶아서 시래기국 하긴 하는데. 에 난 그거 보니까 시래기국 먹으러 아니 가겠다.)

107019 @ 거난, 자기 먹젠 하는 게 아니곡, 풀젠 허는 거라예.(그러니까, 자기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팔려고 하는 거예요.)

107019 # 풀젠 허난 그거 시래길 막 마다리 아젼오란 무수 헤나난, 그 무수 다듬아난 조름에 막 마다리차 담으멍 막 시꺼 가는 거라.(팔려고 하니까 그거 시래기를 막 마대 가져와서 무 하고 나니까, 그 무 다듬었던 뒤에 막 마대째 담으면서 막 실어 가는 거야.)

107019 @ 식당에 풀젠예.(식당에 팔려고요.)

107019 # 응, 풀젠. 경허난, 이 육지 사름덜 이제 시래기 헹 영 허는 건 이디 다 돌아메잖아이. 돌아멩 몰르는디 보민 그거 문 약허곡. 시래기 보믄 시래기 ᄂᆞ물 또로 가는 거지. 견디 그건 말깡하게 고와이.(응, 팔려고. 그러니까, 이 육지 사람들 이제 시래기 해서 이렇게 하는 건 여기 다 달아매잖아. 달아매서 말리는데 보면 그거 모두 약하고. 시래기 보면 시래기 나물 따로 가는 거지. 그런데 그건 말갛게 고와.)

107019 @ 아.(아.)

107019 # 우리 이 저 무수 겨울무수 메어놩 강 담아오는 건 곱지 안허여. 곱지 안허여.(우리 이 저 무 겨울무 매어놔서 가서 담아오는 건 곱지 않아. 곱지 않아.)

107020 @ 생선, 바당에서 나는 생선으로도 국 끌립니께예?(생선, 바다에서 나는 생선으로도 국 끓이잖아요?)

107020 # 오토미국이엔 헤근에.(옥돔국이라고 해서.)

107020 @ 오토미국.(옥돔국.)

107020 # 건, 돔국, 돔국 허멍.(그건, 돔국, 돔국 하면서.)

107020 @ 무신 국?(무슨 국?)

107020 # 돔국, 돔국 허멍, 돔국이엔도 곧고, 솔라니[182]국이엔도 골아.(돔국, 돔국 하면서, 돔국이라고도 말하고, '솔라니'국이라고도 말해.)

107020 @ 이디서는 솔라니엔도 허곡, 옥돔이엔도 허여?(여기서는 '솔라니'라고도 하고, 옥돔이라고도 해?)

107020 # 옥돔이엔도 허곡, 솔라니엔도 허곡.(옥돔이라고도 하고, '솔라니'라고도 하고.)

107020 @ 응.(응.)

107020 # 옥돔 말은 이제사 난 말. 엿날엔 기자 생성.(옥돔 말은 이제야 난 말. 옛날엔 그저 생선.)

107020 @ 그다음?(그다음?)

107020 # 솔레기, 그자 솔레기.('솔레기', 그저 '솔레기'.)

107020 @ 아. 그게 옛날 말?(아, 그게 옛날 말?)

107020 # 옥돔이엔 안 허곡, 엿날엔 솔레기, 생성. 그자 그거. 요 남원이, 그 우리 한마음[183] 앞이 그디 국 끌리는디 그 솔레기 딱 그려젼 잇잖아. 그리 안 봐신가? 봐실건디, 그디.(옥돔이라고 안 하고, 옛날엔 '솔레기', '생성'. 그저 그거. 요 남원에, 그 우리 한마음 앞에 거기 국 끓이는데 그 '솔레기' 딱 그려져 있잖아. 그리 안 봤었나? 봤을 건데, 거기.)

107020 @ 그디 그려져수과?(거기 그려졌습니까?)

107020 # 응, 그려졋어, 식당 앞이. 이젠 옥돔, 옥돔 허여, 옥돔국.(응, 그려졌어, 식당 앞에. 이젠 옥돔, 옥돔 해, 옥돔국.)

107020 @ 솔레기국 끌리젠 허민, 어떵헹 끌리는 거꽈?(옥돔국 끓이려고 하면, 어떻게 해서 끓이는 겁니까?)

107020 # 것도, 그자 그건 무술, 무수 쪼끔 놓곡, 요즘은 이 식당엔 몰라. 두부 들어감신가?(그것도, 그저 그건 무를, 무 조금 놓고, 요즘은 이 식당엔 몰라. 두부 들어가고 있나?)

107020 @ 옛날 헤난 거?(옛날 했던 거?)

---

182) '솔라니'는 서귀포지역에서 옥돔을 말하는 것으로, '솔라니, 솔레기, 생성'이라고도 한다.

183) '한마음'은 서귀포시 남원읍 남원리에 있는 한마음 병원을 말한다. 제보자가 물리치료를 받으러 다니는 병원 이름이다.

107020 # 옛날엔 그자 무수만 놔.(옛날엔 그저 무만 놔.)

107020 @ 먼저 솔레기 놩 끌려?(먼저 옥돔 놔서 끓여?)

107020 # 끌리다근에, 무수 놓곡, ᄒᆞ쏠 오래 끌려사 고기맛이 우러난덴.(끓이다가, 무 놓고, 조금 오래 끓여야 고기맛이 우러난다고.)

107020 @ 응, 그면 솔레기 놩, ᄒᆞ끔 오래 끌리당.(응, 그러면 옥돔 놔서, 조금 오래 끓이다가.)

107020 # 응, 무수 놩.(응, 무 놔서.)

107020 @ 무수 놩, 그다음 간헤?(무 놔서, 그다음 간해?)

107020 # 응.(응.)

107020 @ 소금간 헙니까? 간장?(소금간 합니까? 간장?)

107020 # 간장.(간장.)

107020 @ 간장으로 간허여?(간장으로 간해?)

107020 # 엿날 간장은 우리 집이서 헌 간장은, 그거 놓면은 지금 옥돔국에 끌리민 맛이 잇는디, 요새 ᄑᆞ는 간장은 놓민 맛엇어. 맛이 엇어. 영 헹 먹어보민.(옛날 간장은 우리 집에서 한 간장은, 그거 놓으면은 지금 옥돔국에 끓이면 맛이 있는데, 요새 파는 간장은 놓으면 맛없어. 맛이 없어. 이렇게 해서 먹어보면.)

107020 @ 거멍헤 불크라예.(거멓게 돼 버리겠어요.)

107020 # 우리 집이서 이녁냥으로 콩 솖앙 담근 장, 간장 빼낸 것은 코시롱헌 맛이 잇는디, 이게 ᄑᆞ는 간장 놩은 맛이 엇어. 차라리 소금 놩 끌린 것만이 맛엇더라고.(우리 집에서 자기대로 콩 삶아서 담근 장, 간장 빼낸 것은 고소한 맛이 있는제, 이게 파는 간장 놔서는 맛이 없어. 차라리 소금 놔서 끓인 것만큼 맛없더라고.)

107020 @ 그 바닷고기는 무신거? 다 통틀어근에 바릇궤기엔 ᄀᆞᆯ아?(그 바닷고기는 뭐? 다 통틀어서 '바릇궤기'라고 말해?)

107020 # 응, 바당에서 나는 거 아이고 바릇궤기 한 말론 ᄀᆞᆫ젠 허민 바릇궤기 영 허주만은 고기 일름도 막 하부난 몰라.(응, 바다에서 나는 거 아이고 바닷고기 한 말로는 하려고 하면 바닷고기 이렇게 하지마는 고기 이름도 아주 많아버리니까 몰라.)

107020 @ 국 끌리는 궤기는 이거 솔라니 말고는, 솔레기 말고 또 어떤 걸로 국 끌립니까?(국 끓이는 고기는 이거 '솔라니' 말고는, '솔레기' 말고 또 어떤 걸로 국 끓입니까?)

107020 # 솔라니 말고 우리 끌여 먹젠 허민 갈치도 사당 갈치국도 끌려 먹고.(솔라니 말고 우리 끓여 먹으려고 하면 갈치도 사다가 갈치국도 끓여 먹고.)

107020 @ 예.(예.)

107020 # 또 어렝이도 사당 끌려 먹곡.(또 어렝놀래기도 사다가 끓여 먹고.)

107020 @ 어렝이국 끌려 먹고.(어렝놀래기국도 끓여서 먹고.)

107020 # 또, 고등에도 사당 졸영도 먹는 사름. 고등에 국 아이 끌려.(또, 고등어도 사다가 졸여서 먹는 사람. 고등어 국 안 끓여.)

107020 @ 대부분 국 안 끌려예.(대부분 국 안 끓여요.)

107020 # 대부분 졸임으로 헤 먹주.(대부분 조림으로 해 먹지.)
107020 @ 국 끌리는 거?(국 끓이는 거?)
107020 # 국 끌리는 거, 갈치.(국 끓이는 거, 갈치.)
107020 @ 갈치.(갈치.)
107020 # 어렝이.(어렝놀래기.)
107020 @ 어렝이.(어렝놀래기.)
107020 # 우럭.(우럭.)
107020 @ 우럭.(우럭.)
107020 # 기자 저 솔라니.(그저 저 옥돔.)
107020 @ 솔라니.(옥돔.)
107020 # 또 그런 것 말아도 고기 일름이 조기도 잇고, 뭐 막 여라 가지.(또 그런 것 말고도 고기 이름이 조기도 있고, 뭐 아주 여러 가지.)
107020 @ 조기도 국 끌령 먹어?(조기도 국 끓여서 먹어?)
107020 # 어, 조기도 국 끌령 먹어.(어, 조기도 국 끓여서 먹어.)
107020 @ 아, 조기도 국 끌령 먹어마씨.(아, 조기도 국 끓여서 먹어요.)
107020 # 응, 게난, 그런 거 다 국 끌령 먹주마는, 뭐 이 고등엔 국 끌리난 맛엇어. 졸영 벳긔.(응, 그러니까, 그런 거 다 국 끓여 먹지마는, 뭐 이 고등언 국 끓이니까 맛없어. 졸여서 밖에.)
107020 @ 아까 솔레기, 솔라니?(아까 '솔레기', '솔라니'?)
107020 # 솔레기엔 곧고 말도 다 틀려.('솔레기'라고 말하고 말도 다 달라.)
107020 @ 아, 이디서, 이디서.(아, 여기서, 여기서.)
107020 # 이디서는 솔레기엔 곧는디이.(여기서는 '솔레기'라고 말하는데.)
107020 @ 이디서는 솔레기예.(여기서는 '솔레기'요.)
107020 # 저 서르렌 가민 솔라니.(저 서쪽으로 가면 '솔라니'.)
107020 @ 예, 게난.(예, 그러니까.)
107020 # 말이 두 가지라. 옥돔이엔도 곧고.(말이 두 가지야. 옥돔이라고도 말하고.)
107020 @ 이디서 옛날에 골아난 말은 솔레기?(여기서 옛날에 말하던 말은 '솔레기'?)
107020 # 솔레기, 생성.('솔레기', '생성'.)
107020 @ 생성. ᄀᆞ튼 말예?('생성'. 같은 말요?)
107020 # 응, ᄀᆞ튼 거라도 생성이엔 곧고, 솔레기엔 곧고.(응, 같은 거라도 '생성'이라고 말하고, '솔레기'라고도 말하고.)
107020 @ 똑ᄀᆞ튼 말인디.(똑같은 말인데.)
107020 # 겐디 이젠 생성이엔 안 허여, 옥돔.(그런데 이젠 '생성'이라고 안 해, 옥돔.)
107020 @ 이젯말은 나도 알곡, 옛날 말 몰르는 거.(이젯말은 나도 알고, 옛날 말 모르는 거.)
107020 # 이젯말은 옥돔이라. 엿날말은 솔레기, 생성.(이젯말은 옥돔이야. 옛날말은

‘솔레기’, ‘생성’.)

107021 @ 메역으로도, 메역 놩 국 끌입니께?(미역으로도, 미역 놔서 국 끓이잖습니까?)

107021 # 메역도 이것에 놩 국 끌려.(미역도 이것에 놔서 국 끓여.)

107021 @ 아, 이디 이 저 솔레기국에, 메역도 놔?(아, 여기 이 옥돔국에도, 미역도 놔?)

107021 # 응, 메역 놓으믄 더 맛이 잇어, 무수 논 것보다.(응, 미역 놓으면 더 맛이 있어, 무 놓은 것보다.)

107021 @ 무, 놈삐 논 것보다?(무, 무 놓은 것보다?)

107021 # 응, 맛이 더 나.(응, 맛이 더 나.)

107021 @ 메역 논 게?(미역 놓은 게?)

107021 # 메역 참기름이나 쪼끔 놩 ᄒᆞ쏠 보끄다근에, 솔레기국에 놓면은 맛이 더 나.(미역 참기름이나 조금 놔서 조금 볶다가, 옥돔국에 놓으면 맛이 더 나.)

107021 @ 아, 따로 보까?(아, 따로 볶아?)

107021 # 따로 보까.(따로 볶아.)

107021 @ 따로 보까서 거기 끌인 디다가 놔?(따로 볶아서 거기 끓인 데다가 놔?)

107021 # 엿날은 기냥 담아놩 끌려 먹엇주마는. 맛잇게 끌렁 먹젠 허민 그추룩 헤.(옛날은 그냥 담아놔서 끓여 먹었지마는. 맛있게 끓여서 먹으려고 하면 그렇게 해.)

107022 @ 아.(아.)

107022 # 옛날은 그냥 메역 톡하게 그냥 빨앙 그냥 놔. 경 헹 놩 끌려 먹어난 거.(옛날은 그냥 미역 톡하게 그냥 빨아서 그냥 놔. 그렇게 해서 놔서 끓여 먹었던 거.)

107021 @ 옛날 헤난 거, 옛날. 할무니 이제 헤난 거 말곡.(옛날 했던 거, 옛날. 할머니 이제 했던 거 말고.)

107021 # 엿날 헤난 거.(옛날 했던 거.)

107022 @ 이번엔 냉국.(이번엔 냉국.)

107022 # 냉국, 그 메역 뿔앙 냉국 허는 거.(냉국, 그 미역 빨아서 냉국 하는 거.)

107022 @ 옛날에 메역 아니고, 저 ᄂᆞ물도 헤근에 놓곡 허지 안허여? 밧듸 일허러 가곡 헐 때.(옛날에 미역 아니고, 저 나물도 해서 놓고 하지 않아? 밭에 일하러 가고 할 때.)

107022 # 그건 ᄂᆞ물 솖앙 냉국 허는 거.(그건 나물 삶아서 냉국 하는 거.)

107022 @ 응, 그건 어떵헹 허는 거꽈?(응, 그건 어떻게 해서 하는 겁니까?)

107022 # 거 ᄂᆞ물 솖앙 접질앙 강 언 물에 놔근에 뒌장 카 놓고 그자 밧듸 가민 뭐 가져가. 요즘은 하간 거 이거저거지, 엿날엔 그자 뒌장에 강 언물에 ᄂᆞ물 솖앙 가졍강 썰엉 가졍강 그거 놩 툭툭 젓엉 그것이 국이지. 냉국이 그거라.(그거 나물 삶아서 짜서 가서 언 물에 놔서 된장 타 놓고 그저 밭에 가면 뭐 가져가. 요즘은 온갖 거 이거저거지, 옛날엔 그저 된장에 가서 찬물에 나물 삶아서 가져가서 썰어서 가져가서 그거 놔서 툭툭 저어서 그것이 국이지. 냉국이 그거야.)

107022 @ 응, 냉국이. 이젠 막 오이도 썰어놓곡 물웨도 썰어놓곡.(응, 냉국이. 이젠 막 오이도 썰어놓고 노각도 썰어놓고.)

107022 # 막 오이도 썰어놓고 물웨도 썰어놓곡 대파, 양파 믄 썰어놩 곳곳이 고치도 썰어놓고 헷주만은 엿날엔 그런 거 엇이난. 그자 ᄂᆞ물 솖앙 썰엉 갓다근에 요샌 게도 냉장고 산도룩헌 물이나 잇지, 물 파싹파싹[184] 떼분 물 그거 놩 뒌장 풀어놩 그자 국허민 그거 냉국으로 먹엇지. 엿날에.(막 오이도 썰어놓고 노각도 썰어놓고 대파, 양파 모두 썰어놔서 곳곳이 고추도 썰어놓고 했지마는 옛날엔 그런 거 없으니까. 그저 나물 삶아서 썰어서 갔다가 요샌 그래도 냉장고 시원한 물이나 있지, 물 '파싹파싹' 뜨거운 물 그거 놔서 된장 풀어놔서 그저 국이면 그거 냉국으로 먹었지, 옛날에.)

107022 @ ᄂᆞ물 데운 걸 더 하영 놔수과 아니면, 저 물웨를 썰엉 논 게 더 하영 먹어나수과? 냉국은.(나물 데친 걸 더 많이 놨습니까 아니면, 저 노각을 썰어서 놓은 게 더 많이 먹었었습니까? 냉국은.)

107022 # 엿날엔 여름엔, 저 물웰 하영 먹엇지.(옛날엔 여름엔, 저 노각을 많이 먹었지.)

107022 @ 물웨를.(노각을.)

107022 # 응, 물웨 놩 풀아이.(응, 노각 놔서 팔아.)

107022 @ 예.(예.)

107022 # 막 풀민 엿날엔 돈, 돈이 어려운 때난. 보리 혼 뒈.(막 팔면 옛날엔 돈, 돈이 어려운 때니까. 보리 한 되.)

107022 @ 예.(예.)

107022 # 보리 혼 뒈 아졍 가민 물웨 요만헌 헌 거 두 개.(보리 한 되 가져가면 노각 요만한 거 두 개.)

107022 @ 물웨를?(노각을?)

107022 # 응, 물웨를 두 개 아졍 상 와. 보리 혼 뒈 아졍강.(응, 노각을 두 개 가져서 사와. 보리 한 되 가져가.)

107022 @ 예.(예.)

107022 # 이 웨 놩, 밧듸서 풀아이. 엿날에 물웨 막 놩 풀앙 허민. 웨 사레 와수다 헤여근에, 돈 엇인 때난 보릴 혼 뒈 앗앙가민 똑 요만헌 웨, 물웨 두 개벳긔 안줘.(이외 놔서, 밭에서 팔아. 옛날에 노각 막 놔서 팔아서 하면. 외 사러 왔습니다 해서, 돈 없을 때니까 보리 한 되 가져가면 꼭 요만한 외, 노각 두 개밖에 안 줘.)

107022 @ 응.(응.)

107022 # 그걸로 숭키 헌 거. 그걸로 ᄒᆞ꼼 썰어 놔근에 뒌장 혜 놩 우리 ᄀᆞ튼 건. 그거 놔놘 거 웨 놔나민 몸만 ᄀᆞᆷ아난 물만 먹엇주.(그걸로 푸성귀 한 거. 그걸로 조금 썰어 놔서 된장 해 놔서 우리 같은 건. 그거 놨던 거 외 놓고 나면 몸만 감았던 물만 먹었지.)

107022 @ 하하하하, 아니 무사 이디 우영에라도 웨 갈주게, 물웨.(하하하하. 아니 왜

184) '파싹파싹'은 만질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뜨거운 모양을 말한다.

여기 텃밭에라도 외 갈지, 노각.)

107022 # 아이고. 엿날엔 우영에 갈아봣자, 뒈지도 안허곡. 어리석음으로이 우리집이 아들이 혼번은 어머니, 우린 밧이 엇이난 물웨 싱거 먹을 디가 엇어. 게난 이 낭밧 나가난 이녁대로 오이도 싱그멍 실피 먹엇어이.(아이고, 옛날엔 텃밭에 갈아봐도, 되지도 않고. 어리석기로 우리 집 아들이 한번은 어머니, 우린 밭이 없으니까 노각 심어 먹을 데가 없어. 그러니까 이 나무 밭 나가니까 자기대로 오이도 심으면서 실컷 먹었어.)

107022 @ 응.(응.)

107022 # 오이도 싱그곡 물웨도 싱그곡, 경허난. 강 오일 강 저 물웰 강 사오민 아이가 실피 못 먹언에, 어머니 허곤데. 무사? 물웨 실피 먹어봐시민양, 허곤데 아이고 게메이, 누게ᄀᆞ라 낭밧듸.(오이도 심고 노각도 심고, 그러니까. 가서 오이를 가서 저 노각을 가서 사오면 아이가 실컷 못 먹어서, 어머니 하길래. 왜? 노각 실컷 먹어봤으면요, 하길래 아이고 글쎄, 누구보고 나무밭에.)

107022 @ 응.(응.)

107022 # 저 낭밧 혼 칸만 도라, 나 물웨 혼 댓 굿만 싱그켜 허난에. 싱경 먹읍서, 이 남 싱거 가난.(저 나무밭 한 칸만 달라, 나 노각 한 댓 굿만 심겠다 하니까. 심어서 드세요, 이 나무 심어 가니까.)

107022 @ 응.(응.)

107022 # 어서 그디 오랑 오이, 물웨 싱것당 먹읍서 허난. 물웨 혼 여남은 거 놔서. 요 물웬 기자 비만 오민 부수[185] 열아.(어서 거기 와서 오이, 노각 심었다가 드세요 하니까. 노각 한 여남은 거 놔서. 요 노각은 그저 비만 오면 많이 열려.)

107022 @ 응.(응.)

107022 # 혼 굿, 여남은 굿 논 것이 어떤 딘 가민 혼 구덕씩 타 와서, 게난. 야, 실피 먹어보라 ᄒᆞ난 물웨 두 개도 아이 먹엉, 어머니 나 이제 실푸우다.(한 굿, 여남은 굿 놓은 것이 어떤 덴 가면 한 구덕씩 따 왔어, 그러니까. 야, 실컷 먹어봐라 하니까 노각 두 개도 안 먹어서, 어머니 나 이제 싫습니다.)

107022 @ 하하하하. 두 개도 못 먹언.(하하하하. 두 개도 못 먹어서.)

107022 # 두 개도 문 못 먹언, 어머니 나 이제 실푸우다. 흐흐흐흐. 이제 먹구적 안 허크냐? 이제 먹구적 아니허쿠다 허멍 헤낫저.(두 개도 모두 못 먹어서, 어머니 나 이제 싫습니다. 흐흐흐흐. 이제 먹고 싶지 않겠니? 이제 먹고 싶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했었어.)

107022 @ 아까 물웨 놀 때 아까 혼 굿 두 굿 이렇게 헤마씨? 굿, 곳?(아까 노각 놓을 때 아까 한 굿 두 굿 이렇게 해요? '굿', '곳'?)

107022 # 굿, 영 동글랑허게 통 파이, 동글랑허게 통 팡 그레 뭐 걸름 담아놔. 걸름 뭐, 소걸름이든 뒈지걸름이든 담아놔근에 흑 더퍼 놩 그레 웨씨 꼭꼭 찔러야 웨가 잘 뒈주. 그냥 맨 밧듸 강 놓으민 웨가 뒈지 안허여. 비료가 엇인 때난. 겨난 이젠 뭐 비료 놔놓난 뭐 기냥, 기냥 맨 밧듸 찔렁 놧당 비료만 허민 짝짝 뻗으멍 나와, 이제.(굿, 이렇

185) '부수'는 '많이' 혹은 '마구'라는 뜻이다.

게 동그랗게 통 파, 동그랗게 통 파서 그리 뭐 거름 담아놔. 거름 뭐, 소두엄이든 돼지 거름이든 담아놔서 흙 덮어 놔서 그리 외씨 꼭꼭 찔러야 외가 잘 되지. 그냥 맨 밭데 가서 놓으면 외가 되지 않아. 비료가 업을 때니까. 그러니까 이젠 뭐 비료 놔 놓으니까 뭐 그냥, 그냥 맨 밭에 찔러서 놨다가 비료만 하면 쫙쫙 뻗으면서 나와, 이제.)

107022 @ 게난 아까 걸름 논 그게 굿, 흔 굿, 두 굿.(그러니까 아까 거름 놓은 그게 굿, 한 굿, 두 굿.)

107022 # 흔 굿, 두 굿 허는 거라.(한 굿, 두 굿 하는 거야.)

107022 @ 아.(아.)

107022 # 게난, 구뎅이를 이만이 널르게 파 놔근에 그레 걸름 담아놩 흑 더펑 그 우트레 웨씨 졍 놔두민 웨레 가, 놩 놓민 낭 뼛어가민 그 걸름물 뺄아 먹엉, 작작 뼛어. 요새 저 수박 놓는 디도 경 헴시컬.(그러니까, 구덩이를 이만큼 넓게 파 놔서 그리 거름 담아놔서 흙 덮어서 그 위에 외씨 넣어서 놔두면 외로 가, 놔서 놓으면 나무 뻗어가면 그 거름물 빨아 먹어서, 작작 뻗어. 요새 저 수박 놓는 데도 그렇게 하고 있을걸.)

107022 @ 아.(아.)

107022 # 수박 놓는 디도 수박 좍 허게 갈아놔근에이 골 쳐 놔근엥에 걸름 뿌려놔근엥에 그레만 지금 수박씨 싱검시컬.(수박 놓는 데도 수박 쫙하게 갈아놔서 골 쳐 놔서 거름 뿌려 놔서 그리만 지금 수박씨 심고 있을걸.)

107023 @ 예, 다음 성게, 성게는 이디서 뭐엔 골아낫수과?(예, 다음 성게, 성게는 여기서 뭐라고 말했었습니까?)

107023 # 성게 옛날말은 귀.(성게 옛날말은 '귀'.)

107023 @ 귀, 귀로도 국 끌려?(성게, 성게로도 국 끓여?)

107023 # 응. 귀국이 맛잇주. 메역에 놩 끌리민.(응. 성게국이 맛있지. 미역에 놔서 끓이면.)

107023 @ 건 어떵 허영 끌리민 뒈는 거꽈?(그건 어떻게 해서 끓이면 되는 겁니까?)

107023 # 건 어떵 허멍 말멍, 그자 메역국에 탁 놓민 그자 금방 놩 금방 먹는 거거.(그건 어떻게 하면서 말면서, 그저 미역국에 탁 놓으면 그저 금방 놔서 금방 먹는 거 그거.)

107023 @ 귀를 맨 마지막에 놔야 허여?(성게를 맨 마지막에 놔야 해?)

107023 # 응, 맨 마지막에 놔.(응, 맨 마지막에 놔.)

107023 @ 아, 메역보다도 더 다음에? 더 나중에?(아, 미역보다도 더 다음에? 더 나중에?)

107023 # 응, 국 다 끌려놩 맨 마지막에 놩 허민 그것이 맛잇어. 요새 큰일 밧듸 가민 성게국 끌리잖아이. 맛엇어.(응, 국 다 끓여놔서 맨 마지막에 놔서 하면 그것이 맛있어. 요새 큰일 집에 가면 성게국 끓이잖아. 맛없어.)

107023 @ 이런 건 옛날에 먹젠 허민 막 특별할 때나 먹는 거 아니?(이런 건 옛날에 먹으려고 하면 막 특별할 때나 먹는 거 아니?)

107023 # 특별, 아니. 요새나 특별헌 때 먹주, 엿날엔 그자 우리대로 잡아당 풀지 아

녈 때난 먹고 싶은.(특별, 아니. 요새나 특별한 때 먹지, 옛날엔 그저 우리대로 잡아다가 팔지 않을 때니까 먹고 싶은.)

107023 @ 아, 잡아지민?(아, 잡으면?)

107023 # 응. 이녁이 잡아만 오민, ᄆᆞ음대로 먹는 거, 엿날엔, 풀지 아녕. 요새가 ᄆᆞ음대로 못 먹어. 돈 사젠 허민.(응. 자기가 잡아만 오면, 마음대로 먹는 거, 옛날엔, 팔지 않고. 요새가 마음대로 못 먹어. 돈 사려고 하면.)

107023 @ 비싸, 풀아사주예.(비싸, 팔아야지요.)

107023 # 야, 키로에 칠만 원, 팔만 원 가가민 어떵헹 먹을 말이니?(야, 키로에 칠만 원, 팔만 원 가가면 어떻게 해서 먹을 말이냐?)

107023 @ 거난예.(그러니까요.)

107023 # 경허난 딱 바당도 금헤근에 우리 ᄀᆞ튼 사름 귀 ᄒᆞ나 못 파오게 허여. 이젠, 조합원에 안 가입헌 사름덜은.(그러니까 딱 바다도 금해서 우리 같은 사람 성게 하나 못 파오게 해. 이젠, 조합원에 안 가입한 사람들은.)

107023 @ 게난예.(그러니까요.)

107023 # 몰르게 잇당 ᄀᆞ메기 잡으레 갈 때 몰르게 그디서 팡 까먹엉 와.(모르게 있다가 고둥 잡으러 갈 때 모르게 거기서 파서 까먹고 와.)

107023 @ 까먹엉 와.(까먹고 와.)

107023 # 응, 그디서 까먹엉 와.(응, 거기서 까먹고 와.)

107023 @ 응.(응.)

107023 # 먹어난 추룩도 안허영 ᄒᆞ나 팡 까근에 까먹는 건 뭐엔 안허곡. 그디서 잡앙 막 하영 팡 오지만 못허게 허지.(먹었던 것처럼도 않고 하나 파서 까서 까먹는 건 뭐라고 않고. 거기서 잡아서 아주 많이 파서 오지만 못하게 하지.)

107023 @ 보말국.(고둥국.)

107023 # 보말국은이, 그건 메역에 놔, 그것도 메역에.(고둥국은, 그건 미역에 놔. 그것도 미역에.)

107023 @ 아.(아.)

107023 # 이 보말국이나 성게국이나 이 메역에 들어가야 테운 거지, 무수 ᄀᆞ튼 거 콩ᄂᆞ물 ᄀᆞ튼 거 테우지 안허여. 어울리질 안허여.(이 고둥국이나 성게국이나 이 미역에 들어가야 타고난 거지, 무 같은 거 콩나물 같은 거 타고나지 않아. 어울리질 않아.)

107023 @ 보말은 게난, 아까 보말은 이디서 뭐엔 ᄀᆞ메기? 고동?(고둥은 그러니까, 아까 고둥은 여기서 뭐라고 'ᄀᆞ메기'? '고동'?)

107023 # 아니 그자, 보말.(아니 그저, '보말'.)

107023 @ 이디선 그냥 보말.(여기선 그냥 '보말'.)

107023 # 응, 그자 보말. 이디선 보말.(응, 그저 '보말'. 여기선 '보말'.)

107023 @ 보말 까근에.(고둥 까서.)

107023 # 보말 까근에, 그자 쉽게 말허는 건 ᄀᆞ메기엔 ᄀᆞᆫ주.(고둥 까서, 그저 쉽게 말하는 건 'ᄀᆞ메기'라고 말하지.)

107023 @ 예, ᄀᆞ메기. 이디서도 ᄀᆞ메기엔 ᄀᆞᆯ아낫수과?(예, ‘ᄀᆞ메기’. 여기서도 ‘ᄀᆞ메기’라고 말했었습니까?)

107023 # 응, ᄀᆞ메기. 지금도, ᄀᆞ메기 잡으레 가게.(응, ‘ᄀᆞ메기’. 지금도, ‘ᄀᆞ메기’ 잡으러 가자.)

107023 @ 응.(응.)

107023 # 우리 ᄀᆞ메기 잡으레 가게, 혜영 잡아오는 게 보말이라, 게민.(우리 ‘ᄀᆞ메기’ 잡으러 가자, 해서 잡아오는 게 ‘보말’이야, 그러면.)

107023 @ ᄀᆞ메기허고 보말허고 다른 거?(‘ᄀᆞ메기’하고 ‘보말’하고 다른 거?)

107023 # 아니, 준 것도, 춤ᄀᆞ메기도 ᄀᆞ메기, 수두리도 ᄀᆞ메기, 보말도 ᄀᆞ메기 그자 ᄀᆞ메기 불르는 대로 ᄀᆞ메기라.(아니, 잔 것도, 개울타리고둥도 ‘ᄀᆞ메기’, 팽이고둥도 ‘ᄀᆞ메기’, ‘보말’도 ‘ᄀᆞ메기’ 그저 ‘ᄀᆞ메기’ 부르는 대로 ‘ᄀᆞ메기’야.)

107023 @ ᄀᆞ메기가 더 큰 이름?(‘ᄀᆞ메기’가 더 큰 이름?)

107023 # 응, 그거라, 이디 잡아다 놩, 풀 때만 오늘 ᄀᆞ메기 얼마 잡안디? 허민 일 키로, 이 키로 허는 거 홁은 건 보말 분별허젠 허민 홁은 건 보말 요만썩 헌 건 춤ᄀᆞ메기, 수두리 뭐 문닫개 그런거 차별허주, 그자 불르는 건 ᄀᆞ메기.(응, 그거야, 여기 잡아다 놔서, 팔 때만 오늘 ‘ᄀᆞ메기’ 얼마 잡았니? 하면 일 키로, 이 키로 하는 거 굵은 건 ‘보말’ 분별하려고 하면 굵은 건 ‘보말’ 요만큼씩 한 건 개울타리고둥, 팽이고둥 뭐 눈알고둥 그런 거 차별하지, 그저 부르는 건 ‘ᄀᆞ메기’.)

107023 @ 그냥 불르는 건 ᄀᆞ메기.(그냥 부르는 건 ‘ᄀᆞ메기’.)

107023 # 응, 그냥 불르는 건 수두리도 ᄀᆞ메기, 보말도 ᄀᆞ메기, 춤ᄀᆞ메기도 ᄀᆞ메기. 그냥 불르는 건 ᄀᆞ메기.(응, 그냥 부르는 건 팽이고둥도 ‘ᄀᆞ메기’, ‘보말’도 ‘ᄀᆞ메기’, 개울타리고둥도 ‘ᄀᆞ메기’. 그냥 부르는 건 ‘ᄀᆞ메기’.)

107023 @ 겐, 이걸로 국 끌리는 거는?(그래서 이걸로 국 끓이는 거는?)

107023 # 국 끌리는 건 메역.(국 끓이는 건 미역.)

107023 @ 메역 놩예.(미역 놔서요.)

107023 # 또, 그 춤ᄀᆞ메기엔 헌 건 또 지름에 놩 ᄒᆞ쏠 달달 보끄다근에 죽 쑤민 저, 맛이 잇어. 그 춤ᄀᆞ메기엔 헌 건.(또, 그 개울타리고둥이라고 한 건 또 기름에 놔서 조금 달달 볶다가 죽 쑤면 저, 맛이 있어. 그 개울타리고둥이라고 한 건.)

107023 @ 죽? 국 아니고?(죽? 국 아니고?)

107023 # 죽.(죽.)

107023 @ 아, 죽. 아까, 응.(아, 죽. 아까, 응.)

107023 # 죽 쑤어, 달달 보끄다근에 건 죽 쑤어.(죽 쑤어, 달달 볶다가 그건 죽 쑤어.)

107023 @ 넙패로도 국 끌려낫수과?(넓패로도 국 끓였었습니까?)

107023 # 아, 넙패국은 맛잇지.(아, 넓패국은 맛있지.)

107023 @ 그건 어떵 헹 허는 거꽈?(그건 어떻게 해서 하는 겁니까?)

107023 # 그건이 박박 메여근에이 돌에 쫀물에서 이 돌 호강에 놩 막 밀어.(그건 박

박 매어서 돌에 짠물에서 이 돌 구멍에 놔서 막 밀어.)

107023 @ 예.(예.)

107023 # 밀어근에 그 펄물 믄 헤와동 오랑 저런 솟듸 놩 푹 허게 궤앙 톡허게 두께 더껑 놔두민. 북삭하게 틈 자이.(밀어서 그 펄 물 모두 헹궈두고 와서 저런 솥에 놔서 푹 하게 살짝 톡하게 뚜껑 덮어서 놔두면. '북삭'하게 뜸 들여.)

107023 @ 예.(예.)

107023 # 경허민 이놈의 넙패가 북삭북삭헤여 먹으민. 북삭북삭허민 그것에 놩 국 끌리멍 ᄀᆞ루 ᄒᆞᆫ 방울 서꺼 놓민 그럼 맛잇어.(그러면 이놈의 넓패가 북삭북삭해, 먹으면. 북삭북삭하면 그것에 놔서 국 끓이면서 가루 한 방울 섞어 놓으면 그럼 맛있있어.)

107023 @ 아.(아.)

107023 # 경헌디, 파나 ᄒᆞ쏠 썰어 놓곡 허민. 맛이 좋아, 그게. 메역국보다 그게 맛잇어.(그런데, 파나 조금 썰어 놓고 하면. 맛이 좋아, 그게. 미역국보다 그게 맛있어.)

107023 @ 메역국보다 더?(미역국보다 더?)

107023 # 응, 맛이 잇어 그게, 겐디 넙패가이 이 바당에 엿날에 넙패 경 놩 게 구제곡 정월만 나민 넙패들 뽑아당 국을 끌려 먹는디, 넙패 ᄒᆞ나 안나. 이제 엇어, 엇어. 저 신양리[186] 가난 넙패 잇어라.(응, 맛이 있어 그게, 그런데 넓패가 이 바다에 옛날에 넓패 그렇게 놔서 그러고저러고 정월만 나면 넓패들 뽑아다가 국을 끓여 먹는데, 넓패 하나 안 나. 이제 없어, 없어. 저 신양리 가니까 넓패 있더라.)

107023 @ 신양리, 아.(신양리, 아.)

107023 # 그딘 가난 넙패 이선, 우리도 ᄒᆞᆫ번 구경 갓단에, 물끼에 구경 가져선게 ᄒᆞᆫ 줌 뽑안오란 국 끌리난 그추룩 맛잇어. 그거는. 하하하하.(거기 가니까 넓패 있어서, 우리도 한번 구경 갔다가, 물때에 구경 갔는데 한 줌 뽑아와서 국 끓이니까 그렇게 맛있어, 그거는. 하하하하.)

107023 @ 하하하하.(하하하하.)

107023 # 그거 ᄀᆞ루 놓곡게, 파나 ᄒᆞ쏠 거려 놓민 맛잇어, 그거는.(그거 가루 놓고, 파나 조금 떠 놓으면 맛있어, 그거는.)

107023 @ 옛날에도 끌령 먹어낫지예?(옛날에도 끓여서 먹었었지요?)

107023 # 아이구, 엿날엔 그것 막 맛잇엉 그것만 헤당 끌려먹지.(아이구, 옛날엔 그것 막 맛있어서 그것만 해다가 끓여먹지.)

107023 @ 가시리로도 국 끌립니까? 가시리국.(가시리로도 국 끓입니까? 가시리국.)

107023 # 가시리국은 끌리민이, 풀풀헌 게 맛잇져, 맛잇져 헤도 우린 너미 풀탁 허난 맛엇어 베라. 풀 나노난 풀이 나부난 거.(가시리국은 끓이면, 풀풀한 게 맛있다, 맛있다 해도 우린 너무 풀풀하니까 맛없어 보이더라. 풀 나버리니까 풀이 나버리니까 그거.)

107023 @ 그니까.(그니까.)

107023 # 그니까 우리는 맛이 벨로.(그니까 우리는 맛이 별로.)

107023 @ 응, 풀처럼 생기니까?(응, 풀처럼 생기니까?)

---

186) '신양리'는 서귀포시 성산읍 신양리다.

107023 # 응, 풀처럼 생견 그자 국 끌리난 풀풀 헤놓난. 가시리국 맛잇나, 맛잇나 헤도 우린 별로라.(응, 풀처럼 생겨서 그저 국 끓이니까 풀풀 해놓으니까. 가시리국 맛있어, 맛있어 해도 우린 별로야.)

107023 @ 아, 가시리국엔 무신거 놓는 거꽈? 가시리 말고?(아, 가시리국에 무엇 놓는 겁니까? 가시리 말고?)

107023 # 가시리 말곡 뭐 놓을 게 잇어게. 그자 쪽파나 헤당 ᄒᆞ쏠 썰어 놓으민 기자, 그거지. 겨곡 가시린 금방 푹 들이쳐근에 기냥 거리지 안허민 그냥 ᄒᆞ꼼 시민 풀풀 헤부는 따문에, 막 풀 나.(가시리 말고 뭐 놓을 게 있어. 그저 쪽파나 해다가 조금 썰어 놓으면 그저, 그거지. 그리고 가시린 금방 푹 들이쳐서 그냥 뜨지 않으면 그냥 조금 있으면 풀풀 하는 때문에, 막 풀 나.)

107023 @ 막 풀 낭예. 응.(막 풀 나서요. 응.)

107023 # 경헤부난, 난 흔엇이 벨로. 가시리국, 가시리국 허여도 벨로.(그러니까, 난 한엇이 별로. 가시리국, 가시리국 해도 별로.)

107023 @ 파래도 놩 국 끌립니까?(파래도 놔서 국 끓입니까?)

107023 # 파래 놩 국 끌려 먹지. 무쳐도 먹곡, 파래. 겐디 이딘 파래가 엇어.(파래 놔서 국 끓여서 먹지. 무쳐도 먹고, 파래. 그런데 여긴 파래가 없어.)

107023 @ 아, 이딘 엇어? 옛날에도 엇어난?(아, 여긴 엇어? 옛날에도 없었어?)

107023 # 겐디 여긴 파래 나는 디가 엇어. 아이고, 잇당 흔번이나 파래 강 어디 강 사오민 그거 국 끌렁 먹젠 허민 그자 무청 먹주. 이딘 파래 나는 디도 엇곡, 파래 비싸곡.(그런데 여긴 파래 나는 데가 없어. 아이고, 이따가 한번이나 파래 가서 어디 가서 사오면 그거 국 끓여서 먹으려고 하면 그저 무쳐서 먹지. 여긴 파래 나는데도 없고, 파래 비싸고.)

107023 @ 응.(응.)

107023 # 저 서구포 시장에나 가민, 어떵 요만이 헌 거 얼마, 얼마 허민 비싸근에.(저 서귀포 시장에나 가면, 어떻게 요만큼 한 거 얼마, 얼마 하면 비싸서.)

107023 @ 물훼.(물회.)

107023 # 물훼엔 헌 건?(물회라고 한 건?)

107023 @ 자리물훼, 뭐, 예, 한치물훼 요즘 막 허지 안헙니까? 냉국 같은 건데.(자리물회, 뭐, 예, 한치물회 요즘 막 하지 않습니까? 냉국 같은 건데.)

107023 # 응,(응.)

107023 @ 옛날에도 그런 거 헤 먹어난?(옛날에도 그런 거 해서 먹었었어?)

107023 # 한치물훼, 자리물훼, 우리냥으로도 헤 먹어.(한치물회, 자리물회, 우리대로도 해 먹어.)

107023 @ 옛날에?(옛날에?)

107023 # 응, 지금도, 자리 엇어부난 올린 자리 흔번 못 먹엇어. 우리가 자리 훼를 그렇게 잘 먹어져이.(응, 지금도, 자리돔 없어버리니까 올핸 자리돔 한번 못 먹었어. 우리가 자리돔회를 그렇게 잘 먹어.)

107023 @ 아.(아.)

107023 # 자리만 나가민 아이구 이놈의 자리 언제랑 낭. 자릴 물휄 먹어볼 건고. 올린 자리 ᄒᆞ나 구경을 못헷어. 원 자리가 안 나신ᄀᆞ라, 자리 장시 이디 계속 오는디, 원 올린 자리 장시도 ᄒᆞᆫ 번 나타나질 안허여.(자리돔만 나가면 아이구 이놈의 자리돔 언제랑 나서. 자리돔 물회를 먹어볼 건고. 올핸 자리돔 하나 구경을 못했어. 원 자리가 안 났는지, 자리돔 장사 여기 계속 오는데, 원 올해는 자리돔 장사도 한 번 나타나질 않아.)

107023 @ 자리물훼는 게민 어떵 헹 만들어 먹는 거꽈?(자리돔물회는 그러면 어떻게 해서 만들어 먹는 겁니까?)

107023 # 아, 자린 막 싱싱헌 때이, 비닐 다 거시려동[187], 막 즘질이 썰어.(아, 자리돔은 막 싱싱한 때, 비닐 다 '거시려'두고, 막 자잘하게 썰어.)

107023 @ 응.(응.)

107023 # 썰어 놓민 그것이 문딱 뒌장에 문 양념헤 놩, 국을 만드는 거라.(썰어 놓으면 그것이 모두 된장에 모두 양념해 놔서, 국을 만드는 거야.)

107023 @ 예.(예.)

107023 # 뒌장, 막 저 양념 다 헤 놔근엥에, 이제 국을 만들어 놩, 식초는 젤 내중에 놔.(된장, 막 저 양념 다 해놔서, 이제 국을 만들어 놔서, 식초는 젤 나중에 놔.)

107023 @ 아.(아.)

107023 # 경 안허민 자리 막 헤여케 익어불민 맛엇어. 겨는 따문에 뒌장에 문딱 뭐 마농이니 파니 문딱 썰엉, 뒌장 문 헤영 양념 무쳐근에, 자리훼 문딱 만들어 놔이. 물 놩.(그렇게 안 하면 자리돔 막 하얗게 익어버리면 맛없어. 그러는 때문에 된장에 모두 뭐 마늘이니 파니 모두 썰어서, 된장 모두 해서 양념 무쳐서, 자리돔회 모두 만들어 놔. 물 놔서.)

107023 @ 응.(응.)

107023 # 자리훼 문 만들어 놩, 그루후젠 식초를 쪼끔 놩 새콤허게 허는 거라. 경 그때 시원허게 먹주, 자리 먼저 식초 놔불믄 자리가 헤영 헤비엉 맛엇어.(자리돔회 모두 만들어 놔서, 그 후엔 식초를 조금 놔서 새콤하게 하는 거야. 그렇게 그때 시원하게 먹지, 자리돔 먼저 식초 놔버리면 자리돔이 하얗게 돼서 맛없어.)

107023 @ 아.(아.)

107023 # 겨난 막 자리훼 만드는 것도 여러 가지라. 멘들 줄 몰르는 사름은 문저 자리에 식초를 놓아 부는 거라.(그러니까 막 자리돔회 만드는 것도 여러 가지야. 만들 줄 모르는 사람은 먼저 자리돔에 식초를 놓아 버리는 거야.)

107023 @ 예, 나도 경.(예, 나도 그렇게.)

107023 # 식초 놔불민 자리가 헤영허게 밀싹밀싹 맛엇어. 겨난 뒌장 문딱 마농이고 파고, 다 헤영 저 설탕이고 뭐 양념헐 거 다 헤난 간 탁 맞추는 거라. 경허영 자리 놓고 휘휘 젓엉 그거 간을 맞춰.(식초 놔버리면 자리돔이 하얘서 물렁물렁 맛없어. 그러니까

187) '거시리다'는 칼 등으로 생선 비늘을 긁어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

된장 모두 마늘이고 파고, 다 해서 저 설탕이고 뭐 양념할 거 다 했던 간 딱 맞추는 거야. 그렇게 해서 자리 놓고 휘휘 저어서 그거 간을 맞춰.)

107023 @ 응.(응.)

107023 # 싱거우냐 짜냐 간 맞춰논 후제에, 초를 새콤허게 초를 놩 그땐 시원하게 먹는 거. 경 안허민 자리가 헤영 헤비영 맛엇어.(싱거우냐, 짜냐 간 맞춰놓은 후에, 식초를 새콤하게 초를 놔서 그땐 시원하게 먹는 거. 그렇지 않으면 자리가 하얘 버려서 맛없어.)

107023 @ 물훼할 때 뭐 제피나 이런 것도 놔?(물회할 때 뭐 초피나 이런 것도 놔?)

107023 # 제핀 놓는디, 우린 제핀 놩 제핀 맞질 안허더라. 제핏내 나난.(초피는 놓는데, 우린 초핀 놔서 초핀 맞지 않더라. 초피 냄새 나니까.)

107023 @ 아.(아.)

107023 # 막 제피 좋아하는.(아주 초피 좋아하는.)

107023 @ 좋아하는 사람들도 잇던데.(좋아하는 사람들도 있던데.)

107023 # 어린 땐 제피를 장에 묻엇당 먹어도 쿠숭헌 내가 난 맛이 잇엇는데, 입맛이 틀련 이젠 이 재핏내 못 마트크라. 이젠 내음새가 궂어.(어린 땐 초피를 장에 묻었다가 먹어도 구수한 냄새가 나서 맛이 있었는데, 입맛이 달라져서 이젠 이 초피 냄새 못 맡겠어. 이제 냄새가 나빠.)

107023 @ 아.(아.)

107023 # 혼번 제피 논 자리휄 먹으난, 아이구 나 이거 안 먹켜. 자리 못 먹켜, 제핏내가 궂어.(한번 초피 놓은 자리회를 먹으니까, 아이구 나 이거 안 먹겠어. 자리돔 못 먹겠어, 초피 냄새가 나빠.)

107023 @ 게난, 물훼는 게난 옛날도 헹 먹어난예, 이제사 헌 거 아니고예.(그러니까, 물회는 그러니까 옛날도 해서 먹었었어요, 이제야 한 거 아니고요.)

107023 # 아이구, 이제사 허는 거 아니. 엿날에도 헤 먹어. 게민 엿날에 우리 두린 땐, 저 계핏내[188]가 그렇게 맛이 좋아. 코소룽헌 게 계핏내 맛잇엉, 장에도 ᄒᆞ끔 놓민 장맛도 코숭허면 입맛이 틀린 거라, 그동안에이.(아이구, 이제야 하는 거 아니. 옛날에도 해 먹어. 그러면 옛날에 우리 어린 땐, 저 초피 냄새가 그렇게 맛이 좋아. 고소한 게 초피 냄새가 그렇게 맛이 좋아. 고소한 게 초피 냄새 맛있어서, 장에도 조금 놓으면 장맛도 고소하면 입맛이 다른 거야, 그동안에.)

107023 @ 응.(응.)

107023 # 이젠 계핏네 나는 건 먹기 싫어. 이것도 이디 계핏낭 잇어, 이디도 큰 거.(이젠 초피냄새 나는 건 먹기 싫어. 이것도 여기 계피나무 있어, 여기도 큰 거.)

107023 @ 계피엔 허여, 제피엔 허여?(‘계피’라고 해, ‘제피’라고 해?)

107023 # 계피.(‘계피’.)

107023 @ 계피?(‘계피’?)

107023 # 응.(응.)

188) ‘계피’는 초피를 뜻하는 제주어 ‘제피’를 잘못 발음한 것 같다.

107023 @ 옛날에 저 양념들 엇일 때는, 물훼 허젠 허민 어떵헙니까?(옛날에 저 양념들 없을 때는, 물회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107023 # 양념 엇이멍 말멍 그자 쪽파.(양념 없으면서 말면서 그저 쪽파.)

107023 @ 응.(응.)

107023 # 그거 그거나 썰어 놓곡, 그자 꿰꼬루나 ᄒᆞ끔 놓고, 그것에 뒌장에 헤영, 헤 놔근에 나중에 초 놓으민 그자 그걸로 그거지.(그거 그거나 썰어 놓고, 그저 깻가루나 조금 놓고, 그것에 된장에 해서, 해 놔서 나중에 초 놓으면 그저 그걸로 그거지.)

죽류

107024 @ 응, 이번에는 죽, 죽은 무신 죽, 무신 죽 헹 먹어낫수과, 옛날에?(응, 이번에는 죽, 죽은 무슨 죽, 무슨 죽 해서 먹었었습니까, 옛날에?)

107024 # 콩죽도 끌령 먹곡이, 풋죽도 끌러 먹고, 콩죽, 풋죽 끌려 먹고 또 그냥 저 좁쏠 놔근에 건 미음 딸리는 거.(콩죽도 끓여서 먹고, 팥죽도 끓여 먹고, 콩죽, 팥죽 끓여 먹고 또 그냥 저 좁쌀 놔서 그건 미음 달이는 거.)

107024 @ 예.(예.)

107024 # 미음 아픈 사람들 미음 딸리젠 모인좁쏠 놩 막 오래 딸리민 물이 풀풀헤여이.(미음 아픈 사람들 미음 달이려고 메조 놔서 아주 오래 달이면 물이 풀풀 해.)

107024 @ 예.(예.)

107024 # 경허민, 싹 걸러 둬근에 그 미음만 막 아팡 뭐 못 먹는 사람덜이 경허민 그거 미음 걸러 놔.(그러면, 싹 걸러 두고 그 미음만 아주 아파서 뭐 못 먹는 사람들이 그러면 그거 미음 걸러 놔.)

107024 @ 응.(응.)

107024 # 그 좁쏠 그 흐린좁쏠 말고 모인좁쏠 놩 폭 끌리민 물이 부영 폴폴허민 걸싹 걸러.(그 좁쌀 그 차조 말고 메조 놔서 폭 끓이면 물이 뿌예져서 풀풀하면 그걸 싹 걸러.)

107024 @ 응.(응.)

107024 # 걸러동 그거 그 음식 못 먹는 사름덜 그 미음만 헤영 입드레 거려놓는 거. 그거고. 죽 써 먹는 것도 그것도 고구마 놓곡, 좁쏠 놩 죽도 쒀, 죽 쑤민 가르륵허민 이 고구마를 막 데겨. 데경 허민이 그 죽이 맛이 잇어. 고구마 놩 죽 쑨 거.(걸러두고 그거 그 음식 못 먹는 사람들 그 미음만 해서 입으로 떠놓는 거. 그거고. 죽 쑤어 먹는 것도 그것도 고구마 놓고, 좁쌀 놔서 죽도 쒀, 죽 쑤면 가르륵하면 이 고구마를 막 문대. 문대서 하면 그 죽이 맛이 있어. 고구마 놔서 죽 쑨 거.)

107024 @ 감저 놩? 감저허고 무신거 놔?(고구마 놔서? 고구마하고 무엇 놔?)

107024 # 좁쏠 놩 죽 쒀.(좁쌀 놔서 죽 쒀.)

107024 @ 그걸로 죽 쒀마씨? 아, 밥이 아니고?(그걸로 죽 쒀요? 아, 밥이 아니고?)

107024 # 응, 죽 쒀, 것도. 경헹 그거 죽 쑤엉 고구마 놩, 고구마 똑똑똑똑 데겨 놓

민 죽 맛이, 맛이 잇어.(응, 쭉 쒀, 그것도. 그래서 그거 죽 쑤어서 고구마 놔서, 고구마 똑똑똑똑 문대서 놓으면 죽 맛이, 맛이 있어.)

107025 @ 응, 흰죽도 쑵니께?(응, 흰죽도 쑤잖습니까?)

107025 # 흰죽은 저 곤쌀 놩근에 흰죽 쑨다, 죽 우린 흰죽 쒕 못 먹나.(흰죽은 저 흰쌀 놔서 흰죽 쑨다, 죽 우린 흰죽 쒀서 못 먹어.)

107025 @ 맛엇어?(맛없어?)

107025 # 난 죽이엔 헌 건 질색이라.(난 죽이라고 한 건 질색이야.)

107025 @ 안 좋아헤?(안 좋아해?)

107025 # 막 흰죽 좋아하는 사름은 좋아헤여. 이 저, 쌀 놩 헤엿게 죽 쑨 거. 아무것도 안 논 거.(막 흰죽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해. 이 저, 쌀 놔서 하얗게 죽 쑨 거. 아무것도 안 놓은 거.)

107025 @ 곤죽이엔 허여? 흰죽이엔 허여?('곤죽'이라고 해? 흰죽이라고 해?)

107025 # 흰죽이엔도 허곡, 곤죽이엔도 허곡 허여. 엿날 어른들은 곤죽 쒕 곤죽 쒕 허멍.('흰죽'이라고도 하고, '곤죽'이라고도 하고 해. 옛날 어른들은 흰죽 쑤어서 흰죽 쑤어서 하면서.)

107025 @ 그럼 옛날 어른들은 곤죽?(그럼 옛날 어른들은 흰죽?)

107025 # 응, 곤죽, 요신 흰죽, 흰죽인디,(응, '곤죽', 요샌 흰죽, 흰죽인데.)

107025 @ 옛날 말은 곤죽예.(옛날 말은 흰죽요.)

107025 # 엿날 말은 쏠 놩 죽 쑤는 거, 곤죽 쒕 아이들 주어사주.(옛날 말은 쌀 놔서 죽 쑤는 거, 흰죽 쑤어서 아이들 주어야지.)

107025 @ 그건 이젠 아픈 사람이야 곤죽 먹주마는, 옛날에는 어떵헐 때 곤죽 먹어 낫수과?(그건 이젠 아픈 사람이야 흰죽 먹지마는, 옛날에는 어떻게 할 때 흰죽 먹었었습니까?)

107025 # 엿날도 아픈 사름이나.(옛날도 아픈 사람이나.)

107026 @ 아.(아.)

107026 # 입맛 엇인 사름이나.(입맛 없는 사람이나.)

107026 @ 아.(아.)

107026 # 죽이나 ᄒᆞ끔 영 아팡, 뭐 먹쿠과? 뭐 먹을 거 ᄀᆞᆯ읍서, 허민.(죽이나 조금 이렇게 아파서, 뭐 먹겠습니까? 뭐 먹을 거 말하세요, 하면.)

107025 @ 아.(아.)

107025 # 죽이나 ᄒᆞᆫ 직 쑤어 도라, 흰죽이나 ᄒᆞᆫ 직 쑤어 도라, 거나 먹어보켜 허민, 그거주. 흰죽 경 ᄒᆞᆫ엇이 맛이 엇주게.(죽이나 한 숟가락 쑤어 달라, 흰죽이나 한 숟가락 쑤어 달라, 그거나 먹어보겠다 하면, 그거지. 흰죽 그렇게 한없이 맛이 없지.)

107026 @ 예. 게난 아깐 좁쌀 미음 헌 게 조죽이주예? 조축예?(예. 그러니까 아깐 좁쌀 미음 한 게 조죽이지요? 조죽요?)

107026 # 좁쏠 놔근에 아픈 사람 무시거 음식 못 먹을 때에, 야, 미음이라도 쒕 입드레 놔보라. 헐 때에.(좁쌀 놔서 아픈 사람 무엇 음식 못 먹을 때, 야, 미음이라도 쑤어

서 입에 넣어 봐라. 할 때에.)

107026 @ 그땐 좁쏠로?(그땐 좁쌀로?)

107026 # 좁쏠 혼 방울 놔근에, 폭 끌리민 물이 뽀영 폴폴헤여. 폴폴허민 이거 걸렁 쏠 걸러비둬근에 그거만 헤당.(좁쌀 한 방울 놔서, 푹 끓이면 물이 뿌옇고 폴폴해. 폴폴하면 이거 걸러서 쌀 걸러버리고 그거만 해다가.)

107026 @ 아.(아.)

107026 # 입드레, 미음 딸렛수다, 미음 ᄒᆞ쏠 입드레 놉서. 경 아픈 사름, 게영 이것이 좁쏠 미음이여. 입에 구미 ᄃᆞᆼ겨, 곤쏠보다.(입에, 미음 달였습니다, 미음 조금 입에 놓으세요. 그렇게 아픈 사람, 그렇게 해서 이것이 좁쌀 미음이야. 입에 구미 당겨, 흰쌀보다.)

107026 @ 아.(아.)

107026 # 이게, 이게, 입맛일 땡기는 거야, 이게.(이게, 이게, 입맛이 당기는 거야, 이게.)

107026 @ 좁쏠 미음이?(좁쌀 미음이?)

107026 # 응, 응, 좁쏠 미음이. 겨난 이 미음 ᄒᆞ쏠 먹어봅서. 입맛 ᄃᆞᆼ겨사 질 디사, 영헤영 미음을 ᄒᆞ쏠 먹어 가민.(응, 응, 좁쌀 미음이. 그러니까 이 미음 조금 먹어보세요. 입맛 당겨야 질 지야, 이렇게 해서 미음을 조금 먹어 가면.)

107026 @ 아, 좁쏠 미음이.(아, 좁쌀 미음이.)

107026 # 입맛 ᄃᆞᆼ경 밥 ᄒᆞ쏠 도라 허는 사람도 잇어.(입맛 당겨서 밥 조금 달라 하는 사람도 있어.)

107026 @ 아.(아.)

107026 # 이 좁쏠 미음이 입에 입맛을 땡기는 거라, 이게.(이 좁쌀 미음이 입에 입맛을 당기는 거야, 이게.)

107026 @ 응.(응.)

107026 # 경허민 ᄒᆞ쏠 덜 먹어 그냥 쏠차 ᄂᆞ리는 사람 잇곡, 경 안허는 사름은 쏠 걸러동.(그러면 조금 덜 먹어 그냥 쌀째 내리는 사람 있고, 그렇게 안하는 사람은 쌀 걸러두고.)

107026 @ 그 국물만.(그 국물만.)

107026 # 그 미음만 풀풀허게 헤근에 강 입드레 강 거려놓곡 경허민, 것이 입맛 또 땡경 미음 ᄒᆞ쏠 쑤어 도라 헐 땐 또 쏠 놔근엥에 그거 또 끌려 안네곡 경허주.(그 미음만 풀풀하게 해서 가서 입에 가서 떠놓고 그러면, 그것이 입맛 또 당겨서 미음 조금 쑤어 달라 할 땐 또 쌀 놔서 그거 또 끓여 드리고 그러지.)

107027 @ 풋죽은 어떵할 때 먹는 거?(팥죽은 어떻게 할 때 먹는 거?)

107027 # 풋죽은 기냥 이녁 놀당이라도 먹고 싶으믄 우리 풋죽 쒕 먹게 헹, 또 풋 놩 쑤엉도 먹곡, 엿날엔 영장밧듸.(팥죽은 그냥 자기 놀다가라도 먹고 싶으면 우리 팥죽 쑤어서 먹게 해서, 또 팥 놔서 쑤어서도 먹고, 옛날엔 장지에서.)

107027 @ 아.(아.)

107027 # 영장 나민, 우리가 시집을 갈 거 아니야, 게민 시아바지가 돌아가셔이.(상나면, 우리가 시집을 갈 거 아니야, 그러면 시아버지가 돌아가셔.)

107027 @ 응.(응.)

107027 # 돌아가민 우리 친정어머니가 나 조름으로 죽을 흔 허벅 쑤어가는 거야.(돌아가면 우리 친정어머니가 나 뒤로 죽을 한 동이 쒀가는 거야.)

107027 @ 풋죽으로?(팥죽으로?)

107027 # 풋죽으로. 허벅이엔 허는 거 열 뒈 들이 허벅이 잇어. 영 부리 요만이 줄아진 거. 허벅 잇지이?(팥죽으로. 허벅이라고 하는 거 열 되 들이 동이가 있어. 이렇게 부리 요만큼 줄어드는 거. 동이 있지?)

107027 @ 예.(예.)

107027 # 박물원에 가면, 그런 것에 담앙 지엉 가. 이제 경허민, 나 조름에 어멍이여라 개 이제. 족은어멍도 잇곡, 큰어멍도, 셋어멍도. 영허면 죽이 네 허벅썩 들어가이.(박물관에 가면, 그런 것에 담아서 져서 가. 이제 그러면, 나 뒤에 어머니가 여러 개 이제. 작은어머니도 있고, 큰어머니도 있고, 둘째어머니도. 이러면 죽이 네 허벅씩 들어가.)

107027 @ 아, 응.(아, 응.)

107027 # 나 조름에. 또 아무도 엇인 사름은 또 죽 흔 허벅 들어가. 엿날엔이 사름이 딱 죽으민 이제는 상복을 다 맞춰 입잖아.(나 뒤에. 또 아무도 없는 사람은 또 죽 한 동이 들어가. 옛날엔 사람이 딱 죽으면 이제 상복을 다 맞춰서 입잖아.)

107027 @ 예.(예.)

107027 # 상제가, 애기들이 열 오누이민 그 상제 조름에 다 옷을 헤사 뒈여.(상제가, 애기들이 열 오누이면 그 상제 뒤에 다 옷을 해야 돼.)

107027 @ 응.(응.)

107027 # 복옷을.(상복을.)

107027 @ 응.(응.)

107027 # 겨민 동네 사름들이 다 모여드는 거라. 자, 두루막 헤야 허지, 치마 헤여야 허지, 두건 접아야지, 다 허젱 허민 상제가 여라이민 동네 사름이 다 모영 손으로 허젱 허민 ᄒᆞ루종일 허젱 허민 상에서 밥을 못 헤놔. 경허민 죽 들어가는 걸로 다 주는 거라 이제. 먹으렌, 그걸로.(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드는 거야. 자, 두루마기 해야 하지, 치마 만들어야 하지, 두건 만들어야지, 다 하려고 하면 상제가 여럿이면 동네 사람이 다 모여서 손으로 하려고 하면 하루 종일 하려고 하면 상에서 밥을 못 해놔. 그러면 죽 들어가는 걸로 다 주는 거야 이제. 먹으라고, 그걸로.)

107027 @ 아, 음.(아, 음.)

107027 # 엿날엔 경헤영 큰일밧듸 초상난 디 죽 쒀나가는 거. 풋죽 쒕.(옛날엔 그렇게 해서 큰일 난 데 초상 난 데 죽 쒀가는 거. 팥죽 쒀서.)

107027 @ 응, 풋죽.(응, 팥죽.)

107027 # 누게 죽엇져 허민 아이고 풋죽 나오랏구나, 그거. 아무 사름 죽엇젠 허민

오라 어따, 풋죽 나와신게, 그거라. 그런디 이젠 풋죽 안 쒀.(누구 죽었다 하면 아이고 팥죽 나왔구나, 그거. 아무 사람 죽었다고 하면 와라 '어따', 팥죽 나왔네, 그거야. 그런데 이젠 팥죽 안 쒀.)

107027 @ 응.(응.)

107027 # 풋죽 먹지도 안허곡, 그자 상에 올릴 거 그날 섭섭허민 식당으로 그 거시기 논 디. 신체 논 딜로 글로 가근엥에 식당으로 강 죽 ᄒᆞ쏠 쒀근에, 상에 올리긴 헤여. 성복 전에.(팥죽 먹지도 않고, 그저 상에 올릴 거 그날 섭섭하면 식당으로 그 거시기 놓은 데. 신체 놓은 데로 그리로 가서 식당으로 가서 죽 조금 쒀서, 상에 올리긴 해. 성복 전에.)

107027 @ 성복 전이?(성복 전에?)

107027 # 응, 성복 전이 밥을 안헌다고. 엿날 어른들.(응, 성복 전에 밥을 않는다고, 옛날 어른들.)

107027 @ 요번이 요번에 우리도 누게 죽으난에 식당에서 풋죽 쒕 줍디다.(요번에 요번에 우리도 누구 죽으니까 식당에서 팥죽 쑤어서 주던데요.)

107027 # 게, 그거.(그렇지, 그거.)

107027 @ 아예 그냥 그디 친척들예, 이신 사름덜.(아예 그냥 거기 친척들요, 있는 사람들.)

107027 # 성복 전에 풋죽 줘.(성복 전에 팥죽 줘.)

107027 @ 게난 풋죽 헹 아예 식당에서예.(그러니까 팥죽 해서 아예 식당에서요.)

107027 # 밥을 못, 성복 전에 밥을 안 먹으니까, 엿날 어른덜도 어둑운 시절이주. 성복 전에 밥, 상에 밥을 아니 올리니까, 우리 사름덜도 밥을 먹지 말라이, 경헹 풋죽으로 먹는 거, 성복 전에.(밥을 못, 성복 전에 밥은 안 먹으니까, 옛날 어른들도 어두운 시절이지. 성복 전에 밥, 상에 밥을 안 올리니까, 우리 사람들도 밥을 먹지 말라, 그래서 팥죽으로 먹는 거, 성복 전에.)

107027 @ 동짓날도 풋죽 쒀 먹는 거?(동짓날 팥죽 쒀 먹는 거?)

107027 # 응, 동짓날 풋죽 쒀 먹는 거.(응, 동짓날 팥죽 쒀 먹는 거.)

107027 @ 건 무사 동짓날 헤 먹는 거?(그건 왜 동짓날 해 먹는 거?)

107027 # 몰라, 엿날에 풋죽 쒀 먹엇젠 헤도. 요샌이 절간 ᄀᆞ튼 딘 풋죽 쒀. 풋죽 쑤는 디? 풋죽 쒕 먹겐 허당도 에에에, 엿날 식이여.(몰라, 옛날엔 팥죽 쒀 먹었다고 해도. 요샌 절 같은 덴 팥죽 쒀. 팥죽 쑤는 데? 팥죽 쑤어서 먹자고 하다가도 에에에, 옛날 식이야.)

107028 @ 하하하.(하하하.)

107028 # 안 쒀, 이젠, 게난.(안 쒀, 이젠, 그러니까.)

107028 @ 콩죽도 쒕 먹어낫수과?(콩죽도 쑤어서 먹었었습니까?)

107028 # 콩죽 쒀 먹어.(콩죽 쒀 먹어.)

107028 @ 콩죽은 어떵헹 허는 거꽈?(콩죽은 어떻게 해서 하는 겁니까?)

107028 # 콩도 콩ᄀᆞ루 골앙 셍차 골아사 맛이 나이, 그것도.(콩도 콩가루 갈아서 생

째 갈아야 맛이 나, 그것도.)

107028 @ 그 콩국 허는 그 ᄀᆞ룬가?(그 콩국 하는 그 가룬가?)

107028 # 응, 응, 그 ᄀᆞ루. 그 ᄀᆞ루 헤여근엥에 쏠에 놩 ᄀᆞ치 놩 서껑 쑤민이 콩죽도 맛잇어. 콩 ᄀᆞᆯ아근에.(응, 응, 그 가루. 그 가루 해서 쌀에 놔서 같이 놔서 섞어서 쑤면 콩죽도 맛있어. 콩 갈아서.)

107028 @ 응.(응.)

107028 # 콩 ᄀᆞᆯ앙 그것도 ᄀᆞ루로 ᄀᆞᆯ아사.(콩 갈아서 그것도 가루로 갈아야.)

107028 @ ᄀᆞ루로 ᄀᆞᆯ앙예?(가루로 갈아서요?)

107028 # 응, ᄀᆞ루로 ᄀᆞᆯ앙, 경헹 콩죽 쒀 먹는 거주. 쏠에 콩에 흔듸 놩 오래오래 딸리당 보민 죽이 뒈여. 이건 뭐 뚜루도 아니여. 경헹 쑤는 거.(응, 가루로 갈아서, 그래서 콩죽 쒀 먹는 거지. 쌀에 콩 함께 놔서 오래오래 달이다 보면 죽이 돼. 이건 뭐 따로도 아니야. 그래서 쑤는 거.)

107028 @ 그냥 홈치 놩?(그냥 한꺼번에 놔서?)

107028 # 응, 홈치 놩 그자.(응, 한꺼번에 놔서 그저.)

107029 @ 모멀죽?(메밀죽?)

107029 # 모멀죽은 간단허여, 이거. 모멀쏠은이 물 바글바글바글 궤여가민 모믈쏠영 줍아놩 휘휘 젓어근에 허민, 이건 풀풀 딸려 불민 맛이 엇어.(메밀죽은 간단해, 이거. 메밀쌀은 물 바글바글바글 끓어가면 메밀쌀 이렇게 집어넣어서 휘휘 저어서 하면, 이건 풀풀 달여 버리면 맛이 없어.)

107029 @ 아.(아.)

107029 # 쏠 ᄐᆞ루, 물 ᄐᆞ루 허여도 쏠만 쪼끔 풀어지민 기냥 먹주, 이 콩죽ᄀᆞ치 이거 풀풀 딸려 불민 맛이 엇어.(쌀 따로, 물 따로 해도 쌀만 조금 풀어지면 그냥 먹지, 이 콩죽같이 이거 풀풀 달여 버리면 맛이 엇어.)

107029 @ 아, 모멀죽은?(아, 메밀죽은?)

107029 # 응, 모멀죽은.(응, 메밀죽은.)

107029 @ 모멀죽은 언제 먹는 거꽈?(메밀죽은 언제 먹는 겁니까?)

107029 # 거 아무 때라도 이녁 먹구적 허민 쒕 먹곡, 경 아무 때나 먹는 거. 건 무신 날 출령 아이 먹는 거. 이녁 먹구적 허민, 모멀죽 ᄒᆞ쏠 쒕 먹을 거. 경 안허민 말 거. 모멀죽은 베랑 쒀 먹젠들 안허여. 쒕 먹젠 안허여.(그거 아무 때라도 자기 먹고자 하면 쒀서 먹고, 그렇게 아무 때나 먹는 거. 그건 무슨 날 차려서 안 먹는 거. 자기 먹고자 하면, 메밀죽 조금 쒀서 먹을 거. 그렇지 않으면 말 거. 메밀죽은 별로 쒀서 먹으려고들 안 해. 쒀서 먹으려고 안 해.)

107030 @ 아. 녹디죽.(아. 녹두죽.)

107030 # 녹디는 약제라이, 이거이. 듹 잡아먹을 때도 듹 소곱에도 놩 먹곡, 그냥 녹디 놩 녹디죽도 그냥 쑤엉 먹어 그 듹에 놩 그냥 쑤엉 먹곡. 이녁이 먹고 싶으민 그건 풋죽ᄀᆞ치 아무 때라도 녹디죽이라도 쒕 먹곡, 특히 이거 저 듹 소곱이 배에 담아근에 이 듹을 제헌덴 헤라. 듹에 독을 제헌덴 허영.(녹두는 약제야, 이거. 닭 잡아먹을 때도

닭 속에도 놔서 먹고, 그냥 녹두 놔서 녹두죽도 그냥 쒀서 먹어 그 닭에 놔서 그냥 쒀서 먹고. 자기가 먹고 싶으면 그건 팥죽같이 아무 때라도 녹두죽이라도 쒀서 먹고, 특히 이거 저 닭 속에 배에 담아서 그 닭을 제한다고 하더라. 닭의 독을 제한다고 해서.)

107030 @ 아, 녹디가?(아, 녹두가?)

107030 # 응, 녹디가. 경헹 이 대충 보민이, 통, 저 무시거니, 무신 삼계탕? (응, 녹두가. 그래서 이 대충 보면, 통, 저 무엇이냐, 무슨 삼계탕?)

107030 @ 응.(응.)

107030 # 그런 디도 그 녹디가 들어가.(그런 데도 그 녹두가 들어가.)

107030 @ 이디 교례리[189] 가민? 응, 녹디죽도 헤줘.(여기 교례리 가면? 응, 녹두죽도 해줘.)

107030 # 그 삼계탕에도 녹디 들어가. 그거 독을 제헌덴 허근에.(그 삼계탕에도 녹두 들어가. 그거 독을 제한다고 해서.)

107030 @ 아, 이런 녹디죽할 때는 녹디영 쏠이영 홈치 놓민 녹디 안 풀어지지 안헤? 먼저 솖아야 뒈여?(아, 이런 녹두죽할 때는 녹두랑 쌀이랑 함께 놓으면 녹두 안 풀어지잖아? 먼저 삶아야 돼?)

107030 # 녹디가 ᄒᆞ쏠 ᄆᆞᆫ저 놔. 경헌디 쏠이 ᄀᆞ치 놓나 이 압력솟이난 다 풀어져 이제.(녹두가 조금 먼저 놔. 그런데 쌀이 같이 놓거나 이 압력솥이니까 다 풀어져 이제.)

107030 @ 아니, 옛날에, 옛날 압력솟 엇일 때.(아니, 옛날에, 옛날 압력솥 없을 때.)

107030 # 압력솟 엇일 때도이, 그냥 녹디 ᄀᆞ치 봉 흔듸 딸려.(압력솥 없을 때도, 그냥 녹두 같이 놔서 함께 달여.)

107030 @ 아, ᄯᅳ로 솖지 안허영?(아, 따로 삶지 않고?)

107030 # 응, ᄯᅳ로 안 솖아.(응, 따로 안 삶아.)

107031 @ 게민 아까 닭죽 그 녹디 놔근에 헌 닭죽은, ᄃᆞᆨ죽은예, 엿날에도 쒕 먹어낫주예?(그러면 아까 닭죽 그 녹두 놔서 한 닭죽은, 닭죽은요, 옛날에도 쒀서 먹었었지요?)

107031 # 엿날에도 헷주, 엿날엔 죽도 쑤엉 먹곡, 아녀민 엿날에 밀ᄀᆞ루 헤어근에 수제비 접아 봉, ᄃᆞᆨ 솖앙 수제비를 접아놔근에 수제비도 ᄃᆞᆨ에, 수제비 ᄃᆞᆨ 솖아난 물에 수제비도 헹 먹곡.(옛날에도 했지, 옛날엔 죽도 쒀서 먹고, 안 하면 옛날에 밀가루 해서 수제비 집어 놔서, 닭 삶아서 수제비를 집어 놔서 수제비도 닭에, 수제비 닭 삶았던 물에 수제비도 해서 먹고.)

107031 @ 아, 옛날에도? 오.(아, 옛날에도? 오.)

107031 # 옛날은 요즘은 ᄃᆞᆨ이 많이 질뢍 양계장 헷지. 엿날에는 개인으로 ᄃᆞᆨ을 질룬 거라이.(옛날은 요즘은 닭이 많이 길러서 양계장 했지. 옛날에는 개인으로 닭을 기른 거야.)

107031 @ 예, 집이서예.(예, 집에서요.)

107031 # 집이서 빙아리 깨와근에 허민, ᄃᆞᆨ 잘허민 ᄒᆞᆫ 대여섯 사는디 ᄃᆞᆨ 두 마리 즈

189) '교래리'는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를 말한다.

음 잘 잡으민 하영 잡앙, 하영 잡앗젠 헌디 혼 여섯 사름 사는디 세 개쯤, 두 개쯤 잡아. 겨민 그놈을 토종닭이난 오래오래 솖아야 헤여이. 압력솟 아니곡 허난, 오래 솖아 놓민, 그 솖아난 물에 수제비 떠다놔근엥에 그 수제비에, 수정 한 디쯤은 닭 혼 다리도 채여 놓곡, 놀개 ᄒᆞ나도 채어 놓곡 경 허멍 먹엇지 요새추룩, 아이고 어느 절에 통닭 사당 먹곡.(집에서 병아리 깨워서 하면, 닭 잘하면 한 대여섯 사는데 닭 두 마리쯤 잘 잡으면 많이 잡아서, 많이 잡았다고 하는데 한 여섯 사람 사는 데 세 개쯤, 두 개쯤 잡아. 그러면 그놈을 토종닭이니까 오래오래 삶아야 해. 압력솥 아니고 하니까, 오래 삶아 놓으면, 그 삶았던 물에 수제비 떠다놔서 그 수제비에, 숫자 많은 데쯤은 닭 한 다리도 찢어 놓고, 날개 하나도 찢어 놓고 그렇게 하면서 먹었지 요새처럼, 아이고 어느 겨를에 통닭 사다가 먹고.)

107031 @ 하하하하, 응.(하하하하, 응.)

107031 # 쯧쯧, 일 년에 잘 허민 닭궤기 혼 번 먹젠 허민 일 년에 혼 번이나.(쯧쯧, 일 년에 잘하면 닭고기 한 번 먹으려고 하면 일 년에 한 번이나.)

107031 @ 응.(응.)

107031 # 유월들 유월 스무날 뒈면은.(유월달 유월 스무날 되면은.)

107031 @ 응, 닭 잡아먹는 날, 응.(응, 닭 잡아먹는 날, 응.)

107031 # 음력 유월 스무날 뒈면 닭 먹는 날이엔 허멍, 그때 허민 닭 엇인 사름은 닭 질르지 못헌 사름은 닭 혼 ᄆᆞ리 쪼끄만헌 닭 혼 ᄆᆞ리에 검질 ᄒᆞ루 강 메여줭 그거 혼 ᄆᆞ리 빌어 오는 거라, 옛날에.(음력 유월 스무날 되면 닭 먹는 날이라고 하면서, 그때 하면 닭 없는 사람은 닭 기르지 못한 사람은 닭 한 마리 조그마한 닭 한 마리에 김 하루 가서 매어줘서 그거 한 마리 빌려 오는 거야, 옛날에.)

107031 @ 아, 응.(아, 응.)

107031 # 경허민, 이틀 강 메사 닭 쬐끄만헌 닭, 두 개 빌어오민 수끼 한 디쯤은 그거 부모들 영 허는 거 보민 애기들 한 부모들은이.(그러면, 이틀 가서 매야 닭 조그마한 닭, 두 개 빌어 오면 식구 많은 데 쯤은 그거 부모들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아기들 많은 부모들은.)

107031 @ 응.(응.)

107031 # 닭궤기 혼 번 입에 못 놔봐, 문딱.(닭고기 한 번 입에 못 놔봐, 모두.)

107031 @ 에이고.(에이고.)

107031 # 이놈도 혼 방울, 저놈도 혼 방울. 영영 갈라주곡, 또 이게 남편네 나신이 이녁 신랑 나신 이제 우리 집안이민 대통령이라, 바로.(이놈도 한 방울, 저놈도 한 방울. 이렇게 이렇게 갈라주고, 또 이게 남편 몫은 자기 신랑 몫은 이제 우리 집안이면 대통령이야, 바로.)

107031 @ 맞아.(맞아.)

107031 # 그래 각이나 날개나 ᄒᆞ나 똑 ᄀᆞ진 채로 떼엉 놔불민 그자 그거 기자 영영 영 술로 떼멍 그자 그 수제비 통드레 혼빨썩, 혼빨썩 접아놓멍 주주. 그거 닭다리 ᄒᆞ나.(그게 다리나 날개나 하나 꼭 온전한 채로 떼어서 놔버리면 그저 그거 그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살로 떼면서 그저 그 수제비 통에 조금씩, 조금씩 집어놓으면서 주지. 그거 닭다리 하나.)

107031 @ 하하하하.(하하하하.)

107031 # 참여허곡, 그냥 솖아난, 울롸난 물.(참여하고, 그냥 삶았던, 우려낸 물.)

107031 @ 응.(응.)

107031 # 애기 한 쉬 엿날 어른들 말이 잇어이. 애기 한 디 물 그린덴. 요신 애기들을 하영 안 날 때난 허곡, 엿날은 생긴 대로 다 나노난 열 오누이, 열흔 오누이, 열두 오누이 경 허는디, 어느 절에 먹을 것도 엇인디, 어멍은 궤기국을 끌려도 국물이나 먹주, 어느 절에 건지 흔번 먹는 걸 못 봐서. 수정 한 디.(아기 많은 '쉬' 옛날 어른들 말이 있어. 아기 많은 데 물 그립다고. 요샌 아기들을 많이 안 낳을 때니까 하고, 옛날은 생긴 대로 다 낳아 놓으니까 열 오누이, 열한 오누이, 열두 오누이 그렇게 하는데, 어느 겨를에 먹을 것도 없는데, 어머니는 고깃국을 끓여도 국물이나 먹지, 어느 겨를에 건더기 한번 먹는 걸 못 봤어. 숫자 많은 데.)

107031 @ 아까, 거난 뭐 애기 한 디 무신거라?(아까, 그러니까 뭐 아기 많은 데 무엇이야?)

107031 # 애기 한 쉬에 물 그린덴, 엿날 어른들.(아기 많은 '쉬'에 물 그립다고, 옛날 어른들.)

107031 @ 애기 한 쉬에.(아기 많은 '쉬'에.)

107031 # 물그린다!(물 그립다!)

107031 @ 그게 무신 말이꽈? 물 그리는 게?(그게 무슨 말입니까? 물 그리운 게?)

107031 # 애기 한 쉬엔 물 그린덴 허난, 자식이 하면은 먹을 차 걸 못 먹나, 이거 먹구적허는 걸 다 못 먹나 허는 거여, 이게. 의미를 생각허민 내가 먹구적헌 걸 저 아기들 생각허는 게, 먹구적헌 걸 못 먹나 이거여. 못 얻어먹나 이거여.(아기 많은 '쉬'에는 물 그립다고 하니까, 자식이 많으면 먹을 때 것을 못 먹는다, 이거 먹고싶은 걸 다 못 먹는다 하는 거야, 이게. 의미를 생각하면 내가 먹고 싶은 걸 저 아기들 생각하는 게, 먹고 싶은 걸 못 먹는다 이거야. 못 얻어먹는다 이거야.)

107031 @ 응.(응.)

107031 # 지금 나 곧듯이 둑을 수정 한 디, 요신 둑 돈만 아졍가민 얼마든지 사다 먹지마는, 그땐 돈 들러도 둑을 못 사 먹으난, 둑 흔 ᄆᆞ리쯤 수정 한 디 허민 그 울롸난 물도 흔 직 졸바로 못 얻어먹어이.(지금 나 말하듯 닭을 숫자 많은 데, 요새는 닭 돈만 가져가면 얼마든지 사다 먹지마는, 그땐 돈 들어도 닭을 못 사먹으니까, 닭 한 마리쯤 숫자 많은 데 하면 그 우렸던 물도 한 숟가락도 제대로 못 얻어먹어.)

107031 @ 응.(응.)

107031 # 무시거 둑 흔 ᄆᆞ리 잡으민 무시거 흔빨씩 주멍 요레도 흔빨, 요레 흔뿔 열 개 갈라봐. 얼마나 어멍 찍새 고기가 가느냐?(무엇 닭 한 마리 잡으면 무엇 조금씩 주면서 요리도 조금, 요리도 조금 열개 갈라봐. 얼마나 어머니 몫 고기가 가니?)

107031 @ 거난 물 한 쉬에.(그러니까 물 많은 '쉬'에.)

107031 # 물? 애기 한 쉬에.(물? 아기 많은 '쉬'에.)

107031 @ 애기 한 쉬에 물그린다.(아기 많은 '쉬'에 물 그립다.)

107031 # 물그린다 이거여.(물 그립다 이거야.)

107031 @ 애기 한 쉬는 뭐라 쉬?(아기 많은 '쉬'는 뭐야 '쉬'?)

107031 # 애기 한 쉬에 물 그린다 허는 건, 예를 들르민 자식 한 사름이 물을 그린다 이거여. 먹구적헌 거 못 얻어먹나 이걸로.(아기 많은 '쉬'에 물 그립다 하는 건, 예를 들면 자식 많은 사람이 물을 그리워한다 이거야. 먹고 싶은 거 못 얻어먹는다 이걸로.)

107031 @ 응.(응.)

107031 # 그 밑에서 애기 한 쉬에 물 그린다 허는 거라.(그 밑에서 아기 많은 '쉬'에 물 그립다 하는 거야.)

107031 @ 애기 한 쉬에 물 그린다, 응.(아기 많은 '쉬'에 물 그립다, 응.)

107031 # 그 의미를 놔서 이거 곧는 말이야, 이게.(그 의미를 놔서 이거 하는 말이야, 이게.)

107033 @ ᄂᆞ물 같은 것도 놩은에 국 끌립니까? 국죽?(나물 같은 것도 놔서 국 끓입니까? 갱죽?)

107033 # 국죽 쑬 때에, ᄂᆞ물 무지려놩 국죽.(갱죽 쑬 때, 나물 무질러놔서 갱죽.)

107033 @ 그것도 헤마씨? 국죽?(그것도 해요? 갱죽?)

107033 # 응, 그건 국죽이라.(응, 그건 갱죽이야.)

107033 @ 국죽이라예.(갱죽이에요.)

107033 # ᄂᆞ물 안 뜯어놩 그냥 죽 쒀근에 먹으면은 답져[190].(나물 안 뜯어놔서 그냥 죽 쒀서 먹으면 '답져'.)

107033 @ 아.(아.)

107033 # 죽을 먹으면은 답지니까 ᄂᆞ물 푹 담아놩 죽 쑤민.(죽을 먹으면 '답지'니까 나물 푹 담아놧 죽 쑤면.)

107033 @ 아.(아.)

107033 # 그 ᄂᆞ물에 그 죽에 먹어놓민 답지질 안허지. 경허난, 죽 쑬 땐 배추 헤다놩 박박 무지려 놩 죽 쒀.(그 나물에 그 죽에 먹으면 '답지질' 않지. 그러니까, 죽 쑬 땐 배추 해다놔서 박박 무질러 놔서 죽 쒀.)

107031 @ 아.(아.)

107031 # 그땐 국죽이라, 국죽.(그땐 갱죽이야, 갱죽.)

107033 @ 국죽예. 이때는 저 흰죽, 쏠로 죽 쑬 때 놉니까? 아니믄 뭐 좁쏠로 놩은에 헙니까?(갱죽요. 이때는 저 흰죽, 쌀로 죽 쑬 때 놓습니까? 아니면 뭐 좁쌀로 놔서 합니까?)

107033 # 좁쏠로도 쑤곡, 엿날엔 쏠이 어려운 때난 매 좁쏠로만 쒀.(좁쌀로도 쑤고, 옛날엔 쌀이 어려운 때니까 모두 좁쌀로만 쒀.)

107033 @ 그럼, 좁쏠 헹 죽 쑤당, 그레.(그럼, 좁쌀 해서 죽 쑤다가, 그리.)

---

190) '답지다'는 먹은 것이 잘 내려가지 않아 가슴 속이 답답하다는 뜻이다.

107033 # ᄂᆞ물 무지려놩 국죽.(나물 무질러놔서 갱죽.)

107033 @ 아, 게민 국죽.(아, 그러면 갱죽.)

107033 # 응, 우리 연세에 대충 우리보다 우이 할망들신디 강 국죽이 뭐이꽈? 허민 다 ᄀᆞᆯ아줄 걸.(응, 우리 연세에 대충 우리보다 위 할머니들에게 가서 갱죽이 뭡니까? 하면 다 말해줄 걸.)

107033 @ 응.(응.)

107033 # 다 ᄀᆞᆯ아주주, 그런 거.(다 말해주지, 그런 거.)

107033 @ 이건 안 먹어봔, 국죽은, 나는. 들어보기만 허곡.(이건 안 먹어봤어, 국죽은, 나는. 들어보기만 하고.)

107033 # 안 먹어본 말이 맞주. 우리 애기덜토 국죽이믄 어머니 국죽이 뭐꽈?(안 먹어봤다는 말이 맞지. 우리 아기들도 갱죽이면 어머니 갱죽이 뭡니까?)

107033 @ 게난.(그러니까.)

107033 # 경 들어, 이제 우리 큰뚤이 이제 오십여섯이주마는, 어머니 국죽이 뭐꽈?(그렇게 물어, 이제 우리 큰딸이 이제 오십여섯이지마는, 어머니 갱죽이 뭡니까?)

107033 @ 거난 안 먹어 봣어, 나도 안 먹어봔 크멍.(그러니까 안 먹어봤어, 나도 안 먹어봤어, 크면서.)

107033 # 게난, 어머니 국죽이 뭐꽈? 국죽이 뭐꽈? 들어.(그러니까, 어머니 갱죽이 뭡니까? 갱죽이 뭡니까? 물어.)

107033 @ 하하하하.(하하하하.)

107033 # 야, 국죽이 뭐이니? 죽 쑤다근에 ᄂᆞ물을 놓은 게 국죽이주. 기꽈? 국죽 몰라, 요새.(야, 갱죽이 뭐니? 죽 쑤어다가 나물을 놓은 게 갱죽이지. 그렇습니까? 갱죽 몰라, 요새.)

107033 @ 거 말고도 또 죽 쒀 먹어난 거도 이수과? 이거 말고도, 옛날에?(그거 말고도 또 죽 쒀 먹었던 것도 있습니까? 이거 말고도, 옛날에?)

107033 # 그거 먹으나마나 무시거 기자, 그거 ᄂᆞ물 놓곡, 그거 기냥 흰죽이여 뭐 국죽이여 ᄒᆞᆫ 거는 ᄂᆞ물 논 거고 그냥 흰죽 쑤어 먹는 거, 그거. 그자 모믈쏠도 죽 쒀 먹주마는 모믈쏠은 풀풀허게 쑤질 못헹, 물 발발하게 궤어 가민 쏠 확 서껑 발랑발랑 궤민 거려놓는 거.(그거 먹으나마나 무엇 그저, 그거 나물 놓고, 그거 그냥 흰죽이다 뭐 갱죽이다 한 거는 나물 놓은 거고 그냥 흰죽 쑤어 먹는 거, 그거. 그저 메밀쌀도 죽 쒀 먹지마는 메밀쌀은 풀풀하게 쑤질 못해서, 물 팔팔하게 끓어가면 쌀 확 섞어서 '발랑발랑' 끓어 가면 떠놓는 거.)

107033 @ 그다음에.(그다음에.)

107033 # 이 모믈쏠 풀어져 불민 맛이 엇이난.(이 메밀쌀 풀어져 버리면 맛이 없으니까.)

범벅과 수제비

107034 @ 응, 범벅.(응, 범벅.)

107034 # 범벅은.(범벅은.)

107034 @ 무신 범벅, 무신 범벅 헹 먹어낫수과?(무슨 범벅, 무슨 범벅 해서 먹었었습니까?)

107034 # 모믈ᄒᆞ루로도 범벅헹 먹고, 엿날 감저ᄀᆞ루로도 범벅헤 먹곡.(메밀가루로도 범벅해서 먹고, 옛날 고구마가루로도 범벅해서 먹고.)

107034 @ 모믈 범벅, 감저 범벅.(메밀 범벅, 고구마 범벅.)

107034 # 보릿ᄀᆞ루로도 범벅헤 먹곡. 이녁 먹구적헌 대로.(보릿가루로도 범벅해 먹고. 자기 먹고 싶은 대로.)

107034 @ 보리로도 헤 먹고.(보리로도 해 먹고.)

107034 # 보리 범벅도 잇곡, 모믈 범벅도 헹 먹곡.(보리 범벅도 있고, 메밀 범벅도 해서 먹고.)

107034 @ 응.(응.)

107034 # 감저ᄀᆞ루로 감저 범벅도 허곡, 그거야.(고구마가루로 고구마 범벅도 하고, 그거야.)

107034 @ 이건 어떵헹 허는 거꽈? 범벅은 만들젠 허민?(이건 어떻게 해서 하는 겁니까? 범벅은 만들려고 하면?)

107034 # 범벅은이, 감저ᄀᆞ루에도 감저를 놔사 범벅이 뒈어이.(범벅은, 고구마가루에도 고구마를 놔야 범벅이 되어.)

107034 @ 아.(아.)

107034 # 감저ᄀᆞ루 ᄲᅩᆺ아근에 방에서 ᄲᅩᆺ앙, 채로 막 치민 감저ᄀᆞ루가 나와이.(고구마가루 빻아서 방에서 빻아서, 채로 막 치면 고구마가루가 나와.)

107034 @ 뭐, 빼데기를?(뭐, 절간고구마를?)

107034 # 응, 빼떼길, 경헹 ᄀᆞ루 나오민 ᄯᅳ시 그것에 고구마 썰어근에, 솟듸 놩 ᄀᆞ루에 흔듸 놔근에 감저가 익으민 막 데겨. 데기민 범벅 뒈는 거. 막 데겨놓민 그것이 범벅.(응, 절간고구마를, 그래서 가루 나오면 다시 그것에 고구마 썰어서, 솥에 놔서 가루에 함께 놔서 고구마 익으면 마구 문대. 문대면 범벅 되는 거. 막 문대놓으면 그것이 범벅.)

107034 @ 응.(응.)

107034 # 모믈쏠도 모믈ᄒᆞ루에 감저 숢아근에 그거 데기민 모믈펌벅. 보리범벅이엔 헌 것도 마찬가지. 보릿ᄀᆞ루 놔근에 거 감저에 놩 데기민 보리범벅. 겨난 거.(메밀쌀도 메밀가루에 고구마 삶아서 그거 문대면 메밀범벅. 보리범벅이라고 한 것도 마찬가지. 보릿가루 놔서 그거 고구마에 놔서 문대면 보리범벅. 그러니까 그거.)

107034 @ 느젱이, 는젱이는?(나깨, 나깨는?)

107034 # 느젱이엔 헌 거는, 모믈이, 모믈은 이 쏠 내어 먹젠 허민 흔 댓불 거피는 거라이. 초불 거피고 두불, 세불, 네불, 흔 댓불 거펴, 겨민 모믈느젱이엔 헌 거 잇어. 거펴나민, 그디 ᄀᆞ루가 나와이.(나깨라고 한 거는, 메밀이, 메밀은 이 쌀 내어 먹으려고

하면 한 댓벌 거피하는 거야. 초벌 거피하고 두벌, 세벌, 네벌, 한 댓벌 거피하고, 그러면 메밀나깨라고 한 거 있어. 거피하고 나면, 거기 가루가 나와.)

107034 @ 응.(응.)

107034 # ᄀᆞ루 나오민 이거 겁덕도 더러 ᄀᆞᆯ아지곡, 쏠도 ᄀᆞᆯ아진 거라. 그건이 떡을 허민 거멍헤여이. 경허는 따문에 모믈느젱이, 모믈느젱이 허멍 그자 그걸 헤먹을 때 떡 헤여근에 헷헷허게 그건, 등절비[191]ᄀᆞ추룩 두껀뚜껀허게 헤여근에 아이들 가민 마, 이거라도 ᄒᆞ나씩 먹으라 헤근에.(가루 나오면 이거 껍질도 더러 갈아지고, 쌀도 갈아진 거야. 그건 떡을 하면 거매. 그런 때문에 메밀나깨, 메밀나깨 하면서 그저 그걸 해먹을 때 떡해서 '헷헷'하게 그건, '등절비'처럼 두껍디두껍게 해서 아이들 가면 자, 이거라도 하나씩 먹어라 해서.)

107034 @ 응.(응.)

107034 # 건 곤떡이 아니라, 기냥.(그건 '곤떡'이 아니라, 그냥.)

107034 @ 등절비?('등절비'?)

107034 # 등절비로 헤어근엥에, 아이들 그자 ᄒᆞ나썩 이거나 먹으라 곤 건 줄 거 엇다 허멍 그거 헤여근엥에.('등절비'로 해서, 아이들 그저 하나씩 이거나 먹어라 고운 건 줄 거 없다 하면서 그거 해서.)

107034 @ 그, 등절비는 무신걸로 멘드는 거라 게난?(그, '등절비'는 무엇으로 만는 거야 그러니까?)

107034 # 등절비도 그자 그거 모믈ᄀᆞ루 그 느젱이에 두껍게 밀엉이.('등절비'도 그저 그거 메밀가루 그 나깨에 두껍게 밀어서.)

107034 @ 예.(예.)

107034 # 두껍게 밀엉, 그 저 사발을 뜨던지 뭐 아무 걸로 뜨던지.(두껍게 밀어서, 그 저 사발을 뜨든지 뭐 아무걸로 뜨든지.)

107034 @ 동글랑하게?(동그랗게?)

107034 # 동글랑하게 떵, 두게 딱 떼민 이거 등절비라.(동그랗게 떠서, 뚜껑 딱 떼면 이거 '등절비'야.)

107034 @ 동글랑하게 짤랑 반으로 짤랑 반달 모양?(동그랗게 잘라서 반으로 잘라서 반달 모양?)

107034 # 응, 반달로. 그게 등절비라.(응, 반달로. 그게 '등절비'야.)

107034 @ 아, 반달 모양이고, 모믈가루로 헹은에?(아, 반달 모양이고, 메밀가루로 해서?)

107034 # 또 곤 거는 빙도 지지곡.(또 고운 거는 빙떡도 지지고.)

107034 @ 아, 모믈ᄀᆞ루로?(아, 메밀가루로?)

107034 # 응, 빙도 지져먹곡, 솔편이엔 헌 건 이제 ᄀᆞᆺ사ᄀᆞ추룩.(응, 빙도 지져서 먹고, 솔편이라고 한 건 이제 아까처럼.)

---

191) '등절비'는 쌀이나 메밀가루를 반죽해서 안에 팥소를 넣고 삶아낸 후 팥고물을 묻힌 떡으로, 송편보다 조금 두껍고 크다.

107034 @ 떡은 ᄒᆞ꼼 잇당예, 할머니예, 근데 등절비는 아까 게민 그럼 쉬는 아무것도 안 묻히고 모믈ᄀᆞ루만?(떡은 조금 있다요, 할머니요, 근데 '등절비'는 아까 그러면 소는 아무것도 안 묻히고 메밀가루만?)

107034 # 것도 쉬 잇이민, 풋 솖은 거 잇이민 미치고, 경 아녀민 아이들 주는 거 기냥 줘불곡. 경헤여 건.(그것도 소 없으면, 팥 삶은 거 있으면 묻히고, 그렇지 않으면 아이들 주는 거 그냥 줘버리고, 그렇게 해 그건.)

107034 @ 응.(응.)

107034 # 거는 허곡, 이제 저 모믈 솔펜이엔 헌 거는 쉬 미쳐. 모믈 솔벤[192]이엔 헌 건 영 반달 헤근에 두 개 딱 벌른 것이 모믈 솔편이라이.(그거는 하고, 이제 저 메밀 솔편이라고 한 거는 고물 묻혀. 메밀 솔편이라고 한 건 이렇게 반달 해서 두 개 딱 쪼갠 것이 메밀 솔편이야.)

107034 @ 응.(응.)

107034 # 그건 저 풋 솖아근엥에 뻣아근에 쉬 미쳐. 쉬 미쳐 그건.(그건 저 팥 삶아서 빻아서 고물 무쳐. 고물 무쳐 그건.)

107034 @ 응, 떡은 조금 잇당예. 수제비?(응, 떡은 조금 있다가요. 수제비?)

107035 # 수제비는 모믈ᄀᆞ루는이 질게 카이, 물 잇게 질게 카는 거라 모믈ᄀᆞ루는. 질게 캉 숫고락으로 거려 놩 톡톡톡톡.(수제비는 메밀가루는 질게 타, 물 있게 질게 타는 거야, 메밀가루는. 질게 타서 숟가락으로 떠 놔서 톡톡톡톡.)

107035 @ 아.(아.)

107035 # 경허민 토랑토랑허게 익어. 이 모믈 수제비는 기냥 꽝꽝허게시리 영 믈앙 톧아 놓지 못허여. 그자 흘싹허게 믈앙 숫고락으로 톡톡톡 거려놓주.(그러면 '토랑토랑' 하게 익어. 이 메밀 수제비는 그냥 딱딱하게끔 이렇게 말아서 뜯어 놓지 못해. 그저 '흘싹'하게 말아서 숟가락으로 톡톡톡 떠놓지.)

107035 @ 응.(응.)

107035 # 언물에 믈아근에.(찬물에 말아서.)

107035 @ 아, 이건 언물에.(아, 이건 찬물에.)

107035 # 모믈ᄀᆞ루는 언물에 캉, 응, 언물에 캉 숫고락으로 똑똑 거려놔.(메밀가루는 찬물에 타서, 응, 찬물에 타서 숟가락으로 똑똑 떠놔.)

107035 @ 응.(응.)

107035 # 더운 물르레 거려놔. 팔팔 끌리는 물에.(더운 물에 떠놔. 팔팔 끓는 물에.)

107035 @ 그 애기 난 어멍안티도 모멀수제비 헤준덴 헨게만은?((그 아기 낳은 어머니에게도 메밀수제비 해준다고 하던데?)

107035 # 응, 그거는 그거는 이게 이 애기 난 어멍이, 피 삭으라고 모믈ᄒᆞ루 헤근에 이건 물 팔팔 끌려근에 더운물 팍 거려놩 휘휘 젓어, 이제.(응, 그거는 그거는 이게 이 애기 낳은 어머니가, 피 삭으라고 메밀가루 해서 이건 물 팔팔 끓여서 더움물 팍 떠놔서 휘휘 저어, 이제.)

192) '솔벤'은 반달 모양의 본으로 눌러 만든 흰떡이다. '반돌떡', '돌반착떡'이라고도 한다.

107035 @ 아.(아.)

107035 # 젓어근에, 그거 식지 안헐 때 따시 팔팔 끌리는 물 푹 놓민 모믈ᄀᆞ루가 익어비여.(저어서, 그거 식지 않을 때 다시 팔팔 끓이는 물 푹 놓으면 메밀가루가 익어버려.)

107035 @ 응.(응.)

107035 # 경허민, 그냥 그거 이제 소금 놩 근 맞춰근에 애기어멍 멕이는 거라.(그러면, 그냥 그거 이제 소금 놧 간 맞춰서 아기어머니 먹이는 거야.)

107035 @ 아, 국이나 수제비가 아니고?(아, 국이나 수제비가 아니고?)

107035 # 응, 수제비가 아니곡 건 모믈ᄀᆞ루, 모믈ᄀᆞ루.(응, 수제비가 아니고 그건 메밀가루, 메밀가루.)

107035 @ 모물ᄀᆞ루에 그냥 물 카근에, 더운물에 캉?(메밀가루에 그냥 물 타서, 더운물에 타서?)

107035 # 응, 경헹 허민 토복토복허게 저베기 뒈는 거라이. 수제비 모냥으로 터북터북허민 더운 때 이거 먹으라 허주.(응, 그래서 하면 '토복토복'하게 수제비 되는 거야. 수제비 모양으로 '터북터북'하면 따뜻한 때 이거 먹어라 하지.)

107035 @ 응.(응.)

107035 # 배설이 뜨뜻허게 ᄂᆞ려가민 그 궂인 피가 싹 삭앙 ᄂᆞ려온다 허는 거여.(창자가 따뜻하게 내려가면 그 궂은 피가 싹 삭아서 내려온다 하는 거야.)

107035 @ 응.(응.)

107035 # 엿날 약 엇인 때. 요즘은 병원에 강 나민 약들 멕여부난 헴지. 엿날엔 집이서 아기 나면, 약이 엇인 때라, 그거 먹어 불민 궂인 피가 싹 ᄂᆞ려 가분다 이거여.(옛날 약 없을 때. 요즘은 병원에 가서 낳으면 약들 먹여버리니까 하고 있지. 옛날엔 집에서 아기 낳으면, 약이 없는 때야, 그거 먹어 버리면 궂은 피가 싹 내려 가버린다 이거야.)

107035 @ 응.(응.)

107035 # 경헤영 경 모믈ᄀᆞ루 헹 멕이는 거, 그거.(그래서 그렇게 메밀가루 해서 먹이는 거, 그거.)

107035 @ 건 수제비엔은 안 ᄀᆞᆯ아?(그건 수제비라고는 안 말해?)

107035 # 수제비엔은 아이 ᄀᆞᆫ곡, 아이고 모믈ᄀᆞ루 아이고 애기 날 때 뒈민, 메누리나 뚤이나 애기날 때 뒈민 모믈코룰 혼 뒈만 헤영 놔둬야 헐 건디 애기 나민, ᄀᆞ루 캉 멕여살 거. 수제비 헹 멕일 말은 안 허곡.(수제비라고는 안 말하고, 아이고 메밀가루 아이고 아기 낳을 때 되면, 며느리나 딸이나 아기 낳을 때 되면 메밀가루를 한 되만 해서 놔둬야 할 건데 아기 낳으면, 가루 타서 먹여야할 거. 수제비 해서 먹일 말은 안 하고.)

107035 @ ᄀᆞ루 캉 먹어살 건디?(가루 타서 먹어야할 건데.)

107035 # ᄀᆞ루 캉 멕연, 게민 팔팔 끌리는 물, 거려놔근에 휘휘 젓엉 놔두민 이게 요만썩 요만썩 모들모들 허면 따시 그레 더운물 푹 거려놩 휘허게 젓어근에, 소금 ᄒᆞ쏠 좁아놩 근 맞췽 주민, 뜨뜻헐 때 먹으렌 헤여. 더운 때.(가루 타서 먹여서, 그러면 팔팔

끓이는 물, 떠놔서 휘휘 저어서 놔두면 이게 요만큼씩 요만큼씩 '모들모들'하면 다시 그리 더운물 푹 떠놔서 휘하게 저어서, 소금 조금 집어놔서 간 맞춰서 주면, 따뜻할 때 먹으라고 해. 더운 때.)

107035 @ 수제비엔 헙니까? 저베기엔 헙니까? 이디선.(수제비라고 합니까? '저베기'라고 합니까? 여기선.)

107035 # 수제비, 엿날엔 저베기, 저베기 헷주마는.(수제비, 옛날엔 '저베기', '저베기' 했지마는.)

107035 @ 저베기, 저베기 헷주예? 옛날엔예.('저베기, 저베기' 했지요? 옛날엔요.)

107035 # 요즘은 수제비.(요즘은 수제비.)

107035 @ 옛날 말이 중요헌 거.(옛날 말이 중요한 거.)

107035 # 엿날 말은 저베기.(옛날 말은 '저베기'.)

107035 @ 옛날 말이 저베기예?(옛날 말이 '저베기'요?)

107035 # 우리 이딧말허곡 또 동잇말허곡 틀려이.(우리 여기 말하고 또 동쪽의 말하고 달라.)

107035 @ 예, 동잇말은 저베기 맞아?(예 동쪽의 말은 '저베기' 맞아?)

107035 # 우리 이디서 곧는 것은 저베기.(우리 여기서 말하는 것은 '저베기'.)

107035 @ 응.(응.)

107035 # 저베기, 저 동잇말은 즈베기.('저베기', 저 동쪽의 말은 '즈베기'.)

107035 @ 맞아, 즈베기, 옛날이.(맞아, '즈베기', 옛날이.)

107035 # 즈베기 이디선 저베기.('즈베기' 여기선 '저베기'.)

107035 @ 응, 게난 저베기 헤 먹는 건 주로 모믈조베기허고.(응, 그러니까 '저베기' 해 먹는 건 주로 메밀수제비하고.)

107035 # 밀ᄀᆞ루.(밀가루.)

107035 @ 밀ᄀᆞ루 조베기예.(밀가루 수제비요.)

107035 # 응, 보릿ᄀᆞ루로도 헤 먹어.(응, 보릿가루로도 해 먹어.)

107035 @ 아, 보릿ᄀᆞ루로도?(아, 보릿가루로도?)

107035 # 응, 보릿ᄀᆞ루도 끈닥끈닥 달롸근에 톡톡 튿아놩 헹 먹어. 끈닥끈닥 달롸야, ᄇᆞ릿ᄀᆞ루.(응, 보릿가루도 끈적끈적 반죽해서 톡톡 뜯어놔서 해서 먹어. 끈적끈적 반죽해야, 보릿가루.)

107036 @ 아, 칼국수도 헹 먹어낫수과?(아, 칼국수도 해서 먹었었습니까?)

107036 # 칼국수 밀엉.(칼국수 밀어서.)

107036 @ 밀어근엥에?(밀어서?)

107036 # 밀엉, 모믈ᄀᆞ루도 밀어근엥에 칼국수 모믈 칼국수가 더 맛잇어, 밀ᄀᆞ루 칼국수보다. 모믈ᄀᆞ루도 밀엉 칼국수 칼로 써는 걸, 이건 밀엉 칼로 써는 거난 칼국수주게, 경헹 썰엉 헹 먹고, 밀ᄀᆞ루도 경헹 먹곡, 보릿ᄀᆞ루로도 쫙쫙 밀어근에 허민 것도 칼국수 헹 먹곡.(밀어서, 메밀가루도 밀어서 칼국수 메밀 칼국수가 더 맛있어, 밀가루 칼국수보다. 메밀가루도 밀어서 칼국수 칼로 써는 걸, 이건 밀어서 칼로 써는 거니까 칼국

수지, 그래서 썰어서 해서 먹고, 밀가루도 그렇게 해서 먹고, 보릿가루도 쫙쫙 밀어서 하면 그것도 칼국수 해서 먹고.)

107036 @ 응.(응.)

107036 # 못 헹 먹는 거 엇어.(못 해서 먹는 거 없어.)

107036 @ 예.(예.)

107036 # 보릿ᄀᆞ루도 칼국수 헹 먹곡, 밀ᄀᆞ루도 헹 먹곡, 모믈ᄀᆞ루로도 헹 먹곡.(보릿가루도 칼국수 해서 먹고, 밀가루도 해서 먹고, 메밀가루로도 해서 먹고.)

김치

107037 @ 이번엔 김치. 짐치? 옛날말론 짐치?(이번엔 김치. '짐치'? 옛날말론 '짐치'?)

107037 # 응, 요즘은 김치. 엿날엔 짐끼.(응, 요즘은 김치. 옛날은 '짐끼'.)

107037 @ 짐끼?(짐끼?)

107037 # 응, 짐끼 둠앙 먹어살 걸.(응, '짐끼' 담가서 먹어야할 걸.)

107037 @ 그냥 김치 둠앙 먹어살 걸예. 김치는 무신 김치, 무신 김치 먹어낫수과? 옛날, 이제 말곡.(그냥 김치 담가서 먹어야할 걸요. 김치는 무슨 김치, 무슨 김치 먹었었습니까? 옛날, 이제 말고.)

107037 # 엿날도 배추김치, 무수김치주. 무수김치, 배추김친디 엿날은이 개인에 골민 이추룩 속 앚인 배추가 엇어낫어.(옛날도 배추김치, 무김치지. 무김치, 배추김치인데 옛날은 개인이 갈면 이렇게 속 앉은 배추가 없었었어.)

107037 @ 응.(응.)

107038 # 이거 속 앚인 배추도, 이거 속 안 져근에 우리 속 앚인 배추김치 먹건 디가 몇 년 안 퉷어.(이거 속 앉은 배추도, 이거 속 안 져서 우리 속 앉은 배추김치 먹은 지가 몇 년 안 됐어.)

107038 @ 응.(응.)

107038 # 흔 이십 년, 흔 이십. 그 전인 이 개인으로 갈민 속 앚는 배추가 엇엇어.(한 이십년, 한 이십. 그 전엔 이 개인으로 갈면 속 앚은 배추가 없었어.)

107038 @ 예.(예.)

107038 # 당배추엔 헌 거 속이 영 속 앚진 아녀도 속이 저 노랗게 아랑아랑아랑 헤여.(당배추라고 한 거 속이 이렇게 속 앉지는 않아도 속이 저 노랗게 '아랑아랑아랑'해.)

107038 @ 응.(응.)

107038 # 경허민 그거 당배추 당배추 허멍, 그거 헤여근에 소금에 절엿다근에 허민, 그자 엿날은 뭐 양념 엇어. 메리치 딸린 거 허곡.(그러면 그거 '당배추', '당배추'하면서, 그거 해서 소금 절였다가 하면, 그저 옛날은 뭐 양념 없어. 멸치 달인 거 하고.)

107038 @ 응.(응.)

107038 # 메리치 딸리곡 그자 고칫ᄀᆞ루, 그자 꿰, 마농 그거주. 생강 원 그것만 놩

헹 먹어낫어, 엿날에.(멸치 달이고 그저 고춧가루, 그저 깨, 마늘 그거지. 생강 원 그것만 놔서 해서 먹었었어, 옛날에.)

107038 @ 응.(응.)

107038 # 이젠 뭐 새우니 뭐 무시거니, 무시거니 막 양념이 멧 가지라이.(이젠 뭐 새우니 뭐 무엇, 무엇 막 양념이 몇 가지야.)

107038 @ 하하하하, 응.(하하하하, 응.)

107038 # 경헤신디 옛날엔 메리치 딸린 거 ᄒᆞ나, 그자 고치, 마농, 그자 생강 그거. 그거 헤도 잘만 먹어.(그랬는데 옛날엔 멸치 달인 거 하나, 그저 고추, 마늘, 그저 생각 그거. 그거 해도 잘만 먹어.)

107038 @ 옛날에는 어디 바당에 강 배치도 절엿당 헷덴 헨게만은, 바당물에도.(옛날에는 어디 바다에 가서 배추도 절였다가 했다고 하던데, 바닷물에도.)

107038 # 쫀물에 절엿당도 헨 먹어낫어. 그리고 우리 역은 후제 ᄒᆞ쏠 그자 헤낫주.(짠물에 절였다가도 해서 먹었었어. 그리고 우리 큰 후에 조금 그저 했었지.)

107038 @ 응, 소금이 귀헤서 그런 거?(응, 소금이 귀해서 그런 거?)

107038 # 소금이 귀헤사신디 어떵, 소금에 안허영 그자 저 쫀물에 가근에 누께통, 누께통 허멍 둥글랑하게 조금에 쫀물이 ᄀᆞᆯ라이.(소금이 귀했었는지 어떻게, 소금에 안 해서 그저 저 짠물에 가서 '누께통', '누께통'하면서 둥그렇게 조금에 짠물이 고여.)

107038 @ 응.(응.)

107038 # 물 저 들어오지 안허난, 나가도 들여오도 안허난. 그디 강 탁허게 돌 지둘 뢍 ᄃᆞᆷ강 놔두민 ᄂᆞ물이 늘싹 죽어.(물 저 들어오지 않으니까, 나가도 들여오지도 않으니까. 거기 가서 탁하게 돌 지질러서 담가서 놔두면 나물이 '늘싹' 숨죽어.)

107038 @ 그거 무신거? 느께통?(그거 무엇? '느께통'?)

107038 # 느께통이엔 허멍, 동글랑헹 물 ᄀᆞᆯ르는 통이 잇어. 쫀물 나가도 들어오도 안형 ᄀᆞᆯ라잇는 거.('느께통'이라고 하면서, 동그래서 물 잘 고이는 통이 있어. 짠물 나가도 들어오지도 않고 고여 있는 거.)

107038 @ 돌멩이에?(돌멩이에?)

107038 # 응, 돌멩이 딱 지둘라, ᄂᆞ물 컹.(응, 돌멩이 딱 지질러, 나물 담가서.)

107038 @ 아, 느께통은 거난.(아, '느께통'은 그러니까.)

107038 # 쫀물 ᄀᆞᆯ라 잇는 거.(짠물 고여 있는 거.)

107038 @ 아, 물 빠질 때 빠지지 안허곡?(아, 물 빠질 때 빠지지 않고?)

107038 # ᄂᆞ려가질 안허는 거. 경헌 통에 강 이틀만 놔두민 ᄂᆞ물이 싹 죽어. 게난 소금 하영 들이지 말젠 강 죽여 오는 거. 소금이 어려우니까.(내려가지 않는 거. 그런 통에 가서 이틀만 놔두면 나물이 싹 죽어. 그러니까 소금 많이 들이지 말라고 가서 숨죽여 오는 거. 소금이 어려우니까.)

107038 @ 아.(아.)

107038 # 이제나 소금도 흔전헷주, 옛날엔 소금도 어려왓어이.(이제나 소금도 흔하지, 옛날엔 소금도 어려웠어.)

107038 @ 게난예.(그러니까요.)

107038 # 경허난.(그러니까.)

107039 @ 열무짐치.(열무김치.)

107039 # 열무김치도 이제사 열무김치주. 우리 두린 땐 열무김치 엇어낫어. 그자 무수 헤영 그자 소금에 버무렷당 그자 고칫ᄀᆞ루 그자 마농 그것 놓민 것이 김치라이. 경헹 먹엇주. 이젠 하간 양념 이시난. 열무김치여 뭐여 헷주. 열무가 어디 서서? 엿날에.(열무김치도 이제야 열무김치지. 우리 어린 땐 열무김치 없었었어. 그저 무 해서 그저 소금에 버무렸다가 그저 고춧가루 그저 마늘 그것 놓으면 그것이 김치야. 그래서 먹었지. 이젠 온갖 양념 있으니까. 열무김치다 뭐다 했지. 열무가 어디 있었어? 옛날에.)

107040 @ 물짐치도 헹 먹어낫수과? 옛날에?(물김치도 해서 먹었었습니까? 옛날에?)

107040 # 물김치, 무수 짝짝 얄룹게 가까근에.(물김치, 무 짝짝 얇게 깎아서.)

107040 @ 응.(응.)

107040 # 얄룹게 가깡 소금 ᄒᆞ쏠 절엿다근에 물 놩, 놔두민 ᄒᆞ꼼 새코롬허민 그것이 물김치라.(얇게 깎아서 소금 조금 절였다가 물 놔서, 놔두면 조금 새콤하면 그것이 물김치야.)

107040 @ 아, 건 이제사 먹는 거 아니고 옛날도 헹 먹어난?(아, 그건 이제야 먹는 거 아니고 옛날도 해서 먹었었어?)

107040 # 옛날에도 헹 먹언.(옛날에도 해서 먹었어.)

107040 @ 응.(응.)

107040 # 옛날에도 헹 먹언, 옛날에도 우리 그자 무수 요신 뭉글락허게 썰주마는 엿날엔 막 얍게 얍게 썰어근엥에.(옛날에도 해서 먹었어, 옛날에도 우리 그저 무 요새는 '뭉글락'하게 썰지마는 옛날엔 아주 얇게 썰어서.)

107040 @ 응.(응.)

107040 # 소금 약간 헤다근에, 물 놩 놔두민, 베끗듸 놔뒁 ᄒᆞᆫ 이틀 놔두민 새코롬헤여.(소금 약간 해다가, 물 놔서 놔두면, 밖에 놔두고 한 이틀 놔두면 새콤해.)

107040 @ 응.(응.)

107040 # 새코롬허민 그것이 물김치라.(새콤하면 그것이 물김치야.)

107041 @ 아, 동지짐치[193]는?(아, 동지김치는?)

107041 # 우리 동지미짐치는 안 헤낫저. 동지미짐치는.(우리 동치미김치는 안 했었어. 동치미김치는.)

107041 @ 동지미 말고 동지. ᄂᆞ물 동지 산 거.(동치미 말고 장다리. 나물 장다리 선 거.)

107041 # 아, ᄂᆞ물동 산 거.(아, 장다리 선 거.)

107041 @ 응.(응.)

107041 # 그런 김치 우리 안 헤 먹언난.(그런 김치 우리 안 해 먹었었어.)

107041 @ 안 헹 먹어난? 응.(안 해서 먹었어? 응.)

193) '동지김치'는 배추 따위에서 돋아난 연한 장다리로 담근 김치를 말한다.

107041 # 그자 거 ᄂᆞ물동 꺼꺼당 솖아 먹는 거 그거 좋아헷주. 솖앙 그자 뒌장에 그자. 견디 이젠 이 ᄂᆞ물동도 꺼꺼당 김치허면 경 맛잇어.(그저 그거 장다리 꺾어다가 삶아 먹는 거 그거 좋아했지. 삶아서 그저 된장에 그저. 그런데 이젠 이 나물동도 꺾어다가 김치하면 그렇게 맛있어.)

107041 @ 예, 예.(예, 예.)

107041 # 엿날엔 경 ᄂᆞ물동 세우곡 무시거 허곡 헐 ᄂᆞ물이 어디 서서, 쯧쯧.(옛날엔 그렇게 장다리 세우고 무엇하고 할 나물이 어디 있었어, 쯧쯧.)

107042 @ 하하하. 이번에는, ᄂᆞᆷ삐짐치, 무수짐치.(하하하. 이번에는, 무김치, 무김치.)

107042 # 무수김치는, 홁게 벌렁 이만썩 이만썩 넙게 벌러이. 배추김치 헐 때에, 이만씩 넙게 두끈두끈허게 벌러근에 딱딱 소금 헷다근엥에 배추김치 헐 때 ᄒᆞᆫ 징 ᄒᆞᆫ 징 놔. 이 무수를.(무김치는, 굵게 쪼개서 이만큼씩 이만큼씩 넓게 쪼개. 배추김치 할 때에, 이만씩 넓게 두껍디두껍게 쪼개서 딱딱 소금했다가 배추김치 할 때 한 켜 한 켜 놔. 이 무를.)

107042 @ 아.(아.)

107042 # ᄒᆞᆫ 징 ᄒᆞᆫ 징 놔두민 봄 나가민 그놈의 무수가 쿠숭허여이.(한 켜 한 켜 놔두면 봅 나가면 그놈의 무가 구수해.)

107042 @ 응.(응.)

107042 # 쿠숭헌 내 나.(구수한 냄새 나.)

107042 @ 응.(응.)

107042 # 엇엉 못 먹어, 막 쿠숭헌 게 맛좋아.(없어서 못 먹어, 아주 구수한 게 맛있어.)

107042 @ 거난 저 배치짐치 허는 사이에다가?(그러니까 저 배추김치 하는 사이에다가?)

107042 # 응, 배추 ᄒᆞᆫ 징, ᄒᆞᆫ 도리 이거 무수 소금에 절엿당 양념 엇이 그 놓민 그 배추김치 양념물이 들어.(응, 배추 한 켜, 한 켜 이거 무 소금에 절였다가 양념 없이 놓으면 그 배추김치 양념물이 들어.)

107042 @ 들어.(들어.)

107042 # 들엇당, 봄 나가민 먹으민 그렇게 맛이 좋아. 쿠숭헌 게. 내놓으민 쿠숭헌 내가 나, 엿날에. 게민 먹어낫저.(들었다가, 봄 나가면 먹으면 그렇게 맛이 좋아. 구수한 게. 내놓으면 구수한 냄새가 나, 옛날에. 그러면 먹었었어.)

107042 @ 따로 ᄂᆞᆷ삐만 헹 김치 안허고?(따로 무만 해서 김치 안하고?)

107042 # ᄂᆞᆷ삐만도 헹 김치혜. 양념 그자 마농허곡 고치 그자 그것만 헹, 그자 메리치 국물 ᄒᆞ쏠 헤영 버무령 딱 담앙 먹어.(무만도 해서 김치해. 양념 그저 마늘하고 고추 그저 그것만 해서, 그저 멸치 국물 조금 해서 버무려서 딱 담가서 먹어.)

107042 @ 깍두기같이?(깍두기같이?)

107042 # 지금 깍두기ᄀᆞ치 딱 담아근에, 통에 담앗다근에 봄 나민 그자 익으면 쿠숭헌 게 먹어져. 경 헹도 먹곡, 배추김치 새새에 놩도 헤 먹곡.(지금 깎두기같이 딱 담가

서, 통에 담았다가 봄 나면 그저 익으면 고소한 게 먹을 수 있어. 그렇게 해서도 먹고, 배추김치 사이사이에 놔서도 해 먹고.)

107043 @ 파김치는?(파김치는?)

107043 # 파김치는 그자 메리치 시난, 헤영 먹어. 메리치허곡 그자 옛날에 뭐 양념 엇이 그냥 메리치 딸린 거 허곡, 메리치 딸리당 생메리치.(파김치는 그저 멸치 있으니까, 해서 먹어. 멸치하고 그저 옛날에 뭐 양념 없이 그냥 멸치 달인 거 하고, 멸치 달이다가 생멸치.)

107043 @ 응.(응.)

107043 # 그것에 그자 고칫ᄀᆞ루 ᄒᆞ쏠 놓곡 마농 놓곡 헤영, 그자 그거.(그것에 그저 고춧가루 조금 놓고 마늘 놓고 해서, 그저 그거.)

107043 @ 응, 패마농?(응, 쪽파?)

107043 # 응, 패마농 김치는 먹어. 또 대산이는 이젠 베랑 대산이 김치 헷자 베랑 먹어지지 안허여도. 엿날엔 대산이 딱 요만썩 쫄라. 짤랑, 간장 께우멍.(응, 쪽파 김치는 먹어. 또 마늘은 이제 별로 마늘 김치 해도 별로 먹지 않아도. 옛날엔 마늘 딱 요만큼씩 잘라, 잘라서, 간장 끓이면서.)

107043 @ 응, 건 마농지 아니?(응, 그건 마늘지 아니?)

107043 # 마농지, 경헹 먹엇져.(마늘지, 그렇게 해서 먹을 수 있어.)

107043 @ 김치가 아니고.(김치 아니고.)

107043 # 김치가 아니고, 이젠 그건 먹어지지 안허여, 난.(김치가 아니고, 이젠 그건 먹지 않아, 난.)

107044 @ 드릇마농도 짐치 헹 먹읍니까?(달래도 김치 해서 먹습니까?)

107044 # 드릇마농 헤다근에, 짠물에 확 절엿다근에 ᄒᆞᆫ 며틀 놔두민 그냥 시그름헤여 이놈이 드릇마농이, 이, 시그름허면 양념 엇어, 그건.(달래 해다가, 짠물에 확 절였다가 한 며칠 놔두면 그냥 시큼해. 이놈이 달래이, 이, 시큼하면 양념 없어, 그건.)

107044 @ 아.(아.)

107044 # 그 시그름ᄒᆞᆫ 맛으로 기냥 먹주.(그 시큼한 맛으로 그냥 먹지.)

107044 @ 응.(응.)

107044 # 시큼헌 맛으로.(시큼한 맛으로.)

107044 @ 응.(응.)

107044 # 그자 소금에만 툭허게 헤영 절영 ᄒᆞ끔 삭삭 버무령 놔두민 ᄒᆞᆫ 며틀 뒈민 이 봄 나가민 드릇마농은 시큼헤여, 시여. 겨민 그 시큼헌 맛으로 그냥 먹어.(그저 소금에만 툭하게 해서 절여서 조금 삭삭 버무려서 놔두면 한 며칠 되면 이 봄 나가면 달래는 시큼해, 시어. 그러면 그 시큼한 맛으로 그냥 먹어.)

107044 @ 아, 뭐 안 놓고? 고칫ᄀᆞ루 거 안 놓곡?(아, 뭐 안 놓고? 고춧가루 그거 안 놓고?)

107044 # 응, 고추ᄀᆞ루 안 놔. 이젠 드릇마농도 고칫ᄀᆞ루니 뭐 막 양념 놩 부병 먹는디 엿날은 경 안허여.(응, 고춧가루 안 놔. 이젠 달래도 고춧가루니 뭐 막 양념 놔서

비벼 먹는데 옛날은 그렇게 안 해.)

107044 @ 응.(응.)

107044 # 고칫ᄀᆞ루가 어디 시냐? 시크름허민 그냥 건져근에 물에 그냥 먹엇주.(고춧가루가 어디 있니? 시큼하면 그냥 건져서 물에 그냥 먹었지.)

107045 @ 옛날에도 갓김치 헹 먹어낫수과? 갯ᄂᆞ물?(옛날에도 갓김치 해서 먹었었습니까? 갓?)

107045 # 갯ᄂᆞ물김치, 갓김치에 헹 엿날에는 그것도이.(갓김치, 갓김치에 해서 옛날에는 그것도.)

107045 @ 예.(예.)

107045 # 그 갓김치도, 요신 갓김치에 헨 ᄂᆞ물 죽여근엥에 막 양념허잖아. 경 안허여.(그 갓김치도, 요새는 갓김치에 해서 나물 죽여서 막 양념하잖아. 그렇게 안 해.)

107045 @ 예.(예.)

107045 # 우리 어릴 때 허는 거 보민 우리 어머니네 허는 거 보민 갓김치, 갓김치 허멍 ᄂᆞ물을 캐다근에 똑 요만썩 줌질이 썰어.(우리 어릴 때 하는 거 보면 우리 어머니네 하는 거 보면 갓김치, 갓김치 하면서 나물을 캐다가 꼭 요만큼씩 자잘하게 썰어.)

107045 @ 예.(예.)

107045 # 썰어근에 저 오가리 쪼끄만헌 오가리에다가 그걸 놩 물 팔팔 끌령 팍 그리 비우는 거라.(썰어서 저 조그마한 오가리에다가 그걸 놔서 물 팔팔 끓여서 팍 그리 비우는 거야.)

107045 @ 물을?(물을?)

107045 # 응, 풀풀 끌인 물 팍 허게 놧다근에, 둣날 아침인 그 물이 식은 둣날 아침인 두께 확 열민 매운 내가 콱 허민 코가 씽 헤여.(응, 팔팔 끓인 물 팍하게 놨다가, 뒷날 아침엔 그 물이 식은 뒷날 아침엔 뚜껑 확 열면 매운 냄새가 콱 하면 코가 씽 해.)

107045 @ 하하하, 예.(하하하, 예.)

107045 # 겨면 우리 어머니네 보민 그것에 소금 ᄒᆞ쏠 놩 근 맞쳐근에 흔 이틀쯤 놔두민 새코롬허민 그냥 그것이 경 맛좋아. 요샌 갓김치.(그러면 우리 어머니네 보면 그것에 소금 조금 놔서 간 맞춰서 한 이틀쯤 놔두면 새콤하면 그냥 그것이 그렇게 맛있어. 요샌 갓김치.)

107045 @ 응, 아무것도 안 놓곡?(응, 아무것도 안 놓고?)

107045 # 응, 아무것도, 양념 안 놔.(응, 아무것도, 양념 안 놔.)

107045 @ 그, 그 뭐.(그, 그 뭐.)

107045 # 소금만 헹 간만 맞춰.(소금만 해서 간만 맞춰.)

107045 @ 고칫가루 ᄀᆞ튼 것도 안 놓곡?(고춧가루 같은 것도 안 놓고?)

107045 # 안 놔, 요즘은 갓김치 절엿당 온갖 양념 다 허영 허잖아이.(안 놔, 요즘은 갓김치 절였다가 온갖 양념 다 해서 하잖아.)

107045 @ 예, 예.(예, 예.)

107045 # 견디 그것이 안 허영 경헤영 그자 물에 그 시그름헌 물에 그것에 헤영 먹

으민 시원헌 게 경 맛좋아낫어.(그런데 그것이 안 해서 그래서 그저 물에 그 시큼한 물에 그것에 해서 먹으면 시원한 게 그렇게 맛있었어.)

107045 @ 응.(응.)

107045 # 어떤 땐 그걸 혼번 헹 먹어보카 허당 실펑 못 헹 먹어, 것도.(어떤 땐 그걸 한번 해서 먹어볼까 하다가 하기 싫어서 못 해서 먹어, 그것도.)

107046 @ 새우리도 짐치헹 먹어낫수과?(부추도 김치해서 먹었었습니까?)

107046 # 새우리도 헤연. 새우리두 이제두 절엿다근에 새우리김치 허젠 허민, 절엿다근에 고칫가루 그자 대충은 이 파김치나 새우리김치나 엿날에 헤 그자 이 저.(부추도 했어. 부추도 이제도 절였다가 부추김치 하려고 하면, 절였다가 고춧가루 그저 대충은 이 파김치나 부추김치나 옛날에 해, 그저 이 저.)

107046 @ 응.(응.)

107046 # 멜치 젓, 생메리치 젓 그것 국물 뚤라놓곡, 고칫ᄀᆞ루 ᄒᆞ쏠 놓곡 마농 놓곡 허민 그자 경허민 그것이 김치야.(멸치 젓갈, 생멸치 젓갈 그것 국물 따라놓고, 고춧가루 조금 놓고 마늘 놓고 하면 그저 그러면 그것이 김치야.)

107046 @ 응.(응.)

107046 # 새우리든 파든 원 벨 양념 엇이 헹 먹엇어. 엿날엔.(부추든 파든 원 별 양념 없이 해서 먹었어, 옛날엔.)

107046 @ 응.(응.)

107046 # 요새는 하간 것 이거저것 헤도. 그자 놀멜칫 그거 국물 뚤라놓곡 고칫ᄀᆞ루 ᄒᆞ쏠 놓곡.(요새는 온갖 것 이거저것 해도. 그저 날멸치젓 그거 국물 따라놓고 고춧가로 조금 놓고.)

107046 @ 응.(응.)

107046 # 파나 저 새우리나 소금에 절이지 안허여.(파나 저 부추나 소금에 절이지 않아.)

107046 @ 응.(응.)

107046 # 그냥 그자 그 멜젓에 절여근에 기자 고춧ᄀᆞ루 마늘 그자 그거 뿟아 놓민 경헹 그자 그거.(그냥 그저 그 멸치젓에 절여서 그저 고춧가루 마늘 그저 그거 빻아 놓으면 그렇게 해서 그저 그거.)

젓갈

107048 @ 옛날에 저 자리젓, 멜칫 이런 것 젓도 담강 먹어낫지예?(옛날에 저 자리젓, 멸치젓 이런 것 젓도 담가서 먹었었지요?)

107048 # 헨 먹언.(해서 먹었어.)

107048 @ 주로 자리젓, 멜젓?(주로 자리돔젓, 멸치젓?)

107048 # 자리젓을 하영 헤여. 자리젓 허민 큰 춘이 춘이 허멍 엿날 술춘이 잇어난 거 부리 요만은 헌 것에 우리 어머니네 보민 겨울 반찬이 그거라. 혼 두 춘을 잡는 거

라. 자릴 흔 요남은만썩, 경헤근에 자리젓이 겨울엔 반찬이라.(자리돔젓을 많이 해. 자리돔젓 하면 큰 동이 동이 하면서 옛날 술동이 있었던 거 부리 요만큼은 한 것에 우리 어머니네 보면 겨울 반찬이 그거야. 한 두 동이를 잡는 거야. 자리돔을 한 여남은만큼씩, 그래서 자리돔젓이 겨울엔 반찬이야.)

107048 @ 응.(응.)

107048 # 그거 잇다근에 고기 못 사다근에 고기국 못 끌릴 땐 그 자리젓 일어놔근에 ᄂᆞ물 이파리 놘 국 끌리민.(그거 있다가 고기 못 사서 고깃국 못 끓일 땐 그 자리돔젓 일어놔서 나물 이파리 놔서 국 끓이면.)

107048 @ 건 무신 국이엔 ᄀᆞᆯ아?(그건 무슨 국이라고 말해?)

107048 # 자리젓국.(자리돔젓국.)

107048 @ 아, 자리젓국.(아, 자리돔젓국.)

107048 # 젓국, 젓국허멍, 그거 놩 국 끌리민 맛이 잇어 기영. 또 자리젓에 무수썰엉 소금에 버무렷당 그 자리젓에 서껑 딱허게시리, 또 춘이에 담앙 놔두민 그 무수가 또 벌겋게 익으면 맛이 잇어, 또.(젓국, 젓국하면서 그거 놔서 끓이면 맛이 있어 그렇게. 또 자리돔젓에 무 썰어서 소금에 버무렸다가 그 자리돔젓에 섞어서 딱하게끔, 또 동이에 담가서 놔두면 그 무가 또 벌겋게 익으면 맛이 있어, 또.)

107048 @ 아!(아!)

107048 # 자리젓에 서껑 놔두민.(자리돔젓에 섞어서 놔두면.)

107048 @ 그건 무신거엔 ᄀᆞᆯ아? 게민?(그건 무엇이라고 말해? 그러면?)

107048 # 건 무시거엔 안 ᄀᆞᆯ아. 그냥 자리젓 그자 무수, 그자 그거주 뭐. 무신 무수 김치엔도 안허곡 그자 자리젓 거리레 가민 자리젓에 그 무수 ᄀᆞ치 거려놩 먹는 따문에.(그건 무엇이라고 안 말해. 그냥 자리돔젓 그저 무, 그저 그거지 뭐. 무슨 무 김치라고도 않고 그저 자리돔젓 뜨러 가면 자리돔젓에 그 무 같이 떠놔서 먹는 때문에.)

107048 @ 아.(아.)

107048 # 경헷당 먹곡.(그렇게 했다가 먹고.)

107049 @ 그믄 자리젓은 담그젠 허민 자리에 허고 소금은 얼만이나 놓는 거꽈? 자리 흔 말 허민 소금은 얼만이놔?(그러면 자리돔젓은 담으려고 하면 자리돔에 하고 소금은 얼만큼이나 놓는 겁니까?)

107049 # 자리 흔 말에 소금 흔 뒈 들어가.(자리돔 한 말에 소금 한 되 들어가.)

107049 @ 흔 뒈.(한 되.)

107049 # 응. 게난 요새에 사 키로민 소금 일 키로 놓렌 헌 게 그거라이.(응. 그러니까 요새 사 킬로면 소금 일 킬로 놓으라고 한 게 그거야.)

107049 @ 응.(응.)

107049 # 겨난 엿날 어른들도 너 뒈민 소금 흔 뒈라이.(그러니까 옛날 어른들도 넉 되면 소금 한 되야.)

107049 @ 응.(응.)

107049 # 자리 너 뒈민 소금 흔 뒈 넣는 거라. 경헤서 근 맞히주, 경 안허민 짜. 너

무 싱거와도 안 뒈곡, 짜도 안 뒈곡.(자리돔 넉 되면 소금 한 되 넣는 거야. 그래서 간 맞추지, 그렇지 않으면 짜. 너무 싱거워도 안 되고, 짜도 안 되고.)

107049 @ 이거 영 버무령 놔뒀돵 혼 메칠이나 지나사 먹어지는 거꽈? 자리젓은?(이거 이렇게 버무려서 놔뒀다가 한 며칠이나 지나야 먹을 수 있는 겁니까? 자리돔젓은?)

107049 # 혼 둘 이상 뒈야.(한 달 이상 돼야.)

107049 @ 아, 혼 둘 이상.(아, 한 달 이상.)

107049 # 자리가 혼 둘 이상 뒈가민 자리가 벌겅헤 가지. 벌겅헌 거 영 두께 열면 코송헌 내가 나. 자리 잘 뒌 거.(자리돔이 한 달 이상 되어가면 자리돔이 벌겋게 되어가지. 벌건 거 이렇게 뚜껑 열면 고소한 냄새가 나. 자리돔 잘 된 거.)

107049 @ 아.(아.)

107049 # 어디 벳듸 놔두민 고려비엉 안 뒈곡, 그늘에 놔사.(어디 볕에 놔두면 고려버려서 안 되고, 그늘에 놔야.)

107049 @ 아, 그늘에.(아, 그늘에.)

107049 # 그늘에 놔야 뒈.(그늘에 놔야 돼.)

107049 @ 뚜껑은 딱 더껑 내불어사 뒈?(뚜껑은 딱 덮엇 내버려야 돼?)

107049 # 아이구 더꺼야지. 벌거지 따문에.(아이구 덮어야지. 벌레 때문에.)

107049 @ 아.(아.)

107049 # 쉬ᄑᆞ리가 어떵 이는지 몰라. 아이구 부리 잘 싸지 안허민 어떵 천으로싸도 냄새나민 이 우에 오랑 버렝이 싸비어, 쉬ᄑᆞ리가.(쉬파리가 어떻게 이느니 몰라. 아이구 부리 잘 싸지 않으면 어떻게 천으로 싸도 냄새나면 이 위에 와서 벌레 싸버려, 쉬파리가.)

107049 @ 아.(아.)

107049 # 경헌 따문에 버렝이 가냥허기가 어려워.(그런 때문에 벌레 간수하기가 어려워.)

107050 @ 멜젓도 ᄒᆞ는 거?(멸치젓도 하는 거?)

107050 # 멜젓도 마찬가지. 똑ᄀᆞ타.(멸치젓도 마찬가지, 똑같아.)

107050 @ 소금도 똑ᄀᆞ트고?(소금도 똑같고?)

107050 # 응, 똑ᄀᆞ타.(응, 똑같아.)

107050 @ 거난 주로 자리젓 헹 먹곡, 멜젓도 허곡?(그러니까 주로 자리돔젓 해서 먹고, 멸치젓도 하고?)

107050 # 멜젓도 허곡, 자리젓.(멸치젓도 하고, 자리돔젓.)

107050 @ 멜젓은 게난, 자리젓은 반찬으로 먹는 거고, 멜젓은 김치허젠 허는 건가?(멸치젓은 그러니까, 자리돔젓은 반찬으로 먹는 거고, 멸치젓은 김치하려고 하는 건가?)

107050 # 멜젓도 반찬으로 먹주마는 대충은 김치용으로 다 헤여. 많이 안헌다. 짐치용으로 허여.(멸치젓도 반찬으로 먹지마는 대충은 김치용으로 다 해. 많이 안 한다. 김치용으로 해.)

107050 @ 김치용으로예.(김치용으로요.)

107050 # 그자 멜젓 딸려근엥에 허주, 멜젓 딸려근에 그 물 서꺼근엥에, 양념 만들앙 허주. 경허난.(그저 멸치젓 달여서 하지, 멸치젓 달여서 그 물 섞어서, 양념 만들어서 하지. 그러니까.)

107050 @ 혹시, 그.(혹시, 그.)

107050 # 겨난 멜젓은 하영 안 허여, 그자 김치 헤먹을 만큼.(그러니까 멸치젓은 많이 안 해, 그저 김치 해먹을 만큼.)

107051 @ 그 바닷고기 아가미, 아가미 젓 헤근에.(그 바닷고기 아가미, 아가미 젓 해서.)

107051 # 아가미젓 허는 거, 갈치 아가미.(아가미젓 하는 거, 갈치 아가미.)

107051 @ 아, 갈치 아가미?(아, 갈치 아가미?)

107051 # 갈치 아가미젓이주, 다른 건.(갈치 아가미젓이지, 다른 건.)

107051 @ 다른 건 안 허여?(다른 건 안 해?)

107051 # 아니, 저 고등에 아가미.(아니, 저 고등어 아가미.)

107051 @ 아, 고등어도 합니까?(아, 고등어도 합니까?)

107051 # 그거 ᄒᆞ쏠 젓헹 먹단이, 이 몸에 좋지 안헌 중 알아가난 별로 안허여, 맛은 잇는디 안 허여.(그거 조금 젓해서 먹다가, 이 몸에 좋지 않은 줄 알아가니까 별로 안 해, 맛은 있는데 안 해.)

107051 @ 그럼 옛날부터 헹 먹은 거는 갈치?(그럼 옛날부터 해서 먹은 거는 갈치?)

107051 # 갈치 아가미, 그것에 또 준준헌 갈치가 잇어이.(갈치 아가미, 그것에 또 자잘한 갈치가 있어.)

107051 @ 예.(예.)

107051 # 이건 요멘썩헌 갈치가 올라와. 그런 거 막 줄게 썰엉.(이건 요만큼씩한 갈치가 올라와. 그런 거 막 잘게 썰어서.)

107051 @ ᄀᆞ치 썰엉.(같이 썰어서.)

107051 # 응, ᄀᆞ치 썰어 놓곡, 갈치 아가미젓.(응, 같이 썰어 놓고, 갈치 아가미젓.)

107051 @ 그건 옛날도 갈치 아가미젓이엔 ᄀᆞᆯ앗수과? 다른 말로 안 ᄀᆞᆯ아?(그건 옛날도 갈치 아가미젓이라고 말했습니까? 다른 말로 안 말해?)

107051 # 아니, 갈치 아가미젓.(아니, 갈치 아가미젓.)

107052 @ 아, 겡이도 젓갈 담가? 젓, 겡이젓 이런 거 헤? 이제는 막예 게젓.(아, 게도 젓 담가? 젓, 게젓 이런 거 해? 이제는 막요 게젓.)

107052 # 이제는 겡이젓이여 뭐여 헷주, 엿날은 겡이젓 헹 먹어나지 안허연?(이제는 게젓이다 뭐다 했지, 옛날은 게젓 해서 먹었었지 않았어?)

107052 @ 아니, 젠젠헌 겡이 간장에 담가근에.(아니, 자잘한 게 간장에 담가서.)

107052 # 아, 잇당 쪼끔 간장에 ᄃᆞᆭ갓당 놓는 거, 쬐끔.(아, 이따가 조금 간장에 담갔다가 놓는 거, 조금.)

107052 @ 아, 쪼끔?(아, 조금?)

107052 # 쪼금쪼금허주, 기영 하영 안허여. 이제도 흔엇이 저, 거시기 홁은 그 뿔겡

이나 잇주, 이디 겡이젓 헌 거 맛 엇어라.(조금조금하지, 그렇게 많이 안 해. 이제도 한 없이 저, 거시기 굵은 그 뿔게나 있지, 여기 게젓 한 거 맛없더라.)

107052 @ 아.(아.)

107052 # 나도 혼번 먹어봣어. 이디서 그 겡이젓, 겡이젓 허멍 헤영 먹어보난 맛엇어.(나도 한번 먹어봤어. 여기서 그 게젓, 게젓 하면서 해서 먹어보니까 맛없어.)

107052 @ 응.(응.)

107052 # 그거는, 그거 그자 놀차 뻣아근에 죽 쒀 먹는 거 잇어이, 겡이도. 잡아당.(그거는, 그거 그저 날째 빻아서 죽 쒀 먹는 거 있어, 게도. 잡아다가.)

107052 @ 겡이죽?(게죽?)

107052 # 겡이죽도 쒕 먹어, 물짜근에, 물 짜놩 죽 쒀 먹어, 겨울에.(게죽도 쒀서 먹어, 물 짜서, 물 짜놔서 죽 쒀 먹어, 겨울에)

107052 @ 예.(예.)

107052 # 국도 끌려 먹곡. 메역 놔근에 국도 끌려 먹곡, 죽도 쒀 먹곡.(국도 끓여 먹고. 미역 놔서 국도 끓여 먹고, 죽도 쒀 먹고.)

107052 @ 아, 겡이도.(아, 게도.)

107052 # 겐디 요 겡이죽은이, 곤쏠엔 맛엇어.(그런데 요 게죽은, 흰쌀엔 맛없어.)

107052 @ 게민?(그러면?)

107052 # 좁쏠에 놩 쑨 게 맛잇어.(좁쌀에 놔서 쑨 게 맛있어.)

107052 @ 아, 이것도?(아, 이것도?)

107052 # 요것도 테운 것씩 다 잇어.(요것도 태운 것씩 다 있어.)

107052 @ 게난.(그러니까.)

107052 # 좁쏠에 놩 쑨 건 맛이 잇는디, 곤 쏠에 놩 쑨 건 맛이 엇어.(좁쌀에 놔서 쑨 건 맛이 있는데, 간 쌀에 놔서 쑨 건 맛이 없어.)

107052 @ 겡이죽헐 땐 좁쏠에예?(게죽할 땐 좁쌀에요?)

107054 @ 출레가 무신거꽈? 출레?('출레'가 무엇입니까? '출레'?)

107054 # 출렌 그자 장ᄀᆞ라도 출레[194]엔 허곡, 그자 무신 줍아 먹는 거 메리치 ᄀᆞ튼 것도 출레엔 허곡, 저 짠 것ᄀᆞ라 출레엔 허곡 출렌 별로 딴 거 아니.('출레'는 그저 장보고도 '출레'라고 하고, 그저 무슨 집어 먹는 거 멸치 같은 것도 '출레'라고 하고, 저 짠 것보고 '출레'라고 하고 '출레'는 별로 딴 거 아니.)

107054 @ 아니, 이젯말로 그냥, 이젯 사람들은 우스개로 반찬이 출레고 출레가 반찬이주 영 허는디.(아니, 이젯말로 그냥, 이제 사람들은 우스개로 반찬이 '출레'고 '출레'가 반찬이지 이렇게 하는데.)

107054 # 맞아, 그거, 반찬이 출레고 출레가 반찬 말이 맞주게. 그자 장ᄀᆞ라도 무시거 영 야 저 장이라도 ᄒᆞ쏠 아져오라. 무시거 원 이거 무신 출레 엇이 먹어지키냐? 영헹 저거 뭔 저 출레가 잇어사주. 게, 장이라도 놈민 그자 그거지.(맞아, 그거, 반찬이 '출레'고 '출레'가 반찬 말이 맞지. 그저 장보고도 무엇 이렇게 야 저 장이라도 조금 가져와

194) '출레'는 밥과 곁들여 먹는 장, 젓 따위의 반찬을 말한다.

라. 무엇 원 이거 무슨 '출레' 없이 먹을 수 있겠니? 이렇게 해서 저거 뭔 저 '출레'가 있어야지. 그러게, 장이라도 놓으면 그저 그거지.)

107054 @ 응.(응.)

107054 # 장이 출레고, 출레가 장이주, 원.(장이 '출레'고, '출레'가 장이지, 원.)

107054 @ 아니, 이런 젓갈이나 저기 간장 같은 거만 출레엔 안허곡?(아니, 이런 젓갈이나 저기 간장 같은 거만 '출레'라고 안 하고?)

107054 # 안 허곡.(안 하고.)

107054 @ 반찬 다?(반찬 다?)

107054 # 다 출레, 옆이 논 거면 출레.(다 '출레', 옆에 놓은 거면 '출레'.)

107054 @ 아.(아.)

107054 # 엿날 말이주, 요신 아따, 반찬도 많다 영허주만 엿날은. 이거 뭣에 밥 먹을 거냐, 출레 엇이 밥 먹을 거냐? 영 허주.(옛날 말이지, 요새는 아따, 반찬도 많다 이렇게 하지마는 옛날은. 이거 뭐에 밥 먹을 거냐, '출레' 없이 밥 먹을 거냐? 이렇게 하지.)

107054 @ 아, 경 골아?(아, 그렇게 말해?)

장아찌와 회

107055 @ 게민 이번에는 마농지, 지시 담그는 거는 마농지 말고 다른 것도 헤나수과? 주로 마농지?(그러면 이번엔 마늘장아찌, 장아찌 담는 거는 마늘장아찌 말고 다른 것도 했었습니까? 주로 마늘장아찌?)

107055 # 우린 마농지만 듬가 먹어나난 다른 거 허는 건 몰라.(우린 마늘장아찌만 담가 먹어서 다른 거 하는 건 몰라.)

107056 @ 마농진 어떵 헹은에 만드는 거꽈?(마늘장아찌는 어떻게 해서 만드는 겁니까?)

107056 # 마농지는 영 보민 너미 세어도 맛엇곡, 너미 연헤도 맛엇곡 허난, 부럭 사기 전에 헤당.(마늘장아찌는 이렇게 보면 너무 쇠도 맛없고, 너무 연해도 맛없고 하니까, 배동 서기 전에 해다가.)

107056 @ 응.(응.)

107056 # 요만큼씩 잘라이, 짤라근엥에 장물 꿰와.(요만큼씩 잘라, 잘라서 간장 끓여.)

107056 @ 응.(응.)

107056 # 꿰와근엥에 소금 아니헤근에 장물만 꿰왕 장물 식거들랑에, 그거 저 마농지시드레 놔.(끓여서 소금 안 해서 간장만 끓여서 간장 식으면, 그거 저 마늘장아찌에 놔.)

107056 @ 응.(응.)

107056 # 마농 쫄른 것드레 놔. 흔 한 오일이나 흔 일주일이나 잇당 또 그 장물을 또 뜰라.(마늘 자른 것에 놔. 한 한 오일이나 한 일주일이나 있다가 또 그 간장을 또 따

라.)

107056 @ 예.(예.)

107056 # 이제 차롱착 바타근에, 톡 받으민 그 장물이 뚤라져. 게민 장물을 두 번, 체암허곡 또 두 번허곡 세 번을 꿰왕 놔사 제라허게 간이 맞앙 맛이 돌아오는 거. 마농지 허는 건.(이제 채롱 받아서, 톡 받으면 그 간장이 따라져. 그러면 간장은 두 번, 처음하고 또 두 번하고 세 번을 끓여서 놔야 제대로 간이 맞아서 맛이 돌아오는 거. 마늘장아찌 하는 건.)

107056 @ 아, 세 번이나 뚤랑 끌령 또 놓곡, 뚤랑 끌령 또 놓곡.(아, 세 번이나 따라서 끓여서 또 놓고, 따라서 끓여서 또 놓고.)

107056 # 경헹 그거 체암이 헌 거 뚤라근에 또 꿰왕 마농 그 장 식건 또 놓곡.(그래서 그거 처음에 한 거 따라서 또 끓여서 마늘 그 간장 식으면 또 놓고.)

107056 @ 아, 식으면?(아, 식으면?)

107056 # 응, 식건 또 혼 오일이나 육일이나 잇당, 또 건져근엥에 그 물 또, 겨민 마농내 나지 말렌게.(응, 식으면 또 한 오일이나 육일이나 있다가, 또 건져서 그 물 또, 그거면 마늘 냄새 나지 말라고.)

107056 @ 응.(응.)

107056 # 경헤영 그걸 놓아근에 장물만 놓주,다른 건 안 놔.(그렇게 해서 그걸 놓아서 간장만 놓지, 다른 건 안 놔.)

107056 @ 아까 그거 대산이?(아까 그거 마늘?)

107056 # 응, 대산이.(응, 마늘.)

107056 @ 대산이 마농?('대산' 마늘?)

107056 # 응, 경헹 먹젠 허민 양념형 먹젠 허민 고춧ᄀᆞ루나 쪼끔 서껑 먹곡 꿰ᄀᆞ루ᄒᆞ쏠 서끄곡. 경 안허민 기냥.(응, 그렇게 해서 먹으려고 하면 양념해서 먹으려고 하면 고춧가루나 조금 섞어서 먹고 깻가루 조금 섞고. 그렇게 안 하면 그냥.)

107056 @ 마농지가 주로 반찬이엇주예? 옛날에예?(마늘장아찌 주로 반찬이었지요? 옛날에요?)

107056 # 응, 예전엔 주로 마농지야.(응, 예전엔 주로 마늘장아찌야.)

107056 @ 그 여름에 반찬.(그 여름에 반찬.)

107056 # 요새에 마농지 허는 건이 또, 재기 먹젠 허는 사름은 또 요만썩 쫄라.(요새 마늘장아찌 하는 건 또, 재게 먹으려고 하는 사람은 또 요만큼씩 잘라.)

107056 @ 아, 작게?(아, 작게?)

107056 # 응, 요만썩 요만썩 요만썩 짤라 놔근에, 매실이니 설탕이니 뭐.(응, 요만큼씩 요만큼씩 잘라 놔서, 매실이니 설탕이니 뭐.)

107056 @ 식초.(식초.)

107056 # 식초니 놩 끌려근에 그건 금방 헤영 금방 먹어. 오늘 헤놓민 낼 먹어 그냥.(식초니 놔서 끓여서 그건 금방 해서 금방 먹어. 오늘 해놓으면 내일 먹어 그냥.)

107056 @ 낼 먹을 수도, 응, 응.(내일 먹을 수도, 응, 응.)

107056 # 그건 오랜 먹지 못헤, 시어.(그건 오래는 먹지 못해, 시어서.)

107056 @ 응, 건 이제 허는 방법이고예.(응, 그건 이제 하는 방법이고요.)

107056 # 건 쉽게 헤영 쉽게 먹는 거곡 놔둠서, 여름 내낭 먹젠 허는 건, 딱 요만썩 질게 쫄라근에 간장을 세 번을 꿰와 그거. 똘라근엥에 꿰왕 식영 또 놓곡 또놓곡 허민 여름내 가도 벤허지가 안헤. 임시 먹는 건 임시 확허게 헹 먹곡.(그건 쉽게 해서 쉽게 먹는 거고 놔두고, 여름 내내 먹으려고 하는 건, 딱 요만큼씩 길게 잘라서 간장을 세 번 끓여 그거. 따라서 끓여서 식혀서 또 놓고 또 놓고 하면 여름내 가도 변하지가 않아. 임시 먹는 건 임시 확하게 해서 먹고.)

107056 @ 게. 마농지 말고도, 유섭이나 뭐 파초나 몸이나 양에나 이런 것도 지시헹 먹어?(그러게. 마늘장아찌 말고도, 깻잎이나 뭐 파초나 모자반이나 양하나 이런 것도 장아찌 해서 먹어?)

107056 # 양에 지신 우리 안 헹 먹어봣저. 경헌디 잇당 영 혼번이나 헌 거 먹어보민 양에지신 맛이 엇어. 맛이 엇이난 원 헤영 또 요새라도 양에지 헨 먹는 사름도 별로 엇고. 양에진 엇어, 엇어.(양하장아찐 우리 안 해서 먹어봤어. 그런데 이따가 이렇게 한번이나 한 거 먹어 보면 양하장아찐 맛이 없어. 맛이 없으니까 원 해서 또 요새라도 양하장아찌 해서 먹는 사람도 별로 없고. 양하장아찐 없어, 없어.)

107056 @ 깻입, 깻입도 지시 헨 먹는 거 아니?(깻잎, 깻잎도 장아찌 해서 먹는 거 아니?)

107057 @ 이번에는 훼, 자리훼, 방어훼 이런 거 훼. 이제사 훼 헹 먹는 건가? 옛날엔 훼 안헹 먹어나수과?(이번에는 회, 자리돔회, 방어회 이런 거 회. 이제야 회 해서 먹는 건가?

107057 # 요즘은, 이.(요즘은, 이.)

107057 @ 응.(응.)

107057 # 아니, 엿날도 먹긴 먹어도, 이치룩 내어 놔근에 막 영 뭐 어디 식당이여 뭐여 헨 먹어보지도 안허곡, 이 잔치 때 ᄀᆞ튼 것도 저런 훼 ᄀᆞ튼 거 우린 먹어보진 안헤연이. 이건이 이 큰일 때 헤난 건 몃 년 안 뒈. 혼 삼 년, 경벳긔 안 뒌, 이디. 경헤신디 그냥 우리 자리훼 ᄀᆞ튼 거 물훼론 우리 가정에서 느랑 헹 먹어.(아니, 옛날도 먹긴 먹어도, 이렇게 내어 놔서 막 이렇게 뭐 어디 식당이다 뭐다 해서 먹어보지도 않고, 이 잔치 때 같은 것도 저런 회 같은 거 우린 먹어보지는 않았어. 이건 이 큰일 때 했던 건 몇 년 안 돼. 한 삼 년, 그렇게밖에 안 되었어, 여기. 그렇게 했는데 그냥 우리 자리돔회 같은 거 물회론 우리 가정에서 늘 해 먹어.)

107057 @ 물훼 말고 그냥.(물회 말고 그냥.)

107057 # 그냥 그자 무시거 방어사.(그냥 그저 무엇 방어야.)

107057 @ 응, 방어훼.(응, 방어회.)

107057 # 방언 우리 이디서 안 나난, 그런 건 안 먹곡, 그냥 히어뜩헌 고기 사다근에 그냥 훼 떠 먹어. 이녁냥으로.(방어는 우리 여기서 안 나니까, 그런 건 안 먹고, 그냥 어지러운 고기 사다가 그냥 회 떠 먹어. 자기대로.)

107057 @ 어렝이라도 훼 떠 먹어?(어렝놀래기도 회 떠 먹어?)

107057 # 어렝이도 훼 떠 먹곡, 조기도 사다근에.(어렝놀래기도 회 떠 먹고, 조기도 사다가.)

107057 @ 오.(오.)

107057 # 겨울에 나는 조기 잇잖아. 이 바당에서 나는.(겨울에 나는 조기 있잖아. 이 바당에서 나는.)

107057 @ 예, 예, 예.(예, 예, 예.)

107057 # 그런 거 사다근에. 그런 것도 훼 떠 먹곡. 또, 그 저 무신거니 아구리 막 큰 거 잇어.(그런 거 사다가. 그런 것도 회 떠 먹고. 또, 그 저 무엇이니 아가리 아주 큰 거 있어.)

107057 @ 응.(응.)

107057 # 아구리만 크곡 베뗑이 똥글랑 요만헌헌 거, 그런 것도 헤근에 훼 떠 먹곡, 훼 떠 먹는 건 아무라도 훼 떵 먹어. 이녁냥으로 ᄒᆞ멍 먹어.(아가리만 크고 배 동그랑 요만큼한 거, 그런 것도 해서 회 떠 먹고, 회 떠 먹는 건 아무라도 회 떠서 먹어. 자기대로 하면서 먹어.)

107057 @ 옛날도 헹 먹어낫구나예.(옛날도 해서 먹었었군요.)

107057 # 엿날엔 그런 거 훼 떠 먹지 안허연. 우리 두린 땐.(옛날엔 그런 거 회 떠 먹지 않았어. 우리 어린 땐.)

107057 @ 아, 그런 건 헹 먹진 안허연.(아, 그런 건 해서 먹진 않았어.)

107057 # 이녁냥으로 이제 헤 먹어가난 헤 먹엄주, 엿날엔 그런 거 훼 떠 먹어보지 안허연.(자기대로 이제 해 먹어가니까 해 먹고 있지, 옛날엔 그런 거 회 떠 먹어보지 않았어.)

107057 @ 새끼, 새끼뒈지훼?(새끼, 새끼돼지회?)

107057 # 응, 새끼뒈지훼들토 헹 먹어.(응, 새끼돼지회들도 해서 먹어.)

107057 @ 응.(응.)

107057 # 헹 먹는디 우린 비우에 맞지 안허영 못 먹언.(해서 먹는데 우린 비위에 맞지 않아서 못 먹었어.)

107057 @ 아.(아.)

107057 # 먹는 사름들은 막 잘 먹어.(먹는 사람들은 막 잘 먹어.)

107057 @ 응.(응.)

107057 # 그거 허면은 속이 답답헷다근에 그거 가민이 속이 싹 헤친덴 헤여 그건. 이 속병 잇인 사람들이.(그거 하면은 속이 답답했다가 그거 가면 속이 싹 해친다고 해 그건. 이 속병 있는 사람들이.)

107057 @ 응.(응.)

107057 # 시원헌 게 그걸 먹으민 헌덴 헤도, 난 노시 먹질 못허여, 받쳔에.(시원한 게 그걸 먹으면 한다고 해도, 난 도저히 먹지 못해, 받쳐서.)

107057 @ 게난예.(그러니까요.)

107057 # 그 핏내 나난에 우트레 받치멍 먹질 못헤는 거라.(그 피비린내 나니까 위로 받치면서 먹질 못하는 거야.)

107057 @ 그건 저 애기, 새끼도새기 낳기 전이 거지예?(그건 저 아기, 새끼돼지 낳기 전에 거지요?)

107057 # 새끼, 새끼 낳기 전에, 꺼럭 돋기 전에 거.(새끼, 새끼 낳기 전에, 털 돋기 전에 거.)

107057 @ 아.(아.)

107057 # 꺼럭 안 돋은 때에 보민 요만헌 저 새끼.(털 안 돋은 때에 보면 요만한 저 새끼.)

107057 @ 어멍 뱃소곱에 이신 거?(어머니 뱃속에 있는 거?)

107057 # 뱃속에 신 거 도새기 잡아 놓민 요만헌 거라, 요만헌. 요축 헌 거 헤당 먹어도, 난 못 먹어.(뱃속에 있는 거 돼지 잡아 놓으면 요만한 거야, 요만한. 요처럼 한 거 해다가 먹어도, 난 못 먹어.)

107057 @ 나도 못 먹을 거 닮다.(나도 못 먹을 거 같아.)

107057 # 못 먹어, 그것도 헤 놓은 거 나왕 강 먹으민 모르카, 그거 베령은 또 못 먹어.(못 먹어, 그것도 해 놓은 거 나와서 가서 먹으면 모를까, 그거 봐서는 또 못 먹어.)

107057 @ 게난이, 못 먹을 거 닮아.(그러니까, 못 먹을 거 같아.)

107057 # 베령은 못 먹어. 요샌 잡는 디서 확확 골아 내어놔부난 몰라도, 양념이영 다헹 내놔, 견디 난 먹어보젠 허난 핏내 나난이 복장이 놈 닮지 안헌ᄀᆞ라 못 먹언.(봐서는 못 먹어. 요새는 잡는 데서 확확 갈아 내어놔 버리니까 몰라도, 양념이랑 다해서 내놔, 그런데 난 먹어보려고 하니까 피비린내 나니까 오장이 남 같지 않은지 못 먹었어.)

107058 @ 그 뭐 우럭 조림이나, 고사리 무침, 뭐 호박 무침 이런 것도 반찬 헹 먹주예?(그 뭐 우럭 조림이나, 고사리 무침, 뭐 호박 무침 이런 것도 반찬 해서 먹지요?)

107058 # 응, 호박도 게 헤어근에 무시거 그자 꿰ᄀᆞ루여 뭐 마농이여 무시거여 파여 놔근에 솩솩허게시리 버무령 양념으로 버무령 제ᄉᆞ 때엔, 고치 마농을 안 들여.(응, 호박도 그러게 해서 무엇 그저 깻가루다 뭐 마늘이다 무엇이다 파다 놔서 싹싹하게끔 버무려서 양념으로 버무려서 제사 때엔, 고추 마늘을 안 놔.)

107058 @ 음.(음.)

107058 # 딱 기름허곡, 꿰ᄀᆞ루는 헤도, 고치 ᄀᆞ튼 거이 마농 ᄀᆞ튼 건 안 아졍 뎅겨.(딱 기름하고, 깻가루는 해도, 고추 같은 거 마늘 같은 건 안 가지고 다녀.)

107058 @ 호박도 게난, 식게 때.(호박도 그러니까, 제사 때.)

107058 # 호박도 채소로 들어가. 채소에 들어가. 고사리나.(호박도 채소로 들어가. 채소에 들어가. 고사리나.)

107058 @ 아, 고사리도예?(아, 고사리도요?)

107058 # 고사리, 콩ᄂᆞ물은 요거 채소에 들어가. 무수도 채소에 들어가곡. 경허는디 이 마농 ᄀᆞ튼 거는 안 아져 뎅겨. 마농 ᄀᆞ튼 건.(고사리, 콩나물은 요거 채소에 들어가.

무도 채소에 들어가고. 그러는데 이 마늘 같은 거는 안 가지고 다녀. 마늘 같은 건.)

107058 @ 평상시엔 마농도 놓곡, 식게 때는 안 놓는 거예.(평상시엔 마늘도 놓고, 제사 때는 안 놓는 거요.)

107058 # 식게 때는 안 놓곡.(제사 때는 안 놓고.)

장 담그기

107059 @ 이젠 뒌장 담글 거예, 뒌장은 언제 담급니까?(이젠 된장 담을 거요, 된장은 언제 담습니까?)

107059 # 뒌장 이제 안직은 콩이 안 나왓어. 여기서이, 이 콩 나오민 이거 저, 양력으로 일월둘에. 일월둘 이거 지금 이거 지금 시월 아니?(된장 이제 아직은 콩이 안 나왔어. 여기서, 이 콩 나오면 이거 저, 양력으로 일월에. 일월 이거 지금 이거 지금 시월 아니?)

107059 @ 응.(응.)

107059 # 시월이난에, 시월 십일월 그물어 강, 양력으로 십이월.(시월이니까, 시우러 십일월 저물어 가서, 양력으로 십이월.)

107059 @ 응.(응.)

107059 # 십이월둘에 좀 이 콩이 나와, 나오면 그거 솖아근에.(십이월에 좀 이 콩이 나와, 나오면 그거 삶아서.)

107059 @ 예.(예.)

107059 # 이디서도 그걸 솖앙 메줄 만들어야 뒈어. (여기서 그걸 삶아서 메주를 만들어야 돼.)

107059 @ 예.(예.)

107059 # 메줄 만들앙 키우젠 허민 혼 이월둘이나 나사 양력으로 이월둘이나 나사 장 둥가.(메주를 만들어서 키우려고 하면 한 이월이나 나야 양력으로 이월이나 나야 장 담가.)

107059 @ 아, 메주는 이제 콩 나민 그걸로 솖앙 메주허곡, 그거 헷다근에.(아, 메주는 이제 콩 나면 그걸로 삶아서 메주하고, 그거 했다가.)

107059 # 솖아근에, 메주허영 티와사 하는 따문에.(삶아서, 메주해서 띄워야 하기 때문에.)

107059 @ 장 담그는 건 이월뒈서예?(장 담는 건 이월 돼서요?)

107059 # 이월 양력으로 이월이주, 음력으로는 섣둘이라이.(이월 양력으로 이월이지, 음력으로는 섣달이야.)

107059 @ 아, 음력 섣둘예.(아, 음력 섣달요.)

107059 # 응. 음력 섣둘에 그물어 가민 새해 나기 전에 장 둠금이라고 이디 사름들은이 아이고 정월 나기 전에.(응. 음력 섣달에 저물어 가면 새해 나기 전에 장 담음이라고 여기 사람들은 아이고 정월 나기 전에.)

107059 @ 멩질 나기 전이?(명절 되기 전에?)

107059 # 응, 정월은 상둘[195]이라고 그때에 둠지 말앙 묵은헤 담젠 허민 섣둘 구물어 가민 막 장 둠음들이 난리주.(응, 정월은 상달이라고 그때는 담지 말고 묵은해에 담으려고 하면 섣달 저물어 가면 막 장 담음이 난리지.)

107059 @ 응.(응.)

107059 # 그자 소금 골멍 장들 그자 둠가 가멍 막 난리여.(그저 소금 갈면서 장들 그저 담가 가면서 막 난리야.)

107060 @ 뒌장 고추장 말곡, 뒌장하고 간장 주로 허는 건 그거잖아예?(된장 고추장 말고, 된장하고 간장 주로 하는 건 그거잖아요?)

107060 # 그것에서 간장 빼는 거, 그것에 물 놩 컷다근에 그거 메주 콩 우러나민 그거. 그거 간장 빼둬근에 그걸 막 또시 또 그 메주 멧 개 냉겻당 그거 또시 즘질이 뿟앙 서꺼근에, 딱 묻엉 놔두민 뒌장이 벌겅헤여.(그것에서 간장 빼는 거, 그것에 물 놔서 담갔다가 그거 메주 콩 우러나면 그거. 그거 간장 빼두고 그걸 막 또 또 그 메주 몇 개 남겼다가 그거 또 자잘하게 빻아서 섞어서, 막 묻어서 놔두면 된장이 벌게.)

107060 @ 응.(응.)

107060 # 경허민 그거 뒌장 만드는 거.(그러면 그거 된장 만드는 거.)

107060 @ 응. 게난, 저 섣둘 뒈기 전이 간장, 뒌장을 메주를 꺼내야 뒐 거 아니예? 꺼냉 따로 놔?(응. 그러니까, 저 섣달 되기 전에 간장, 된장을 메주를 꺼내야 될 거 아니에요? 꺼내서 따로 놔?)

107060 # 아니, 메준 기냥 꺼내멍 말멍 기냥 영헌 디 둘아메엉 티우는 거난.(아니, 메주는 그냥 꺼내면서 말면서 그냥 이렇게 한 데 달아매서 띄우는 거니까.)

107060 @ 응, 응.(응, 응.)

107060 # 티우는 거난 그자 음력 섣둘만 나민, 음력 섣둘이민, 양력으로 일월둘 뒐 건가? 일월.(띄우는 거니까 그저 음력 섣달만 나면, 음력 섣달이면, 양력으로 일월 될 건가? 일월.)

107060 @ 이월.(이월)

107060 # 이월 뒈지이?(이월 되지?)

107060 @ 일월 말이나 이월예.(일월 말이나 이월요.)

107061 # 응, 그때 뒈가민이 묵은해도. 음력으로 섣둘은 정월 내우지 말앙 묵은둘장 둠젠 막 허주게.(응, 그때 되어가면 묵은해도. 음력으로 섣달은 정월 내우지 않고 묵은 달 장 담으려고 막 하지.)

107061 @ 응.(응.)

107061 # 저 상둘에 장 둠지 안헌덴 허멍 막 그자.(저 상달에 장 담지 않는다고 하면서 막 그저.)

107061 @ 그믄 메주 티와나민 그거를 물에 담그는 거?(그러면 메주 띄우고나면 그

195) '상둘'은 상달로 1월을 말하고 있다. 보통 신에게 새로난 곡식을 드리는 10월을 상달이라고 하는데 제보자는 1월이 가장 으뜸이 되는 달이라고 '상둘'이라고 하고 있다.

거를 물에 담그는 거?)

107061 # 응, 티왕 물에 둠그는 거, 시경.(응, 띄워서 물에 담그는 거, 씻어서.)

107061 @ 소금은 얼만이 놔야 뭽니까?(소금은 얼만큼 놔야 됩니까?)

107061 # 소금 놔사게. 소금이, 요것이 열 뒈에, 아니라. 읏답 뒈에, 소금 흔 뒈 들어감서.(소금 놔야. 소금이, 요것이 열 되에, 아니야. 여덟 되에, 소금 한 되 들어가고 있어.)

107061 @ 콩 읏덥 뒈에 소금 흔 뒈?(콩 여덟 되에 소금 한 되?)

107061 # 물 읏답 뒈에.(물 여덟 되에.)

107061 @ 물 읏답 뒈에, 소금 흔 뒈. 응.(물 여덟 되에, 소금 한 되. 응.)

107061 # 경 들어가.(그렇게 들어가.)

107061 @ 겡 그 소금을.(그래서 그 소금을.)

107061 # 응, 소금물 골아근에, 소금물 골앙 놔두민이 펄이 거멍헌 펄이 골아 앉아.(응, 소금물 갈아서, 소금물 갈아서 놔두면 펄이 거먼 펄이 가라 앉아.)

107061 @ 아.(아.)

107061 # 그럼 오늘 골앙 낼, 낼 저냑쯤 뒈사 물이 곱닥허게 골라지민 거 소로로 허게 똘라근에.(그럼 오늘 갈아서 내일, 내일 저녁쯤 돼야 물이 곱게 가라앉으면 그거 소르르하게 따라서.)

107061 @ 응.(응.)

107061 # 장에 둠주, 경 안허민 그 소금에 펄이 잇어.(장에 담지, 그렇지 않으면 그 소금에 펄이 있어.)

107061 @ 아, 응.(아, 응.)

107061 # 거멍헌 흑 닮은 거.(거먼 흙 같은 거.)

107061 @ 응.(응.)

107061 # 그냥 골멍싸라 놓민 막 그 펄. 경헌 따문에 골아근에 소금물 골앙 놔두민, 영 골앙 오래 놔두민 이디 막 그 흑 닮은 물이 거멍헌 물이 쏙허게 골라앚아. 겨민 그 물 똘라놔.(그냥 말하면서 놓으면 막 그 펄. 그런 때문에 갈아서 놔두면, 이렇게 갈아서 오래 놔두면 여기 막 그 흙 같은 물이 거먼 물이 쑥하게 가라앉아.)

107061 @ 소금물 가는 건 그냥?(소금물 가는 건 그냥?)

107061 # 그냥 물 놩 영영 휘휘 젓어 놔두민 소금 믄 녹주게. 겨민 소금물 믄 녹주게, 녹으민 그디 펄이 믄 골라앚아. 늣이 골라앚아. 겨민 곱닥헌 물만 소로록 허게 똘랑 메주 들이쳥 육지 사름들은 막 숫 잇잖아이.(그냥 물 놔서 이렇게 이렇게 휘휘 저어 놔두면 소금 모두 녹지. 그러면 소금물 모두 녹지, 녹으면 거기 펄이 모두 가라앉아. 이끼가 가라앉아. 그러면 고운 물만 소르르 하게 따라서 메주 들이뜨려 육지사람들은 막 숯 있잖아.)

107061 @ 예, 예, 예.(예. 예, 예.)

107061 # 숫이영 고치여 믄 들이치지만은 이디는 그런 거 엇어.(숯이랑 고추랑 모두 들이뜨리지만 여기는 그런 거 없어.)

107061 @ 아, 그런 거 아무것도 안 놔?(아, 그런 거 아무것도 안 놔?)

107061 # 응, 아무것도 안 놔.(응, 아무것도 안 놔.)

107061 @ 아, 그냥 소금물허곡.(아, 그냥 소금물하고.)

107061 # 소금물허곡 메주만 들이청 딱 놔두민, 두께만 더꺼근엥에 놔두민.(소금물하고 메주만 들이뜨려서 딱 놔두면, 뚜껑만 덮어서 놔두면.)

107061 @ 응, 그거 비 들어가민 안 뭽니께예?(응, 그거 비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107061 # 게, 군물 들엉은 안 뒈.(그렇지, 군물은 들어가서는 안 돼.)

107061 @ 그믄 어떵 잘 가냥헤야지.(그러면 어떻게 잘 간수해야지.)

107061 # 장탱이 더꺼야 헤여, 우에.(장태 덮어야 해, 위에.)

107061 @ 우에? 응.(위에? 응.)

107061 # 응.(응.)

107061 @ 헝겊으로 영 싸?(헝겊으로 이렇게 싸?)

107061 # 험벅으로 싸놔근에 또 둥글게 말앙 험벅으로 쌍 우트레 저 두껭이 더퍼야 뒈여.(헝겊으로 싸놔서 또 둥글게 말아서 헝겊으로 싸서 위에 저 뚜껑 덮어야 돼.)

107061 @ 어, 그게 장탱이?(어, 그게 장태?)

107061 # 응, 장탱일 더꺼야 허여. 무사 그 테레비 보민 장탱이 안 더끄나? 더꺼야 허지.(응, 장태를 덮어야 해. 왜 그 텔레비전 보면 장태 안 덮니? 덮어야지.)

107061 @ 거난, 날 좋으민 열엇당, 예.(그러니까, 날 좋으면 열었다가, 예.)

107061 # ᄒᆞ쏠 열어줘야 허여. 짐 나야 뒈여, 벳듸 놓민 더운 짐이 뜨끈뜨끈허민 장이 변헤여.(조금 열어줘야 해. 김 나가야 돼, 볕에 놓으면 더운 김이 뜨끈뜨끈하면 장이 변해.)

107061 @ 아.(아.)

107061 # 게난 쪼끔 쪼끔, 들렁 짐 나게.(그러니까 조금, 조금, 들어서 김 나가게.)

107061 @ 아, 날 존 날은 ᄒᆞ끔 열엇당.(아, 날 좋은 날은 조금 열었다가.)

107061 # ᄒᆞ쏠 열아주어사 뒈어, 게난이 요즘 장 두껑 나오는 거 보난이, 똑 영헌 바위에 돋게시리 나왓더라. 쳇망ᄀᆞ치 이젠 고망 베롱베롱허게 나오게 헨에 톡허게 더퍼 놓는 거 나왓더라.(조금 열어줘야 돼, 그러니까 요즘 장 뚜껑 나오는 거 보니까, 꼭 이렇게 한 가장자리에 달리게 나왔더라. 쳇바퀴같이 이젠 구멍 송송 나오게 해서 톡하게 덮어 놓는 거 나왔더라.)

107061 @ 이젠 안 열어줘도 뒈게?(이젠 안 열어줘도 되게?)

107061 # 이젠 안 열어도 뒈게. 글로 공기 통허게.(이젠 안 열어도 되게. 그리로 공기 통하게.)

107061 @ 경헹 헤 놓민 언제쯤에 먹어져?(그렇게 해서 해 놓으면 언제쯤에 먹을 수 있어?)

107061 # 아, 먹으믄 ᄒᆞᆫ 둘만 뒈어가민 장이 색ᄌᆞ가 나와, 장물이 까망헤 가.(아, 먹으면 한 달만 되어가면 장이 색깔이 나와, 장물이 까매져.)

107061 @ 응, 거난 뒌장 ᄯᅳ로 간장 ᄯᅳ로 놧뒷당?(응, 그러니까 된장 따로 간장 따로

놔뒀다가?)

107061 # 경허민 요거.(그러면 요거.)

107061 @ 혼 달 정도 지나면?(한 달 정도 지나면?)

107061 # 요거 우리가 혼 둘 정월 혼 둘, 이월, 이월 혼 이십일만 뒈민 장 딱 갈라, 혼 둘 반이 혹쏠 넘어가민. 그땐 갈라. 장 갈라.(요거 우리가 한 달 정월 한 달, 이월, 이월 한 이십일만 되면 장 딱 갈라, 한 달 반이 조금 넘어가면. 그땐 갈라. 장 갈라.)

107061 @ 장을 갈라? 뒌장허고.(장을 갈라? 된장하고.)

107061 # 뒌장 뚜루, 간장 뚜루.(된장 따로, 간장 따로.)

107061 @ 겡 갈랑, 그다음부턴 먹어져?(그래서 갈라서, 그다음부턴 먹을 수 있어?)

107061 # 게, 그다음에사 먹지게.(그렇지, 그다음에야 먹을 수 있지.)

107061 @ 갈라나민 먹어지는구나예.(가르고 나면 먹을 수 있군요.)

107061 # 그 전이도 먹긴 먹는디, 그거 장 자꾸 거려 나민 간장 빼기가 어려워, 문 카져.(그 전에도 먹긴 먹는데, 그거 장 자꾸 뜨고 나면 간장 빼기가 어려워, 모두 부서져.)

107061 @ 아.(아.)

107061 # 뒌장이 개미[196]가 뒌장이 카져불민 장물 빼기가 궂이난, 거찌지 안헷다근에 그때 삭 허게 메주 톡톡톡톡 손으로 건져불민 장물만 싹 빼져.(된장이 '개미'가 된장이 부서져 버리면 간장 빼기가 궂으니까, 건드리지 않았다가 그때 삭 하게 메주 톡톡톡톡 손으로 건져버리면 간장만 싹 빠져.)

107061 @ 아.(아.)

107061 # 경헹 간장 빼도근에, 그거 따시 막 무르껴근에 뒌장 개미 그 메주를 문 안 둠강 세 개나 네 개나 냄겨이. 냄겻당 그거 막 뿟앙 따시 그 장물 빠난 것드레 따시 막 서꺼.(그렇게 해서 간장 빼두고, 그거 다시 막 으깨서 된장 '개미' 그 메주를 모두 안 담그고 세 개나 네 개나 남겨. 남겼다가 그거 막 빻아서 다시 그 간장 뺏던 것에 다시 막 섞어.)

107061 @ 아.(아.)

107061 # 서껑 딱 지둘랑 혼 둘만 시민 장이 벌겅 뒌장이 벌겅헤여.(섞어서 막 지질러서 한 달만 있으면 장이 벌겋게 된장이 벌게.)

107061 @ 응.(응.)

107061 # 그땐 먹는 거.(그땐 먹는 거.)

107061 @ 아, 거난, 다 장물에 담그는 게 아니고?(아, 그러니까, 다 간장에 담그는 게 아니고?)

107061 # 응, 멧 개 냄겨.(응, 몇 개 남겨.)

107061 @ 아, 멧 개 냄겨.(아, 몇 개 남겨.)

107061 # 멧 개 놧당은에 그 장물 갈라나민 그것에 딱딱 뿟아근에 서꺼. 서껑 놔두민 벌겅허게.(몇 개 놨다가 그 간장 가르고 나면 그것에 딱딱 빻아서 섞어. 섞어서 놔두

196) '개미'는 장을 담가서 소금물에 있던 메주덩이를 말한다.

면 벌게.)

107061 @ 그거, 그거 아까 그거 무신거? 장물 개미?(그거, 그거 아까 그거 무엇? 간장 '개미'?

107061 # 뒌장.(된장.)

107061 @ 뒌장 개미? 그건 뒌장 개미엔 헙니까?(된장 '개미'? 그건 된장 '개미'라고 합니까?)

107061 # 응.(응.)

107061 @ 장물에 안 들이친 거?(간장에 안 들이뜨린 거?)

107061 # 장물에 안 들인 건 뒌장, 장물에 들이쳐진 건, 저 저 장캐미[197]. 장캐미 강 건져오라.(간장에 안 들이뜨린 건 된장, 장물에 들이뜨린 건, 저 저 '장캐미'. '장캐미' 가서 건져와라.)

107061 @ 아, 장캐미!(아, '장캐미'!)

107061 # 뒌장개미가 아니고 장캐미.(된장'개미'가 아니고 '장캐미'.)

107061 @ 장캐미! 이것이 장물에 담갓던 뒌장예? 아니 장물에 놔놘 메주?('장캐미'! 이것이 간장에 담갔던 된장요? 아니 간장에 놨던 메주?)

107061 # 그냥 따시 장물 갈랑 그냥 헌 땐, 뒌장 거려오라 영 헷주만은, 그 간장물에 신 때 강 거려오젠 허민 저 장캐미 강 ᄒᆞ나 거려오라.(그냥 다시 간장 갈라서 그냥 한 땐, 된장 떠와라 이렇게 했지마는, 그 간장 물에 있을 때 가서 떠오려고 하면 저 '장캐미'가서 하나 떠와라.)

107061 @ 아, 그건 장캐미.(아, 그건 '장캐미'.)

107061 # 응, 장캐미 강 ᄒᆞ나 거렁오라. 경헷주 엿날엔.(응, '장캐미' 가서 하나 떠와라. 그랬지 옛날엔.)

107061 @ 응, 장물에 잇는 메주.(응, 장물에 있는 메주.)

107061 # 응. 그거는 강 뒌장 거렁 오렌 허젠 허면, 뒌장을 만들어 놔야 뒌장인디게 경허난 강 장캐미 강 건졍 오라.(응, 그거는 가서 된장 떠 오라고 하려고 하면, 된장을 만들어 놔야 된장인데 그러니까 가서 '장캐미' 가서 건져 와라.)

107061 @ 게민 아까 저 메주 장물에 안 담근 메주는 뭐엔 곧는 말 이수과?(그러면 아까 저 메주 간장에 안 담근 메주는 뭐라고 하는 말 있습니까?)

107061 # 그거는 그자 메주.(그거는 그저 메주.)

107061 @ 그냥 메주, 응.(그냥 메주, 응.)

107061 # 그냥 메주. 메주 ᄲᆞᆺ아근엥에, 그 뒌장 장 갈를 땐 그것에 따시 ᄲᆞᆺ앙 서껑 딱 눌렁 놔둬사.(그냥 메주. 메주 빻아서, 그 된장 장 가를 땐 그것에 다시 빻아서 섞어서 딱 눌러서 놔둬야.)

107061 @ 무신걸로 눌러?(무엇으로 눌러?)

107061 # 그냥 손으로 꼭꼭꼭꼭 눌러근에 그 우트레 소금 싹허게 뿌려. 경 안허민 버렝이 일카부덴.(그냥 손으로 꼭꼭꼭꼭 눌러서 그 위에 소금 싹하게 뿌려. 그렇지 않으

197) '장캐미'는 '장'과 '개미'의 합성어로 간장에 담가진 메주를 말한다.

면 벌레 일까봐.)

107061 @ 아.(아.)

107061 # 소금 흐쏠 뿌려근에 딱 눌러근에 놔두민 흔 둘만 놔두민 장이 벌겅헤여.(소금 조금 뿌려서 뚝 눌러서 놔두면 한 달면 놔두면 장이 벌게.)

107061 @ 응.(응.)

107061 # 그추룩 허민 그것이 뭰장이주, 벨 거 아니. 육지사름덜 허는 거 봐, 지금도, 지금도.(그렇게 하면 그것이 된장이지, 별거 아니. 육지사람들 하는 거 봐, 지금도, 지금도.)

107062 @ 메주는 게난 아까, 콩 나민 이제 흔 십이월달 뒈민 허는 거예?(메주는 그러니까 아까, 콩 나면 이제 한 십이월 되면 하는 거요?)

107062 # 응, 콩 나민 솖아근에 그거 이 엿날엔 막 방에로 찍엇지만은 요즘은 비니루 까풀 잇어이.(응, 콩 나면 삶아서 그거 이 옛날엔 막 방아로 찧었지만 요즘은 비닐 꺼풀 있어.)

107062 @ 예.(예.)

107062 # 비루포, 그거 깨끗허게 싯엇당 그것에 놩 불라.(비닐 포, 그거 깨끗하게 씻었다가 그것에 놔서 밟아.)

107062 @ 하하하하.(하하하하.)

107062 # 꽁꽁 불라놓민 이건 뭐 콩 문짝허게시리 카지는 거라.(꽁꽁 밟아놓으면 이건 뭐 콩 문적하게끔 부서지는 거야.)

107062 @ 우리 옛날에도 찰리에 담앙 막 불라난 거 닮수다.(우리 옛날에도 자루에 담아서 막 밟았던 거 같습니다.)

107062 # 응, 엿날에도.(응, 옛날에도.)

107062 @ 그냥 이 천으로 뭰 찰리에 헹 놩은에.(그냥 이 천으로 된 자루에 해서 놔서.)

107062 # 그건 허젠 허민이 발에 다 부떠.(그건 하려고 하면 발에 다 붙어.)

107062 @ 아.(아.)

107062 # 부떠, 물 삔직삔직 나오멍. 발에 부떠신디. 요즘은 그것이 아니라, 비니루포. 그 비니루 담아놩 거 비니루 비와불민 곱잖아게.(붙어, 물 찔끔찔끔 나오면서. 발에 붙었는데. 요즘은 그것이 아니야, 비닐 포. 그 비닐 담아놔서 그거 비닐 부어버리면 곱잖아.)

107062 @ 아.(아.)

107062 # 겨민 막 그거 물에 시쳐, 멧 번 시쳐비둬근엥에 팍삭 영 둘아멩 놔두민 파삭 물리민 그거 놧다근에 그것에 담앙 졸라메엉 뽁뽁 불르민이 그렇게 잘 불라져.(그러면 막 그거 물에 씻어, 몇 번 씻어버리고 바삭 이렇게 달아매 놔두면 바싹 말리면 그거 놨다가 그것에 담아서 졸라매서 뽁뽁 밟으면 그렇게 잘 밟을 수 있어.)

107062 @ 엿날엔 그런 거 엇이난?(옛날엔 그런 거 없으니까?)

107062 # 엇이난 방에서 지곡, 아이고 얼마나, 얼마나 못 젼디게 헤나시니? 방에서

져사.(없으니까 방아에서 찧고, 아이고 얼마나, 얼마나 못 견디게 했었니? 방아에서 찧어야.)

107062 @ 아, 방에서 젼? 아 방에서 젼. 응.(아, 방아에서 찧었어? 아, 방아에서 찧었어. 응.)

107062 # 져서. 경허민 방에서 진다 허는 게 잘 지어지지도 안허여. 경헤도 그거 지어가민 콩이 문 카져. 경헤도.(찧었어. 그러면 방아에서 찧는다는 게 잘 찧어지지도 않아. 그래도 그거 찧어 가면 콩이 모두 부서져. 그래도.)

107062 @ 거민 다 지어지민 그다음에 모양 만드는 거라?(그러면 다 찧어지면 그다음에 모양 만드는 거야?)

107062 # 경허민 똑똑허게 영영영 허민 네모나게 헤영, 영 돌아매어근에.(그러면 똑똑하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면 네모나게 해서, 이렇게 달아매서.)

107062 @ 뭘로 영 돌아매는 건 뭘로 돌아매낫수과? 옛날에?(뭘로 이렇게 달아매는 건 뭘로 달아맸었습니까? 옛날?)

107062 # 찝 잇잖여, 엿날에도 산뒤찝.(짚 있잖아, 옛날에도 밭볏짚.)

107062 @ 아, 산뒤찝으로?(아, 밭볏짚으로?)

107062 # 응, 산뒤찝으로.(응, 밭볏짚으로.)

107062 @ 겐 두 개? 세 개?(그래서 두 개? 세 개?)

107062 # 두 개도 돌아맬 거 잇곡, 산뒤찝으로 헤영 졸게 요거 졸게 젭은 거 세 개도 돌아매곡, 경 안허민 두 개. 경헤영 영 돌아매어근에.(두 개도 달아맬 거 있고, 밭볏짚으로 해서 잘게 요거 잘게 만든 거 세 개도 달아매고, 그렇지 않으면 두 개. 그렇게 해서 이렇게 달아매서.)

107062 @ 겐 메칠이나 돌아매?(그래서 며칠이나 달아매?)

107062 # 그거 돌아매엉 트는 거 혼 혼 돌이나 걸려, 거 몰르멍 트멍. 우엔 튼 거 닮지 안허도 소곱엔 문 트멍 몰리젠 허민 혼 돌이나 걸려. 영헌 디 돌아매어근에.(그거 달아매어서 뜨는 거 한 한 달이나 걸려, 그거 마르면서 뜨면서. 위엔 뜬 거 같지 않아도 속엔 모두 뜨면서 말리려고 하면 한 달이나 걸려. 이렇게 한 데 달아매서.)

107062 @ 경헹 그거 저 장 담그젠 허민 시쳐삽니께?(그래서 그거 저 장 담그려고 하면 씻어야 되잖아요?)

107062 # 시져야주, 거물거물헌 거 다 시져야.(씻어야지, 거뭇거뭇한 거 다 씻어야.)

107062 @ 예, 그거. 허젠 허민 막 추운디 물에 강예.(예, 그거. 하려고 하면 아주 추운데 물에 가서요.)

107062 # 응, 물에 둠가놩 솔로 막 밀민 퍼렇게 튼 물이 문 나와.(응, 물에 담가놔서 솔로 막 밀면 퍼렇게 뜬 물이 모두 나와.)

107062 @ 이제사 솔이주만은 엿날 솔 엇이민?(이제야 솔이지만 옛날은 솔 없으면?)

107062 # 솔 엇이민 저 거시기 새 잇잖아이. 새 코뜽케 졸라매근에 딱 무꺼근에 딱 쫄라비어.(솔 없으면 저 거시기 띠 있잖아. 띠 가지런히 졸라매서 딱 묶어서 딱 잘라버려.)

107062 @ 솔 만드는 거구나.(솔 만드는 거구나.)

107062 # 응, 경헤영 새 이파리로 허민 영 속속속속 밍기민 새 등채기로 허민 썹으로 허지 말앙 등채기 딱 쫄란 무꺼근에, 똑 끈어불민 요 등채기는 ᄒᆞ쏠 세거든.(응, 그래서 띠 이파리로 하면 이렇게 속속속속 밀면 띠 줄기로 하면 잎으로 하지 말고 줄기로 딱 잘라서 묶어서, 똑 잘라버리면 요 줄기는 조금 세거든.)

107062 @ 응.(응.)

107062 # 솔 대신 씰멍 싯는 거 경헹 헷주. 엿날에 솔이 잇어?(솔 대신 쓸면서 씻는 거 그렇게 했지. 옛날에 솔이 있어?)

107062 @ 게난예.(그러니까요.)

107062 # 게난. 경헹 우리 시지멍.(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씻으면서.)

107063 @ 이거 장 담글 때 영 허민 안뒌다 허는 거 이수과? 무신거 허지 말라. 영헹.(이거 장 담글 때 이렇게 하면 안된다 하는 거 있습니까? 무엇 하지 말라.)

107063 # 부정 밧듸 뎅겨난 사름 뎅기지 말렌 허여, 영장밧듸.(부정 밭에 다녔던 사람 다니지 말라고 해, 장지에.)

107063 @ 아, 영장밧듸 가난 사람, 응.(아, 장지 갔던 사람, 응.)

107063 # 경 몸 부정헌 사람 뎅기지 말렌 허곡.(그렇게 몸 부정한 사람 다니지 말라고 하고.)

107063 @ 아, 건강 안 허민 장이 잘 안 뒌덴 허는 거라?(아, 건강 안 하면 장이 잘 안 된다고 하는 거야?)

107063 # 응, 장이 잘 안 뒌덴.(응, 장이 잘 안 된다고.)

107063 @ 응.(응.)

107063 # 몸 부정헌 사람 뎅기지 말곡, 영장밧듸 뎅겨난 사람 뎅기지 말곡. 장 담그지 말곡.(몸 부정한 사람 다니지 말고, 장지에 다녔던 사람 다니지 말고. 장 담그지 말고.)

107063 @ 장 담그젠 허민예, 그 장 담글 때 무신 날에 담그는 날 봐? 무신 날, 무신 날? 듹날, 말날 이렇게 뭐.(장 담그려고 하면요, 그 장 담글 때 무슨 날에 담그는 날 봐? 무슨 날, 무슨 날? 닭날, 말날 이렇게 뭐.)

107063 # 엿날에는, 엿날에는 날 보멍 ᄃᆞᆼ갓젠 헌디. 요샌 날 그런 거 안 봐. 아무 때라도, 이녁 ᄃᆞᆼ그고 싶을 때. 아무 때나 ᄃᆞᆼ가.(옛날에는, 옛날에는 날 보면서 담갔다고 하는데. 요샌 날 그런 거 안 봐. 아무 때라도, 자기 담그고 싶을 때. 아무 때나 담가.)

107063 @ 옛날에 할머니는 무신 날에 담가난지 알아지쿠과?(옛날에 할머니는 무슨 날에 담갔는지 알 수 있습니까?)

107063 # 엿날에 듹날. 어느 날산디 듹날 허곡, 개날 촞곡 경헤낫저. 메주 숢는 것도 오늘 무신 날이니? 개날이냐 듹날이냐?(옛날에 닭날. 어느 날인지 닭날 하고, 개날 찾고 그랬었어. 메주 삶는 것도 오늘 무슨 날이니? 개날이냐, 닭날이냐?)

107063 @ 아, 개날이나 듹날에 숢는 거?(아, 개날이나 닭날에 삶는 거?)

107063 # 개날이나 듹날이나 경 촞앙 메주도 숢곡, 장 더끄는 것도 겐디 요신 그런

거 엇어.(개날이나 닭날이나 그렇게 찾아서 메주도 삶고, 장 덮는 것도 그런데 요샌 그런 거 없어.)

107063 @ 예, 요샌 그런 거 엇어예.(예, 요샌 그런 거 없어요.)

107063 # 그자 아무 때라도 이녁 트멍 낭 한글만 허민. 메주도 솖곡, 장도 아무 때라도 그자.(그저 아무 때라도 자기 여유 생겨서 한가만 하면. 메주도 삶고, 장도 아무 때라도 그저.)

107063 @ 무신 날에는 장 담그면 안뒌덴 허는 거 이수과? 뭐 소날이나 뭐 이런땐 허민 안뒌다 뭐 영허는 거?(무슨 날에는 장 담그면 안 된다고 하는 거 있습니까? 뭐 소날이나 뭐 이런 땐 하면 안 된다 뭐 이렇게 하는 거?)

107063 # 몰라, 그런 말은 안 들어봐시난, 그 말은 안 들어봣어.(몰라, 그런 말은 안 들어봤으니까, 그 말은 안 들어봤어.)

107063 @ 아, 그런 말은 안 들어봔예.(아, 그런 말은 안 들어봤어요.)

107063 # 그자, 오늘 무신날이니? 허민 둑날, 개날 그거 춧앙 둥그는 것벳긔.(그저, 오늘 무슨 날이니? 하면 닭날, 개날 그거 찾아서 담그는 거밖에.)

107063 @ 그거 두 개 춧앙예?(그거 두 개 찾아서요?)

107063 # 그게 두 개 춧앙 둥그는 것만 헷주, 쉐날이여 무신 그런 말은 나 들어 본 디 엇고.(그게 두 개 찾아서 담그는 것만 했지, 소날이다 무슨 그런 말은 나 들어본 적 없고.)

떡류

107064 @ 뭐, 그다음엔 이제 떡할 거예. 떡, 떡 종류는 어떤, 어떤 떡 이수과?(뭐, 그다음엔 이제 떡할 거요. 떡, 떡 종류는 어떤, 어떤 떡 있습니까?)

107064 # 절벤[198], 절벤이엔 헌 건이, 영영 보병 두 개 놩 딱 눌리는 거라.(절편, 절편이라고 한 건, 이렇게 비벼서 두 개 놔서 딱 누르는 거야.)

107064 @ 아.(아.)

107064 # 동글랑 영영영영 동그렁 놔근에 두 개 마주 부청 꽉 눌리는 거라. 이건 절벤.(동그랗게 이렇게 이렇게 굴려 놔서 두 개 마주 붙여서 꽉 누르는 거야. 이건 절편.)

107064 @ 응, 그다음.(응, 그다음.)

107064 # 또 그다음은 촥 허게 밀어놩 요추룩 밀어놩 네모나게 영, 영, 네모나게 칼로 쫄른 거 그건 인절미.(또 그다음은 쫙 하게 밀어놔서 요렇게 밀어놔서 네모나게 이렇게, 이렇게, 네모나게 칼로 자른 거 그건 인절미.)

107064 @ 아, 건 인절미. 응.(아, 그건 인절미. 응.)

107064 # 또, 짝 허게 밀어놔근에 또 솔펜이엔 헌 건 반돌, 반돌이 솔편이라이. 이거이.(또, 쫙 하게 밀어놓고 또 솔편이라고 한 건 반달, 반달이 솔편이야. 이거.)

107064 @ 예.(예.)

198) '절벤'은 둥근 떡살로 눌러 만든 흰떡으로 절편과 비슷하다.

107064 # 영 동글랑허게 놩 딱 쫄르민 반둘 뒈잖아, 그건 솔펜.(이렇게 동그랗게 놔서 딱 자르면 반달 되잖아, 그건 솔편.)

107064 @ 예.(예.)

107064 # 인절미허고 절벤은 마주 두 개 마주 놩 눌린 게 절벤이고.(인절미하고 절편은 마주 두 개 마주 놔서 누른 게 절편이고.)

107064 @ 예.(예.)

107064 # 그냥 네모나게 헌 거는 인절미고 또 반둘은 솔펜이고, 그거.(그냥 네모나게 한 거는 인절미고 또 반달은 솔편이고, 그거.)

107064 @ 그리고 친떡.(그리고 시루떡.)

107064 # 친떡은 제펜[199]이엔 허는 건 쉬 안 놔근에이, 쉬 안 놔근에 헤영헌 떡이 제펜, 또 그냥 친떡은 쉬 놔근에 헌 것은 문친떡. 그거지.(시루떡은 '제편'이라고 하는 건 고물 안 놔서, 고물 안 놔서 하얀 떡이 '제편', 또 그냥 시루떡은 고물 놔서 한 것은 '문친떡'. 그거지.)

107064 @ 문친떡?('문친떡'?)

107064 # 엿날에, 이제는 그자 친떡 영허주마는 엿날엔, 쉬 놩, 풋쉬 놔근에 친 건 문친떡[200].(옛날에, 이제는 그저 시루떡 이렇게 했지마는 옛날엔, 고물 놔서, 팥고물 놔서 찐 건 '문친떡'.)

107064 @ 오.(오.)

107064 # 엿날 어른들 골은 말은 문친떡. 또 쉬 아이 놔근에 헤옇게 친 건.(옛날 어른들 하는 말은 '문친떡'. 또 고물 안 놔서 하얗게 찐 건.)

107064 @ 제펜.('제펜'.)

107064 # 제펜.('제펜'.)

107064 @ 주로예, 주로 이런 떡 이신 거구나예.(주로요, 주로 이런 떡 있는 거군요.)

107064 # 응.(응.)

107065 @ 게민 먼저 친떡을 허젠 허민 어떵 헤야 뒈는 거꽈?(그러면 먼저 시루떡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107065 # 친떡이엔 헌 건.(시루떡이라고 한 건.)

107065 @ 아까 문친떡부터 헤보게예.(아까 '문친떡'부터 해봐요.)

107065 # 문친떡이엔 헌 건 시리에 놓앙 친 거, 응.(문친떡'이라고 한 건 시루에 놔서 찐 거, 응.)

107065 @ 시리에?(시루에?)

107065 # 시리에 놓앙 치젠 허민이, 저.(시루에 놓아서 찌려고 하면, 저.)

107065 @ 시리고냥부터 막아사주예?(시루구멍부터 막아야지요?)

107065 # 고망은 저 무수 벵동글랑허게 그 시릿고망은 동글랑 동글랑 허잖아이.(구멍은 저 무 뱅동그랗게 그 시루 구멍은 동그랗게 동그랗게 하잖아.)

---

199) '제펜'은 제사상에 올리는 시루떡으로 '저펜'이라고도 한 말한다.

200) '문친떡'은 팥고물을 묻힌 시루떡을 말한다.

107065 @ 예.(예.)

107065 # 무수 똑똑 허게시리 썰어.(무 똑똑 하게끔 썰어.)

107065 @ 예.(예.)

107065 # 엿날 쉐뿔 무수 쫄랑헌 거나 그거에나 동글동글 썰엉 그 고망드레 톡톡톡 막아, 그걸로. 막아놔근에 그레 ᄀᆞ루 영 놔근에 흔 징 놔놩, 골라근에 펜펜허게 골라놩 또 풋쉬 흔 번 영 뿌려놩 또 그 우트레 ᄀᆞ루 거려놓곡, 경헌 게 문친떡.(옛날 쇠뿔 무 길쭉한 거나 그거에나 동글동글 썰어서 그 구멍에 톡톡톡 막아, 그걸로. 막아놔서 그리 가루 이렇게 놔서 한 켜 놓고나서, 골라서 편편하게 골라놓고 또 팥고물 한 번 이렇게 뿌려놔서 또 그 위에 가루 떠 놓고, 그런 게 '문친떡'.)

107065 @ 게난 이건 쏠ᄀᆞ루로 허는 거꽈?(그러니까 이건 쌀가루로 하는 겁니까?)

107065 # 응, 쏠ᄀᆞ루로.(응, 쌀가루로.)

107065 @ 쏠ᄀᆞ루로예, 겐 풋쉬 놓는 거예?(쌀가루로요, 그래서 팥고물 놓는 거요?)

107065 # 응, 쏠ᄀᆞ루로 풋쉬 놩 떡 치는 거.(응, 쌀가루로 팥고물 놔서 떡 찌는 거.)

107065 @ 게민 그, 경 놩 시리 헹 시리 뚜껑 닫아?(그러면 그, 그렇게 놔서 시루 해서 시루 뚜껑 닫아?)

107065 # 응, 두껑 닫아. 두껑 험벅으로 딱 더퍼. 다른 걸로 안허곡.(응, 뚜껑 닫아. 뚜껑 헝겊으로 딱 덮어. 다른 걸로 안하고.)

107065 @ 아, 경헹 불뗑예.(아, 그렇게 해서 불 때서요.)

107065 # 불 뗑 쳐, 시리 앚져근에. 시리 고망도 막 막곡.(불 때서 쪄, 시루 안쳐서. 시루 구멍도 막 막고.)

107065 @ 솟듸에 앚정.(솥에 안쳐서.)

107065 # 솟듸 앚정 옆으로 그 시리 고망으로 짐이 올라 오랑 헛짐이 다른 드레 나지 말게, 시리 영 영 톡허게 영 시리 앚지민 이디 솟광 이 시리 사이에 짐이 나와비어이.(솥에 안쳐서 옆으로 그 시루 구멍으로 김이 올라 와서 헛김이 다른 데로 나지 않게, 시루 이렇게 이렇게 톡하게 이렇게 시루 안치면 여기 솥과 이 시루 사이에 김이 나와버려.)

107065 @ 예, 예.(예, 예.)

107065 # 경허민 ᄀᆞ루 뱅뱅 달롸근에 고망 막아. 일로 뱅 돌아가멍.(그러면 가루 뱅뱅 이겨서 구멍 막아. 이리로 뱅 돌아가면서.)

107065 @ 솟허고 시리 사이에?(솥하고 시루 사이에?)

107065 # 응, 시리 사이에 고망 막아. 짐 어디레 못 나가게.(응, 시루 사이에 구멍 막아. 김 어디로 못 나가게.)

107065 @ 응.(응.)

107065 # 경헤사 그 짐이 시리를 영 우트레 올라오멍 떡이 쳐질 거라이. 경헹 쳐난 거, 엿날 어른들.(그래야 그 김이 시루를 이렇게 위로 올라오면서 떡이 쪄질 거야. 그래서 쪘던 거. 그래서 쪘던 거, 옛날 어른들.)

107065 @ 아.(아.)

107065 # 그 요새엔 기계 강 팡팡 쳐 왐주마는.(그 요새엔 기계가 팡팡 마구 오고 있지마는.)

107065 @ 게난.(그러니까.)

107065 # 엿날에 시리떡 쳐 먹젠 허민 잘도 시끄라와.(옛날엔 시루떡 쪄 먹으려고 하면 아주 시끄러워.)

107065 @ 겐 다 쳐지민 그땐 어떵허여?(그래서 다 쪄지면 그땐 어떻게 해?)

107065 # 그 들러내근에 비와.(그 들어내서 부어.)

107065 @ 비왕?(부어서?)

107065 # 비와근에 이젠 칼로, 영 비와, 영 혼 빗[201]썩.(부어서 이젠 칼로 이렇게 부어, 이렇게 한 '빗'씩.)

107065 @ 아, 혼 빗썩 영 비어.(아, 한 '빗'씩 이렇게 베어.)

107065 # 칼로 영 쫄라놔근에 영영 쫄랑 혼 징 쫄라근에 톡톡허게 그릇드레 문 앗아놔동 또 나온 것 또 혼 징 쫄르고, 또 혼 징 쫄르고 경허메, 엿날에.(칼로 이렇게 잘라 놓고 이렇게 이렇게 잘라서 한 켜 잘라서 톡톡하게 그릇에 모두 가져놔두고 또 나온 것 또 한 켜 자르고 또 한 켜 자르고 그렇게 해, 옛날에.)

107065 @ 게민 그냥, 그냥 제펜은 어떵헹 치는 거꽈? 다 부터불잖아.(그러면 그냥, 그냥 제편은 어떻게 해서 찌는 겁니까? 다 붙어버리잖아.)

107065 # 대섭 잇잖아.(댓잎 있잖아.)

107065 @ 아.(아.)

107065 # 대섭 헤다근엥에 이제 요거 혼 징 떠근에.(댓잎 해다가 이제 요거 한 켜 떠서.)

107065 @ 쉬 대신에?(고물 대신에?)

107065 # 응, 쉬 이추룩 ᄀᆞ루 놀 거 아니?(응, 고물 이렇게 가루 놓을 거 아니?)

107065 @ 예.(예.)

107065 # ᄀᆞ루 놓민 요 우트레 대섭을 또 문딱 ᄀᆞ루 문 막아지게 더퍼.(가루 놓으면 요 위에 댓잎을 또 모두 가루 모두 막히게 덮어.)

107065 @ 아.(아.)

107065 # 츠레츠레츠레츠레 문딱 놩 더퍼놩, 또 그 우트레 ᄀᆞ루 또 거려놩, 거려놩 골랑 또 그 우트레 대섭 헤다근에 또또 문 막아지게 놓는 거라.(차례차례차례차례 모두 놔서 덮어놔서, 또 그 위에 가루 또 떠놔서, 떠놔서 골라서 또 그 위에 댓잎 해다가 또 또 모두 막히게 놓는 거야.)

107065 @ 응, 응.(응, 응.)

107065 # 경허민 이거 쉬 안 든 거, 헤영허게.(그러면 이거 고물 안 든거, 하얗게.)

107065 @ 쉬 안 든 거예.(고물 안 든 거요.)

107065 # 제펜이라 이게, 엿날 어른들은 어떵 어렵게사 살아신지.(제편이야 이게, 옛날 어른들은 어떻게 어렵게야 살았는지.)

---

201) '빗'은 칼로 베어낸 시루떡의 낱개나 그것을 세는 말이다.

107066 @ 송펜도 헹 먹어낫지예? 송편, 송펜.(송편도 해서 먹었었지요? 송편, 송편.)

107066 # 송편 거 곳사 골은 게 송펜 아니냐? 이게.(송편 그거 아까 말한 게 송편 아니냐? 이게.)

107066 @ 속에 속에 놓는 거 쉬예!(속에 속에 놓는 거 소요!)

107066 # 속에 놓는 건, 저 이건 솔벤이고. 송편이엔 헌 건 소곱에 담앙 준준허게 접는 거.(속에 놓는 건, 저 이건 솔편이고. 송편이라고 한 건 속에 담아서 자잘하게 접는 거.)

107066 @ 게난, ᄀᆞ루 골앙.(그러니까, 가루 갈아서.)

107066 # ᄀᆞ루 골앙. 속에 쉬 놓곡.(가루 갈아서. 속에 소 놓고.)

107066 @ 반죽헤영.(반죽해서.)

107066 # 반죽헤영, 그냥 영영 달롸.(반죽해서, 그냥 이렇게 이렇게 이겨서.)

107066 @ 익반죽? 뜨거운 물로?(익반죽? 뜨거운 물로?)

107066 # 응. 뜨거운 물 놔근에 달롸근에 그건 쪼끔 헤영 손에 놩 영영영 헤근에 영고망 똘라근에 그레 쉬 담앙 줍는 거.(응. 뜨거운 물 놔서 이겨서 그건 조금 해서 손에 놔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구멍 뚫어서 그리 소 담아서 접는 거.)

107066 @ 응, 영 접으민.(응, 이렇게 접으면.)

107066 # 그거 송편.(그거 송편.)

107066 @ 송편예, 송편은 게난 속에 폿쉬 놓는 거예.(송편요, 송편은 그러니까 속에 팥소 놓는 거요.)

107066 # 폿쉬고 아무거고 그냥 쉬만 놓는 거, 폿쉬도 놓곡.(팥소고 아무거고 그냥 소만 놓는 거, 팥소도 놓고.)

107066 @ 무신 쉬 또 놉니까?(무슨 소 또 놉니까?)

107066 # 또 설탕도 요즘은 설탕도 담아놘 허고 경헨게.(또 설탕도 요즘은 설탕도 담아놔서 하고 그러더라.)

107066 @ 엿날에는? 주로?(옛날에는? 주로?)

107066 # 엿날은 주로 폿.(옛날은 주로 팥.)

107066 @ 응. 게민 그건 동글랑헌 모양이꽈? 아니면 조개 모양이꽈?(응. 그러면 그건 동그란 모양입니까? 아니면 조개 모양입니까?)

107066 # 이건 요거이 동글랑헌 것도 잇곡, 또 동글랑헌 건 송편. 또 영영 반ᄃᆞᆯᄀᆞ추룩 접은 건 저 만두.(이건 요거 동그란 것도 있고, 또 동그란 건 송편. 또 이렇게 반달처럼 접은 건 만두.)

107066 @ 아, 송펜.(아, 송편.)

107066 # 그건 만두.(그건 만두.)

107066 @ 만두, 만두가 ᄒᆞ끔 크지예?(만두, 만두가 조금 크지요?)

107066 # 으 커, ᄒᆞ쏠 소롬소롬허게 영영 ᄒᆞᆫ밧딜로 영영영영 헌 거 소롬헌 거. 건 만두.(응 커, 조금 기름기름하게 이렇게 이렇게 한군데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한 거 기름한 거.)

107066 @ 아니 게난 이건 두 개 다 게난 쏠ᄀᆞ루로 허는 거? 만두도 쏠ᄀᆞ루?(아니, 그러니까 이건 두 개 다 그러니까 쌀가루로 하는 거? 만두도 쌀가루?)

107066 # 만두도 쏠ᄀᆞ루로도 허곡, 메밀ᄀᆞ루로도 허곡.(만두도 쌀가루로도 하고, 메밀가루로도 하고.)

107066 @ 만두는 쏠로도 허곡 메밀로도 허곡, 송편은 쏠ᄀᆞ루로만예.(만두는 쌀로도 하고 메밀로도 하고, 송편은 쌀가루로만요.)

107066 # 메밀ᄀᆞ루로도 허곡.(메밀가루로도 하고.)

107066 @ 송편은 쏠ᄀᆞ루로만예?(송편은 쌀가루로만요?)

107066 # 응, 쏠ᄀᆞ루로만. 모믈ᄀᆞ루로도 허여. 인절미광 송펜은 영 두 개 놩 접는 것만 쏠ᄀᆞ루주. 나 ᄀᆞᆫ듯이 영 헤여근에 인절미허곡 솔편이엔 헌 건 모믈ᄀᆞ루로도 허여.(응, 쌀가루로만. 메밀가루로도 해. 인절미와 송편은 이렇게 두 개 놔서 접는 것만 쌀가루지. 나 말하듯 이렇게 해서 인절미하고 솔편이라고 한 건 메밀가로로도 해.)

107066 @ 모믈ᄀᆞ루로?(메밀가루로?)

107066 # 건 영 밀어근에 침만 허민 뒈는 거난.(그건 이렇게 밀어서 찌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107066 @ 아, 응.(아, 응.)

107066 # 건 모믈ᄀᆞ루로도 허곡 ᄀᆞᆫ쏠로도 저 산, 나룩쏠로도 허곡 허는 거 그건 두 가지.(그건 메밀가루로도 하고 흰쌀로도 저 산, 볍쌀로도 하고 하는 거 그건 두 가지.)

107066 @ 송펜은 경 접어근에 그다음엔 어떵헤? 쳐사주예.(송편은 그렇게 접어서 그 다음엔 어떻게 해? 쪄야지요.)

107066 # 쳐사주게.(쪄야지.)

107066 @ 어떵헹 치는 거꽈? 그건.(어떻게 해서 찌는 겁니까? 그건.)

107066 # 것도, 이 아래 저 무신거 바톼근에 영 물 올르지 말게 바퉁.(그것도, 이 아래 저 무엇 받쳐서 이렇게 물 오르지 않게 받쳐서.)

107066 @ 무신걸로? 이건 뭐에 놓는 거라, 뭐엔 ᄀᆞᆯ아?(무엇으로? 이건 뭐에 놓는 거야, 뭐라고 말해?)

107066 # 엿날 ᄀᆞ트민 그거 무신 바텡이, 바텡이 허난 몰라.(옛날 같으면 그거 무슨 받침, 받침 하니까 몰라.)

107066 @ 응.(응.)

107066 # 지금도 그 떡 쳐 먹는 바텡이 잇잖아. 그런거 놔근에.(지금도 그 떡 쪄 먹는 받침 있잖아. 그런 거 놔서.)

107066 @ 그디 뭐 험벅이라도 ᄀᆞᆯ아?(거기 뭐 헝겊이라도 깔아?)

107066 # 험벅 ᄀᆞᆯ아근에 그 우트레 조근조근 놓앙 그건 뭐 여라 개 놓지 못헹, 그자 흔 도리 놩 쳥 내엉 또 치곡, 그건.(헝겊 깔아서 그 위에 차근차근 놧 그건 뭐 여러 개 놓지 못해서, 그저 한 층 놔서 쪄서 내어서 또 찌고, 그건.)

107066 @ 그건 게민 내여근에 지름 불라?(그건 그러면 내어서 기름 발라?)

107066 # 지름 불라야. 부뜨지 안허게 지름 쪼끔쪼끔 거 영 놓민 ᄆᆞᆫ 부떠부는 따문

에 그 지름 불르는 거, 부뜨지 못허게 허렌.(기름 발라야. 붙지 않게 기름 조금조금 그거 이렇게 놓으면 모두 붙어버리는 때문에 그 기름 바르는 거, 붙지 못하게 하라고.)

107066 @ 춤지름?(참기름?)

107066 # 춤지름, 건 춤지름베끈 안 불라.(참기름, 그건 참기름밖에 안 발라.)

107066 @ 응, 그냥 치는 것과? 물에 삶는 건 아니지예?(응, 그냥 찌는 겁니까? 물에 삶는 건 아니지요?)

107066 # 물에 솖는 거 아니여. 모믈ᄀᆞ루는 물에 솖곡, 곤ᄀᆞ루는 물에 안 솖아.(물에 삶는 거 아니야. 메밀가루는 물에 삶고, 흰쌀가루는 물에 안 삶아.)

107066 @ 아.(아.)

107066 # 카져. 물에 솖아불민.(까져. 물에 삶아버리면.)

107066 @ 모믈ᄀᆞ루는 물에 솖고?(메밀가루는 물에 삶고?)

107066 # 물에 솖아. 모믈ᄒᆞ루는 물에 솖아도 안 카져. 그자 하영 놓지 말앙 쪼끔 놔근에 확 건지곡 확 건지곡 허민, 카지진 안헌디 이 쏠ᄀᆞ루는 카져부네.(물에 삶아. 메밀가루는 물에 삶아도 안 까져. 그저 많이 놓지 말고 조금 놔서 확 건지고 확 건지고 하면, 까지진 않는데 이 쌀가루는 까져버리네.)

107066 @ 아, 거난 그냥 치는 거예.(아, 그러니까 그냥 찌는 거요.)

107066 # 응 찌는 거. 쏠ᄀᆞ룬 하여튼 쪄.(응 지는 거. 쌀가룬 하여튼 쪄.)

107067 @ 그다음에는 빙떡.(그다음에는 빙떡.)

107067 # 빙떡은 모믈ᄀᆞ루로 허는 거.(빙떡은 메밀가루로 하는 거.)

107067 @ 겐 옛날엔 후라이펜도 엇이난, 솟뚜껭이.(그래서 옛날엔 프라이팬도 없으니까, 솥뚜껑.)

107067 # 솟뚜껭이에서, 아이고.(솥뚜껑에서, 아이고.)

107067 @ 어떵헹 지집니까?(어떻게 해서 지집니까?)

107067 # 어떵게.(어떻게.)

107067 @ 모믈ᄀᆞ루 물부터 카사주.(메밀가루 물부터 타야지.)

107067 # 모믈ᄀᆞ루를이, 막 영 들르민 수루루허게 카이.(메밀가루를, 막 이렇게 들면 스르르하게 타.)

107067 @ 응.(응.)

107067 # 막 그놈으 것도이 막 때리멍 막 풀 아파. 이놈으 것, 때리젠 허민.(막 그놈의 것도 막 때리면서 막 팔 아파. 이놈의 것, 때리려고 하면.)

107067 @ 막 오랫동안 헤야 뒈마씨?(아주 오랫동안 해야 돼요?)

107067 # 오래오래 때령은에 카 주어사 풀풀허주, 경 안허민 키실키실 헤영 떡이 잘 안 뒈. 겨민 막 뚜려놩 국 끌려 먹는 샤쿠[202] 잇잖아. 우리 국 끌려 먹는 영.(오래오래 때려서 타 줘야 팔팔하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키실키실' 해서 떡이 잘 안 돼. 그러면 막 때려놔서 국 끓여 먹는 국자 있잖아. 우리 국 끓여 먹는 이렇게.)

107067 @ 국자.(국자.)

---

202) '샤쿠'는 일본어 'しゃく'로 국자를 말한다.

107067 # 국자, 그걸로 쪼끔 거려근에 크게 허젠 허민 하영 거리곡, 족게 허젠 허민 족게 거리곡 헤영 그거 영 둘러놩, 영영영 허민 멘짝헤져. 불 달면 못헤여, 건 또. 불 달민 콰지직 허민 고망이 바롱바롱 나비여.(국자. 그걸로 조금 떠서 크게 하려고 하면 많이 뜨고, 작게 하려고 하면 작게 뜨고 해서 그거 이렇게 둘러놔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면 평평해져. 불 달면 못 해, 그건 또. 불 달면 바지직 하면 구멍이 '바롱바롱' 나버려.)

107067 @ 하하하, 응.(하하하, 응.)

107067 # 경허난에 그것도 불 은근하게 그자 콰지직 안허게시리 그자 은근허게 헤놓민 얄롭게 싹 밀엉 헤 놓민, 빙 지져 놓민 무사 반들반들 고와.(그러니까 그것도 불 은근하게 그저 바지직 안하게끔 그저 은근하게 해놓고 얇게 싹 밀어서 해놓으면, 빙떡 지져 놓으면 왜 반들반들 고와.)

107067 @ 안에 무신거 놉니까?(안에 무엇 놓습니까?)

107067 # 안에 무술, 무시나 썰어 놓주, 무시거 이, 고구마 ᄀᆞ튼 거 놓민 곶어, 그건. 젤 무수가 좋아.(안에 무를, 무나 썰어 놓지, 뭐 이, 고구마 같은 거 놓으면 곶어, 그건. 젤 무가 좋아.)

107067 @ 게난, 무수 헤근에 무신거에 ᄀᆞ치?(그러니까, 무 해서 무엇에 같이?)

107067 # 무수헤여근엥에 파나 ᄒᆞ쏠 서껑 확확 서꺼근에. 경헤영 그거베끈, 더 이상 놓는 거 엇어. 빙엔 그거 원.(무해서 파나 조금 섞어서 확확 섞어서. 그래서 그거밖에, 더이상 놓는 거 없어. 빙떡엔 그거 원.)

107067 @ 빙엔 그거예.(빙떡엔 그거요.)

107067 # 무수가 제일 원 어디든지 보민 무수라.(무가 제일 원 어디든지 보면 무야.)

107068 @ 상웨떡은?(상화떡은?)

107068 # 상웨떡은 저, 이제 ᄀᆞ트민 쉰다리[203] 헤놩이, 우리 먹잖아 쉰다리. 그거 오늘 쉰다리 헹 놔두민 낼 모리 뒈민 막 시큼허게 쉬어이.(상화떡은 저, 이제 같으면 '쉰다리' 해놔서, 우리 먹잖아 '쉰다리'. 그거 오늘 '쉰다리' 해서 놔두면 내일모레 되면 막 시큼하게 쉬어.)

107068 @ 응.(응.)

107068 # 경허민 그럼 물 똘라근엥에 그 밀ᄀᆞ루에 물앙 놔두민 상웨떡이 피어 북삭허게.(그러면 그럼 물 따라서 그 밀가루에 반죽해서 놔두면 상화떡이 피어 '북삭'하게.)

107068 @ 응.(응.)

107068 # 요새는 원료덜 시난 원료 사다놩 상웰 피왐주만은, 엿날엔 집이서 허민, 밥헤여근에 쉰다리 헤놔.(요새는 원료들 있으니까 원료 사다놔서 상화를 피우고 있지만은, 옛날엔 집에서 하면, 밥해서 '쉰다리' 해놔.)

107068 @ 응.(응.)

107068 # 누룩헹 쉰다리 헹 놔두민, 낼모리쯤엔 이놈이 쉰다리가 시그룸허게 막 버끔 올라오멍 시그름헤여이.(누룩해서 '쉰다리' 해서 놔두면, 내일모레 쯤엔 이놈의 '쉰다

203) '쉰다리'는 밥과 누룩으로 담가 만든 발효 음료다.

리'가 시큼하게 막 거품 올라오면서 시큼해.)

107068 @ 응.(응.)

107068 # 겨민 그 물 똘라근에 몰앙 밀ᄀᆞ루에 몰앙 놔두민 북삭허게 올라와. 빵이.(그러면 그 물 따라서 반죽해서 밀가루에 반죽해서 놔두면 '북삭'하게 올라와. 빵이.)

107068 @ 응.(응.)

107068 # 올라오민 그땐 빵, 빵 허멍, 빵이엥 안헷어, 빵떡.(올라오면 그땐 빵, 빵 하면서, 빵이라고 안했어, 빵떡.)

107068 @ 빵떡.(빵떡.)

107068 # 엿날엔 빵떡. 에이구 빵떡 피완, 빵떡 피완. 엿날 이디 조선 밀ᄀᆞ루로.(옛날엔 빵떡. 아이고 빵떡 띄웠어, 빵떡 띄웠어, 빵떡 띄웠어. 옛날 여기 조선 밀가루로.)

107068 @ 응.(응.)

107068 # 요즘은이 웨밀ᄀᆞ루로 헤근에 탁 원료 사다놩, 헹 딱딱허난 허는게 일 아니라신디, 엿날엔 그것도 헹 먹젠 허민 막 밥헤영 쉰다리 멘들어놩 누룩으로.(요즘은 외밀가루로 해서 탁 원료 사다놔서, 해서 딱딱하니까 하는 게 일 아닌데, 옛날엔 그것도 해서 먹으려고 하면 막 밥해서 '쉰다리' 만들어놔서 누룩으로.)

107068 @ 응.(응.)

107068 # 멘들어 놩 흔 이틀 시민, 이놈이 쉰다리가 시큼헤영 올라와, 버끔이 박삭허게.(만들어 놔서 한 이틀 있으면, 이놈의 '쉰다리'가 시큼해서 올라와, 거품이 '박삭'하게.)

107068 @ 예.(예.)

107068 # 경허민 그 물 똘라근엥에 그 ᄀᆞ룰 몰앙 놔두민, 또시 빵이 피는 거라.(그러면 그 물 따라서 그 가룰 반죽해서 놔두면, 또 빵이 뜨는 거야.)

107068 @ 겡 요멘씩 멘들앙.(그래서 요만큼씩 만들어서.)

107068 # 요만씩 만들엉 솟듸 놩 쳐가민.(요만큼씩 만들어서 솥에 놔서 쪄가면.)

107068 @ 솟듸 놩 치는 거.(솥에 놔서 찌는 거.)

107068 # ᄒᆞ끔 멘들앙 놔두민 요놈이 빵이 올라오는 거라, ᄒᆞ쏠.(조금 만들어 놔두면 요놈의 빵이 올라오는 거야, 조금.)

107068 @ 아.(아.)

107068 # 영영 동글동글허게 헤영 톡톡 딧은 디 놔두민 ᄒᆞ쏠 복스락 허게 올라오민 그때 치민 박삭 부꺼. 멘들멍싸라 쳐불민 안 뒈.(이렇게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해서 톡톡 따뜻한 데 놔두면 조금 '복스락'하게 올라오면 그때 찌면 '박삭' 부풀어. 만들어서 바로 쪄버리면 안 돼.)

107068 @ 놔뒷당예? 요거 영 길쭉허게도 허지 안허여? 그건 무신거엔 ᄀᆞᆯ읍니까?(놔뒀다가요? 요거 이렇게 길쭉하게도 하지 않아? 그건 뭐라고 말합니까?)

107068 # 그것 빗빵.(그거 '빗빵'.)

107068 @ 빗빵.('빗빵'.)

107068 # 이제 이제 수랑헌 빵들 잇잖아이. 그거 빗빵.(이제 이제 기름한 빵들 있잖

아. 그거 ‘빗빵’.)

107068 @ 아, 상웨떡, 빗상웨?(아, 상화떡, ‘빗상웨’?)

107068 # 응 빗상웨, 엿날엔 빗상웨.(응, ‘빗상웨’, 옛날엔 ‘빗상웨’.)

107068 @ 옛날엔 빗 빗상웨?(옛날엔 빗, ‘빗상웨’?

107068 # 응, 빗상웨.(응, ‘빗상웨’.)

107068 @ 겐 이런 상웨떡은 언제 허는 거마씨?(그래서 이런 상화떡은 언제 하는 거예요?)

107068 # 그건 뭐 아무 때라도 이녁 먹구적 헌 때, 겨울이고 여름이고 건 이녁.(그건 뭐 아무 때라도 자기 먹고싶을 때, 겨울이고 여름이고 그건 자기.)

107068 @ 식게 때도 허고?(제사 때도 하고?)

107068 # 응, 식게 때라도 빵 피왕 먹구적 허민 허곡, 경 안 허민 안 허곡. 건 미신 어느 때 먹을 때 아이 먹을 때 출리지 안허여. 이녁이 제사 때라도 혜영 먹구적 허민 그거 피왕 먹곡, 실프민 말곡 그자 경허는 거 그건.(응, 제사 때라도 빵 띄워서 먹고 싶으면 하고, 그렇게 안 하면 안 하고. 그건 무슨 어느 때 먹을 때 안 먹을 때 차리지 않아. 자기가 제사 때라도 해서 먹고 싶으면 그거 띄워서 먹고, 싫으면 말고 그저 그렇게 하는 거 그건.)

107069 @ 그믄 식게 때는 무신 떡, 무신 떡 헹 올리는 거꽈?(그러면 제사 때는 무슨 떡, 무슨 떡 해서 올리는 겁니까?)

107069 # 요즘?(요즘?)

107069 @ 아니, 옛날에.(아니, 옛날에.)

107069 # 엿날엔이, 어려운 때는 묵만 우리 막 두린 때 보민 묵만 혜영 올려이.(옛날엔, 어려운 때는 묵만 우리 아주 어릴 때 보면 묵만 해서 올려.)

107069 @ 아.(아.)

107069 # 요즘에나 이거주. 묵만 혜영 올려근에, 두린 땐 보난 아이고 묵 혼 솟두껭이 헤사, 걸 묵 혼 솟두껭이 헹 무시걸 헐 건고? 우리가 두린 때난.(요즘에나 이거지. 묵만 해서 올려서, 어릴 때 보니까 아이고 묵 한 솥뚜껑 해야, 그걸 묵 한 솥뚜껑 헤서 무엇을 한 건고? 우리가 어릴 때니까.)

107069 @ 응.(응.)

107069 # 묵 혼 솟두껭일 뭐허는 거고 허당 보민 제사 지낼 때 그거 ᄒᆞ나만 혜영 올리고.(묵 한 솥뚜껑을 뭐하는 건고 하다 보면 제사 지낼 때 그거 ᄒᆞ만 해서 올리고.)

107069 @ 모믈묵?(메밀묵?)

107069 # 응, 모믈묵, 응, 그거 허곡 고사린 어떳튼지 고사린 떨어지지 안허여.(응, 메밀묵, 응, 그거 하고 고사리는 어떻든지 고사리는 떨어지지 않아.)

107069 @ 응.(응.)

107069 # 고사리허곡, 모물묵허곡 그자 바릇고기, 그자 생성이고 무시거고 그자 그거 허민, 그걸로 헹 그자 밥 올리민 제ᄉᆞ라, 엿날에.(고사리하고, 메밀묵하고 그저 바닷고기, 그저 옥돔이고 무엇이고 그저 그거 하면, 그걸로 해서 그저 밥해서 올리면 제사

야, 옛날에.)

107069 @ 그거 ᄒᆞ꼼 지나민?(그거 조금 지나면?)

107069 # 그거 지난 ᄒᆞ쏠 살아가난에.(그거 지나서 조금 살아가니까.)

107069 @ 떡을 무신 떡 헤수과? 식게 때?(떡을 무슨 떡 했습니까? 제사 때.)

107069 # 식게 때 모를 빙 지지는 거라이.(제사 때 메밀 빙떡 지지는 거야.)

107069 @ 아, 빙.(아, 빙떡.)

107069 # 응. 빙을 매집이마다 보민 빙을 지져, 경허멍 ᄒᆞ쏠 살아가난 그 모믈이 비료가 나가난.(응. 빙떡을 매집마다 보면 빙떡을 지져, 그렇게 하면서 조금 살아가니까 그 메밀이 비료가 나가니까.)

107069 @ 응.(응.)

107069 # 매집이 가보민 제ᄉᆞ 때도 빙, 멩질 때도 보민 빙. 경허단 또 ᄒᆞ끔 살아져 가난에 ᄀᆞᆫ사ᄀᆞ추룩 솔벤, 절벤이 나와가는 거라이.(매집에 가보면 제사 때도 빙떡, 명절 때도 보면 빙떡. 그러다가 또 조금 살아가니까 아까처럼 솔편, 절편이 나와가는 거야.)

107069 @ 응, 솔벤, 절벤.(응, 솔편, 절편.)

107069 # 경허곡, 이제 빵.(그리고 이제 빵.)

107069 @ 빵.(빵.)

107069 # 그거허곡, 아이구야 아무 집인 강 보난 빵 피왐서라, 허멍.(그거하고, 아이고야 아무 집엔 가 보니까 빵 띄우고 있더라, 하면서.)

107069 @ 아.(아.)

107069 # 경허멍 빵 피왐서라, 빵 피왐서라 허멍, 견 그거 주민 얼마나 맛잇게 먹는지이 그때.(그러면서 빵 틔우더라, 빵 틔우더라 하면서, 그래서 그거 주면 얼마나 맛있게 먹는지 그때.)

107069 @ 솔벤 절벤만 허여? 제펜은 안허여 식게 때?(솔편 절편만 해? 제편은 안 해, 제사 때?)

107069 # 식게 땐 그런 거 안 허여, 막 대소상 때나 그런 거 허주. 식게 때 제펜는 안허여.(제사 땐 그런 거 안 해, 막 대소상 때나 그런 거 하지. 제사 때 제편은 안 해.)

107069 @ 아, 식게 땐 경 안 하고예?(아, 제사 땐 그렇게 안 하고요?)

107069 # 응, 친떡은 헤여. 시리떡은.(응, 시루떡은 해. 시루떡은.)

107069 @ 시리떡은 허여?(시루떡은 해?)

107069 # 응, 시리떡은 헤여.(응, 시루떡은 해.)

107069 @ 거난 시리떡은 뭐, 제펜 안허고 문친떡으로?(그러니까 시루떡은 뭐, 제편 안하고 '문친떡'으로?)

107069 # 시리떡도, 응, 문친떡으로 그자 폿 ᄇᆞᆺ아놓곡, 그 ᄀᆞ루 헤영 ᄇᆞᆺ아근에 그건 이 이 중간에 나가난 요만헌 시리가 영 쪼끄만헌 것이 나오는 거라이.(시루떡도, 응, 문친떡으로 그저 팥 빻아놓고, 그 가루 해서 빻아서 그건 이 중간에 나가니까 요만큼한 시루가 이렇게 조그마한 것이 나오는 거야.)

107069 @ 응.(응.)

107069 # 그거 허민 쪼끄만 허민 쏠 흔 뒈만 강 뽓아오민 친떡 치는 거라.(그거 하면 조금만 하면 쌀 한 되만 가서 빻아오면 시루떡 찌는 거야.)

107069 @ 응.(응.)

107069 # 경허민 그것들 헹 먹곡 경헷어.(그러면 그것들 해서 먹고 그랬었어.)

107070 @ 그럼 대소상 때는?(그럼 대소상 때는?)

107070 # 대소상 때는 시리가 커.(대소상 때는 시루가 커.)

107070 @ 무신 떡, 무신 떡 허여?(무슨 떡, 무슨 떡 해?)

107070 # 곳사 곧듯이 솔벤, 절벤, 인절미[204], 또 이제 제펜 친떡 그거, 그거, 그거 대로 원.(아까 말하듯이 솔편, 절편, 인절미, 또 이제 제편 시루떡 그거, 그거, 그거 대로 원.)

107070 @ 네 개? 솔벤, 절벤, 인절민, 제펜 네 개뿐?(네 개? 솔편, 절편, 인절미, 제편 네 개뿐?)

107070 # 친떡, 다섯 곳이라.(시루떡. 다섯 종류야.)

107070 @ 아, 아, 친떡도 또 헤? 제펜도 허멍?(아, 아, 시루떡도 해? 제편도 하면서?)

107070 # 제펜허곡 친떡 뚜루.(제편하고 시루떡 따로.)

107070 @ 아, 친떡 뚜루?(아, 시루떡 따로?)

107070 # 제펜 뚜루라 그게. 이름이 틀려.(제편 따로야 그게. 이름이 달라.)

107070 @ 아, 경헤도 다 시리떡이난 두 개 중에.(아, 그래도 다 시루떡이니까 두 개 중에.)

107070 # 경허난이, 엿날에는이 뚤 하영 나민 솔벤 상제여, 제펜 상제여, 인절미 상제여.(그러니까, 옛날에는 딸 많이 나면 솔편 상제다, 제편 상제다, 인절미 상제다.)

107070 @ 뚤이 다 헤오는 거?(딸이 다 해오는 거?)

107070 # 저 절벤 상제여, 뚤 각각이 맡아가는 거라이, 각각이.(저 절편 상제다, 딸 각각이 맡아가는 거야, 각각이.)

107070 @ 아.(아.)

107070 # 난 솔벤 큰뚤은 솔벤, 둘째뚤은 절벤, 세 번채라 가민 인절미 또 네 번채라 가민 제펜.(난 솔편 큰딸은 솔편, 둘째딸은 절편, 세 번째라 가면 인절미 또 네 번째라 가면 제편.)

107070 @ 응.(응.)

107070 # 요놈이 젤 하라, 제펜이 제일 하떡이라.(요놈이 젤 하야, 제편이 제일 하떡이야.)

107070 @ 이게 젤 힘들어?(이게 제일 힘들어?)

107070 # 젤 마지막 떡이라. 젤 족은 거라.(제일 마지막 떡이야. 제일 작은 거야.)

107070 @ 무사 이거 제일 족은 거라?(왜 이거 제일 작은 거야?)

107070 # 몰라 어떵사, 노나지 안헌덴 젤 솔펜 상제가 젤 큰 상제가 솔펜 맡아, 큰

---

204) '인절미'는 쌀이나 메밀가루로 반죽하여 정사각형으로 잘라서 삶아낸 떡으로 '은절미'라고도 한다.

뚤이.(몰라 어떻게야, '노나지' 않는다고 젤 솔편 상제가 젤 큰 상제가 솔편 맡아, 큰딸이.)

107070 @ 아, 큰뚤이?(아, 큰딸이?)

107070 # 응, 게난 큰뚤 치암 나민 이건 솔벤 상제, 두 번차 뚤 나민 절벤 상제.(응, 그러니까 큰딸 처음 낳으면 이건 솔편 상제, 두 번째 딸 낳으면 절편 상제.)

107070 @ 하하하하.(하하하하.)

107070 # 인절미 상제, 제펜 상제. 엿날에 경 굴아낫어. 뚤 하영 나가민. 경 굴아낫어.(인절미 상제, 제편 상제. 옛날에 그렇게 말했었어. 딸 많이 나면. 그렇게 말했었어.)

107070 @ 응.(응.)

107070 # 경 헤낫어. 경허난, 큰일 나민 어머니나 아버지나 돌아가시민.(그랬었어. 그러니까, 큰일 나면 어머니나 아버지나 돌아가시면.)

107070 @ 응.(응.)

107070 # 절변 맡앙 헤오는 사름, 솔펜 맡앙 헤오는 사름. 다 각각이 맡아. 조반 출리는 사름, 정심 출리는 사름, 또 피력[205] 출리는 사름.(절편 맡아서 해오는 사람, 솔편 맡아서 해오는 사람. 다 각각이 맡아. 조반 차리는 사람, 정심 차리는 사람, 또 '피력' 차리는 사람.)

107070 @ 피력은 무신거마씨?('피력'은 무엇이에요?)

107070 # 피력이엔 헌 거는 그디 강 밥 먹어놩 끗에 떡을 태우는 거라. 그게 피력.('피력'이라 한 거는 거기 강 밥 먹어놔서 끝에 떡을 태우는 거라. 그거 '피력'.)

107070 @ 응.(응.)

107070 # 또, 비역부찜[206]이엔 헌 건, 엿날에 영장 메영 가다근에, 중간에.(또, '비역부찜'이라고 한 건, 옛날엔 영장 매서 가다가, 중간에.)

107070 @ 예.(예.)

107070 # 질레서 쉴 때. 엿날엔 메영 가젠 허민 막 멀리 강 산터 보멍 메영 갓지.(길에서 쉴 때. 옛날엔 매서 가려고 하면 아주 멀리 가서 산터 보면서 매서 갔지.)

107070 @ 예.(예.)

107070 # 경허난 사름으로 메엉 가당 ᄒᆞ쏠 쉴 때, 이제.(그러니까 사람으로 매어 가다가 조금 쉴 때, 이제.)

107070 @ 예.(예.)

107070 # 사름으로 메엉 가당 ᄒᆞ쏠 쉴 때, 쉴 때 이제 우리 ᄀᆞ트민 간식 주는 거라이.(사름으로 매어 가다가 조금 쉴 때, 쉴 때 이제 우리 같으면 간식 주는 거야.)

107070 @ 그게 무신거라?(그게 무엇이야?)

107070 # 비역부찜.('비역부찜'.)

107070 @ 비역부찜? 응.('비역부찜'? 응.)

107070 # 밥 먹어 낭 끗에 또 주는 건 피력.(밥 먹고 나서 끝에 또 주는 건 '피력'.)

---

205) '피력'은 '필역'에서 온 말로 보이며 육체적 힘을 들여서 하는 일을 마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여기에 덧붙여서 일을 마친 후 먹는 음식이라는 의미도 가진다.

206) '비역부찜'은 상여를 매고 가다가 조금 쉴 때 먹는 간식을 말한다.

107070 @ 아, 영장밧듸서?(아, 장지에서?)

107070 # 응, 피력.(응, '피력'.)

107070 @ 영장밧듸서 밥 먹어 낭 주는 거?(장지에서 밥 먹어 놔서 주는 거?)

107070 # 응, 밥 먹어난 끗데 또 떡헹 강 주메.(응, 밥 먹고 난 끝에 또 떡해서 가서 주지.)

107070 @ 응.(응.)

107070 # 겨민 그건 피력.(그러면 그건 '피력'.)

107070 @ 응. 그다음 비역부찜은?(응, 그다음 '비역부찜'은?)

107070 # 비역부찜은 이디서 가당.('비역부찜'은 여기서 가다가.)

107070 @ 영장밧듸 가당?(장지에 가다가?)

107070 # 가다근에 지치민 영장 멘, 사름으로 멘덴 허난, 게난 가당 지치민 중간에서 쉬어. 쉬엉 그때 멕이는 건 비역부찜.(가다가 지치면 상여 맨, 사람으로 맨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가다가 지치면 중간에서 쉬어. 쉬어서 그때 먹이는 건 '비역부찜'.)

107070 @ 아, 그럼 이건 누게가 헹 오는 거라?(아, 그럼 이건 누가 해서 오는 거야?)

107070 # 이건 뚤들이.(이건 딸들이.)

107070 @ 아, 뚤들이 다?(아, 딸들이 다?)

107070 # 뚤덜토 허곡 뚤 엇엉 아기들이 적은 디는 방상이서도 허곡, 친척들 모영 놩도 허곡, 경 허는 거.(딸들도 하고 딸 없어서 아기들이 적은 데는 친척들이 하고, 친척들 모여 놔서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

107070 @ 응.(응.)

107070 # 아기들이 하민 그거 맡으는 사름 저거 맡으는 사름 곳곳이 다 맡아가.(아기들이 많으면 그거 맡는 사람 저거 맡는 사람 모두모두 다 맡아가.)

107070 @ 응.(응.)

107070 # 요즘은 돈 모다놩 흔 딜로 확 조반이고 정심이고 싹 헤여불민 허주만은 저 엿날은 경 안헌 따문에.(요즘은 돈 모아놔서 한 군데로 확 조반이고 점심이고 싹 해버리면 하지만 저 옛날은 그렇게 안 하기 때문에.)

107072 @ 그다음에 게민 인절미 만드는 방법?(그다음에 그러면 인절미 만드는 방법?)

107072 # 인절미 만드는 거나, 솔펜 만드는 거나이 이거 ᄀᆞ루민 짝 밀 거 아냐? 마께로 영영 밀어놩.(인절미 만드는 거나, 솔편 만드는 거나 이거 가루면 쫙 밀 거 아니냐?)

107072 @ 예.(예.)

107072 # 칼로 영 베는 거야. 이건 베는 거.(칼로 이렇게 베는 거야. 이건 베는 거.)

107072 @ 베영 그다음엔?(베어서 그다음엔?)

107072 # 베영 네귀방장, 네귀방장허게 베여근에 쳐. 이놈으 것, 인절미도, 솟듸놩 쳐.(베어서 네모반듯, 네모반듯하게 베어서 쪄. 이놈의 것, 인절미도, 솥에 놔서 쪄.)

107072 @ 아, 솟듸 놩 쳐.(아, 솥에 놔서 쪄.)

107072 # 응, 바드렝이 놓멍 쳐.(응, 경그레 놓으면서 쪄.)

107072 @ 아.(아.)

107072 # 쳐사 허주, 그냥 놀차 저 ᄆᆞᆯ라근에 모믈ᄀᆞ룬 익여근에 떡은 못 만드난.(쪄야 하지, 그냥 날것 그대로 저 반죽해서 메밀가룬 익혀서 떡은 못 만드니까.)

107072 @ 아.(아.)

107072 # 모물ᄀᆞ룬 익영 못 만들아. 산뒤ᄀᆞ루는 익영 놩 멘들주만은 모믈ᄀᆞ룬 익영 못 만들아. 경헤부난에, 경헤부난 ᄆᆞᆫ 쳐.(메밀가룬 익혀서 못 만들어. 밭벼가루는 익혀 놔서 만들지마는 메밀가루는 익혀서 못 만들어.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모두 쪄.)

107073 @ 그럼 절벤은?(그럼 절편은?)

107073 # 절벤은 산뒤ᄀᆞ루로 ᄒᆞ는디 솟듸서 솖아 이것 다.(절편은 밭벼가루로 하는데 솥에서 삶아 이것 다.)

107073 @ 응.(응.)

107073 # 솖앙 막 익여내영, 두불 막 달롸이.(삶아서 막 익혀서, 두벌 막 이겨.)

107073 @ 응.(응.)

107073 # 두불 달롸 놔근에, 또 요만썩 그치멍 동골레기 만들앙 마주 영 놔근에 똑 눌리는 판이 잇어. 똥글랑헌 판 멘든 거이. 그걸로 기운 냉 꽉 밀리민 동글랑허게 눌려지는 거.(두벌 이겨 놔서, 또 요만큼씩 자르면서 동그라미 만들어서 마주 이렇게 놔서 꼭 누르는 판이 있어. 동그란 판 만든 거. 그걸로 기운 내서 꽉 밀면 동그랗게 눌려지는 거.)

107073 @ 아.(아.)

107073 # 그게 절벤.(그게 절편.)

107073 @ 절벤은 게난 헤놩 치는 게 아니고?(절편은 그러니까 해놓고 찌는 게 아이고?)

107073 # 아니, 헤놩 치는 게 아니곡, 이건 절벤떡 솖앙.(아니, 해놔서 찌는 게 아니고, 이건 절편떡 삶아서.)

107073 @ 솖아놩 그다음에.(삶아놔서 그다음에.)

107073 # 그다음에 막 뀌어놩.(그다음에 막 반죽해놔서.)

107073 @ 뀌어놩 눌리는 거?(반죽해 놔서 누르는 거?)

107073 # 뀌와놔근에 또 요만썩 그치멍 동글레기 만들앙 영 헤영 놓민 두 개 마주허영 요 영 놔근에, 꼭ᄀᆞ치 놩 눌리는 동글랑헌 판이 잇엉.(반죽해놔서 또 요만큼씩 자르면서 동그라미 만들어서 이렇게 해서 놓으면 두 개 마주해서 요 이렇게 놔서 , 똑같이 놔서 누르는 동르란 판이 있어서.)

107073 @ 응.(응.)

107073 # 그 판으로 놩 꽉 눌려. 그런 판이 잇어. ᄑᆞ는 거.(그 판으로 놔서 꽉 눌러. 그런 판이 있어. 파는 거.)

107073 @ 그게 절벤예?(그게 절편요?)

107073 # 응, 그게 절벤.(응, 그게 절편.)

107074 @ 그다음에는 솔벤.(그다음에는 솔편.)

107074 # 솔벤은 문 만들어 놩 건 바드렝이 놓멍 쳐.(솔편은 모두 만들어 놔서 그건 겅그레 놓으면서 쪄.)

107074 @ 치는 거. 인절미영 비슷헌 거예?(찌는 거. 인절미랑 비슷한 거요?)

107074 # 인절미영 비슷헌 거 다 찌는 거. 절벤만 솖아넹 눌리는 거.(인절미랑 비슷한 거 다 찌는 거. 절편만 삶아내서 누르는 거.)

107075 @ 웃기떡. 웃찍은 혹시 뭐꽈?(웃기떡, 웃기떡은 혹시 뭡니까?)

107075 # 웃찍은이, 그건 허는 집이 허곡 안허는 집인 안 헌다. 맨 막끗에, 요만썩 동글여근에 똑 얼마 크지 안허여.(웃기떡은, 그건 하는 집은 하고 안 하는 집은 안 한다. 맨 마지막에, 요만큼씩 굴려서 꼭 얼마 크지 않아.)

107075 @ 응.(응.)

107075 # 웃찍이엔 헌 건, 똥글랑허게 만들앙, 손으로 접아근에.(웃기떡이라고 한 건, 동그랗게 만들어서, 손으로 만들어서.)

107075 @ 응.(응.)

107075 # 요만헌 요만헌, 똥글랑하게 만든 게 요만이벳긔 안 허여.(요만헌 요만헌, 동그렇게 만든 게 요만큼밖에 안 해.)

107075 @ 응, 응.(응, 응.)

107075 # 그거 웃찍이엔 헌 거 상 꾸며놩 매 우에 떡 꾸며놩 매 우에 놓는 거.(그거 웃기라고 한 거 상 꾸며놔서 맨 위에 떡 꾸며놔서 맨 위에 놓는 거.)

107075 @ 응, 응.(응, 응.)

107075 # 그거 멧 개, 그거 웃찍, 웃찍 허는 거 그게.(그거 몇 개, 그거 웃기, 웃기 하는 게 그게.)

107075 @ 응.(응.)

107075 # 그거 멧 개 안허여, 잘허민, 큰 상에만 올리는 거난 혼 열 개쯤 헹 올리는 거, 거 웃찍이엔 헌 건.(그거 몇 개 안 해, 잘하면, 큰 상에만 올리는 거니까 한 열 개쯤 해서 올리는 거, 그거 웃기라고 한 건.)

107075 @ 응.(응.)

107075 # 그 웃찍이엔 헌 건, 요만이 접아근에 동글동글헤영 꼭꼭꼭꼭 접앙 동글랑허게 헤여.(그 웃기라고 한 건, 요만큼 만들어서 동글동글해서 꼭꼭꼭꼭 만들어서 동그랗게 해.)

107075 @ 응.(응.)

107075 # 겨난 이거 이거 둘렝이는 안 뒈여. 이거 둘렝이, 요거 둘렝이만허게 동글랑 허고 매 막끗에 올리는 거.(그러니까 이거 이거 둘레는 안 돼. 이거 둘레, 요거 둘레만하게 동그랗고 맨 마지막에 올리는 거.)

107076 @ 이번엔, 고사 지내거나 당에 갈 때 그때 가졍가는 떡?(이번엔, 고사 지내

거나 당에 갈 때 그때 가져가는 떡?)

107076 # 당에 가는 떡도 요즘은이 빵 나부난 문 빵 앗앙가고, 엿날은 만두[207]라고이.(당에 가는 떡도 요즘은 빵 나버리니까 모두 빵 가져가고, 옛날은 만두라고.)

107076 @ 응, 아까 골아난 거예.(응, 아까 말했던 거요.)

107076 # 만두라고 영 접은 거 잇잖아이.(만두라고 이렇게 만든 거 있잖아.)

107076 @ 풋 쉬 놩예.(팥 소 놔서요.)

107076 # 응, 풋쉬 놩 영 접은 거, 그런 거 헤영 가곡, 또 여름 낭 갈 때는 밀ᄀᆞ루 골아근에 엿날은 이제는 영 웨밀ᄏᆞ루 낫주마는 엿날은 토종밀 이디서 간 밀이.(응, 팥소 놔서 이렇게 만든 거, 그런 거 해서 가고, 또 여름 나서 갈 때는 밀가루 갈아서 옛날은 이제는 이렇게 외밀가루 났지마는 옛날은 토종밀 여기서 간 밀.)

107076 @ 응.(응.)

107076 # 그거 정ᄀᆞ레에서 골앙 ᄀᆞ루 내와근에 나 인칙이 골은 것추룩 쉰다리 헤놩 빵 피와.(그거 풀맷돌에서 갈아서 가루 내서 나 아까 말한 거처럼 '쉰다리' 해놔서 빵 발효시켜.)

107076 @ 그게 상웨떡인가?(그게 상화떡인가?)

107076 # 응, 그게 상웨, 상웨허멍. 저 요새는 빵이엔 허주만은 엿날은 상웨나 ᄒᆞᆫ 고령[208]헤영 가사허주, 허멍. 그자 그거여.(응, 그게 상화, 상화하면서. 저 요새는 빵이라고 하지마는 옛날은 상화나 한 '고령'해서 가야지, 하면서. 그저 그거야.)

107076 @ 상웨나 무신거 헹가?(상화나 무엇 해서가?)

107076 # ᄒᆞᆫ 고령!(한 '고령'!)

107076 @ ᄒᆞᆫ 고령!(한 '고령'!)

107076 # 응, 고령. 엿날은 상지ᄀᆞ라 고령, 고령 헷어이.(응, '고령'. 옛날은 상자보고 '고령', '고령' 했어.)

107076 @ 아.(아.)

107076 # 경허민 그 빵 영 헤보민 우리 어머니네 허는 거 보난 ᄒᆞᆫ 열다섯 개 쯤, 열 개, 멧 개 안 들어.(그러면 그 빵 이렇게 해보면 우리 어머니네 하는 거 보니까 한 열다섯 개쯤, 열 개, 몇 개 안 들어가.)

107076 @ ᄒᆞᆫ 구덕에?(한 구덕에?)

107076 # 응, ᄒᆞᆫ 고령에.(응, 한 '고령'에.)

107076 @ ᄒᆞᆫ 고령에.(한 '고령'에.)

107076 # 응, 고령이엔 엿날엔 대차롱 ᄉᆞ랑허곡 ᄒᆞ쏠 요만헌 ᄉᆞ랑허고 너부지 요만은 허여. 지럭시 요만이벳긔 안 허여. 경헌 것에 헤영 놩 허는 거 보민 ᄒᆞᆫ 그자 열 ᄒᆞᆫ 멧 개 드는 거주.(응, '고령'이라고 옛날엔 대채롱 기름하고 조금 요만한 기름하고 넓이 요만큼은 해. 길이 요만큼밖에 안 해. 그런 것에 해 놔서 하는 거 보면 한 그저 열 한 몇 개 드는 거지.)

---

207) '만두'는 '만두떡'이라고도 하며 메밀가루로 둥그렇게 만든 후 안에 팥소를 넣고 가운데로 접어서 만들어 삶거나 쪄낸 후 팥고물을 묻힌 떡이다.

208) '고령'은 대로 엮어 만든 그릇 채롱이나 그것으로 하나 만큼의 분량을 말한다.

107076 @ 응.(응.)

107076 # 겨민 엿날엔이 저놈이 떡을 강 ᄒᆞ나 받앙 오랑 먹젠 어느 때민 어머니가 엿날은 당에 감젠 아니헤영 ᄆᆞ슬 카는 거, ᄆᆞ슬 카는 거 잇지이?(그러면 옛날엔 저놈의 떡을 가서 하나 받아 와서 먹으려고 언제면 어머니가 옛날은 당에 간다고 안 하고 'ᄆᆞ슬' 가는 거, 'ᄆᆞ슬' 가는 거 있지?)

107076 @ 아, ᄆᆞ슬 카는 거.(아, 'ᄆᆞ슬' 가는 거.)

107076 # ᄆᆞ슬 카젱 허민 영헤여. 경허난 어느 때랑 ᄆᆞ슬 캉 오라근에 떡을 받아오랏건 먹주 헤영 앚앗당 보민, 빵을 ᄒᆞᆫ 수정 세민 아메도 열댓 개 헤영 그 고령에 놩 가신디 온 거 보민 떡 다섯 개도 안 아졍와. 경.('ᄆᆞ슬' 가려고 하면 이렇게 해. 그러니까 어느 때랑 'ᄆᆞ슬' 가서 와서 떡을 받아 오면 먹지 해서 앉았다가 보면, 빵을 숫자를 세면 아무래도 열댓 개 해서 그 '고령'에 놔서 갔는데 온 거 보면 떡 다섯 개도 안 가져와. 그렇게.)

107076 @ 하하하하.(하하하하.)

107076 # 어무니, 엿날엔 어무니, 어무니 헤낫주. 어무니 떡 다 어디 비언? 허민 떡? 떡 아졍올 거 잇느냐? 심방덜 ᄆᆞᆫ 비와 앗아, 그때.(어머니, 옛날엔 어머니, 어머니 했었지. 어머니 떡 다 어디에 있어? 하면 떡? 떡 가져올 거 있니? 무당들 모두 부어 가져, 그때.)

107076 @ 아.(아.)

107076 # ᄉᆞ망 일민[209] ᄒᆞᆫ 다섯 개쯤.(사망 일면 한 다섯 개쯤.)

107076 @ 가졍와? 아이들 주젠?(가져와? 아이들 주려고?)

107076 # 아졍와. 아이들 여라 개 시민 ᄒᆞ나썩 주렌 헹 심방이 주면은 아졍오는 거. 밥도 비와 앗곡.(가져와. 아이들 여러 개 있으면 하나씩 주려고 해서 부당이 주면 가져오는 거. 밥도 부어 갖고.)

107076 @ 아.(아.)

107076 # 밥도 영 보민 저 ᄒᆞᆫ 어디 무신 산신이여, 무신 서낭이여 허멍 영 허는 거 보민 밥을 ᄒᆞᆫ 댓 그릇 헹 가이. 허민 엿날엔 ᄀᆞᆫ밥, ᄀᆞᆫ밥 헤낫주.(밥도 이렇게 보면 저 한 어디 무슨 산신이다, 무슨 서낭이다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 보면 밥을 ㅎ나 댓 그릇 해서 가. 하면 옛날엔 흰쌀밥, 흰쌀밥 했었지.)

107076 @ 응.(응.)

107076 # 저놈의 ᄀᆞᆫ밥을 어느 때랑 받앙 오랑근에 ᄒᆞ쏠 먹으린 허당 보민 온 거 보민, 밥을 ᄒᆞᆫ 사발벳긔 안 아져와.(저놈의 흰쌀밥을 어느 때면 받아 와서 조금 먹을까 하다 보면 온 거 보면, 밥을 한 그릇밖에 안 가져와.)

107076 @ 응.(응.)

107076 # 어무니 밥 다 어디 비언? 허민 밥 우리 찍새 오느냐? 심방 다 비왕 가불주. 심방 다 비왕 가불어. 떡이고 밥이고 다 졍 가비어.(어머니 밥 다 어디 가버렸어? 하면 밥 우리 깃 오니? 무당 다 부어 가버리지. 무당 다 부어 가버려. 떡이고 밥이고 다

209) '스망 일다'는 재수가 좋은 일이 생기거나 운이 좋은 일이 생긴다는 의미다.

져서 가버려.)

107076 @ 응.(응.)

107076 # 독도이 엿날은 액맥이, 액맥이 허멍 독을 집에서 질롸근에 장독을 앗앙가이. 겨민 정월에 깨운 거 이 유월에 나민 커근에 제법 울어이, 요놈이가. 스나이 구실헹 막 울민 정월에 새끼 노는 거 이건 유월에 ᄆᆞ슬 갈[칼] 때 아졍강 좋으켜. 허멍 형 그걸 앗앙가민, 앗앙오느냐 허민, 독도 주어비동 와. 다, 다 심방 나시라, 앗앙가는 거 보민.(닭도 옛날은 액막이, 액막이 하면서 닭을 집에서 길러서 장닭을 가져가. 그러면 정월에 까고 나온 거 이 유월이 나면 커서 제법 울어, 요놈이. 사나이 구실 해서 막 울면 정월에 새끼 노는 거 이건 유월에 'ᄆᆞ슬' 갈 때 가져 가서 좋겠다. 하면서 해서 그걸 가져가면, 가져오느냐 하면, 닭도 주워두고 와. 다, 다 무당 몫이야, 가져가는 거 보면.)

107076 @ 아, 응.(아, 응.)

107076 # 거난 그거ᄀᆞ라 ᄆᆞ슬 카는 거, ᄆᆞ슬 카는 거 허주.(그러니까 그것보고 'ᄆᆞ슬' 가는 거, 'ᄆᆞ슬' 가는 거 하지.)

107076 @ ᄆᆞ슬 카는 거예?('ᄆᆞ슬' 가는 거요?)

107076 # 당에 감젠 요즘은.(당에 간다고 요즘은.)

107076 @ 경 안 골아예?(그렇게 안 말해요?)

107076 # 일로 요드레 강 요드레 강와사 엿날엔 ᄆᆞ슬 카와사, ᄆᆞ슬 카와사.(이리로 요리 가서 요리 가와야 옛날엔 'ᄆᆞ슬' 가와야, 'ᄆᆞ슬' 가와야.)

107077 @ 굿헐 때도 떡헙니까?(굿할 때도 떡합니까?)

107077 # 응, 굿헐 때 돌레떡.(응, 굿할 때 도래떡.)

107077 @ 아, 굿헐 땐 돌레떡.(아, 굿할 땐 도래떡.)

107077 # 돌레떡.(도래떡.)

107077 @ 돌레떡은 어떵 멘드는 거꽈?(도래떡은 어떻게 만드는 겁니까?)

107077 # 돌레떡은 영영영영 동글랑허게 놩 꾹 눌려근에 영영영 양착 손드레 영영영 허당 보민 동글랑허게 늘롸져.(도래떡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동그랗게 놔서 꾹 눌러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양쪽 손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다 보면 동그랗게 늘어나.)

107077 @ 아.(아.)

107077 # 게민 벵 동글랑허게 허여, 경헤근에 그거 솖아, 솖으멍 건지멍 식인디.(그러면 뱅 동그랗게 해, 그렇게 해서 그거 삶아, 삶으면서 건지면서 식히는데.)

107077 @ 그건, 물에 솖아?(그건, 물에 삶아?)

107077 # 응, 경헌디 요즘은이 굿밧듸 간 보난이, 기계 간 헤여근에 떡 짝 기계로 밀어 나오난 강 사발로 딱 떠서라.(응, 그런데 요즘은 굿마당에 가서 보니까, 기계 가서 해서 떡 쫙 기계로 밀어 나오니까 가서 사발로 딱 떴더라.)

107077 @ 아.(아.)

107077 # 사발로 꾹 눌렁 뜬 거, 손으로 안 만들아. 손으로 만든 떡 엇언게. 돌레떡이엔 헤도.(사발로 꾹 눌러서 뜬 거, 손으로 안 만들어. 손으로 만든 떡 없더라. 도래떡

이라고 해도.)

107077 @ 손으로 만들어사 돌레떡이주?(손으로 만들어야 도래떡이지?)

107077 # 손으로 만들어야 돌레떡인디, 그자 동글랑허게만 기자 돌레떡이엔 헨, 동글랑허게만 사발로 딱딱 떤 놔선게. 나 흔번 굿밧듸 강 ᄀᆞ만히 보난에.(손으로 만들어야 도래떡인데, 그저 동그랗게만 그저 도래떡이라고 해서, 동그랗게만 사발로 딱딱 떠서 놨더라. 나 한번 굿마당에 가서 가만히 보니까.)

107077 @ 응. 솔벤 본 찍듯이이예, 그자 똥글랑헌 걸로예?(응. 솔편 본 찍듯이요, 그저 동그란 걸로요?)

107077 # 그자 똥글랑헌 그자 사발로사 떠신지 보시로사 떠신디. 딱 떤에, 경헹 헨 와선게.(그저 동그란 그저 사발로야 떴는지 보시기로야 떴는지. 딱 떠서, 그렇게 해서 해서 왔더라.)

107078 @ 아까, 등절빈 무신거옌 헤수과?(아까, '등절비'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107078 # 등절비[210]엔 헌 건이, 보릿ᄀᆞ루로 헤여근에.('등절비'라고 한 건, 보릿가루로 해서.)

107078 @ 응.(응.)

107078 # 저 아이들 먹젠 이 제ᄉᆞ 때나 무신거 먹젱 허민 ᄀᆞᆫ떡은 허민 갈라줄 거 엇이난 보릿ᄀᆞ루 헤여근엥에 작작 밀엉 두둑허게 밀어근엥에 ᄀᆞᆺ사ᄀᆞ추룩 동글랑허게 떠놔근엥에 영 그쳐근에 헌 거.(저 아이들 먹으려고 이 제사 때나 무엇 먹으려고 하면 흰쌀떡은 하면 갈라줄 거 없으니까 보릿가루 해서 작작 밀어서 두둑하게 밀어서 아까처럼 동그랗게 떠놔서 이렇게 잘라서 한 거.)

107078 @ 반달 모양으로?(반달 모양으로?)

107078 # 응, 반달 모냥으로 그게 등절비.(응, 반달 모양으로 그게 '등절비'.)

107078 @ ᄑᆞᆺ쉬 무치고?(팥소 묻히고?)

107078 # ᄑᆞᆺ쉬가 어디 잇어? 보리개역 헤영 미쳐근에.(팥소가 어디 있어? 보리미숫가루 해서 묻혀서.)

107078 @ 아, 보리개역 미쳐근에.(아, 보리미숫가루 묻혀서.)

107078 # 경헤영, 아이들 ᄒᆞ나썩 주고. 것도 엇엉 못 먹어. 맛좋아.(그렇게 해서, 아이들 하나씩 주고. 그것도 없어서 못 먹어. 맛있어.)

107078 @ 등개떡이영 똑 ᄀᆞ튼 거? 등개떡이영 등절비영 똑ᄀᆞ튼 말?('등개떡'이랑 똑같은 거? '등개떡'이랑 '등절비'랑 똑 같은 말?)

107078 # 응, 엿날 그거나 그거나 ᄀᆞ튼 말.(응, 옛날 그거나 그거나 같은 말.)

107078 @ 아, 이디선 게민 뭐엔 ᄀᆞᆯ아낫수과? 옛날 말?(아, 여기선 그러면 뭐라고 말했었습니까? 옛날 말?)

107078 # 엿날 말로 등절비곡, 등개떡[211]이엔 헌 건 보릿ᄀᆞ루 또 잇어. 그건 보리 ᄀᆞᆯ아난 거.(옛날 말로 '등절비'고, '등개떡'이라고 한 건 보릿가루 또 있어. 그건 보리 갈

210) '등절비'는 쌀이나 메밀가루를 반죽해서 안에 팥소를 넣고 삶아낸 후 팥고물을 묻힌 떡으로 송편보다 조금 크고 두껍다.

211) '등개떡'은 보릿가루로 반죽해서 삶아내어 보리 미숫가루를 고물로 무친 떡이다.

았던 거.)

107078 @ 아, 다른 거? (아, 다른 거?)

107078 # 응, 등개떡이엔 헌 건이 보리 거펴나면 그 ᄀᆞ루 헤여근에 등개떡을 만드는 거고.(응, '등개떡'이라고 한 건 보리 거피하고 나면 그 가루 해서 '등개떡'을 만드는 거고.)

107078 @ 응.(응.)

107078 # 이 등절비엔 헌 거는 곤 ᄀᆞ루로 만들아근에, 쉬 미쳥 아이들 그자, 그건 제ᄉᆞ에 안 쓰는 ᄀᆞ루로 그자 아무 보릿ᄀᆞ루라도 헤여근에 쉬 미치멍 아이들 배불게 주어 부는 거.(이 '등절비'라고 한 거는 고운 가루로 만들어야, 고물 묻혀서 아이들 그저, 그건 제사에 안 쓰는 가루로 그저 아무 보릿가루라도 해서 고물 묻히면서 아이들 배부르게 줘 버리는 거.)

107078 @ 그게 등절비?(그게 '등절비'?)

107078 # 등절비. 등개ᄀᆞ루엔 헌 건 보리 거펴난 거. 보릿ᄀᆞ루 그건 진짜 맛엇인거. 그건이 든 거 아이 놓민 먹지도 못허여. 등개떡, 등개떡, 육지 사름 개떡, 개떡 허잖아.(등절비. 등갯가루라고 한 건 보리 거피했던 거. 보릿가루 그건 진짜 맛없는 거. 그건 단 거 안 놓으면 먹지도 못해. 보리개떡, 보리개떡, 육지 사람 개떡, 개떡 하잖아.)

107078 @ 아, 보리개떡.(아, 보리개떡.)

107078 # 보리개떡, 보리개떡 안 허나?(보리개떡, 보리개떡 안 하니?)

107078 @ 그게 등개떡이구나.(그게 등개떡이구나.)

107078 # 육지 사름들은 개떡, 개떡 허여.(육지 사람들은 개떡, 개떡 해.)

107078 @ 보릿가루예?(보릿가루요?)

107078 # 응. 이딧사름들은 등개떡, 등개떡 허민, 육지 사람들은 것ᄀᆞ라 개떡, 개떡 허멍.(응. 여기 사람들은 '등개떡', '등개떡' 하면, 육지 사람들은 그것보고 개떡, 개떡 하면서.)

소와 고물

107079 @ 아, 게민 이거 떡헐 때, 쉬는 주로 무신거, 무신거 놓고 헙니까?(아, 그러면 이거 떡할 때, 소는 주로 무엇, 무엇 놓고 합니까?)

107079 # 쉬? 무신 떡헐 때?(소? 무슨 떡할 때?)

107079 @ 아무 떡이나 헐 때, 보통.(아무 떡이나 할 때, 보통.)

107079 # 보통은이 픗쉬가 하.(보통은 팥소이 많아.)

107079 @ 픗쉬가 하예? 응.(팥소이 맣아요? 응.)

107079 # 픗쉬가 하영 놓곡, 이 보리떡 ᄀᆞ튼 거, 이런 등개떡 ᄀᆞ튼 건 보릿개역으로 헹 미쳥 먹곡, 다른 거는 픗쉬가 하영 들어. 픗 그자 픗.(팥소를 많이 놓고, 이 보리떡 같은 거, 이런 보리개떡 같은 건 보리미숫가루로 해서 묻혀서 먹고, 다른 거는 팥고물가 많이 들어. 팥 그저 팥.)

107079 @ 응, 속에 놓는 것도 쉬, 밖에 미치는 것도 쉬?(응, 속에 놓는 것도 '쉬', 밖에 묻히는 것도 '쉬'?)

107079 # 응, 풋쉬 미치라. 풋쉬엔 그 앙꼬 담으라 허는 게 그거, 그거주, 그거.(응, 팥고물 묻혀라. 팥소라고 그 소 담아라 하는 게 그거, 그거지, 그거.)

107080 @ 요즘에는 아까 뭐 설탕에 꿰ᄀᆞ루도 영 서꺼근에도 헤라?(요즘에는 아까 뭐 설탕에 깻가루도 이렇게 섞어서도 하더라?)

107080 # 저 무시거 그냥 저 요즘은 조개송편이영 동글랑허게 헤여근에 엿날 조개송편이 아니곡, 동글랑허게 헤근에 허잖아이.(저 무엇 그냥 저 요즘은 조개송편이랑 동그랗게 해서 옛날 조개송편이 아니고, 동그랗게 해서 하잖아.)

107080 @ 아.(아.)

107080 # 게민 소곱에 보민, 어떤 집인 보민 설탕ᄀᆞ루도 ᄒᆞ쏠 놔근에, 소곱에 담앙 허곡 경 허여.(그러면 속에 보면, 어떤 집은 보면 설탕가루도 조금 놔서, 속에 담아서 하고 그렇게 해.)

107080 @ 응.(응.)

107080 # 또 경 안 헌 집은 잇다근에 풋 솖은 것도 담앙 ᄒᆞ쏠 허곡.(또 그렇게 안 한 집은 있다가 팥 삶은 것도 담아서 조금 하고.)

107081 @ 응, 떡 시리떡 칠 때 뭐 어떵 허민 안뒌다 허는 거 잇지예?(응, 떡 시루떡 찔 때 뭐 어떻게 하면 안 된다 하는 거 있지요?)

107081 # 부정헌 사름 뒈면 안 뒌덴.(부정한 사람 되면 안 된다고.)

107081 @ 뭐 오줌 싸레도 가민 안 뒌덴 헨게마는? 그건 아니? 하하하.(뭐 오줌 싸러도 가면 안 된다고 하던데? 그건 아니? 하하하.)

107081 # 아니, 그건 아니곡 시리떡 칠 때에 엿날 할망들 나 게난 에이고 엿날 할망들 어둑은 시절에 어떵 살아신고?(아니, 그건 아니고 시루떡 찔 때에 옛날 할머니들 나 그러니까 아이고 옛날 할머니들 어두운 시절에 어떻게 살았나?)

107081 @ 예, 예.(예, 예.)

107081 # 애기 벤 사름도 들어오지 말라, 또 몸에 거 온 사람도 들어오지 말라.(아기 밴 사람도 들어오지 말라, 또 몸에 거 온 사람도 들어오지 말라.)

107081 @ 예.(예.)

107081 # 게민 시리떡은 시리떡 치젠 허민 ᄀᆞ룰이 다라이에 물을 ᄀᆞ치 놔근에 막 밀어.(그러면 시루떡은 시루떡 찌려고 하면 가루가 대야에 물 같이 놔서 막 밀어.)

107081 @ 응.(응.)

107081 # 밀당 보민 체암이 막 물 놓민 벙뎅이 지지. 벙뎅이 지민 오래오래 막 이추룩 영 막 밀당 보민 ᄀᆞ루가 복삭헤여이.(밀다 보면 처음에 막 물 놓으면 덩어리 지지. 덩어리 지면 오래오래 막 이렇게 이렇게 막 밀다 보면 가루가 '복삭'해.)

107081 @ 아.(아.)

107081 # 그 ᄀᆞ루가 북삭허도록 막 밀어. 경허민 애기 벤 사름도 ᄀᆞ루 밀지 말라. 아니 경헹 ᄆᆞᆫ 골리당 보민 우리추룩 헌 사람은 강 허민, 떡이 밀당 보민 풀이 다 빠져.

시리떡 밀당 보민.(그 가루가 '북삭'하도록 막 밀어. 그러면 아기 밴 사람도 가루 밀지 말라. 아니 그래서 모두 고르다 보면 우리처럼 한 사람은 가서 하면, 떡이 밀다 보면 팔이 다 빠져. 시루떡 밀다 보면.)

107081 @ 시리떡 ᄀᆞ루를 밀어?(시루떡 가루를 밀어?)

107081 # 어, ᄀᆞ루를 막 물 놩 민다. 밀어, 막 죽건 살건 다라에 놩 이추룩 밀어. 물 버무려 놩 막 밀어근에 경 밀당 보민, ᄀᆞ루가 북삭헤여. 또 그거 밀당 또 채로 쳐.(응, 가루를 막 물 놔서 민다. 밀어, 막 죽건 살건 대야에 놔서 이렇게 밀어. 물 버무려 놔서 막 밀어서 그렇게 밀다 보면, 가루가 '북삭'해. 또 그거 밀다가 또 채로 쳐.)

107081 @ 응.(응.)

107081 # 복삭허게, 쳥 또 벙뎅이 또 그거 풀루젠 막 밀어가민 또 벙뎅이 풀어지곡, 풀어지곡 허민 채로 치민 북삭헤여이.('복삭'하게, 쳐서 또 덩어리 또 그거 풀려고 막 밀어가면 또 덩어리 풀어지고, 풀어지고 하면 채로 치면 '북삭'해.)

107081 @ 응.(응.)

107081 # 북삭허민 그거 혼 징, 혼 징, 픗쉬 혼 징 놓곡, 그거 혼 징 놓곡 그거 친떡 치는 거.('북삭'하면 그거 한 층, 한 층, 팥고물 한 층 놓고, 그거 한 층 놓고 그거 시루떡 찌는 거.)

107081 @ 응.(응.)

107081 # 아이고, 그 친떡 밀엉 치젱 허민 잘도 경 두루 밀민이 떡이 안 뒈어. 게싹게싹[212] 허여.(아이고, 그 시루떡 밀면서 찌려고 하면 잘도 그렇게 덜 밀면 떡이 안 돼. '게싹게싹' 해.)

107081 @ 아.(아.)

107081 # 잘 ᄀᆞ루 물 맞촹 잘 밀어 놓민, 친떡 쳥 내놓민 친떡이 졸긋졸긋허게 질기곡, 경 안허민 케삭케삭케삭 헤여.(잘 가루 물 맞춰서 밀어 놓으면, 시루떡 쪄서 내놓으면 시루떡이 쫄깃쫄깃하게 질기고, 그렇지 않으면 '케삭케삭케삭' 해.)

107081 @ 아, 헤싸져 불어?(아, 벌어져 버려?)

107081 # 헤싸져 불어, 잘 안 헤놓민. 경 허는 따문에 ᄀᆞ루 미는 사름도 젊은 사름 헤영 복복허게시리 ᄀᆞ루 두루 밀엇저, 잘 밀엇저 허는 거주게.(벌어져 버려, 잘 안 해놓으면. 그렇게 하는 때문에 가루 미는 사람도 젊은 사람 해서 '복복'하게끔 가루 덜 밀었다, 잘 밀었다 하는 거지.)

별식

107082 @ 응, 그다음에는 잔치 때 허는 순대, 수웨? 엿날은 수웨? 수웬 어떵헹 먹는 거꽈?(응, 그다음에는 잔치 때 하는 순대, '수웨'? 옛날은 '수웨'? 순대는 어떻게 해서 먹는 겁니까?)

107082 # 응. 엿날 말은 이, 뒈야지 잡으민 뒈야지 배설. 배설에 모믈ᄒᆞ루 헤영 그

212) '게싹게싹'은 물기가 없거나 메져서 잘 엉기지 않는 다는 뜻이다.

도새기 피 잇잖아. 이제도 그 피로 담은 거는 맛잇어이.(응. 옛날 말은 이, 돼지 잡으면 돼지 창자. 창자에 메밀가루 해서 그 돼지 피 있잖아. 이제도 그 피로 담은 거는 맛있어.)

107082 @ 예.(예.)

107082 # 그거 영 헤근에 피 헤영, 피 막 피 막 데겨. 피도 또 영. 그디 벙뎅이 진거 막 데겨근에 모믈ᄀᆞ루 놓곡 헤근에, 영영 막 밀어근에 허민 그것에 풀풀 그 피에 모믈ᄀᆞ루에 서꺼근에 영 담아근엥에 그거 솖앙 내놓민 이만썩 질어이.(그거 이렇게 해서 피 해서, 피 막 피 막 문대서 메밀가루 놓고 해서, 이렇게 이렇게 막 밀어서 하면 그것에 풀풀 그 피에 메밀가루에 섞어서 이렇게 담아서 그거 삶아 내놓으면 이만큼씩 길어.)

107082 @ 예.(예.)

107082 # 그거 흔 점썩, 흔 점썩.(그거 한 점씩, 한 점씩.)

107082 @ 응.(응.)

107082 # 그것 순대 헤여근에 그거 흔 점썩 놓메. 고깃반에.(그거 순대 해서 그거 한 점씩 놓아, 고기 반기에.)

107082 @ 응.(응.)

107082 # 겐디 이젠 그거이, 그런 거 놓지도 안허곡, 그런 거 담젠도 안허곡, 담아도 그자 앚인 자리에서들 먹엉 설러 비여.(그런데 이젠 그거, 그런 거 놓지도 않고, 그런 거 담으려고도 않고, 담아도 그저 앉은 자리에서들 먹어서 그만둬 버려.)

107082 @ 이젠 당면, 당면 놔.(이젠 당면, 당면 놔.)

107082 # 아이고, 당면 논 것은 맛엇어.(아이고, 당면 놓은 것은 맛없어.)

107083 @ 맛엇어예. 게민, 두부는? 두부도 집이서 만들어낫주, 옛날예?(맛없어요. 그러면, 두부는? 두부도 집에서 만들었엇지, 옛날요?)

107083 # 두부 이게, 이게 지금, 콩 그거 콩ᄀᆞ루 헤영.(두부 이게 이게 지금, 콩 그거 콩가루 해서.)

107083 @ 예.(예.)

107083 # 콩ᄀᆞ루 헤여근엥에 물에 서꺼근에 이제 가메에서 끌리는 거라이.(콩가루 해서 물에 섞어서 이제 가마에서 끓이는 거야.)

107083 @ 물은 무신 물?(물은 무슨 물?)

107083 # 아무 물이라도.(아무 물이라도.)

107083 @ 소금 안 헤도 뒈어?(소금 안 해도 돼?)

107083 # 안 헤도 뒈어.(안 해도 돼.)

107083 @ 아, 그건 나중에 허는 거구나예.(아, 그건 나중에 하는 거군요.)

107083 # 물에 팔팔허게 놩 젓으멍 끌려. 큰 가마솟듸서 끌려근에 허민 물이 투박투박 헤여이. 허민, 상자 영 물 빠지는 그 테레비도 자꾸 보난 그런 상자 이선게. 상자 네 귀반득헌 상자에 천을 톡허게 꼴아.(물에 팔팔하게 놔서 저으면서 끓여. 큰 가마솥에서 끓여서 하면 물이 '투박투박' 해. 하면, 상자 이렇게 물 빠지는 그 텔레비전에도 자꾸 보니까 그런 상자 있더라. 상자 네모반듯한 상자에 천을 톡하게 깔아.)

107083 @ 응.(응.)

107083 # 꼴민 그 콩ᄀᆞ루 팔팔 끌여근에 막 끌여지민 그거 탁 비우민 물 싹 빠져불민 그 우트레 포 더껑 무시걸로 꼭 눌리민 트랑트랑 얼리민 그거 두부라.(깔면 그 콩가루 팔팔 끓여서 막 끓으면 그거 탁 비우면 물 싹 빠져버리면 그 위에 포 덮어서 무엇으로 꼭 누르면 '트랑트랑' 엉기면 그거 두부야.)

107083 @ 응.(응.)

107083 # 두부 만드는 거.(두부 만드는 거.)

107083 @ 소금물은 왜 필요헤, 근디?(소금물은 왜 필요해, 그런데?)

107083 # 소금물은 이 그 부끄지 말렌. 부끄지 말렌 우레기 부꺼가민 소금 하영 안 들이쳐. 하영 들이치당 보민 짜불 거난.(소금물은 이 그 끓어넘치지 말라고. 끓어 넘치지 말라고 '우레기' 끓어 가면 소금 많이 안 들이뜨려. 많이 들이뜨리다 보면 짜버릴 거니까.)

107083 @ 응.(응.)

107083 # 소금 ᄒᆞ쏠 우트레 영 산허게 ᄒᆞ쏠 서끄민, 부꺼오던 것이 꼰허게 꼴아져이.(소금 조금 위에 이렇게 살짝 조금 섞으면, 끓어넘치던 것이 '꼰하게' 가라앉아.)

107083 @ 응.(응.)

107083 # 꼴아져근에 허당 또 끌리당 보민 또 ᄒᆞ쏠 우트레 또 부그락허게 올라오라가민 또 그거 올라오지 못허게 영 소금 ᄒᆞ쏠 치곡, 흔 서너 번 쳐가민 또 꼴아아지민 경 오래 딸리지도 안허여, 요즘, 오래 딸리지도 안허여.(가라앉아서 하다가 또 끓이다 보면 또 조금 위에 또 푸하게 올라와 가면 또 그거 올라오지 못하게 이렇게 소금 조금 치고, 한 서너 번 치면 또 가라앉으면 그렇게 오래 달이지도 않아, 요즘, 오래 달이지도 않아.)

107083 @ 아니, 옛날엔 바당물 떠당 헷덴 헨게마는?(아니, 옛날엔 바닷물 떠다가 했다고 하던데?)

107083 # 바당물 떠당 거 근물, 근물 허멍.(바닷물 떠다가 그거 간물, 간물 하면서.)

107083 @ 거난.(그러니까.)

107083 # 소금이 어려우난, 그 쫀물 헤다근에 그 쫀물 영 부꺼가민 부끄지 못허게 영 치는 거.(소금이 어려우니까, 그 짠물 해다가 그 짠물 이렇게 끓어넘쳐 가면 끌어넘치지 못하게 이렇게 치는 거.)

107083 @ 아, 응.(아, 응.)

107083 # 그 쫀물에서 허는 게 아니고.(그 짠물에서 하는 게 아니고.)

107083 @ 아.(아.)

107083 # 소금이 어려우난 쫀물 헤다근에 두부 끌여 먹젠 허민 그 끌려 가가민 북삭허게 부꺼가민 거 못 부끄게 ᄒᆞᆫ뿔 영 헤근에 물 거렁 쫀물 ᄒᆞ쏠 영 치데기민 그 쫀 거가 알로 ᄂᆞ려앚아, 이놈이 콩이, 콩ᄀᆞ루가.(소금이 어려우니까 짠물 해다가 두부 끓여 먹으려고 하면 그 끌려 가면 '북삭'하게 끓어넘쳐가면 그거 못 넘치게 조금 이렇게 해서 물 떠서 짠물 조금 이렇게 끼얹으면 그 짠 것이 아래로 내려앉아, 이놈의 콩이, 콩가루

가.)

107083 @ 응.(응.)

107083 # ᄂᆞ려앚앗당, 또 오래 끌려가민 또 북삭허게 올라오라 가민, 또 그거 못부끄게 또 ᄒᆞ쏠 영 쫀물 ᄒᆞ쏠 영 치민, 또 ᄒᆞ쏠 ᄁᆡ려앚곡 경허는 거, 그거.(내려 앉았다가, 또 오래 끓이면 또 '북삭'하게 올라와 가면, 또 그거 못 끓어넘치게 또 조금 이렇게 짠물 조금 이렇게 치면, 또 조금 가라앚고 그렇게 하는 거, 그거.)

107083 @ 거난 두부는 잔치 때나 허주예?(그러니까 두부는 잔치 때나 하지요?)

107083 # 응, 잔치 때나 헤영 먹주.(응, 잔치 때나 해서 먹지.)

107083 @ 대소상 때도, 대소상 때도 허여?(대소상 때도, 대소상 때도 해?)

107083 # 에이구, 대소상 때야 허는 거 난 못 봣저.(에이고, 대소상 때야 하는 거 난 못 봤어.)

107083 @ 그믄 주로 주로 잔칫날예?(그러면 주로 주로 잔칫날요?)

107083 # ᄒᆞ쏠 허민 엿날 사름들 어떵 허당 부부간이 싸와근에 갈랑을 가나, 두불서방을 얻엉 오나 헤영 시어멍신드렐 대드나 시아방신디렐 대드나 허민, 메께라, 나 둠빗물에 손 덴 메누리라?(조금 하면 옛날 사람들 어떻게 하다가 부부간에 싸와서 갈라서 가거나, 두 번째 서방을 얻어서 오나 해서 시어머니에게 대들거나 시아버지에게 대들거나 하면, '메께라', 나 두붓물에 손 댄 며느리야.)

107083 @ 건 무신 말이꽈?(그건 무슨 말입니까?)

107083 # 둠비 허멍 둠빗물에 저 데여시냐고?(두부 하면서 두붓물에 저 데었냐고?)

107083 @ 응.(응.)

107083 # 메느리광 쌉젠 허면 두 불차 온 메누리광은 말ᄃᆞ툼헤엉 메느리가 막 대들거 아니야, 허민, 가구죽허민 가고 실프건 말라. 나 둠빗물에 손 덴 메누리 아니여.(며느리랑 싸우려고 하면 두 번째 온 며느리와는 말다툼해서 며느리가 막 대들 거 아니냐, 하면, 가고 싶으면 가고 싫으면 말라. 나 두붓물에 손 덴 며느리 아니야.)

107083 @ 첫 번째 메누리 아니라고?(첫 번째 며느리 아니라고?)

107083 # 응, 첫 번 메누리 아니라고.(응, 첫 번 며느리 아니라고.)

107083 @ 하하하하, 아.(하하하하, 아.)

107083 # 둠비 허멍 손 데멍, 그 둠비 딸리멍 헌 메누리 아니라고. 가렌 처음 헤 온 메누리 아니난. 가렌, 필요 엇덴. 경허멍 엿날도 헤난 거라, 경허난.(두부 하면서 손 데면서, 그 두부 달이면서 한 며느리 아니라고. 가라고 처음 해온 며느리 아니니까. 가라고, 필요 없다고. 그러면서 옛날도 했던 거야, 그러니까.)

107083 @ 아, 거난, 둠비물에 손 덴 메누린 첫 번째 헌 메누리?(아, 그러니까, 두붓물에 손 덴 며느린 첫 번째 한 며느리?)

107083 # 응, 첫 번째 헌 메누리. 지네가 원 뒈엉 메누리 구혜여근에 헤온 메누린디.(응, 첫 번째 한 며느리. 자기네가 원 되어서 며느리 구해서 해온 며느린데.)

107083 @ 응.(응.)

107083 # 따시 두 번차, 두 번차 온 메누리는 뭐 지네끼리 좋안 온 거, 나 공들지

안헷다 헌 거여. 살구적 허믄 살곡 실프건 말라 뭐 영 허멍.(다시 두 번째 , 두 번째 온 며느리는 뭐 자기네끼리 좋아서 온 거, 나 공들지 않았다 한 거야. 살고 싶으면 살고 싫으면 말라 뭐 이렇게 하면서.)

107083 @ 하하하.(하하하.)

107083 # 경 허는 거, 엿날 어른들. 경 골아낫어. 요즘은, 어이구 둠빗물에 손 뎀이랑 말앙 지네끼리 좋앙 헤와도 삶만 허민 메누리야, 요즘은. 안 살아준 게 원이지.(그렇게 하는 거, 옛날 어른들. 그렇게 말했었어. 요즘은, 아이고 두붓물에 손 데기는커녕 자기네끼리 좋아서 해와도 살기만 하면 며느리야, 요즘은. 안 살아준 게 원이지.)

107083 @ 잘 살아주기만 헤도 고마운 거주.(잘 살아주기만 해도 고마운 거지.)

107083 # 응, 살아주기만 헤도 고마운 거.(응, 살아주기만 해도 고마운 거.)

107083 @ 싸왕 이혼허곡.(싸워서 이혼하고.)

107083 # 아이구, 아이구, 첨말로 살아주기만 헤도 고마운 거.(아이고, 아이고, 참말로 살아주기만 해도 고마운 거.)

107083 @ 게, 지네만 잘살아도예.(그러게, 자기네만 잘살아도요.)

107083 # 응, 지네만 잘 살아도 고마운 거.(응, 자기네만 잘 살아도 고마운 거.)

107084 @ 게난예. 모믈묵.(그러니까요. 메밀묵.)

107084 # 모믈묵은 막 근 맞춰근에 요정도민 익어가민 어느 정도 뒌 거라 헤여근에, 물을 맞춰근에 모믈ᄀᆞ루를 막 서꺼이. 물에 서껑, 서꺼근에 솟듸 놩 쑤어. 불 솜아가민 그것이 불착불착 궤어가민 솟창에 눌카부덴 막.(메밀묵은 막 간 맞춰서 요정도면 익어가면 어느 정도 된 거다 해서, 물 맞춰서 메밀가루를 막 섞어. 물에 섞어서, 섞어서 솥에 놔서 쑤어. 불 때가면 그것이 '불착불착' 끓으면 솥 바닥에 눌까봐 막.)

107084 @ 무신걸로 젓어?(무엇으로 저어?)

107084 # 남죽이엔 헌 거 잇어.(죽젓개라고 한 거 있어.)

107084 @ 남죽으로예.(죽젓개로요.)

107084 # 응, 나무로 만든 거 잇어. 그걸로 헹 막 젓어. 젓당 보민 그것이 궤엉 불착불착불착 궤어가민 부글부글 궤잖아.(응, 나무로 만든 거 있어. 그걸로 해서 막 저어. 젓다 보면 그것이 끓어서 '불착불착불착' 끓어가면 부글부글 끓잖아.)

107084 @ 예.(예.)

107084 # 경 헤가민, 그땐 그 ᄀᆞ루가 익으민 그것 이젠 다라드레 퍼근에 꼰꼰허게 펜찍허게 헹 놔두민 그것이 토랑토랑헤여.(그렇게 하면, 그땐 그 가루가 익으면 그것 이젠 대야에 떠서 단단하게 평평하게 해서 놔두면 그것이 '토랑토랑'해.)

107084 @ 게민 칼로 썰어?(그러면 칼로 썰어?)

107084 # 응, 칼로 베는 거라 그게. 그건 쑨 묵이고.(응, 칼로 베는 거야 그게. 그건 쑨 묵이고.)

107084 @ 응, 그건 쑨 묵이고.(응, 그건 쑨 묵이고.)

107084 # 지지는 거는 그냥 물 탁 탕 빙 지지듯이 지져. ᄒᆞ쏠 뒈게만 저 ᄒᆞ쏠 두껍게만 지진 거주.(지지는 거는 그냥 물 탁 타서 빙떡 지지듯이 지져. 조금 되게만 저 조

금 두껍게만 지진 거지.)

107084 @ 응.(응.)

107084 # 그거는 빙 지지는 거나 마찬가지.(그거는 빙떡 지지는 거나 마찬가지.)

107084 @ 그것 그믄 그것은.(그것 그러면 그것은.)

107084 # ᄒᆞ쏠 뚜껍게 묵허는 거 그건 ᄒᆞ쏠 두껍게 지져, 묵은.(조금 두껍게 묵하는 거 그건 조금 두껍게 지져, 묵은.)

107084 @ 응, 그럼 무신 묵이엔 ᄀᆞᆫ는다고?(응, 그럼 무슨 묵이라고 말한다고?)

107084 # 모믈묵, 쑨 묵.(메밀묵, 쑨 묵.)

107084 @ 쑨 묵? 지진 묵?(쑨 묵? 지진 묵?)

107084 # 지진 묵, 쑨 묵 경허느네.(지진 묵, 쑨 묵 그러지.)

107084 @ 그거 게민 식게 때 썰어근에, 저.(그거 그러면 제사 때 썰어서, 저.)

107084 # 고젱이에 끼와.(꼬챙이에 끼워.)

107084 @ 고젱이에 끼워?(꼬챙이에 끼워?)

107084 # 옛날엔 보난 그거 고젱이에 끼워근에, 화리에 숫불 살롼이, 지름장 헹 영영 묵드레 불르멍 구워라. 이젠 안 허여.(옛날에 보니까 그거 꼬챙이에 끼워서, 화로에 숯불 살라서, 기름장 해서 이렇게 묵에 바르면서 굽더라. 이젠 안 해.)

107084 @ 솟두껭이에 지진 다음에?(솥뚜껑에 지진 다음에?)

107084 # 아니. 그 솟뚜껭이에서 지진 거는 그냥 허곡.(아니. 그 솥뚜껑에서 지진 거는 그냥 하고.)

107084 @ 아.(아.)

107084 # 솟듸서 쑨 거.(솥에서 쑨 거.)

107084 @ 아, 솟듸서 쑨 거. 코싱허겟네예.(아, 솥에서 쑨 거. 고소하겠네요.)

107084 # 코시룽, 지름장 불랑, 솔솔 불르멍 구워 놓민이 가물가물헌 게 코시룽헤여. 경헹, 옛날 어른들 그추룩 허멍 식게 명질 헤라. 나 두린 때 본 거지.(고소, 기름장 발라서, 살살 바르면서 구워 놓으면 거뭇거뭇한 게 고소해. 그래서, 옛날 어른들 그렇게 하면서 제사 명절 하더라. 나 어린 때 본 거지.)

107084 @ 옛날에예, 화리에.(옛날에요, 화로에.)

107084 # 우리 역은 후제는 경 안 헷어.(우리 큰 후에는 그렇게 안 했어.)

107084 @ 응, 화릿불에.(응, 화롯불에.)

107084 # 응, 화릿불에. 화릿불에 숫불 살롸근에.(응, 화롯불에. 화롯불에 숯불 살라서.)

107085 @ 예, 청묵은 게민 어떵 허는 거꽈?(예, '청묵'은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107085 # 청묵[213]은 접질앙 모믈쏠 물에 컷당.('청묵'은 짜서 메밀쌀 물에 담갔다가.)

107085 @ 모믈쏠을 물에 컷당.(메밀쌀을 물에 담갔다가.)

213) '청묵'은 메밀쌀을 자루에 담아 물에 놀려서 나온 맑은 물로 쑤어서 만든 묵이다.

107085 # 물에 컷당, 잘리 만들앙 막 접질아.(물에 담갔다가, 자루 만들어서 막 짜.)

107085 @ 응.(응.)

107085 # 접질아 불민 이 겁데기가 주시가 나와 비어이. 주시 나와 불민 그 아래 물만 헤근에 쑤어 가민 그 저, 볼탁볼탁 쑤어 가민 묵 뒈는 거. ᄀᆞ루 믄 나와근에. 겨난 그것이 청묵이라.(짜 버리면 그 껍데기가 찌꺼기가 나와 버려. 찌꺼기 나와 버리면 그 아래 물만 해서 쑤어 가면 그 저, '볼탁볼탁' 쑤어 가면 묵 되는 거. 가루 모두 나와서. 그러니까 그것이 '청묵'이야.)

107085 @ 하양헌 거예?(하얀 거요?)

107085 # 응, 혜영헌 게, 알랑알랑헤여 그건. 그것이 청묵.(응, 하얀 게, 말랑말랑해 그건, 그것이 '청묵'.)

107085 @ 거난 식게 때 청묵은 잘 안 허여?(그러니까 제사 때 '청묵'은 잘 안 해?)

107085 # 청묵 이따 허는 집이 가끔 ᄒᆞ나썩 허주. 공들영 못 헌다. 모믈쏠 물에 컷당 그것 막 잘리에 놩 짜야뒈는 따문에 거 짜기가 경 힘든다게, 경헤놓난, 아무나 못헷저.(청묵 이따가 하는 집이 가끔 하나씩 하지. 공들어서 못 한다. 메밀쌀 물에 담갔다가 그것 막 자루에 놔서 짜야되기 때문에 그거 짜기가 그렇게 힘든다, 그래서, 아무나 못했지.)

107086 @ 응. 개역.(응. 미숫가루.)

107086 # 개역이사, 보리 보깡.(미숫가루야, 보리 볶아서.)

107086 @ 콩개역도 이수과?(콩미숫가루도 있습니까?)

107086 # 콩도 보리 보까근에 지금도 콩개역 헹 풀잖아. 보릿개역이나 콩개역이나.(콩도 보리 볶아서 지금도 콩미숫가루 해서 팔잖아. 보리미숫가루나 콩미숫가루나.)

107086 @ 응.(응.)

107086 # 거 보까근에 그자 요새 방에에 강 ᄀᆞᆯ아오민게.(그거 볶아서 그저 요새 방 앗간에 가서 갈아오면.)

107086 @ 그믄 옛날에도 보리개역, 콩개역 헹.(그러면 옛날에도 보리미숫가루, 콩미숫가루 해서.)

107086 # 응, 보리개역, 콩개역 헤여. 이 저 떡에도 허젠 허민 잇당 콩 보깡 콩개역도 헤근에 쉬로 헹 쉬로 쓰곡.(응, 보리미숫가루, 콩미숫가루 해. 이 저 떡에도 하려고 하면 이따가 콩 볶아서 콩미숫가루도 해서 고물로 해서 고물로 쓰고.)

107086 @ 평상시엔 어떵 헹 먹어? 물에 탕?(평상시에는 어떻게 해서 먹어? 물에 타서?)

107086 # 평상시엔 물에 탕 먹곡. 콩, 콩개역만은 물에 안 타. 콩개역은 보리에 서껑. 요즘도 개역 헹 ᄑᆞ는 건 콩 서껑.(평상시에는 물에 타서 먹고. 콩, 콩미숫가루만은 물에 안 타. 콩미숫가루는 보리에 섞어서. 요즘도 미숫가루 해서 파는 건 콩 섞어서.)

107086 @ 다 서껑예.(다 섞어서요.)

107086 # 서껑 풀아. 경허곡, 잇다근에 그자 떡이나 허젠 허민 무시거 쉬 엇인 땐, ᄑᆞᆺ 엇인 땐 콩 보까근에 ᄀᆞᆯ앙 그걸로 쉬 헤여근에 떡 무치곡 경허는 거.(섞어서 팔아.

그리고, 이따가 그저 떡이나 하려고 하면 무엇 고물 없을 땐, 팥 없을 땐 콩 볶아서 갈아서 그걸로 고물 해서 떡 묻히고 그러는 거.)

107086 @ 저 개역은 그냥 물에도 캉 먹곡, 떡 쉬도 허곡, 아이덜은 그거 그냥 간식으로도 먹고?(저 미숫가루는 그냥 물에도 타서 먹고, 떡 고물도 하고, 아이들은 그거 그냥 간식으로도 먹고?)

107086 # 간식으로도 물에 캉 먹곡.(간식으로도 물에 타서 먹고.)

107086 @ 예, 물에도 캉 먹곡, 난 저 뭐 종이 봉지에 놔근에 영 접앙.(예, 물에도 타서 먹고, 난 저 뭐 종이 봉지에 놔서 이렇게 접어서.)

107086 # ᄆᆞ른 차?(마른 채?)

107086 @ 예, ᄆᆞ른 차 접아먹당 막 곡껑. 하하하하, 애기 땐 경 헤난 거 닮은디.(예, 마른 채 집어먹다가 막 갑셔서. 하하하하, 아기 땐 그렇게 했던 거 같은데.)

107086 # 우리도 우린 막 역은 후제도, 개역을 ᄆᆞ른 차 폭 허게 입드레 거려놔서 나가이. 게, 그거 웃지질 못허는 거라.(우리도 우린 아주 큰 후에도, 미숫가루를 마른 채 폭 하게 입에 떠놔서 나가. 그러게, 그거 웃기지 못하는 거야.)

107086 @ 예.(예.)

107086 # 개역을 영 입드레 혼 숟고락 폭 허게 거련, 모른 차 거련 입드레 영 놓차 올리로 보당, 자인 무산 나 봐지난 정 헴시니? 영허멍 허난 그게 그자 팍허게 웃으난.(미숫가루를 이렇게 입에 한 숟가락 폭 하게 떠서, 마른 채 떠서 입에 이렇게 놓자 올레로 보다가, 재는 왜 나 보이니까 저렇게 하고 있니? 이렇게 하면서 하니까 그게 그저 팍하게 웃으니까.)

107086 @ 하하하하하.(하하하하.)

107086 # 일로 이레 박삭 푸꺼[214] 불언. 이 개역은 이레 문 때 웃지질 못헤. 웃엇당은 팍삭 푸꺼 비여.(이리로 이리 '박삭' '푸꺼' 버렸어. 이 미숫가루는 이리 물었을 때 웃기지 못해. 웃었다가는 '팍삭' '푸꺼' 버려.)

107086 @ 하하하하. (하하하하.)

107086 # 우린 경헹 막 웃져나곡 그자 개역 먹어가민, ᄆᆞ른 차 먹어가민 막 웃져불주게.(우린 그렇게 막 웃기기도 하고 그저 미숫가루 먹으면, 마른 채 먹으면 막 웃겨버리지.)

107086 @ 응, 밥에도 비병 먹어?(응, 밥에도 비벼서 먹어?)

107086 # 밥에도 비병 먹나, 보리밥에.(밥에도 비벼서 먹어, 보리밥에.)

107086 @ 아, 보릿밥에?(아, 보리밥에?)

107086 # 응, 보리밥에 비비민 쿠수룽헌 맛으로, 보릿개역. 엿날 어른들은 보릿개역 헤영.(응, 보리밥에 비비면 고소한 맛으로, 보리미숫가루. 옛날 어른들은 보리미숫가루 해서.)

107086 @ 아.(아.)

---

214) '푸끄다'는 '(부채로) 부치다'의 의미도 있지만 여기서는 입에 있던 미숫가루가 갑자기 입 밖으로 나오는 모양을 설명한 것이다.

107086 # 밥에도 비병 먹곡, 물에도 그냥 탕 먹곡, 또 그자 앚앙 말 골으멍 ᄆᆞ른 차도 접아먹곡 보릿개역으로 못헤는 게 잇어? 떡도 헤여근에 쉬 무청도 먹곡, 잇당 보리떡 헤놔근에, 야 보리떡이라도 허라 먹게. 간식 먹구적 허민.(밥에도 비벼서 먹고, 물에도 그냥 타서 먹고, 또 그저 앉아서 말하면서 마른 채도 집어먹고 보리미숫가루로 못하는 게 있어? 떡도 해서 고물 무쳐서도 먹고, 이따가 보리떡 해놔서, 야 보리떡이라도 해라 먹자. 간식 먹고 싶으면.)

107086 @ 예.(예.)

107086 # 그자 보릿개역에 미쳐근에 경 헤낫저, 또 그것도 헹 먹고. 경 헤낫저, 우리 엿날에.(그저 보리미숫가루에 무쳐서 그렇게 했었어, 또 그것도 해서 먹고. 그랬었어, 우리 옛날에.)

107087 @ 지짐이도 지졍 먹언낫수과? 이제사 뭐 심심허민 지짐이 헹 먹주마는.(지짐이도 지져서 먹었었습니까? 이제야 뭐 심심하면 지짐이 해서 먹지마는.)

107087 # 그전인 찌짐이 헹 먹젠 기엉 수월허게 살지 못헤시네, 어리완.(그전엔 지짐이 해서 먹으려고 그렇게 수월하게 살지 못했어, 어려워서.)

107087 @ 응.(응.)

107087 # 이젠 밀ᄀᆞ루도 나오곡, 온갖 것이 다 풍년이 뒈난, 밀ᄀᆞ루 놔근에 잇당 부침개도 헤영 먹곡, 무시거 저 새우리도 헤다 놩 허곡. 파도 썰어 놩 헤영 먹곡, 그런 것들 헹 먹주. 엿날엔 그런 거 헤영 간식으로 먹을 저르가 어디 잇어시니? 엇엉 못 먹은 거.(이젠 밀가루도 나오고, 온갖 것이 다 풍년이 되니까, 밀가루 놔서 이따가 부침개도 해서 먹고, 무엇 저 부추도 해다 놔서 하고. 파도 썰어 놔서 해서 먹고, 그런 것들 해서 먹지. 옛날엔 그런 거 해서 간식으로 먹을 겨를이 어디 있었니? 없어서 못 먹은 거.)

107087 @ 게난예.(그러니까요.)

107087 # 뭇 솖앙 먹지, 톨 헤다놩 그거 그 틀밥 헹 먹지. 쑥 솖앙 범벅헤연 먹지. 그 어느 저르에 그거 헤영 간식 먹곡, 무신 부침개 헤 먹을 저르가 어디 이시느니? 때로 사는 것도 부쪄근에, 때로도 굶어가는디.(무릇 삶아서 먹지, 톳 해다놔서 그거 그 톳밥 해서 먹지. 쑥 삶아서 범벅해서 먹지. 그 어느 겨를에 그거 해서 간식 먹고, 무슨 부침개 해 먹을 겨를이 어디 있니? 끼니로 사는 것도 부쳐서, 끼니도 굶어 가는데.)

107087 @ 아까 쑥도 범벅헹 먹어?(아까 쑥도 범벅해서 먹어?)

107087 # 응, 쑥 솖앙 범벅헹 먹어.(응, 쑥 삶아서 범벅해서 먹어.)

107087 @ 어떵 헹은에?(어떻게 해서?)

107087 # 쑥 솖앙게.(쑥 삶아서.)

107087 @ 무신거 놩? 쑥허곡.(무엇 놔서? 쑥하고.)

107087 # ᄀᆞ루놔근에.(가루 놔서.)

107087 @ 무신 ᄀᆞ루?(무슨 가루?)

107087 # 아무 ᄀᆞ루라도, 쏠ᄀᆞ루고, 밀ᄀᆞ루고, 모믈ᄀᆞ루로도.(아무 가루라도, 쌀가루고, 밀가루고, 메밀가루로도.)

107087 @ 아, 아무 ᄀᆞ루라도, 쑥은 솖으민.(아, 아무 가루라도, 쑥은 삶으면.)

107087 # 게난 요즘은 밀ᄀᆞ루 시난 부침개도 헤영 먹곡, 그자.(그러니까 요즘은 밀가루 있으니까 부침개도 해서 먹고, 그저.)

107088 @ 술 허는 거, 술.(술 하는 거, 술.)

107088 # 술?(술?)

107088 @ 응.(응.)

107088 # 엿날에 저, 흐린좁쌀 잇지이, 흐린좁쌀 알아지지이?(옛날에 저, 차좁쌀 있지, 차좁쌀 알지?)

107088 @ 예.(예.)

107088 # 그런 거 헤여근에.(그런 거 해서.)

107088 @ 예, 오메기 멘들앙?(예, '오메기' 만들어서?)

107088 # 오메기 멘들아근에, 그거 솖아근엥에 그거 막 삐져근에, 그거 막 삐져근에 폴폴허게 물 놓멍 삐져근에 것에 누룩 서껑 놔두민 흔 며틀 뒈민 북삭허게 궤어.('오메기' 만들어서, 그거 삶아서 그거 막 빻아서, 그거 막 빻아서 풀풀하게 물 놓으면서 빻아서 그것에 누룩 섞어서 놔두면 한 며칠 되면 '북삭'하게 괴어.)

107088 @ 응.(응.)

107088 # 겨민 그것이 엿날엔 요추룩 소주가 아니라. 그자 막걸리 술, 그거.(그러면 그것이 옛날엔 요렇게 소주가 아니야. 그저 막걸리 술, 그거.)

107088 @ 그거 고소리에 놩은에.(그거 소줏고리에 놔서.)

107088 # 그거 경헤영 그걸 멘들앙, 막걸리가 술이라낫어, 엿날에, 우리 두린 땐 보민.(그거 해서 그걸 만들어서, 막걸리가 술이었었어, 옛날에, 우리 어린 때는 보면.)

107088 @ 응.(응.)

107088 # 이런 술 빠는 기계도 엇어나곡, 견디 우리 막 역은 후제 고소리가 나온 거라이. 술 빠는 고소리.(이런 술 고는 기계도 없었고, 그런데 우리 아주 큰 후에 소줏고리가 나온 거야. 술 고는 소줏고리.)

107088 @ 예.(예.)

107088 # 겨민 그땐 기자 좁쌀 그 ᄀᆞ루 아니라도 밀쏠이라도 밥 헤여근엥에 누룩 서껑 놔두민 술 뒈는 거라이. 술 뒈민 고수리 놔근에 이젠 요디 솟 앚져근에, 앚지곡 또 요편이 헤근에 두 개라.(그러면 그땐 그저 좁쌀 그 가루 아니라도 밀쌀이라도 밥 해서 누룩 섞어서 놔두면 술 되는 거야. 술 되면 소줏고리 놔서 이젠 요기 솥 안쳐서, 안치고 또 요편에 해서 두 개야.)

107088 @ 응.(응.)

107088 # 두 개 놔근에 욜로 술 두께 더꺼근에, 불 솜아민 술이 뜨뜻헤근에 그 짐이 나오는 거라이 그 짐이 술이라이.(두 개 놔서 요리로 술 뚜껑 덮어서, 불 때가면 술이 따뜻해서 그 김이 나오는 거야, 그 김이 술이야.)

107088 @ 예, 예.(예, 예.)

107088 # 게민 그 요만헌 저 무신거 닮은 걸로 헤어근에 쫄쫄쫄쫄 나와, 겨민 흔 솟 밤이 술 두 뒈 나오곡 잘허민 두 뒈 반, 경 안허민 두 뒈 나왐젠 허멍. 경허멍 술 빠는

거 봣주.(그러면 그 요만한 저 무엇 같은 걸로 해서 졸졸졸졸 나와, 그러면 한 솥 밤에 술 두 되 나오고 잘하면 두 되 반, 그렇지 않으면 두 되 나온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술 고는 거 봤지.)

107088 @ 할머닌 안 헤봔?(할머니는 안 해봤어?)

107088 # 응, 안 헤봔. 우리 역은 후제 그거 고소리가 나왓주. 술고소리, 술고소리 헤낫어.(응, 안 해봤어. 우리 큰 후에 그거 소줏고리가 나왔지. 소줏고리, 소줏고리 했었어.)

107088 @ 예.(예.)

107088 # 경허당 중간에 술이 어딜로 나옴 시작허난 자꾸 밀세 들어간 것도 못 헨 설러비서. 그 고소리 술도 못 빠게시리 헤봔.(그러다가 중간에 술이 어디로 나오기 시작하니까 자꾸 밀서 들어가서 그것도 못해서 그만둬 버렸어. 그 소줏고리 술도 못 고게끔 해봤어.)

107088 @ 응, 거난 할무닌 저 집이서 고소리술 안 헤낫구나?(응, 그러니까 할머닌 저 집에서 '고소리술' 안 했었구나?)

107088 # 아니. 우린 아니 헤난.(아니, 우린 안 했었어.)

107088 @ 그냥 주로 막걸리로?(그냥 주로 막걸리로?)

107088 # 막걸리 술만 기자 헤영 그 집이서 먹젠 ᄒᆞ끔 허는 거주. 받아당 먹주, 이 고소리술 홈치.(막걸리 술만 그저 해서 그 집에서 먹으려고 조금 하는 거지. 받아다가 먹지, 이 '고소리술' 한꺼번에.)

107089 @ 응, 쉰다리.(응, '쉰다리'.)

107089 # 쉰다리[215]는 지금도 헤영 먹어, 우리.('쉰다리'는 지금도 해서 먹어, 우리.)

107089 @ 어떵헹 허는 거꽈? 밥 쉰 걸로?(어떻게 해서 하는 겁니까? 밥 쉰 걸로?)

107089 # 밥 이시민 기자 밥에 그자 누룩 버무려근에 오늘 아침이 버무령 놔두민 낼 아침인 북삭허게 궤여이. 궤민 이젠 그거 걸러비여.(밥 있으면 그저 밥에 그저 누룩 버무려서 오늘 아침에 버무려서 놔두면 내일 아침엔 '북삭'하게 괴어. 괴면 이젠 그거 걸러버려.)

107089 @ 응.(응.)

107089 # 누룩. 만딱 걸러비도근에 설탕이나 ᄒᆞ끔 삭삭 서껑 놔두민 냉장고에 놔두민 시원허민 그건, 그건 이제도 헹 먹어 쉰다리는.(누룩. 모두 걸러두고 설탕이나 조금 싹싹 섞어서 놔두면 냉장고에 놔두면 시원하면 그건, 그건 이제도 해서 먹어, '쉰다리'는.)

107090 @ 게민 누룩은 어떵 멘드는 거마씨?(그러면 누룩은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107090 # 누룩은 우린 엿날에 이디서이, 보리 거펴나근에 그 보리쏠 줌진 거 헤어근에 물 버무령 끈끈허게 영 이제도 영 불랑게 육지서도. 그 보리쏠 줌지릉허게시리 ᄀᆞᆯ아근에, 물 버무령. 이제도 영 놩 불란게. 잘리에 싼 영.(누룩은 우린 옛날에 여기서, 보리 거피하고 나면 그 보리쌀 자잘한 거 해서 물 버무려서 끈끈하게 이렇게 이제도 이렇게 밟더라, 육지서도. 그 보리쌀 자잘하게끔 갈아서, 물 버무려서. 이제도 이렇게 놔서 밟더라. 자루에 싸서 이렇게.)

215) '쉰다리'는 밥과 누룩으로 담가 만든 발효 음료다.

107090 @ 응.(응.)

107090 # 우리도 엿날에 이 동글랑 동글랑허게 요만썩허게 허젠 허민, 손에 놩 영 쥐어. 떡 쥐듯 꼰꼰허게 쥐여근에 무시것에 놩 똑똑허게 영 헌디 칭칭이 올려놩 놔두민 ᄆᆞᆯ라가멍 터가멍 헤여.(오늘도 옛날에 이 동그렇게 동그랗게 요만큼씩하게 하려고 하면, 손에 놔서 이렇게 주물러. 떡 주무르듯 꼭꼭 죄어서 무엇에 놔서 똑똑하게 이렇게 한데 층층이 올려놔서 놔두면 말라가면서 떠가면서 해.)

107090 @ 응.(응.)

107090 # 누룩이.(누룩이.)

107090 @ 보릿ᄀᆞ루로?(보릿가루로?)

107090 # 보리로. 겐 ᄇᆞ리쏠 줌지릉헌 ᄇᆞ리쏠 ᄀᆞᆯ아근에 그걸로 누룩 헷다근에 쉰다리 헤연 먹여, 엿날엔.(보리로. 그래서 보리쌀 자잘한 거 보리쌀 갈아서 그걸로 누룩 했다가 '쉰다리' 해서 먹여, 옛날엔.)

107090 @ 응.(응.)

107090 # 견디 이디도 보난 육지선 보난 그추룩 허여, 막 둥글렁허게 무신거 차롱 닮은 것에 놩, 막 발로 ᄇᆞᆯ란게, 꼰꼰.(그런데 여기도 보니까 육지선 보니까 그렇게 해, 막 둥그렇게 무엇 채롱 같은 것에 놔서, 막 발로 밟더라, 꼭꼭.)

107090 @ 응, 응.(응, 응.)

107090 # 이건 막 ᄇᆞᆯ라줘사 하는 따문에. 꼰꼰 ᄇᆞᆯ르멍 톡톡톡 놔두민 ᄆᆞᆯ라가멍 터가멍 허민 그것이 누룩이라.(이건 막 밟아줘야 하는 때문에. 꼭꼭 밟으면서 톡톡톡 놔두면 말라가면서 떠가면서 하면 그것이 누룩이야.)

107090 @ 응.(응.)

107090 # 그 튼 거 놓면은 궤여, 밥이 궤민, 엿날엔 설탕이 어디 서? 설탕도 엇이 북작북작허게 궤민 쉰다리, 쉰다리 허멍 그자 걸러동 그거 먹엇주.(그 뜬 거 놓으면 괴어, 밥이 괴면, 옛날에 설탕이 어디 있어? 설탕도 없이 '북작북작'하게 괴면 '쉰다리' 하면서 그저 걸러두고 그거 먹었지.)

107090 @ 응.(응.)

107090 # 요새 설탕 놓난, 설탕 맛으로 더 잘 먹엄주.(요새 설탕 놓으니까, 설탕 맛으로 더 잘 먹고 있지.)

107091 @ 엿도 만들엉 먹어낫지예?(엿도 만들어서 먹었었지요?)

107091 # 엿도 저 차좁쏠 잇잖아. 흐린좁쏠. 그것에 골, 보리, 보리.(엿도 저 차좁쌀 있잖아. 차좁쌀. 그것에 골, 보리, 보리.)

107091 @ 응.(응.)

107091 # 이건이 까끄지 말아근에 동보리.(이건 깎지 않아서 '동보리'.)

107091 @ 껍질 잇는 거?(껍질 있는 거?)

107091 # 응? 껍덕 잇는 거 겁덕 잇는 거, 물에 컷당 흠벡이 ᄌᆞ늘거들랑 싹 건져근에 놔두면 골이 보리이, 보리가 거 과제기 나 가이.(응? 껍질 있는 거 껍질 있는 거, 물에 담갔다가 흠뻑 촉촉해지면 싹 건져서 놔두면 엿기름이 보리, 보리가 그거 과짝 나와 가.)

107091 @ 아.(아.)

107091 # 뽈록뽈록뽈록 나민 그것이 골이라이.(볼록볼록볼록 나면 그것이 엿기름이야.)

107091 @ 예.(예.)

107091 # 겨민 그때 바싹 물리와. 바싹 물리왕 거펴근엥에 흐린좁쏠 놩 밥헤근에. 그것에 서껑 놔두민 흐린좁쏠에 밥이 끈닥끈닥허질 안허영 스르르 밥이 골라이.(그러면 그때 바싹 말려. 바싹 말려서 거피해서 차좁쌀 놔서 밥해서. 그것에 섞어서 놔두면 차좁쌀에 밥이 끈적끈적하질 않아서 스르르 밥이 걸러져.)

107091 @ 예.(예.)

107091 # 골라지민 접질아근엥에 딸리는 거라 그걸. 그 물을 딸리민 오래 딸리당 보민 풀풀허게 엿 뒈어.(걸러지면 짜서 달이는 거야 그걸. 그 물 달이면 오래 달이다가 보면 풀풀하게 엿 돼.)

107091 @ 응.(응.)

107091 # 겨민 다른 거 안 놔도 돌아, 엿 딸리민. 그 보리골 놓앙 허민. 보리 영 물에 컷다은에 아이고 골 놔사 허컬 허민 그놈이 보리가 물에 컷당 어디 뚜뜻허게 놔두민, 뽀쪽뽀쪽뽀쪽뽀쪽뽀쪽 보리가 나. 보리 나 가민 그땐 싹 널엉 물리와이.(그러면 다른 거 안 놔도 달아, 엿 달이면. 그 보리 엿기름 놓아서 하면. 보리 이렇게 물에 담갔다가 아이고 엿기름 놔야 할 걸 하면 그놈의 보리가 물에 담갔다가 어디 따뜻하게 놔두면, 뽀족뽀족뽀족뽀족뽀족 보리가 나. 보리 나면 그땐 싹 널어서 말려.)

107091 @ 경헹 갈아?(그래서 갈아?)

107091 # 응. 골아근엥에 놧다근에 흐린좁쏠밥 헤근에, 그것에 삭삭 서껑 놔두민 사르륵 허게시리 이 흐린 조밥이라도 끈작끈작 헌 것도 사르륵 헤어비여. 겨민 그거 이제 놓멍 접질아근에 딸리민 또 이젠 엿이 끈닥끈닥 엿 뒈는 거. 엿날 할망들 독엿 딸린다, 무신.(응. 갈아서 놨다가 차조밥 해서, 그것에 삭삭 섞어서 놔두면 사르르 하게끔 이 차조밥이라도 끈적끈적한 것도 사르르 해버려. 그러면 그거 이제 놓으면서 짜서 달이면 또 이젠 엿이 끈적끈적 엿 되는 거. 옛날 할머니들 닭엿 달인다, 무슨.)

107091 @ 거기다 닭도 놔?(거기다 닭도 놔?)

107091 # 응, 독 놩 딸려.(응, 닭 놔서 달여.)

107091 @ 독 말고 다른 것도 놩 헙니까?(닭 말고 다른 것도 놔서 합니까?)

107091 # 다른 거이 저.(다른 거 저.)

107091 @ 꿩?(꿩?)

107091 # 꿩도 놩 허곡, 막 보기로 엿날 사름들은 개 잡앙이.(꿩도 놔서 하고, 막 보신으로 옛날 사람들은 개 잡아서.)

107091 @ 아.(아.)

107091 # 개고기도 놩 개엿도 허곡. 거 아무나 안 헌다, 그런 건.(개고기도 놔서 개엿도 하고, 그거 아무나 안 한다, 그런 건.)

107091 @ 아.(아.)

107091 # 아무나 허지 안허여.(아무나 하지 않아.)

107091 @ 응.(응.)

107091 # 막 죽어가는 사름, 홀 수 엇인 사름 살리젠 개엿 헹 먹엇주, 개는 막 부정허는 거라.(막 죽어가는 사람, 할 수 없는 사람 살리려고 개엿 해서 먹었지, 개는 막 부정한 거야.)

107091 @ 응, 맞아.(응, 맞아.)

107091 # 꿩엿, 독엿 허민, 꿩엿도 엿을 막 딸리다근에, 문 딸려져 가건 독을 문 찌지멍 놔근에 허주. ᄀᆞ치 놩 딸려불민 요놈으 것 낭코쟁이 뒈엉 씹어 먹질 못허여, 독.(꿩엿, 닭엿 하면, 꿩엿도 엿을 막 달이다가, 모두 달여져 가면 닭을 모두 찢으면서 놔서 하지. 같이 놔서 달여 버리면 요놈의 것 나무꼬챙이 되어서 씹어서 먹질 못해, 닭.)

107091 @ 무신 코쟁이?(무슨 꼬챙이?)

107091 # 낭코쟁이.(나무꼬챙이.)

107091 @ 아, 낭 닮아 불어.(아, 나무 같아 버려.)

107091 # 응, 혼듸 놩 엿이 혼듸 놩 딸려불민 쎄영 이걸 먹지 못허여. 게난 엿 다 딸려진 후제, 딸려진 후제 그 독을 막 고기 찌지멍 놔근에 기자 혼 모룩 궤움만 헹 놔두민 허곡, 경 안허민 막 엿에 놩 딸려 비영은 원 먹지 못허여, 쎄영.(응, 함께 놔서 엿이 함께 놔서 달여 버리면 세어서 이걸 먹지 못해. 그러니까 엿 다 달여진 후에, 달여진 후에 그 닭을 막 고기 찢으면서 놔서 그저 한소끔 끓이기만 해서 놔두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막 엿에 놔서 달여 버려서는 원 먹지 못해, 세서.)

107091 @ 게믄 감주는 어떵 허는 거라? 감주도 거 비슷허게 허지예?(그러면 감주는 어떻게 하는 거야? 감주도 그거 비슷하게 하지요?)

107091 # 감주도 비슷허여.(감주도 비슷해.)

107091 @ 보릿골.(보리 엿기름.)

107091 # 보릿골 놔근엥에 흐린좁쌀 놩 밥 헤여근에 삭삭 서껑 놔두민 스르륵 헤여이.(보리 엿기름 놧 차좁쌀 놔서 밥해서 싹싹 섞어서 놔두면 스르르 해.)

107091 @ 응.(응.)

107091 # 스르륵 허민 그거 영 걸러근에, 발랑발랑 솖으민 설탕 안 놔도 돌헤여,그게. 게난 그것이 골감주[216], 골감주 헤여.(스르르 하면 그거 이렇게 걸러서, 바글바글 삶으면 설탕 안 놔도 달콤해, 그게. 그러니까 그것이 '골감주', '골감주' 해.)

107091 @ 엿은?(엿은?)

107091 # 제ᄉᆞ 때도 먹곡, 그자 멩질 때도 그거 상에도 올리고, 감주, 감주 허멍. 그거 헨 먹곡 그게 딸린 게 그게 오래 딸리민 엿 뒈는 거.(제사 때도 먹고, 그저 명절 때도 그거 상에도 올리고, 감주, 감주 하면서. 그거 해서 먹고 그게 달인 게 그게 오래 달이면 엿 되는 거.)

107091 @ 아, 감주 오래 딸리민 엿?(아, 감주 오래 달이면 엿?)

---

216) '골감주'는 엿기름을 우린 물에 조밥을 섞어 삭힌 다음 살짝 끓여서 먹는 음료로 제사나 명절에 제주로 사용했다.

107091 # 응, 감주를 오래 딸리민 엿 뒈는 거.(응, 감주를 오래 달이면 엿 되는 거.)
107091 @ 응.(응.)
107091 # 우리 그자 감주로 먹는 거, 발랑발랑발랑 궤여근엥에 그자 그 거시기 골물만 익여불민 돌허게 먹는 거곡, 그게 딸리민 엿 뒈는 거. 엿이 별헌 거 아니.(우리 그저 감주로 먹는 거, 바글바글바글 끓어서 그저 그 거시기 엿기름물만 익어버리면 달콤하게 먹는 거고, 그게 달이면 엿 되는 거. 엿이 별한 거 안니.)
107091 @ 게난 아 감주 만드는 거영 비슷헌디, 허멍은에 생각으로.(그러니까 아 감주 만드는 거랑 비슷한데, 하면서 생각으로.)
107091 # 응, 비슷헌 거 맞다게. 그걸 딸리지 안허영 그자 ᄒᆞ쏠만 궤어와근에 골 빨만 익이면은 감주가 뒈는 거고.(응, 비슷한 거 맞다. 그걸 달이지 않아서 그저 조금만 끓여서 엿기름 기운만 익으면 감주가 되는 거고.)
107091 @ 응.(응.)
107091 # 오래 딸려가민 펄펄 헤가믄 푸들푸들허게 엿이 뒈어 부는 거.(오래 달여가면 풀풀해가면 '푸들푸들'하게 엿이 되어 버리는 거.)
107091 @ 아.(아.)
107091 # 그거, 그건 틀리지 안헌 거.(그거, 그건 다르지 않은 거.)

기타

107092 @ 오늘 음식 만드는 거 다 얘기헤신디, 혹시 빠진 거.(오늘 음식 만드는 거 다 얘기했는데, 혹시 빠진 거.)
107092 # 간 튼내 보멍, 튼내 보멍 헐 거 잇건 또 와.(가서 생각해 보면서, 생각해 보면서 할 거 있으면 또 와.)
107092 @ 다른 거 옛날에 먹어난 것도 이런 것도 먹어낫저 허멍 생각나는 거 엇수과?(다른 거 옛날에 먹었던 것도 이런 것도 먹었었다 하면서 생각나는 거 없습니까?)
107092 # 지금은 나 원 생각나는 거 엇인디 그거벳긘.(지금은 나 원 생각나는 거 없는데 그거밖엔.)
107092 @ 알겟습니다.(알겠습니다.)
107092 # 옛날 그거 하간 톨이여, 무시여 먹어난 거벳긘.(옛날 그거 온갖 톳이다, 무엇이다 먹었던 거밖엔.)

8. 주생활

구조

108001 @ 오늘은 집 짓는 거 물어보쿠다예. 옛날에 집 지어난마씨? 초집이영 흑집

이영 허는 거.(오늘은 집 지는 거 물어보겠습니다. 옛날에 집 짓었었어요? 초가집이랑 흙집이랑 하는 거.)

108001 # 흑집이, 초집이 흑집이라낫주. 이것이 엿날 초집이라낫어. 이거 엿날 흑, 이 돌 베끗딜로 돌담 다와졋잖아이.(흙집, 초가집이 흙집이었지. 이것이 옛날 초가집이었었어. 이거 옛날, 흙, 이 돌 바깥으로 돌담 쌓았잖아.)

108001 @ 예, 예.(예, 예.)

108001 # 그거 이제 흑 털어비둰 저거 세멘헌 거. 이 안네론 이거 튿지 못허난 그냥 베끗딜로 흑 털어비둰 세멘허연 이 안으로 이거 베니다만 돌아가멍 부쪈에 이거 방 불란. 경헤노난 집이 이거 눚아온 거. 옛날 흑집은 막 눚아와이. 경헤나부난 이거. 이거 옛날 흑집이라난 거 이거.(그거 이제 흙 떨어두고 저거 시멘트한 거. 이 안으론 이거 뜯지 못하니까 그냥 바깥으로 흙 떨어두고 시멘트해서 이 안으로 이거 합판만 돌아가면서 붙여서 이거 방 발랐어. 그러니까 집이 이거 낮은 거. 옛날 흙집은 막 낮아. 그래서 이거. 이거 옛날 흙집이었던 거 이거.)

108002 @ 옛날엔 집 종류가 무신 집 무신 집 이서낫수과? 주로, 초집허고.(옛날엔 집 종류가 무슨 집 무슨 집 있었습니까? 주로, 초가집하고.)

108002 # 주로 헤도 초집뿐이랏주. 옛날에 완전 저 ᄒᆞ쏠 산다 허는 집이 엿날 제층집이라고 제 지내는 집. 막 부제칩이 엿날 완전 저 양반덜이라이. 그 제 지내는 집 영 뚜로 집 짓어, 쪼고만허게. 요 앞이 요 창고 요거만은 허게 짓엉 기와 올령, 기와 올령 방도 엇곡 건 딱 제만 지내는 거. 경헌 집 짓엇주.(주로 해도 초가집뿐이었지. 옛날에 완전 저 조금 산다 하는 집에 옛날 '제층집'이라고 제 지내는 집. 아주 부잣집이 옛날 완전 저 양반들이야. 그 제 지내는 집 이렇게 또 집 지어, 조그맣게. 요 앞에 요 창고 요거만큼 하게 지어서 기와 올려서, 기와 올려서 방도 없고 그건 딱 제만 지내는 거. 그런 집 지었지.)

108002 @ 건 지새집, 기와집?(그건 기와집, 기와집?)

108002 # 기와집.(기와집.)

108002 @ 기와집이엔 ᄀᆞᆯ아?(기와집이라고 말해?)

108002 # 옛날 기왓장이 저 요만큼, 요만큼씩 혜영 짓잖아. 그런 기와 올려근에 그런 집 조금 이딘 이서나도 다른, 몰라, 우린 제주시레 베랑 그때 걸엉 뎅길 때난, 베랑 안 보난 우리 어린 땐 이 동넨 그거 완전 부제칩 옛날 산다허는 집이.(옛날 기왓장이 저 요만큼, 요만큼씩 해서 짓잖아. 그런 기와 올려서 그런 집 조금 여긴 있었어도 다른, 몰라, 우린 제주시에 별로 그때 걸어 다닐 때니까, 별로 안 보니까 우리 어릴 때 이 동넨 그거 완전 부잣집 옛날 산다하는 집에.)

108003 @ 집은 보통 안거리 잇고.(집은 보통 안채 있고.)

108003 # 밧거리.(바깥채.)

108003 @ 안거리 밧거리 두 거리만 이십니까?(안채, 바깥채 두 채만 있습니까?)

108003 # 세 거리도 잇고.(세 채도 있고.)

108003 @ 세 거리민 ᄒᆞ난 무신거라?(세 채면 하난 뭐야?)

108003 # 세 거리는 세 거리 신 집이는 저 영 이문간 허여이. 영 이문간이엔 헌 건 영 들어오는 디 잇잖아.(세 채는 세 채 있는 집은 저 이렇게 문간채 해. 이렇게 문간채라고 한 건 이렇게 들어오는 데 있잖아.)

108003 @ 예.(예.)

108003 # 요짝으론 쉐 메곡 요짝 흔 꼰으론 영 고망 터근에 일로 들어가곡 나오곡 문 둘앙, 대문 둘앙.(요쪽으론 소 매고 요짝 한 군데론 이렇게 구멍 터서 이리로 들어가고 나오고 문 달아서, 대문 달아서.)

108003 @ 그게 이문간?(그게 문간채?)

108003 # 응, 이문간, 이문간 헤낫어.(응, 문간채, 문간채 했었어.)

108003 @ 경헹 세 거리?(그래서 세 채?)

108003 # 응, 경헹 세 거리.(응, 그래서 세 채.)

108003 @ 이문간, 밧거리, 안거리.(문간채, 바깥채, 안채.)

108003 # 응, 안거리. 경헹.(응, 안채. 그래서.)

108003 @ 모커린 무신거꽈?(곁채는 무엇입니까?)

108003 # 겨난 막 부젯칩인이 집 세 거리만도 안헤여이. 네 거리 짓엉 살아이. 동녁 모커리, 서녁 모커리, 안거리, 이문간 경헤낫어, 옛날에. 완전 부젯칩인.(그러니까 아주 부잣집에는 집 세 채만도 안 해. 네 채 지어서 살아. 동녘 곁채, 서녘 곁채, 안채, 문간채 그렇게 했었어, 옛날에. 아주 부잣집은.)

108003 @ 아, 완전 부젯칩이는.(아, 완전 부잣집은.)

108003 # 응, 겡 모커리, 동모커리, 서모커리 허는 게 그거.(응, 그래서 곁채, 동 곁채, 서 곁채 하는 게 그거.)

108003 @ 아.(아.)

108003 # 이디는 요거민 요건 안거리, 요짝은 서녁 밧거리, 밧거리 또 요 앞으론 이문간. 이문간에도 흔 착으론 사름 뎅기곡 흔 착으론 집 질게 헤근에 소도 매곡 물도 매곡 경헤근에 또 영 방에, 방에 지는 거, 그런 방에도 놓고.(여기는 요거면 요건 안채, 요쪽은 서녘 바깥채, 바깥채 또 요 앞으론 문간채. 문간채에도 한 쪽으론 사람 다니고 한 쪽으론 집 길게 해서 소도 매고 말도 매고 그래서 또 이렇게 방아, 방아 찧는 거, 그런 방아도 놓고.)

108003 @ 아, 자기네 집이.(아, 자기네 집에.)

108003 # 응.(응.)

108003 @ 독방에.(독방아.)

108003 # 독방에가 이서, 독방에가 이서. 독방엔 쪼금헌 집인 다 방에가 이서. 영영 지는 거. 쪼금헌 집인 방에가 잇고, 그 방에 벨로 엇인 집은 엇어.(독방아가 있어, 독방아가 있어. 독방아는 조금한 집엔 다 방아가 있어. 이렇게 이렇게 찧는 거. 조금한 집엔 방아가 있고, 그 방아 별로 없는 집은 없어.)

108003 @ 남방에 닮은 거.(나무방아 같은 거.)

108003 # 응, 영영 방에 지는 거.(응, 이렇게 이렇게 방아 찧는 거.)

108003 @ 혹, 돌혹.(확. 돌확.)

108003 # 돌혹 동글랑허곡.(돌확 동그랗고.)

108003 @ 낭으로.(나무로.)

108003 # 낭으로 영 둥그렁 크게 헤근에 영영 지는 거.(나무로 이렇게 둥그렇게 크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찧는 거.)

108003 @ 예.(예.)

108004 # 그건 벨로 엇인 집이 엇고. 경허난 엿날 이 흑집이엔 헌 건이 이추룩 담 톡톡톡. 요샌 막 부르끄여 무시거여 허주마는. 이추룩, 이 베끗딜로 영 봐. 담이 엉글엉글 귀나곡 무시거 허곡 헌 거 그자 툭툭툭 앗앙 다와. 밧담 답듯. 똑 저추룩 요 앞이 밧담추룩 다와낭 흑, 흑 막 쉐 여라 개 쉐나 이 물론 잘 못 볼려. 쉐나 흔 서너네 개 헤다놔근에 그거 막 흑 볼리멍 또 그신새[217]나 뭐 검질이나 헤다놩 그거 막 세껴근에 막 볼라. 경 안허민 맨 흑만은 잘 안 부뜨주, 이디 흑은.(그건 별로 없는 집이 없고. 그러니까 옛날 이 흙집이라고 한 것이 이렇게 담 톡톡톡. 요샌 막 블록이다 뭐다 하지마는. 이렇게, 이 바깥으로 이렇게 봐. 담이 성글성글 모나고 무엇 하고 한 거 그저 툭툭툭 가져 다 쌓아. 밭담 쌓듯. 똑 저렇게 요 앞에 밭담처럼 쌓아서 흙, 흙 막 소 여러 개 소나 이 말론 잘 못 밟아. 소나 한 서너 개 해다 놓고 그거 막 흙 밟으면 그 '그신새'나 뭐 검불이나 해다 놓고 그거 막 썩혀서 막 밟아. 그렇지 않으면 맨 흙만은 잘 안 붙지, 여기 흙은.)

108004 @ 아.(아.)

108004 # 게난 어디 강 집 튿어난 디 그신새 헤다놔근에 막 흔듸 놩 뀌어. 그놈으 쉐로 막 쉐 여라 개 헹 볼라.(그러니까 어디 가서 집 뜯었던 데 '그신새' 해다놔서 막 함께 놔서 이겨. 그놈의 소로 막 소 여러 개 해서 밟아.)

108004 @ 아, 마당에서?(아, 마당에서?)

108004 # 응, 마당에서 막 그거 볼르멍. 물꾼[218], 물꾼허멍 흑질 물 질어사. 아이고 오늘 아무 집이 흑질헴저. 물 질레 가살 거여 허는 건, 이, 요 동네에 이제 이 집을 짓엉 큰 집을 짓젠 허민 이 앞이 바당물 강 막 허벅으로 질어와. 질멍덜 막 흑더레 비와.(응, 마당에서 막 그거 밟으면서. '물꾼', '물꾼'하면서 흙질 물 길어야. 아이고 오늘 아무 집에 흙질하고 있어. 물 길러 가야할 거야 하는 건, 이, 요 동네에 이제 이 집을 지어서 큰 집을 지으려고 하면 이 앞에 바닷물 가서 막 동이로 길어와. 길면서들 막 흙에 부어.)

108004 @ 예.(예.)

108004 # 경허민 낮전은 그 물 질어다근에 막 동네 사름이 다 나온 때는 물이나 멀지 안헌 땐 커슨 물 질어당 그 흑을 다 뀌곡, 경 안헌 땐 어둑아, 물 질어오는디 사름이나 족곡 집이나 큰 집은. 흑을 하영 헤사 허는 따문.(그러면 낮전은 그 물 길어다가 막 동네 사람이 다 나온 때는 물이나 멀지 않은 땐 금방 물 길어다가 그 흙을 다 이기고, 그렇지 않은 땐 어두워, 물 길어오는데 사람이나 적고 집이나 큰 집은. 흙을 많이 해야

217) '그신새'는 초가지붕을 덮었던 묵은 띠를 말한다.

218) '물꾼'은 집을 짓기 위해 흙질을 할 때 물을 길어다 주는 사람을 말한다.

하는 때문에.)

108004 @ 응.(응.)

108004 # 경허민 그 흑 헤다근에 검질 놓곡 헤근에 막 소 헤영 막 볼라. 볼라놩 또 데싸놩 또 볼르곡 경허민 이놈이 흑이 끈닥끈닥헤여이. 끈닥끈닥허민 그땐 산테[219]엔 헌 건 욜로 발 요추룩 두 개 헹 욜로 막 얽어.(그러면 그 흙 해다가 검불 놓고 해서 막 소 해서 막 밟아. 밟아놔서 또 뒤집어놔서 또 밟고 그러면 이놈의 흙이 끈적끈적해. 끈적끈적하면 그땐 '산테'라고 한 건 요리로 발 요렇게 두 개 해서 요리로 막 얽어.)

108004 @ 예.(예.)

108004 # 얽어근에 이만큼 넙게 허민 쉐스렁으로 그 흑을 탁탁 이제 헤다 놔근에 손으로 영 동그리멍 기운 냉 착 부쪄, 고망더레.(얽어서 이만큼 넓게 하면 쇠스랑으로 그 흙을 탁탁 이제 해다 놔서 손으로 이렇게 굴리면서 기운 내서 착 던져, 구멍에.)

108004 @ 돌 영 단 디?(돌 이렇게 쌓은 데?)

108004 # 응, 돌고망더레.(응, 돌구멍에.)

108004 @ 돌고망더레.(돌구멍에.)

108004 # 그냥 솔째기 부쪙은 잘 안 들어가이. 남저덜 건 남저덜벳긔 안 허여, 여저덜은 안 허민. 산테로 막 흔 산테 들러다 놓민 뱅뱅뱅 동그려근에 그냥 기운 냉 소나이덜 앗당 착 기운냉 부찌민 고망더레 옴막 기어들주. 경헹 허는 거.(그냥 살짝 던져서는 잘 안 들어가. 남자들 그건 남자들밖에 안 해, 여자들은 안 하면. '산테'로 막 한 '산테' 들어다 놓으면 뱅뱅뱅 굴려서 그냥 기운 내서 사나이들 가져다가 착 기운 내서 던지면 구멍에 그만 기어들지. 그렇게 해서 하는 거.)

108004 @ 흑은 어디 강 파와야 뒈어?(흙은 어디 가서 파와야 돼?)

108004 # 아, 흑은 이 마당에서 흑 지프게 갈아.(아, 흙은 이 마당에서 흙 깊게 갈아.)

108004 @ 마당에 흑으로?(마당에 흙으로?)

108004 # 응, 마당에 흑 막 널르게 갈아근에. 막 널르게 파근엥에 그추룩 헹 그거 갈아놩 쉐로 갈아, 파는 게 아니고 쉐로 갈앙, 막 널르게 갈아놔근에 그걸 이젠 흑을 막 지프게 갈아놩 물 질멍 다 흑 영영 올려놩 요레 물 비와놩 또 쉐스렁이로 요추룩 근어[220]. 일로 쭉허게 사름 여라이 상 쉐스렁으로 또 흑을 둥겨. 경헹 또 물 질어당 그레 비우민 또 물 질어당 또 비우곡 또 둥겨불민 물 질어당 또 비우곡. 경 헤놩 이젠 거자 헤지민 이젠 소 헤다근에 막 이껑 뎅기멍, 아이고 소도이 경허민 밧갈쉐[221]덜 헤노민 서로 싸움 부떵 쌉젠 허곡 난리.(응, 마당에 흙 막 넓게 갈아서. 막 넓게 파서 그렇게 해서 그거 갈아놔서 소로 갈아, 파는 게 아니고 소로 갈아서, 아주 넓게 갈아서 그걸 이젠 흙을 아주 깊게 갈아놔서 물 길면서 다 흙 이렇게 이렇게 올려놔서 요리 물 부어놔서 또 쇠스랑으로 요렇게 '근어'. 이리로 쭉하게 사람 여러 명 서서 쇠스랑으로 또 흙을 당겨. 그래서 또 물 길어다가 그리 비우면 또 물 길어다가 또 붓고. 그렇게 해 놔서 이

219) '산테'는 긴 두 나무 사이에 가운데만 나무를 띄엄띄엄 박아 가마처럼 앞뒤로 들게 한 들것이다.
220) '근다'는 발톱과 같이 뾰족한 물건으로 땅을 긁거나 널어놓은 물건을 긁어당긴다는 의미이다.
221) '밧갈쉐'는 밭을 가는 데 부리는 소를 말한다.

젠 거의 하면 이젠 소 해다가 막 끌고 다니면서, 아이고 소도 그러면 '밧갈쉐'들 해놓으면 서로 싸움 붙어서 싸우려고 하고 난리.)

108004 @ 하하하. 그 흑밧듸서?(하하하. 그 흙밭에서?)

108004 # 응, 그 흑밧듸서도 막 찔레[222]덜 부뜨멍 쌉젠 허곡 헤노민, 경허멍 헤도 그 흔 쉐, 흔 대여슷 개 헤당 그걸로 막 불려근에 끈닥끈닥 불려근에 허민, 게민 ᄒᆞ루에 다 허지 못허여, 큰 집덜은.(응, 그 흙밭에서도 막 '찔레'들 붙으면서 싸우려고 하고 해놓으면, 그렇게 하면서 해도 그 한 소, 한 대여섯 개 해다가 그걸로 막 밟아서 끈적끈적 밟아서 하면, 그러면 하루에 다 하지 못해, 큰 집들은.)

108004 @ 예.(예.)

108004 # 게민 동네가 크나 족으나 사름을 그냥 동네 사름 다 모여지는 거라. 경허민 크나 족으나 동네 사름 다 모여근에 허민 흑 물 지는 사름 밥 ᄯᅳ로 또 이제 상뒤[223], 상뒤 허멍 흑질허는 사름 ᄯᅳ로.(그러면 동네가 크거나 작거나 사람은 그냥 동네 사람 다 모이는 거야. 그러면 크나 작으나 동네 사람 다 모여서 하면 흙 물 지는 사람 밥 따로 또 이제 '상뒤', '상뒤' 하면서 흙질하는 사람 따로.)

108004 @ 흑질허는 사름은 상뒤?(흙질하는 사람은 '상뒤'?)

108004 # 응, 엿날 상뒤, 상뒤 헤낫저. 들어나신게 상뒤, 상뒤 허멍이. 그런 거.(응, 옛날 '상뒤', '상뒤' 했었어. 들었었네 '상뒤', '상뒤' 하면서. 그런 거.)

108004 @ 난 영장밧듸 가는 사름만 상뒤카부덴.(난 장지에 가는 사람만 '상뒤'일까 봐.)

108004 # 아니라. 영장밧듸 가는 사름도 상뒤. 집 짓는디 흑굿데 드는 사름도 상뒤 그거.(아니야. 장지 가는 사람도 '상뒤'. 집 짓는데 흙구덩이에 드는 사람도 '상뒤' 그거.)

108004 @ 아.(아.)

108004 # 그거주. 게난 상뒤밥[224]이엔 헹 상뒤밥은 특별히, 특별히 허여.(그거지. 그러니까 '상뒤밥'이라고 해서 '상뒤밥'은 특별히, 특별히 해.)

108004 @ 무신 밥 허여, 쏠이라도 ᄒᆞ꼼 놔?(무슨 밥 해, 쌀이라도 조금 놔?)

108004 # 픗 놓곡. 보리쏠 솖곡 헹 곤쏠 서껑 그것이 특별헌 거라이. 우린 그자 조팝이고 보리밥이고 그자 흔 곳들로 허영 그자 물 지는 사름 흔불철이 먹엉 가불민 물 지는 사름도 점심은 줘. 경헹 보내부는 거. 경헹 보내불민 남저덜은 경헹 흑질허당 이제 피력이엔 헌 거 요새 ᄀᆞ뜨민 중석이라이.(팥 놓고. 보리쌀 삶고 해서 흰쌀 섞어서 그것이 특별한 거야. 우린 그저 조밥이고 보리밥이고 그저 한 군데로 해서 그저 물 긷는 사람 한벌 먹어서 가버리면 물 긷는 사람도 점심은 줘. 그래서 보내버리는 거. 그래서 보내버리면 남자들은 그렇게 해서 흙질하다가 이제 '피력'이라고 한 거 요새 같으면 간식이야.)

108004 @ 응.(응.)

108004 # 엿날 피력, 피력 헤낫어, 그게. 우리 요새 ᄀᆞ뜨민 간식, 간식이라이. 간식이

222) '찔레'는 소끼리 뿔로 받으며 싸우는 일을 말한다.
223) '상뒤'는 '상두'로 상여를 뜻하지만 여기서는 흙질하는 사람들을 말한다.
224) '상뒤밥'은 흙질하는 사람들이 먹을 밥이다.

라, 이따근에 중간에 먹는 거 간식 주는 식이라이. 경헹 빵이나 뭐 그런 거 헤근에 조금 주고, 경헤낫주, 엿날에. 게난 것도 막 힘들어이.(옛날 '피력', '피력' 했었어, 그게. 우리 요새 같으면 간식, 간식이야. 간식이야, 이따가 중간에 먹는 거 간식 주는 식이야. 그래서 빵이나 뭐 그런 거 해서 조금 주고, 그랬었어, 옛날에. 그러니까 그것도 아주 힘들어.)

108004 @ 응.(응.)

108006 # 경허민 아래서 허는 사름 또 우엔 가민 집 짓어 놓민 이제 서슬목[225]이라고 장작 똑 요만썩 질게 깨곡 저만썩 ᄀᆞ늘게 헹 막 노 꼬앙 가근에 거 믄 얽어. 일로 이레도 얽곡, 절로 저레도 얽곡.(그러면 아래서 하는 사람 또 위엔 가면 집 지어 놓으면 이제 서슬목이라고 장작 꼭 요만큼씩 길게 쪼개고 저만큼씩 가늘게 해서 막 노 꼬아 가서 그거 모두 얽어. 이리로 이리도 얽고, 저리로 저리도 얽고.)

108006 @ 지붕에?(지붕에?)

108006 # 응, 겡 얽어사 또 그디 앗당 흑 놓앙 꼴아사 집을 일 거. 경 안허민 못 일 주게, 경허난.(응, 그렇게 얽어야 또 거기 가져다가 흙 놓아서 깔아야 집을 일 거. 그렇지 않으면 못 이지, 그러니까.)

108006 @ 경허민 집 그 흑담 허기 전에는 기둥 같은 것도 세워야 뒐 거 아니?(그러면 집 그 흙담 하기 전에는 기둥 같은 것도 세워야 될 거 아니?)

108006 # 기둥 ᄀᆞ뜬 거 세우면 이거, 이것이 웬축이라, 축이. 축이난 영헌 디도 이제 ᄀᆞ는ᄀᆞ는헌 저 엿날은 대덜 집이 하영 싱그난 그런 대덜도 헤당 요만썩 깨근에 영헌 디 놓멍 막 얽어.(기둥 같은 거 세우면 이거, 이것이 왼축이야, 축이. 축이니까 이런 데도 이제 가늘디가는 저 옛날은 대들 집에 많이 심으니까 그런 대들도 해다가 요만큼씩 쪼개서 이런 데 놓으면서 막 얽어.)

108006 @ 아.(아.)

108006 # 얽어놩 또 그디도 그디 흑 부찌젠 허민 안페낏딜로 욜로 사곡 욜로 사곡 헹 서로 흑을 앗당 욜로 부찌고 욜로 부찌민 서로 마주 영, 손 마주 영헹 양펜으로 이펜 사름 이펜 사름 마주, 마주 상 흑을 일로 영허민 꼭ᄀᆞ찌 일로도 꼭ᄀᆞ찌 손 ᄀᆞ찌 노려사.(얽어놓고 또 거기도 거기 흙 붙이려고 하면 안팎으로 요리로 서고 요리로 서로 해서 서로 흙을 가져다가 요리로 붙이고 요리로 붙이면 서로 마주 이렇게, 손 마주 이렇게 해서 양쪽으로 이쪽 사람 이쪽 사람 마주, 마주 서서 흙을 이리로 이렇게 하면 똑같이 이리로도 똑같이 손 같이 움직여야.)

108006 @ 아.(아.)

108006 # 요렇게. 경 안허민 흑 털어져비엉 못허여 이녁만썩 허민. 경허연 헤난 거, 집을 그추룩 헹, 엿날에 그추룩 허난 여자덜은 그자 물만 질어다 줭 내불민 남저덜이 믄 그 흑 산테로 들러다 놔근에 경허민 핫튼 동네 크나 족으나 동네사름 다 오는 거라. 남저덜이영 오라근에 허젠 허민, 게민 허당 남으면 집이 원딱 크면은 ᄒᆞ루 허당 남으면

225) '서슬목'은 지붕 서까래 위에 흙을 받쳐 띠를 이기 위하여 가는 나무오리나 싸리나무 따위로 엮은 것, 또는 그런 재료를 말한다.

뒷날끄장 또 허고 게안허민 어짜피 밤이 들어도 그날 ᄒᆞ루에 다 ᄆᆞ까. 그날 ᄒᆞ루에.(요렇게. 그렇지 않으면 흙 떨어져버려서 못하면 자기만큼씩 하면. 그렇게 해서 했던 거, 집을 그렇게 해서, 옛날에 그렇게 하니까 여자들은 그저 물만 길어다 줘서 내버리면 남자들이 모두 그 흙 '산테'로 들어다 놔서 그러면 하여튼 동네 크나 작으나 동네 사람 다 오는 거야. 남자들이랑 와서 하려고 하면, 그러면 하다가 남으면 집이 원체 크면 하루 하다가 남으면 뒷날까지 또 하고 그렇지 않으면 어짜피 밥이 들어도 그날 하루에 다 마쳐. 그날 하루에.)

108006 @ 그날 ᄒᆞ루에.(그날 하루에.)

108006 # 막 모다들엉. 영헌 디 흑 불르는 사름, 우에 흑 불르는 사름. 또 정헌 디 불르는 사름 허영. 우선 우에부떠 문저 흑 불라놓민 새로 허는 거난 우선 새로 우로 일어가멍 게민 이디 문 못허영 아래 못 ᄆᆞ깡 내불민 또 뒷날은 이녁만썩 이녁 집 주인덜은 이녁만썩 어디 쪼금쪼금헌 디 잘 손보멍 잘 허곡 경허영 이 흑 우이 불랑 살아낫어, 종이를.(막 모여들어서. 이런 데 흙 바르는 사람, 위에 흙 바르는 사람. 또 저런 데 바르는 사람 해서. 우선 위에부터 먼저 흙 발라 놓으면 띠로 하는 거니까 우선 띠로 위로 이면서 그러면 여기 모두 못해서 아래 못 마쳐서 내버리면 또 뒷날은 자기만큼식 자기 집 주인들은 자기만큼씩 어디 조금조금한 데 잘 손보면서 잘 하고 그렇게 해서 이 흙 위에 발라서 살았었어, 종이를.)

108006 @ 종이를예.(종이를요.)

108006 # 응, 흑 우에. 요샌 이추룩 세멘 허난 멘짝허게 곱닥헤도.(응, 흙 위에. 요샌 이렇게 시멘트 하니까 매끈하게 고와도.)

108006 @ 게민 우에 도리, 서까래 이런 거는. 지붕 우이도 낭 깨근에 다 여끕니께. 그거 무신거엔 골아?(그러면 위에 도리, 서까래 이런 거는. 지붕 위에도 나무 쪼개서 다 엮잖습니까. 그거 뭐라고 말해?)

108006 # 그거 서슬.(그거 산자.)

108006 @ 서슬.(산자.)

108006 # 응. 담, 그 나무 깨멍 저 노꼿 이디서 허젠 허민 아이고 그 서슬 헐 때에 서슬노, 서슬노 허멍 노를 꼬아이.(응. 담, 그 나무 쪼개서 저 노끈 여기서 하려고 하면 아이고 그 산자 할 때 '서슬노', '서슬노' 하면서 노를 꼬아.)

108006 @ 아, 노.(아, 노.)

108006 # 게민 방상이 신 사름덜은 다 찝덜 아져다근에 그것덜 문 꼬아 와, 부지로.(그러면 친척이 있는 사람들은 다 짚들 가져다가 그것들 모두 꼬아서 와, 부조로.)

108006 @ 아, 부지로.(아, 부조로.)

108006 # 노가 영헌 디도 얽어야, 저런 디도 얽어야. 문딱 노로 얽젠 허민 서슬노, 서슬노 허멍 놀 꼬젠 허민 이녁만 들러 못허여. 집 짓젠 허민 방상이 신 사름덜 동기간 이신 사름덜 막 꼬멍 앗아와. 혼 백 발이여, 백 발 꼬아왓저, 이백 발 꼬아왓저 허멍 그 노를 막 꼬아오라, 부지로.(노가 이런 데도 얽어야, 저런 데도 얽어야. 모두 노로 얽으려고 하면 '서슬노', '서슬노' 하면서 노를 꼬려고 하면 자기만 들어서 못 해. 집 지으려고

하면 친척이 있는 사람들 형제 있는 사람들 막 꼬면서 가져와. 한 백 발이다, 백 발 꼬아왔다, 이백 발 꼬아왔다 하면서 그 노를 막 꼬아와, 부조로.)

108006 @ 응.(응.)

108006 # 경헤영 허민 영헌 디도 허곡 영헌 우에도 허고 우에 서슬, 영헌 딘 저 벡선.(그래서 하면 이런 데도 하고 이런 위에도 하고 위에 산자, 이런 데 저 벽선.)

108006 @ 벡선.(벽선.)

108006 # 빈지[226].('빈지'.)

108006 @ 빈지?('빈지'?)

108006 # 응, 이것ᄀᆞ라 빈지라, 옆이가.(응, 이것보고 빈지야, 옆이.)

108006 @ 옆이가 빈지? 벡선 무신거라?(옆이 '빈지'? 벽선은 뭐야?)

108006 # 벡선이엔 헌 건 요거 나무.(벽선이라고 한 건 요거 나무.)

108006 @ 아, 큰 낭?(아, 큰 나무?)

108006 # 큰 남 세우는 게 백선.(큰 나무 세우는 게 벽선.)

108006 @ 건 백선. 그믄 그 옆이 즘진 낭 깨근에 노로 무끈 건.(그건 벽선. 그러면 그 옆에 가는 나무 쪼개서 노로 묶은 건.)

108006 # 축바람[227], 이거 축바람, 축바람 헤, 엿날. 옆축 헤사뒐 거.('축바람', 이거 '축바람', '축바람' 해, 옛날. 옆축 해야할 거.)

108006 @ 옆축.(옆축.)

108006 # 또 우에는 서슬. 이거 그거라이 서슬. 낭께기 깨멍 노로 놩 이추룩, 이것이 요것이 낭께기민 영 놩 영영 감으멍 저레 휘휘 넘어가 졸라매진 안허여. 그자 영 확 꿰근에 욜로 영 들렁 확 꿰곡 확 꿰곡 허영 저레 넘어가주.(또 위에는 산자. 이거 그거야 산자. 나뭇개비 쪼개면서 노로 놔서 이렇게, 이것이 요것이 나뭇개비면 이렇게 놔서 이렇게 이렇게 감으면서 저리 휘휘 넘어가 졸라매진 않아. 그저 이렇게 확 꿰어서 요리로 이렇게 들어서 확 꿰고 확 꿰고 해서 저리 넘어가지.)

108006 @ 아.(아.)

108006 # 무끄진 안허여. 빙빙 감으멍 넘어가주.(묶진 않아. 빙빙 감으면서 넘어가지.)

108005 @ 응, 게민 이 큰 낭은 어디 강 낭 헹와야 뒈는 건가? 지둥 세우젠 허민.(응, 그러면 이 큰 나무는 어디 가서 나무 해와야 되는 건가? 기둥 세우려고 하면.)

108005 # 지둥 세우젠 허면은 엿날 남 어려울 땐 저 고지 강 헤왓젠. 우리도 몰라신디 고지 가근에 그 홁은 남덜 헤당 영헌 디 허는 거.(기둥 세우려고 하면 옛날 나무 어려울 땐 저 숲에 가서 해왔대. 우리도 몰랐는데 숲 가서 그 굵은 나무들 해다가 이런 데 하는 거.)

108005 @ 기둥 세와야예.(기둥 세워야지요.)

108005 # 응, 기둥. 이젠 뭐 고지 낭 거찌지 못허게 헌다 뭐헌다 헤도 엿날은 그거

226) '빈지'는 벽의 아래쪽 두 기둥 사이를 가로질러 막은 널빤지를 말한다.
227) '축바람'은 흙 따위를 겉으로 발라 막은 방의 칸막이를 말한다.

안 허민 집을 못 짓으난. 이녁대로덜 가근에 ᄆᆞ쉬로 강 헤영 그거 바레기가 시카? 엿날엔 바레기도 엇엇젠. 경허민 쉐 질메 지와근에 남 두 개 시껑, 흔착에 ᄒᆞ나씩 두 개 시껑 온덴. 것도 나도 몰라신디 우리 두린 때 ᄀᆞᆫ는 거 보민 남을 두 개 시꺼근에 큰 쉐에 헹 두 개 시끄민 이놈이 낭이 진 거라노난 끗지, 끗어.(응, 기둥. 이젠 뭐 숲 나무 건드리지 못하게 한다 뭐한다 해도 옛날은 그거 안 하면 집을 못 지으니까. 자기대로들 가서 마소로 가서 해서 그거 달구지가 있을까? 옛날엔 달구지도 없었대. 그러면 소 길마 지워서 나무 두 개 실어서, 한쪽에 하나씩 두 개 실어서 온대. 그것도 나도 몰랐는데 우리 어린 때 말하는 거보면 나무를 두 개 실어서 큰 소에 해서 두 개 실으면 이놈의 나무가 긴 것이라서 끌지, 끌어.)

108005 @ 맞아.(맞아.)

108005 # 게민 끗어온덴, 끗어. 게민 끗어온덴, 끗어. 영 시끄면 앞으론 영 들러지게 헤도 쉐가 오라가민 조름으론 끗어. 경 안허민 남이 쫄르니까.(그러면 끌어온대, 끌어. 그러면 끌어온다고, 끌어. 이렇게 실으면 앞으론 이렇게 들리게 해도 소가 와가면 뒤론 끌어. 그렇게 안 하면 나무가 짧으니까.)

108005 @ 응.(응.)

108005 # 경허난 그추룩 헤근에 영 홁은 남덜 헤당 또 요런 건 헤당 두 개썩 쫄랑도 허고. 또 진 디 영 헌 서리 ᄀᆞ뜬 건 또 그대로 허고. 경헤영 막 어렵게, 앚앙 엿날 어른덜, 나가 ᄀᆞᆫ는 거 들엇주. 우리 역은 후제는 고짓남을 안 허난 몰라신디.(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렇게 굵은 나무들 해다가 또 이런 건 해다가 두 개씩 잘라서도 하고. 또 긴데 이렇게 한 서리 같은 건 또 그대로 하고. 그렇게 해서 아주 어렵게, 앉아서 옛날 어른들, 내가 말하는 거 들었지. 우리 큰 후에는 숲 나무를 안 하니까 몰랐는데.)

108005 @ 예.(예.)

108005 # 우리 역은 후젠 소남밧이 하서이. 소남 싱근 밧이 하난 그자 이녁만썩 소남덜 베멍 다 집을 짓어신디 옛날엔 곶남 베당근엥에 집을 짓젠 허민 그추룩허영 쉐에 시꺼놓민 지릉지릉 두 개 넘어, 큰 건 두 개 넘어 시끄지도 못허고, 바레기[228]가 이시나, 질이 좋나 헤시민 허주마는 엿날 바레깃질이 어디 시고.(우리 큰 후엔 소나무밭이 많아. 소나무 심은 밭이 많으니까 그저 자기만큼씩 소나무들 베면서 다 집을 지었는데 옛날엔 숲 나무 베어다가 집을 지으려고 하면 그렇게 해서 소에 실어 놓으면 '지릉지릉' 두 개 넘게, 큰 건 두 개 넘게 싣지도 못하고, 달구지가 있나, 길이 좋으나 했으면 하지마는 옛날 달구지 길이 어디 있고.)

108005 @ 바레기가 무신거?('바레기'가 무엇?)

108005 # 바레기엔 헌 거 구루마.('바레기'라고 한 거 달구지.)

108005 @ 아, 구루마.(아, 달구지.)

108005 # 엿날 바쿠 이만은 둥그랑헌 거, 큰큰헌 거, 그런 거 끗는 거 봣지? ᄆᆞ쉬덜 허영, 그런 거. 것ᄀᆞ라 바레기, 옛날에.(옛날 바퀴 이만큼 둥그런 거, 큰 거, 그런 거 끄는 거 봤지? 마소들 해서, 그런 거. 그것보고 '바레기', 옛날에.)

228) '바레기'는 소나 말이 끄는 달구지를 말한다.

108005 @ 아.(아.)

108005 # 또 중간엔 오난 구루마, 구루마헤신디 옛날엔 바레기.(또 중간엔 오니까 '구루마', '구루마' 했는데 옛날엔 '바레기'.)

108005 @ 바레기, 응.('바레기', 응.)

108005 # 거난 우리 두린 땐 그런 것도 못 보고. 역은 후제 그거 봣주. 그걸 무사 역은 후제 그 바레기엔 헌 말을 들어시넨 허민 제국시대에이 우리 역은 후제 그것이 나온 거라. 일본 사름덜 보난 해방 뒈어가난 일로 서구포로 성산포 새 걸엉 가는 거 보면 군인덜 바쿠가 이만썩 높은 바쿠에 허여근에 짐 시끄멍 막. 서구포서 성산포더레 가는 거라. 배로 가젠.(그러니까 우리 어린 때 그런 것도 못 보고. 큰 후에 그거 봤지. 그걸 왜 큰 후에 그 '바레기'라고 한 말은 들었냐고 하면 제국시대에 우리 큰 후에 그것이 나온 거야. 일본 사람들 보니까 해방 되어가니까 이리로 서귀포로 성산포 사이 걸어서 가는 거 보면 군인들 바퀴가 이만큼씩 높은 바퀴에 해서 짐 실으면서 막. 서귀포에서 성산포로 가는 거야. 배로 가려고.)

108005 @ 아.(아.)

108005 # 경허민 신작로로 가는 거 보민 그 바레기들 엿날엔 바레기, 바레기허단 요 중간엔 구루마, 구루마 헤나신디 이 제국시대 나난 그게 낫주. 그전인 그런 거 엇고. 그런 것이 엇엇어.(그러면 신작로로 가는 거 보면 그 '바레기'들 옛날엔 '바레기', '바레기' 하다가 요 중간엔 '구루마', '구루마' 했었는데 이 제국시대 나니까 그게 났지. 그전엔 그런 거 없고. 그런 것이 없었어.)

108005 @ 이디 돌도 놉니까? 바닥에 돌, 주칫돌 같은 거 세와?(여기 돌도 놉니까? 바닥에 돌, 주춧돌 같은 거 세워?)

108005 # 그거이 우리가 집을 엿날엔 요즘은 세멘이라부난 다 막아부난 물이 안 들주마는이 그전인 아무디라도 집 영헌 밧 한가운디라도 집을 짓어놓민 비가 크게 오민 이레 물 들주, 물 들어와이. 겨난 이 마루를 노프게 놓는 거라, 이디.(그거 우리가 집을 옛날엔 요즘은 시멘트라서 다 막아버리니까 물이 안 들어오지마는 그전엔 아무 데라도 집 이런 밭 한가운데라도 집을 지어놓으면 비가 크게 오면 이리 물 들지, 물 들어와. 그러니까 이 마루를 높게 놓는 거야, 여기.)

108005 @ 응.(응.)

108005 # 귀클돌, 귀클돌 허멍 저추룩 돌 헤다근에 노프게 이만큼 노프게 놩. 이 우트레 마리 놓주. 경허민 또 마리 놓민 이디 난간이라고이 또 이 문 베꼇디 또 이서.(귀틀돌, 귀틀돌 하면서 저렇게 돌 해다가 높게 이만큼 높게 놔서. 이 위에 마루 놓지. 그러면 또 마루 놓으면 여기 난간이라고 또 이 문 밖에 또 있어.)

108005 @ 예.(예.)

108005 # 이성 그디 난간 놓고, 이제 육지 영 보민 그 나무 헤당 막 그 남 알르레 짇잖아, 데미는 거.(있어서 거기 난간 놓고, 이제 육지 이렇게 보면 그 나무 해다가 막 그 나무 아래로 쌓잖아, 쌓는 거.)

108005 @ 예.(예.)

108005 # 그거허고 또 그 알르레 칭계 지민 돌, 돌 곱닥허게 가끄멍덜 칭계, 칭계 놩 알르레 ᄂᆞ려사는 거, 그거 잇돌.(그거하고 또 그 아래 층계 지면 돌, 돌 곱게 깎으면서들 층계, 층계 놔서 아래로 내려서는 거, 그거 댓돌.)

108005 @ 잇돌.(댓돌.)

108005 # 응, 그건 잇돌.(응, 그건 댓돌.)

108005 @ 건 잇돌.(그건 댓돌.)

108005 # 잇돌, 잇돌 허여. 육지선 뭐엔 ᄀᆞᆫ는디 몰라도 우리 이디선 잇돌.(댓돌, 댓돌 해. 육지서는 뭐라고 말하는지 몰라도 우리 여기선 댓돌.)

108005 @ 건 ᄒᆞ나만 잇는 거 아니고 쭉 잇는 거? 물 안 떨어지게?(그건 하나만 있는 거 아니고 쭉 있는 거? 물 안 떨어지게?)

108005 # 쭉 허게. 이거 무사넨 허민 이 난간에서 알르레 ᄂᆞ려사젠 허민 노프거든. 요만은 노프난 두린 아이덜이 영 씨러지카부덴 칭계, 칭계 놔줘. 칭계, 칭계 두 칭계.(쭉 하게. 이거 왜냐고 하면 이 난간에서 아래로 내려서려고 하면 높거든. 요만큼 높으니까 어린 아이들이 이렇게 쓰러질까봐 층계, 층계 놔줘. 층계, 층계 두 층계.)

108005 @ 두 칭계. 그디 신발도 벗고?(두 층계. 거기 신발도 벗고?)

108005 # 신발도 벗고. 옛날 어른덜 말이 잇잖여. 각시가 아까우면은 처갓집 잇돌이 아깝나고.(신발도 벗고. 옛날 어른들 말이 있잖아. 색시가 예쁘면은 처갓집 댓돌이 예쁘다고.)

108005 @ 아.(아.)

108005 # 게난 웨 그거 각시가 아까우면 처갓집 잇돌이 아까우넨 허는 건, 각시가 살기 실펑 집이 와불면, 아, 이거 이녁은 살구적 허고 여저는 말젠 허곡 허민 고만이 영 산다 이거라.(그러니까 왜 그거 색시가 예쁘면 처갓집 댓돌이 예쁘다고 하는 건, 색시가 살기 싫어서 집에 와버리면, 아, 이거 자기는 살고 싶고 여자는 않으려고 하고 하면 가만히 이렇게 선다 이거야.)

108005 @ 그디서? 잇돌 우이?(거기서? 댓돌 위에?)

108005 # 응. 잇돌 우이 앚이나 사나 헌덴 허민 그 밋에서 ᄀᆞᆫ는 말로 각시가 아까우민 처갓집 잇돌이 아깝는 거옌.(응. 댓돌 위에 앉거나 서나 한다고 하면 그 밑에서 하는 말로 색시가 예쁘면 처갓집 댓돌이 예쁜 거라고.)

108005 @ 하하하.(하하하.)

108005 # 그거. 그 문저, 그거. 옛날 어른덜 ᄀᆞᆫ는 말이.(그거. 그 문자, 그거. 옛날 어른들 하는 말이.)

108007 @ 예. 게믄 방은 보통 멧 개나 헙니까?(예. 그러면 방은 보통 몇 개나 합니까?)

108007 # 혼, 큰 집덜은 방을이 요거, 요거 혼 큰 방, 족은 방, 방을 세 개 허고, 또 보통으론 방 두 개. 보통으론 방 두 개. 또 영 헌 집은 수정이나 하지 안헌 땐 방 ᄒᆞ나.(한, 큰 집들은 방을 요거, 요거 한 큰 방, 작은 방, 방을 세 개 하고, 또 보통으로는 방 두 개. 보통으로는 방 두 개. 또 이렇게 하 집은 숫자나 많지 않을 땐 방 하나.)

108007 @ 응.(응.)

108007 # 또 것도 잘사는 집인 방도 세 개. 경 안헌 집인 두 개. 우리추룩 이제 못사는 사름덜은 방 ᄒᆞ나. 마리도 엇어, 엿날엔. 쪼금헌 집인 마리도 안 놩 그냥 살아. 이디 검질 꼴앙 방만 놓면. 방 ᄒᆞ나 놔근에 그 방에 눕곡 마루가 어디 셔서? 검질 꼴앙 살앗주, 엿날에. 우리 역은 후제ᄁᆞ장도 보면은 방 ᄒᆞ나 헌 집이, 잘사는 집인 마루도 놓곡 방도 두 개도 뒈곡 세 개도 뒈는디, 좀 못사는 집인 집이 족지. 족게 짓어 놓민 마루 허곡 방 두 개 헐 수가 엇어. 게난 딱 방 ᄒᆞ나 허고 이디 허민 어느 절에 마루 놓곡 그자 검질 꼴앙 이디서. 검질 꼴앙 살아. 엿날 북덕방[229] 북덕방 허멍.(또 그것도 잘사는 집은 방도 세 개. 그렇지 않은 집은 두 개. 우리처럼 이제 못사는 사람들은 방 하나. 마루도 없어, 옛날엔. 조그마한 집엔 마루도 안 놔서 그냥 살아. 여기 검불 깔아서 방만 놓으면. 방 하나 놔서 그 방에 눕고 마루가 어디 있었어? 검불 깔아서 살았지, 옛날에. 우리 큰 후에까지도 보면 방 하나 한 집에, 잘사는 집은 마루도 놓고 방도 두 개도 되고 세 개도 되는데, 좀 못사는 집은 집이 작지. 작게 지어 놓으면 마루 하고 방 두 개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딱 방 하나 하고 여기 하면 어느 겨를레 마루 놓고 그저 검불 깔아서 여기서. 검불 깔아서 살아. 옛날 '북덕방', '북덕방' 하면서.)

108007 @ 북덕방은 무신거라?('북덕방'은 뭐야?)

108007 # 그 마루 엇인 디 검질 꼰 게 북덕방이라.(그 마루 없는 데 검불 깐 게 '북덕방'이야.)

108007 @ 아, 그게 북덕방.(아, 그게 '북덕방'.)

108007 # 안 들어낫지? 북덕방이엔 허여 그것이. ᄒᆞ쏠허민 에이구 북덕방에서 살아난 행실머리.(안 들었었지? '북덕방'이라고 해 그것이. 조금하면 아이고 '북덕방'에서 살았던 행실머리.)

108007 @ 하하하. 경 ᄀᆞᆯ아마씨?(하하하. 그렇게 말해요?)

108007 # 견디 이 추접허게 헤가면은 그거라. 그 말이 나오는 거라. 이 검질 꼰 딘 마루 무신 걸레가 엇어. 다끌 게 엇어. 그자 어떵 허당 검질이 막 몽글아가민 새 검질 헤당 또 꼴앙 소락허게 ᄁᆞ는 거벳긘 다끄질 안허난 겨난 ᄒᆞ쏠 허민 에이구 북덕방에 살아난 행실머리 그거라. 깨끗이 안헌다고 경헌덴 말로 그거.(그런데 이 더럽게 해가면 그거야. 그 말이 나오는 거야. 이 검불 깐 덴 마루 무슨 걸레가 없어. 닦을 게 없어. 그저 어떻게 하다가 검불이 막 뭉개지면 새 검불 해다가 또 깔아서 '소락'하게 까는 것밖에 닦질 않으니까 그러니까 조금 하면 아이고 '북덕방'에서 살았던 행실머리 그거야. 깨끗이 안한다고 그런다는 말로 그거.)

108007 @ 게민 방 말고는 무신거 시렁이나 벡장 같은 것도 만듭니까?(그러면 방 말고는 무엇 '시렁'이나 벽장 같은 것도 만듭니까?)

108007 # 이거, 이거. 이거 시렁, 이거.(이거, 이거. 이거 벽장, 이거.)

108007 @ 이게 시렁?(이게 벽장?)

108007 # 이거 엿날 집에 이거 시렁 잇네, 이디. 궤 놓는 거야, 궤.(이거 옛날 집에

229) '북덕방'은 바닥을 마감 하지 않고 검불 등을 깔아놓은 방이다.

이거 벽장 있네, 여기. 궤 놓는 거야, 궤.)

108007 @ 아, 이 우에 궤 놓는 거?(아, 이 위에 궤 놓는 거?)

108007 # 응, 궤덜 놔근에 옷덜 놔. 요샌 단스[230]니 뭐니 헷주마는 엿날엔 궤 짠에, 짠 궤 낭 영 앞으로 문 영 둥기곡 더껑 허는 거, 그런 궤 놓는 디, 이게. 엿날 집이난 이거라 이거. 이거 엿날 시렁. 요즘은 이추룩 안 헹 멘짝허게 헹 단스 탁탁 들여놔 불주마는 엿날엔 이디 궤 놓는 거 이거.(응, 궤들 놔서 옷들 놔. 요새 옷장이니 뭐니 했지마는 옛날엔 궤 짜서, 짜서 궤 놔서 앞으로 문 이렇게 당기고 덮어서 하는 거, 그런 궤 놓는 데, 이게. 옛날 집이니까 이거야 이거. 이거 옛날 벽장. 요즘은 이렇게 안하고 매끈하게 해서 옷장 탁탁 들여놔 버리지마는 옛날엔 여기 궤 놓는 거 이거.)

108007 @ 응, 이디다가.(응, 여기다가.)

108007 # 응, 이거 궤 놓는 거.(응, 이거 궤 놓는 거.)

108007 @ 혹시 이불상도 헤낫수과? 이불 놓는 상?(혹시 이불상도 했었습니까? 이불 놓는 상?)

108007 # 옛날엔 이불장 엇어낫어.(옛날엔 이불장 없었어.)

108007 @ 이불상, 상.(이불상, 상.)

108007 # 중간에 이서낫어.(중간에 있었어.)

108007 @ 건 어떵헌 거꽈?(그건 어떤 겁니까?)

108007 # 상, 저 이불상[231]이엔 헤근에이, 커.(상, 저 이불상이라고 해서, 커.)

108007 @ 저 상만이. 저 우이 놔진 거?(저 상만큼. 저 위에 놓인 거?)

108007 # 그거보단 커.(그거보단 커.)

108007 @ 거보단 더 커?(그거보단 더 커?)

108007 # 넓이도 크곡 거제 일로 이만은 뒈어, 일로 이만은. 넓이도 거저 이만은 뒈고. 이불 하나 딱 개엉 놓게시리. 저보단 커.(넓이도 크고 거의 이리로 이만큼은 돼, 이리로 이만큼. 넓이도 거의 이만큼은 되고. 이불 하나 딱 개어서 놓게끔. 저보단 커.)

108007 @ 저보단 커.(저보단 커.)

108007 # 건 막 치레허는 사름덜이, 아따 그 집인이 이불상ᄁᆞ장 문 헨 와서라, 영허여. 거 잘사는 사름.(그건 막 치레하는 사람들이, 아따 그 집은 이불상까지 모두 해서 왔더라, 이렇게 해. 그거 잘사는 사람.)

108007 @ 잘사는 사름덜.(잘사는 사람들.)

108007 # 경 안헌 사름은 그자 졍헌 디 시렁 우트레 이불 툭툭 개엉, 어느 절에 포장 출리고 이제난 포장이주. 엿날엔 포장도 엇이.(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저 저런 데 벽장 위에 이불 툭툭 개어서, 어느 겨를에 포장 차리고 이제니까 포장이지. 옛날엔 포장도 없이.)

108008 @ 게민 잘사는 집인 마루 낭으로 헹 깔아?(그러면 잘사는 집은 마루 나무로 해서 깔아?)

---

230) '단스'는 일본어 'たんす'에서 온 말로 장롱이나 옷장을 뜻한다.

231) '이불상'은 이불을 개어서 올려놓는 용도로 사용되는 상으로 발이 조금 굵고 단단하며 밥상보다 높다.

108008 # 낭 가근엥에 저 오려당, 널로. 널로 기계에 강. 기계에서 옛날, 요즘은 기계로 허는디 엿날은 마리 놓젠 허민 영헌 디서 이 톱, 씬톱헤영 양펜으로 사름 상 막 밀력 뚱격허메. 경허멍 오리멍 그 마릴 놓젠 허민 잘도 힘들어이.(나무 가서 저 잘라다가, 널로. 널로 기계에 가서. 기계에서 옛날, 요즘은 기계로 하는데 옛날은 마루 놓으려고 하면 이런 데서 이 톱, '씬톱'해서 양편으로 사람 서서 막 밀고 당기고 해. 그러면서 자르면서 그 마룰 놓으려고 하면 아주 힘들어.)

108008 @ 게난예.(그러니까요.)

108008 # 경헹 마루 놓곡 이 중간으로 이레 이 저 기계 나가난 또 기계에서 강 오려오곡 요즘은 이젠 기자 그루후젠 기계에서 확확헤영 멧 평 헤영 청구허민 널이 나오난 마리 놓단 이젠 마리도 안 놩 이추룩 세멘에 그자 이거 이거.(그렇게 해서 마루 놓고 이 중간을 이리 이 저 기계 나가니까 또 기계에서 가서 오려오고 요즘은 이젠 그저 그 후엔 기계에서 확확해서 몇 평 해서 청구하면 널이 나오니까 마루 놓다가 이젠 마루도 안 놔서 이렇게 시멘트 그저 이거 이거.)

108008 @ 장판 꼴앙예.(장판지 깔아서요.)

108008 # 세멘헨에 장판 확 꼴앙 경헹 살아. 옛날 사름덜은이 우리 두린 때 마리 놓젠 허민 톱이 이만은 커이. 이만은 크민 어디 영헌 디 지둥헹 막 크게 세왕 그디 무꺼근에 낭 세와 놩 막 양펜으로 상 영영 딩기멍 오려. 오리멍, 오려근엥에 그걸 놔놩 대패로. 경허난 아무 집이나 마루가 엇는 거, 옛날에.(시멘트해서 장판지 확 깔아서 그렇게 해서 살아. 옛날 사람들은 우리 어린 때 마루 놓으려고 하면 톱은 이만큼 커. 이만큼 크면 어디 이렇게 한 데 기둥해서 아주 크게 세워서 거기 묶어서 나무 세워놔서 아주 양편으로 서서 이렇게 이렇게 당기면서 오려. 오리면서, 오려서 그걸 놔서 대패로. 그러니까 아무 집이나 마루가 없는 거, 옛날에.)

108008 @ 힘들엉예.(힘들어서요.)

108008 # 힘들어.(힘들어.)

108008 @ 또 대패로 막 밀어야 뒈어?(또 대패로 막 밀어야 돼?)

108008 # 그거 대패로 멘짝 밀어야 헌 따문에 경 안허민 사슬사슬헤영 안 뒈.(그거 대패로 매끈하게 밀어야하는 때문에 그렇게 안하면 까끌까끌해서 안 돼.)

108008 @ 무신거 위에 뭐 칠헤? 또?(무엇 위에 뭐 칠해? 또?)

108008 # 칠허긴 뭐가 칠허냐? 그냥이지.(칠하긴 뭐를 칠하니? 그냥이지.)

108008 @ 그냥이지, 그냥 낭으로예.(그냥이지, 그냥 나무로요.)

108008 # 그냥 멘짝허게 헤영 허민 것도이 자꾸 걸레 뿔멍 멘짝헌 낭이난 물걸레질을 ᄒᆞ꼼 헤여근에 자꾸 걸레질을 허면 오래여 가민 빈찍빈찍 고와가는디, 그자 버물고 아무걸 허고 그자 뎅기다근에 물걸레 ᄒᆞ꼼 영헹 내불곡 허민 시커멍허게 썩엉 뽄도 엇어, 그게. 뽄도 엇어. 애기덜 뎅기당 오줌도 쌍 내불고. 똥도 쌍 내불곡 허민 기자 경헤영 내불민 어떤 집인 가민 똥내가 팍팍 오줌내가 팍팍허고.(그냥 매끈하게 해서 하면 그것도 자꾸 걸레 빨면서 매끈한 나무니까 물걸레질을 조금 해서 자꾸 걸레질을 하면 오래되어 가면 번쩍번쩍 고와 가는데, 그저 더럽고 아무걸 하고 그저 다니다가 물걸레 조

금 이렇게 해서 내버리고 하면 시커멓게 썩어서 폼도 없어, 그게. 폼도 없어. 아기들 다니다가 오줌도 싸서 내버리고. 똥도 싸서 내버리고 하면 그저 그렇게 해서 내버리면 어떤 집은 가면 똥냄새가 팍팍 오줌냄새가 팍팍하고.)

108008 @ 무사 이 마리에 어느 한 쪽드레 화리 닮은 거 놓는 거 이서낫수과?(왜 이 마루에 어느 한 쪽으로 화로 같은 거 놓는 거 있었습니까?)

108008 # 화리 닮은 거?(화로 같은 거?)

108008 @ 부섭?('부섭'?)

108008 # 봉덕[232].('봉덕'.)

108008 @ 봉덕. 응.('봉덕'. 응.)

108008 # 게 잘 들어나신게, 경헤도.(그러게 잘 들었었네, 그래도.)

108008 @ 건 어떵 헤근에 허는 거꽈?(그건 어떻게 해서 하는 겁니까?)

108008 # 봉덕이엔 헌 건이 돌로 판 거라. 네귀방장허게 돌로 파근에 이 마루를 이거추룩, 이거추룩 딱 줄라내어. 이추룩 헹. 돌로 영 판 걸 톡허게 이레 놔. 놩 허민 그 우트레 남불 때엉 불도 심앙 추곡, 또 헤먹을 때는 고기덜 적쉐 탁 걸쳐근에 숯불 살롸. 숯불 살롱 그디서 고기도 굽고.('봉덕'이라고 한 건 돌로 판 거야. 네모반듯하게 돌로 파서 이 마루를 이거처럼, 이거처럼 딱 잘라내어. 이렇게 해서. 돌로 이렇게 판 걸 톡하게 이리 놔. 놔서 하면 그 위에 나무불 때어서 불도 때서 쬐고, 또 해먹을 때는 고기들 석쇠 탁 걸쳐서 숯불 사라. 숯불 사라서 거기서 고기도 굽고.)

108008 @ 아, 마루 한가운데다가 헤여? 어디 혼짝드레 허여?(아, 마루 한가운데다가 해? 어디 한쪽에 해?)

108008 # 혼착드레. 마루 한가운딘 못 헤여. 아이들도 뎅기고 무시거 헤가민.(한쪽에. 마루 한가운데는 못 해. 아이들도 다니고 무엇 해가면.)

108008 @ 마루 혼짝드레 그거 헹.(마루 한쪽에 그거 해서.)

108008 # 경허곡 또 이 마루 엇인 사름덜은 엿날 화리도 엇곡 허난 저영헌 혼 펜드레 저 돌 헤당 영 톡톡허게 네귀방장허게 놩, 놩 그디서 그자 그걸로 이제 그것이 화로 대신 쓰는 거라이, 화로 대신 쓰는 거라. 추워가민 나무 헤당 불 때엉 불 초곡, 또 경 안허민 여름 낭 헤먹을 땐 숯불 살롱 그디서 고기도 굽곡.(그리고 또 이 마루 없는 사람들은 옛날 화로도 없고 하니까 저런 한편에 저 돌 해다가 이렇게 톡톡하게 네모반듯하게 놔서, 놔서 거기서 그저 그걸로 이제 그것이 화로 대신 쓰는 거야, 화로 대신 쓰는 거야. 추워지면 나무 해다가 불 때어서 불 쬐고, 또 그렇지 않으면 여름 나서 해먹을 땐 숯불 사라서 거기서 고기도 굽고.)

108008 @ 이쪽 태흥리드렌 다 그런 거 집집마다 이서낫수과? 옛날에는?(이쪽 태흥리쪽은 다 그런 거 집집마다 있었습니까? 옛날에는?)

108008 # 집집마다도 엇어. 집집마다 엇어근에 허민 게도 화리엔 헤근에 영 돌화리도 이서. 영 들렁 뎅기는 거. 그런 거 놔근에 그자. 그런 거 놩 궤기도 굽곡.(집집마다도 없어. 집집마다 없어서 하면 그래도 화로라고 해서 이렇게 돌화로도 있어. 이렇게 들어

232) '봉덕'은 '부섭'이라고도 하며 마루 바닥에 설치된 돌화로를 말하는 것으로 겨울에 난로 역할을 한다.

서 다니는 거. 그런 거 놔서 그저. 그런 거 놔서 고기도 굽고.)

108009 @ 그믄 고팡, 창고. 이디 어디 우에 집안에 고팡도 잇지예?(그러면 고방, 창고. 여기 어디 위에 집안에 고방도 있지요?)

108009 # 창고가 아니고 고팡.(창고가 아니고 고방.)

108009 @ 응, 고팡.(응, 고방.)

108009 # 이것이 집이 크면은.(이것이 집이 크면은.)

108009 @ 고팡은 어느 짝에 이신 거꽈?(고방은 어느 쪽에 있는 겁니까?)

108009 # 이 펜으로 정지가 허면은 요짝으로 고팡이 뒈고. 이짝으로 정지허민 요디가 고팡이 뒈고 대게는 이 손 영, 우리가 집이 영허민 이짝으로 고팡이 이서. 이짝으론 부엌이라. 손 웬짝으로 영 돌아사민 우리가 영 이 짝으로는 고팡이 아니고 앙팡[233], 앙팡헤여.(이편으로 부엌을 하면 요쪽으로 고방이 되고. 이쪽으로 부엌하면 요기가 고방이 되고 대게는 이 손 이렇게, 우리가 집이 이렇게 하면 이쪽으로 고방이 있어. 이쪽으론 부엌이야. 손 왼쪽으로 이렇게 돌아서면 우리가 이렇게 이쪽으로 고방이 아니고 '앙팡', '앙팡'해.)

108009 @ 앙팡, 앙팡. 앙팡엔 무신거 놓는 거마씨?('앙팡', '앙팡'. '앙팡'엔 무엇 놓는 겁니까?)

108009 # 항.(항아리.)

108009 @ 항, 쏠항?(항아리, 쌀독?)

108009 # 돌항이 어디 시니?(돌 항아리가 어디 있니?)

108009 @ 쏠, 쏠.(쌀, 쌀.)

108009 # 쏠항. 그 쏠 놓곡, 보리고 조이고 헤다근에 저 항을 양춘이엔 헹 엿날엔이 흔 섬 들이엔 헹 열닷 말 들이가 흔 섬이라이. 게민 부젯칩인 강 보민 그런 양춘이를 이디서만이 앙팡이엔 헌 디가 일로 저보다 질어, 허민 쭉허게 놔 가. 그 항 다섯 개를 쭉 놓곡 요 도트렌 쏠 거려먹는 쏠 놓는 항 놓곡 경허민 베림직허여. 경헌 것에 두께 딱딱 더끄멍, 탁탁 더끄멍 이제 쭉 허게 헤영 일로 다섯 개 이쪽으로 다섯 개허민 열 갤 놔. 겨곡 또 막 부젯칩인 저 주지[234], 주지 허멍 주지라고 남으로 막 크게 짜.(쌀독. 그 쌀 놓고, 보리고 조고 해다가 저 항아리를 '양춘이'라고 해서 옛날엔 한 섬들이라고 해서 열닷 말 들이가 한 섬이야. 그러면 부잣집엔 가서 보면 그런 '양춘이'를 여기서만이 '앙팡'이라고 한 데가 이리로 저보다 길어, 하면 쭉하게 놔 가. 그 항 다섯 개를 쭉 놓고 요 입구엔 쌀 떠 먹는 쌀 놓는 항 놓고 그러면 볼 만해. 그런 것에 뚜껑 딱딱 덮으면서, 탁탁 덮으면서 이제 쭉 하게 해서 이리로 다섯 개 이쪽으로 다섯 개하면 열 개를 놔. 그리고 또 아주 부잣집은 저 뒤주, 뒤주하면서 뒤주라고 나무로 아주 크게 짜.)

108009 @ 예.(예.)

108009 # 발 듣정 크게 짜민 이디 탁 허게 놓민 보릴 허나, 조를 허나 허민 흔 서른 말, 서른 말 정도 들주. 소두 서른 말 정도 들지.(발 달려서 크게 짜면 여기 탁 하게 놓

233) '앙팡'은 '고팡'이라고도 하며 곡식 등을 놓아두는 광을 말한다.

234) '주지'는 '뒤주'를 잘못 발음한 것이다.

으면 보리를 하나, 조를 하나 하면 한 서른 말, 서른 말 정도 들지. 소두 서른 말 정도 들지.)

108009 @ 아, 두지.(아, 뒤주.)

108009 # 두지. 건 두지.(뒤주. 그건 뒤주.)

108009 @ 낭으로 짠 거예?(나무로 짠 거요?)

108009 # 낭으로 짠 거, 두지. 그거 놔. 잇당 테레비 보민 두지 소곱에 사름 가두왕 죽인덴 그런 거, 그런 거. 그거라. 엿날 육지서는 주지 소곱에 무신 사름 들여놔근에 밥도 안 줭 그디서 죽염저, 뭐 헴저 허는 그거, 그런 거.(나무로 짠 거, 뒤주. 그거 놔. 있다가 텔레비전 보면 뒤주 속에 사람 가둬 죽인다고 그런 거, 그런 거. 그거야. 옛날 육지서는 뒤주 속에 무슨 사람 들여놔서 밥도 안 줘서 거기서 죽인다, 뭐 한다 하는 그거, 그런 거.)

108009 @ 두지도 놓고.(뒤주도 놓고.)

108009 # 응, 주지 놓고. 부젯칩이덜은.(응, 뒤주 놓고. 부잣집들은.)

108009 @ 부젯칩이덜은예. 게민 그디 저 뭐 바람 통허렌 고망도 ᄒᆞ꼼 뚤라? 앙팡에.(부잣집들은요. 그러면 거기 뭐 바람 통하라고 구멍도 조금 뚫어? 고방에.)

108009 # 앙팡에 고망 요만은 뚤라. 건 무사냐민 공기 통허렌도 놓곡 비 오라가민 또 글로 무시걸 검질롤 막든 비 들이삐지 안허게 고망 막고.(고방에 구멍 요만큼은 뚫어. 그건 왜냐하면 공기 통하라고도 놓고 비 와가면 또 그리로 무엇을 검불로 막든 비 들이치지 않게 구멍 막고.)

108009 @ 거 무신거엔 ᄀᆞᆯ아?(거 뭐라고 말해?)

108009 # 창곰[235]. 고망 그거 창곰. 창고가 아니고 창고망.(창구멍. 구멍 그거 창구멍. 창고가 아니고 창구멍.)

108009 @ 곰예, 창곰.(구멍요, 창구멍.)

108009 # 응, 창고망. 고망이주.(응, 창구멍. 구멍이지.)

108009 @ 고망예. 저 그디 식게헐 때도 그디 강 거 무신거.(구멍요. 저 거기 제사할 때도 거기 가서 그거 뭐.)

108009 # 거 허는 사름은 허고 안 허는 사름은 안 헤. 아무나 안 헤. 이따근에 어떵 허당 그런 거 이상헌 집이 위허는 것이 이서. 경허민 앙팡에 가근에 밥 거려놓는 사름은 거려놔. 안네[236], 안네 허멍 밥을 거려놓고. 게 안헌 집은 우리 집 ᄀᆞ뜬 딘 그런 거 엇어, 아무것도 엇어.(그거 하는 사람은 하고 안 하는 사람은 안 해. 아무나 안 해. 이따가 어떻게 하다가 그런 거 이상한 집에 위하는 것이 있어. 그러면 고방에 가서 밥 떠놓는 사람은 떠놔. '안네', '안네' 하면서 밥을 떠놓고. 그렇지 않은 집은 우리 집 같은 덴 그런 거 없어, 아무것도 없어.)

---

235) '창곰'은 '창꿈, 창굼, 창꼼'이라고도 하며 고방 등에 바람을 통하게 하려고 벽에 조그맣게 구멍을 뚫은 것이다.

236) '안네'는 고방에 모시는 칠성신으로 '안칠성', 또는 '고팡할망'이라고도 한다. 이 신들을 위한 제는 풍농과 고방 안의 곡식을 잘 지켜 부를 이루게 해달라는 의미이다. 명절이나 제사 때 주부가 메·채소 등을 차린 제물을 안칠성의 거처인 고팡의 쌀독 뚜껑 위에 차려 놓는다.

108009 @ 아무것도 엇어.(아무것도 없어.)

108009 # 그런 거 안 헤.(그런 거 안 해.)

108009 @ 허는 집이만예.(하는 집에만요.)

108009 # 허는 집이만 이땅 어떵허당 그런 거 허는 집이 이서.(하는 집에만 이따가 어떻게 하다가 그런 거 하는 집이 있어.)

연구 참여자

이름	소속	분야	구분
김순자	제주학연구센터	국어학(제주도방언)	연구 책임・총괄 성산읍 온평리
김미진	제주학연구센터	국어학(제주도방언)	공동 연구 남원읍 태흥리
강영봉	(사)제주어연구소	국어학(제주도방언)	교열 및 감수
안민희	민요패 소리왓	한국학(제주민요)	조천읍 신촌리
김승연	(사)제주학연구소	한국학(제주무속)	제주시 우도면
허영선	제주대학교	한국학(제주역사)	성산읍 온평리
최연미	돋을양지책드르	국문학	표선면 세화리
권미소	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국어학(제주도방언)	남원읍 태흥리
김보향	제주대학교	국어학(제주도방언)	한경면 신창리
신우봉	제주대학교	국어학(제주도방언)	한림읍 옹포리
김성룡	귀일중학교	국어학(제주도방언)	애월읍 구엄리
현혜림	제주학연구센터		연구 보조
서수빈	제주학연구센터		연구 보조

2019년도 제주어구술자료집 25

발행인 김동전
발행일 2019년 12월 24일
발행처 제주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
63196 제주시 동광로 51(이도1동) 3층
전화 (064) 726-5623 **팩스** (064) 747-6140
누리집 www.jst.re.kr

□ 이 보고서는 출처를 밝히는 한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으나 무단 전재나 복제를 금합니다.